

40th
CLAK

한국평협 40주년 백서

White Paper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사회사도직연구소 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집필진

집필총괄

오용석 | 사회사도직연구소 소장 / 경성대학교 명예교수

공동집필

박순석 |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 양천 평화의집 선교사

변진홍 |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이윤식 |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교수

정찬남 |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 웨스터민스터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은상 |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 좋은세상 행복연구소 소장

조종근 |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 장안대학교 교수

최홍준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한홍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문 / 주바티칸 대사

표지디자인

김주훈 |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평협 40주년 백서

퍼낸날: 2011. 12. 8 퍼낸이: 최홍준 편집인: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퍼낸곳: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주소: (100-809)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 02-777-2013, 757-7851 Fax, 02-778-7427

Homepage: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비매품〉

목 차

40th
CLAK

발간사 최홍준 파비아노	6
축 사 정진석 추기경	8
축 사 염수정 주교	10
격려사 민병덕 신부	12
서언 및 개관	17

제1편 평협 창립 배경

I. 외적 배경 : 보편교회의 평신도 인식 변화	33
II. 내적 배경 :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실천	39

제2편 평협 제10년기(1968~1977)

I. 교회내적 관계	47
II. 선교분야	56
III. 가정·생명·환경 분야	58
IV. 정치 분야	60
V. 경제·사회 분야	63
VI. 사회복지 분야	67
VII. 교육 분야	69
VIII. 문화·언론·출판 분야	72
IX. 국제관계 분야	76
X. 민족화해 분야	78

제3편 평협 제20년기(1978~1987)

I. 교회내적 관계	83
II. 선교분야	93
III. 가정·생명·환경 분야	98
IV. 정치 분야	100
V. 경제·사회 분야	105
VI. 사회복지 분야	113
VII. 교육 분야	115
VIII. 문화·언론·출판 분야	123
IX. 국제관계 분야	126
X. 민족화해 분야	129

제4편 평협 제30년기(1988~1997)

I. 교회내적 관계	133
II. 선교분야	141
III. 가정·생명·환경 분야	148
IV. 정치 분야	154
V. 경제·사회 분야	159
VI. 사회복지 분야	166
VII. 교육 분야	168
VIII. 문화·언론·출판 분야	171
IX. 국제관계 분야	175
X. 민족화해 분야	180

제5편 평협 제40년기(1998~2007)

I. 교회내적 관계	189
II. 선교분야	194
III. 가정·생명·환경 분야	203
IV. 정치 분야	210
V. 경제·사회 분야	217

VI. 사회복지 분야	224
VII. 교육 분야	226
VIII. 문화·언론·출판 분야	236
IX. 국제관계 분야	242
X. 민족화해 분야	245

제6편 평협 제50년기를 위한 반성과 제언

I. 반 성	251
II. 제 언	268

후 기	289

참고문헌	295

부 록

1. 한국평협 연표(1968~2009)	301
2. 평협 발표 선언문·성명서	349
3. 평신도주일 강론 자료	412
4. 평신도 신앙실태조사 분석	534
5. 역대 한국평협 임원명단(1968~2009)	639

발 간 사

평신도들의 사도직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 교회에 평신도들이 기여한 발자취는 아주 뚜렷합니다. 교회 창설에서부터 가성직 시대를 열고, 그릇된 행태를 고치는 한편, 성직자들을 영입하면서 모진 박해에 시달리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평신도 회장과 그 언저리의 봉사자들은 물론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냈습니다. 특히 ‘회장’ 그룹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사제의 복사요, 사목자의 비서이며 공소의 사무장이요, 교회의 선교사로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분들이 감내한 부분은 참으로 많고도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마음 놓고 성삼위 하느님을 믿고 그분 뜻을 행하면서 서로간의 사랑을 실천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2012년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된 지 반백년에 이르고, 이 공의회와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대에 와서도 평신도들은 신앙 선조들의 전통과 봉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공의회가 끝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1968년에 조직한 ‘전국평협’을 비롯해서 각 교구 평협과 교회운동 단체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하기에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그 동안 평협은 「한국평협 20년사」와 「한국평협 30년사」를 발간했으며, 지난 2008년에 평협 설립 40주년을 기해서는 지내온 일을 나열식보다 기술하기보다 평협과 평신도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어떠한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반성할 점은 없는가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모으고 준비한 결과 ‘백서’의 형식을 취해 이번에 이 책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평신도들이 과연 시대정신에 따라서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해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직자가 지시하는 대로 교회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수적 역할을 이행하는 것으로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여겨 그것으로 만족해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여 성직자가 교회이고 평신도는 사목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상을 보여 온 것은 아닌지, 평협 또는 사목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만,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왔는지도 눈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공의회 정신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은 적은 없는지도 헤아려보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은 교계직분에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 자신의 직무에 참여함으로써 각자 나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평신도 스스로가 ‘우리는 교회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더욱 더 분명한 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평신도의 고유한 삶의 자리는 세속입니다. 파견 받은 사도로서 평신도가 수행하는 직무 곧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신도 고유의 자리인 세상 일에 종사하는 가운데 현세질서, 곧 세상을 성화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중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협 안에 설치된 사회사도직연구소를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나름대로 몇 차례 자료 조사와 토론을 거치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책을 펴내는 시점에서 볼 때 어느 면에서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관계자들이 남긴 자료라든지, 생존한 분들의 증언을 더 들었어야 했음에도 완벽을 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미숙하나마 일단 출간함으로써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을 깔아놓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아 오늘 ‘백서’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님과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이신 염수정 주교님과 제위 주교님, 평협 담당사제이신 민병덕 신부님, 그리고 이 ‘백서’를 시작하신 한홍순 전 회장님과 역대 평협 임원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필진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를 통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현 순간 나와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평협 50주년’에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8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최 홍 준 파비아노

축 사



「한국평협 40주년 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백서는 한국평협이 40주년을 보내면서 한국이라는 물리적인 지역 내에서 평신도사도직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노력해 왔는지를 자성하는 마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땅의 하느님 백성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피와 땀으로 성장시킨 세계 유래 없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현대의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훌륭한 신앙선조들의 삶을 이 땅에 이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선조들이 박해를 피해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삶과 행동으로 전했다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평협 40주년 백서」에는 지난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후 사도좌의 원의에 의해 탄생하게 된 한국평협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돌아봄으로써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평신도 사도직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과거 ‘내탓이오’ 운동이나 ‘똑바로’ 운동 등 온 나라 모든 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훌륭한 활동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교회 안으로 움츠러들던 시기도 있었음을 백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한국가톨릭을 11배나 증가시킨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노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톨릭은 이미 한국사회 안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중심에 서게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안배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또한 함께 노력하신 우리교회의 평신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교회의 결실들은 아시아교회 나아가서는 세계교회라는 발에 더 큰 소출을 내기위한 밑거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평협 40주년 백서」는 우리에게 지난 40년을 회상하고, 추억에 잠기게 하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지난날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한국사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과거의 경험과 힘을 모아 더 많은 백성이 더 넓은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데에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수억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영원한 사명”(평신도 그리스도인 35항)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축 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교회에도 1968년 7월 23일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평협)가 창설되고 10월 14일에 ‘평신도의 날’ 제정과 함께 주교회의 인준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지 4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평협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평협 40주년 백서>를 출간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평신도들의 역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값진 신앙 전통입니다. 보편교회 선교의 역사에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의 씨를 뿌리고 싹이 자라게 한 땅은 한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직자 없이 교회의 초석을 세우고 피로써 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선 위대한 평신도들을 신앙의 선조로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반포로 ‘평신도 시대’를 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교령에 명시된 평신도사도직을 모범적으로 활발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평협 결성 후에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많은 부분은 평협 안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백서에는 지난 40년간 평협 활동 내용들이 분야별로 소상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듯이 그 동안 우리 교회와 사회에 평협의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고 공도 컸습니다. 1970년대에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정하상 바오로 등 순교자들의 시성운동을 비롯하여 평신도 재교육과 교회 정기 간행물 보급운동, 도·농 교회간의 자매결연과 교구 평협 간의 친교와 유대 강화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정부패 추방운동, 수요자를 무시한 KBS-TV에 대한 시청료 거부운동은 1970년대 사회 복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신뢰회복운동과 함께 ‘가톨릭대상’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매년 사랑, 문화, 정의 부문의 유공자를 찾아 시상하고 있습니다. 신뢰회복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펼친 ‘내 탓이오’ 운동, 우리상품 쓰기와 우리농산물살리기 운동,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 등도 훌륭했습니다. 서울대교구 평협이 중심이 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특히 1984년 한국 교회 200주년 기념 및 103위 순교

복자 시성식과 1989년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에서 평협이 보여준 적극적 협력은 한국 교회가 역사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새 천년기를 앞둔 1999년에 ‘사귄, 섬김, 나눔’을 통한 ‘서로 사랑하여라’는 주제로 평협이 개최한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와 2000년 ‘새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대희년 평신도대회’는 평협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2001년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이나 2004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운동도 값진 활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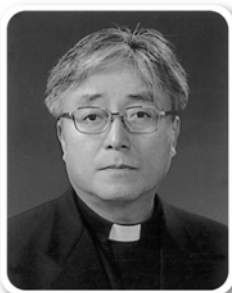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40년간 평협의 활동이 모두 다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1984년 전후로 교회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평신도의안’을 근거로 한 주교회의에 대해 무리한 건의를 한 것이라든지 1987년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주교회의 성명 반박 호소문 발표 같은 일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몇몇 임원들의 의욕이 앞선 데 원인은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1987년에 주교회의가 잠정적으로나마 전국 평협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했는지도 이 백서의 출간을 계기로 하여 성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평신도와 평협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큼니다. 그것은 보편교회 역사에서 유례없이 평신도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이 땅에 신앙의 꽃을 피운 신앙선조들의 전통을 더욱 알차게 계승해야 할 사명을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과 평협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서울에서 우리는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를 캐치프레이즈로 아시아평신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평신도와 평협은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도직 실천을 통해 이 땅의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으로 거듭 나서기를 바라며,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 온 세상에 우리의 신앙 전통의 계승을 전파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

격려사

세상을 위한 평협이기를 바라며



보편교회의 현대사적 지평을 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를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로 선언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평신도들을 위한 공의회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평신도들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한편 평신도들에게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실천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닌다는 사실도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보편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평신도들에게 일러준 소명과 사명 수행을 위해 1968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가 그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40여년이 지났습니다. 평협의 40여년은 한국사회와 교회, 모두에게 전환기적인 세월이었습니다.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련기이며, 성장기에, 우리 교회도 선교 200주년을 기념하고 제3천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이전에 평신도에 의해 세워지고 평신도의 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보편교회 역사상 초유의 평신도 교회였으며, 세상과 보편교회에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세계적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에 참석했던 한국교회 평신도 대표들이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빨리 평협의 출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이후 평협은 아시아와 보편교회에서 괄목할만한 역동적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0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던 것도 평협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지난 40년간 평협은 교회와 사회에 지대한 헌신과 함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 백서에서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평협은 창립 50주년, 장년의 경륜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백서의 “제50년기를 위한 제언”은 평협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평협의 관심이 교회 안에서 세상 모두를 향하는 안목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평신도의 소명을 실천함에 있어, 세상 모든 이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함께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웃 사랑의 범위를 한국사회와 아시아로 넓히고, 필요한 곳이면 세상 어디에서도 평협이 앞장선다는 소명의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평협 40주년 백서」의 출간을 평협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중에 이 백서를 세상에 나오도록 애쓰신 사회사도직연구소의 집필진과 발행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담당사제 민병덕 비오 신부



White Paper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서언 및 개관



40th
CLAK

서언 및 개관

서 언

이 백서는 1968년 7월 23일 한국교회에 평협¹⁾이 창설된 이후 2007년까지 40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0년이라는 연륜은 사람으로 치면 인생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장년기의 시작이다. 평협은 1988년 창립 20주년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평협20년사」²⁾를 발간하여 성년이 된 성장과정을 되돌아보았고, 1999년에는 「평협30년사」³⁾를 출판하여 탄생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왕성한 활동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이제 평협 40주년을 보내고 나서 ‘평협 40주년 백서’를 내게 되었다. 이 책 대부분의 내용이 평협의 지난 40년간 활동을 기술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협40년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평협 40주년 백서’라고 한 까닭은 역대 회장 중심으로 기록된 「평협20년사」와 「평협30년사」와 내용구성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이 백서는 단순히 지난 일을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평협 탄생의 교회사적 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난 40년간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와 분야별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그리고 거기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평협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데 역점이 두어진다. 반성은 철저하게 평협 자체에 대한 반성이고 제언은 그런 반성에서 우리나라의 평협의 새로운 방향의 제시이다.

물론 「평협30년사」에도 반성과 다짐, 새로운 천년대로 나아가는 결의에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동참을 호소까지 하는 글이 실렸다.⁴⁾ 그러나 그것은 본문이 아니라 ‘부록’으로 붙인 글이었고, 내용에서 반성은 한국선교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가 끝난 이후 15년간 사회와 선교·사목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평신도들의 생활의 반성이었지 평협 자체에 대한 반성은 아니었다. 제언은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제안 사항’의 평가에서 성과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교회의 실천 요구였다. 다짐은 일반 평신도의 가정성화와 성직자·수도자·교회의 제자리 찾기, 교회의 사회적·아시아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역할 촉구였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쇄신, 수도자들 본연의 신원과 창립자의 카리스마 회복, 선의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 안에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1) 이 백서에서의 ‘평협’은 과거에 ‘전국 평협’으로 약칭되고 현재는 “한국평협”으로 약칭되는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2011년부터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를 가리킨다. 그 동안 전국 단위 평협의 명칭이 여러 번 변경되어 여기서는 편의상 특별히 구분하여 쓸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협’으로 통칭한다. 다만 교구와 지구 단위 평협들은 교구와 지구 단위 명을 앞에 붙여 써서 구분이 되도록 하였다.

2) 「韓國天主教 平協二十年史」(서울: 韓國天主教平信徒使徒職協議會, 1988), 이하 「평협20년사」로 표기한다.

3) 「韓國天主教 平協三十年史」(서울: 韓國天主教平信徒使徒職協議會, 1999), 이하 「평협30년사」로 표기한다.

4)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이후의 환경변화와 우리의 반성” 「평협30년사」, 1173-1184쪽

동참하기를 호소하는 등 결코 평협이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백서는 ‘평신도 백서’가 아니기에 한국교회 전체의 평신도를 대표하여 보편적인 평신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와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거나 도와주기를 호소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평협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과 사회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것이 이 백서의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 백서는 평협의 과거 문헌과 차별된다 하겠다.

이 백서의 내용 기술의 순서는 먼저 평협 창립의 배경을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보편교회의 인식의 변화와 해방 후 평협 창립 직전까지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으로 나누어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이어 1968년 평협 창립 이후 걸어온 40년의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10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평협의 활동이 어떤 궤적을 그려 왔는가를 살펴본다. 이에 따라 목차는 큰 단락으로 평협 창립 배경, 평협 제10년기(1968~1977), 평협 제20년기(1978~1987), 평협 제30년기(1988~1997), 제40년기(1998~2007)에 이어 제50년기(2008~2017)를 위한 반성과 제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제10년기부터 제40년기까지 매 10년기마다 1)교회내적 관계, 2)선교, 3)가정·생명·환경, 4)정치, 5)경제·사회, 6)사회복지, 7)교육, 8)문화·언론·출판, 9)국제관계, 10)민족화해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내용들은 특성별로 세분하여 살핀다. 이러한 평협 40년간의 활동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과제를 토대로 한 것이 평협 제50년기를 위한 반성과 제언이다. 이제 이 목차에 따라서 백서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기로 한다.

평협 창립 배경

외적 배경은 보편교회의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그 변화는 교황 비오 12세가 1946년 담화에서 “평신도가 바로 교회”라는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데서 비롯한다. 교황 비오 12세는 1951년과 1957년에 제1, 2차 세계평신도대회를 소집하여 보편교회가 훗날 평신도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을 놓았다. 특히, 제2차 세계평신도대회에서 밀라노의 몬티니 대주교가 강조한 “친교와 사랑”은 후에 그가 교황 바오로 6세가 되어 주재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논점들과 함께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과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반영되었다. 이 두 문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평신도로 하여금 하느님 백성의 보편적 성화 소명을 인식케 하는 길을 열었다. 이후 바티칸에 평신도평의회가 설치되고, 평신도평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는 한국교회에 평협 출범을 가속화시켰다.

내적 배경은 한국교회가 평신도의 힘으로 일군 교회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부터 활발한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하여왔다는 점이다. 8·15 해방 후 한국교회에서는 일제 말기

에 활동이 중단되었던 단체들이 부활되거나 새로운 가톨릭 운동단체들이 창설되기 시작하여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평신도 조직화 시도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이를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았다.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 이후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조직화는 1968년 초부터 본당 차원에서 이루어져 평협 창립의 내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평협 제10년기(1968~1977)

교회내적 관계는 평협 창립에서부터 한국천주교의 주교회의, 교구, 단체 등과 평협 간의 관계이다. 1968년 4월 19일 ‘평신자회’ 전국 조직 문제가 주교회의 의제에 상정됨에 따라 5월 27일 주교회의의 “평신자 전국연합회” 구성 준비 승인과 함께 평협의 창립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8년 7월 23일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 중앙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회칙 통과에 이어 초대 임원들을 선임하고 창립선언서를 발표하는 등 조직 결성이 완료되었다. 이어 주교회의는 평협 창립 인준과 함께 매년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사도직의 날’(1970년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로 옮겨지고 명칭도 ‘평신도 주일’로 바뀜)로 정하였다. 교구 평협은 1968년 11월 서울평협 출범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설립되어 평협 제10년기 중에는 8개 교구 평협이 결성된다.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는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다. 작게는 서울 본당들의 제1회 평신도사도직의 날 평신도 강론 거부에서부터 크게는 서울평협 활동정지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관계 속에서 전국 본당의 평협 결성은 매우 부진했다.

선교 분야의 첫 번째 사업은 병인년 순교자 24위 시복 경축행사였다. 전국 규모로 거행된 이 행사는 1968년 10월 3일부터 10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971년 9월 16일 절두산 광장에서 기념미사에 참여한 신자들로부터 김대건 신부 시성축진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1971년 말까지 3개월여 만에 5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협의 이 운동은 순교영성을 직간접적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평협의 활동중지로 그 동안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성시복운동이 힘을 잃기도 하였지만 1975년 9월 서울평협의 활동재개로 평협 활동에도 활기가 되살아나 103위 순교복자시성운동에 다시 나섰다. 이때 주교회의도 평협의 시성시복추진운동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주교회의 이름으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시성 청원서’를 바티칸에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가정·생명·환경 분야 운동은 정부의 반생명적 ‘모자보건법’ 반대였다. 1970년 평협은 김수환 추기경의 사목교서에서 밝힌 반생명적 ‘모자보건법’ 반대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하면서 생명운동에 적극 나섰다. 주교회의가 ‘모자보건법안 반대성명’을

발표하자 평협도 ‘주교단의 모자보건법안 반대성명 지지’라는 제목으로 평협 결성 후 첫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치 분야의 사회복음화 운동은 1970년 평협이 주교회의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사회의 부정부패와 도덕 윤리의 타락을 없애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해 9월 원주문화방송의 권력형 비리에서 발단된 부정부패 추방 쟁기대회가 원주교구에서 교구장 지학순 주교의 선봉으로 개최되자 원주평협이 이에 적극 나섰고 지 주교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원주평협은 지 주교와 구속자를 위한 특별미사를 봉헌하고 사회정의실천기도회를 계속 열었다. 지 주교의 구속과 그의 양심선언 발표는 평협과 주교회의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체의 사회정의 실천 요구로 이어졌다. 1976년에는 3·1절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 서명 인사들과 성직자들의 구속사태 발생으로 서울평협은 ‘구속된 사제와 고통 받는 형제를 위한 사순절 평신도기도문’을 전국 본당에 배포하고, 평협은 3·1사건 관련 구속자들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주최하여 정치적 탄압에 맞섰다. 평협은 1977년 제10차 정기총회에서도 3·1명동사건과 관련하여 고통 받는 인사들을 위한 기도 요청 등 시국선언 4개항을 결의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평협의 첫 활동은 평협 회장 등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그리스도교 아시아 개발회의’에 참가한 것이었다. 그 외에 평협의 이 분야 활동은 별무한 가운데 1973년 2월 평협에 가입한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가 초기부터 평협의 대표적 경제·사회 활동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복지 분야 활동도 평협 첫 10년간은 단지 평신도주일 강론과 메시지나 성명서 등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을 뿐이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1971년 8월 평협이 중앙평의원 회의에서 197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빈곤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주교회의에 건의안을 낸 점이다. 그 해 12월 주교회의는 평협의 건의를 모두 수용하여 교회의 사회복지정책 구체화 작업에 평협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 분야 활동은 평협 초기인 1969년부터 서울, 수원, 마산 평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울과 수원 평협은 주로 새로운 교회상과 평신도사도직을 주제로 한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산평협은 평신도사도직과 선교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평협은 1974년부터 매년 정기총회와 함께 연수회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특강 형식으로 평신도의 사회참여나 교회와 평협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문화·언론·출판 분야 활동은 평협 출범 처음 몇 년간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교회 출판물의 보급, ‘평신도사도직의 날’ 홍보 포스터와 평신도 강론 참고자료 제작과 전국 각 본당과 교회기관 배포, 평협 홍보를 위한 노력들이었다. 1974년에 공의회 문헌에 입각한 평신도 재교육용 교재로서 「생활하는 신앙인」을 출판한 데에 이어 1976년에는 평신도 피정용 교재 「화해와 쇄신을 위한 크리스찬 생활」 2천 권을 발간하였다. 1976년에 평협 홍보부가 신설되고 자체 출판사 등록으로 여러 권의 신

심서와 교육 자료들이 간행되었으며, 1977년 6월 25일에는 계간지로 회보 「평협」이 창간되었다.

국제관계 분야의 첫 활동은 류홍렬 회장 등 평협 대표 3명의 1970년 7월 도쿄에서 개최된 ‘그리스도교 아시아 개발회의’ 참가로서 평협의 국제적 활동 지평을 확대하고 개신교 대표들과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71년 6월에 바티칸 평신도평의회의 요청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단체 현황과 개신교의 현황을 동 평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같은 해 10월에는 동 평의회와 ‘아시아지역 평신도대회’ 개최를 논의하였다.

민족화해 분야에 대한 평협의 초기 접근은 북한에서 혼인 후 월남한 교우들이 한국에서 재혼함으로써 발생한 혼인조당 풀어주기였다. 평협은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배우자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주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평협은 1972년 7월 주교회의에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북한 복음화의 사전 태세를 갖추 필요성에 관한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당시 주교회의의 의장인 김수환 추기경은 이를 수용하여 1972년 8월 15일에 7·4 남북공동성명과 8·3 긴급조치 등 시국문제에 대한 교회의 견해를 밝히는 ‘현 시국에 부치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평협 제20년기(1978~1987)

교회내적 관계에서 평협 20년기는 긴장상태로 시작되었다. 원인은 1978년 1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한 평협 등 5개 전국 단체의 교구 단위 환원과 전국 기구의 명칭과 운영방법 폐지안 제기였다. 평협은 임시총회를 열어 주교회의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전국 단체 폐지론”을 백지화하고 평신도사도직 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후 전국 단체 해체 안건은 주교회의 총회에서 보류되었다. 그 외에도 평협의 평신도주일 헌금 관리 개선 건의와 주교회의 부결 등 평협의 불만 속에서도 서울대교구 주선으로 독자적 평협회관 마련과 인천, 제주, 춘천, 대구, 광주교구 순으로 평협 결성이 완료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화를 이루었다. 평협의 주교회의와의 관계는 계속 불안했다. 1984년 11월에 발표된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 실천 건의로 주교회의와 갈등이 있었다. 1987년에는 주교회의가 평협과 가농에 대한 전국 활동 잠정정지 후에 내놓은 ‘4년 기한부 회칙’을 평협이 수용을 거부했다. 거기에 더해 평협 회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민주쟁취국민운동 천주교공동위원회’ 발족과 평협 회의실에 대통령 선거감시단 운영본부 설치로 교회내부에 찬반양론이 일었다. 주교회의가 교회의 선거 초연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 결과 승복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평협은 ‘한국 천주교 평신도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주교단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선교 분야 사업은 평협이 1970년대 초부터 전개해온 김대건 신부 시성 촉진운동 등 한국교회 선

조들의 선교적 삶에 대한 평신도의 새로운 자각과 이를 통한 선교열기의 확산 노력으로 이어져 각 지역의 순교자 현양대회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978년부터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인 1981년까지 매년 10월 서울대교구 후원 전국 가톨릭 중·고생 웅변대회 개최와 한국 선교 200주년 기념사업에 평협은 중추적 역할을 맡아 소임을 다했다. 평협은 1982년부터 사랑, 정의, 문화 분야에서 공이 큰 교회 내외의 인사를 선발하여 ‘가톨릭대상’을 제정·시상함으로써 교회를 알리고 일선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평신도 발굴과 우리 사회의 복지증진 및 복음화를 위한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가정·생명·환경 분야의 평협 제20년기 활동은 가정과 여성에 관한 연수회와 심포지엄 개최였다. 평협은 1978년 9월 지방교구 여성대표, 가톨릭농촌여성회 임원, 서울대교구 본당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과 여성 주제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서울평협은 1979년 6월 서울대교구 본당 부녀자들을 위한 연수회를 열었다. 심포지엄은 1982년과 1983년에 2차에 걸쳐 평협이 개최한 혼인, 생명, 가정과 여성에 관한 것이었다.

정치 분야에서 평협 제20년기는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신군부의 제5공화국, 1987년 6·10 민주항쟁 승리 때까지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하여 반인권적 군사독재와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되었다. 이 시기에 평협은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 말기인 1978년과 1979년에 “농민을 살리고, 교회 탄압 중지하라”고 촉구한 대정부 건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교구 평협과 함께 교회탄압 항거에 앞장섰다. 이어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야기된 불의와 부정, 인간존엄성 말살에 항거한 교회와 함께 성명서 발표와 특별 기도회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였다.

경제·사회 분야 활동은 점차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 표명 등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된 사향의 시정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뢰회복운동, KBS TV 시청료 거부운동을 통한 소비자권익보호와 같이 사회현실 개선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정치적 혼란과 민주화운동과 연계한 가농의 도·농 유대 강화와 농정문제 시정 노력은 줄기차게 이루어졌다.

사회복지 분야 활동은 평협 제20년기에 접어들면서 각 교구 평협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평협이 협의체로서 산하에 직접 사회복지기관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그에 따라 평협은 평협에 가입한 사회복지단체 활동과 각 교구 평협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을 뒷받침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 정책 수립 등에 역점을 두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앞 10년기 때와 마찬가지로 각 교구와 본당 단위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평협의 교육 활동은 제20년기에 그 형태도 확대되어 평신도사도직 세미나와 평신도 심포지엄, 평신도 신앙대학 강좌 등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1986~198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크게 돋보였다.

문화·언론·출판 분야 활동은 1978년 1월 1일에 서울평협 회보 「가톨릭 서울」 창간으로 시작되었으나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한 전국 평협 해체론의 대두로 평협 회보 「평협」이 1978년 1월 28일 제2호로 발행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평협은 1978년에 묵상집 「말씀과 더불어」를 낸 후 1986년까지 6권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중심이 된 교회 탄압 소식이 주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공보부 장관 명의를 ‘주보 발간중지 통고’(1978.10.16)를 교회에 보낸 데 대해 평협은 1978년 11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하고 주보 발행금지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여 뜻을 이루었다. 1985년 5월 31일에는 「인천평협」이 창간되었다.

국제관계 분야의 활동은 1983년 아시아 평신도회의에서 평협 대표가 제안하여 확정된 ‘제1차 동북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무산시킨 오점은 있었지만 평협은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984년 가을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 회의 참석, 한홍순 교수의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위원 임명, 1987년 10월 제7차 세계 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참석 등은 괄목할 만하다.

민족화해 분야 활동으로 한국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안에 설치되었던 ‘북한선교부’가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로 바뀌고 1985년에 북한선교위원회 산하에 후원회가 결성되자 여기에 평협의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여 평협 활동과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평협의 독자적 활동은 없었다.

평협 제30년기(1988~1997)

교회내적 관계의 큰 이슈는 1988년 평신도의 신원과 사도직을 보다 명확히 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발표이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1988년 ‘7·7 선언’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의 독단적 문규현 신부 평양 파견 사태에 대해 평협이 1989년 8월 평신도들의 호소문을 발표하여 주교단에 맞선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동을 비판하여 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데 앞장선 점이다. 평협 정체성 확립 등 서울평협의 총 12개 항 건의문에 대해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과 서울평협 상임위원들과의 간담회는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1990년 8·15 광복절에 서울평협의 북한 신자 서울초청이 교구로부터 교도권 차원의 행위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은 후 평협의 대북 관련 활동은 침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3년 평협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서 교계와 평협이 서로 나누었던 축하와 다짐은 갈등으로 얼룩진 교회내적 관계를 조화로운 관계로 복원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평협은 1980년대 말부터 평협 활동 자체를 평신도의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한 ‘평신도 제자리 찾기’라는 관점에서 상임위원회 때마다 개최지역 교구 평협의 활동 상황을 청취하고 친교의 시간을 갖는 등 이해와 협조의 장을 마련하였다. 1994년 3월 주교회의 총계정기총회는 평협 및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교회의에 전국위원회 기구로 평신도사도직위원회(평사위)를 설

립하였다. 1997년에는 평협 상임위원회에서 평신도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각 교구에 ‘평신도국’ 설치, 평신도의 교구 의사결정 참여를 주교회회의에 건의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선교 분야의 평협 활동은 1989년의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용서와 화합으로 민주화에 기여하고 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한다는 목표로 새롭게 전개되었다. 1990년 ‘내 탓이오’ 구호는 교회 안팎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해외교민사회와 세계평화봉사단의 ‘내 탓이오’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정신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1989년 10월 4일부터 5일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번째 방한으로 치러진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의 준비 단계부터 서울평협을 비롯한 전국 평협 전체가 수차의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정신운동으로 신뢰회복운동과 사랑의 실천운동인 ‘한마음 한몸 운동’ 등이 추진되었다. 대회 후 평협은 그리스도인다운 성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한편, ‘한마음 한몸 운동’을 중심으로 신뢰회복운동 활성화에 진력하였다. 1990년대 중반 대구평협의 ‘선교 1·3 운동’과 원주평협의 교회 출판물 보급 및 독후감 쓰기 운동, 성서 필사 운동, 목주기도 1백만 단 봉헌 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1997년에는 2000년 대회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확정된 사업계획 중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 사업, 청소년 복음화 사업, 선교 활성화 사업을 벌였다.

가정·생명·환경 분야에 관한 평협의 관심은 1990년대 초에 신뢰회복운동과 ‘내 탓이오 운동’을 통해 표출되었고, 수원평협의 임신중절과 환경문제 설문 조사결과 문제점이 비교적 심각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후 평협은 정부의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와 평신도 환경선언 발표 등 보다 적극적인 생명·환경운동을 펼쳤다. 1990년대 후반에는 가정에 눈을 돌려 도덕성회복운동에 가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 중심의 행사에 주력하였다. 평협의 ‘가정의 날’ 제정 건의, 원주 평협의 ‘가정주일’, 서울평협의 ‘부부의 날’ 행사가 그 예이다.

정치 분야에서 평협은 전국 56개 단체와 함께 1992년 초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에 참여하여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고, 안동평협은 ‘14대 총선에 임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성명으로 발표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선거 때 평협은 선거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비리와 부정부패, 생명경시 풍조, 윤리와 도덕의 파괴 현상을 바로 잡으려는 도덕성회복 운동의 차원의 캠페인을 벌였다. 광복 50주년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한 1995년 광복절에 평협은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을 발표하여 인권존중과 동서지역감정 극복을 호소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청하였다. 1997년 9월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를 발표하여 정치인들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악용하는 일을 삼가고, 언론인들은 공정한 보도를 하며, 또 국민들은 공명선거의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청했다.

경제·사회 분야의 활동은 평협 단체 회원으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가농의 생명공동체와 도농공동체운동이 돋보였다. 1990년 2월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선언 이후 가농은

생명공동체운동의 전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유기농산물 직판사업에 관심을 돌렸다. 10개 연합회를 교구 농민회 체제로 정비하는 등 체제를 개편하였다. 1991년 시작된 ‘우리 밭 살리기 운동’은 5년 만에 전국 69개 군 700여명의 생산자를 조직 관리할 만큼 성공했다. 1992년 6월 시작된 평협의 ‘우리상품쓰기 운동’과 ‘자원 재활용 운동’은 전국 교구 평협들의 적극적 참여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UR협상과 쌀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평협은 1993년 12월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에서 “우리 농촌은 우리가 살립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994년 4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들어갔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평협은 거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치·낭비 추방과 근검절약에 앞장섰다. 1997년 11월 상임위원회는 성명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채택하였다.

사회복지 분야 활동은 1989년 4월 평협 상임위원회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안건을 의결하고, 1990년에 평협 사회복지분과위원회가 신설되어 활발해졌다. 1992년부터 매년 예산의 일부를 교구 평협의 이웃돕기에 할당하여 각 교구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평협과 서울평협이 사회복지분과를 신설하여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교구 평협에서도 사회복지분과 신설로 적극적인 사회복지 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서울대교구가 교구장의 사목지침에 따라 본당과 단체의 예산 10%를 이웃과 나눔에 쓰도록 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점이다.

교육 분야 활동으로 평협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평신도사도직 연수프로그램이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져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서울평협이 1989년 3월 18일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주최한 ‘신뢰회복을 위한 가정과 청소년’ 주제의 심포지엄에는 성직자, 부부, 청소년 등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문화·언론·출판 분야 활동으로 1988년부터 공부하는 평신도상 정립을 위해 평신도와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을 엮어 보급하는 등 활발한 출판 사업을 펼쳤다. 평협이 주도한 신뢰회복 운동과 ‘내 탓이오 운동’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스티커·강론자료 배포와 1991년 9월 ‘내 탓이오’ 주제 문예작품 공모 등 활발한 홍보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1989년 6월에는 「평협20년사」 발간과 1989~1994년 제주, 마산, 원주 등 교구평협의 회보 창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994년 2월에 「한국평협」 속간 31호가 발행되었다. 1995년 12월에는 전주평협의 「전주평협 25년사」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국제관계 분야에서는 1989년 3월에 평협 국제협력분과가 설치되어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준비와 아시아주교회의 평신도위원회와의 관계 발전 등 대외적인 협력관계 증진에 나섰다. 1989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에서 제3차 회의를 한국에 유치한 평협은 1992년 8월 안양 나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를 주제로 한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를 개최하고 1994년 9월에는 제1차 아시아 평신도회의를 수원 아론의 집과 마리아폴리 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서울평협은 나가사키평협과 맺은 자매결연협정에 따라 1991년 8월 15일 한·일 공동 기념 미사와 한·일 화해미사를 봉헌했고, 대구평협 임원들은 1991년 8월에 대만 타이중교구 방문 활동을

별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김수환 추기경이 걸프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한 기도를 호소함에 따라 서울평협은 ‘평화를 간구하는 호소’를 발표하고, 평협은 특별 9일기도 봉헌과 걸프전 종식과 평화를 위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문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 성명서 발표도 국제 분야 활동으로 특기할 만하다.

민족화해 분야는 1980년대 말 이후 동서냉전구조 해체로 북한의 종교정책에도 변화가 생겨 남북한 교회 간 교류의 물꼬가 트이자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에 북한 신자 공식 초청이 시도되었다. 서울평협은 북한 교회와의 접촉을 추진했지만 북한 교회에 대한 교도권 문제 대두로 중단되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교구에 민족화해위원회가 설치되고 평양교구장 서리 자격으로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이 추진됨에 따라 평협도 북한 선교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 일차적 노력은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의 전개였다. 1995년 가을 뉴욕에서 교계 차원의 남북한 천주교 관계자들의 세미나가 열렸고 거기에 평협 회장 등 3명의 평협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것은 1988년 10월 북한 장충성당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접촉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었다. 1997년도 평협 정기총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실천, 국수나누기 등 북한 동포와의 나눔에 적극 참여, 통일적금운동 전개로 민족화해를 위한 평협의 노력이 실천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회에서 수원교구는 통일적금 적립을 시작했고, 서울대교구는 1996년부터 민족화해학교 운영과 국수나누기운동의 실천을 보고했다.

평협 제40년기(1998~2007)

교회내적 관계는 교구별로 다른 평협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2000년 대희년과 새 천년기를 앞두고 대전, 대구, 제주교구의 조직개편으로 평협조직이 바뀌었다, 대전교구는 평협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 결정으로 지구 단위 평협을 발족시켜 평신도 활동의 외연을 넓혔다. 대구대교구는 교구 시노드를 거쳐 교구 조직의 총괄적 개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평협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율적, 수동적으로 평신도단체협의체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제주교구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입각한 능동적 판단에 따라 본당 사목협의회와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사목협의회로 통합하고 직간접으로 선출된 사목협의회 회장들로 평협을 구성하게 하였다. 서울평협은 2004년 ‘비전회의’를 거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움직임이 있었으나 회칙개정은 부분적 수정에 그쳤다. 마산평협은 교구의 ‘비전-1030운동’ 지원을 위해 평협이 모든 평신도 활동을 통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에 나섰다. 이와 같은 교구평협들의 각기 다른 조직개편은 교구별 교회내적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평협의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선교 분야 활동의 시작은 2000년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대희년” 준비였다. 이를 위해 평협은

1998년 3월 31일에 ‘사회교리실천본부’와 ‘대희년준비위원회’를 신설하고 평신도들이 2000년 대희년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천덕목을 제시하였다. 2000년 10월 평신도대회를 전후하여 교구별 대희년 행사가 열렸다. 1999년 8월 ‘선교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은 21세기의 새로운 선교 방향의 제시였다. 1999년 10월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에서 ‘서로 사랑하여라-사김·섬김·나눔’을 주제로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가 평협의 주최와 서울평협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그리스도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를 주제로 선교대회 성격을 가미한 대희년 행사는 2000년 10월 26일 교구 평협별 개막미사로 시작되어 10월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본행사의 막을 올림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이날 행사는 기조강연, 선교체험 사례발표, 선교대상 및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엄미사의 순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2000년 대희년 이후 각 교구 평협들은 새로운 선교 방법의 모색과 새로운 복음화 운동 전개에 나섰다. 춘천, 안동평협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선교대책, 청주평협의 ‘50실천운동’, 부산, 서울, 마산평협 주최 신앙대회, 서울평협의 ‘복음화 2020운동’을 위한 선교포럼에 이어 개최된 2007 선교대회는 그러한 새로운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가정·생명·환경 분야의 활동은 2000년 3월 주교회의의 ‘모자보건법 폐지 백만인 서명운동’에서 시작된 주교회의 ‘생명31운동’에 평협이 적극 참여한 것과 2004년 3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가운동’ 결의문 채택과 평신도 가정과 사회의 위기극복 운동을 편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2005년 12월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법 통과에 따른 국회의원 등에게 생명관심 촉구 서한 발송, 2005년 12월 서울평협의 가정포럼과 세미나 개최, 2007년 평협의 평신도학교 생명·환경과정 개설 활동이 이루어졌다.

정치 분야에서는 199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동서지역분열에 대한 동서화합기도, 2000년 대희년맞이 정의·평화 대토론회 개최, ‘국민화합운동연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정치관련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2001~2003년에는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정화를 위한 ‘똑바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2004년에는 개신교 평신도단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평협 제40년기 활동은 거국적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경제·사회 분야 활동은 한국경제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특별기도회’개최,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 발표, ‘실직자를 위한 사랑나눔기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평협은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운동’, ‘실직가정 돕기 범국민 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교구 평협들도 나눔 실천으로 경제 난국 극복에 나섰다. 또한 평협은 1998년부터 매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도·농공동체 나눔 한마당 잔치’를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주최하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공동으로 경제·사회 문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사회 복지 분야 활동은 주로 교구 평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부산평협의 독거자 돌보기 운동과 서울평협의 주민맞춤형 복지활동 모색이 돋보였다.

교육 분야 활동은 1998년 평협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평협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평협 세미나를 비롯하여 2000년 대회년 준비관련 평협 연수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서울평협의 사목회장과 회장단 대회년 특별연수, 부산평협의 ‘교회발전과 평신도’ 주제 심포지엄 등이 그것이다. 2000~2007년 평협 상임위원회에서는 특강, 세미나, 포럼 등 평협 임원을 대상으로 한 풍성한 교육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밖에 서울평협의 교육이 연이어져 노인지도자 연수, 여성지도자 교육, 비전회의의 워크숍과 임원학교, 하상신앙대학이 마련되었다. 또한 서울평협은 2007년 회칙을 개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의 운영방법을 변경하였다.

문화·언론·출판 분야 활동은 강원 동해시 평협 주최 ‘대회년맞이음악제’에서 시작되어 여러 교구 평협의 전주교구 가톨릭예술단 초청 국악뮤지컬 ‘님이여 사랑이시여’ 공연으로 이어졌다. 평협은 2006년과 2007년 4월에 서울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 2주기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서울평협은 2005년부터 평신도주일 기념 성가합창제를 개최하고, 평협은 2007년부터 우리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과 수상작 발표회를 갖고 있다. 출판활동으로 「평협30년사」 발간, 서울평협 회보 「가톨릭 서울」의 「서울평협」으로 변경 발간, 「부산평협」 창간, 「수원교구 평협사」 발간, 서울평협의 「아름다운 가정」 발간, 평협 회보 「한국평협」, 「아름다운 세상」, 「평협소식」 발간과 서울, 광주 평협의 도서출판 등이 있었다. 평협과 교구 평협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이루어졌다.

국제관계 분야에서 평협 대표들의 각종 국제회의 참가가 많았다. 1998년 8월 동아시아 평신도대회 참가부터 2007년 9월 UNUM OMNES 운영위원회 참석까지 이어졌다. 특히 한홍순 평협 회장은 보편교회의 대표적 아시아 평신도로서 그의 독보적 활동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평협은 2005년 방글라데시 교회 지원을 시작으로 지진피해 구호기금을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보내고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파당교구에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민족화해 분야에서 1998년은 중요한 해였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최창무 주교와 함께 평협 대표들의 평양 방문으로 북한 종교계 지도급 인사 면담 성사, 청주평협과 대전평협의 대회년 준비와 교구설정 기념 북한동포 돕기 운동 전개, 평협 민족화해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평협 제50년기를 위한 반성과 제언

반성은 보편교회의 평신도 인식 변화에 따라 주교중심의 일치에 충실했는가에서 출발한다.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는 평협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과 평협이 창립된 지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반성 차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분야별 활동 내용은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실질적 활동보다 피상적 활동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정치 상황과 평협회장의 성향에 따라 전체적인 활동의 일관성이 부족했거나, 경제·사회·복지 활동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교육활동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평협의 회보 발간 상황은 전혀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었고 인터넷 활용 수준도 매우 낮았다. 국제 활동과 남북관계의 경우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컸다. 평협이 펼친 운동은 교회정신에 입각한 가치보다 인기 영합적인 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필요한 운동이 전개되지 못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많은 반성의 여지를 남겼다.

제언은 평협 반세기를 정리하게 될 제50년기에 평협이 더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첫 번째 항목은 사회교리에 입각한 ‘정의’를 확고한 평협의 중심적 가치관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항목은 평협의 중심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실천이 뒤따르게 할 수 있는 교육과 실천 역량의 강화이다. 세 번째 항목은 평협의 활동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 수도자의 활동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차별화되는 평협 활동의 방향의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네 번째 항목은 평협의 대외적 이미지는 가난한 교회의 이미지와 같아야 하기에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평협상(平協像) 구축의 논리를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밝히고, 다섯 번째 항목으로 그 실천 운동의 여러 대안들이 제시된다. 여섯 번째 항목은 한국교회의 특수사목 영역인 통일사목에 대한 평협의 실천 영역 구축을 위한 과제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제언 항목은 평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평협의 조직 인프라 구축과 기능 확대의 차원에서 평협 사무국과 사회사도직연구소의 개편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White Paper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평협 창립 배경

- I. 외적 배경 : 보편교회의 평신도 인식 변화
- II. 내적 배경 :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실천

40th
CLAK

I. 외적 배경: 보편교회의 평신도 인식 변화

교황 비오 12세의 “평신도가 바로 교회”라는 선언과 1951년과 1957년 제1, 2차 세계평신도대회는 보편교회가 훗날 평신도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된다. 특히, 제2차 세계평신도대회에서 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되는 밀라노의 몬티니 대주교가 강조한 “친교와 사랑”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신원과 역할에 관한 주장들과 함께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과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반영되었다. 이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평신도로 하여금 하느님 백성의 보편적 성화 소명을 인식케 하는 길을 연다. 이후 바티칸에 평신도평의회가 설치되고 평신도평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는 한국교회에 평협 출범을 가속화시킨다.

보편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사상 대두

로마제국 후기 보편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이며 성서학자였던 성 히에로니무스(St. Hieronymus)가 “사제 없는 교회는 없다.(Ecclesia non est quae non habet sacerdotes)”⁵⁾라고 했듯이 전통적으로 보편교회에서 평신도(laity)는 축성된 성직자와 반대되는 존재였다. 즉, 그들은 축성되지 않은 존재로서 목자(성직자)의 다스림을 받는 양떼에 불과하였다. 성직자와 비성직자를 성(聖)과 속(俗)으로 구분하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상은 중세 교황 그레고리오 7세의 이른바 그레고리오 개혁(Gregorian Reform)으로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라테란 공의회(1215)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교회의 구성 요소를 명문화⁶⁾한 이래 그 영향은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⁷⁾

교회에서 성직자의 절대적 우위 사상은 20세기까지 이어졌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교회를 이끌었던 교황 레오 13세는 성직자에게 복종하고, 성직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잘 실행하고, 성직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평신도의 의무라고 하였다. 평신도 신학의 대가인 이브마리 콩가르(Yves-Marie Congar, OP) 신부는 그의 저서 「평신도신학서설」에서 “어느 추기경은 ‘평신도란 제대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강론대 앞에서는 앉아서 들으며 손은 항상 지갑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했다.”⁸⁾고 기술했을 만큼 성직자들에게 평신도들은 하찮은 존재였다.

5) Sanctus Hieronymus, *Commentarius in Ecclesiasten*, 10, 11: CCL 72, 338 (PL 23, 1096).

6) 「한국 가톨릭 대사전」 11(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8912쪽.

7)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은 평신도를 성직자와 수도자들과 동격(aequaliter)으로 선언하면서 서도 여전히 “성품(聖品)의 구성원(clergy)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religious)의 구성원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평신도를 정의하였다.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31항 참조.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와 보편교회에서 평신도에 대한 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교황 비오 12세가 1946년에 평신도에 관해 가히 혁명적인 언급을 한 데서 비롯하였다. 교황은 1946년 2월 20일 새 추기경에 대한 담화에서 “신앙인들, 보다 정확하게 평신도 신앙인들은 그들 자신이 교회 생활의 일선에 있음을 안다. 그들에게 교회는 인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 즉 모든 이의 수장인 교황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의 리더십 아래 있는 지상의 신앙공동체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들이 교회이다.”⁹⁾라고 천명한 것이다. 이 말은 실로 ‘평신도 시대’의 선언이었다. 그러기에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인용하였고,¹⁰⁾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특별히 이를 인용하여 강조하였다.¹¹⁾

그리고 교황 비오 12세는 ‘평신도 시대’를 여는 선언적 언급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감한 결단을 실행에 옮겼다. 그것은 바로 1951년과 1957년에 평신도를 정대표로 하고 성직자를 옵서버로 하는 제1, 2차 세계평신도대회를 소집한 것이다. 보편교회에서 평신도가 정대표가 되고 성직자가 옵서버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1차 세계평신도대회는 1951년 10월 7~14일 로마에서 개최되어 74개국 대표, 38개 가톨릭 국제 단체 대표, 정치적 망명 중인 17개 인종 집단이 참가하였으며, 한국교회는 6·25전쟁으로 참가하지 못하였다.¹²⁾ 이 대회에서는 본당, 가정, 여성, 노동 등이 주제로 다루어졌지만, 평신도사도직 교리에 관해서 상반된 두 의견이 맞섰다.

봄베이 대교구장 발레리안 그라시아스(Valerian Gratias) 대주교는 교회 사명에 대한 평신도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벨기에의 조세프 카르댕(Joseph Cardijn) 신부는 세상에서 평신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는 진보적인 입장인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안토니오 카시아노(Antonio Casiano) 추기경은 평신도사도직이 교계제도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였다.¹³⁾

제2차 세계평신도대회는 1957년 10월 5~13일 ‘현대세계 위기에 있어서의 평신도, 그 책임과 조직’이라는 주제로 로마에서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 아시아 19개국, 유럽 33개국, 아프리카 18개국, 남북 아메리카 20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등 82개국 대표와 옵서버 3천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교회도 평신도 대표 10명과 성직자 옵서버 8명을 파견하였다.¹⁴⁾

8) 양한모, “신도신학서설,” 「가톨릭 서울」 1978.1.1, 2면에서 재인용.

9) Pius XII, Discourse to the New Cardinals, February 20, 1946: AAS 38 (1946), 149.

1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9항.

11) “Pope Benedict XVI emphasizes that the laity are co-responsible for the Church,” (March 9, 2010) www.zimbio.com/Pope+Benedict+XVI/articles/FSJQn-HxrPQ/Pope+Benedict+XVI에서 재인용.

12) 「평협20년사」, 77-78쪽.

13) “제 1차 세계 평신도 대회(1951년)” 순례자(2008.10.08) <http://blog.daum.net/fhwmafl/6844/7586260>

14) 「평협20년사」, 79쪽.

이 대회 개막 연설에서 비오 12세는 평신도사도직과 가톨릭 액션을 구별하여 가톨릭 액션은 주로 교계제도의 행동하는 팔(arms)이라고 보았다.¹⁵⁾ 이 대회의 주요한 신학적 주제의 하나는 평신도를 긍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¹⁶⁾ 분과 토의는 전적으로 사도직을 위한 평신도 양성 문제에 집중되었다.¹⁷⁾

특히, 1954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밀라노 대주교로 임명된 몬티니(Giovanni Battista Enrico Antonio Maria Montini) 대주교가 이 대회를 이끌었다. 그가 대회 연설에서 사도직의 특질로 역설한 “친교와 사랑”은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반영되었다.¹⁸⁾ 몬티니 대주교는 그를 추기경으로 서임하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소집한 교황 요한 23세가 1963년 6월에 서거하자 교황으로 선출되어 보편교회 현대사의 일대 전환점이 된 공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오로 6세 교황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채택된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 가운데서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Lumen Gentium, 1964.11.2)과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1965.11.18)은 평신도의 신원과 그 사도직을 새롭게 규정한 문헌으로 평협 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이 두 문헌은 1987년 10월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20년을 지낸 교회와 세계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한 세계 주교대의원회(시노드)의 후속 문헌인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12.30)에서 재조명된다. 이 권고는 평신도들이 성직자 수도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여 이 세상을 복음화 하여야 하는 소명과 사명을 깨우쳐 주고 있다.

15) “Guiding Principles Of The Lay Apostolate,” www.papalencyclicals.net/Pius12/P12LAYAP.HTM

16) 그 당시 콩가르(Yves-Marie Congar), 쉴레벡스(Edward Schillebeeckx), 라너(Karl Rahner), 발타사르(Hans Urs von Balthasar) 같은 저명 신학자들은 성덕(聖德)을 이루는 것은 수도자나 성직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평신도들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미국 가톨릭 평신도 지도자들은 모범적인 평신도는 무조건 순종하는 신자라는 생각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7) 이 대회의 메시지는 당시 한국 부통령 장면(John Myun Chang) 박사를 비롯한 각 대륙, 각 분야의 저명한 평신도 20명이 기고하여 처음에 *Le Monde Attende l'Eglise*(Paris, 1957)로 출판되고 뒤에 영문판 *World Crisis and Catholic: Studie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Second World Congress for the Lay Apostolate*(Boonville, NY: Preserving Christian Publications, 1958) 외에 독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일어로도 번역 출판되었다.

18) 한홍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서울평협, 「공의회 학교」 제2권(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122쪽.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평협 창립의 직접적 배경

현대 가톨릭교회에서 평신도로 하여금 하느님 백성의 보편적 성화 소명을 인식케 하는 길을 열어 마침내 교황 비오 12세가 연 ‘평신도 시대’를 활짝 꽃피우게 한 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Concilium Vaticanum Secundum)이다. 1962년 10월 20일부터 1965년 12월 8일까지 열린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보편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운데 하느님 백성으로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에는 비록 교황 비오 12세 이후에 평신도에 대한 인식에 혁명적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관점에서 평신도는 여전히 ‘듣고 따르는 교회’라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진행 과정에서부터 성직자 중심주의가 배제되고 평신도의 신원을 확실히 전면에 내세웠다. 인도의 테수자(D’Souza) 대주교는 공의회에서 평신도를 성인으로 보아야 할 때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제시한 “주교 없이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¹⁹⁾는 원칙을 남용하지 말 것을 동료 주교들에게 권고하였다.²⁰⁾ 그는 주교를 거스르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지만 주교의 직접 협력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을 형제로 대해야 하며 더 이상 평신도 고유의 책임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²¹⁾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 평신도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능동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존재”²²⁾로 바뀌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하여 현대사회의 시대 징표를 읽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그에 따라 “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 시대의 특징을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명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²³⁾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의무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수행해야 하며, 특히 평신도들에

19) 안티오키아(Antiochia)의 성 이냐시오(St. Ignatius)는 1세기에 최초로 ‘가톨릭교회’라는 용어를 쓴 교부로서 당시에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단체이므로 주교나 사제가 필요 없다는 가현설(假顯說)에 맞서 끊임없이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한 ‘일치의 박사’였다. 그에 의하면, 주교는 교회의 수장, 일치의 상징, 교의와 성사와 전례의 중심으로서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며,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는 표시이며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보증이다. 그리스도가 성부께 순종하셨듯이 공동체는 주교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교는 하느님의 대리자”(막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1,1)이고 “성령께서 친히 주교의 권위를 보장해주시기 때문이다.”(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두인사’) 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 없이 주교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눈에 보이는 주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는 하느님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막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3,2)라고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존재하듯이,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합니다.”(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편지 8,2)라고 가르쳤다. (노성기 신부, ‘교부들의 가르침: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우스 주교 중심으로 한 교회일치 갈망,’ 『가톨릭신문』 2002.12.8, 10면)

20) 한홍순, 앞의 글, 126-127쪽.

21) 한홍순, 앞의 글, 127쪽.

22)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 31항.

23)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4항.

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실천하여 하느님을 알거나 모르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느님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구현하는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성서적 차원에서의 코이노니아(Koinonia) 개념 안에서 친교 공동체(communio)의 교회관을 천명하였다. 즉, “친교는 선교의 원천이고 결실이며, 친교는 선교적이고 선교는 친교를 지향하고 있다.”²⁴⁾ 평신도들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과 친교를 이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와 인간 성화를 위해 힘쓰며”²⁵⁾라고 함으로써 공의회는 평신도가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에서 공동책임을 지고 서로 보완하는 평신도사도직을 자각하여 새롭게 그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세계 교회는 평신도사도직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새로이 조직하기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같은 조직이다.

한편 1967년 1월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주재했던 교황 바오로 6세가 바티칸²⁶⁾의 공식직할 기구는 아니지만 평신도사도직의 장려를 위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입각하여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의적 연구와 지침 마련 센터의 설치 등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평신도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Pro Laicis, 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를 바티칸에 설치하였다.²⁷⁾ 이 기구는 평신도사도직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차원의 사도직단체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는 평신도평의회 주관으로 1967년 10월에 로마에서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를 열도록 하였다. 이를 앞두고 2월 15일에 호주 출신 여성 평신도로서 이 대회 상임위원회 부총무를 맡고 있는 로즈마리 골드(Rosemary Goldie)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도 전국 평신도사도직 단체 조직과 로마 세계평신도대회에 한국대표단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함으로써 평협 결성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 참석자들이 귀국 후 자기 나라에서 평신도사도직을 촉진할 평신도 기구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는 이후 한국에서도 평협 결성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세계평신도대회의 한국교회 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대전교구장 황민성 주교와 류홍렬 성균관대 대

24) 「평신도 그리스도인」 32항.

25)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2항.

26) 이 경우에는 흔히 ‘교황청’으로 쓰는 예가 많지만 이 백서는 ‘바티칸’으로만 표기한다. 그 이유는 ‘교황청’이라는 명칭은 일본 “천황” 보다 교황을 낮게 보고 불인 일본 용어로서 벌써 고쳐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와 언론들이 일제 강점기 잔재 용어인 ‘교황청’을 그대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Papal Palace’(영어)나 ‘Palais des Papes’(프랑스어)로 불리고 중국도 ‘羅馬教皇宮’(로마교황궁) 또는 ‘羅馬教廷’(로마교회조정)이라고 하여 ‘교황궁’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 인터넷 NAVER, Google 등에서도 ‘교황궁’, ‘바티칸 교황궁’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기도 하다.

27) 「가톨릭신문」 1967.1.22 1면 및 1967.1.29 1면 참조.

학원장이 귀국 후 각기 평협 구성 준비 책임주교와 준비위원으로 활약하고 초대 총재주교와 초대 회장이 된다.

이와 같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보편교회의 평신도사도직 활성화 노력은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기구로서 평협의 창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평협의 창립에 따른 신속한 주교회의 인준과 ‘평신도사도직의 날’ 제정 등 일련의 움직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한국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교회의가 평신도사도직의 날을 제정한 목적이 평신도들의 자각과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사도직 활동을 고무 독려하는데 있다는 점을 직접 밝히고, 이를 계기로 모든 평신도는 성직자와 비신자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서도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평협 창립과 평신도사도직의 날 제정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Ⅱ. 내적 배경: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실천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힘으로 일군 교회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반포 이전부터 활발한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하여왔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평신도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탄생하고 발전해온 전통을 현대 교회에서도 계승하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노력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평협을 탄생시키기까지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반포 이후 3년이란 시간을 필요로 하였지만 이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이를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시도하려 한 노력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힘을 이끌어내어 이후 평협 결성을 통한 평신도사도직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

한국교회의 평협 이전 평신도 조직화 역사

한국천주교회는 보편교회사에 유래가 없는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조직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첫 평신도는 이승훈(李承薰) 베드로이다. 그는 조선 정조 7년(1783년) 부연사(赴燕使) 일원으로 청나라에 갈 때, 천주교 지식을 얻고자 했던 이벽(李蔚)의 부탁으로 북경 천주교당 북당(北堂)에서 교리를 배우고 이듬해(1784년) 세례를 받았다.²⁸⁾ 그해 귀국한 이승훈은 이벽, 정약중, 권철신 등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신앙집회를 가졌다. 한국교회의 첫 평신도 신앙공동체인 명도회(明道會)는 이렇게 형성되었다. 명도회는 한국 교회의 초기시대에 평신도사도직 단체로서 당시에 사제가 없는 교회를 이끌었다. 특히 교우촌 공동체에서 명도회의 평신도사도직 운동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발전시켜 조선교구 설정의 주춧돌을 놓았다. 그렇게 순수한 평신도사도직 운동이 시작된지 10년 뒤에 약 4천 명의 신자가 신앙을 실천하였고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입국한 1800년에는 그 수가 1만 여명으로 늘었다.²⁹⁾

이러한 교세의 증가로 천주교를 반(反)왕조적 세력으로 여긴 조정은 1801(辛酉)년부터 박해를 시작한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평신도의 힘으로 가까스로 이룬 교회공동체를 붕괴시켰다. 그렇지만 많은 평신도들은 깊은 산속으로 피신하여 ‘교우촌’을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였다.

28) 조광, “한국 천주교회사,” 「한국천주교회 총람 1995~2003」(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377쪽.

29) 위의 글, 381쪽.

모진 박해의 와중에도 평신도 지도자(회장)들은 한글교리서를 발행하여 한글문화 형성에 공헌하였고, 여성들의 활동을 권장하여 여성 평신도 단체 조직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을 증진시켰다. 박해 중에도 ‘성영회(聖嬰會)’³⁰⁾를 조직하여 자치적으로 돈을 거두어 버려진 어린이들을 구호하고 각 가정에 입양시켜 양육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였다. 당시 평신도들의 활동은 조직화를 통해 현재적(顯在的) 기능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잠재적인 기능을 발휘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은 박해시대에 드러내놓고 조직적으로 활동은 하지 못하였지만 잠재적으로 한국이 근대사회로 진입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정신문화적으로 우리 민족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 한국교회의 교도권을 장악하였다. 그에 따라 교회와 사회의 만남이 차단되고 교회의 비민족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용초기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사회 변동적 성격이나 기능은 개화기에 이르러서 더욱 약화되었다.³¹⁾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조직화와 활동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의 활동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1904년 서울 천주교 평신도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황무지 개간을 빌미로 하여 한국의 국토를 약탈하려는 ‘황무지 개간령’에 반대하여 서울 명동에서 기도회를 연 것을 비롯하여 일제에 대항하는 교회의 반침략 운동으로서 기도회를 열었다.³²⁾ 서상돈(徐相敦, 아우구스티노) 같은 이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러시아의 내정간섭을 규탄하고 민권보장 및 참정권획득 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상돈이 1907년에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제안하고 국채보상취지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일은 매우 괄목할 만하였다.³³⁾ 이를 계기로 국채보상운동은 당시 교회가 간행하던 「경향신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1910년 일제의 방해로 이 운동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일제의 경제침탈과 국권침탈에 대해 한국인들을 대외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총독부의 정교분리원칙 합의로 제도교회에서 평신도 조직화는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평신도들은 개별적으로 민족운동에 헌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안중근은 굳은 신앙심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섰고,³⁴⁾ 안명근(安明根, 안중근의 동생), 이기당(李基唐) 등은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주도했으며, 서울, 강화, 안성, 수원, 평양, 해주, 대구 등지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3·1독립운동에 참여했다.³⁵⁾ 3·1독립운동 실패 후에는 만주

30) ‘성영회’는 1843년 프랑스 파리에서 홀본 잔송(Holbon Jansong)이 창설하여 죽음의 위협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살아나면 그리스도교 가정에 맡겨 이를 키우도록 하는 어린이 구호사업인 ‘Sancta infantia’의 한국명이다.

31) 노길명, 「가톨릭과 조선후기 사회변동」(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0), 294-296쪽.

32) 조광, 앞의 글, 397쪽.

33) 이에 관해서는 마백락, “국채보상운동과 서상돈,” 「교회와 역사」 제294~295호(1999.11.12) 참조.

34) 최석우 신부는 안중근이 독립운동과 신앙 어느 것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최석우, “안중근의 신앙과 민족운동,” 「교회와 역사」 제220호(1993.9), 282-289쪽)

간도 지방의 가톨릭 평신도들이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독립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³⁶⁾

1920년대 말부터 일제통치에 대한 정치문제와 계급문제를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가톨릭 액션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1927년에 「천주교회보」가 창간되고 1930년을 전후하여 교회 문화 운동 차원에서 「가톨릭청년」, 「별」, 「가톨릭연구」 등이 창간되었다.³⁷⁾ 그리고 193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 조직적인 평신도사도직 운동이 펼쳐졌다. 특히, 1934년 8월 15일에 평양교구에서는 교구장 지도하에 평신도대표 1백여 명이 서포 교구본부에 모여 ‘평양교구 평신자대회’를 열고 ‘가톨릭운동 연맹’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근대 한국교회사상 가장 조직적인 평신도사도직 운동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1937년에는 대구에서 ‘전국가톨릭청년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조직 확대에 나섰고, 그해에 ‘가톨릭부인회연합회’도 창립되었다. 이어 1938년에는 ‘가톨릭여자청년연합회’의 발족으로 여성운동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러나 1930년대 말기에 이르러 일제의 방공(防共)공세와 전시통제체제 강화에 따라 가톨릭 운동조직은 일사 분란한 친일 동원조직으로 개편되고 말았다.

8·15 해방 후 한국교회에서는 일제 말기에 활동이 중단되었던 단체들이 부활되거나 또는 새로운 가톨릭 운동단체들이 창설되었다.³⁸⁾ 1946년 7월에 ‘경성(서울)교구 가톨릭청년회’와 ‘대구교구 가톨릭청년회’의 조직 재정비에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교구 여자청년회’가 발족되었다. 1947년 11월에는 소련군의 북한지역 점령으로 서울에서 ‘평양교우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1948년 3월에 ‘서울교구 가톨릭교육자협회’, 4월에 ‘성 방지거 사베리오회’(현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 전신), 9월 ‘대구교구 가톨릭청년연합회’ 등이 발족되었다. 특히, 1948년 초 ‘가톨릭 시국대책위원회’를 거쳐 1949년 8월 26일에 한국 가톨릭 평신도 운동의 중앙 추진체의 성격을 띤 ‘대한천주교총연맹’이 결성되기에 이른다.

6·25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폐막된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운동은 가톨릭 학생운동과 가톨릭 노동청년운동, 그리고 1953년 5월에 광주교구에 들어온 레지오 마리아가 새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해왔다.³⁹⁾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전국 평신도 대표들이 한 곳에 모인 대회는 ‘성모무염시태 교리 선포 100주년 기념 성모성년 경축행사’였다. 이 행사는 1954년 교황 비오 12세의 성모성년 선포와 전 세계 교회의 기념 경축행사 개최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이 행사를 초교구적 대회로 거행하기로 결정하여 1954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성신대학(현 가톨릭대 성신교정)에서 ‘가톨릭 여성의 날’, ‘가톨릭 학생의 날’, ‘신도의 날’ 순으로 3만 명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치렀다.⁴⁰⁾ 특히, ‘가톨릭 학생의 날’에는 ‘대한 가톨릭학생 총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35) 조광, 앞의 글, 398쪽.

36) 최석우, “일제하 한국천주교회의 독립운동-3·1운동을 중심으로,” 「교회와 역사」 제235호(1994. 12), 398-401쪽.

37) 「가톨릭신문」 1999.4.4

38) 「평협20년사」, 71쪽.

39) 「평협20년사」, 72-73쪽.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교구 차원의 평신도조직화를 시도한 것은 대구교구였다. 1953년 2월 23일 대구시내 각 본당 대표신자 2~3인과 교구산하 각 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대구가톨릭신자협의회’가 발족한 것이다.⁴¹⁾ 1957년에 서울교구에 ‘신자 사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후에 ‘신자 사도직회’의 모체가 되었고, 1958년에는 부산교구에서 ‘부산 본당 가톨릭 신자협의회’가 조직되었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국제적 연계성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1961년에 청주교구에 들어온 국제 활동 단체인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후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까지 한국교회에서 평신도 조직화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1966년부터 전국적으로 본당 운영에 대한 교구 차원의 관심이 점차 표출되기 시작한다.

1966년 6월에 수원교구는 교구평의회 의결을 거쳐 본당운영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7명의 위원을 임명하였다. 이어 8월에는 전주교구 본당운영위원회가 발족했으며, 대전교구도 9월에 사목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전주교구는 10월에 본당운영위원회에서 ‘본당사도회 조직에 관한 교서’를 공포하여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산교구는 10월 24일에 완월동 본당에서 사목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본당사목을 위한 사회학적 조사에 착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부산교구가 11월 28일에 사목위원회를 창설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원주교구 주교좌 원동본당에 자치위원회가 발족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공의회 이듬해인 1966년을 한국교회에 평신도사도직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서광이 비쳐진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6년을 전후하여 평신도단체의 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JOC) 활동의 외연확대로 1966년 10월에 ‘가톨릭농민회’(가농)가 창립되어 농민들의 권익향상 운동에 나섰다. 1967년에는 ‘가톨릭언론인회’가 결성되었으며, 국제 심신활동 단체인 꾸르실료가 한국에 도입되어 성직자·수도자와 함께 하는 평신도 심신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평신도단체들의 발족과 활동의 활성화는 그 후에 이루지는 평협 조직화에 직접 간접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 참가와 평협 조직 가속화

한국교회가 전국 단위 평협 창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바티칸에 평신도 평의회가 설치되고, 1967년 10월에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를 로마에서 개최하는 등 보편교회 차원의 발걸음이 빨라진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 상임위원회 부총무인 골디 여사가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전국조직체 구성을 독려하고, 한국교회 대표단의 세계평신도대회

40) 「평협20년사」, 73-74쪽.

41) 「평협30년사」, 739쪽.

참가를 이끌어냄에 따라 평협 창립은 가일층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외적 내적인 요인들이 함께 평협의 창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평신도사도직 조직의 가속화 흐름을 반영하여 광주대교구는 1967년 3월 12일을 광주대교구 ‘평신자사도직 축진의 날’로 정하고 이날 평신도사도직의 의무 등에 대해 강론을 비롯한 행사를 갖도록 했다.⁴²⁾ 또한 대구대교구는 1967년 6월 17일에 대구시 신암동, 범어동, 동촌동, 수성동 등 4개 본당 신자들로 동부지구 신자협의회를 구성⁴³⁾한 데 이어 6월 25일에는 1963년 이후 유명무실했던 ‘대구가톨릭신자협의회’를 대신하여 ‘대구대교구 가톨릭액션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인천교구 사목위원회도 7월 5일에 발족하여 8월 28일에 회칙을 통과시켰다. 광주대교구 역시 일찍부터 사목협의회를 구성하여 산하 연구위원회로 하여금 10월말 이전에 공의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교회상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제2차 바티칸공의회 직후인 1966년과 1967년 2년 동안 한국교회는 각 교구 차원의 평신도사도직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1967년 10월에 로마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에 한국교회의 공식대표단이 파견되어 참석하고 대표단이 귀국한 뒤에 평신도사도직 조직화는 더욱 활발해졌다. 그것은 앞서 외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 참가자들의 주요 결의 중의 하나가 본국 평신도 기구 결성에 앞장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회 대표단은 귀국 후 즉시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의 결의사항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1968년에 들어서면서 연초부터 평신도사도직의 기초 단위인 본당 차원에서의 조직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기에 이른다. 1968년 1월 26일 광주대교구 목포 경동본당에 사목위원회가 발족⁴⁴⁾한 것을 출발점으로 1월 28일에는 수원교구 내 3개 본당에 ‘교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⁴⁵⁾ 서울대교구의 경우에는 아현동 본당 평의회 창립총회가 2월 10일 개최되었는데, 본당주임 이문근 신부와 서울대교구장 비서 장익 신부, 그리고 50여 명의 본당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17조로 된 회칙이 통과되었다. 이어서 3월 6일에 광주대교구 진도본당 운영위원회가 발족했고, 3월 12일에는 대구대교구 사목위원회가 창립되었다.

대구대교구 대구교관에서 창립된 대구대교구 사목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정길 대주교와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본당 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심의와 회칙을 기초

42) 교구장의 공한을 통해 지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이날 모든 미사의 강론은 평신자의 품위와 사도직 의무에 대해서 할 것, 각 본당은 사전계획을 치밀히 하여 의의 있는 행사를 할 것 등이다. (『가톨릭신문』 1967.2.26, 3면 참조)

43) 『가톨릭신문』은 이 신자협의회를 우리나라 최초의 협의회로 평가했다. 이 협의회는 본부-지구회-반-조로 조직되었으며, 교리경시대회, 초상집 돕기, 영화순회상영 등을 계획하여 “각 본당 신자의 단결, 친목, 공동사회참여와 평신도사도직의 효과적 실천으로 교회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가톨릭신문』 1967.7.16, 3면 참조)

44) 목포 경동본당에서는 공의회정신에 따라 본당활동 제반사를 연구 논의 실천할 사목위원회가 1월 26일 발족했다. 동본당 사목위원회 발족을 기해 현대주교는 격려의 서신을 보낸 바 있다. (『가톨릭신문』 1968.2.18, 3면)

45) 수원 교구내 3개 본당에서는 1967년 12월 29일 작성된 교회운영초안에 의거하여 교회운영회가 발족했다. 동 교구내 고등동 본당 왕림 본당 및 소사본당에서 발족된 교회운영회는 신자들로 구성되며 교회의 보다 합리적 운영과 유기적 행정 효과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가톨릭신문』 1968.7.14, 3면)

하는 전문위원회와 그 활동에 필요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위원회 등을 두며, “대교구 사목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평가 분석을 통해 실천적 결론을 내려 교구장의 사목활동에 협력 건의 자문”한다고 하였다.⁴⁶⁾ 이와 함께 7월 10일에는 교구신부회의를 통해 교구 사목연구위원회에 의해 기초된 본당 운영위원회 규약을 심의 통과시키고 대주교좌 성당인 계산동 본당이 7월 14일에 운영위원회 발족 준비를 공고함으로써 대구평협 창립은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⁴⁷⁾

부산교구⁴⁸⁾의 경우에는 각 본당별로 사목위원회를 조직하여 본당사목활동과 본당 운영 면에 신자들을 적극 참여시킨다는 방향으로 평협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성직자 의존적이고 타율적이었던 교회운동을 지양하고, 신자들에게 ‘천주의 백성’이란 공동체 참여의식을 키워주어 공의회 정신에 맞는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이었다. 그 결과 부산교구에서는 2개 본당을 제외한 모든 본당에 사목위원회 조직이 완료되어 활동단계에 들어섰다. 그 조직망은 본당신부를 중심으로 한 본당사목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과거 본당회장단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아래 몇 개의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담시키는 형태였다. 그러나 그 같은 조직편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7월 1일에 주교좌 성당인 중앙본당에서 발족된 사목위원회는 사무국(재정부 섭외부 총무부), 지역국(지구반장), 사목국(전례부 사도부 교학부) 등 3개국과 그 밑에 6개부와 여러 개의 지구를 두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를 자세히 보도한 「가톨릭신문」은 단순히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신도의 자세가 변하고 있음도 알렸다. 신문은 사목위원이 된 임원의 말을 인용하여 “교무금만 갖다 바치고 미사참례만 하면 다되는 것으로 알았던 자신들이 직접 예산을 세우고 교회운동을 맡고 보니 교회행정과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전하면서 각 본당 단위에서 이러한 책임감과 의욕을 북돋우며 사목위원회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⁴⁹⁾

46) 「가톨릭신문」 1968.3.17, 3면.

47) 본당운영과 사목계획 수립에까지 신자들이 본당 사제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같은 조처는 공의회 지침에 의한 복음적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하느님 백성’의 의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본당 사정에 따라 10명 내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중 반수는 신자들이 선출하고 받은 본당신부가 임명한다. 임기 2년인 위원들은 임기 1년의 위원장 1명과 2명의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총무 1인과 감사 2명은 위원 아닌 신자를 선임한다. (「가톨릭신문」 1968.7.14, 3면)

48) 「가톨릭신문」 1968.7.21, 3면.

49) 앞의 주와 같음.

평협 제10년기 (1968~1977)

- I. 교회내적 관계
- II. 선교분야
- III. 가정 · 생명 · 환경 분야
- IV. 정치 분야
- V. 경제 · 사회 분야
- VI. 사회복지 분야
- VII. 교육 분야
- VIII. 문화 · 언론 · 출판 분야
- IX. 국제관계 분야
- X. 민족화해 분야

40th
CLAK

I. 교회내적 관계

교회내적 관계는 한국천주교회의 주교회의, 교구, 본당, 단체들과 평협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평신도가 성직자, 수도자와 더불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평신도사도직 단체인 평협의 창립과 동시에 형성되고 평협이 존속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계구조상 주교회의는 평협의 창립을 인준하고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교구의 장 또한 교구 평협의 결성부터 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도·감독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과거와 같은 “제도주의적인 교회관의 성직주의”가 아닌, “상호적이고도 대내외적인 대화와 협력 그리고 연대로서 협력 사목(collaborative ministry)을 실천함으로써 친교로서 교회를 건설하고, 성사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⁵⁰⁾ 하는 관계이다.

평협 제10년기 중 한국교회에서 교회내적 관계는 조화와 갈등의 반복으로 나타났다. 평협 창립과 ‘평신도사도직의 날’ 제정까지는 조화관계였으나, ‘평신도사도직의 날’ 평신도 강론 문제에 이어 서울평협의 활동 정지는 갈등관계였고, 평협의 시성시복 추진 운동에 대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뒷받침 등은 전형적인 조화관계였다.

평협의 창립 과정과 주교회의 역할

한국교회에서 평협의 창립을 위한 공식적 발의는 주교회의가 1968년 4월 19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평신자회 전국 조직 문제’를 주교회의 의제로 상정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주교회의는 5월 27일부터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월 31일에 이 의제를 심의하여 “평신도전국연합회 구성 준비를 승인하고 책임주교로 황민성 주교를 선임”⁵¹⁾하였다. 당시 대전교구장직에 있던 황민성 주교는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6월 한 달 동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 사무국장 김남수 신부와 몇몇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평신도 전국연합회 설립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평신도 전국 기구의 규약 작성, 사무소 설치, 기금 조달 방법 등 결성 준비 작업이 완료되자 각 교구 평신도 대표 1명과 전국사도직단체 대표 1명이 참석하는 평협 창립총회 개최를 공지하였다.

이 공지에 따라 1968년 7월 23일 대전 대흥동성당 강당에서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

50) 「한국 가톨릭 대사전」 11, 8914쪽.

51) 「가톨릭신문」 1968.6.9 1면.

회(The Korea Catholic Central Council for the Lay Apostolate)⁵²⁾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한국교회의 조직화된 평신도 선교 집합체로서 평협이 마침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창립총회에는 전국 12개 교구(이때 제주교구 미설정) 가운데 원주교구를 제외한 11개교구의 평신도 대표와 8개 단체 대표, 그리고 단체 지도신부를 포함한 성직자 6명 등 27명이 참석하였다.

황민성 주교는 창립총회 개회사를 통해 “현대세계의 도덕적 윤리적 퇴폐현상을 정화하고 건전하게 하는 데 평신자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협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총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평신도사도직 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사도직 활동의 이념과 활동방법을 모든 신자들에게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도직 활동을 촉진하여 이 나라 성화에 이바지하며 인류 평화의 달성에 기여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였다.⁵³⁾

창립총회에서는 5장 25조로 된 회칙을 통과시키고 임기 2년의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준비 책임주교였던 황민성 대전교구장이 초대 총재주교가 되었고 황 주교를 보좌하여 설립준비 업무에 참여했던 CCK 사무국장 김남수 신부가 지도신부를 맡았다. 평신도 임원으로는 초대 회장에 류홍렬(서울대교구), 부회장에 이태재(대구대교구)와 김양순(여성대표), 그리고 감사로 이원교(저널리스트클럽 대표)와 김남동(레지오 마리아 대표)이 각각 선출되었다.⁵⁴⁾

또한 총회는 창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평협의 출범을 선포하였다. 선언서에서 평협은 “각 교구 평신자 대표단 및 전국적인 모든 평신자 사도직단체 대표단의 협의체”임을 밝히고,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촉진과 상호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 종교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세계 평신도사도직 단체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운동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였다.⁵⁵⁾

평협이 창립총회를 통해 조직을 완료함에 따라 1968년 10월 14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주교회의 정기총회는 첫 날에 평협 창립을 인준하였다. 이로써 평협은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전국 단체로서 명실상부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1968년 10월 25일자로 바티칸 평신도평의회에 한국 평협이 교회의 모든 절차를 거쳐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⁵⁶⁾ 이것은 한국 평협이 보편교회의 세계 평신도사도직 단체의 일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평협 결성을 통해 1968년 이래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자기 인식과 활성화 그리고 도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⁵⁷⁾ 그러나 평협의 활동이 교회내적 관계에

52) 출범 당시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 중앙협의회’라고 했던 평협 명칭은 이후에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전국협의회’라고 고쳐졌다가 다음에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전국협의회’로 바뀌었으며 1976년 10월 14일에 현재의 명칭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정해졌다. (평협30년사, 126-127쪽)

53) 「가톨릭신문」 1968.7.28 1면.

54) 「평협30년사」, 126-127쪽.

55) 「가톨릭신문」 1968.8.18 1면.

56) 「평협30년사」, 129쪽.

57) 박상진, “1970년대 평협의 활동과 그 의미,” 「오태순 신부 은경축 기념 논문집: 韓國社會와 福音宣敎」(서울: 도서출판 빅벨, 1994), 366쪽.

서 주교회의의 등 교계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후 평협은 교구청이나 각 본당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평협 활동을 가장 선두에서 뒷받침해주어야 할 서울대교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1970년 10월까지 전체 56개 본당 중 14개 본당만 본당협의회가 구성되었다.⁵⁸⁾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의 날’ 제정

평협은 창립총회 직후 주교회의에 평협 창립총회의 인준과 함께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11월 하순 어느 주일을 ‘평신도사도직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평신도사도직의 날’을 11월로 건의한 까닭은 한국 천주교회 첫 세례자 즉, 한국교회 첫 평신도인 이승훈(베드로)이 1783년 동지사 일행을 따라 북경으로 들어가던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1968년 10월 14~16일에 개최된 주교회의 정기총회는 첫날 회의에서 평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평협 창립을 인준함과 동시에 ‘평신도사도직의 날’을 매년 대림 제1주일로 정하였다.⁵⁹⁾ 한국교회의 전례력에 ‘평신도사도직의 날’이 공식적으로 포함되고 평신도가 각 본당에서 강론을 하며 그 주일의 특별헌금을 평신도사도직 활동에 쓰게 한 주교회의의 결정은 평신도사도직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실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평신도와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막 후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평신도사도직의 날’ 제정은 당시 교회 지도부가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성을 그만큼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평협은 1968년 10월 14일 ‘평신도사도직의 날’ 제정 성명서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들 못지 않게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하여 전교에 힘쓰는 한편 우리의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다.”⁶⁰⁾라는 호소로 ‘평신도사도직의 날’을 이 땅의 신앙선조들이 다하지 못한 새로운 선교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기를 신자들에게 청하였다.

그리고 1968년 12월 1일 평협 초대 총재주교인 황민성 대전교구장은 ‘제1회 평신도사도직의 날 담화문’을 통해 “이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지금 힘차게 건설되고 있는 이 사회를 그리스도화하며 그리스도의 사제적 백성의 일원인 우리 각자는 이 사회의 구조나 문화 안에 복음의 씨가 작용하도록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⁶¹⁾라는 말로 처음 맞는 ‘평신도사도직의 날’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58) 「서울대교구 총람」(서울대교구, 1984), 876쪽.

59) 1970년 11월 15일 제3회 평신도사도직의 날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로 옮겨지면서 명칭도 ‘평신도 주일’로 바뀐다.

60) 「가톨릭신문」 1968.11.3 1면.

61) 「가톨릭신문」 1968.12.1 1면.

이러한 분위기는 평협이 제1회 ‘평신도사도직의 날’에 평신도 강론 참고자료와 홍보포스터(각 500부)를 배포하고 특히 평신도가 강론을 할 수 있게 된 데에서 한층 더 고조되었다.

평신도 강론 문제

‘평신도사도직의 날’에 평신도가 직접 하게 되는 강론은 단순히 교회(본당) 사업에 대한 협조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평신도 강론의 성격은 교회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직책을 맡은 주교, 신부, 부제들의 성직 고유 임무인 호밀리아(homilia)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강론이 갖는 의미는 큰 것이었다. 그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나타난 교회의 변화된 모습의 하나였기 때문이다.⁶²⁾ 미사에서 사제의 강론에만 익숙해있던 신자들은 비록 사제의 강론과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더라도 평협 창립이후 처음 맞는 ‘평신도사도직의 날’에 행해질 평신도의 강론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톨릭신문」은 처음 맞는 ‘평신도사도직의 날’인 1968년 12월 1일자 기사로 서울과 대구 시내 각 본당에서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 등을 요지로 강론을 하게 된다는 사실과 강론자의 성명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전하였다.

실제로 서울대교구의 경우 54개 전체 본당과 각 단체에 ‘평신도사도직의 날’ 포스터가 게시되고 교구 내 31개 본당에서 124회의 평신도 강론이 있었으며, 평신도사도직 활동 기금으로 활용될 이날 두 번째 헌금으로 총 19만 2632원이 걷혔다.⁶³⁾

그러나 첫 번째 ‘평신도사도직의 날’이 지나고 나자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다. 특히 부푼 가슴으로 열심히 강론자료를 준비했던 평협의 실망감은 컸다. 그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서울지역 여러 본당에서의 ‘평신도사도직의 날’ 평신도의 강론이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가톨릭신문」 12월 15일자 기사는 그런 실망스런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였다. 즉, “서울의 여러 본당 신자들과 신부들이 드러낸 무관심과 비협조를 본 평신도협의회 간부들은 저마다 길고 긴 한숨을 연발”했으며, “몇몇 본당에서는 숫제 강론도 시키지 않았는가 하면, 신부의 강론 중에 평신도의 ‘평’ 자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애궁도 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강한 보수 성향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견케 하였다.

62) 「평협30년사」, 129쪽.

63) 「서울대교구 총람」, 876쪽.

더딘 교구 평협 결성

평협이 창립되고 나서 총재주교인 황민성 주교의 잇단 호소로 교구 차원의 평협(교구 평협)이 결성되기는 하였지만 진전은 매우 더뎠다. 평협 창립 4개월 만인 1968년 11월 30일에야 서울평협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교구 평협 결성의 선봉에 섰다. 그리고 평협과 서울평협은 1969년 1월 1일 명동대성당 사제관 2층에서 공동으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서울평협의 뒤를 이어 1969년 3월 13일에 마산교구, 3월 23일에 수원교구가 평협을 결성하였다. 평협 창립 1년이 지나는 동안 겨우 3개 교구의 평협만 결성된 것이다. 그러나 1969년 7월 19일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평협 제2차 정기총회에는 10개 교구와 4개 전국 단체 대표 37명이 참석하여 그런대로 평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기총회는 평협의 진로 등에 관한 주교회의 건의사항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나서 1969년 12월 17일에 원주평협이 설립되어 평협 2년차 교구 평협 수는 4개로 늘었다. 전주교구는 1968년 2월 10일에 사목협의회를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평협의 출범은 1970년 8월 23일이었다. 1970년 8월 24~25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거리상의 이유로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에서 제3차 정기총회가 열렸지만 겨우 7개 교구와 3개 단체에서 25명만 참석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교구 평협 결성은 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1974년까지도 평협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한 것이었다. 1974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된 평협 제7차 정기총회에 참가한 교구 평신도단체의 명칭은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대전교구, 안동교구만 ‘평신도사도직협의회’였고 대구대교구와 전주교구는 ‘사목협의회’, 원주교구는 ‘사목위원회’, 부산교구는 ‘신자협의회’로 각양각색이었다.⁶⁴⁾

그리하여 평협은 주교회의에 명칭의 통일을 건의하였다. 주교회의는 이를 수용하여 ‘교구 구조 통일원칙’을 인준함에 따라 다양했던 명칭이 모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통일되기에 이른다. 처음에는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만 인정되었지만 1975년 주교회의 추계총회에서 “단체”를 삭제한 ‘평협 규약 개정안’이 받아들여져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통일되었다.⁶⁵⁾ 1975년 4월 26일 부산교구, 1977년 1월 16일 청주교구, 같은 해 7월 1일에 안동교구 평협이 통일된 명칭으로 각각 결성되었다.

이로써 1968년 7월 23일 평협 창립 이후 1977년까지 햇수로 10년간 전국 13개 지역 교구(이때 군종교구와 의정부교구는 미설정) 중 8개 교구 즉, 서울, 마산, 수원, 원주, 전주, 부산, 청주, 안동 교구 평협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 인천교구, 춘천교구, 제주교구의 평협 결성은 미완으로 남긴 채 평협 제10년기는 끝난다.⁶⁶⁾

64) 「평협30년사」, 145쪽.

65) 이문희 대주교, “평신도사도직의 현재와 전망”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교회구조에서 본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 세미나(2004년 11월 5~6일,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

66) 전체 교구 평협 결성은 평협 제30년기에야 완료된다. 제20년기인 1979년 3월 18일 인천평협, 같은 해 4월 29일 제주

이와 같이 평협 창립 이후 교구 평협의 결성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교회가 평신도들의 힘으로 시작된 교회이고 평협 창립 이전부터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정신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평신도사도직 활동이 활발하였다고는 하나 막상 평협이라는 평신도사도직의 조직화가 현실화되자 제도권 교회의 협력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평협의 활동정지

평협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되던 서울평협도 초기에 본당의 평신도사도직 조직화가 매우 저조하였다. 그것도 본당 평협 조직이 아니라 평협과 조직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목협의회의 조직이었다. 1971년 11월 6일 서울평협 제4차 연차총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68개 본당 중 겨우 16개 본당에서 사목협의회가 조직되었을 뿐이었고 1971년에는 겨우 한 개 본당 사목협의회의만 조직된 가운데 서울평협 제4차 연차총회 참석은 15개 본당과 5개 액션단체 대표 28명에 불과하였다.⁶⁷⁾

급기야 서울평협은 제4차 연차총회 이후 교구방침에 따라 모든 활동이 중지되어 1971년 12월부터 전국 평협 총회에 대표조차 파견하지 못한 채 동면상태에 들어갔다.⁶⁸⁾ 그 이유는 서울대교구 사목위원회 방침에 의하여 교구 사목위원회와 교구 평협이 공존할 수 없게 된 데 있었다. 따라서 서울대교구 사목위원회가 조직될 때까지 서울평협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사목위원회가 조직됨과 동시에 서울평협의 모든 일을 서울대교구 사목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서울평협은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된다.⁶⁹⁾

이러한 서울평협 해체 위기는 단순한 외형적인 조직구조 상의 문제라기보다 본당 신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직자들이 평신도사도직 활동에 대한 반발이라는 내면적 의식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평협 정일천 회장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그때의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다.

“성직자나 평신도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정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단했다. 평신도는 공의회의 영향으로 성직자와 대등한 입장이 되었다는 인식들이었고, 성직자는 그 동안 교회 내에서 확고부동했던 우위 전통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기우를 갖게 되어 평신도사도직 운동을 좋지 않게 보았다. 성직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직자들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진보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과격파 신자’들의 월권행위에도 그 원인이 없지 않았다. 그들은 본당 신

평협, 1982년 3월 3일에 춘천평협에 이어 그해 3월 23일에 대구대교구가 기존 ‘가톨릭액션단체협의회’와 ‘본당사목위원회’를 통합하여 평협 체제를 갖추었고, 광주대교구는 1985년 1월 5일 기존 사도회연합회를 교구 평협으로 전환하였다. 평협 제30년기에는 1989년 10월에 설정된 군종교구에서 1990년 2월 13일에 평협 결성을 완료함으로써 2004년에 신설된 의정부교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교구 평협 결성은 일단 끝나게 된다.

67) 「서울대교구 총람」, 877쪽.

68) 위의 주와 같음.

69) 「평협30년사」, 377쪽.

부는 사목만 담당하고 본당 재정은 평신도들에게 넘기라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그것이 시행된 본당도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김수환 추기경은 신부 대표와 평신도 대표를 한 자리에 초청하여 공의회 문헌에 정통한 신부로 하여금 평신도사도직 운동이 본당 재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님을 규명케 하기도 했다.”⁷⁰⁾

그런 가운데서도 서울평협이 해체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교구의 많은 성직자들의 평협에 대한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평협 해체론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서울평협 임원들은 1972년 2월 모임을 갖고 평협을 존속시키되 당분간 동면 상태로 머물 것을 결의하였던 것이다.⁷¹⁾

평협 초기 서울평협의 활동중단 사태는 평협의 정체성 정립에 큰 어려움을 주었고 평협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초기의 평협은 하부조직이 없고 상부조직만으로 되어 있어 일 년에 총회만 한 번 하는데 그쳐 구조적으로 평신도들의 자율적 행동력을 결집시킬 수 없었던 때라 서울평협의 활동중단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평협은 1973년 6월 5일 평신도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침체된 평신도사도직운동을 종합 분석하고 그 타개책 강구에 나섰다. 1974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된 평협 제7차 정기총회는 평신도사도직운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평신도사도직 운동에 대한 제안서’를 채택하여 주교회의에 제출한 것이다.⁷²⁾

이 제안서는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의 가르침에 따라 평협이 결성되어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고 황민성 총재주교를 모셨지만 교구 주교님들의 무관심 속에서 평신도 운동이나 조직은 교회당국의 지원보다 교회내의 대립세력으로 오해되어 때로는 억제를 받기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⁷³⁾ 평협이 이러한 절박한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주교님들의 과감한 결단과 선도를 갈망하며 제출한 건의가 1974년 10월에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받아들여졌다.⁷⁴⁾

주교회의의 평협 건의 수용은 서울평협 활동 재개의 계기가 되었다. 즉, 주교회의는 평협의 제안에 따라 각 교구장으로 하여금 교구 단위 평협 조직을 적극 지원하고 교구 단위 액션단체와 본당 단위 단체를 유기화하여 교구단체협의회로 구성하는 교구 및 본당 평협 기구표를 각 교구에 보낸 것이다.⁷⁵⁾ 그리하여 1975년부터 각 교구 평협 조직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서울평협도 1975년 9월 6일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재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울대교구의 활동 정지 조치가 있은 후 4년 만에 서울평협 활동이 재개된 것이다. 서울평협의 활동정지 4년 동안은 서울평협뿐만 아니라 평협과 모든 교구의 평협 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70) 「평협20년사」, 307-308쪽.

71) 「평협30년사」, 377쪽

72) 「평협20년사」, 137-141쪽.

73) 「평협30년사」, 146-148쪽.

74) 위의 책, 149쪽.

75) 「평협20년사」, 141쪽.

평협 활동 부진

평협 제10년기를 마감하는 1977년까지 평협 활동은 평협 회지 「평협」 창간호(1977년 6월 25일)가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평협 활동 극히 부진”이라고 했을 만큼 전반적으로 극히 부진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7년 말까지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 인천교구, 춘천교구, 제주교구 등의 교구 평협이 결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교구 평협이 결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나은 것은 없었다. 「서울대교구 총람」의 표현대로 여전히 본당 신부들의 이해를 못 얻고 있던 교구 평협은 머리와 심장만 있을 뿐 전 평신도 속에 뿌리를 박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⁷⁶⁾

사실 전국적으로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기초 단위원 본당 평협 결성의 부진상은 심각하였다. 평협 창립 9년이 지난 1977년 즉, 평협 제10년기의 마지막 해까지 전국 본당 가운데 평협 결성이 한 군데도 없는 교구가 전체 14개 교구의 절반을 넘는 상태였다. 평협이 있다고 해도 평협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거기에 비해서 본당 신부의 지휘 아래 있는 사목회가 결성되어 있는 본당의 수는 절대적으로 많기는 하였지만 그 또한 교구에 따라 차이가 컸다.

이러한 실태는 조사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평협」 제1호는 1977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505개 본당의 평협과 사목위원회의 결성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수원교구와 마산교구를 제외한 12개 교구 440개 본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본당에 평협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는 139개로 조사대상 본당의 31.6%였다. 이로써 본당 평협의 결성은 조사된 본당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교구 가운데서는 교구 산하 모든 본당에 사목위원회가 없이 평협만 있는 곳도 있었다. 원주교구 20개 본당과 광주대교구 50개 본당이 그러하였다. 조사 당시에 광주대교구의 경우는 본당 평협이 100% 결성되어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다. 그때 엄격하게는 평협은 아니었고 평협 이전의 본당 사도회로서 평협과는 구분이 되었다. 그러나 광주대교구의 본당 사도회는 후에 평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신도 조직이라는 점에서 평협으로 분류되었다. 춘천, 대구, 부산, 안동, 전주 등 5개 교구는 모든 본당에 평협 조직은 없고 사목위원회만 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주교구는 1977년 3월에 ‘지목구’에서 교구로 승격되기는 했지만 본당들에서 아직 어떤 평신도사도직의 조직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여주는 것이 다음 표이다.

「평협」 제1호의 설명 기사에 따르면, 본당에 평협은 있으나 사목위원회가 평협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본당도 적지 않아 본당 평협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⁷⁷⁾ 이 기사는 본당 평협 활동의 이와 같은 부진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본당 신부들이 평신도의 본격적인 활동을 꺼려하여 의식적으로 본당 평협의 결성을 기피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당시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가

76) 「서울대교구 총람」, 877쪽.

77) 「평협」 제1호, 1977.6.25, 1면.

본당 차원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교구별 평협 결성 본당 현황〉

(1977년 4월 30일 현재)

교구	구분	본당 수	평협 결성		사목위 결성		미결성	
			본당 수	%	본당 수	%	본당 수	%
서울		93	20	21.5	65	69.9	8	8.6
춘천		26	0	0.0	26	100.0	0	0.0
대전		40	33	82.5	7	17.5	0	0.0
인천		27	0	0.0	15	67.5	12	44.5
수원		35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
원주		24	24	100.0	0	0.0	0	0.0
대구		50	0	0.0	50	100.0	0	0.0
부산		42	0	0.0	42	100.0	0	0.0
청주		24	12	50.0	12	50.0	0	0.0
마산		30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
안동		20	0	0.0	20	100.0	0	0.0
광주		50	50	100.0	0	0.0	0	0.0
전주		34	0	0.0	34	100.0	0	0.0
제주		10	0	0.0	0	0.0	10	100.0
계(확인)		505(440)	(139)	(31.6)	(271)	(61.6)	(30)	(6.8)

자료 : 「평협」제1호(1977년 6월 25일), 1면.

이와 같이 초창기 평협의 정착이 순탄하지 못했던 이유를 다음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이유는 무엇보다 성직자나 평신도 모두가 과거 오랜 교회의 전통인 성직자 중심체제에 익숙해있던 상태에서 평신도의 신원을 성직자와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린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수용하고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특히 성직자들이 이를 수용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신자들의 무관심이었다. 당시 대부분 신자들의 신앙의식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미사참례하고 기도하는 것이 위주였다. 따라서 단체적으로 교회 안팎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평협은 그들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관심 밖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시기적으로 일반 신자들이 평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평협이 출범한 1968년부터 10년 기간에 평협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은 일제통치, 해방, 6·25 전쟁, 4·19와 5·16에 이어 군사독재와 유신통치에 맞선 민주화 운동 등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격변을 겪어 온 세대들이었다. 이들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1960~70년대에 여전히 진행 중이던 사회적 격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평협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II. 선교 분야

평협 창립 후 첫 번째 선교 사업은 한국 순교자 시성시복 경축행사와 운동으로 시작된다. 평협은 이를 통해 순교영성을 직간접적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병인년 순교자 시복 경축행사

평협은 창립 직후부터 활발한 선교사업 활동에 들어갔다. 그 첫 번째 사업은 병인년 순교자 24위 시복 경축행사였다. 1968년 8월 10일 중앙 회장단 회의는 이 행사를 전국 규모로 거행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승인해 주도록 주교단에 건의하였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각 교구 대표와 액션단체 대표로 경축행사 중앙위원회를 구성케 함에 따라 1968년 9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 여학생관에서 초교구적 성격의 ‘한국 병인순교자 시복경축 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10월 3일부터 열흘 동안 순교자로 전시회, 백일장, 사생대회, 강연회, 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⁷⁸⁾

김대건 신부 시성 촉진운동과 신유년 순교자 시복운동

평협은 순교자 시복 경축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1971년 7월 27일 평협 제4차 정기총회에서 김대건 신부의 시성운동과 교회 창설기인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운동을 일으켜 목표달성 시기를 한국 선교 200주년이 되는 1984년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해 9월 복자성월을 기하여 절두산 순교자기념관, 한국교회사연구소, 경향잡지사,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시보사 등과 함께 김대건 신부 시성 촉진운동에 착수하였다.

김대건 신부 순교 125주년의 날인 1971년 9월 16일 절두산 광장에서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기념미사가 봉헌되고 그날 미사에 참여한 1,800여 명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김대건 신부 시성 촉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그 후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71년 말까지 5만 5천명이 서명하였다. 평협의 첫 사업으로 진행된 김대건 신부 등 순교자들의 시성 촉진 운동은 결국 순교자의 피가 선교

78) 「평협30년사」, 128쪽.

의 밑거름이라는 차원에서 순교 영성을 직간접적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던 중 평협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서울평협이 교구방침에 따라 1971년 12월부터 4년 동안이나 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시성시복 운동도 위축되고 말았다.

103위 순교복자 시성운동 본격화

1975년 9월 6일에 서울평협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평협 활동에도 활기가 되살아났다. 평협은 1975년 9월 12~14일에 제8차 정기총회를 열고 103위 순교복자 시성운동 촉진을 결의하는 등 시성시복 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10월에 ‘시성을 위한 기도’와 순교자 상본 각 30만 장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여 순교자의 시성기도운동과 함께 순교영성의 전국적 확산에 힘썼다.

이때 주교회의의 상임위원회도 평협의 시성시복 추진 운동을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그 산하에 총무, 재정, 홍보, 사료조사, 기적심의 등의 분과를 두어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고 1975년 10월 15일에는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시성 청원서를 바티칸에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평협은 시성시복 운동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1975년 11월 1일자로 교회사학자, 교회법 학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로 구성된 시성운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5회 평신도 주일인 1975년 11월 16일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103위 복자들의 시성운동 실천사항으로 채택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이 운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켰다.

1975년 12월 9일에는 평협 주관으로 시성시복 발기 준비위원 모임을 개최하여 후속 활동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김대건 신부 순교 130주년이 되는 1976년 9월 16일에 시성시복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한국천주교 시성시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추진위원회는 시성시복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기도운동, 기금조성, 홍보사업,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기적수집 및 교회법 심의에 관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한다.

Ⅲ. 가정·생명·환경 분야

평협 제10년기의 가정·생명·환경 활동은 정부의 반생명적 ‘모자보건법’ 반대에서 출발한다. 평협은 교회의 반생명적 입법 반대에 동참하면서 사회교리에 입각한 최초의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교회의 ‘모자보건법’ 반대

평협의 운동은 김수환 추기경이 1970년 6월 21일에 정부의 ‘모자보건법안(母子保健法案)’ 관련 사목교서를 발표한 데서 시작되었다. 1970년 8월 24~25일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평협 제3차 정기총회는 김 추기경의 사목교서에서 밝힌 반생명적 모자보건법 반대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주교회회의에 건의하면서 생명운동에 적극 나서기에 이른다.

‘모자보건법안’이 문제가 된 것은 당시 보건사회부가 1970년 5월 20일자로 임신부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로 회부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임신부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 분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한국교회는 1970년 6월 7일자 「가톨릭신문」사설을 통해 이 내용이 이미 1967년에 ‘우생법안’(優生法案)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이 시도된 바 있다가 각계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것을 다시 이름만 바꾸어 내놓은 것임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사목교서를 통해 이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김 추기경은 ‘모자보건법안’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자연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낙태는 죄악”이라고 단정하고 모든 신자들이 각계에서 온 힘을 다해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토록 촉구했다.⁷⁹⁾

이에 따라 주교단 역시 이 법안을 낙태행위를 합법화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안’에 반대한 김수환 추기경의 교서 지지와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모자보건법안 반대성명’을 내었다.

79) 「가톨릭신문」 1970.7.5 1면.

평협의 대정부 성명서 발표와 모자보건법 반대 확산

주교회의 성명이 발표되자 평협도 1970년 9월 6일 ‘주교단의 모자보건법안 반대성명 지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평협이 결성된 후에 최초로 사회교리에 입각하여 발표한 대정부 성명서이다.

모자보건법에 대해 서울대교구 노동장년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하여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기까지 하였다. 이 법에 대한 반대운동에 천주교회만 나선 것은 아니었다. 천주교회가 「가톨릭신문」을 통해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에 당시 여러 종단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던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최월산 스님)도 ‘모자보건법안’에 대해 “이는 새 생명을 끊는 일종의 살인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⁸⁰⁾

평협은 1971년에도 제3차 정기총회의 결의로 보건사회부가 성안한 ‘모자보건법안’에 반대하는 다음의 8개 항의 이유를 들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⁸¹⁾ ①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태아에서부터 적용된다. ② 인공임신중절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다. ③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은 부모의 이익을 위해 자녀 살해를 인정하는 반윤리적 규정이다. ④ 특히 경제적 사유에 의한 태아살해 허용은 자녀매매 이상의 악법이다. ⑤ 반윤리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은 반윤리 행위 치유를 규정한 동 법안 제8조 5항과 모순된다. ⑥ 일본 외에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광범하고 용이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은 사회미풍양속과 성도덕, 가정평화 파괴를 재촉할 것이다. ⑦ 법안의 목적이 인공임신중절 장려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불륜과 인공유산 등을 장려할 것이다. ⑧ 국법으로 성도덕 문란을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평협의 이러한 성명서 발표 등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법안의 입법 추진을 강행하여 1973년 1월 30일 유신체제 하의 비상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말았다.

80) 「가톨릭신문」 1970.6.14 3면.

81) 「평협20년사」, 255-256쪽.

IV. 정치 분야

평협 제10년기의 정치 분야 활동은 사회복음화를 통한 교회의 사회 참여활동으로 특징지어졌다. 그것은 1960~70년대 한국정치의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회복음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한 노력은 단순히 정권의 부정부패와 사회 윤리와 도덕의 타락을 질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시대적 징표로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사회정의실천 운동 참여

평협 창립 이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구현하는 사회복음화의 첫걸음은 사회정의실천 운동의 참여로 시작하였다. 이는 평협 창립 성명서가 밝힌 바와 같이 “이 나라의 성화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도덕, 종교, 사회문제 연구”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 평신자의 집약체로서 모든 신자와 함께 일하고자 한다.”는 창립 취지의 구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평협은 1970년 8월 26일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교회의에 제출한 건의문 속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도덕 윤리의 타락을 없애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⁸²⁾

평협의 이러한 다짐이 있고 난 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970년 9월에 원주교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사회정의 구현 운동이 일어났다. 원주교구는 1970년 9월 19일 5·16장학회와 공동으로 원주문화방송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방송을 통한 복음전파와 홍보매체를 통한 사회 참여에 나섰다.

그런데 원주문화방송 내부에는 이미 권력의 힘을 빌린 제도적 부정부패 행태가 만연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는 관계당국에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에 지 주교를 비롯한 원주교구 사제단은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특별미사’를 봉헌하고 부정부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게 되었다.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앞장 선 원주문화방송 사태는 「가톨릭신문」을 통해 교회 전체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한국교회가 전면에서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었다.⁸³⁾

82) 「가톨릭신문」 1971.9.5 1면.

83) 「가톨릭신문」 1971.10.10 3면.

원주 문화방송사건 이후 천주교에 정의구현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9월 24일 원주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결성되고 9월 26일에는 한국순교복자대축일에 명동대성당에서 제1차 시국선언문 발표와 평화적 가두시위에 나섬으로써 정의구현의 불꽃을 드높였던 것이다.⁸⁴⁾

원주교구의 부정부패 추방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이 운동은 평협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원주교구 평협은 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많은 인사들과 함께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되어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위반으로 구속되자 더욱 강렬하게 권력에 맞섰다. 원주평협은 지학순 주교와 구속자를 위해 끊임없이 특별미사를 봉헌하고 ‘사회정의 특별 실천기도회’ 등을 열었다.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그의 양심선언 발표는 평협 뿐만 아니라 주교회의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체의 사회정의 실천 요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요구는 마침내 1975년 2월 19일 지학순 주교의 석방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명동대성당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의 불을 지펴나가는 촉매가 되었다.

3·1절 명동기도회 사건과 민주화운동

유신체제 등장 이후에 체제유지를 위한 인권탄압과 시국사건의 조작으로 지학순 주교와 민주 인사들의 구속 등 정부의 각종 형태의 억압은 마침내 3·1절 명동기도회 사건을 불러왔다. 명동기도회 사건은 1976년 3월 1일 오후 6시 명동 대성당에서 20여명의 사제들이 3·1절 제57주년 기념미사를 공동 집전으로 봉헌하고, 미사 끝에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7명의 가톨릭 사제와 김대중 등 11명의 재야인사들이 서명 날인한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한 것이다.

이 선언은 유신체제로 인한 국가의 파국을 막고 5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민족 통일의 방안을 제시한 일종의 구국선언이었다. 선언서에는 “사태가 이에 이르고 보면 박 정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경제파국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제사회에서 아주 신임을 잃지 않도록 차관상환의 유예를 차관공여 국가들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라는 말로 박정희 정권의 퇴진 요구를 담고 있었다.

공안당국은 즉각 이 선언에 서명한 인사들을 정부전복음모 주모자로 체포하였다. 체포된 7명의 사제는 1976년 3월 10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함세웅 신부(서울 응암동 본당 주임), 문정현 신부(전주 해성중·고등학교 종교교감), 신현봉 신부(원주교구 봉산동 주임) 등 3명이 구속되고, 김승훈 신부(서울 신림동 본당 주임), 김택암 신부(서울 수색 본당 주임), 장덕필 신부(서울 영등포 본당 주임), 안충석 신부(서울 동대문 본당 주임)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⁸⁵⁾

84) 「평협30년사」, 697쪽.

85) 「평협30년사」, 156-157쪽.

성직자들이 구속 사태에 직면하자 3월 15일 오후 6시에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주교 3명과 300여명의 사제, 약 2천여 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구속된 사제들을 위한 미사가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다. 주교단은 미사 중 이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주교단은 사제들의 행동이 사회정의와 인권수호를 위한 것일 뿐 현 정부의 전복을 기도(企圖)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애국심의 발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협도 침묵하지 않았다. 주교단 성명발표가 있었던 명동대성당 미사 하루 전인 3월 14일 서울 꾸르실료 회관에서 서울평협과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때 나온 대책은 교회 전례 시기가 사순절 기간이라는 점에서 우선 ‘구속된 사제와 고통 받는 형제를 위한 사순절 평신도기도문’을 제정하여 전국 본당에 보급키로 한 것이었다.⁸⁶⁾ 사순절 평신도 기도문은 3월 18일 예정대로 전국 본당에 일제히 배포되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무서운 핍박과 아픈 고통의 시련에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느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문은 유신체제의 억압과 탄압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

평협은 이후에도 정치적 탄압에 맞서 1976년 12월 13일 오후 6시 명동대성당에서 ‘3·1사건 관련 구속사제 및 구속자들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였다.⁸⁷⁾ 이 특별기도회는 평협이 주최하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김수환 추기경, 지학순 주교, 김재덕 주교와 사제단 31명이 공동 집전한 이 기도회는 자유는 보장되고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평신도 사도직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 설명으로 시작하여 미사, 신자들의 특별기도, 인권선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발표된 성명서 ‘평신도 여러분께 고함’은 3·1명동사건으로 구속된 성직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억압적 현실을 신앙과 애국으로 고발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우리 평신도의 참된 위로와 기도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평신도 고유의 사도직 수행에 있어 순교자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보다 능동적이며 희생적인 기도를 요청했다.⁸⁸⁾

평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평협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977년 9월 3일에 개최된 제10차 정기총회에서도 3·1명동사건과 관련하여 고통 받는 인사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천주교신자가 가야할 바를 담은 시국선언 4개항을 결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86) 「가톨릭신문」 1976.3.28 1면.

87) 「가톨릭신문」 1976.12.19 3면.

88) 「평협30년사」, 158쪽.

V. 경제·사회 분야

초기의 평협은 평신도사도직에 입각한 사회적 관심을 사회개발문제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이런 여건 속에서 비록 결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평협 회장 등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그리스도교 아시아개발회의’에 참가한 것은 경제·사회 분야의 관심 촉발의 계기는 되었다. 평협 제10년기에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는 초기부터 평협의 대표적 경제·사회 활동단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개발문제에 관한 접근

평협 초기에 경제·사회 분야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회의였다. 그것은 1970년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 성심여자대학에서 개최된 ‘그리스도교 아시아개발회의(Asian Ecumenical Conference for Development)’에 참가할 기회가 온 것이다. 이 회의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국제조직인 사회개발평화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for Society Development and Peace: Sodepax)와 동아시아 그리스도교 회의(East Asian Christian Conference: EACC)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⁸⁹⁾

한편 한국 천주교회 8개 교구(서울, 광주, 마산, 안동, 원주, 대구, 인천, 청주) 대표 22명은 이 회의 참가를 위해서 1970년 3월 11일에 한국협동교육연구원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각 교구에서 벌이고 있는 사회개발사업 실태 보고에 이어 교육, 매스컴, 국제협력, 농어촌개발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심과 접근 필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⁹⁰⁾

그리스도교 아시아개발회의에는 한국에서도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대표단도 참석하게 되어 있어 1970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국교회와 사회발전’이라는 주제로 사전 준비회의 성격의 합동회의를 열었다.⁹¹⁾ 이는 한국에서 신·구교 간 대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89) 「평협30년사」, 133쪽.

90) 이와 같은 사실은 참가자들이 앞으로 평양교구 안(安) 캐롤(George Carroll) 주교가 주재하는 성직자 중심의 한국사회개발기구(Korea Social Development Organization)에도 평신도들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한국 주교회의에 건의하자고 결정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91) 이와 같은 신·구교 간 회의는 1965년 이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반영하여 종교간 대화 그리고 개신교와의 일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이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모임을 가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

않던 시기에 교회와 사회개발을 주제로 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하였다는 데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 두 교계 간 대화 주제로서 경제·사회 분야의 영역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 회의에서는 주요한 박사의 “개발의 세계적 전망과 한국 개발계획의 문제점”, 노정현 박사의 “한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의 인간가치”, 프라이스(Basil M. Price) 신부의 “사회개발을 위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시도한 사회사업 사례 발표로서 천주교 박희섭의 “협동교육연구원의 경우”와 기독교 장인섭의 “기독교세계보사회의의 경우”가 발표되었다. 발표에 이어 질의와 분과토의 및 전체회의를 거쳐 앞으로 한국의 사회개발과 정의·평화를 위하여 신·구 양 교회가 하나로 뭉쳐 적극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하는 5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2일간의 회의를 끝마쳤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류홍렬 평협 회장과 박희섭 협동교육연구원 원장 그리고 인천교구 김화자 전교사 등 3인이 주교회의 인준을 받아 도쿄회의에 공식 평신도 대표로 참가하였다. ‘아시아 교회와 아시아 개발’을 주제로 한 이 회의는 19개국 200여 명의 가톨릭 및 개신교 대표들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① 농촌과 농업개발, ② 도시의 공업개발, ③ 교육과 매스컴, ④ 발전을 위한 세계적 협력, ⑤ 중요한 조직적 또는 제도적 전환, ⑥ 건강, 인구 증가 및 개발, ⑦ 신학적 전망 등 7개 분과별 토의를 하였다. 이 토의가 끝난 후 “비록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라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빵만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정의와 참여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함께 일할 것을 다짐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⁹²⁾

이 회의는 평협이 참여한 과정이나 진행이 매우 진지했고 향후 평협의 경제·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구 교회의 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컸다. 특히, 교회의 시각에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문제를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의 발전과 정의·평화를 위해 신·구 교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일할 것을 다짐까지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교 아시아개발회의’에 참가한 가톨릭과 개신교 대표들은 이 회의의 결의 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1971년 2월 22일에 ‘사회개발·평화 한국위원회’(Sodepax Korea Committee)를 결성하여 류홍렬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하여 매우 큰 아쉬움을 남겼다.

어질 수 있었다. (『평협30년사』, 133쪽)

92) 이 회의가 끝난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아시아 지역 가톨릭 평신도사도직 운동을 위한 회의’도 개최되었는데 한국 평신도 대표들은 회의에 참석한 50여 명의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의 평신도사도직운동을 소개하였다. (『평협30년사』, 134쪽)

평협의 활동 침체와 원주평협의 수해구조 활동

‘그리스도교 아시아개발회의’ 참석 이후 평협 자체의 뚜렷한 경제·사회 분야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76년 3·1절 명동성당 기도회 사건으로 야기된 성직자 등 구속 사태에 즈음하여 평협이 발표한 ‘평신도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 중에 “경제의 불균형도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1977년 평협 사업계획에 도·농 교회간의 자매결연사업은 포함되었지만 그것은 경제적 지원보다 정신적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또한 경제·사회 분야의 실천적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1970년대 초에 교구 평협 가운데서 원주평협의 경제·사회 활동은 그런대로 활발했다. 그것은 1972년 8월 19일을 전후하여 영월, 단양, 제천, 정선, 삼척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 때문이었다. 원주평협은 교구장 지학순 주교 배석 하에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임원회를 열어 수재민 지원 대책을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당장 생활에 필요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건어주고, 의류, 식기·가재도구를 수집하여 전달하고 의연금 모금, 가능한 곳 결연 실시, 지속적인 현지조사 및 실정 파악 등에 힘썼다. 그리고 교구 사목위원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재민 돕기 운동을 벌여 나갔다. 원주평협은 1975년 8월 13일에도 원주와 횡성지구에 수해가 발생하자 전국 교구별로 수해의연금 수집활동을 펼치고 모금된 수해의연금과 물품들을 수해지구에 전달하였다.

평협 출범 이후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의 활동

경제·사회 부문의 활동 기반이 취약했던 평협 출범 초기인 1973년 2월 평협에 가입한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는 대표적 경제·사회 활동단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가농의 전신인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⁹³⁾는 평협 출범 직후까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평신도 단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1968년 12월 5일부터 경북 왜관 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제2차 전국대의원

93) 가농의 모태는 평협 출범 이전인 1958년에 발족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 안에 1964년 10월에 설치된 농촌청년부이다. JOC 농촌청년부는 1965년 6월에 전북지구 농촌청년훈련센터 개설과 계획적인 교육훈련의 실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 후 광주대교구 함평, 전주교구 화산·함열·진안·남원, 수원교구 양지, 대구대교구 구미 등지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1966년 4월에는 천주교 왜관감독대리구장 오도 하스(Odo Haas) 아빠스의 도움으로 농촌청년부 전국 본부를 구미에 두고 6월에 경북과 충북 농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농촌지도자 강습회를 실시했다. 1966년 8월 JOC 전국평의회가 JOC 일개 부서로서는 효과적인 농민문제해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농촌청년부를 독립시킴으로 결정함에 따라 10월 17~18일 구미에서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15개 단위 활동조직을 갖추었다. 이어 1967년에 구미성당 3개 공소에 가톨릭농촌청년회를 조직하여 야간학교 운영과 협업양계,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협동적 삶의 체험과 확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전주교구와 대전교구의 여러 성당에 가톨릭농촌청년회를 조직하는 등 그 세를 확대해 나갔다.

총회를 통해 주교회의에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의 공식 인준을 신청하기로 하였다.⁹⁴⁾ 주교회의에 인준 신청 후에 그 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⁹⁵⁾

물론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는 주교회의의 인준 이전에도 개인과 정치, 경제구조를 별개로 생각하는 한, 모범 농촌청년도, 모범 농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식의 변화를 내세우는 가운데 활동을 지속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양돈·양계·양송이 사업이 좋은 기술과 증산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⁹⁶⁾

그에 따라 1969년부터 종전의 기술향상, 생활개선, 문화교양, 자선적 사랑행위 실천에서 농민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농촌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론, 사회운동 지도자와 조직운영의 기술, 신앙인의 시대적 사명 등으로 교육훈련의 내용을 바꾸어 나갔다. 이러한 의식변화와 함께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가운데 농촌선교와 사목을 위한 ‘농촌사목협의회’가 결성되기에 이른다.⁹⁷⁾

1970년대에 들어 정부의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화정책과 맞물린 농산물 저가정책과 외국 농산물 수입증가로 강제이농이 가속화 하는 등 농촌경제의 파탄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72년 4월 5일 개최된 제3차 대의원 총회에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로 이름을 바꾸고, 그 중점목표를 ‘농협민주화’로 설정하였다.

농협민주화는 5.16 군사정권에 의해 제도화된 농협 조합장 임명제를 철폐하는 등의 농민자치기능 회복운동을 뜻하는 것이었다. 가농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토론회를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농업 협동화와 농촌민주화’를 목표로 각종 협동사업과 농민의 협동조직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농민의 자주적 조직력의 질적 향상과 확대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었다.

가농의 활동은 평협 차원의 인식과 활동의지를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가농이 평협 구성 단체로서 한국교회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토양을 이루어 나간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평협 제10년기의 경제·사회 분야에서 그 공로를 크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94) 이 총회에는 6개 교구 대표 35명과 지도신부 9명이 참석하여 조직 확장 세미나, 기술 강습회, 대외관계의 적극적인 강화를 결의하는 가운데 주교회의의 공식 인준을 거론하게 된다.

95) 주교회의의 인준은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가 한국가톨릭농민회로 명칭이 바뀐 후 4년이 지난 1976년 4월에 이루어졌다.

96) 「평협30년사」, 1019쪽.

97) 위의 주와 같음.

Ⅵ. 사회복지 분야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평신도사도직이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의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교회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 완수를 촉구하였다. 특히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평신도사도직의 주된 소명을 오늘의 세상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사도직 활동은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사회복지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아니 할 수 없다.

196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 여건과 교회의 활동

평협이 출범한 1960년대 말은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정책적으로는 산업발전을 통한 가난극복을 구호로 삼고 있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천 달러를 가까스로 넘어선 상태로 사회복지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기에는 요원하였다. 더욱이 당시 일반대중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극히 미약했다.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도 가난한 이들의 교회이어야 하는 입장에서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점차 뿌리내리고 있었다. 교회 내 한글교습소가 학교로, 진료소는 병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각급 사회복지단체와 수도회들이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청소년, 교정, 노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초기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 한계성

평협 초기는 사회복지 활동 기반이 취약한데다가 당시 한국사회의 적지 않은 국민이 빈곤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협이 자체의 역량만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평협의 초기 활동이 주로 조직 강화와 내부 결속을 다지는 활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더욱더 그러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협의회라는 평협의 조직 성격 상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 때문에 평협 제10년기는 단지 평신도주일 강론과 메시지나 성명서 등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을 뿐이다. 이 시기에 평협의 사회복지 부문 활동으로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1971년 8월 26일에 개최된 평협 중앙평의원 회의가 1972년도 평협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빈곤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점이다.

이 회의는 결과를 정리하여 주교회의에 건의안을 작성했다. 건의안 제5항에서 “교회는 각 교구, 각 본당 예산에 구빈사업(救貧事業) 항목도 넣도록 할 것”과 제6항에 교회가 운동장과 강당 같은 부설물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는 평협의 이러한 건의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교회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그런대로 평협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⁹⁸⁾

98) 「평협30년사」, 138쪽.

VII. 교육 분야

평협의 초기 교육 분야 활동은 교구 평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서울과 수원평협의 경우는 주로 새로운 교회상과 평신도사도직을 주제로 한 세미나 형식의 교육인 반면에 마산평협은 평신도사도직과 선교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순회교육이었다. 평협은 1974년부터 매년 정기총회와 함께 연수회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특강 형식으로 평신도의 사회참여나 교회와 평협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 교육의 필요성

평협 창립선언서는 “한국 내의 평신자 사도직 활동을 촉진하고 원조하여 점차로 완성시키며”(1항), “모든 회원들에게 각 사도직 단체의 이념과 활동방법 및 경험의 지식을 알림으로써 서로 협조하게 하고”(2항), “이 나라의 성화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도덕, 종교, 사회문제를 연구”(4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엇보다도 평협이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결실을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평협 결성도 하향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협 창립과 더불어 교육의 필요성은 시급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교구와 본당 차원의 요구가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1969년부터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각 교구 평협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새로운 교회상과 평신도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식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은 부족하기는 하나 그 동안 수요에 미치지 못했던 교육의 기회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

교구 평협 차원의 교육

서울평협은 창립 직후인 1969년부터 정례 세미나식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의 경우에는 3월, 7월 및 10월 3회에 걸쳐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새로운 교회상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교육 참가자들의 열성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그리하여 첫 두 해 동안 3회 개최되던 세미나 횟수를 대폭 늘려 1971년부터는 하계와 동계 휴가철을 제외하고 매달 세미나를 갖기로 하였다.

1971년에 개설한 세미나 주제를 보면 ‘비인간화와 교회의 역할’(한완상 서울대 교수), ‘성소의 감소와 그 대책’(김창열 가톨릭대 학장 신부), ‘도시교회의 현황과 그 대책’(임진창 서강대 교수),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윤리문제’(최창무 가톨릭대 교수 신부), ‘평신도의 올바른 위치’(정하권 신부), ‘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사명’(박양운 신부), ‘매스컴과 교회’(김규환 서울대 신문대학원장) 등으로 다양하였다.⁹⁹⁾

이러한 흐름은 지방으로 이어졌다. 수원평협은 1969년 8월 24일에 새로운 교회상과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원교구장 윤공희 주교는 이 세미나의 축사를 통해 “평신도사도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앞서야 하는데 지금 첫 강습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세미나를 자주 열어 많은 신자들이 참석해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참다운 뜻을 깨달아 교회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주교의 이 같은 당부는 이 시기 한국교회 전체의 바람을 담은 것이어서 평협 차원의 교육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¹⁰⁰⁾

마산평협도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3일간 거창성당과 산청성당에서 ‘평신도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순회강연회를 가졌다. 마산평협 순회강연 연사로 정하권 신부, 이종창 신부, 하 마리아(사도직 협조자), 이말병 마산평협 회장 등이 참가했다. 연사들은 신자들의 평신도사도직 수행 촉구와 함께 사회를 향한 선교활동을 활성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 강연회에는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¹⁰¹⁾

전국 차원의 교육

평협의 전국 차원 교육은 교구 차원의 교육보다 실시 시기가 늦었다. 그것은 평협이 주교회의와 교구 평협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첫 교육을 위한 결정은 1971년 8월 26일에 개최된 중앙평의원회의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197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국 규모의 평신도사도직 세미나를 매년 한 차례씩 열기로 결의했던 것이다.¹⁰²⁾ 이후 평협은 매년 정기총회 때마다 참

99) 「가톨릭신문」 1971.2.28 1면.

100) 「가톨릭신문」 1969.8.31 3면.

101) 「가톨릭신문」 1969.11.9 3면.

102) 「가톨릭신문」 1971.9.5 1면.

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병행 실시하게 된다.

1973년 7월 28~30일 제6차 정기총회 및 제1회 평신도 지도자(임원) 연수회가 경북 왜관 피정의 집에서 열렸다. 연수회 주제는 ‘교회와 평신도운동의 진로’로서 김남수 주교의 ‘공의회 문헌에 관하여’라는 주제 강의에 이어 황민성 주교가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평신도의 사명’을, 현석호 가톨릭 교리연구소 소장이 ‘교회발전을 위한 평신도의 역할’을, 이태제 박사가 ‘평신도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차례로 강의하였다.

1974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왜관 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제7차 정기총회는 평협 재조직 강화를 위해 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기는 교회의 사회참여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한 때여서 연수회 주제도 ‘사회참여의 신학적 의의’(박상래 신부), ‘평신도의 사회참여 방법’(김달호 교수), ‘평협의 조직과 운영’(이종홍 신부) 등에 대한 주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¹⁰³⁾ 이때 평협은 평신도 활동이 부진한 것을 반성하고 그 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사안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교회의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평협 총회를 겸한 연수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이어졌다. 1975년 총회 때는 ‘오늘의 평신도’(김재덕 주교), ‘평신도의 어제와 오늘’(두봉 주교), ‘성직자와 평신도’(김수환 추기경), ‘평협의 조직’(이종훈 지도신부), ‘오늘의 한국교회’(문창준 꾸르실료 회장) 등의 강의를 있었다. 1976년 9월 3~5일에 마산 가톨릭문화원에서 개최된 제9차 정기총회 신자재교육을 위한 지도자 수련회를 결의하였고, 임원 연수회에서는 마산교구장 장병화 주교, 전주평협 범석규 지도신부,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김수환 추기경, 김기철 평협 회장 순으로 특강이 있었다. 1977년 9월 3일부터 이틀간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제10차 정기총회 겸 임원연수회가 열려 평협 이종홍 지도신부와 서울평협 김수창 지도신부가 강의하였다.¹⁰⁴⁾

103) 「가톨릭신문」 1974.9.8 1면.

104) 「평협30년사」, 161쪽.

VIII. 문화·언론·출판 분야

평협 출범 처음 몇 년간 문화·언론·출판 분야 활동은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교회 출판물 보급, ‘평신도 주일’(1970년 이전은 ‘평신도사도직의 날’) 홍보 포스터와 평신도 강론 참고자료 제작과 전국 각 본당과 교회기관 배포, 평협 홍보를 위한 노력들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평신도 재교육용과 피정교재를 발간하고 평협에 홍보부 신설과 자체 출판사 등록으로 신심서와 교육 자료들이 간행되는가 하면 계간지로 회보를 창간하는 결실이 있었다.

초기 평협의 홍보 활동

평협은 창립총회 직후에 개최된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주교회의에 건의안을 작성하여 보냈다. 그 건의안에는 평협의 대대적인 교회 출판물 보급운동 전개(제5항), 주교회의에 대한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 자료 출판 승인 요청(제6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교회의가 이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평협은 「경향잡지」 구독 등 교회 출판물 보급을 위해 교회 간행물 배가운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다.¹⁰⁵⁾

그리고 주교회의가 평협을 인준함과 동시에 ‘평신도사도직의 날’을 제정함에 따라 평협은 ‘제1회 평신도사도직의 날’ 홍보 포스터¹⁰⁶⁾와 평신도 강론 참고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각 본당과 교회기관에 배포하였다.

이 밖에도 평협 초기에 대외적으로 그 활동을 알리기 위해 주교회의에 건의한 사항이 적지 않았다. 제2차 총회에서 「경향잡지」에 ‘평신도 난’을 신설하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하였는가 하면, 1971년 8월에 개최된 중앙평의원 회의에서는 평협 회보를 연2회 출판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매스컴을 재인식하고 이의 육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하기도 하였다.¹⁰⁷⁾

105) 「평협30년사」, 131쪽.

106) 홍보 포스터는 서울대 미대 김교만 교수가 도안했는데 김 교수는 이 포스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16)를 삽입하여 평신도사도직의 날 행사 의미를 부각시켰다.(「평협30년사」, 130쪽)

107) 「평협30년사」, 139쪽.

평신도 재교육 교재 출판

1973년 7월에 개최된 제6차 정기총회¹⁰⁸⁾는 평협 자체로 평신도 교육용 교재를 간행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총회로부터 이 사업 추진을 위임받은 상임위원회는 1973년 9월 23일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1974년 7월에 평신도 재교육용 교재 「생활하는 신앙인」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를 통해 출판하였다.

「평협30년사」는 “이 책이 비록 140여 쪽에 불과한 소책자였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폐막된 지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공의회 문헌에 입각한 평신도 교육용 교재였다.”¹⁰⁹⁾고 소개함으로써 그 당시 「생활하는 신앙인」 출판의 의의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실제로 이 책의 편찬위원장을 현석호 평협 회장이 직접 맡고 위원으로 유재국 신부, 서정열, 양한모, 김기철, 이원순, 이승우 등이 참여할 정도로 그 출판은 매우 중요시되었다.

이후 평협은 총회 때마다 출판 사업에 대한 안건을 다루게 된다. 예를 들면, 1975년 사업계획에서도 ① 평신도주일 포스터 제작배부 및 평협 소개 리플릿 제작, ② 미사 강론 자료작성과 그 성과조사, ③ 평신도 재교육용 교재 발간 등의 출판사업의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974년도 총회가 기타 사항 가운데 당시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시국선언문 발표를 다루면서 “가톨릭 매스컴의 새로운 자세 문제”¹¹⁰⁾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평협이 교회 언론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평협은 1976년도 예산을 예년보다 3배인 500여만 원으로 증액시켰는데 이는 시성시복 촉진운동을 비롯하여 평신도 재교육 연수회와 교육용 책자 발간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¹¹¹⁾ 특히 서울평협은 1976년 3월 14일에 임원 월례 연석회의에서 평신도 재교육용 교재 출판 사업을 전국 평협이 관장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업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대교구 모든 본당에서 1년에 2만 원 정도 씩을 보조받기로 결정하여 평협의 출판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¹¹²⁾

서울평협의 찬조에 힘입은 평협은 1976년 6월 1일 평신도 피정교재로 「화해와 쇄신을 위한 크리스찬 생활」 2천 권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내용이 매우 알차게 꾸며져 있어 단순한 평신도들의 피정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평협이 출간한 대표적인 도서의 하나로 손꼽힐 만큼 오랫동안 많은 신자들의 필독서로 정평이 나기도 하였다.¹¹³⁾

108) 제6차 정기총회는 교육과 출판 홍보 사업에 총예산 140여 만원의 50%가 넘는 80여만 원을 할당하여 이 분야에 주력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평협30년사」, 144쪽)

109) 「평협30년사」, 144쪽.

110) 「평협30년사」, 146쪽.

111) 「평협30년사」, 153쪽.

112) 「평협30년사」, 157쪽.

113) 김재덕 총재주교는 이 책 추천사에서 피정교재는 풍부하고 유익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윤리와 사회원리에 입각하여 공동선에 유익하도록 편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김수환 추기경도 복음정신의 구현

출판사 등록과 평협 회보 창간

평협은 1973년부터 평신도 교육용 교재와 「평협20년사」 등 다각적으로 출판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1976년에 평협의 한 부서로 홍보부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출판사 등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이에 필요한 수속절차를 밟아 마침내 1976년 8월 30일자로 출판사 등록허가를 받게 되었다. 평협의 출판사 등록허가로 평협은 보다 활발한 출판사업을 통하여 신속한 홍보와 평신도 교육에 필요한 양서를 출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평협이 자체 출판사를 두게 됨에 따라 평협 제10년기의 마지막 해인 1977년 6월 25일을 기하여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식의 6면 계간지로 회보 「平協」을 창간하였다. 1면에 “평협 활동 극히 부진”이라는 머리기사와 김기철 평협 회장의 창간사 외에 서울평협이 가톨릭시보사 창간 50주년을 맞아 감사패를 받았다는 소식 등을 실었다. 2면 상단에는 김재덕 평협 총재주교, 경갑룡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류홍렬 평협 초대 회장, 이창복 평협 전임 회장 등의 「平協」 창간 축사가 실렸고, 하단에는 1976년 평협 총회와 상임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도·농 격차 문제에 관한 박상진 평협 조직부장의 글이 게재되었다. 3면에는 기고문 2편, 4면에는 한몽연 평협 고문의 “교회와 평신도” 제목의 논단, 5면에 서울 제3지구 평협 창립 1주년 회고, 6면에는 수필 2편이 실렸다. 「平協」은 김기철 평협 회장이 창간사에서 말했듯이 평협 창립 10년 만에 1년에 4회 내는 계간지라는 점에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나 평신도사도직의 사명을 고취하고 대화의 광장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라는 큰 기대와 의욕 속에 창간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가톨릭언론인회

가톨릭언론인회는 평협 창립 직전 해인 1967년 6월 10일 종로구 태평로 소재 신문회관에서 가톨릭 저널리스트 클럽(전국클럽) 총회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클럽은 신문, 방송, 통신, 영화, 연극, 출판 등 사회 전달 관계의 사업에 종사하는 가톨릭신자로 조직되어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다. 가톨릭언론인회가 평협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68년 7월 23일 대전에서 개최된 평협 창립총회에 대전클럽 회장을 대표로 파견하여 평협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가톨릭언론인회는 평협 임원으로도 참여하여 평협 홍보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었다.

가톨릭언론인회 전국클럽은 창립 이듬해인 1968년에 각 교구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주교회

을 강조하면서 “현실사회를 복음정신으로 성화시키는 사명은 그 속에 직접 몸담고 사는 평신도들이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책은 평신도 피정교제로서 큰 호평을 받아 1977년 1월에 재판, 1979년 5월 3판, 1984년 4판이 발행되었다.

의의 인준도 받았다. 그리고 1973년 1월 23~26일 서강대에서 주교들을 위한 매스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평협 제10년기가 끝나가는 1970년대 후반부터는 유신체제의 억압구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일종의 암흑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IX. 국제관계 분야

평협의 국제관계 분야 첫 활동인 1970년 일본 도쿄에서의 ‘그리스도교 아시아 개발회의’ 참가는 평협의 국제적 활동 지평을 확대하고 개신교 대표들과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바티칸 평신도평의회의 요청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단체 현황과 개신교의 현황을 보고하고 동 평의회와 ‘아시아지역 평신도대회’ 개최를 논의한 것은 한국 평협의 국제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

그리스도교 아시아 개발 회의 참가

1970년 7월 14~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그리스도교 아시아개발회의(Asian Ecumenical Conference for Development)’에 류홍렬 평협 초대 회장과 다른 두 명의 평신도가 함께 참가하였다. 평협 창립 만 2년만에 평협 대표가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평협 활동의 지평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 회의 참석은 평협이 개신교 대표들과 협력하여 당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였던 개발이라는 경제·사회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¹¹⁴⁾ 왜냐하면, 그것은 평신도사도직의 고유 영역이 바로 사회 복음화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개신교 신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강조한 그리스도교 일치를 촉진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티칸 평신도평의회의와의 교류

평협은 1971년 6월 바티칸 평신도평의회의 요청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단체 현황과 개신교의 현황을 동 평의회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동 평의회가 ‘아시아지역 평신도대회’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파견한 동 평의회 자문위원 일본인 평신도 안사이 노부루(安齊伸) 교수와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평협은 ‘아시아 지역 평신도 대회’ 개최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안사이 교수는 귀

11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백서 제10년기 경제·사회 분야를 참조할 것.

국 후 일본 「가톨릭신문」(カトリック新聞) 1971년 11월 28일 자에 한국의 평신도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 가톨릭이 아시아 가톨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평협 제10년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에 아시아 지역 평신도대회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교류는 한국 천주교회가 일본 천주교회를 비롯해 세계 교회에 자신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평협의 향후 국제적 교류와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1970년대에 평협 차원에서 전개된 국제교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것은 이 시기가 밖으로는 세계 교회 차원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평신도에 관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고 안으로는 평협이 성장을 위한 내적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국제교류는 평협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평신도사도직의 사명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X. 민족화해 분야

평협 제10년기의 민족화해에 대한 접근은 월남 후 재혼으로 인한 혼인조당을 풀어주기 위한 건의문과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북한 복음화의 사전 대비 건의문을 주교회의에 제출하는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7·4 남북공동성명과 8·3긴급조치 등 시국문제에 대한 교회의 견해를 밝히는 메시지를 발표한다.

월남한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접근

평협 차원의 대북관계는 이산가족 가운데 혼인문제를 둘러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현안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평협은 1970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성모여중·고교에서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에서 북한에 아내나 남편을 남겨두고 남하한 교우들의 혼인조당을 풀어주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배우자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주교회의에 제출기로 결의했다.¹¹⁵⁾

1970년 10월에 개최된 추계주교회의는 평협의 건의 즉 북한에서 월남한 신자들의 혼인장애 제거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본당신부를 통해 교구청에 문의해 올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북한에서 월남한 신자들 가운데 한국에서 재혼한 경우에 교회법상 자동적으로 조당에 걸리게 되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냉담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평협이 이처럼 월남한 신자들의 혼인장애문제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 두고 온 아내나 남편 등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노력은 당사자들의 피 맺힌 한을 풀어주는 인도적 차원의 활동으로서 교회 안팎의 큰 관심을 끌었다.

초기 평협의 대북한 사상

평협이 출범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반 하더라도 평협의 대북한 인식은 반공사상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것은 1971년 8월 26일 평협 중앙평의위원회가 “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115) 「평협30년사」, 135쪽.

와 도덕윤리의 타락을 추방하고 공산주의를 배제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주교회의에 제출¹¹⁶⁾한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건의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협 초기에 대북한 관심은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현안 사안에 덧붙여지는 정도로 크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평협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반공에서 북한 복음화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협은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 성 베네딕도회 수녀원 명상의 집에서 개최된 제5차 정기총회 의결로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안이 민감하여 일단 그것을 보류하고 주교단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교회의에 “7·4 남북공동성명의 중대성에 비추어 성직자와 평신도가 혼연 일체되어 신앙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복음화의 사전 태세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였다.¹¹⁷⁾

주교회의의 의장인 김수환 추기경은 평협의 건의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1972년 8월 15일에 7·4 남북공동성명과 8·3긴급조치 등에 관한 시국문제를 하나로 묶어 교회의 견해를 밝히는 ‘현 시국에 부치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¹¹⁸⁾ 이 메시지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남북대화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십자가의 길임을 강조하여 남북대화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 발표는 평협이 대북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16) 위의 책, 138쪽.

117) 위의 책, 143쪽.

118)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통일사목연구소,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자료집Ⅰ 1945-1991」, 1992, 502쪽.



White Paper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평협 제20년기 (1978~1987)

- I. 교회내적 관계
- II. 선교분야
- III. 가정 · 생명 · 환경 분야
- IV. 정치 분야
- V. 경제 · 사회 분야
- VI. 사회복지 분야
- VII. 교육 분야
- VIII. 문화 · 언론 · 출판 분야
- IX. 국제관계 분야
- X. 민족화해 분야

40th
CLAK

I. 교회내적 관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전국 단체 폐지론”, 평협의 ‘평신도 주일 헌금 관리 개선 건의’와 주교회의의 부결 등 갈등으로 시작된 평협 제20년기 교회내적 관계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서울대교구 주선으로 독자적 평협회관 마련과 인천, 제주, 춘천, 대구, 광주 교구의 순으로 평협이 결성 완료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화를 이루었지만, 1984년의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 실천 건의로 인한 갈등이 생기게 되고 1987년 평협의 정치활동과 주교회의의 담화문에 대한 평협의 비판이 이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교단을 따라 성찰하는 평협의 모습에서 양자 관계의 진면목을 읽게 된다.

전국 평협 해체 논란

평협 제20년기 벽두부터 평협은 큰 시련에 봉착한다. 그것은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전국 단체 폐지론”을 들고 나온 때문이다. 1978년 1월 6일에 개최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평협,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꾸르실료협의회, 가톨릭대학생회 등 5개 전국 단체를 전국 기구 중심이 아닌 교구 단위로 환원시킴과 아울러 전국 기구로서의 명칭과 운영방법을 폐지할 것을 주교회의에 의안으로 상정기로 한 것이다.¹¹⁹⁾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이러한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모임이 1978년 1월 15일 서울 꾸르실료 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 사무총장 이종홍 신부는 그 이유로서 ① 예산부족, ② 협의체로서의 운영미비, ③ 총재주교의 지도시간 부족, ④ 교구 단위의 활동 강화를 들었다.¹²⁰⁾ 그리하여 평협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① 자체 모금, ② 협의체 운영방식 개선, ③ 지도신부 지도강화 등을 평협 운영 재정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평협의 총의를 모아 춘계 주교회의에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¹²¹⁾

그러나 전국 단위 평협이 폐지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 조직되었지만 그 조직과 활동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전국 단위 평협이 먼저 결성되고 교구 평협이 하향적으로 설립되는 선후가 바뀐 기형

119) 「평협30년사」, 164-166쪽.

120) 「가톨릭 서울」 1978.2.1, 1면.

121) 위의 주와 같음.

적 과정을 거쳐 시작하였고, 교회 안의 다른 사도직 활동과 충분한 협의나 논의 과정 없이 조직되어 운영된 탓으로 교회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호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삼았다.¹²²⁾

평협은 1978년 2월 5일 임시총회를 열어 주교회의에 전국 협의체 해체안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4개 항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건의문은 ①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정신에 맞지 않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의 백지화와 ② 현대 교회에서 평신도 활동의 확대·강화 요청에 따라 바티칸의 평신도 기구가 승격·강화된 것을 참작, 적극적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③ 교회의 구세사명과 그리스도 사도직을 자각하고 순교 선혈의 후예로서 그 정신을 더욱 빛낼 것을 맹서하면서 ④ 1972년 해체된 가톨릭 전국 기구의 주교회의 인준을 요청하였다.¹²³⁾

그 당시에 평협을 담당하고 있던 김재덕 총재주교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평협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에 따라 주교회의 총회에 의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보되어 평협의 전국 활동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주교회의의 평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 사실은 이문희 대주교가 밝힌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78년 주교회의 추계총회 회의록이 잘 말해준다.¹²⁴⁾ “평협 조직은 협의 기관이라야 하는데 현재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각 기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각 단체들이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협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데, 중앙집권의 기구처럼 결의·시달하는 경향이다. 또 전국 대표와 교구 평협 대표의 구성은 이중 구조로 생각된다. 주교협의회의 협의 성격과 같은 것이 반영되기 바란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교회의에서 표출된 평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그 끝은 1970년대 중반부터 깊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평신도 주일 현금 관리 개선 요구

평협이 1972년 7월 제5차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에 건의한 평협 중앙협의회의 강화책으로 평신도 주일 2차 현금의 반을 중앙협의회에 납부하는 안건을 주교회의가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¹²⁵⁾ 그러나 그 후 평협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1976년에 주교회의에 내었던 평신도 주일 2차 현금의 평협 직접 관리를 건의하였다. 1976년 건의는 1971년 주교회의 결정으로 전국 단체 기금을 CCK 사무총장이 관리해오며 따라 평협의 유일한 재원인 평신도 주일 2차 현금도 CCK에서 관리되고 있는

122) 김영수 신부, “평신도사도직과 평협”, mimeo.

123) 건의문 전문은 「가톨릭 서울」 1978.2.1, 1면 참조.

124) 이문희 대주교, 앞의 글.

125) 「평협20년사」, 126쪽.

데 대해 주교회의에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었다. 평협은 다른 단체들의 자금과 달리 평신도 주일 2차 헌금은 전국의 평신도들이 평협 활동을 위해 사용하라고 모아 보내는 것이므로 CCK를 통하지 않고 평협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¹²⁶⁾ 이 건의는 1971년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주교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그 후 다시 평협은 1978년 제11차 정기총회의 결정으로 평신도 주일의 1, 2차 헌금 전액을 평협 기금으로 사용하게 해줄 것을 주교회의에 건의한다. 이 건의는 매우 당찬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그것은 1976년 건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협은 1976년의 건의가 주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라 보다 과감한 건의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물론 이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평협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평협20년사」에 기록하였다. 교회 내에서 위치가 가뜩이나 모호한 마당에 자금이 넉넉지 못해 평협의 활동이 말할 수 없이 위축되고 있는 점은 총재주교나 지도신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¹²⁷⁾ 그리고 평협을 지도하는 성직자들은 “평신도의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입각해야 한다. 그 자율성은 보장받되, 성직자의 지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에 평협 간부들은 평신도사도직을 말할 때 흔히 앞세우는 평신도의 자율성에 한계를 느끼고 “CCK 사무총장 신부에게 가서 일일이 돈을 타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판국에 자율성은 무슨 자율성인가”라는 자탄을 하였다는 기록도 남겼다.¹²⁸⁾

이와 같이, 평협 창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성직자와 평협 임원들의 생각은 동상이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달랐다. 이것은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위원회가 의안 준비의 일환으로 1982년에 실시한 ‘종교사회 실태 조사’에서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나왔듯이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서로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¹²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요인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평협 회관 마련 입주

서울평협은 1975년 2월부터 서울 성북구 동선동 소재 꾸르실료회관에 세 들어 지내다 4년여 만인 1979년 9월에 독자적인 회관으로 옮겼다. 서울평협 회장이 평협 회장을 겸하고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평협의 독자적 회관 마련은 곧 평협 회관의 마련이나 마찬가지였다. 새 회

126) 「평협20년사」, 166-167쪽.

127) 「평협20년사」, 167쪽.

128) 위의 주와 같음.

129) 「평협20년사」, 205-206쪽.

관은 성모병원(현재 가톨릭회관) 후문 가까이에 있는 중구 저동 소재 옛 중국인 성당이었던 건물로서 서울평협은 1979년 9월 11일에 이곳으로 이사한 후 9월 26일에 개관식을 가졌다.¹³⁰⁾

서울평협이 그 동안 숙원이던 독자적인 회관을 갖게 된 데는 서울대교구청의 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¹³¹⁾ 서울대교구청의 이러한 배려는 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의 뜻임은 분명하지만,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서울대교구가 서울평협의 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냉각상태에 있었던 서울대교구와 서울평협 간의 교회내적 관계가 서울평협의 활동 재개와 새로운 회관의 마련으로 매우 원만한 상태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1978년 3월까지도 서울평협 회보인 「가톨릭 서울」이 일부 본당에서 본당신부의 배포금지 조치로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을 서울평협이 중시하고 있다¹³²⁾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서울대교구와 서울평협 간의 교회내적 관계 회복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교구 평협 결성 완료

평협이 해체 위기를 맞으면서도 명실상부하게 전국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78년부터 시작된 평협 제20년기이다. 이 시기에 인천교구, 제주교구, 춘천교구,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 순으로 평협 결성을 하게 된다.

인천교구는 1967년 8월부터 인천교구 사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다가 1979년 3월 18일에 인천 가톨릭회관에서 교구 평협을 출범시켰다.¹³³⁾ 그리고 한 달 뒤인 1979년 4월 29일 제주교구도 10개 본당과 교구 단위 단체 대표들의 발기인 총회를 거쳐 제주평협을 창립했다.¹³⁴⁾ 춘천교구는 1982년 3월 3일 가톨릭교육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관과 사업계획을 수립, 춘천평협을 창립했다.¹³⁵⁾

한편, 대구대교구와 광주대교구는 새로이 평협을 창립하지 않고 기존의 평신도 조직을 평협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대구대교구는 1982년 3월 23일에 기존의 ‘가톨릭액션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들과 각 본당 대표를 추가하여 통합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평협 체제로 전환하였다.¹³⁶⁾ 광주대교구는 1972년 2월에 각 본당 ‘사도회’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창립된 ‘사도회연합회’가 그 동안 전체 교구민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전국 평협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각 본당 ‘사

130) 「가톨릭 서울」 1979.11.30, 1면.

131) 위의 주와 같음.

132) 「가톨릭 서울」 1978.3.26, 1면.

133) 「가톨릭신문」 1979.4.8

134) 「평협30년사」, 901쪽.

135) 「가톨릭신문」 1982.3.21, 7면.

136) 「평협30년사」, 742쪽.

도회' 및 '사목협의회' 회장과 교구장의 인준을 받은 신심단체와 활동단체를 포함하여 1985년 1월 5일 창립총회를 열고 평협을 발족하게 된 것이다.¹³⁷⁾ 따라서 광주평협의 경우는 평협 체제를 새로 시작하지 않고 '사도회연합회' 체제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로써 서울, 대구 및 광주의 관구 단위 3개 대교구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 단위 교구의 평협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다.¹³⁸⁾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평협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데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끝난 후부터 20년이 넘는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부터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 평협 조직이 완전히 갖추어졌다는 것은 공의회 정신에 따른 그리스도 신앙의 현대사회에의 적응과 그 적응과정의 주체로 부각된 평신도들의 선교역량을 한국교회의 사목 구조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것이라 아닐 수 없다.

주교회의에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 실천 건의

한국선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전국 사목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공식문서로 1984년 11월에 '한국 천주교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으로 발행되었다. 이 의안집의 '평신도 의안' 부분에는 평신도 활동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스물여섯 가지 제안이 실려 있다. 교회와 사목자가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예컨대, 교회의 시설, 활동, 제도, 전례 등을 평신도에게 훨씬 더 과감하게 개방하라는 제언, 평신도를 관리하고,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고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라는 제언 등이 그것이다. 이것이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제안 사항'이다.

'평신도 의안'은 "교회 직무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근본적인 사명은 곧 선교의 사명"¹³⁹⁾이라고 하여 평신도의 교회 직무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선교 200주년 사목회의를 통한 평신도와 평협의 선교적 사명이 지니는 본질적 의의와 현실적 소명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에는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제안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이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항목 순으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37) 이날 총회는 앞으로의 방향을 교구사목계획연구와 실천방안 모색, 교구신심 사도직단체 및 각 본당 평협 현황 파악과 협력지원, 사도직 활동을 위한 연구 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광주·목포·여수·순천·강진·해남 등 지구별 평협 활동과의 유대와 협력, 교구단위 특수 평신도 활동과 사업, 대사회적 활동과 교구 평협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실천에 두기로 하였다. (『가톨릭신문』 1985.1.20, 7면)

138) 비지역 단위의 특수사목 교구인 군종교구는 1989년 10월에 설정되어 1990년 2월 13일에 평협을 조직하였다.

139) '평신도 의안' 114항.

도시와 농촌 간 나눔의 실천과 연대의식 고취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 강구(1항), 교구 및 전국 차원 사목협의회의 효과적 참여(5항), 본당 사목협의회의 여성 참여(6항), 교구 및 전국 차원의 평신도 문제 전담 평신도국 설치(7항), 본당은 물론 교구 및 전국 차원에서 교회의 주요 결정에 완전히 참여(8항), 교회의 운영과 재산관리, 특히 평신도의 전문지식이 긴요한 분야에서의 중요한 지위 담당(9항), 평신도의 강론 참여 개방(10항), 평신도와 성직자의 강론험의회 같은 제도적 장치(11항), 평신도사도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설치(12항), 평신도사도직에 있어 자율성 인정(16항), 평신도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시(22항), 신학대학에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23항) 등이다.

이러한 제안은 평협이 평신도 스스로 세운 한국교회의 주체로서 선교 3세기를 향한 미래사목적 과제를 찾아나가는 좌표를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단순히 문서로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체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값진 것이었다. 그것이 비록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구체화되기 힘든 부분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평신도의 궁극적인 선교 사명을 실천하는 키워드를 간직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이후 각 교구별 시노드 개최 때마다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와 검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은 과거 교회의 직무 실천을 반성하면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대폭 수용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목 현장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평협은 평신도의 포괄적인 교회 직무 참여를 장려하는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을 스스로의 과제로 인식하고 주교회의에 그 실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협은 1984년 임시총회에서 주교회의에 ‘200주년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의 실천을 건의하면서 평신도국 신설, 평신도 주일 현금 전액의 평협 기금화, 주교회의에 평신도 옵서버 참관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주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협은 또다시 1986년 4월에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주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 건의문은 200주년 사목회의가 한국교회의 쇄신과 토착화에 큰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하루 속히 ‘사목회의 의안’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실천을 간곡히 청하였다.¹⁴⁰⁾

평협의 주교회의에 대한 계속되는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의 실천 요구는 평협과 교계제도와의 갈

140) 특히 이 건의안은 “사목회의에서 제안된 의안들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점도 있을 것이나 600여명의 성직자, 수도자, 신자로 구성된 위원들의 투표로 채택된 것이라 생각하면 비록 사목회의가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문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교님들은 사목회의에서 채택된 의안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고 “이 사목회의의 의안들을 실천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교회내적으로 복음적 공동체가 되고 교회 외적으로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는 강력한 희망을 나타냈다. (『평협30년사』, 191쪽).

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교회의의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의 실천 요구의 거부나 무대응에 대해 평신도의 성직접근을 봉쇄하려는 “제도주의적인 교회관의 성직주의”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비판적 논자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이며 로마보다 더 로마적이라고 말하거나, 보수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적인 교회운영은 로마교회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까지 하였다.¹⁴¹⁾

교도권의 입장에서 1986년 평협의 주교회의 건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평협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에 의하면, 당시 전국 평협은 “한국의 신자 모두가 소속되는 거대한 단체 행세를 하고” 평협 회장이 “한국 천주교 신자의 대표로 자처하기에 이르렀으며”, “1986년 10월 6일 사목주교위원회에서 다룬 전국 평협 건의문에는 다른 여러 가지 건의와 함께 전국 평협의 담당주교는 주교회의 의장으로 하기 바란다는 말도 있었다.”¹⁴²⁾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전국 평협은 각 교구의 주교도 모르는 가운데 전국 평신도들에게 지시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하고 “교구장이나 본당신부들을 제쳐놓고 따로 평신도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생활양식”¹⁴³⁾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국 평협이 교회법이나 교회론에서 벗어난 형태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고 평협 회장은 평신도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협과 평협 회장의 명의로 주교회의에 전국 평신도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의 실천 건의 행위는 당연히 불가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은 교구나 본당의 평신도의 대표는 교구장이나 본당신부라는 교회법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평협은 그 나름대로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입장을 정리하면, 평협은 당연히 교회법과 교회론을 존중하지만, 평협이 평신도를 대표할 수 없고 구조적으로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 실천 건의도 할 수 없다면 평협의 존재의의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평협 활동의 잠정 중단과 회칙 개정에 따른 진통

평협 제20년기가 시작된 1978년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평협 등 전국 단위 단체 폐지 의안 발의에 이어 평협 제20년기를 마감하는 1987년에 주교회의는 전국 평협, 가농 등의 활동 정지라는 또한 한 번 제재를 발동하였다. 주교회의 1987년도 춘계 정기총회(3월 23~27일)는 평신도사도직 단체 전국 기구의 당면 문제 논의 결과, 현실참여가 많은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141) 박현준, “가톨릭 교회의 직제와 평신도” 연구논문(www.josephyoo.pe.kr/file/index)

142) 이문희 대주교, “평신도사도직의 현재와 전망”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교회구조에서 본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 세미나(2004년 11월 5~6일,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

143) 위의 글

및 가톨릭학생회 전국연합회의 활동을 새 회칙 인준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시켰다.¹⁴⁴⁾

평협은 주교회의로부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새로운 회칙이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각 교구 평협만 활동을 계속한다.”¹⁴⁵⁾는 통고를 받고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발표하였다. 평협 담당인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는 평협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주교회의의 뜻을 대변하면서 “나는 CCK 사무국장 재임 중에 전국 평협을 조직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근간 평협이 너무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으로 흐르기에 묵과할 수 없어 제한한 것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¹⁴⁶⁾

그것이 비록 잠정적인 활동 중단이라고는 했지만 「평협30년사」가 1987년을 “1968년 평협 결성 이래 매우 힘든 시련과 고통을 겪은 한 해”로 기록했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 1978년에는 평협 담당 주교가 “전국 단체 폐지론”에 맞서 평협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태를 진정시킨 반면에 1987년의 경우에는 담당 주교 자신이 그러한 결정에 앞장섰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진통은 1962년에 한국 천주교회의의 교계제도가 수립됨과 거의 동시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시작되었고, 평협이 구성된 지 불과 15년 만에 개최된 200주년 사목회의 등으로 숨 가쁘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평신도의 정체성 찾기와 이를 반영한 평신도사도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부터 비롯되었다. 결국 그러한 요구에 부담감을 느낀 주교회의가 교계제도 상의 특성을 내세워 평협 활동을 일정한 형태로 제한하려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즉, 주교회의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평협이 일반 평신도 단체와 구별되는 전국 평신도들의 대표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 하고 활동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추구하며 과감한 현실 참여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¹⁴⁷⁾ 당시 평협 집행부도 주교회의의 결정을 평협의 활발한 현실참여 등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하면서 그 의도가 일차적으로 전국 평협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¹⁴⁸⁾

주교회의는 1987년 11월에 개최된 추계 정기총회에서 평협의 전국 활동에 대한 ‘4년 기한부 회칙’을 인준하였다.¹⁴⁹⁾ 주교회의가 인준한 ‘4년 기한부 회칙’의 주요 골자는 첫째, 전국 평협의 목적을 각 교구 평협과 전국 단체들 간의 협력 도모와 경험과 정보의 교환 및 활동 촉진에 두며(제2조); 둘째, 세 관구에서 윤번으로 회장을 맡고(제8조); 셋째,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지도신부의 동의를 얻어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제16조)는 세 가지 점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폐지한 것 등이다.

이 회칙을 접수한 평협은 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문서로 작성하여 각 교구 평협 회장들에게 발송하였다.¹⁵⁰⁾ 평협 회칙을 둘러싼 주교단과 평협 집행부의 갈등은 1987년 한 해 동안

144) 「가톨릭신문」 1987.4.12, 1면.

145) 「평협30년사」, 200쪽.

146) 「평협30년사」, 203쪽.

147) 김영수 신부, 앞의 글.

148) 「평협30년사」, 200쪽.

149) 「평협30년사」, 201쪽.

150) 「평협30년사」, 201-202쪽.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평협 집행부와 주교단 사이의 견해차가 크고 대화마저 단절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교황 바오로 6세가 1969년 3월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제5차 총회에서 당부하고 평신도 대표가 답사로 다짐한 바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 대화와 의견교환을 통한 공동의 노력¹⁵¹⁾을 한국교회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평협의 정치적 활동과 주교회의와의 입장 논란

평협 회칙을 둘러싼 주교단과 평협 집행부의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평협은 또 한 번 주교회의와 맞부딪치게 된다. 그것은 1987년 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 평협이 정치적 활동에 관여한 데서 발단되었다. 즉, 그해 10월 29일에 ‘민주쟁취 국민운동 천주교 공동위원회’가 발족되고 한용희 평협 회장이 이 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한편, 12월 16일에 실시되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정선거 감시단의 운영본부를 평협 회의실에 설치한 것이다.

평협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 교회내부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교회가 정치, 인권, 사회 등 현실문제 등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겨 평협 회장단에 대하여 비판적인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에 대한 발언과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자들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1987년 11월 19일에 주교회의는 추계 정기총회를 폐막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주교단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은 정치단체가 아닌 교회는 선거에 초연해야 하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¹⁵²⁾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통령 직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주교단이 발표한 담화문은 교회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평협은 12월 5일에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주교단의 발표에 대한 평협의 견해를 밝히기로 결의하고 12월 7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¹⁵³⁾ 이 호소문은 주교단의 담화내용이 “교회적 입장에서는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시대적 요청을 간과한 점이 있다.”고 전제하여 평협은 주교회의와 입장이 다름을 밝혔다.

호소문은 또 “민주화에 대한 강렬한 욕구, 군정종식, 부정선거의 배제 등” 한국의 시대적 징표에 대해 “주교단은 복음적 입장에서 언급하고 판단”하기보다 “소극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을 주며, “교회는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교단은 여러 해 동안 부

151) 「평협20년사」, 103-105쪽.

152) 「경향신문」 1987.11.20 1면.

153) 「동아일보」 1987.12.9 6면.

정과 불의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호소문은 주교회의에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보다 복음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이 있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평신도들에게는 “군정을 종식시키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참다운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할 것”을 호소하였다.

II. 선교 분야

평협 제10년기 선교 분야 활동의 특징은 평협 창립의 직접적 동기가 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구체화하면서 선교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평협 창립과 함께 ‘평신도사도직의 날’이 제정되고, 담당 주교가 평신도사도직의 날에 발표하는 담화문을 통해 선교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는 등 실질적인 교회 선교활동이 점차 궤도에 진입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역사적 계기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시대 개막이 이루어짐에 따라 평협은 1979년 정기총회에서 신자배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선교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평협 제20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선교 열기 확산

평협을 통한 선교활동의 조직적 전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선교의 사명과 삶을 실천할 의지를 함양할 목적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국 가톨릭 중·고생 웅변대회이다. 평협은 1978년부터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인 1981년까지 매년 10월에 서울대교구 후원으로 전국 가톨릭 중·고생 웅변대회를 개최하였다.¹⁵⁴⁾ 이 웅변대회에는 전국 각 교구 평협들도 예선전을 거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¹⁵⁵⁾

1981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개최된 평협 제14차 정기총회는 1981년이 역사적인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으로 그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될 전국 신앙대회에 모든 평신도들이 일치하여 참여키로 결의했다.¹⁵⁶⁾ 평협의 이러한 결정은 조선교구 설정에 이르기 전까지의 초기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신도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정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평협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김대건 신부 시성 촉진운동 등을 전개했다. 이는 초기 한국교회 선교들의 고귀한 선교적 삶에 대한 평신도의 새로운 자각과 이를 통한 선교열기의 확산을 의도한 것으로 이러한 노력은 평협 제20년기에도 각 지역의 순교자 현양대회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나갔다. 그것은 주로 각 교구의 설립 기념행사를 교구 신앙대회로 승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띄었는데 수원평

154) 「평협30년사」, 169쪽.

155) 1979년 10월 14일 명동성당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에는 서울, 대구, 광주, 제주, 마산, 전주, 대전 7개 교구 대표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2명이 참가하였다. (「가톨릭 서울」 1979.11.30, 1면)

156) 「평협30년사」, 176쪽.

협이 평협 설립 후 첫 행사로 1978년 9월 18일 미리내 성지에서 순교자 현양대회를 개최¹⁵⁷⁾한 것이 시발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선교 열기 확산은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교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교구의 선교 열기 확산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은 교구 평협이었다. 그 가운데서 원주교구, 인천교구, 전주교구, 부산교구 등에서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원주교구는 1980년 6월 29일에 성지 배론에서 교구 창설 15주년을 기념하는 신앙대회를 개최하고 1981년 9월 27일에는 교구 신앙대회를 개최하였다.¹⁵⁸⁾ 인천교구는 교구 평협 주관으로 교구 설정 20주년을 기념하여 1981년 6월 6일 인천 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교구 각 본당에서 2만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81 인천 성체대회’를 거행했다.¹⁵⁹⁾ 전주교구도 1982년 10월 31일 해성학교 강당에서 일종의 평신도 지도자 대회라고 할 수 있는 평협 신앙대회를 열어¹⁶⁰⁾ 평협의 존재를 알렸다. 특히, 부산교구는 1982년 4월 5일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교구 공의회를 개최¹⁶¹⁾하기도 하였다.

전국 사목회의 준비와 평협의 역할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과 한국 선교 200주년을 맞이했던 1980년대 전반의 한국교회는 200년에 걸친 선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를 신앙대회로 승화시키는 전국 사목회의를 통해 새로운 선교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평협은 중앙과 각 교구를 통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교회 선교 3세기를 맞이하는 전령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

1980년 2월 23일에 서울대교구 주교관 회의실에서 한국 선교 200주년 행사 준비위원장인 경갑룡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가 주재하는 200주년 시안 마련을 위한 전국 대표자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전주, 원주, 마산, 안동, 수원 등 9개 교구의 평협 회장들이 각 교구 사목국장 및 대표들과 남녀 수도장상연합회 장상들과 함께 참석하였다.¹⁶²⁾

200주년 전국 사목회의 행사준비는 평협이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 선교 200주년 행사 시안 마련을 위한 전국 대표자 모임의

157) 「평협30년사」, 658쪽.

158) 「평협30년사」, 701쪽.

159) 「평협30년사」, 596쪽.

160) 전주평협 신앙대회는 각 본당 사도회 임원, 공소회장, 제 단체 임원, 농민회, JOC 회원, 대학생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신도,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평협30년사」, 889쪽)

161) 부산평협은 이 교구 공의회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이 땅에 새롭게 육화시키며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 우리 자신의 새신과 일치를 이루고자 겸허한 자세로 오직 하느님께 자신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교회 본연의 임무인 복음 선교에 임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평협30년사」, 787쪽)

162) 「가톨릭 서울」 1980.2.29 1면.

사회를 평협 김기철 회장이 맡았다는 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리고 200주년 행사 실무를 담당할 행사준비위원회 평신도 상임위원으로 평협 회장, 평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여성 대표(1명), 전문위원(5명)이 참여하였다.¹⁶³⁾ 또한 1980년 6월에 결성된 200주년 기념사업 전국 준비위원회에는 교구 평협 회장들이 교구대표위원으로 위촉되었다.¹⁶⁴⁾

전국 사목회의의 핵심적 문헌이 될 의안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전국 및 교구 평협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평신도들이 대의원 및 임원으로 참여하였다. 각 본당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신도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는 한홍순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하여 각 본당 평협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200주년 기념사업의 가장 큰 사목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인 12개의 의안이 마련되었다.¹⁶⁵⁾ 12개 의안 중 ‘평신도 의안’이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였음은 물론이다. 평신도 의안은 “교회 구성 요인인 평신도의 일반상과 그 사도직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조명하고 이 땅에서의 평신도상을 정립”¹⁶⁶⁾하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이 ‘평신도 의안’은 1984년 11월에 전국 사목회의에서 선포된 이후에 평협의 정체성 확립과 활동 전개의 지표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평협은 한국 선교 200주년 전국 사목회의를 앞두고 정기총회와 임원 연수회를 통해 200주년 선교 정신에 맞는 평협의 진로 모색에 힘을 기울였다. 1982년 2월 13~14일에 개최된 제15차 정기총회에서 ‘200주년을 향한 평신도의 역할’(오테순 신부)과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방향’(양한모 크리스천사상연구소 소장)을 주제로 한 강의를 있었다.

그리고 계속된 임원회의를 통해 ‘200주년 사목회의의 방향과 전망’(정의채 신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정진석 주교), ‘평신도가 보는 평신도의 진로’(김기철 회장), ‘평협의 진로’(오테순 신부)에 관한 강의를 이어졌다. 1985년 3월에 개최된 제16차 정기총회에서는 ‘200주년과 시성 시복운동’(김남수 주교), ‘한국 초대교회사’(변기영 신부), ‘200주년과 정신 운동’(한순희 수녀) 등 활발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한국 선교 2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평협의 이러한 준비와 노력은 200주년 기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만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성공적인 20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그 이후 한국교회 300년 즉, 선교 3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163) 이밖에 참여자로 양대 신학대학 학장, 3관구 사목국장, 남녀수도자 장상연합회장이 포함되었다. (『가톨릭 서울』 1980.2.29)

164) 2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경갑룡 주교)는 1980년 6월 3일에 전국준비위원을 위촉했다. 이때 위촉된 전국준비위원은 교구 대표위원 28명, 남자수도회 대표 5명, 여자수도회 대표 10명, 기관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모두 51명이며, 이 가운데 평협은 교구 대표위원으로 참여했다. (『가톨릭신문』 1980.7.13, 1면)

165) 12개의 의안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전례, 신심운동, 지역사목, 교리교육, 가정사목, 특수사목, 교회운영, 선교, 사회 의안 등이다. (『평협회보』 1984.11.12, 3-22쪽)

166) 평신도 의안" 2항.

한국 선교 200주년 기념과 선교 3세기 진로

1984년 5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 땅에 빛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 선교 200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는 선교 3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의 새 진로 개척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목적 목적으로 교황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한국교회사상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5월 6일 역사적인 한국 선교 200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 개회사를 낭독하였다. 교황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신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앙을 찾아 나섰던 한국교회에 뜨거운 경축 인사를 하였다. 교황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나라에 그리스도 신앙이 들어온 2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쁨과 고마움으로 경축하면서, 여러분은 하느님 은총으로 ‘이 땅에 빛을’ 가져오기로 결의했습니다.”라고 상기시키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복음 선포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교황은 100만여 명의 한국 신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대회와 함께 103위 순교자의 시성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아비뇽 교황시대 이후 로마 바티칸 밖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시성식이었다.¹⁶⁷⁾ 이런 점에서 한국 선교 200주년과 한국 순교성인 시성식은 현대 가톨릭교회사에 큰 의미를 남기게 되었다.

실로 이 날은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었다. 특히 평신도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200년 전 평신도의 힘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103위의 순교 성인 가운데 92위가 평신도라는 자부심도 컸다.

200주년 사목회의를 통해 한국의 평신도들은 김수환 추기경이 사목회의 폐막미사 강론에서 말한 것처럼 “순교의 역사를 마감하고 증거의 역사를 살아가야 할” 소명을 안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천주교회 선교 3세기의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 평신도들은 그 소명의식이 200주년 기념대회와 103위 순교자 시성식이 열린 현장에서 이미 각인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평신도들은 식이 끝나자마자 하나 같이 자발적으로 나서 휴지 조각 하나 없는 깨끗한 여의도 광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습은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기와 매일 계속되는 시위로 온 나라가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던 암울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대비되며 전 세계 TV 화면에 뉴스로 전해졌다.

이런 모습에 누구보다도 신선한 충격과 진한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다. 당연한 일일 뿐임에도 그것은 가톨릭교회의 진면목을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선교에 큰 힘이 되었다. 이것은 선교현장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이 한 가지 사례만으로도 한국교회 선교 3세기의 진로는 200년 전 한국교회 태초와 마찬가지로 평신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도 남는다. 한국교회 선교 3세기에도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167) 한국교회사연구소, 「인사이드 한국천주교회」(서울, 2010), 158쪽.

할 평신도의 선교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임무는 평협의 역할이다.

가톨릭대상 제정

평협은 1982년 2월에 개최된 15차 정기총회에서 담당 주교인 정진석 주교의 제안으로 ‘가톨릭대상’을 제정하였다.¹⁶⁸⁾ 평협은 ‘가톨릭대상’ 제정 취지문을 통해 “교회적 기능을 재인식하고 그 복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승인 하에 금년부터 사랑의 실천, 정의의 구현 및 인류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이바지한 교회 내외의 많은 인사를 선발하여 ‘가톨릭대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히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임을 강조하여 대상 제정의 일차적 목적이 평협을 통한 선교 사명 완수에 있음을 밝혔다.

평협은 취지문과 함께 추천 조서와 운영규정을 전국의 각 본당과 수도회, 가톨릭 전국 단체, 사회사업기관을 비롯하여 정부와 입법기관, 전국의 일간신문, 방송국, 각 경제단체,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단을 포함하여 모두 1천 7백 군데에 이를 발송하였다. 시상 후보자 추천을 의뢰받은 불교 측에서는 반응이 없었지만, 개신교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해 와 에큐메니컬운동 차원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협은 곧이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¹⁶⁹⁾ 각 부문별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 심사를 완료했다. 심사위원들의 1차 서류 심사가 끝난 후에 평협 임원들은 후보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추천 사유에 대한 확인까지 마친 후에 수상자를 확정했다.

제1회 ‘가톨릭대상’은 정의 부문과 문화 부문에 수상자를 내지 못하고, 사랑 부문에서만 김수련(52세, 여, 서울)과 이풍순(46세, 여, 충남) 등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그 이듬해인 1983년 1월 31일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시상식을 거행했다. 비록 정의와 문화 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내지 못했지만, 특히 사랑 부문은 사회복지 활동 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한 숨은 일꾼들을 발굴 시상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¹⁷⁰⁾

평협은 교구 평신도를 대표한 회원들의 협의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협이 사회복지 활동에 직접 나설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가톨릭대상’ 제정과 시상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여 교회를 알리는 일 뿐만 아니라 일선 선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복지증진과 복음화를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대상’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68) 「평협30년사」, 181-182쪽.

169) 심사위원으로 성직자 가운데 김창렬, 최석우, 이한택 신부, 평신도로 류홍렬, 김기철, 이창복, 최상선, 구상, 이순석, 김남조, 전봉조, 하승백, 양한모, 현석호, 김말룡, 신병현 회장 등이 위촉되었다.

170) 이러한 사정은 이후에도 거듭되어 2007년 제25회까지 문화, 정의 부문에서는 시상자가 없어 몇 차례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사랑 부문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수상자를 발굴하여 시상했다.

Ⅲ. 가정·생명·환경 분야

평협 출범 초기부터 가정·생명·환경 운동이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이 평협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부각된 것은 한국교회가 정부의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 제정을 반대하고 평협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힘을 모어나가는 과정에서였다. 모자보건법 반대는 교회가 생명운동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한 것은 평협 초기에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평협 제20년기에 들어서 가정과 여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수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그 관심을 표출하였다.

가정 주제 연수회 개최

평협은 1978년 9월 30일~10월 1일 서울 상지회관에서 가정을 주제로 한 전국 부녀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수회는 지방교구 여성대표, 가톨릭농촌여성회 임원, 서울대교구 14개 본당 신자 등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강의는 ‘행복한 가정운동’(박토마 주교), ‘성소와 가정’(김수창 신부), ‘사회 복음화를 위한 부녀운동’(이 소피아 수녀), ‘도시여성과 농촌여성의 생활의식’(김준기 교수), ‘평신도사도직과 가정’(김기철 평협 회장)이었다. 이 연수를 통해 신앙 안에서 가정의 중요성과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서울평협은 1979년 6월 12일 상지회관에서 부녀자들을 위한 ‘참다운 성가정 생활의 실천’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수회는 서울대교구 22개 본당으로부터 부녀자 80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가톨릭대학 교수인 예수회 이한택 신부의 지도로 진행된 이 연수회에서 수강자들은 많은 것을 느꼈으며, 특히 참회예절을 통해 가정생활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¹⁷¹⁾

여성 문제 심포지엄 개최

평협은 1980년대에 들어서 가정과 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그것을

171) 「가톨릭 서울」 1979.7.10 1면.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심포지엄을 1982년 12월 3일부터 이틀간 부산 오륜대 명상의 집에서 열었다. 제1회 여성문제 심포지엄에는 6개 교구 4개 여성단체 대표 38명과 임원 11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부산교구장 이갑수 주교의 ‘혼인과 가정의 신성성’을 주제 강연으로 듣고 김창훈 신부의 ‘생명의 존엄성과 성윤리’, 박숙자 자매의 ‘평신도운동과 여성의 역할’, 최시동 신부의 ‘가정의 행복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가정과 생명 문제에 대한 깊이를 더하였다.

제2회 여성문제 심포지엄은 1983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다루어진 주제는 안승길 신부의 ‘사회 안에서 여성의 권리’, 변갑선 신부의 ‘교회 안에서 여성의 본분’ 및 강동순 교수의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였다.

IV. 정치 분야

정치 분야에서 평협 제20년기는 다사다난했다.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신군부의 제5공화국, 1987년 6·10 민주항쟁 승리 때까지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하여 반인권적 군사독재와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되었다. 이 시기에 평협의 정치 분야 활동은 성명서 발표와 특별 기도회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는 교회와 함께 하였다.

평협 제20년기의 한국 정치 상황

평협 제20년기에는 제10년기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의 삶의 터전이며 사도직 활동의 현장이기도 한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입장을 천명하고 시국사건으로 빚어진 교회탄압에 대응하는 건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계속했다. 따라서 평협 제20년기도 제10년기에 보여준 사회복음화 원리와 활동방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것은 평협 제20년기가 시작되는 1978년 이후 한국의 정치적 시대상황이 지난 10년에 비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10월 26일 강압적인 유신체제를 이끌어오던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이른바 10·26사태로 빚어진 정치적 혼란기를 이용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등장은 급기야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엄청난 희생자를 내었고 제5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군사정권을 탄생시켰다. 이후 한국 사회는 1987년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폭로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하여 반인권적 군사독재와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되었다. 그에 따라 평협의 정치 분야 활동은 평협 제20년기의 마지막 해인 1987년까지 자유민주주의실현을 요구하는 교회와 함께 하였다.

그러나 교회와 평협 모두 한동안 신군부의 억압통치에서 비켜나 있기도 하였다. 주교단은 광주문제가 다소 수그러들자,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에 몰두하여 일시적이나마 정치적 시국현안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더욱이 신군부에 의한 제5공화국이 출범하자마자 구성된 내각에 당시 김기철 평협 회장이 체신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교회에 대한 유화책에 교회와 평협이 말려들어갔다는 비난이 쏟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천주교회와 평협은 1970년대말 이후 시국건의문을 채택하는 형태로 한국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정부당국의 잘못된 시책을 시정하여 주도록 요구하였다. 평

협은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가 막바지에 접어든 1978년과 1979년에 전면에서 나서서 “농민을 살리고, 교회 탄압 중지하라”고 촉구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여 추곡수매가 인상, 문화공보부의 교회주보발행 중지 통고 철회, 그리고 오원춘 사건으로 불법 연행된 성직자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국건의문은 한국의 경제·사회 현실과 언론 상황 등과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 분야에서 다루기로 한다.

교회 탄압에 대한 대응과 시국건의문 채택

1970년대 말 한국의 가톨릭교회는 시국 기도회, 교권 수호 기도회 등 유신독재정권을 규탄하는 기도회를 이어갔고 정부 당국은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탄압은 주로 지방 교구에서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가장 노골적인 탄압을 드러낸 것은 1978년 7월 전라북도 각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의 전주 교구 신부들에 대한 미행·감시였다. 그리하여 몇 명의 신부들이 7월 5일 밤 가톨릭센터 옥상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자 다음날 저녁 경찰기동대가 문정현 신부를 연행하려고 파티마성당(현 효자동성당)에 난입하여 신부들을 심하게 구타하고 중상을 입은 박종상 신부를 길에 버리는 이른바 ‘전주 7·6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또다시 성당에 난입하여 대책을 논의하던 신부를 구타하고 수녀들의 두건까지 벗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전주교구 신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만행을 규탄하는 가운데 사제단은 7월 11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내부부장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주평협은 7월 13일에 긴급 총회를 소집하고 성당 난입과 폭행을 지시한 책임자와 당사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철야기도회를 주관하는 한편,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짓밟히는 현실을 한국 주교단과 바티칸 및 정부 당국에 진정하는 성명서와 호소문을 발표했다.¹⁷²⁾

이 당시 정부의 가톨릭농민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등 액션단체 임원들이 무더기로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가톨릭농민회 주최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감사제 행사와 관련하여 평협의 유진훈 감사가 대전경찰서 형사에 의해 미행 감시당하고 연금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자 평협 상임위원회는 1978년 11월 5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교회박해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다.¹⁷³⁾

성명서는 가톨릭농민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임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유진훈 감사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중지하고 그의 종교적, 양심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회 안팎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교회 활동을 범죄시, 용공시하거

172) 「평협30년사」, 888쪽.

173) 「평협20년사」, 256쪽.

나 협박하지 말라고 촉구하였다.¹⁷⁴⁾ 이와 동시에 각 교구 및 본당의 주보 발행 중지를 통고한 문공부 장관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였다.¹⁷⁵⁾

1979년에 들어서도 문정현 신부의 구속 등 교회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그에 따라 9월 19일 평협은 전주 중앙성당에서 ‘인권과 교권 수호를 위한 전국 기도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후 1979년 10·26사태가 발생하고 신군부가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1982년 3월 18일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과 독재정권을 미국이 비호했다는 이유¹⁷⁶⁾로 부산 미국문화원을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다. 4월 8일 이 사건과 관련 원주교구 가톨릭교육원장 최기식 신부가 범인은닉죄로 구속되자 원주평협은 4월 20일에 교구사제단 교권 수호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어 최 신부의 석방과 교회탄압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고문 폐지와 인권 수호를 위한 특별기도회 등을 주관했다.¹⁷⁷⁾ 원주평협은 그 이후에도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1984년 4월 3일 원주교구 교구청 회의실에서 발족된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후 미국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회 실천대회(1985.9.1~2), 태백의 경동, 연화광업소 노동자들의 생존권 유지 투쟁 지원을 위한 인권회복기도회(1985.9.12; 10.27), 호헌 철폐 및 민주 개헌을 위한 미사(1985.4.29)와 단식기도, 부천 성고문 인권기도회(1986.7.15) 등을 개최하여 정부와 사회에 정의사회구현을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다.¹⁷⁸⁾

평협은 1986년 8월 9일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상임위원회를 갖고 한국 정치현실이 국민에게 극심한 불행を 초래하고 있음을 우려하여 기도와 함께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인간의 기본권 수호에 필요한 경우 정치질서에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76항과 현세질서의 쇄신은 평신도의 임무라는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7항대로 평협은 우리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집권여당과 정부에 민주화 개헌 요구, 인간의 기본권 존중, 양심수 석방, 언론기본법 개폐, 수사기관의 고문 근절, 저임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등 6개 항을 요구하였다.¹⁷⁹⁾

174) 「가톨릭 서울」 1978.12.1 1면.

175) 이에 관해서는 이 책의 평협 제20년기 문화·언론·출판 분야를 참조할 것.

176) 실제로 미국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1981년 2월 말 전두환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지지를 확신시켜 주고, 4월에 부통령 부시가, 1983년 11월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전두환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177) 「평협30년사」, 702쪽.

178) 「평협30년사」, 703-706쪽.

179) 「평협20년사」, 258-260쪽.

민주화운동 참여와 시국 성명

민주화 시위에 나섰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불거진 국민적 분노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유보시킨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는 제5공화국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뿌리째 흔들면서 민주화투쟁을 가열시켰다. 그로 인해 1987년 내내 명동성당은 매일처럼 격렬한 시위와 최루탄 가스에 휩싸여 있게 된다. 박종철 군 고문 치사사건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된 지 나흘 만인 1월 18일 명동성당 주일미사 강론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박종철 군 사건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그는 “이 나라 국민들이 불의와 부정과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보고 분노를 느껴야 한다.”고 역설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할 것을 청했다.

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평협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섰다. 김 추기경의 강론 다음날인 1월 19일 평협은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날 김 추기경의 강론에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약속하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6개 항의 내용을 담은 첫 번째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¹⁸⁰⁾

이 성명서는 “박 군의 고문치사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고문사건에 의로운 분노를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명한다.”고 밝히고, “박 군의 죽음을 계기로 이 땅에서 고문이 사라질 때까지 고문 반대에 우리의 행동을 선명히 드러낼 것”을 선언했다. “고문은 인간성에 대한 유린이고 문화민족의 존엄성을 여지없이 침해하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형태의 고문이라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또 “말단 수사관의 우연한 실책으로 이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박 군의 죽음을 계기로 고문행위의 근본적 필연적인 원인이 밝혀져야 하고 고문 종식을 위한 민족적 결단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인간성 존중, 실추된 유족의 명예회복, 수사관의 인격을 파탄에서 구하기 위해 박 군의 죽음을 비롯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일련의 고문 사건들이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서는 또 “철저한 반성 없이는 진실한 회심이 불가능하고 고문자에 대한 사회정의가 요구하는 응분의 처벌 없이는 고문행위의 근절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평협은 이 성명서와 함께 고 박종철 군을 위해 전국 각 본당에서 일제히 봉헌될 미사에서 바쳐질 신자들의 기도문 예문도 작성하여 각 본당에 배포하였다. 이어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제 20차 정기총회에서 평협은 두 번째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2월 16일에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박 군에 대한 고문행위와 행방불명자의 철저한 조사와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비리 척결 결단 촉구, 사태 발생 책임자의 응분 처벌과 원인의 근본적 제거를 요구했다. 그리고 신자들은 9일간(2.28~3.8) 민주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화살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치고, 절제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것을 사회정의 구현에 봉헌하며, 3월 4일 재의 수요일을 기해 사순절 동안 이 운동을 더욱 고양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¹⁸¹⁾

180) 「가톨릭신문」 1987.1.25 1면; 「평협20년사」, 261-262쪽.

4월 28일에 서울평협은 전국 각 교구 사제단의 ‘민주화를 위한 단식기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와 여당이 정권욕에서 탈피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마음을 비울 것을 촉구했다.¹⁸²⁾ 성명서는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4·13 호헌조치를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현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을 채우려는 간악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민주화의 첩경은 언론의 자유에 있음을 천명한 서울평협의 성명서는 보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조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화가 이룩될 때까지 전력 투쟁을 다짐했다. 성명서는 또 야당 창당 방해, 양심수들의 고문 등 폭력이 하루속히 근절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5월 8일에는 수원평협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일치된 뜻을 보였다.¹⁸³⁾

평협은 두 번째 성모성년(1987.6.7~1988.8.15)을 맞아 1987년 6월 25일에 세 번째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간접선거제의 기존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한 뒤에 나왔다. 이 성명서에서 평협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4·13 호헌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성명서에서 밝힌 요구의 관철을 위해 6·26 평화대행진을 지지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하였다.¹⁸⁴⁾

이 성명서 발표가 있는 나흘 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자는 ‘6·29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국민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새 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181) 「평협20년사」, 262-263쪽.

182) 「가톨릭신문」 1987.5.3 11면.

183) 「평협30년사」, 196-198쪽.

184) 「평협20년사」, 263-264쪽.

V. 경제·사회 분야

평협 제10년기의 경제·사회 분야 활동은 평신도사도직에 입각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어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 현실에서의 도·농협력 등 바람직한 경제 사회활동의 모색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는 평협이 그 구성 단체와 함께 한국교회의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토양을 이루어 나가는 기초를 형성해 나갔음을 뜻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평협 제20년기의 경제·사회 활동은 점차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 표명 등으로 확대되어 나갔으며, 단순히 잘못된 사항의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뢰회복운동,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을 통한 소비자권익보호와 같이 사회현실을 개선해 가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동일방직 사건에 서울평협 성명서 발표

1970년대는 한국의 노동환경은 장시간 노동에 형편없이 낮은 임금 등 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존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기업주와 정부 당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78년 2~3월 인천 동일방직 노조 탄압사건이다. 회사는 여성 노조의 와해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노조원을 매수·협박·구타하고 심지어 남자 직공들을 동원하여 인분을 뿌리고 입과 가슴에 넣는 등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도 섬유노조는 진상조사도 없이 동일방직 노조를 사고지부로 지정하여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였다. 견디다 못한 여직공들이 3월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 도중 시위를 하다 30명이 연행을 당하자 70여명이 명동성당에 모여 울며 호소한 후 사제관 3층에서 20명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¹⁸⁵⁾

서울평협은 이 사건을 중시하고 1978년 3월 21일 긴급 임원회를 열어 국민 앞에 사실의 폭로와 함께 만행을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대의원 투표에 참가하려는 여직공들에게 행해진 인간성을 말살하는 만행을 소상히 밝혀 이를 규탄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선교와 JOC 활동을 공산당 활동으로 몰아가는 종교탄압과 노조 대의원들의 부당한 해고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다.¹⁸⁶⁾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을 상대로 했다가보다 당시 산업 전반적으로 일반

185) 「가톨릭 서울」 1978.4.23 1면.

화되어 있는 심각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는 메시지가기도 하였다.

가농의 쌀 생산비 보장 운동과 평협의 대정부 건의서 제출

1978년 이후에도 가농의 활발한 활동은 이어졌다. 가농의 1978년 사업보고에 의하면,¹⁸⁷⁾ 가농은 “현장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히 키우자”는 방향에서 분회 중심의 현장 활동 강화와 전 회원의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때도 가농은 현장 활동 외에 농협 민주화 운동과 함께 1975년부터 자체 조사한 추곡수매가의 부당성을 관계 요로에 진정하고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쌀 생산비 보장 운동을 펼쳤다.¹⁸⁸⁾

이러한 가농의 쌀 생산비 보장 운동은 평협이 경제문제를 직접 들고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협은 1978년 11월 5일 가농이 쌀 생산비 조사와 쌀 생산비용 보장 요구를 근거로 하여 정부의 잘못된 추곡수매가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¹⁸⁹⁾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건의서는 농민을 살리기 위한 추곡수매가 인상의 당위성과 함께 근로자의 저임금해소 및 정당한 노임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주교회의에 오원춘 사건에 대한 건의문 채택

오원춘 사건은 1979년 5월 5일에 영양 청기 감자 피해보상운동과 관련하여 가농 안동교구연합회 청기분회장인 오원춘(알풍소)이 납치되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평협이 추곡수매가 인상건의를 하게 된 배경이 가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한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농을 탄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 관계기관은 오원춘을 납치한 데 이어 백주에 안동교구청에 난입하여 안동교구 사목국장으로서 가농 안동교구연합회 지도신부였던 정호경 신부를 연행하였다.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당국은 오원춘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주목을 끌기 위해 만든 조작극이라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 가톨릭 신자들까지도 사건의 내막에 혼란스러워 했지만, 오원춘 본인이 신앙인으로서 밝힌 양심선언과 그 밖의 정황으로 미루어 이 사건은 당국에 의한 납치였음이 분명하였다.

186) 성명서 전문은 「가톨릭 서울」 1978.4.23 1면 또는 「평협30년사」, 421-422쪽 참조.

187) 「가톨릭 서울」 1979.6.10 2면 참조.

188) 「가톨릭 서울」 1979.8.5 1면.

189) 「평협30년사」, 170-171쪽.

평협은 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979년 8월 16일 대전 가톨릭교육회관에서 제1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가농 전국 지도신부인 이종창 신부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청취하고 주교회의에 보내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건의문은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 하에서 교권의 수호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전 국민에게 단호하게 보여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었다.¹⁹⁰⁾

이미 1979년 8월 10일 서울 대교구청에서 안동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평협 상임위원회의 건의문을 받은 4일 후인 8월 20일 “안동교구의 조사가 진실임을 확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¹⁹¹⁾

평협의 도·농 교회 간 유대 강화 모색

평협은 1980년 8월 7일에 개최된 전국 평협 제13차 총회에서 평협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 교회 간의 유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교회 안의 경제·사회적 성격을 갖는 도시와 농촌 교회 간의 유대 강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향(離鄉)신자와 농촌 본당의 실태조사를 위해 평협에 ‘이향신자 자문위원회’와 ‘농촌 본당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¹⁹²⁾

평협이 도시와 농촌의 교회의 연결을 통하여 농촌의 경제·사회 문제에 접근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평협 회원 단체로서 농촌 사업에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가농에도 큰 힘이 되었다.

가농의 도·농 유대 강화와 농정문제 시정 노력

1979년 10·26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가농은 일상적인 경제협동 활동은 물론 농협 강제 출자 거부 등 농정 문제점 시정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대전에서 전국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사기 진작에 힘을 쏟았다.

가농은 1980년 4월 11일 대전에서 ‘민주농정실현을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강제농정과 살인농정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어 4월 17일에는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6개 농민단체 공동으로 헌법과 농림관련 법령 공청회를 열고 토지개혁 실시, 반농민적 농민관계법령 개폐, 헌법에 농민운동

190) 「가톨릭 서울」 1979.9.9 1면; 「평협30년사」, 171-174쪽.

191) 성명서 전문은 「가톨릭 서울」 1979.9.9 1면 참조.

192) 「평협30년사」, 174쪽.

보장 명기 등 농민권익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여 주목을 끌었다.

가농은 1981년에도 정부에 추곡수매가 예시와 하곡수매가 재조정을 요구하고 추곡수매를 건의했다. 그리고 전국 12개 지역에서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감사제를 개최하여 농민문제 전반에 걸친 농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우리의 주장”¹⁹³⁾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가농은 1980년대 초에 농민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였다.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그 배후세력으로 가농이 지목되어 왜곡과 비방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농은 거기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농지세제 시정 요구, 쌀 도입부정 폭로, 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농지개량조합 조합비 시정 및 조합운영 민주화 요구, 농협 민주화 요구, 추수감사제 실시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특히, 충북 음성지역 부당 농지세제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세금납부 거부 운동 및 대회는 농지세제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3년에는 농협 민주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합장 임면에 관한 임시 조치법 철폐와 조합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당 대표 간담회를 가졌으며 농협임시조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서명운동은 공권력의 집요한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절대적인 호응을 얻는 성공을 거둬으로써 조합장 후보 선출단계를 한 단계 줄일 수 있었다.

1984년 9월 2일 원주평협은 같은 해 10월 20~21일 교구 여성연합회 주관으로 도·농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주최하였는데 이것은 가농 지역연합회의 추수감사제와 농민대회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해 11월에 가농의 전국 7개 지역 연합회별로 개최된 추수감사제와 농민대회에 연인원 1만 명이 이상이 참석하여 당면한 농민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였다. 또 이 대회에서 남북한 종자교류와 농사기술 교류가 제안되기도 했다.

1985년에는 농축산물의 수입반대와 소 값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7월 1일 고성 소몰이 시위를 시발로 전국 22개 지역에서 소몰이와 경운기를 동원한 격렬한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으로 소와 쇠고기 수입 중단, 축산농가 융자금 상환 연기와 학자금 면제 등 임시방편이기는 했지만 10여 가지의 정부 조치가 취해졌다. 1985년 여름의 소 값 피해보상 운동에 이어 가을에는 전국 19개 지역에서 개최된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에 농민 1만여 명이 참석하여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농가 부채 탕감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8월 25일에 농협조합장 직선 백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한 데 이어 9월 1~2일에는 미국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회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1986년에도 외국 농축산물 수입과 농가채무의 압박으로 파산농가와 자살 농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3월 30일 안동교구 가농의 영양, 풍천, 안동시 연합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각기 농축산물

193) 여기에서 주장된 내용은 농산물 가격 보장, 재벌 소유 토지 환수와 소작농 철폐, 외국 농축산물 수입금지, 농협 조합장 직선제, 불공평한 농지세제 시정, 각종 공해방지 대책, 지방자치제 실시, 제5차 5개년계획의 전면수정 등이었다.

수입 반대와 농가 부채 탕감 농민대회가 열렸다. 같은 해 8월 21일에는 11시를 기해 가농 전국본부와 10개 지역 연합회가 한미통상협상 타결로 수입이 개방된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를 주최하여 당국의 폭압적 저지에도 불구하고 30여 개 시군에서 일제히 진행시켰다. 8월 29일 안동교구에서는 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본부 현판식과 함께 규탄대회가 개최되고, 쌍호 농민회관 축성이 있었다. 또한 1986년 9월 1일 양담배 판매 개시일에는 원주교구 가농 주최 미국 농산물 수입저지 농민대회가 원동성당에서 열렸다.

1987년에는 민주화 항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농은 봄철 농민들의 절박한 생존문제인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전국 8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북 고창 삼양사 소작 농민들이 법정투쟁과 함께 벌인 1개월여 동안의 서울 삼양사 점거농성을 지원하면서 농협 민주화 운동을 계속, 10여 개 전국 농민단체와 연대한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한편, 안동교구 가농 16개 분회는 쌀 생산비 보장, 농협 민주화 투쟁, 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활동을 벽신문으로 만들어 지역별로 홍보하였다.

이와 같이, 가농은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갈수록 취약해지는 한국 농업 현장에 서서 농정문제 시정과 농촌경제 안정화를 향한 진취적 활동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갔다.

신뢰회복 운동 전개

평협은 1983년부터 신뢰회복 운동에 나선다. 이 운동은 그 동안 한국 사회는 개발독재체제 하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빚어진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개조 운동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경제의 고도성장을 최고의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가운데 가치의 중심이 경제력으로 평가되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그 위에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위화감 내지 적대감이 야기되고 상호 불신풍조가 크게 만연하였다.

이에 평협은 한국 사회의 이러한 고질화된 사회 병폐를 불식시키고 서로 믿고 사는 밝은 사회를 건설하자는 신뢰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 1983년 3월에 개최된 평협 제16차 정기총회에서 당시 평협 담당주교였던 정진석 주교는 “신뢰회복이야말로 행복의 근원이 되는 요건이다.”¹⁹⁴⁾라는 화두를 던져 신뢰회복운동의 전개를 제창하였고, 같은 해 7월 평협은 신뢰회복 운동의 당위성을 밝히고 종교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장문의 선언서를 발표하였다.¹⁹⁵⁾

평협은 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곧 ‘신뢰회복 운동에 즈음한 취지문’ 5만 장을 인쇄하여 전국

194) 「평협30년사」, 182쪽.

195) 「평협30년사」, 182-184쪽.

에 배포하여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태동시켰다. 신뢰회복운동은 1984년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대회와 사업 등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다가 1985년 3월에 개최된 제18차 정기총회에서 평협의 핵심 사업으로 재확인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평협은 이 운동의 국민적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학술적 뒷받침을 위해 1985년 9월에 서울 한남동 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에서 ‘인간회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¹⁹⁶⁾ 노길명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교훈 교수(서울대)와 한용희 교수(숙명여대)가 각각 ‘인간회복의 의미’와 ‘인간회복과 사회정의’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고 양승규 교수(서울대), 안병영 교수(연세대),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3인이 토론에 참가했다. 평협은 이 심포지엄 주제발표 내용을 책으로 엮고 토론 내용의 녹음을 카세트테이프로 만들어 전국 각 교구에 배포하여 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힘썼다.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

평협 제20년기에 큰 성과를 거둔 활동의 하나로 1986년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운동을 경제·사회 분야에서 다루는 것은 정부와 KBS가 TV 방송시장이 ‘공급자시장’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요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광고수익과 시청료를 모두 챙기겠다는 무모한 정책을 편 데 대해 소비자권익옹호의 차원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자 KBS는 권력자에 아부하는 이른바 “땡전뉴스”와 정부만을 두둔하는 프로그램 편성 등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일관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하는 KBS 1TV가 상업광고까지 함으로써 공영방송이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하였다.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1986년 1월 20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산하 6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KBS TV 시청료 거부 기독교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초기에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1986년 4월 대구평협에 이어 평협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적극 참여하면서 각 교구 본당들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된다.

평협은 1986년 4월 10일 회장단과 각분과 위원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김남수 담당주교의 양해와 1986년 4월 12~13일 마산교구 창원 가톨릭사회과학관에서 개최된 전국 평협 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전국 평협의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은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옮겨졌다.¹⁹⁷⁾ 즉 1986년 4월 20일(주

196) 「평협30년사」, 184쪽.

197) 「평협30년사」, 193쪽.

일)을 기해 각 교구 평협을 통해 녹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보도 매체의 공정 보도를 촉구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KBS시청료 납부 거부”라는 문안을 넣은 스티커가 전국 신자들에게 배포된 것이다.¹⁹⁸⁾

시청료 거부 스티커 발행에 대한 신자들의 호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배포 다음 날부터 서울 각 본당을 비롯한 전국 각 교구로부터 더 많은 스티커를 요청하는 주문이 쇄도함에 따라 최초 인쇄분 20만 장이 곧 소진되고 추가로 12만 장을 긴급히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전화 주문뿐만 아니라 평협 사무국에 신자들이 찾아와 격려하며 스티커를 직접 가져가기도 하였다. 많은 신자들은 자기 집 대문이나 현관에 스티커를 붙이고 실제로 시청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운동을 실천으로 옮겼다. 원주평협은 전국 평협과 별도로 1986년 5월 29일 성체현양대회 개최에 맞추어 시청료 납부 거부를 위한 스티커 1만 장을 따로 인쇄하여 배부하였고 “KBS시청료 거부운동에 동참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¹⁹⁹⁾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에 신자들이 이와 같은 높은 호응을 보이자 KBS는 강압적으로 대응하였다. 시청료 징수원들로 하여금 운동 참여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주부 신자들을 협박하고 폭언과 함께 구타를 하는 사례까지 야기하였다. 주부 신자들은 이러한 KBS측의 강압에 굴하지 않고 시청료 고지서를 평협으로 보내 왔고 전화로 시청료 거부 운동의 내용을 수시로 문의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이 열기를 더하는 가운데 1986년 8월 9일 전국 평협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시대의 징표를 바로 읽고 현실참여에 능동적으로 임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국 평협에 사회정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동문제 전문가인 서울대교구 노동문제상담소 김말룡 소장을 선임하였다. 또한 시청료 거부 운동의 법적 투쟁을 위해 신자 변호사로 고문변호 담당인을 위촉하였는데 여기에는 이돈명, 유현석, 황인철, 하경철, 이흥국 등 5인의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그 후 시청료 거부 운동은 YMCA, YWCA 등 기독교 사회단체와 23개 여성단체 연합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재야 단체, 전국 36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참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평협은 1986년 9월 19일 또 다시 △KBS의 편파보도와 상업광고의 즉각 중단, △불법적 강제징수와 통합고지제도 철폐, △징수원 횡포의 즉각 중지, △“KBS시청료 거부운동 전개하여 언론자유 쟁취하자!”는 구호로 끝을 맺은 성명서를 발표했다.²⁰⁰⁾

평협의 이러한 적극적 행보는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보다 억압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협은 전국 신자들에게 시청료 거부 운동의 경과와 취지를 알리는 후속 노력을 계속 이

198) 「평협30년사」, 194쪽.

199) 「평협30년사」, 194쪽.

200) 「평협20년사」, 257-258쪽.

어갔다. 특히, 1987년에는 6월 호헌 철폐 민주화운동과 제13대 대통령 선거(12월 16일) 기간과 맞물려 시청료 거부 운동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 운동은 정부와 KBS에게 무모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KBS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었다.²⁰¹⁾

201) 이처럼 천주교와 개신교, 재야 단체 등이 벌인 범국민적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의 효과는 운동 첫해부터 나타났다. KBS가 1986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해 10월까지 시청료 징수실적은 전국적으로 당초 목표액(1069억 원)에서 18.3% 미달하였으며, 대도시에서의 징수율은 40% 수준에 그쳤다. 운동의 효과는 1987년에 더욱 컸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1987년 3월 10일까지 접수하여 집계한 시청료납부 거부 고지서만도 7천여 건으로 금액이 1억 원을 넘었을 정도였다.([평협30년사], 195쪽)

Ⅵ. 사회복지 분야

제10년기의 평협은 평협 출범과 아울러 평신도의 사회 안에서의 소명과 역할에 대한 자각을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 속에서 발견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촉구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평협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각 본당 예산에 구빈사업(救貧事業)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 등은 교회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평협의 사회복지 분야 활동은 평협 제20년기에 접어들면서 각 교구 평협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는 전국 차원의 평협은 일종의 협의체로서 산하에 직접적인 사회복지기관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지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협은 평협에 가입한 사회복지단체 활동과 각 교구 평협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으로 뒷받침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 정책 수립 등에 역점을 두게 된다.

교구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

서울대교구에서 설립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1983년도에 전국 교구에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사회선교의 밑거름을 마련하였다.²⁰²⁾ 또한 서울평협은 1981년부터 사회복지부²⁰³⁾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평협이 보다 구체적으로 평신도사도직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교구 내 지역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하여 선교 3세기를 향한 사회복지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교구 사회복지회 발족은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교구 평협 안에 설 자리를 찾게 하여 서울을 포함한 각 교구 평협의 단체로 등록하게 했고, 이어서 다미안회, 간호사회 등이 교구 평협 사회복지 활동의 한 축이 되어 교구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각 교구 평협이 사회복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 복지 분야의 각 기능, 직능 사도직 단체들이 결성되어 무료진료 봉사, 고아원, 양로원 정기방문, 복지기금 마련 등 지역사회 복지

202) 심홍보, 「한국천주교회 사회복지사」, 237쪽.

203) 서울대교구는 1976년 5월 24일에 서울 카리타스 기구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설립하고 담당 신부에 안경렬 신부를 임명했다. 설립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거하여 정의와 평등,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발견하여 인간 발전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다. 서울평협 사회복지부의 초대 부장은 김한수, 차장은 이종남, 이병순 등이다.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전주교구는 본당 사회복지 부장 연수회를 실시하고,²⁰⁴⁾ 원주교구는 교구와 협력하여 교구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²⁰⁵⁾하는 등 교구 차원의 활동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4) 「평협30년사」, 891쪽.

205) 「평협30년사」, 704쪽.

VII. 교육 분야

평협 제10년기의 교육 분야 활동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시급한 교회 내 기본교육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이 두어졌었다. 평협 제20년기에도 평협은 각 교구와 본당 단위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평협 교육 활동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 제20년기에는 그 형태도 확대되어 평신도사도직 세미나와 평신도 심포지엄, 평신도 신앙강좌 등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회쇄신 주제 임원 연수 교육

평협 제20년기에 들어와 1978년과 1979년에는 연이어 ‘교회 쇄신’을 주제로 한 연수회를 가졌다. 주제는 같았지만 1978년의 연수회가 교회쇄신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이었다면, 1979년에는 이를 평신도사도직 직분에 비추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1978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수원교구 교육원에서 개최된 제11차 총회²⁰⁶⁾에서는 박상래 신부가 ‘교회 쇄신과 우리의 현실’, 오경환 신부가 ‘교회 쇄신과 평신도사도직운동의 자율성’을 강의하였다. 그 내용을 토대로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교회 쇄신과 교회 안의 평신도’(대구평협), ‘교회 쇄신과 사회 안의 평신도’(원주평협), ‘교회 쇄신과 특수 분야에서 평신도사도직’(가톨릭농민회) 등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 해인 1979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왜관 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제12차 총회²⁰⁷⁾에서는 박상래 신부와 오경환 신부의 강의를 다시 듣고 똑같이 3개의 주제를 그룹토의로 다루었다. 이 그룹토의의 첫째 주제인 ‘교회 쇄신과 교회 안의 평신도사도직’에 대해서는 대구평협 임학권 회장, 둘째 주제인 ‘교회 쇄신과 사회 안의 평신도사도직’에 대해서는 원주평협 김인성 회장, 셋째 주제인 ‘교회 쇄신과 특수 분야에서 평신도사도직’에 대해서는 가톨릭농민회 최병욱 회장 등이 소주제 발표를 하면서 토의를 이끌었다.

206) 「평협30년사」, 162쪽.

207) 「평협30년사」, 172쪽.

양대 행사 준비 기간 중 임원 교육

평협은 제13차 총회(1980년)부터 제17차 총회(1984년)까지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과 한국 선교 2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임원 연수 교육은 두 행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따라 평협 정기총회나 상임이사회와 함께 실시되는 임원 연수도 그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1981년 6월 27~28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개최된 제14차 정기총회에서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하는 한편, 오태순 신부로부터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평신도상과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1982년 3월 30일 청주 가톨릭교육원에서 있었던 임원 연수회 첫 번째 강의 주제도 정의채 신부의 ‘200주년 사목회의의 방향과 전망’이었다.

그러나 제14차 정기총회의 두 번째 강의는 1981년에 평협 담당주교가 된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의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관한 특강으로 이어졌다. 1982년 9월 3~4일 임원 연수회는 서울 장충동 분도회관에서 정진석 주교의 ‘하나 되게 하소서’ 주제 특강에 이어 김기철 평협 회장의 ‘평신도가 보는 평신도의 진로’와 오태순 신부의 ‘일치와 평협의 진로’ 강의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과 한국 선교 200주년 등의 행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었다.

1983년 3월 25~26일 수원교구 교육원에서 열린 평협 제16차 정기총회 교육에서는 한국 선교 20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김남수 주교의 ‘200주년과 시성시복운동’과 변기영 신부의 ‘한국 초대 교회사’ 그리고 성심수녀회 한순희 수녀의 ‘200주년과 정신운동’ 특강이 있었다.²⁰⁸⁾

1983년 9월 17일 원주교구 교육원에서 평협 상임위원회 후에 안승길 신부의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의 증언과 태도’와 ‘원주교구와 평신도운동’에 관한 강의를 있었다. 이어서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와 평협 임원들은 ‘한국교회의 토착화 문제와 도시와 농촌 교회의 격차문제’와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한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화는 도시와 농촌 교회 간에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격차의 해소 방안으로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토착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대 행사 이후 교육 및 심포지엄

1984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과 한국 선교 200주년 행사 이후에는 교육 방식과 내용에 변화가 왔다. 교육 방식은 기존의 연수회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강의를 곁들이는 형식이었고, 교육 내용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연수와 같이 보다 현실적으로 평신도사도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208) 강의 내용은 평협에 의해 「보다 좋은 씨앗으로」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1985년 3월 23~24일 미리내 성지에서 개최된 평협 제18차 정기총회에서는 연수회 주제를 ‘증거의 해와 우리의 자세’로 정하고 ‘증거의 해’를 맞는 평신도로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양한모 크리스찬사상연구소 소장과 김남수 주교의 강의가 있었다.²⁰⁹⁾

1985년 9월 21일 서울 한남동 폰벤투알의 성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된 ‘인간성 회복’을 주제로 한 평협 심포지엄²¹⁰⁾은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와 대화의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인간회복의 의미’(진교훈 교수), ‘인간회복과 사회정의’(한용희 교수) 등의 발제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안병영 연세대 교수, 양승규 서울대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심포지엄은 당시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가 깊이 있는 성찰과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결과적으로 한국천주교 200주년 이후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의 사회적 관심과 선교역량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이 심포지엄을 통해 현대 한국사회의 인간소외 원인 규명과 교회의 역할 모색 필요성이 시의 적절하게 부각되었고,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한국천주교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활력을 교회 내외로 표출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날 심포지엄과 별도로 개최된 평협의 1985년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교회의 현대화’(한용희 교수) 강의가 있는 후 1986년 제1, 2차 상임위원회에서도 ‘교회’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졌다. 즉, 1986년 4월 12~13일 마산교구 창원 가톨릭사회교육관에서 열렸던 1986년 제1차 상임위원회 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강영구 신부, 마산교구 교육국장)가 강의 주제였고 6월 7~8일 춘천교구 교육관에서 있었던 제2차 상임위원회 임원 연수의 강의 주제는 ‘하느님 백성을 결합시키는 친교’(전세권 춘천교구 총대리신부)로서 교회 안에서의 친교 문제가 다루어졌다.

가정 관련 연수회 및 심포지엄

평협은 1978년 9월 30일~10월 1일 서울 상지회관에서 전국 부녀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수회에는 지방교구 여성대표, 가톨릭농촌여성회 임원, 서울대교구 14개 본당신자 등 총 32명 참석하였다. 강의내용은 ‘행복한 가정운동’(박토마 주교), ‘성소와 가정’(김수창 신부), ‘사회 복음화를 위한 부녀운동’(이 소피아 수녀), ‘도시여성과 농촌여성의 생활의식’(김준기 교수), ‘평신도사도직과 가정’(김기철 평협 회장)으로 이루어졌다.

서울평협은 1979년 6월 12일 상지회관에서 부녀자들을 위한 ‘참다운 성가정 생활의 실천’ 연수회

209) 「평협30년사」, 188쪽.

210) 「가톨릭신문」 1985.10.6 8면.

를 실시하였다. 서울대교구 관내 22개 본당에서 부녀자 80명이 참가하여 이한택 신부(가톨릭대)의 지도로 진행되었다.²¹¹⁾

1982년 12월 3일부터 2일간 제1회 여성문제 심포지엄이 평협 주최로 부산 오륜대 명상의 집에서 열렸다. 6개 교구와 4개 여성단체 대표 38명과 임원 11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 부산교구장 이갑수 주교의 ‘혼인과 가정의 신성성’에 이어 ‘생명의 존엄성과 성윤리’(김창훈 신부), ‘평신도운동과 여성의 역할’(박숙자 자매), ‘가정의 행복과 여성의 사회참여’(최시동 신부) 등이 강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제2회 여성문제 심포지엄은 1983년 11월 4~5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열렸으며 내용은 ‘사회 안에서 여성의 권리’(안승길 신부), ‘교회 안에서 여성의 본분’(변갑선 신부),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강동순 교수)였다.

교구 평협의 평신도 교육과 심포지엄

평협의 평신도사도직 세미나 분위기는 각 교구 평협으로 이어졌다.

1979년에 서울평협은 적극적인 평신도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평신도 재교육의 교육별 실시 횟수는 피정지도 29회, 신앙대학 강좌 3회, 부녀지도자연수회 2회이며, 임원 특별강론까지 포함한 재교육 참가 교구 수(중복) 22개, 본당 수(중복) 257개, 강사 수(중복) 193명이고 수강 연인원은 2211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²¹²⁾

수원평협은 1979년 8월 30일부터 9월1일까지 2박3일간 수원교구교육원에서 교구 내 각 본당 전 교부장을 위한 평신도 교육을 주최했다. 교구 내 24개 본당에서 39명이 참가한 이 교육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정해성 신부), ‘신앙생활’(정지웅 신부), ‘본당 공동체란?’(김영배 신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해설’(황익성 신부), ‘실천과제’(오익선 수원가톨릭농민회 회장), ‘교구 평협 활동 소개’(황백규 평협회장) 등이 다루어졌다.²¹³⁾

서울평협은 서울대교구와 공동으로 1982년 5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선교 200주년 기념과 평신도 상의 정립을 위해 제1회 평신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서울교구 114개 본당과 전국 각 교구에서 500여 명이 넘는 평신도들이 참석하였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운동의 방향 설정’을 대주제로 하여 ‘사목회의와 평신도 운동의 방향’(정의채 신부),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평신도상’(이원순 서울사대 교수), ‘평신도의 영성’(이한택 신부), ‘현대 사회에서의 평신도의 역할’(한용희 숙명여대 교수), ‘한국 평신도의 미래상’(정하권 신부) 등 모두 5개의 강의와 토론

211) 「가톨릭 서울」 1979.7.10, 1면.

212) 「가톨릭 서울」 1979.12.30, 1면.

213) 「가톨릭신문」 1979.9.23, 3면.

으로 이어졌다.²¹⁴⁾

서울평협의 평신도 심포지엄은 교회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였다. 그것은 평신도 심포지엄이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이 심포지엄이 “200년 교회 역사 태두부터 교회발전의 주역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 온 평신도사도직을 기본 바탕으로 오늘의 평신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교회에서의 평신도상을 제시”하여 “2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념행사로 중지를 모으고 있는 ‘사목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전초작업”²¹⁵⁾이었기 때문이다.

대전교구도 한국교회 200주년을 앞두고 평신도들의 사명의식을 함양하고 활동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재정립시키기 위해 1982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세리 본당에서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했다.²¹⁶⁾ ‘교회 발전을 위한 평신도의 자세와 활동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교구의 각 액션 단체장 본당회장 및 부회장 등 본당에서 최소한 2명 이상 참가토록 했는데 세미나의 강사 및 주제는 ‘평신도의 영성’(이창덕 신부), ‘선교 200년과 한국교회’(정의채 신부), ‘평신도 운동 현재와 미래’(정의채 신부), ‘평신도사도직의 목표’(김기룡 신부) 등이었다.

평신도 신앙대학 강좌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일종의 평신도 재교육을 위해 평협이 마련한 것이 신앙대학 강좌였다. 신앙대학 강좌는 평협이 각 교구 평협과 각 본당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하여 평협 임원들을 교구와 본당에 파견, 평신도들의 의식을 계발하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평신도 신앙대학 강좌는 평신도 연수 프로그램으로 평협이 가톨릭 신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1978년에 개설한 평신도 정예교육 프로그램이었다.²¹⁷⁾

1978년에 1회, 1979년에 3회, 1980년에 2회, 1981년에 2회 등 총 8에 걸쳐 진행된 평신도 신앙대학은 매년 100명 전후의 수강 인원을 헤아렸다. 강사진은 김수환 추기경, 지학순 주교, 김재덕 주교, 두봉 주교뿐만 아니라 문동환 목사와 정교회 나창규 신부 등 교회 안팎의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망라되어 각계각층으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와 주목을 받았다.

제1회 신앙대학은 1978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체 주제는 ‘인간의 회복: 인간부재의 현실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이었고, ‘국민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김수환 추기경), ‘복권되어야 할 인권’(지학순 주교), ‘교의현장에서 본 평신도’(김몽은 신부),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박상래 신부), ‘복음화에 사회참여’(이한택 신부), ‘그리스도교와 인권’(박도식 신

214) 「가톨릭신문」 1982.5.30, 1면.

215) 「가톨릭신문」 1982.6.6, 5면.

216) 「가톨릭신문」 1982.8.15, 7면.

217) 「평협30년사」, 167쪽.

부) 등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제2회 신앙대학²¹⁸⁾은 1979년 3월 8부터 11일까지 ‘교회와 쇄신’을 주제로 우이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강좌 내용은 ‘가톨릭: 세계적 전망’(김수환 추기경), ‘순교정신과 복음 선포’(김재덕 주교), ‘교회의 사명과 쇄신’(지학순 주교), ‘쇄신과 주교의 현실참여’(두봉 주교),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정하권 신부), ‘복음의 증거생활’(변갑선 신부),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오경환 신부), ‘쇄신과 교회상’(이한택 신부), ‘쇄신과 교회안의 문제점’(함세웅 신부), ‘쇄신과 교회의 마스크’(최창섭 박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제3회 신앙대학²¹⁹⁾은 1979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교회사와 현대세계의 복음 선포’를 주제로 하였다. 세부적 강좌는 ‘사회정의와 복음 선포’(김수환 추기경), ‘현대의 복음 선포’(김재덕 주교), ‘교회사’(이원순 교수), ‘가톨릭의 한국 근대화운동’(류홍렬 박사), ‘순교의 현대적 의미’(최석우 신부), ‘복음 선포와 가톨릭의 사회적 역할’(김승훈 신부), ‘도시·농촌의 복음 선포’(이종창 신부) 등이었다.

제4회 신앙대학²²⁰⁾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성서와 현대의 우리-성서에 대한 근본 이해를 돕기 위함’을 주제로 하였다.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서인석 신부가 구약을 중심으로 7강좌를 맡았고, 신약을 중심으로 정양모 신부가 6강좌를 진행하였다.

제5회 신앙대학은 1980년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명동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하느님백성의 일치’란 주제로 한 강좌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1980년도 서울대교구 사목지침’(김수환 추기경), ‘교의헌장 해설’(박도식 신부), ‘교회일치에 관한 교령 해설’(유재국 신부), ‘그리스도와 우리들’(문동환 목사), ‘새로운 현실과 우리들의 일치’(김재덕 주교) 등이었다.

제6회 신앙대학은 1980년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상지회관에서 ‘전례와 성사’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강좌는 ‘희랍 정교회의 전례’(나창규 신부), ‘전례와 쇄신’(최윤환 신부), ‘성사론’(변갑선 신부), ‘교회의 현실적 질서와 크리스천 생활의 쇄신’(김영환 신부),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과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이한택 신부) 등으로 이루어졌다.

제7회 신앙대학은 1981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있었다. ‘이웃 전교의 방향과 문제’를 주제로, ‘한국 천주교회의 문제점’(김수환 추기경), ‘이웃 전교의 방안과 문제’(오경환 신부), ‘현대의 복음 선포’(유재국 신부)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8회 신앙대학은 1981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열렸다. 주제를 ‘한국인의 심성’으로 하여 ‘유가적 인간이해’(김승혜 수녀), ‘선교 200주년을 향한 한국 천주교회와 평신도’(양한모 소장)라는 내용의 강의를 있었고 박 홍 신부의 연강으로 ‘크리스천 영성의 원리와 기초론’,

218) 「가톨릭신문」 1979.3. 3면.

219) 「가톨릭신문」 1979.7.29, 3면.

220) 「가톨릭신문」 1979.11.1, 1면.

‘영성 식별의 이해와 적용론’, ‘의식 성찰을 통한 신앙체험의 성장론’, ‘영적대화의 영적 지도’, ‘기도와 사도직’, ‘성령의 능력과 심신의 자유로운 문제’, ‘한국인의 영적 풍토’ 등이 있었다.

평신도 신앙대학은 제8회로 끝을 맺는다. 그것은 1981년에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신앙대학과 성격이 유사한 신앙학교를 개설함에 따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평협이 주관하던 교육은 4년 만에 성직자 주관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연수회

평협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1978년 7월 8~9일에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지방 교구, 단체 대표, 서울 본당 대표 등 87명을 대상으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의는 오경환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부)와 이한택 신부(서강대학교)가 맡았다.

1986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공의회 문헌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연수회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11개 교구와 5개 단체 대표 10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의 내용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의미와 성격’(유재국 신부),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 가운데 ‘제1장 교회의 신비’(유홍식 신부), ‘제2장 하느님의 백성’(유홍식 신부), ‘제7장 지상의 여정, 교회의 종말적 성격과 천상교회와 일치’(심상태 신부), ‘교계제도의 복음적 성격’과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가운데 ‘제1부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인간’(오경환 신부), ‘제2부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유봉준 신부), ‘제2부 제2장 문화발전의 촉진’(김춘호 신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유봉준 신부, 한용희 회장) 등이었다. 두 번째 연수회는 1986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서 ‘공의회의 의미와 성격’(김영교 신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한용희 회장) 등이 다루어졌다.²²¹⁾

평협은 1987년 2월 14일 제20회 정기총회에서 크리스찬사상연구소 양한모 소장을 초청하여 ‘교회 안의 신도’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²²²⁾ 이 강의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주요 문헌인 「현대세계의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등에 나오는 평신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신도론, 1983년 공포된 새 교회법에 따른 평신도사도직 활동, 친교의 교회론에 입각한 신자들의 삶의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연수는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교구 평협으로도 이어졌다. 서울평협은 공

221) 「평협30년사」, 195-196쪽.

222) 양한모 소장은 평신도 대신 “신도(信徒)”라는 용어를 썼다. 「신도론」(가톨릭출판사, 1982)은 그의 대표적 저서이다.

의회 폐막 20주년을 맞아 실시기로 결정했던 지역별 공의회 문헌 교육의 일환으로 1986년부터 사목위원과 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6년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강의 회수를 9회에서 8회로 줄이고 교육기간을 4일로 늘려 1987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두 시간씩(오후 8~10시) 강서지구 신자들을 대상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는 사목위원, 단체임원 등 신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을 받았다.²²³⁾

원주평협은 1987년 1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공의회 문헌과 신뢰회복을 내용으로 한 연수 실시 등을 그해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였다. 사업계획에는 한국 평협의 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임원연수를 공의회 문헌, 사회신뢰회복, 평신도사도직 등을 내용으로 하여 3차에 걸쳐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²²⁴⁾

서울평협의 청소년분과 사목위원 연수회

서울평협은 청소년분과 설치 후 처음으로 서울대교구 교육국과 공동으로 1986년 11월 22~23일 마리스파수도원 교육관에서 서울대교구 본당 청소년 관계자 피정을 가졌다. 이 피정에서 청소년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울대교구 교육국장 이기정 신부의 ‘주일학교 세부사항’, 한용희 평협 회장의 ‘미래의 평신도상’, 응암동본당 주임 박기주 신부의 ‘청소년 현상과 그 역할’에 관한 강의 후에 협조관계에 대한 그룹 토의와 자유토론이 있었다.²²⁵⁾

1987년 5월 30일에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서울대교구 본당 청소년 관계자들을 위한 강연회가 열려 김형관 교수의 ‘현대 젊은 크리스천 됨의 의미’와 서울대교구 교육국장 나원균 신부의 ‘청년교육과 사목’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8~29일 곧벤뚜알 성 프란치스코회 피정의 집에서 가진 서울대교구 본당 청소년 관계자 피정을 통해 나원균 신부의 ‘청년 사목의 현실과 방향’, 서울평협 청소년분과 이희안 위원의 ‘본당 청소년 교육의 실상’, 서울대교구 주일학교 담당 허근 신부의 ‘주일학교 교육방안과 실상’에 관한 강의와 그룹발표가 진행되었다.²²⁶⁾

223) 「가톨릭신문」 1987.7.5, 11면.

224) 「가톨릭신문」 1987.1.25, 7면.

225) 서울평협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분과 사목위원 연수 자료집」(1986-1993년), 11-72쪽.

226) 위의 자료, 76-139쪽.

VIII. 문화·언론·출판 분야

평협 제20년기는 평협 제10년기의 문화·언론·출판 분야 사업을 그대로 잇지 못한 아쉬운 시기이다. ‘평신도사도직의 날’ 제정에 따른 평협의 홍보와 평신도 재교육 교재 출판 등을 출발점으로 하여 1976년 9월에 홍보부를 설치하고 출판사를 두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출판하고 평협 회보를 창간했던 사업이 평협 제20년기의 시작과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몇 권의 도서 출판은 이루어졌다.

평협 회보 정간 후 교구 평협 회보 창간

전국 차원의 평협 회보가 평협 제10년기를 마감하는 1977년 6월 25일에 어렵게 창간되었으나 기대와 의욕에도 불구하고 평협 제20년기가 막 시작되는 1978년 1월 28일 제2호를 발행한 후 더 이상 속간을 내지 못하였다.²²⁷⁾ 그것은 1978년 1월 6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평신도 전국단체(한국평협,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꾸르실료협의회, 가톨릭대학생회) 해체 문제를 주교회의에 상정함에 따라 평협 활동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 서울평협은 1978년 1월 1일에 타블로이드 판형 크기 4면 신문 형식의 월간 회보 「가톨릭 서울」을 창간하였다. 서울평협 주최 “본당 총회장 연수회”를 1면 머리기사로 하여 서울대 교구 사목지침 시달 내용과 교회와 평협 소식을 실었다. 2면에는 김기철 평협 회장의 창간사, 특별 연재물 “신도신학서설”, 김수환 추기경의 총회장 연수회 강연 요지(현대교회의 사명)가 담겨있고, 3면과 4면에는 순교자, 전례, 성지, 본당역사(명동성당), 단체 사업 소개, 독자코너 등의 난을 두었다.

인천평협은 1985년 5월 31일에 25.5×18.5cm 크기에 총 32페이지의 규모의 회보 「인천평협」을 창간하였다. 평신도사도직운동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창간 목표를 둔 인천평협 회보는 교구 및 본당소식, 신앙수기 등 다양한 내용을 실어 교구 평신도들의 교육과 정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였다. 인천평협 최일 회장은 창간호 인사말을 통해 “평협회보를 통한 평신도 교육에도 힘쓰겠다.”면서 “인천교구 평협은 회보 발행을 통해 신자 상호간의 관계, 본당과 본당 간의 관계, 단체와 단체 간의 관계 등 상호협조 상호보완 그리고 유대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²²⁸⁾

227) 「평협30년사」, 161쪽.

정부의 주보 발행 중지와 평협의 대응

주보는 매주일 각 교구에서 사목적 필요에 의해 교구와 본당 단위로 발행하는 일종의 소식지 형태이다. 그러나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민주화운동 등으로 긴장되면서 정부는 교회 탄압에 대한 소식이 주보를 통해 전파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1978년 10월 16일 문화공보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교회에 보내와 주보 발간을 중지하도록 통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경고 공문에 대해 평협은 1978년 11월 5일 대전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 주보 발행금지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평협은 정부가 주보 발행을 신문통신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²²⁹⁾

첫째, 교회 주보의 발행을 일반 언론으로 간주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신성불가침의 종교자유를 탄압하는 명백한 처사이다.

둘째, 주보는 신앙고백 및 복음선포, 그리고 강론의 연장이며, 따라서 이는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이러한 처사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없었다.

셋째, 이와 같은 부당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평협의 이러한 반박과 요구 등 교회의 정부의 조치에 대한 강력한 시정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의 주보 발행 중지 계획은 하나의 엄포로 끝났다.²³⁰⁾ 이러한 결과는 평협이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에 이어 또 한 번 정부의 불합리하고 무모한 강압적 결정을 좌절시킨 쾌거였다.

도서의 출판

평협은 1977년 출판사 등록 이듬해인 1978년부터 1986년까지 6권의 도서를 출판하였다.²³¹⁾ 이 도서들은 주로 평신도들의 영성과 평신도사도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선별되었으며 영문 서적 한 권만 해외에 한국의 순교성지를 알릴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1978년 5월 15일에 묵상집 「말씀과 더불어」(제논 에일 원저, 차근호 최봉희 공역, 227쪽)가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46개 소제목으로 편집된 말씀 안에서 바른 신자 생활을 위한 묵상 책이다. 1979년 1월 20일에는 교황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등 세 교황의 활동과 선임과정을 화보와 설명을 곁들여 알기 쉽게 편집한 화보집 「1978년과 교황3대」가 평협 출판사에서 출판

228) 「가톨릭신문」 1985.6.9

229) 「가톨릭 서울」 1978.12.1 1면.

230) 「평협30년사」, 171쪽; 「가톨릭신문」 1978.11.12 1면.

231) 「평협20년사」, 620쪽 참조.

되었다. 이어서 1979년 4월 15일에는 평신도의 올바른 사도직 활동을 위하여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해설」(小林有方 주교 원저, 평협 김기철 회장 번역, 174쪽)이 출간되었다. 또한 1979년 9월 25일에 판화가 구스타프 도레의 판화 성경 집을 한글로 편집한 「판화로 본 그림 성경: 요리강령」(김용환 편집, 350쪽)이 간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2권의 도서만 출판되었다. 한 권은 1984년 5월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과 103위 순교자 시성식을 위해 내한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화보집 「요한 바오로 2세」로서 발행 일자는 1983년 12월 20일이다. 다른 한 권은 1986년 11월 30일에 출판된 영문 서적 HOLY PLACES OF THE KOREAN MARTYRS로 이 책은 김창석 신부가 「한국의 성지」(이충우 원저)를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IX. 국제관계 분야

평협은 그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를 국제 교류에서부터 찾게 되었고, 평협 제10년기 초반서부터 시작된 바티칸 평신도평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평협 활동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이 시기가 밖으로는 세계 교회 차원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평신도에 관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고 안으로는 한국 평협이 성장을 위한 내적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런 바탕 위에 평협의 국제관계는 제20년기 중반기인 1983년에 ‘제1차 동북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불발시킨 오점은 있었지만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시아 평신도회의 참석

1980년대에 들어와 평협은 세계 교회,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교회와의 교류 협력에 나서게 된다. 우선 바티칸 평신도 평의회가 1983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홍콩에서 개최한 ‘아시아 평신도회의(The Laity Meeting in Asia)’에 정진석 주교와 안상인 지도신부와 함께 엄익채 회장 등 6명의 평신도가 한국교회 대표로 참석했다. 대표단은 ‘아시아 사회의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서 평신도가 지닌 역할(The Role of the Laity in the Church’s Life and Mission in Asian Society)’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 한국 평협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 신뢰회복운동, 가톨릭대상 등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보고하고, 1981년에 거행된 조선 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였다.²³²⁾

또한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아시아의 각 지역별 평신도들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우선 ‘동북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져 ‘제1차 동북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1984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평협의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제안으로 결정된 ‘제1차 동북아시아 평신도 회의’는 1984년 7월 2일부터 11일까지 4차에 걸친 준비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예정대로 서울에서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한국 평협과 교회는 역사적인 첫 번째 ‘동북아시아 평신도 회의’ 개최 기회를 잃는 아쉬움과 함께 스스로 발의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국제적인 결례를 범하고 말았다. 그 이후 이 회의는 당초 결정보다 2년 늦게 1986년 4월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제1차 동아시아 평신도회

232) 「평협30년사」, 176쪽.

의(East Asian Laity Meeting)’라는 명칭으로 열리게 된다.

1986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에는 한국 평협 대표로 한홍순 교수가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 교수는 한국 평협과 평신도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 준비위원회가 1982년에 실시한 평신도 신앙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설명하여 한국교회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FABC 회의 참석과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위원 임명

1984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아시아주교회의연합(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s, FABC)의 평신도위원회(Office of Laity)가 대만의 창화에서 주최한 제1차 평신도사도직 주교연수회(Bishops' Institute for Lay Apostolate)에 이준영 평협 사무총장,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 오덕주 부회장, 그리고 주교회의가 선발한 이창순(대전교구)과 한형식(인천교구) 등 네 명의 평신도가 참가했다.²³³⁾

1980년대는 한국 평협과 평신도들이 국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84년에 바티칸 평신도평의회의의 위원으로 한홍순 교수가 임명되어 활동하게 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바티칸 평신도평의회는 세계 교회 차원에서 평신도사도직을 촉진하는 바티칸 기구로 당시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하는 26인(이 중 3인은 주교)의 위원(아시아 4명, 오세아니아 1명, 아프리카 5명, 유럽 7명, 라틴 아메리카 4명, 북아메리카 4명, 중동 1명)이 임명되었는데 한홍순 교수는 아시아에 배정된 4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된 것이다. 또한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위원장 피로니오(Eduardo Francisco Pironio) 추기경은 1986년 9월에 한국을 방문²³⁴⁾하여 한국 평신도에 대한 바티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제7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참석

‘제2차 바티칸공의회 20년 이후의 교회와 세계 안에서의 평신도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1987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주교대의원회의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평협 담당 김남수 주교와 평협 임원인 한홍순 교수가 참석했다. 이 시노드는 ‘성직자의 평신도화’나 ‘평신도의 성직자화’의 개념이 아닌 평신도 본연의 역할과 임무, 즉 세상 안에서의 평신도 영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33) 「평협30년사」, 176쪽.

234) 「평협30년사」, 198쪽.

시노드에 참석한 교부들은 평신도가 단순히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그 자체라는 것, 평신도는 단지 교계제도를 돕기 위한 보조자도 아니고 사제 부족에 대한 상대적 대체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대표와 옵서버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교회를 소개했는데, 김남수 주교는 “가정이 평신도의 사명과 실천의 중심이자 성소의 중심”임을 강조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²³⁵⁾

235) 「평협30년사」, 198-199쪽.

X. 민족화해 분야

평협 제10년기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교회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점차 남북관계의 변화에 교회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평협 제20년기에는 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설립과 평협 활동

한국교회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과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안에 ‘북한선교부’를 설치하는 등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졌다. 200주년 행사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분단 한국의 고통은 세계 분열의 상징”²³⁶⁾이라고 언급하고,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간 뒤 첫 강론에서 “분단의 아픔을 한국 국민과 함께 느끼며, 북한 신자와 접촉하지 못해 유감”²³⁷⁾이라고 남북한 분단과 북한 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기도 했다.

200주년 행사가 끝난 후에도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안에 두었던 ‘북한선교부’는 주교회의 산하 공식 기구의 하나인 북한선교위원회로 격상되어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5년에는 북한선교위원회 산하에 후원회가 결성됨에 따라 여기에 평협의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여 평협 활동과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이외에 평협의 민족화해를 위한 활동으로서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러나 북한 교회가 평협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85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교구 미리내 성지에서 개최된 제18차 정기총회 연수 첫 번째 강의 연사로 초청된 양한모 크리스천사상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하느님 백성인 우리는 제3교회(북한, 중공, 기타 동남아 각국)을 위하여 중대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자각하고 주께서 화해와 일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음을 알아야 한다.”²³⁸⁾고 하여 평협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관심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36)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자료집Ⅰ」 1945-1991, 510쪽.

237) 위의 책, 511쪽.

238) 「평협30년사」, 188-189쪽.



White Paper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평협 제30년기 (1988~1997)

- I. 교회내적 관계
- II. 선교분야
- III. 가정 · 생명 · 환경 분야
- IV. 정치 분야
- V. 경제 · 사회 분야
- VI. 사회복지 분야
- VII. 교육 분야
- VIII. 문화 · 언론 · 출판 분야
- IX. 국제관계 분야
- X. 민족화해 분야

40th
CLAK

I. 교회내적 관계

1988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와 세계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제7차 주교대의원회(1987.10.1~30)의 후속 권고 문헌으로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12.30)을 발표하였다. 평신도 활동에 관한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발표는 교회 내에서 평협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방북 파견 사태에서부터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까지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는다.

정의구현사제단 방북사건에 관한 호소문 발표

평협 제30년기가 막 시작된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으로 불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발표는 교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이 선언은 ‘북방정책’을 내세운 노태우 정부에서 나온 획기적인 대북한 관계개선을 천명한 내용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훌륭한 평화정신이 담겨있는 선언이라며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의 실천을 위해서는 충실한 세부지침이 있어야 했다. 실천의 세부지침 없이 불쑥 나온 이 선언은 남북화해 분위기만을 조성하여 무분별한 북한 방문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3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남한 대학생 대표 임수경 학생(당시 외국어대 불어과 4년)파견(6월), 평화민주당 서경원 의원 방북과 간첩혐의 구속사건(7월) 등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 평양 파견(7월) 사건이 뒤따랐다. 이러한 일련의 대북한 접촉으로 인해 당시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정의구현사제단이 교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문규현 신부를 평양에 파견한 데 대해서 주교회의는 7월 27일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²³⁹⁾ 그러자 정의구현사제단

239) 이 담화문은 남북관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협상과 개인적인 차원의 친교 내지 대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명확한 한계의 어려움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모든 대화와 교섭은 특별히 신중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이 한국 천주교회에서 공인된 단체가 아니더라도 천주교 신부의 단체라는 점에서 주교단은 유감의 뜻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평협30년사』, 217쪽)

은 거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교회 안팎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협은 1989년 8월 3일 ‘민족의 십자가를 나눠지고자 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이른바 ‘8·3 한국 천주교 평신도 호소문’을 발표하였다.²⁴⁰⁾

이 호소문의 내용은 △비록 정의구현사제단이 1989년 7월 25일에 ‘주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전에 주교님들께 상의 없이 방북을 추진하게 된 것을 깊이 사과했지만, 7월 27일에 발표된 주교회의의 답화문에 대해 정의구현사제단은 7월 31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총회를 열어 문규현 신부의 북한 파견을 추진하는 등 주교회의의 방향 제시에 거부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교회의 근본 질서인 교계제도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왔다. △7월 27일 판문점에서 행한 문규현 신부의 (반정부) 발언은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원리를 선언하는 것은 성직자들이 할 수 있더라도 이를 행동에 옮기는 일은 평신도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협의 이 호소문은 주교회의가 북한과 관련한 정의구현사제단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해서 정의구현사제단이 그에 반발하여 취한 행동과 모습은 교계제도에 큰 흠집을 낼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 호소문은 평협이 교회 안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북한에 대한 접근문제를 놓고 불거진 성직자들 간의 갈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교회 안팎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호소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반대로 진보성향의 집단에서는 평협을 “극단적인 보수집단”으로 몰아붙이며 통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평협 내부에서도 회장단의 회동만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1일 제주도 서귀포 복자 수도회 피정의 집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8·3 한국 천주교 평신도 호소문’ 발표 경위를 보고하고, 앞으로 중요한 안건은 화해와 일치의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²⁴¹⁾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교단과 정의구현사제단의 갈등에서 평협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려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입장이 단순히 교회의 일치라는 현실구조에만 따라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안겨준 것이 이번의 사태였다.

서울평협의 교구장과 간담회

서울평협은 평협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비롯한 총 12개 항에 이르는 건의문을 교구장인 김수

240) 「평협30년사」, 216쪽.

241) 「평협30년사」, 219쪽.

환 추기경에게 제출하였다.²⁴²⁾ 이 건의문은 1990년 5월 19일부터 이틀간 상지회관에서 개최된 서울대교구 본당 회장 및 단체장 정례연수회에 참가한 일선 본당회장 118명이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토의하여 압축된 내용을 담았다.

서울평협은 이 건의문을 통해 우선적으로 “교회 발전과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교구 평협과 교구장, 교구 평협과 사제평의회, 교구 평협과 국장 신부단 등과의 대화가 있어야 하고, 지구 사제단과 지구 평협 간에도 상례적인 대화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구장과 교구 평협 간에는 정기적인 대화”를 건의했다. 서울평협은 이와 함께 “교구 사목협의회를 정례화 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평협이 명실 공히 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 협의기구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구 내 제 평신도 단체의 활동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관계설정과 평협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현행 평신도주일 2차 헌금이 증액되도록 본당신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평협은 “현행 제도상의 본당사목협의회는 자문기능을, 본당 평협은 사제의 영적지도 아래 평신도가 자율적으로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는 기구로서 운영되도록 양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각 본당 실정은 각양각색”이라는 점을 지적, 가능한 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본당 평협(사목위원회)의 기능이 사제의 단독의사에 따라 정지되거나 사제 교체에 따라 임기 전 경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은 김수환 추기경은 1990년 12월 17일 주교관에서 평협 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²⁴³⁾ 이날 간담회에는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총대리 김옥균 주교, 보좌주교 강우일 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 전원과 평협 상임임원 21명, 그리고 사무처장 박신언 신부, 평신도 사목국장 김인성 신부가 참석하였다. 이 간담회는 교구장이 교구 평신도 대표들이 평협을 통해 내놓은 건의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한 후 교구 평협 임원들과 만나는 자리라는 점과 이 같은 형식의 만남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교회내적 관계의 관점에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3시간여에 걸친 진지한 대화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평협 임원들은 평협이 바라는 시정과 건의, 희망사항 등을 낱알이 교구장에게 전달했다. 그 주요 내용들을 간추리면, △교구 본당회장과 단체장들을 대표해 신뢰회복을 범교구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해 줄 것, △본당 평협(사목위원회)의 기능이 사제의 단독의사에 따라 정지되거나 사제 교체에 따라 회장 또는 임원이 경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 △본당 사무장의 신분 보장과 자격유무, 보수문제 등 사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줄 것, △특히 평협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히 해 줄 것, △성전건립 및 교회시설에 있어서 초대형 호화 사치성, 또는 낭비와 과소비 풍조를 방지해 줄 것, △이 같은 간담회를 정례화 해 줄 것 등이다.

242) 「가톨릭신문」, 1990.7.1, 11면.

243) 「가톨릭신문」, 1990.12.23, 15면.

이러한 요구는 서울평협 뿐만 아니라 평협 전체적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교구 내 본당에서 평협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본당 평협의 입지가 여전히 본당 신부에 의해 결정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본당 신부의 본당 운영에 관한 결정에 평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북한 교회에 대한 교도권 문제 대두

평협은 해방 45주년을 맞이하는 1990년 8·15 광복절에 북한 교회 신도들을 서울에 초청하기로 하였다. 이는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1989년에 열린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북한 평양장충성당 신자들을 이 대회에 초청하였으나 그들의 불응으로 무산된 바 있어 그것을 성사시킨다는 의지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대회 장엄미사에서 발표한 평화메시지에 북한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교구는 이것이 교도권 차원의 행위라는 이유로 서울평협의 북한 신자 초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서울대교구의 이 조치가 있는 이후 평협의 대북한 신자들에 대한 접근 노력은 물론 심지어는 평협의 대북한 메시지 발표마저도 북한 교회에 대한 교도권 문제에 부딪쳐 전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평협이 1990년 6·25전쟁 40주년과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발표하려 했던 대북한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평협의 대북한 성명서 발표 안건은 1990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교구 ‘나그네의 집’에서 개최된 제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때 결정에 따라 8월 25~26일 인천교구청 꾸르실료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상임위원회는 북한 신자들과 일치하려는 노력의 중요성 등을 담은 성명서 초안을 검토하고 그 수정작업과 발표시점을 한국순교성인성월(9월)로 하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평협 회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북한 교회에 대한 교계제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평협의 어떤 대북한 메시지 발표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된 제4차 상임위원회는 결국 북한 신자들에 대한 메시지 발표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협의 대북한 선교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 교회에 대한 교도권 문제 때문에 노력은 단지 논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였다. 1991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창원시 사회교육관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에 북한선교문제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향후 가능한 길이 열릴 경우에 방북 접촉을 신청하자는 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뿐이었다. 이후에 열린 대전 회의에서는 그나마 안건도 토론에서 제외되었다.²⁴⁴⁾

244) 「평협30년사」, 224쪽.

1993년 정기총회에서도 북한선교 문제가 상정되기는 하였으나 단지 “북한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만을 결의사항에 포함시켜 실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지평을 열지는 못했다.²⁴⁵⁾ 1994년도 정기총회도 북한 선교 안건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북한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다하고 방법이 있다면 북한선교회와 협조하여 침묵의 북한교회에 복음 선교(성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한다.”²⁴⁶⁾는 원론적인 결론에 그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초에서 중반기에 이르는 동안 북한 교회에 대한 교도권 문제의 대두로 평협은 대북한 관련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다. 북한 교회에 대한 교도권 문제의 대두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평협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평협은 이를 계기로 하여 평협 활동에서 교회내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욱 깊이 다지기도 하였다.

평협 창립 25주년 행사 개최

평협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제26회 평신도주일인 1993년 11월 15일 명동대성당과 로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오후 5시 기념미사, ‘우리상품쓰기 운동’ 우수지구 및 본당 시상식, 사랑의 만찬 등으로 이어졌다. 미사는 김수환 추기경이 주례하고 김옥균 주교와 김인성 지도신부 등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이 날 미사에서 김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한국교회의 저력인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성년 평협에 걸맞은 역할로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룩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성년 평협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평신도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한 이 기념행사에는 이관진 평협 회장과 이창복, 박정훈 역대회장, 서울대교구 본당 사목회장과 전국 각 교구 단체장 평협 임원 등이 부부동반으로 5백여 명의 평신도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00년대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평협 4반세기 기념행사는 교계와 평협이 서로 나누는 축하와 다짐을 통하여 갈등으로 얼룩진 교회내적 관계를 조화로운 관계로 복원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창립 25주년 이후 평협은 과거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평신도 제자리 찾기에 주력함으로써 평협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245) 「평협30년사」, 232쪽.

246) 「평협30년사」, 235쪽.

평협의 ‘평신도 제자리 찾기’ 시동

평협 창립 이후 평신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줄곧 있어 왔다. 그러나 평협의 활동 자체를 스스로 평신도의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한 ‘평신도 제자리 찾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 그리하여 평협은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평협 20년사」를 발간한다든지 ‘가톨릭대상’을 제정 운영하는 것도 평신도의 제자리 찾기의 일환으로 여기게 되었다.²⁴⁷⁾ 서울평협은 ‘공부하는 평신도 상(像)’ 정립을 위하여 1987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한홍순 해설) 책자 2천 권을 제작하여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제공한데 이어 1989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중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과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합본한 소책자를 만들어 요청하는 교구와 단체에 배부하였다. 이 또한 평협에 의한 ‘평신도 제자리 찾기’임에 틀림이 없다.

평협은 1989년부터 매년 상임위원회 때마다 개최지역 교구 평협의 평신도 활동 상황을 청취하고 친교의 시간을 갖는 등 자연스럽게 이해와 협조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교구 평협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평신도의 위상을 높이고 평신도사도직을 활성화하는 ‘평신도 제자리 찾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에 교구 평협 간에 자매결연을 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신뢰회복운동 차원에서도 서로 함께 하는 모습을 숭선수범하여 보여주었던 것이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차에 걸친 평협 정기총회는 상임위원회를 연중 4회(4, 6, 8, 10월)로 하고 매년 회의를 각 교구 순회 개최한다고 결정하고 확인하였다.²⁴⁸⁾ 여기서 상임위원회의 각 교구 순회 개최는 회의를 개최하는 교구 평협과 단체의 현황과 활동에 관한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서로 나눈 정보를 평협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이후 매년 정기총회의 안건에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와 교구 평협 간의 친교 도모가 포함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설립

1990년대 중반기 평협의 제자리 찾기가 한창 전개되는 상황에서 주교회의는 1994년 3월 춘계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기구로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다. 이는 주교회의가 평협 및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조직기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평신도사도직위원회는 앞으로 주교

247) 「평협30년사」, 225쪽.

248) 「평협30년사」, 232, 234, 236쪽.

회의와 평협 쌍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때는 단지 주교회의에서 평신도사도직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결정만 되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조직되고 활동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먼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을 마련하고 조직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였기 때문이다.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 전개

평협은 1996년 류덕희 회장 체제를 출범하면서 활동지표로 복음화 운동의 확산을 내세우면서 평신도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사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교구 평협 간 친교를 도모하며 상호 유기적 협조를 다진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즉, 1996년 11월부터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는 정신으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는 것을 교회쇄신으로 보고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6월 7일부터 이틀간 광주대교구 관내 전남 나주시 남평읍 글라렛수도원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는 평협의 위상 강화를 위한 매우 과감한 제안을 추계 주교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건의 내용은 첫 번째 제안은 본당의 사목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능을 갖는 기구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각 교구에 ‘평신도국’을 설치하여 평신도가 교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교구 사목평의회에 평신도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또 정례적인 회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⁴⁹⁾ 그리고 평협은 1997년 11월 16일 제30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섭시다.”에서 교회에 속하고 바로 교회 자체인 350만 평신도는 회개와 쇄신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²⁵⁰⁾

그 후 1997년 11월 22일부터 이틀간 대전교구 보혈선교수녀회 엠마우스 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평협 제4차 상임위원회 참석자들은 평협 제40년기를 시작하는 1998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²⁵¹⁾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은 1990년대 후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협 자체의 평가가 있기도 하였다.²⁵²⁾

249) 「평협30년사」, 259쪽.

250) 강론자료 원문은 「한국평협」 35호, 1998, 111-115쪽 참조.

251) 「평협30년사」, 260쪽.

252) 「평협30년사」, 225쪽.

주교단 사목교서에 따른 회개 다짐

평협은 1997년 3월 6일에 발표한 주교단의 “대희년을 바라보며”라는 공동 사목교서에 따라 평신도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글을 발표하였다.²⁵³⁾ 이 글은 주교단의 사목교서가 불의에 침묵하고 사회악에 무관심하거나 사회악을 고발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살피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독선에 고착되거나 정의를 내세워 사랑을 잃지는 않았는지 등을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시류에 영합하고 물질주의의 흐름에 밀려 진리로부터 벗어난 길을 걸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주교단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우리 평신도들도 주교단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본의든 타의든 진리로부터 벗어난 길을 걸어왔음을 하느님과 형제들 앞에 겸허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평협이 사안에 따라 주교단과 의견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주교단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희망은 평협이 같은 글에서 말했듯이, “광야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주교단의 참회어린 성찰을 담은 사목교서의 발표와 이에 대한 평협의 즉각적인 화답은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다운 한국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준 교회내적 관계의 표상이라 할 만하였다. 이때 평협은 앞으로 이와 같은 교회내적 관계의 지속을 기원하는 분위기로 가득하였다.

253) 「평협의 소리」 9호, 1997.3.23.; 「한국평협」 35호, 1998, 116-117쪽.

II. 선교 분야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창립되어 지난 20년 동안 선교의 기반을 구축한 평협은 제30년을 맞이하면서 국내 민주화운동의 여파와 더불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1989년의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한국주교단은 1988년 공동 사목교서 ‘성체 안에 하나 되어’를 발표했다. 평협은 새 회장단을 선출하고 “이 땅에 용서와 화합으로 민주화에 기여하고 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한다.”는 목표를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990년에 ‘내 탓이오’ 구호를 내세워 교회 안팎의 선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해외교포 사회를 비롯 전 세계에까지 번져 복음정신을 전파해 나가는 한국가톨릭의 선교역량을 과시하기에 이른다.

신뢰회복운동

평협은 1983년에 전개되었던 신뢰회복 운동을 재개하여 이를 범교회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1988년 6월에 기획팀을 구성, 취지문안을 작성하며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선교 역량 확산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기획팀은 강주희 평협 사무총장과 김완희 서울평협 사무총장이 실무를 맡고 진교훈 서울대 교수, 바티칸 평신도위원인 한홍순 한국외대 교수, 방송작가 최홍준, 이윤자가톨릭신문 서울분실장 등이 취지문 기초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실천계획의 실무는 박정부 서울평협 기획분과위원장이 맡았다.²⁵⁴⁾ 그리고 1988년 10월 8일에 열린 신뢰회복추진 7인 소위원회는 신뢰회복운동 취지문과 계획안, 실천방법 등을 확정하였다.

1988년의 신뢰회복운동에는 1983년 운동과 달리 전국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대거 동참하여 고문에 한국천주교 주교단, 지도에 전국 사제들, 참여에 전국 수도자들이 영입되었다. 자문위원회는 류홍렬, 이창복, 최상선, 엄익채, 한용희 등 전국 평협 역대 회장으로, 상임위원회는 전국 14개 교구 평협 회장과 전국 15개 단체 회장으로 각기 구성되어 류홍렬 평협 초대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회는 평협과 각 교구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전국 평협 측 인사는 박정훈, 엄익채, 진교훈, 한홍순, 이윤자, 최홍준, 강주희, 김완희, 박정부, 김태원 등 10인이었다. 또한 전국 각 본당 회장과 교구 단위 단체장들이 발기인이 됨으로써 이 운동은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가 모두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범교회적 조직을 갖추었다.

254) 「평협30년사」, 208쪽.

평협은 이 운동의 취지문과 실천과제, 계획, 기구 및 각 위원회 위원 명단이 수록된 소책자와 포스터, 강론자료를 만들어 전국의 모든 본당과 단체, 수도회, 기타 교회 기관 1천 5백여 곳에 발송했다. 평협이 발표한 ‘신뢰회복운동 취지문’에 제시된 ‘신뢰회복을 위한 한국천주교 평신도의 다짐’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⁵⁵⁾

첫째, 신뢰회복운동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서부터’ 펼쳐나간다.

둘째, 우리 평신도는 기도와 희생과 나눔으로 가족끼리 온전히 믿고 지내는 가운데 성가정을 이룩함으로써 이 운동을 사회공동체로 확산시켜 나간다.

셋째, 우리는 순교 선열들의 영성을 생활 속에 이어 받아 참된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 운동’이 되어 형제적인 사랑으로 지역 간의 감정과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우리가 앞장섬으로써 믿음의 공동체를 이룩한다.

다섯째, 이러한 신뢰가 북녘땅 침묵의 교회에까지 번지게 해서 평화적인 민족재결합의 희망을 가꾸어 나간다.

이러한 취지는 1988년 11월 13일 제21회 평신도 주일을 기해 전국 7백여 본당에서 행해진 평신도 강론을 통해 신뢰회복운동은 선교활동의 새 지표로 제시되었고,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정신에 따라 ‘불신 사회’를 ‘믿고 사는 사회’로 바꾸는 선교열정 재점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신뢰회복운동은 1990년 5월 8일 서울평협 상임위원회가 내세운 ‘내 탓이오’ 구호를 평협 상임위원회가 수용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내 탓이오’ 운동

1990년 9월 평협은 ‘내 탓이오’ 차량용 스티커 30만 장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자기반성과 희생, ‘나부터 실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 탓이오 실천 덕목’도 함께 배포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9월 24일 김수환 추기경이 명동 서울대교구청 뜰에서 개최된 신뢰운동 출범식에 참석하여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내 탓이오’ 스티커를 손수 붙였다. 이날 TV 뉴스로 생생히 보도된 김수환 추기경의 이 모습은 ‘내 탓이오’ 운동이 한국 사회 전체에 다시 한 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²⁵⁶⁾

평협은 이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91년을 운동의 첫 해로 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내 탓이오 실천덕목’ 구호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인, 가정, 직장 및 사회적으로

255) 「가톨릭신문」, 1988.11.13, 3면.

256) 「평협30년사」, 210쪽.

각기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월별 실천 덕목과 개인, 가정, 직장 및 사회의 위치에서 삶의 지침들은 신자 개개인의 삶의 현장 안에서 신앙의 토대를 스스로 재점검하여 성찰하고 거기에서 이 땅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협은 이 덕목과 실천지침 40만 장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평협이 월별 실천 덕목과 개인, 가정, 직장 및 사회별 실천 덕목으로 제시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월별 실천 덕목과 개인별 실천 덕목 구호〉

월	실천 덕목	개인	가정	직장 및 사회
1	참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나부터 반성하기 '내 탓이오'/ 평화 위한 기도	가족기념일 기억하고 축하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분수 맞는 생활하기
2	사랑으로 일치를 이룹시다.	남 비방 안하기/매일 기도하기	우리농산물 먹기/가족과 대화 나누기	책임 다하기
3	희생으로 이웃과 나눕시다./ 정직한 투표를 합시다.	절제로 이웃돕기/ 금육단식 지키기	절약·검소한 생활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부정타락선거 물아내기
4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화내지 않기	부부간 존댓말하기/ 인간생명존중하기	양보하기/이해하기
5	성모님 따라 겸손하게 삽시다.	단정한 태도/ 예절바른 행동과 고운 말 하기	가족시간 갖기/외래품 안 쓰기	질서 지키기/차례 지키기/줄서기
6	예수 성심으로 화해합시다.	남 칭찬하기/정직하게 살기	가사 서로 돕기	이웃과 사랑으로 대화하기
7	어른을 공경합시다.	존댓말쓰기/은퇴사제 돕기	어른 바로모시기/성소계발 힘쓰기	자리 양보하기/어려운 노인 돕기
8	청소년을 바르게 이끁시다.	거짓말 안하기/향락업소 안가기	자녀와 대화하기/나쁜 비디오 안보기	공조·휴지 안 버리기/ 불우한 청소년 돕기
9	순교정신을 본받읍시다.	희생 봉사하기/신앙서적 읽기	어른이 술선수범하기/물건 아껴 쓰기	어려운 일 서로돕기/ 신자 모범 보이기
10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일찍 일어나기/예비자 인도하기	가족기도하기/관혼상제간소화하기	약속 지키기/성실하게 일하기
11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연도에 많이 참여하기	조상 열 지키기/삼푸·린스 안 쓰기	도박 안 하기/화환 안 보내기
12	회개하여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평일미사에 자주 참여하기	아껴쓰기, 나눠쓰기, 바꿔쓰기, 다시쓰기	서로 좋은 점 본받기/ 지나친 선물 삼가기

출처: 「평협30년사」, 211쪽.

이 운동은 평신도 스스로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을 실천하여 선교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힘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선봉에 섰던 민주화운동의 열기와 사회 각 부문에서 분출하는 민주화의 분위기를 선교 역량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평협은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민주사회 확립에 필요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내 탓이오' 운동에 나선 것이었다. 교회 구성원인 평신도가 먼저 나서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사회발전의 토대를 복음 정신으로 이루어나가는 선교의 새 지표를 설정하려는 데 이 운동의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 신뢰회복 운동이 주로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개해 나간 것이라면, 신뢰회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내 탓이오' 운동은 한층 더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내 탓이오' 운동의 확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스티커 배포로, 그 다음에는

‘내 탓이오’란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 8만 벌이 제작되어 인천교구 30여 본당과 서울, 부산, 대전, 춘천, 마산교구 등에 판매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 탓이오’ 곡목의 노래가 김지평 작사, 이준호 작곡으로 만들어져 인기 중창가수인 듀엣 베베에 의해 불리고 음반까지 나오면서 이 운동은 대중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이때 전국 매스컴의 보도 횟수만도 93회에 이르렀다.

평협의 ‘내 탓이오’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신뢰회복 운동은 가두 캠페인 방식을 취했다. 1991년 4월과 7월에 서울 명동대성당 앞에서 평협 임원들과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회원들은 ‘내 탓이오’라고 쓴 띠를 허리에 두르고 거리를 지나는 차량과 행인들에게 ‘내 탓이오 실천덕목’이 적힌 전단과 차량 스티커, ‘내 탓이오’ 악보 등을 나누어주었다. 여기에는 ‘내 탓이오’ 노래를 부른 듀엣 베베도 참여하였다.

평협이 1989년 9월부터 1991년 8월까지 ‘내 탓이오’ 스티커를 배포한 실적은 총 배부 수 약 48만 장 중 국내 천주교회 공동체를 통해 37만 장, 국내 비 교회 단체를 통해 6만 2천 장, 해외동포에게 약 4만 5천 장이었다.²⁵⁷⁾ 특히 국내 비 교회 단체에는 삼성, 대우, 현대, 포항제철, 대림산업 등 주요 대기업과 기업인협회, 은행, 증권회사, 단자회사 등 기업 및 금융단체와 개별 중소기업들이 포함되었다.

‘내 탓이오’ 운동은 문예작품(시, 시조, 수필, 희곡) 공모 방식으로도 확산되었는데 이에 관한 기사가 교회 매체(가톨릭신문, 평화신문, 평화방송)는 물론 1990년 11월 10~11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에 일시에 게재 보도되었고 응모한 문예작품 중 입선작과 우수작은 가톨릭다이제스트사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실로 ‘내 탓이오’ 운동은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되었다. 그것은 국내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일간신문, 월간잡지, 기타 기관지들에는 이 운동에 관한 사설, 논설, 칼럼, 수필 등은 90여회나 실렸고 TV, 라디오, 일간지, 월간지 등에 실린 인터뷰도 53회에 달했다. ‘내 탓이오’에 관한 신문 사설, 논설, 칼럼, 수필 등은 보성출판사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적으로 인정되어 박정훈 평협 회장이 1991년 ‘내 탓이오’ 신뢰회복 국민운동을 제창한 공로로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 운동은 국내에서만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그친 것이 아니었다. 해외 교민들에게 보급된 ‘내 탓이오’ 스티커 수는 로스앤젤레스 8천 장, 캐나다 3천 5백 장, 독일 1천 6백 장, 뉴질랜드와 호주 지역에 각각 1천 장, 기타 유럽지역 3천여 장에 달하였다. 더욱이 1995년 10월에 세계평화봉사단(The World Peace Corps)은 “내 탓이오 운동”(It's My Faults Campaign)을 세계 126개 회원국에서 평화를 위한 정신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1996년 3월 8일 박정훈 평협 회장에게 ‘세계평화상’을 수여하였다. 박정훈 평협 회장은 ‘내 탓이오’ 운동으로 국내 훈장에 이어 국제적인 상까지 받게 된 것이다.

257) 「평협30년사」, 214쪽.

‘내 탓이오’ 운동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포상은 이 운동의 국내외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컸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내 탓이오’ 운동은 1990년 11월 18일 제23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평신도의 사회교리 실천이었다. 그 당시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풍토를 드러내면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 해결방도를 찾아 내자는 뜻에서 평협이 전개한 이 운동은 오래지 않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에서 평협의 역할

1989년 10월 4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릴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교구 평협에서부터 대대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가장 많은 준비를 한 교구는 대회가 열리는 서울대교구였다. 서울평협은 1989년 1월 28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세계성체대회 준비에 적극 참여하여 대회의 성공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피정·연수 마련은 물론 성체대회 실행 표어의 생활화와 지속적인 성체조배 모임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평협은 수원가톨릭대학 교수인 배문환 신부를 초청하여 ‘성체대회와 우리의 자세’에 관한 강의시간을 마련하고 성체대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성체성사의 뜻은 무엇인지에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소상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배 신부는 성체대회에서 특히 ‘한마음 한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⁵⁸⁾

이러한 교구 차원의 준비는 서울대교구 외에 각 교구에서도 마련되었다. 수원평협은 1989년 2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세계성체대회 참여를 강조했으며, 원주평협도 1989년 2월 26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한마음 한몸’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토의했다. 대구대교구 역시 2월 26일 가톨릭문화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세계성체대회 준비를 위한 교구 차원의 연수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평협은 1989년 3월 11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제22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에 관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13개 교구대표와 9개 전국단체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에서 평협은 “세계성체대회의 붐 조성을 위해 정신운동인 신뢰회복운동과 사랑의 실천운동인 ‘한마음 한몸’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이를 위한 포스터와 표어 등을

258) 배문환 신부는 강의를 통해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희생과 봉사의 생활로써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는 삶은 세계성체대회에선 ‘한마음 한몸 운동’으로 나타난다. 헌혈과 장기기증·헌미·입양 및 결연 운동 등으로 ‘한마음 한몸 운동’은 성체대회의 액세서리 운동이 아니라 본질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이 없다면 어쩌면 성체대회는 순전히 제도적이며 필연적인 행사요, 알맹이 없는 겉치레 행사가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상공모와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세계성체대회 배지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²⁵⁹⁾ 이에 따라 1989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마산교구 창원가톨릭사회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상임위원 회의에서 각 교구 평협은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성체대회 준비에 적극 참여하고 배지달기 운동도 전국 각 교구에서 적극 떠나갈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평협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번째 방한으로 치러진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세계성체대회가 끝난 후 평협은 1989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서귀포 북자회관에서 상임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평협은 세계성체대회 이후 그리스도인다운 성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한편, 신뢰회복운동을 활성화시켜 이를 ‘한마음 한몸’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²⁶⁰⁾ 실제로 이 운동은 이후 우리 사회의 정신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교구 평협의 선교운동

1990년대 중반에 교구 평협의 복음화 운동이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그 가운데서 돋보이는 것은 대구평협과 원주평협이다.

대구평협은 1994년 교구평협회장단 연수회를 3월 6일 대구대교구청 교육원에서 갖고 선교와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선교 1·3 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각 본당 평협 회장단 160여명이 참가한 이날 연수회에서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는 강의를 통해 “선교를 하지 않으면 신자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고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²⁶¹⁾

원주평협은 1996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에서 1996년도 평협 임원연수회를 개최하여 다가올 2000년대 복음화 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1996년 평협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구 차원에서 교회 출판물 보급 및 독후감 쓰기 운동, 성서 필사 운동,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운동 등 3가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신자들의 내적 복음화에 힘쓰는 한편, 각 본당 가두 선교 확산과 교회 출판물 보급에도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원주평협은 매월 권장도서를 선정해 후보에 게재해 독후감을 모집, 우수작에 대해 시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성서에 기반을 둔 영성생활 강화를 위해 신약성서 4복음 필사 운동을 교구 차원에서 9월 30일까지 전개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교구 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갖기로 했으며 묵주기

259) 「가톨릭신문」 1989.3.19, 11면.

260) 「가톨릭신문」 1989.11.19, 1면.

261) 「가톨릭신문」 1994.3.14, 4면.

도 100만단 봉헌 운동을 연중 전개하는 등 선교운동에 박차를 가했다.²⁶²⁾

복음화와 선교활성화 사업

평협 제30년기를 마감하는 해인 1997년 2월 22일에 개최된 평협 제30차 정기총회는 2000년 대회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거기에는 다음 세 항목이 포함되었다.

①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 사업으로 용서와 화해의 실천으로 가족 간,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다짐하는 성서쓰기의 생활화, 생활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생명존중과 환경보존 캠페인, 연도와 상제례의 통일을 꾀하고 이웃과 연대로 친교와 경조사에 협조한다.

② 청소년 복음화 사업으로 가정주일의 복음화로 매월 첫 주말에 가족일치의 시간을 마련하여 성서묵상과 기도생활을 유도하고 부모와의 대화로 가정 평화의 유지, 각 교구와 본당 중심의 청년과 청소년 사목 프로그램의 적극적 지원에 의한 지도자 육성 교육, 불건전 영상물 안 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교육부 및 각 언론기관 협조를 요청한다.

③ 선교 활성화 사업으로 냉담자 방지 노력, 복음화 지도자 교육을 비롯한 건전한 레저문화 개발, 사목회의(시노드) 사례를 수집 연구, 범교구적 시성시복을 위한 기도운동의 전개 등이다.

그러나 1997년 예산 집행결과로 본 실적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 청소년의 복음화 및 선교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복음 선포 활동을 위한 총예산은 2140만 원이었다. 지출내역은 소공동체 복음화에 약 80%가 쓰였으며 그중 이웃과의 연대(사랑과 나눔)항목이 8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선교 활성화 항목에는 시노드 사례연구와 시성시복 기도운동 및 건전한 레저문화 개발 사업 예산 600만 원 중 60%이상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⁶³⁾

262) 「가톨릭신문」 1996.8.11, 19면.

263)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업계획서(1998~2008)」

Ⅲ. 가정·생명·환경 분야

1990년대 초 평협은 신뢰회복운동과 ‘내 탓이오’ 운동을 통해 가정·생명·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였다. 수원평협의 임신중절과 환경문제 설문 조사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평협은 정부의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와 평신도 환경선언 발표 등 보다 적극적인 생명·환경운동을 펼쳤다. 1990년대 후반에는 가정에 눈을 돌려 평협의 도덕성회복운동에 가정의 참여 유도과 ‘가정의 날’ 제정 건의, 원주 평협의 ‘가정주일’, 서울평협의 ‘부부의 날’ 행사 등이 이어졌다.

1990년대 초기 평협의 가정·생명·환경운동

1990년대 초기 평협의 가정, 생명 및 환경에 관한 관심은 신뢰회복운동과 ‘내 탓이오’ 운동을 통해 표출되었다. 운동의 초점은 주로 생명과 환경 문제에 맞추어졌다. 1990년 9월 24일에 평협이 정리하여 발표한 ‘내 탓이오’ 운동의 개요에 자연보호, 공해방지가 포함되어 있었고,²⁶⁴⁾ 같은 해 4월 28일 부산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의 1990년 사업 중 신뢰회복운동 항목의 하나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⁶⁵⁾ 수원평협은 1991년 9월부터 창조질서보존을 위한 인간생명수호와 자연환경보호가 신뢰회복운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보고 생명공동체운동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한편 서울평협은 1991년 10월 12일부터 이틀간 상지회관에서 본당 총회장과 각 단체장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하였는데 거기에서 각 본당마다 ‘환경보전 분과’를 신설하여 교회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평신도사도직의 사명’(정진석 주교)과 ‘생명존중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한홍순 교수)에 관한 강의 이후에 ‘이성의 소멸’이라는 낙태관련 비디오를 시청시간이 있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낙태문제와 환경문제에 관한 시청각 교육을 본당마다 실시, 이에 무관심한 신자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사목위원부터 모범을 보이자고 의견을 모았다.²⁶⁶⁾

이후 평협의 생명·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정부의 낙태허용 입법에 따른 주교단의 반대성명을

264) 「평협30년사」, 213쪽.

265) 「평협30년사」, 221쪽.

266) 「평화신문」 1991.10.20, 4면.

지지고 환경보존이 국내외적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수원평협의 임신중절과 환경문제 설문 조사

수원평협은 각 교구 평협이 생명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신자들을 대상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²⁶⁷⁾ 그 결과 낙태에 대한 신자들의 죄의식은 크지만 성폭행 등 본인이 원하지 않은 수태는 죄가 뭍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시키겠다는 의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새로운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수원평협은 1991년 9월 여성신자 연합교육에 참가한 34개 본당 2백 3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8개항으로 이루어진 이 설문 조사에서 98.3%에 달하는 대부분의 여성신자들이 낙태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려 41.9%가 영세 후 낙태를 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결혼에 따른 책임과 의무, 낙태가 모체에 미치는 영향, 자연 피임법 등 생명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낙태 방지를 위한 교육에 대해 절반을 약간 넘는 54.2%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1/3을 넘는 35.2%가 자연법에 의한 수태조절법을 모른다고 답한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약물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수태조절을 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8.2%에 이르며,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수태했을 때 가족계획상 낙태에 21.65%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신자들 중 58.5%만이 비밀을 보장되는 출산·양육 보조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성폭행에 의해 임신을 했을 때 그런 시설을 이용하여 출산하겠다는 응답자도 42.8%에 불과하여 원치 않는 임신중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실시한 ‘합성세제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합성세제가 인체에 해롭고 수질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신자들은 절반인 50%에 불과하였고, 60.8%는 합성세제의 편리함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합성세제의 유해성에 대해 모르고 있는 대졸 이상자가 국졸 이하의 저학력자 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교육정도에 상관없이 환경오염에 대한 무지가 오염 확산의 요인의 하나임이 드러내었다. 또 합성세제의 유해함을 아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도 합성세제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이 보다 근본 방향에서 재정립되어야 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환경교육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267) 「평화신문」 1991.11.17, 5면.

낙태 반대 입장 표명과 성명발표

평협은 주교단이 1991년 12월 8일 인권주일을 기해 발표한 사목교서 ‘인명 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 합시다!’의 뜻에 따라 생명존중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 성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인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 전면 반대하는 신앙인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1992년 4월 25일부터 2일간 청주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평협 제25차 정기총회와 제1차 상임임원회에서도 ‘낙태는 인명경시 풍조의 근원’이라고 규정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전면 거부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다.²⁶⁸⁾

1992년 6월 20일부터 2일간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개최된 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에는 13개 교구 평협 회장과 3개 전국 단체 대표, 임원 등 31명이 참석하였다. 이틀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낙태법안 폐지 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낙태를 입법화하려는 정부당국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⁶⁹⁾

성명서는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인간은 수태된 순간부터 그 생명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생학적, 유전학적 이유로 낙태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이는 곧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하는 적자생존에 따른 살인행위로서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일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어 “한국 평협은 지난해(1991년) 11월 17일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에서 하느님의 창조사업 자체를 거스른 낙태행위는 태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단정,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을 제시한 바 있듯이 이와 같은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낙태죄 폐지를 거듭 반대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²⁷⁰⁾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공동교서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의 불가침성, 인공유산의 죄악성을 지적하며 낙태를 살인행위로 단죄해왔던 주교회의는 1992년 7월 3일부터 9월말까지 모자보건법을 모태로 한 형법개정안 135조 폐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0월에 107만 명의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평협은 “낙태는 분명한 살인행위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의 근원”임을 천명한 주교단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각 교구 평협은 지역별로 주교단이 의도한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268) 「평협30년사」, 230쪽.

269) 「평화신문」 1992.6.28, 2면.

270) 「평협30년사」, 249쪽.

환경 관련 의제와 선언문 발표

1992년 4월 25일부터 2일간 청주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평협 제25차 정기총회와 제1차 상임임원회에서 생명·환경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었다. 1992년 10월 3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평협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도 생명존중과 환경정화 운동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이후 4년간의 연차별 사업계획의 활동지표로서 ‘창조질서 보전’을 설정하였다. 특히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삶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구의 날’ 등 환경보전에 관한 연대활동 전개 등을 주요 활동으로 내세웠다.

1995년 2월 25일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개최된 평협 제28차 정기총회에는 15개 교구 대표와 24개 단체 대표 49명이 참석하여 생명·환경 문제를 주요 사업계획의 하나로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생명존엄성을 고취하고 환경운동에 평협이 솔선수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996년 ‘지구의 날’을 앞두고 평협은 6월 2일 ‘천주교 평신도 환경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오존층 파괴와 산성비로 인한 피해,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삼림의 훼손과 생물 종들의 멸종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음을 지적한 환경선언문은 “우리 평신도들은 하늘과 땅, 물 등 자연을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실천운동을 선언했다.

① 인간과 자연이 똑같이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과 질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앞장선다. ② 가정과 직장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생활 안에서 실천한다. ③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명심하고 가족, 친지는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④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기업의 사업이나 정부정책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수정토록 촉구하는 일에도 앞장선다.

평협은 이 선언문 60만 장을 인쇄하여 1996년 6월 30일 주보와 함께 각 교구와 본당에 배포하고 환경보호운동에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⁷¹⁾ 또한 평협은 1997년 6월 8일에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푸르름잔치’를 명동대성당 구내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조질서의 보전과 관련하여 생명존중사상의 고양과 환경정화 풍토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였다.

271) 「가톨릭신문」 1996.7.7, 1면.

가정에서의 도덕성 회복 촉구

평협은 도덕성회복운동에 가정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 9월 16~17일 제3차 상임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11월 13일에 제28회 평신도 주일(11월 19일) 강론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도덕성회복운동 표어가 담긴 책받침 20만 개를 제작하여 시민들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²⁷²⁾ 표어는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을 먹겠습니다.”, “직장을 내 집처럼 가꿉니다.” 등 가정에서부터 신자들이 직장和社会의 빛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하나은행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도덕성회복운동 실천표어는 학생들의 책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벽에 걸어놓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행동 및 생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제28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²⁷³⁾는 특히 청소년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평신도의 의무가 시작되는 최초의 장소”라고 밝힌 이 강론자료에서는 “가정공동체가 튼튼해야 가족들이 본당생활과 사회생활도 제대로 신자답게 수행할 수 있다.”며 가정공동체의 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 줄 것을 요망했다.²⁷⁴⁾

가정 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평협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 성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갈수록 비인간화, 흉포화 되어가는 이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1997년부터 ‘가정의 날’을 제정, 매월 한차례씩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운동이 전 교회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주교회의에 건의하기로 하고 주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평협 차원에서만이라도 반드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²⁷⁵⁾

한편, 원주평협은 1997년 2월에 개최된 1997년 정기총회에서 교구장 사목 지침 ‘그리스도인 가정의 해’에 따라 매월 첫 주를 ‘가정 주일’로 지내기로 하였다.²⁷⁶⁾

서울평협은 1997년 5월 마지막 주일(25일)을 ‘제2회 서울대교구 부부의 날’로 지내기로 하고 각 본당과 단체 등에서 부부의 날을 뜻 깊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1996년에 개최된 서울 ME대회를

272)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56쪽.

273) 원문은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78-80쪽.

274) 위의 책, 57쪽.

275) 「가톨릭신문」 1996.11.3 1면.

276) 「가톨릭신문」 1997.2.9, 19면.

기해 부부의 날을 선포한 바 있는 서울평협은 “결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행복한 가정을 기초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자”는 취지로 5월 마지막 주일을 제2회 부부의 날로 지내기로 한 것이다.

서울평협은 이에 따라 5월 8일 각 본당 및 교구 단체장에 부부의 날 기념 협조 공문을 발송, ‘혼인 성사의 은총’을 공동주제로 부부의 날 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평협은 이 공문을 통해 부부를 위한 강좌나 피정, 혼인서약 갱신전례, 사도직 프로그램 등 각 본당과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부부의 날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²⁷⁷⁾

277) 『가톨릭신문』 1997.5.18, 19면.

IV. 정치 분야

평협 제30년기는 1992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에 참여하여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선 것을 비롯하여 안동평협의 ‘14대 총선에 임하는 신앙인의 자세’ 성명 발표 등 정치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평협은 1995년 지방자치선거 때는 도덕성 회복 운동의 차원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그해 광복절에 호소문을 발표하여 인권존중과 동서지역감정 극복 호소와 함께 신자들의 기도를 청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평협은 정치인, 언론인, 국민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하여 공명선거 운동에 앞장선다.

평협의 공명선거 운동 참여와 전개

평협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전국 56개 종교, 시민, 여성단체들과 함께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위한 범국민운동단체로서 1992년 1월 25일 공식 출범식을 가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공선협)에 참여하였다.²⁷⁸⁾ 평협의 참여는 이관진 회장이 공선협의 공동대표와 산하에 설치된 9개 위원회 중 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²⁷⁹⁾

출범식에서 △선거부정 고발창구 적극운영, △관권개입 감시 활동,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금품향응 거부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등 9개 항을 활동 방침으로 결의하고, 공동대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정부와 정치인이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민이 정부 탓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돈 안 쓰는 선거를 기필코 실현하기 위해 의식 개혁 운동 및 선거 감시활동, 기권방지를 위한 선거 참여 운동, 공정한 선거 풍토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경주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성명은 이어 정부와 선거관련 부처에 대해 관권개입을 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는 선거 비용제한액의 한도 내에서 정직하게 선거운동을 할 것과 선거비용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선협은 그해 2월에 각 지역 본부를 결성하고 시·군 단위까지 선거부정 고발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산하 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선거부정 및 관권개입 등을 감시·고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78) 「평화신문」 1992.1.26, 2면.

279) 공선협은 이관진 평협 회장, 이세중 변호사 등 8명의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손봉호 서울대 교수, 사무총장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편, 평협은 1992년 2월 15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 창조질서 보전을 금년도 활동지표로 정하고 특히 금년에 실시하는 여러 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캠페인에 평협이 앞장섬으로써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공선험 활동 등에 대한 평협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동평협은 1992년 2월 26일 안동교구 사제단·수녀연합회와 함께 ‘14대 총선에 임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성명으로 발표하여 올바른 정치문화의 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이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해 강경대 군 사망과 연이은 젊은이들의 죽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희망 없는 농촌의 현실, 물가고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 인신매매 가정파괴, 수서사건과 같은 많은 권력형 비리, 폐놀 유출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복음적 가치로 올바르게 지적해 줄 책임(현대세계의 사목현장 76항)이 있는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14대 총선을 앞두고 신앙인의 자세를 밝힙니다.”라는 성명발표의 당위성에 이어 관권과 금권의 배제, 인권 존중, 도덕성과 통일외지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²⁸⁰⁾

도덕성 회복 운동

평협은 1994년 10월 25일 제27회 평신도 주일(11월 13일)을 앞두고 “3백만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²⁸¹⁾ 이 호소문은 10월 8일 안동에서 열린 평협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회장단에게 위임된 것이었다. “땅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을 제 자리에 바로 놓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말로 시작하는 것처럼 도덕성 회복이 본래 취지였다. 그러던 중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발생하자 이 호소문을 앞당겨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1994년 10월 29일에 제3차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논의하고 11월 13일 도덕성 회복을 내용으로 평신도 주일 호소문을 다시 한 번 발표하였다.

평협은 1995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캠페인은 선거만을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1994년 10월 25일에 발표된 호소문의 연장선상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비리와 부정부패, 생명경시 풍조, 윤리와 도덕의 파괴 현상을 바로 잡으려는 도덕성 회복 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80) 「평화신문」 1992.3.8, 4면.

281) 「평협의 소리」 1994.12.4, 8면.

1995년 2월 25일 서울 명동대성당 교육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식 계도에 앞장선다는 것을 사업의 안건 중 하나로 정하였다.²⁸²⁾ 여기에는 ‘윤리질서 및 사회질서 지키기’로서 낙태방지과 생명존엄성 고취, 경로효친사상 고취, 교통질서 지키기, 상도 지키기, 환경운동 솔선수범하기 항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 비리 배격과 부실공사 추방운동,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선거의 감시, ‘내 탓이오’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1995년 4월 22일부터 이틀간 대구대교구 교육관에서 전국 15개 교구 평협 회장단과 단체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협 제1차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위에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펴내는 「매일미사」 6월호 「신자들의 기도」에 도덕성 회복에 관한 내용을 신도록 요청하고 6·27 지자체 4대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한 성명서를 각 교구 평협 회장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회장단이 작성 발표하도록 하였다.²⁸³⁾

이어 이 회의는 4월 23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개탄하면서 ‘도덕성 회복’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자는 취지였다. 이 호소문은 “비뚤어진 양심의 판단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 등 상상을 초월한 반인륜적인 범죄와 이기주의에서 오는 부정부패, 생명경시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사회현상”을 방관할 수 없어 도덕성 회복 운동에 나섰음을 밝히고 “진정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바르게 가져야 하고, 참되며 선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회개하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²⁸⁴⁾

평협은 앞서 1995년 4월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6월 4일 성령강림 대축일을 기해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6·27 지방자치선거에 즈음한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²⁸⁵⁾ 평협은 호소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과 또한 민주주의는 그 과정이 중요하므로 “국민 각자가 엄격한 감시자가 되어서 공명선거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투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협이 이처럼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것은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민적 의식 자각이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국민인 평신도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 신앙인으로서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평협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요한 3,21)는 성서 말씀을 인용하여 정치사회 질서 속에 ‘빛과

282) 「평협30년사」, 236-237쪽.

283) 「평협30년사」, 238쪽.

284)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83-84쪽.

285)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82쪽.; 「평협30년사」, 250-251쪽.

소금'이 되어야 하는 평신도의 소명을 일깨우고자 노력하였다.

명동성당 공권력 난입 시국미사 및 촛불시위

1995년 6월 6일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한국통신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긴급 구속과정에서 공권력이 사상 최초로 명동성당에 난입하여 성전을 유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평협은 1995년 6월 13일과 6월 20일에 두 차례에 걸쳐 명동성당 공권력 난입을 규탄하는 시국미사와 촛불시위를 벌였다.

광복과 분단 50주년에 즈음한 호소문

평협은 광복 50주년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한 1995년 8월 15일을 기해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광복 반세기를 맞이한 1995년을 구약시대의 희년처럼 남북한 겨레가 모두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희년으로 맞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평협은 우리 겨레가 진정한 해방과 함께 희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먼저 서로서로 화해와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광주문제도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제하는 한편, “아울러 그 책임자들은 겨레 앞에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²⁸⁶⁾ 이는 통일에 앞서 그 선결문제로 인권존중과 지역감정의 극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당시 영호남 지역감정의 극복에 걸림돌이 되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호소한 이 호소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공동체 내에서, 또 본당이나 사도직 단체의 회합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한 번씩 바칠 것을 권장하여 기도의 힘으로 진정한 광복과 희년의 기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286) 「평협30년사」, 251쪽.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호소

평협은 1997년 9월 7일에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를 발표했다. 이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정치 현실을 진단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함이었다. 호소문은 정치인들에게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악용하는 일을 삼가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언론인들에게도 공정한 보도를 당부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국민들 스스로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또는 눈앞의 이익을 떠나 공명선거의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간청하였다.²⁸⁷⁾

이와 같은 우리 정치사회를 향한 평협의 호소는 ‘사회 속의 교회’가 사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교회 구성원의 관심을 적절히 나타낸 것으로 사회 복음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호소의 참 뜻이 복음적 결실을 거두는 데 있다는 점을 알리고 모든 신자들이 기도 속에서 이 시대와 겨레의 미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자고 호소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울삼아 우리 각자가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올바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자.”²⁸⁸⁾고 권유하였다.

287) 「평협의 소리」 제11호, 1997.11.16; 「한국평협」 제35호, 1998, 118-119쪽.

288) 「평협30년사」, 276쪽.

V. 경제·사회 분야

평협 제30년기에도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활발하여 생명공동체와 도농공동체운동이 돋보였다. 1992년부터 평협이 전개한 ‘우리상품쓰기 운동’과 ‘자원 재활용 운동’의 성과도 컸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쌀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행해진 평협의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와 우리 농촌을 우리가 살리자는 성명서 발표에 이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도 괄목할 만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평협은 거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치·낭비 추방과 근검절약에 앞장서고 ‘경제를 살리기 귀한 우리의 다짐’을 채택하는 등 적지 않은 활동을 한다.

가농의 생명공동체와 도농공동체운동 전개

주교회의가 1987년에 일시적으로 전국 범위 사도직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킬 것을 결정함에 따라 평협 단체 회원으로서 가장 활발한 경제·사회 분야의 활동을 전개해온 가톨릭농민회(가농)는 1990년대부터 활동의 방향을 재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가농은 1990년 2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된 제20차 대의원대회에서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일체의 반생명적 질서를 배격하고 공해추방에 앞장서 땅과 농민을 살리는 생명의 농업에 충실할 것을 결의한 것이었다. 이후로 가농은 생명공동체운동의 전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유기농산물 직판사업 등에 관심을 돌렸다. 또한 10개 연합회를 교구 농민회 체제로 정비하는 한편 실행위원회를 생활공동체, 유기농업, 농민사업, 생활건강, 여성활동 등 6개의 위원회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농공동체운동이 여러 교구 가농에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안동교구는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에 역점을 두었다. 경남 고성 두호마을은 ‘한살림모임’과 함께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1990년 7월 30일 우리 밀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전교구 가농은 본당 신자들에게 고추, 밀가루, 사과 등을 공급하고, 청주교구 가농은 ‘흙공동체’를 결성했다. 그리고 원주교구는 공소 중심의 유기농업 실천에 앞장을 섰다.

이처럼 각 교구 가농의 유기농사업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1990년부터 유기농업연수회가 개최되어 유기농업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거기에 더하여 유기농사업 단지들은 실패

사례와 판로 확보 등 당면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91년 2월 20일에 개최된 가농 제21차 대의원총회는 마을 생활협동반을 건설하고 전국 단위 유통사업을 강화하고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전국 차원의 국민생활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신허중앙회, 생협중앙회, 타종교단체 등과 공동으로 ‘우리 밀 살리기 100만 인 모금운동’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히 11월 18일에 “하늘·땅·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의 대동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대전교구 성남동성당에서 개최된 ‘가농 창립 25주년 기념대회 및 추수 감사제’에는 전국에서 500여 회원이 참석하여 생산자 농민들과 도시 소비자들의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이러한 생명공동체운동은 “책임성 있는 생산자 육성 관리”, “튼튼한 유통체계 기초 확립”, “우리 밀 생산 책임 실천” 등의 중점 목표에 따라 현장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순회 간담회로 이어졌다. 이를 토대로 유기농업과 농산물 직거래 운동의 결실을 보아 서울, 청주, 광주, 부산, 창원, 대전 등지에 다양한 형태의 직매장이 개설되었다.

농산물유통사업도 성과를 거두었다. 가농은 전국본부에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설치하고 이를 주식회사로 법인화하였다. 청주, 광주, 대전 교구농민회와 청주교구 금왕본당농민회에 직매장이 개설되고 마산, 수원, 안동, 광주 등에는 상시적 직거래망이 구축되었다. 대전교구도 물류센터 겸 직매장을 신축 개장한데 이어 원주교구 직매장과 수원교구 물류센터 등이 속속 개장되었다.

또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의 추진체로서 ‘생산자위원회’가 결성되고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제1차년도(1992) 생산목표의 성공적 초과달성으로 생산량의 직접 수매와 우리 밀 가공 제1공장 건립을 이루어냈다.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은 제3차년도인 1994년에 15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재배면적도 800만 평으로 증가했다. 제품도 다양화되어 “우리밀라면”과 2분도 통밀쌀 등이 새롭게 생산 공급되고 현장 농민회원들은 기존의 제분공장에 이어 우리 밀 증류주, 과자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은 불과 5년 만에 파종재배 면적을 1천만 평으로 확대하고 생산조직화에 주력한 결과 전국 69개 군 700여명의 생산자를 조직 관리하는 외연확대를 이루는 성공을 거두었다.

가농이 1991년부터 시장개방가속화를 촉진하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파고에 대비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국민생활 실천 대안 운동으로 추진한 ‘우리 밀 살리기 운동’과 ‘우리 콩 살리기 운동’은 마침내 교도권 차원에서 수용되기에 이른다. 즉, 1994년 주교회의의 춘계총회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범교회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운동의 전국 및 각 교구 본부가 설치되는 등 훌륭한 발전양상으로 이어졌다. 이 운동의 중심은 당연히 가농이었다. 이러한 범교회적 협조 속에서 가농의 ‘우리 밀 살리기 운동’과 ‘우리 콩 살리기 운동’ 같은 운동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우리상품쓰기 운동’의 전개

1992년 2월 평협은 신뢰회복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를 ‘내 탓이오’에서 ‘우리상품쓰기’로 바꾸었다. 갈수록 폐쇄해지고 있는 우리농촌을 살리고 우리상품을 즐겨 씀으로써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자원 재활용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자원 재활용 운동도 함께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평협의 활동 초점은 경제 부문에 맞춰졌다.

1992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에 13개 교구 평협 회장과 3개 전국 단체 대표, 임원 등 31명이 참석하여 ‘우리상품쓰기 운동’과 ‘자원 재활용 운동’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뿐 아니라 우리 것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업체에 대한 품질 향상 당부와 신자들의 외제선호 사상 근절 및 폐품 재활용 등 실천운동은 물론 정신운동 차원으로까지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각 교구별로 본당과 단체가 이 운동에 적극 나서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오는 11월 평신도 주일 포스터와 강론자료에도 이 내용을 써넣기로 했다.²⁸⁹⁾

평협은 1992년 11월 17일 제25회 평신도 주일을 기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제목 아래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상품을 우리가 씁시다.”라는 부제의 강론자료를 배포했다. 이 강론 자료는 평협의 경제운동 선언문이기도 했다.

1993년 2월 2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평협 정기총회는 우리상품쓰기와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에 앞장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뒷받침할 ‘우리상품쓰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우리는 외국산 술을 마시지 않고, 외국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우리는 외국산 농산물을 먹지 않고,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쌀, 우리 밀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외제 학용품을 쓰지 않고, 우리 제품을 쓰도록 한다. △우리는 우리상품쓰기운동의 취지를 이웃에게 널리 알려 이에 함께 하기를 적극 권한다. 등 4개 항의 실천사항을 채택한 총회는 ‘우리상품쓰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²⁹⁰⁾ 평협은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포스터와 스티커를 만들어 배포하고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문예작품 공모도 병행했다.

서울평협은 1993년 4월 24일 가톨릭회관에서 본당 사목회장 및 단체장 임원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수회에는 각 본당 사목회장과 교구 평신도 단체장 등 150여명의 평협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이 주례한 미사를 시작으로 우리상품(농산물)쓰기 운동의 당위성에 대한 가톨릭 농민

289) 「평화신문」 1992.6.28, 2면.

290) 우리상품쓰기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홍순을 비롯하여 각 교구 평협회장 15인과 상임위원 전국 단체장 5인 등으로 부위원장단을 구성하고, 평협 사회복지분과위원장과 상임위원 단체 부회장 등을 위원으로 했으며, 평협 강주희 간사가 특별위원회 간사를 겸했다. (「평협30년사」, 241쪽)

회 김승오 신부의 강의, ‘우리상품쓰기 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위한 각 지구별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상품쓰기 운동은 우리 농민과 노동자 기업을 도우는 애국애족운동이며 이웃 사랑실천 운동”이라고 전제하고 “외국상품과 농산물을 사용하고 싶은 선호도를 희생으로 극복해서 사랑운동인 ‘우리상품쓰기 운동’을 전개해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추기경은 또 “희생을 동반하지 않은 사랑운동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구호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상품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것을 선택하는 지혜와 사랑, 희생정신으로 이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돼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²⁹¹⁾

우리상품(농산물)쓰기 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협 내에 ‘우리상품쓰기 운동 특별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것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이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그 기대는 적지 않게 충족되었다.

1993년 6월 12일에 전주교구 나바위 교육관에서 개최된 제2차 상임위원회는 ‘우리상품쓰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여성연합회가 제안한 ‘금품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수용하여 평협의 경제·사회 분야 활동 영역을 넓혀 갔다. 같은 해 9월에 개최된 전국 평협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상품쓰기 운동’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그 동안 범교구적으로 추진해 왔던 ‘우리상품쓰기 운동’이 신자들의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 운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교구 평협이 적극 나서도록 했다.

1993년 11월 15일 서울평협 창립 25주년과 제26회 평신도 주일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기념미사 후에 진행된 행사에서 ‘우리상품쓰기 운동’ 우수지구와 본당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과 이관진 평협 회장이 시상한 이날 시상식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생활실천운동으로 전개해 왔던 ‘우리상품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지구로 제5지구(지구대표 김덕수, 지구장신부 김정남)가 상을 받았고, 우수본당으로는 압구정동 본당(평협 회장 김명수, 주임신부 나원균)이 수상했다.²⁹²⁾

평협은 ‘우리상품쓰기 운동’의 효과가 실제 생활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각 교구 및 본당과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상품쓰기 운동’ 스티커를 계속 공급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차원에서 도시지역에 필요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291) 「가톨릭신문」 1993.5.2, 15면.

292) 「가톨릭신문」 1993.11.21, 1면.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의 추진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우리상품쓰기 운동’ 차원에서 이미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은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상품쓰기 운동’에 우리농산물 먹기가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걸지 않았으나 대전평협 여성연합회의 도시와 농촌 간 나눔의 장터도 실제로 우리농촌 살리기 실천의 좋은 본보기였다. 대전평협 여성연합회는 1992년 10월 25일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불우이웃과의 나눔과 생산자(농촌 본당)와 소비자(도시 본당)의 무공해, 저농약 농산물 직거래를 목적으로 대전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나눔의 장터’를 열었다. 여기에 교구 내의 많은 농촌과 도시 본당의 참여와 호응으로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탁 받아 판매하여 이를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직접적 동기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쌀시장개방 문제가 대두되면서이다. 평협은 1993년 12월 12일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주례 미사를 통해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에서 평협은 “우리농촌은 우리가 살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천주교 300만 신자들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우루과이 파고는 반만년 동안 경작해 온 우리의 논과 밭을 뒤엎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농촌의 존폐가 걸려 있는 쌀시장 개방 사태를 맞기까지 무사안일로 일관해 온 정부당국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촌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제야말로 우리상품과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야 할 절박한 시기이며, 모든 산업체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자”고 촉구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이 공식화 된 것은 1994년 4월에 개최된 주교회의 춘계총회가 이 운동을 범교회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전국본부’²⁹³⁾가 설립되고, 각 교구에 교구본부도 설치되었다. 평협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의 실천지침으로 각 교구 평협 및 본당 기구를 활용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 먹기 적극 권장, 우리 농산물 직판장 지원, 도·농 교류의 적극적 권장과 주선, 도시와 농어촌 지역 교회간의 자매결연 등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협은 우리농촌 살리기 전국 본부 조직과 함께 각 교구와 본당별로 운동 본부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운동의 조직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평협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로 빚어지는 교구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즉, 각 교구 평협의 조직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농 간 직거래를 주선함

293) 이관진 평협 회장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공동대표가 된다.

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비교적 공해에 물들지 않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평협은 이를 위해 본당 단위로 생산지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도·농교류의 차원에서 농산물이 도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평협의 그 같은 취지를 대대적으로 살리는 사업을 전개한 곳이 대전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 이범배 교구 평협 지도신부)였다. 대전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는 오만진 교구 평협 회장을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이 운동의 상시체제를 갖추었다.

그 일환으로 1994년 8월 29일 대전시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통센터를 착공하고, 12월 7일에 1차 공사 준공 축성식을 대전교구장 경갑룡 주교 집전으로 거행하기에 이른 것이다.²⁹⁴⁾ 1차로 준공된 유통센터는 건평 지하 24평(저온창고), 지상 1층 89평(일반창고, 매장, 사무실 등)이었다. 오만진 대전평협 회장은 유통센터의 성격을 수익사업이 아닌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유통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농촌 살리기 의식운동의 시작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밖에 전주평협은 교구차원에서 대규모 우리 농산물 바자회를 가졌고, 서울평협을 선두로 해서 마산, 안동, 청주, 제주 등의 교구 평협은 “우리농촌 우리가 살리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특별기도회를 갖는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은 도·농 협력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 본당의 결연사업 주선과 생활 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경제·사회 분야 운동의 점검

1995년 2월 25일 서울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평협 정기총회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활동과 사업을 총괄하여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가운데서 경제·사회 부문에 관한 내용은 사회 운동으로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식 계도에 앞장선다는 것이었고, 경제적 실천운동으로서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며 농민의 사기를 드높인다는 것과 ‘우리상품쓰기 운동’을 계속 생활실천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1995년 9월 16일과 17일 인천교구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의 관건은 도·농간 협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평협이 나서서 도·농간 교류와 나눔이

294)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등 내빈과 각 본당 회장 및 단체장, 농민회 회원, 소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건물 건축비, 설계비, 내장비, 운영비 등을 합쳐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소요자금은 ‘한마음 한 몸’운동 기금 전환 5천만 원, 사순절 2차 헌금 2천 7백만 원, 회원 출자금 1억 6천여 만 원으로 충당되었다. 회원은 농촌 살리기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생산자 회원은 1구좌 1만원 10구좌 이상, 소비자 회원은 1구좌 이상 100구좌 이하로 출자할 수 있으며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도농분과위원회 류정묵 위원장으로부터 평협의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벽지 공소의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위한 이동진료센터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듣고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1996년부터 이동진료센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²⁹⁵⁾

1996년 2월 24일 전국 평협 정기총회에서 류덕희 회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평협의 경제·사회 활동은 전임 회장 체제에서 추진되어 온 ‘도덕성 회복 운동’, ‘우리상품쓰기 운동’,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을 이어갔다.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짐

1997년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 때 평협은 거국적으로 전개된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근검 절약에 앞장서는 등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였다. 1997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전교구 보혈 선교수녀회 엠마우스 피정의 집에서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작성한 성명서 ‘경제를 살리기 귀한 우리의 다짐’을 채택하였다. 이 성명서는 다음 해, 즉 평협 제40년기가 시작되는 1998년 1월 20일에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12월 1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 가두서명 및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295)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58쪽.

Ⅵ. 사회복지 분야

평협 제30년기 사회복지 활동은 실질적인 진전이 많이 이루어진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안전 채택이라든지, 평협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신설, 1992년부터 교구 평협의 이웃돕기에 매년 예산 일부 할당 등이 그것이다. 여러 교구 평협도 사회복지분과를 신설하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대교구 교구장의 사목지침에 따라 본당과 단체의 예산 10%를 이웃과 나눔에 쓰도록 한 것은 괄목할 만하다.

평협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신설과 교구 평협 복지활동 지원

평협 제30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이 활기를 띠었다. 그것은 평협이 1988년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소년소녀 가장에게 성금을 전달한 일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 5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성금 90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2명의 소녀 가장에게 성금 4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1989년 4월 15일~16일 양일간 마산교구 창원 가톨릭사회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의에서 평협은 소년소녀 가장 돕기 안전을 의결하고, 이 사업을 사회복지 부문 활동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 평협에 사회복지분과위원회가 신설되어 이후 평협 활동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보다 커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평협 예산의 일부를 사회복지 활동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각 교구 평협에도 이를 권고하는 한편 1992년부터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교구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 지원비로 배정하였다.

1992년에 평협이 가난한 이웃과 청소년 가장 돕기를 목적으로 교구 평협 사회복지 활동 지원 배정 예산액은 인천과 춘천평협에 각각 110만 원, 안동, 원주, 제주평협에 각각 100만 원 등 모두 520만 원이었다. 1993년에는 청주, 춘천, 안동, 원주, 제주평협에 각각 90만 원씩 모두 4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별도로 90만 원을 지급했다. 1994년에도 청주, 안동, 원주, 제주평협에 각각 15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보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평협의 이러한 교구 평협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전국 협의체로서 직접 사회복지 사업을 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교구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협에 의한 교구 평협 사회복지 지원은 금액의 크기보다 그 유발효과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평협은 이웃사랑에 대한 평신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3년 평신도 주일 강론 주제를 ‘인류의 희망,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 합시다.’로 정하였다. 강론자료는 각 교구 평협과 본당에 보내졌다.

교구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 확산

평협 제30년기에 들어서면서 평협뿐만 아니라 서울평협을 비롯한 여러 교구 평협에도 사회복지 분과가 신설되어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교구 평협에 사회복지분과 신설에 따라 교구 평협들은 자체 예산의 일부를 사회복지 활동에 할애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갔다.

사회복지 활동에 배정된 예산은 주로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회복지기관지원, 명절과 연말연시 고아원·양로원 방문 등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는 데 쓰였다. 특히, 서울대교구는 교구장이 본당과 단체 예산의 10%를 이웃과의 나눔에 활용하도록 권고한 사목지침에 따라 다른 교구들보다 더욱 규모 있는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에 따라 서울평협은 2005년 12월 15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장학금 8백만 원과 함께 셋별 공부방, 우리집 공동체 등 불우시설 여섯 곳에 1백만 원씩 6백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²⁹⁶⁾ 그리고 수원평협의 경우에는 사순, 대림 강좌를 개설하여 참석자들이 특별현금을 하게 하여 모금된 현금을 복지시설과 가난한 이웃들의 생활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교구 평협 단체로 등록된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교도사목후원회, 가톨릭간호사회, 은전기사사도회 등 많은 단체들이 설립 교유의 정신에 따라 활발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회복지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296)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61쪽.

VII. 교육 분야

평협 제30년기에도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평신도사도직 연수프로그램을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여 평협 임원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이 시기의 특기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평협이 신뢰회복운동 차원에서 주최한 ‘신뢰회복을 위한 가정과 청소년’ 주제의 심포지엄으로 성직자, 부부, 청소년 등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평신도사도직 연수회 지속

평협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실시되어온 평신도사도직 연수프로그램은 평협 제30년기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진 연수는 평협 제30년기 첫해인 1988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988년에 있었던 강좌는 ‘화해와 일치’(김홍언 신부), ‘한국교회와 평신도’(김영교 신부), ‘성서와 신뢰회복운동’(송광섭 신부), ‘평신도와 신뢰회복운동’(류홍열 박사) 등으로 평협의 ‘신뢰회복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89년에는 새로운 교회상에 관한 내용으로 ‘교회쇄신을 위해 신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마산교구 구장 박정일 주교), ‘새 교회법에 대하여’(청주교구장 정신석 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로 새로운 평신도상이 제시된 ‘평신도 그리스도인’(한홍순 교수) 등의 강의를 있었다.

1990년에도 ‘신뢰회복’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가?’(부산교구 최영철 지도신부), ‘신뢰회복에 관하여’(수원가톨릭대 윤민구 신부), ‘성서에 나타난 여성’(인천교구 사목국장 박찬용 신부), 그리고 신뢰회복을 주제로 하여 이종한 프란치스코수도회 관구장, 장혁표 부산평협 회장, 오덕주 전국여성연합회 회장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1991년에는 ‘일치 안의 다양성’(대구대교구 이종홍 총대리 신부), ‘정치와 윤리’(마산교구 구병진 신부), ‘교회 안의 신비·친교·선교’(대전평협 유홍식 지도신부)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1992년 교육은 ‘교회의 내적 보편성’을 주제로 하였고, 특히 11월 15일 제25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위한 강론 자료로서 ‘평신도 어린이의 사명’을 만들어 전국 본당에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평협은 활동을 위주로 하여 교육은 별로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1995년 수원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특강으로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가 ‘평신도의 역할’을 강의하였고, 1997년 원주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 특강으로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의 ‘평협의 특성과 평신도의 자세’라는 강의와 배론성지 담당사제인 배은하 신부의 ‘순교자의 삶’에 관한 강의가 있었을 뿐이다.

가정과 청소년 심포지엄 개최

서울평협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가정과 청소년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3월 1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가정과 청소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²⁹⁷⁾ 이 심포지엄에는 성직자, 부부, 청소년 등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심포지엄은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은 서울대교구 총대리 강우일 주교가 하였다. 강 주교는 “사회나 교회는 청소년 문제를 특수 분야 문제로 취급, 전문가에게만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심적 문제”²⁹⁸⁾라는 점을 일깨웠다. 서강대 총장 박홍 신부는 ‘사명을 위한 소명 체험 어떻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의식해야 할 청소년의 사명을 “예수와 제자들의 사명”으로 풀고 “복음적 초대에 대한 회심적 응답”과 “사목적 배려”로서 몇 가지 실마리를 소개하였다.²⁹⁹⁾

‘가정과 청소년: 부부 역할’을 발표한 김창석, 김영원 부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일을 많이 해주기보다 스스로가 불화 속에 우스운 꼴을 보이지 말고 서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산교육”이라고 하여 가정에서 부부의 화합이 자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⁰⁰⁾ 그리고 이 부부는 본당 차원에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배려의 정도와 관련하여 본당 예산 가운데 청소년과 젊은이를 위한 투자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생 발표자로 나선 이성준 군(대학 3년)은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친구들을 보면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어른들은 일부 과격한 행동만 보고 나무란다.”면서 “기성세대가 우리들에게 ‘나이 먹어보면 안다.’는 식의 일방통행적인 말보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몰이해를 꼬집었다.³⁰¹⁾

297) 「가톨릭신문」 1989.3.26, 9면.

298) 강우일 주교, “가정과 청소년,” 서울평협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분과 사목위원 연수 자료집」(1986-1993년), 165-168쪽.

299) 위의 자료, 169-180쪽.

300) 앞의 자료, 181-194쪽.

301) 앞의 자료, 195-199쪽.

오류동성당 배선숙 양(여고 2년)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고작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일어나라 정도로 ‘가정의 하숙화’란 말까지 생겨났다.”며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 대화시간이 없어 아쉽다는 점을 토로했다.³⁰²⁾ 이들 두 학생은 교회의 문제점의 하나로 성직자의 사치성을 지적하고 또 어른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사목자들을 청소년들과 자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서울대교구 교육국장 나원균 신부는 토론에서 “무엇보다 문교정책에서 교육혁명이 없이는 청소년 문제가 제자리걸음일 뿐”이라고 하여 정부 교육정책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³⁰³⁾ 그리고 그는 교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 교육문제로서 김창석, 김영원 부부가 궁금해 하는 점에 동감을 표하고 “초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갈수록 참석률이 저조하고 성인위주의 사목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사목자들을 어른들로부터 청소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청소년 중심의 사목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장혁표 교수는 토론을 통해 가정교육과 모범자로서 부모의 삶의 태도가 청소년 인격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국대 이정덕 교수와 자양중학교 김진성 교장은 기성세대인 부모의 가치관 측면에서 자기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자는 등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체육부 청소년국 이상순 전문위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회의 역할과 배려를 요청했다.

302) 앞의 자료, 200-209쪽.

303) 앞의 자료, 205-209쪽.

VIII. 문화·언론·출판 분야

1988년 평협 제30년기에 들어서면서 평협은 공부하는 평신도상 정립을 위해 활발한 출판 사업을 펼친다. 또한 평협이 주도한 신뢰회복 운동과 ‘내 탓이오’ 운동을 알리는 포스터, 스티커, 강론자료 배포와 함께 ‘내 탓이오’ 주제 문예작품 공모 등 홍보 활동도 활발하였다. 평협 20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평협20년사」가 발간되고 제주, 마산, 원주평협의 회보 창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994년 2월에 「한국평협」 속간 31호가 발행된다. 1995년 12월에는 「전주평협 25년사」 발간으로 전주평협 4반세기 활동을 정리하였다.

교육 자료 출판

평협 제30년기에 들어서자마자 평협은 공부하는 평신도상 정립을 위한 첫 번째 자료로서 1987년에 열렸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의 결과를 묶어서 펴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한홍순 해설)을 소책자로 2천 권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비매품으로 각 교구 평협과 본당을 통해 전국에 배포되었다.

평협은 1992년 말에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평신도의 교회생활참여」 보고서(신국판 양장)를 발간하고, 1995년에는 「제1회 아시아 평신도회의 보고서: 평신도 사회교리 실천」을 발간하였다. 이는 한국의 평신도들이 국제적인 시각에서 평신도들의 삶을 조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기에는 2000년 대회년 준비를 위한 교육자료 발간에 역점을 둔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 때 평협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중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과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평신도교령’을 한 데 묶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각 교구와 단체에 보급하여 2000년 대회년을 맞는 지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신뢰회복 및 내 탓이오 운동 홍보물 제작 배포

평협은 1988년 11월에 제21회 평신도 주일을 기해 신뢰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소책자와 스티커를 제작하였다. 소책자에는 취지문과 실천과제, 계

획, 기구 그리고 위원 명단 등이 수록되었다. 또한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와 포스터를 만들어 신뢰 회복 운동 홍보 소책자와 함께 전국의 모든 본당과 단체, 수도회, 기타 1,500여 곳에 발송했다.

그리고 평협은 ‘내 탓이오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내 탓이오’ 로고가 들어간 차량 스티커 30만 장을 제작 배포하였다. 1991년 9월에 ‘내 탓이오’를 주제로 한 문예작품을 공모하기도 하였다. 이는 ‘내 탓이오 운동’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평협 20년사」 발간

평협은 1989년 6월에 「평협 20년사」를 발간했다. 3천 권 한정판으로 발간된 「평협 20년사」는 794쪽 분량에 사진으로 본 20년사와 전국 평협사, 각 교구 평협 및 전국단체 약사, 부록 등을 수록했다. 제1편 전국 평협사는 우선 교회 창설부터 1968년 평협이 발족되기 전의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까지의 평신도사도직 활동모습을 다루었다. 제2편 각 교구 평협 및 전국단체 약사에는 전국 14개 교구의 평협 활동모습과 16개 전국단체의 약사를 실었다. 그리고 부록에는 역대 회장들의 회고담, 전국총회 회칙 변천과정, 초기 ‘평신도사도직의 날’과 1970년 이후의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 신뢰 회복운동 자료 등이 실렸다.

「한국평협」 속간

1994년 2월에 평협 회보인 「한국평협」 통권 31호가 발행되었다.³⁰⁴⁾ 「한국평협」은 1978년에 회보 「평협」의 발간이 중지된 후 16년 만에 “실로 오랜만에 회보 속간 호를 펴낸”³⁰⁵⁾ 것으로 실질적으로 “창간호나 다름이 없었다.”³⁰⁶⁾ 신국판 124쪽의 분량에 이관진 평협 회장의 머리글을 시작으로 주교님의 가르침(평신도 주교위원회 위원장,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94년 사순절 담화문, 교황님과 함께,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성명(비윤리 반생명 비인간적 행위), 전국 평협 소식, 각 교구 평협 소식, 평신도 논단, 문예작품 입선작 등이 실렸다. 여러 교구 평협에서 소식지들의 창간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평협을 아우르는 「한국평협」의 속간에 대해 평협 관계자들은 만시지탄하면서도 매우 다행한 일로 받아들였다. 평협 제30년기 중에 「한국평협」은 통권 34호(1997년 2월)까지 발행되었다.

304) 「한국평협」 속간 호수가 31호로 시작된 이유는 평협 제30년기 1호의 의미로 추측될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305) 이관진, “순간을 잘 사는 신도상,” 「한국평협」 통권 31호, 1994.2, 5쪽.

306) 이관진, “사도직 활동에 유익한 회보되기를,” 「한국평협」 통권 32호, 1995.2, 4쪽.

교구 평협 소식지 창간

평협 제30년기에 들어 교구 평협들의 소식지 창간이 이어졌다. 제주평협은 1989년 1월에 「평협 회보」를 창간하여 평신도의 사명을 일깨우고 본당 간, 교회단체 간 정보교환매체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총 54쪽 크라운판으로 제작된 제주평협의 「평협회보」 창간호는 평신도들의 논고와 삶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교구행사에 관한 화보와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 등 논고, 수필, 시와 같은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교구단체란’, ‘본당 회장란’ 등 고정란을 통해 단체 간, 신자 간의 친교 도모에도 힘을 기울였다.³⁰⁷⁾

1991년 6월 26일에는 대구평협 회지로서 「한티」(월간)가 창간되었다. 회지 명 「한티」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에 있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모인 신자촌 ‘한티’가 1980년대 초 대구대교구에 의해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지로 조성된 데서 비롯한다.

1993년 2월에는 마산평협이 연간 회보 「마산평협」을 창간했다. 마산 교구 내 신자들과 사도직 단체들 간의 교류와 정보교환의 도구가 될 「마산평협」 창간호는 화보,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와 마산평협 지도 김용백 신부의 격려사,³⁰⁸⁾ 논단, 사목교서, 평협 회칙 개정안 등을 실었다.

1994년 5월에는 원주평협에서 회보 「원주평협」을 창간하였다. 「원주평협」 창간호는 발간의 취지를 교구 내 각 본당이나 단체들의 소식을 전하고, 신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수록된 내용에는 각 지구의 행사 및 선교사례, 숨은 봉사자, 모범가정 등이 소개되었다. 원주평협은 「가톨릭신문」을 통해 전국 각 교구의 「원주평협」에 대한 광고 협찬과 기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³⁰⁹⁾

서울평협은 1994년 9월에 신국판 8면 계간 소식지 「평협의 소리」를 창간하였다. 1994년 12월 4일에 발간된 제2호의 내용은 1면에 “본당 사목회 구역중심 소공동체로 활성화”를 머릿기사로 1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평협 3차 연수회 내용을 실었다. 2면의 내용은 한국평협의 제11회 가톨릭대상 시상 소식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2000년 성년(대회년) 교서 발표 준비에 관한 짧은 기사이다. 3~7면은 본당 소식·지구소식 난으로 할애하였으며, 8면에는 한국 평협이 10월 25일에 발표한 “300만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 전문이 실렸다.

307) 「가톨릭신문」 1989.1.22, 11면.

308)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는 회보 창간호에 실린 격려사를 통해 회보의 창간을 축하하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교구민의 정보교류와 화합의 도구가 되어 평신도사도직의 열의를 북돋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산평협 지도 김용백 신부도 회보에 격려사를 실어 “평신도사도직 단체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제(諸)단체 간의 대화의 매개체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톨릭신문」 1993.3.22, 2면)

309) 「가톨릭신문」 1994.7.24, 4면.

종교방송 지방국 설립 관련 결의문 채택

1993년 6월 12~13일 전주교구 나바위 교육관에서 개최된 제2차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종교방송 지방국 설립 허가 방침 수립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가톨릭 평화방송이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1990년 4월 15일 첫 정규방송을 시작했지만 지방국이 없어 종교방송의 한계성이 크다는 인식에서였다. 방송국이 서울에만 있어 지방의 신자들이 종교방송을 시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편성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교 활동의 원활화를 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방송의 지방국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종교방송 지방국 설립 허가 방침 수립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이유였다.

「전주평협 25년사」 발간

전주평협은 1995년 12월 「전주평협 25년사」를 발간하고 1996년 1월 14일 가톨릭센터에서 발간 기념회를 가졌다.³¹⁰⁾ 「전주평협 25년사」에는 역대 교구장과 지도신부 그리고 역대 회장들의 인물 사진에 이어 지난 25년 동안 평협이 걸어온 주요 발자취가 40여 장의 원색 화보로 실렸다. 본론에는 제1장 전주평협 약사, 제2장 전주평협의 활동, 제3장 전주 평협 산하 제 단체 순으로 활동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제4장 ‘그 때 그 시절’에는 역대 지도신부와 회장들의 회고록이 실려 전주평협이 걸어온 역사를 증언으로 남겼다. 그리고 부록으로 전주평협의 연혁 등을 붙였다.

310) 기념회에는 교구장 이병호 주교와 유장훈 지도신부, 전주평협 황의옥 전임회장, 문치삼 신임회장 내정자를 비롯한 교구 내 각 본당 사목회장 과 여러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전주평협 25년사」 발간을 자축했다. (「가톨릭신문」 1996.1.28, 8면)

Ⅸ. 국제관계 분야

평협 제30년기에 대외적 협력관계의 증진은 괄목할 만하다. 이 시기에 평협 국제협력분과를 설치하고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였으며, 아시아주교회의의 평신도위원회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에 이은 제1차 아시아 평신도회의 등 큼직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서울평협과 나가사키평협의 한·일 공동 기념미사와 한·일 화해미사 봉헌, 대구평협 임원들의 대만 타이중교구 방문은 교구 평협의 대외 자매결연을 통한 유대강화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김수환 추기경의 걸프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 호소에 따라 서울평협의 ‘평화를 간구하는 호소’ 발표, 평협의 특별기도 봉헌과 걸프전 종식과 평화를 위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문 제작·배포로 세계평화를 위한 교회의 염원에 적극 동참하였다. 또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 성명서 발표로 국제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에 평협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평협 국제관계분과 설치

1989년 3월 1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평협 제22차 정기총회는 평협의 국제협력분과 설치를 승인하고 위원장에 한홍순 교수를 임명하였다.³¹¹⁾ 국제협력분과의 설치는 일차적으로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고 나아가 아시아주교회의의 평신도위원회와의 관계 발전 등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평협의 국제협력분과의 설치의 효과는 컸다.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준비와 아시아주교회의의 평신도위원회와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를 유치하여 이를 주관하고 더욱이 제1차 아시아 평신도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평협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311) 22차 정기총회에서는 국제협력분과와 함께 교육분과(위원장 최홍준), 출판분과(위원장 허필수) 등도 설치되었다. (『평협30년사』, 219쪽)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주관

평협은 1989년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본(나가사키, 오사카,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에 박정훈 회장과 이관진, 박애주 부회장 그리고 한홍순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을 파견했다. 평협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1992년에 개최될 제3차 회의를 한국에 유치하여 아시아주교회의 연합(FABC)과 공동 주관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³¹²⁾

이 합의에 따라 1992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안양 나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를 주제로 한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가 한국평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교회 여러 주교들,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교회의 평신도 대표와 평신도 담당 주교들,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의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Eduardo Francisco Pironio) 추기경, 그리고 아시아주교회의의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요셉 티캉(Joshep Tikang) 대주교(대만 타이베이 대교구장)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강조되고 있는 지역교회 간의 연대와 친교에 초점을 맞춰 개최된 이 회의 참석자들은 마지막 날 회의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메시지로 발표하였다. 이 메시지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평신도의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사회교리 지식의 결핍과 봉사정신의 부족,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여기는 경향을 예로 들고, 각자가 크리스천 가치관의 증언태도를 견지하여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새로운 복음화’와 사회교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결실을 가져왔다.³¹³⁾ 그 뿐만 아니라 이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한국평협은 1984년에 서울 동북아시아 평신도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여 결정된 후에 회의 개최를 무산시켰던 국제적 과오를 씻는 한편, 아시아 지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제1차 아시아 평신도회의 개최

제1차 아시아 평신도회의가 1994년 9월 4일부터 9일까지 수원교구 아론의 집과 마리아폴리 센터에서 평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2년 만에 참가범위가 더욱 넓어진 제1차 아시아 평신도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높아진 한국교회와 평협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 회의에는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의장 피로니오(Eduardo Francico Pironio) 추기경과 한국천

312) 「평협30년사」, 226쪽.

313) 「평협30년사」, 243-244쪽.

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태일란드 등 14개국 대표단과 FABC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회의 마지막 날 채택된 ‘아시아 평신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제1회 아시아 평신도회의 성명서’에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가정, 직장, 타종교인들과의 대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힌 참가자들은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투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생명권 수호와 환경보호에 힘쓰는 한편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적극 호응해 “차별 당하고 억압받는 이웃을 위해 일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참석자 일동 명의로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를 피로니오 추기경에게 전달했다.³¹⁴⁾

이 대회 이후 개최된 1995년 9월 평협 상임위원회에서 ‘환태평양시대와 한국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한 인천가톨릭대학 학장 최기복 신부의 특강을 통해 “한국교회는 중국 선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불림을 받은 교회”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시아지역 신학교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보기로 하였다.³¹⁵⁾

서울평협과 대구평협의 해외 자매결연

서울평협 대표단은 1990년 5월 일본을 방문, 5월 19일에 나가사키평협과 자매결연식을 갖고 양국 교구간의 친선협정 발효일을 성모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로 합의하였다. 이 협정의 발효일을 맞아 두 나라 평협 대표들은 1991년 8월 15일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한 데 이어 프란치스코회관 성당에서 한·일 화해미사를 봉헌하였다.

또한 대구평협 임원들은 대구대교구가 1987년에 대만 타이중교구와 자매결연을 한 데 따라 1991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만 타이중교구를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 두 교구 평협 임원들은 두 교구가 실시하고 있는 신자교육프로그램, 사회복지 활동, 선교방안 등 전반적인 교회운영 사항들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³¹⁶⁾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 호소

서울평협은 1991년 1월 28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평화를 간구하는 호소’를 발표했다. 이 호소문

314) 「평협30년사」, 245쪽.

315)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59쪽.

316) 「가톨릭신문」 1991.8.25, 11면.

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김수환 추기경이 걸프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한 기도를 호소한 것을 상기시키고,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호소문에서 서울평협은 “우리는 그 어떤 폭력도 억압도 배격하며 수치스런 부도덕이 공동선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사태에도 맞서나가는 것이다.”고 밝혔다.³¹⁷⁾

이에 따라 평협은 보편교회의 평화 호소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2월 23일 서울 명동본당 범우관에서 제24회 정기 총회를 열고 세계평화와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 3월 1일부터 특별 9일기도를 바치기로 의견을 모으고, 걸프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문 10만 부를 상본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³¹⁸⁾

중국 천주교 한국 방문단과의 만남

1995년 9월 26일 중국 천주교 지난(濟南)교구장과 중국 ‘천주교 주교단’ 주석을 겸하고 있는 중국 신학철학대학(中國神哲學院) 원장 종화이더(宗懷德) 주교 등 중국 교회 한국 방문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평협은 이들을 맞아 서울 남산 홍보석에서 오찬을 베풀고 양국 교회 사정과 평신도 활동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³¹⁹⁾

이 자리에 이관진 회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한홍순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선교에 중국인 신부들의 공로가 컸던 양국 교회의 특수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중국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했다. 그리고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한국 평신도사도직 운동과 아시아의 복음화에 관련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였다.

종화이더 원장은 답사를 통해 한국평협의 환대에 감사하며 한국교회를 보고 배우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주문모 신부가 순교한 새남터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절두산을 순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중국 교회는 완전히 파괴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으며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복구하고 부활시켜 나가는 중으로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청하였다.

한국평협의 중국 교회의 고위 성직자와의 공식적인 만남은 중국 교회가 아직 바티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는 시기상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한·중 교회의 역사적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평협 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 선교에 한국 평신도들의 역할이 클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317) 「가톨릭신문」 1991.2.3, 11면.

318) 「평화신문」 1991.3.3, 3면.

319)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60쪽.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 성명서 발표

평협은 대만이 핵폐기물을 북한에 반입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1997년 1월 25일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한의 핵폐기물 저장 기술 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대만의 조치는 후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기 위해 좌시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대만-북한 양측의 핵폐기물 처리 협정을 즉각 파기할 것, △한국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이의 저지를 위해 만반의 대책을 수립할 것,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은 이의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³²⁰⁾

이 성명은 한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의 무관심하게 흘려버릴 수 있는 국제적인 사안을 평협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다. 이로써 평협은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적 안위와 국토의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에도 결코 비켜서 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320) 「한국평협」 통권 34호, 1997.2, 39쪽.

X. 민족화해 분야

평협 제30년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 말 이후의 10년은 동서냉전구조의 해체로 인류사회 전체가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되는 전환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북한 종교정책도 크게 변했다. 1988년 6월에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결성되고,³²¹⁾ 그해 10월에 평양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이 세워져 장충성당 신도 공동체도 생겼으며 남한 종교인들의 북한 종교시설 방문 등도 허용되었다. 이렇게 남북한 교회 간 교류의 물꼬가 트이자 한국교회와 평협의 활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어 한국교회 성직자와 평협 인사의 북한 장충성당 방문, 북한 신자 공식 초청이 시도된다. 평협의 대북한 활동은 교도권 문제로 오히려 후퇴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광복 50주년을 맞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치와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추진으로 평협도 북한 선교와 통일 기도운동 전개, 국수나누기와 통일적금운동 참여 등 민족화해를 위한 실천단계에 진입한다.

서울평협의 북한 신자 초청 노력

한국교회는 시대적 상황과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에 따라 당시 장의 신부가 1987년 6월 바티칸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988년 10월에는 평협 임원들도 함께 평양 장충성당을 방문하여 남북한 교회 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북한 교회 인사를 초청하는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게 된다. 1989년 9월 22일에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제44차 세계성체대회에 북한 평양장충성당 신도회장 박경수 바오로를 비롯한 신자 20명을 공식 초청하기로 하고 정부의 승인까지 받았다.³²²⁾ 그러나 이 초청은 북한에서 응답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서울평협은 1990년부터 북한 교회와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에 참석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장엄미사에서 발표한 평화메시지를 통해 “북한과 중국 대륙에

321) 북한 평양방송은 1988년 7월20일자 보도에서 “조선천주교인협회가 1988년 6월30일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 지난 시기 공화국 북반부의 천주교인들의 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여 천주교인들을 대변하는 데서나 교회의 발전을 이룩하며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일정한 제한성이 있었다. … 선언은 또한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공화국 북반부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애국애족 정신으로 고양하며 사랑과 화해의 이념에 기초하여 교인들 사이에 연합을 도모한다는 것과 전체 인민들과 단결하여 나라의 부강 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천하며 다른 나라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도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자료집』 1945-1991, 416쪽)

322)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자료집』 1945-1991, 524쪽.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리아께 의탁한다.”³²³⁾고 선포하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에 따라 해방 45주년을 맞이하는 1990년 8·15 광복절에 북한 교회 신도들을 서울에 초청하기로 하였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의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에 북한 평양장충성당 신도들 초청이 무산된 데 대한 후속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가 이것이 교도권 차원의 행위라는 이유로 서울평협의 북한 신자 초청을 불허함에 따라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은 앞의 교회내적 관계에서 본 바이다.

서울대교구 민화위 설치와 서울평협 활동

서울대교구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1995년 1월에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를 설치하고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과 이를 통한 사목적 해결 방도를 마련하는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북한 교회에 대한 교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계 차원의 가시적 노력으로서 그에 따라 평협도 북한 선교에 대한 실질적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서울평협은 서울대교구가 추진하고 있는 복음화 운동에 일조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발족한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평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의해 서울평협은 민족화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5년 3월 8일 복음화 및 민족화해 특별위원장에 김형중, 허기 두 사람을 임명하였다.

서울평협은 민족화해특별위원회를 통해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간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을 특위위원으로 위촉하여 평신도들의 생활 속에서 복음화와 민족화해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해 나가기 시작하였다.³²⁴⁾ 그리고 서울평협 대표들이 나서 제3국에서 평양 장충성당 신자 대표와 직접 접촉에 나서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1995년에 북한이 대규모 홍수 피해로 긴급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자 서울평협은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국수나누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북한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 전개

평협은 북한에 대한 교회 안팎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1995년 2월 25일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개최한 1995년도 정기총회의 결의로서 분단 50주년을 맞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³²⁵⁾ 이때의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두 개의 북한 관련 항목

323) 위의 책, 525쪽.

324) 「가톨릭신문」 1996.3.24, 19면.

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는 제7항 북한선교이고, 다른 하나는 제9항 광복 50주년(희년)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의 전개였다.

제7항의 세부 내용으로 평협은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와 지원방법을 모색하여 침묵의 북한 지역에 복음전파가 이뤄지도록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제9항에서 평협은 광복 50주년 통일기도운동 전개로 남북교류와 협력의 희망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평협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한국교회 고위 성직자의 방북 희망을 적극 지원하며, 신자들의 통일 희망을 구체화하는 행사로서 광복 50주년 남북통일염원 기도의 날 행사 개최 문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³²⁶⁾

이와 같이 평협의 북한 선교에 관한 결정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평협의 민족화해를 향한 실천적 노력도 점차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후 평협의 활동은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민족화해·일치와 북한선교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나갔다.

1995년 7월 8일부터 이틀간 수원 아론의 집에서 개최된 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의 실적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여기에서 북한선교위원회와 레지오 마리에 등은 이미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고에 의하면, 미사나 각종 회합을 가질 때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주송자가 말한 다음 ‘일치의 모후여, 우리의 통일을 위해 빌어주소서’라는 기도와 영광송을 바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평협 차원에서도 1995년 8·15 이전에 통일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를 회장단에 위임했다.³²⁷⁾

이에 따라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분단 50년에 즈음한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³²⁸⁾ 호소문에서 평협은 주변 열강국들을 향해 “우리 민족의 통일에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능동적 주체로서 통일을 앞당기는 데 투신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개인이나 가정공동체, 본당과 사도직 단체 회합 때마다 주모경을 한 번씩 바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수원평협은 1995년 6월 25일 천진암에서 민족통일을 위한 2000년 대희년 준비대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1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는 통일성금저축운동을 각 세대별로 벌여 나가기로 하고 즉시 모금운동에 돌입하였다.³²⁹⁾ 그리고 통일성금저축운동 실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신자

325) 「가톨릭신문」 1995.3.5, 2면.

326) 「평협30년사」, 237쪽.

327) 「평협30년사」, 238쪽.

328)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 2, 59쪽.

329) 이 자리에는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병렬 서울시장이 참석하였고 김남수 주교는 각 본당 총회장들에게 농협 통일성금 저축통장을 일일이 나누어주었다.

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0월 3일 교구청 3층 대강당에서 ‘북방선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각 본당 총회장단과 교구 단체장, 평협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귀순자인 여만철 선생의 ‘북한의 상황과 종교현황’에 관한 강의 후에 ‘통일저축운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그룹토의를 하였다.³³⁰⁾ 세미나 후에 참석자들은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 신자가 전개할 것, △통일성금 저축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촉진시키며 북방선교에 이바지 할 것 등 3개 항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³³¹⁾ 이어 11월 14일에 수원교구 사제평의회는 수원평협의 건의에 따라 1996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을 ‘민족통일 기원기도의 날’로 정하고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기로 의결하였다.³³²⁾

남북한 교회 관계자의 만남

1995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뉴욕에서 남북한 천주교 관계자 사이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미주동포 사제 및 신자들의 주선으로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세미나’로 성사된 것이다. 참가자는 남쪽에서 최창무 주교 등 7명, 북쪽에서 차성근(평양 장충성당 회장) 등 5명, 해외동포 신자 5명이었다. 이 가운데 류덕희 평협 회장과 이윤자 위원, 조광 교수 등이 남쪽의 평신도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대주제로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천주교인들의 역할’과 ‘남·북·해외 천주교인의 연대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 대표 2명이 발표하고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민족공동으로 노력하며 천주교인들이 자주 만나 연대를 굳게 하자.”는 결의를 다졌다.³³³⁾ 이 모임은 남북한의 사제와 신자들이 분단 후 단순히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토론의 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계적 차원에서 남과 북을 잇는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평협 대표자들과 북한 신자들과의 만남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88년 10월 북한 장충성당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접촉했을 때이다. 그리고 뉴욕에서 남북한 교회 관계자의 만남은 두 번째이다. 이 두 번의 남북한 교회 인사들의 만남에 예외 없이 평협 대표가 참석하였다. 그것이 비록 평협의 독자적인 행보는 아니었지만 한국교회의 민족화해를 위한 노력에 평협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330)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63쪽.

331) 「가톨릭신문」 1995.10.15, 2면.

332) 「한국평협」 통권 33호, 1996.2, 64쪽.

333) 이윤자, “남북해외 천주교인 세미나 참가기” 「통일한국」, 1996년 3월호, 66-68쪽.

민족화해를 위한 실천적 노력 전개

평협은 그 동안의 노력을 결집하여 이후 정기총회의 활동지표로 민족화해문제를 공식 포함시키게 된다. 즉 1996년도 정기총회는 평협의 중점사업 제4항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4월20~21일 마산교구 창원교육관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는 평협의 중점과제 제3항을 “통일에 대비한 선교에 힘쓰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평협 제30년기를 마감하는 1997년도 정기총회 역시 활동지표로서 “민족화해를 위한 노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실천하며 나눔, 잔치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과 통일적금운동을 전개하고 국수나누기 같은 운동을 전개한다.”는 결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1997년 정기총회는 민족화해를 위한 평협의 노력이 이미 실천단계에 진입해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수원교구는 이미 통일적금을 적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했고, 서울대교구는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족화해학교, 국수나누기운동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³³⁴⁾ 그리고 미주지역 교포사목을 맡고 있는 박창득 신부는 북한 국수공장 건설과 가동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족화해운동의 실천적 사례는 평협과 전국 각 교구 평협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민족화해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었다.

특히, 평협은 교회 내 평화교육 즉 민족화해 교육을 위한 노력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평협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그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각 사도직단체 임원을 비롯한 평협 임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민족화해학교 개설 시에는 평협 회장이 부교장으로 위촉되었으며, 평협이 민족화해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평협은 교회가 교계제도 상의 민족화해적인 접근노력을 기울이게 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과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북한선교와 민족화해·일치를 위한 재정지원

평협은 1990년대 초부터 주교회의의 북한선교위원회(북선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북한 선교 사업에 간접적인 노력을 해왔다. 1992년과 1993년에 북선위의 복음전파와 통일 사목 추진을 뒷받침하는 뜻에서 200만 원씩을 지원했으며, 1994년과 1995년에도 각각 300만 원씩을 지원하였다.³³⁵⁾

1997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평협은 총회 결의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50만

334) 「평협30년사」, 259쪽.

335) 「평협30년사」, 243쪽.

원을 지출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나눔 잔치 등을 위해 3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다.³³⁶⁾ 특히 남기중, 김경환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6개 종단이 함께 하는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북한 돕기 국수·밀가루·감자·옥수수 보내기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한 일이나, 남북 분단 이후 두 번째로 북한 종교인 대표와의 회담을 북경에서 가진 일 등도 통일 사목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³³⁷⁾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말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북한 종교 관계자들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평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뒷받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전개

평협은 1997년 4월 19~20일 전주교구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 직전에 처해있는 북한 동포들을 동포애와 민족애 차원에서 도울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 14개 교구 평협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상임위에서는 “같은 형제로서 아사상태에 직면한 북한동포를 돕지 않는 것은 민족적, 신앙적인 양심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평협을 중심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북한동포돕기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각 교구 평협은 교구장 및 지도신부와 상의하여 ‘금요일 날 한 끼 굶기’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가두 캠페인’ 등 각 교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복벽 형제 돕기 운동을 교구별로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했다.³³⁸⁾ 그에 따라 교구 평협들은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금요일 날 한 끼 굶기’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가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가운데서 안동평협의 각 본당이 선두에 나선 북한동포돕기 운동은 돋보였다.

안동평협은 1997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송관광농원에서 각 본당 사목회 회장단, 교구단체 회장단, 평협 임원을 대상으로 하계 연수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동평협은 복벽동포의 대량 아사를 막기 위해서는 식량지원과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각 본당이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일회적 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처럼 각 본당별로 다양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눔 운동을 실시하기로 한 안동평협은 매주 금요일을 금식일로 정해 한 끼를 북한동포돕기로 하는 한편 주부들에게는 식사준비 시에 절약을, 청소년들에게는 용돈절약을 호소하는 등 모든 교구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동포 돕기에 나서도록 호소하였다.³³⁹⁾

336)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업계획서(1998~2008)」, 8쪽.

337) 위의 책, 12쪽.

338) 「가톨릭신문」 1997.4.27, 19면.

339) 「가톨릭신문」 1997.7.27, 19면.



White Paper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평협 제40년기 (1998~2007)

- I. 교회내적 관계
- II. 선교분야
- III. 가정 · 생명 · 환경 분야
- IV. 정치 분야
- V. 경제 · 사회 분야
- VI. 사회복지 분야
- VII. 교육 분야
- VIII. 문화 · 언론 · 출판 분야
- IX. 국제관계 분야
- X. 민족화해 분야

40th
CLAK

I. 교회내적 관계

평협 제40년기가 시작되는 1990년대 말 2000년 대희년과 새 천년기를 앞두고 대전, 대구, 제주 평협 순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마산평협은 조직 강화를 위한 개편에 착수하였다.³⁴⁰⁾ 대전평협은 지구 단위 평협 발족으로 조직 범위를 넓힌 반면, 대구평협은 단체협의체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제주 평협은 조직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평협도 조직개편을 위한 비전회의 개최에 이어 회칙을 개정했으나 조직상의 특징적 변화는 없었다. 평협 조직의 개편을 주도한 결정적 의지 (initiative)는 교구마다 달랐다. 대전평협은 자체 필요에 따라 자율적 결정에 의해 조직의 외연을 확대한 데 비해 대구평협의 개편은 교구 시노드를 거친 총괄적 조직개편에 따라 타율적,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한편, 제주평협은 교구의 특수성에 따른 활동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능동적 결정으로 조직통합을 하였다. 서울평협은 합의적 의견도출을 시도한 경우이다. 마산평협을 포함한 이들 교구의 조직 개편은 향후 평협 조직의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어떤 모델로 평협 조직이 개편되느냐는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를 결정하는 변수로서 평협의 활동 방향은 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평협의 자율적 외연확장

대전평협은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1999년 4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당진 솔피 피정의 집에서 열린 정기총회의 결정으로 지구 평협을 발족시켰다. 그 동안 평신도 활동의 외연 확대를 위하여 지구 단위 평협 조직의 필요성이 컸던 교구내 홍성·서산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 평협을 발족하고 회장단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지구 평협은 교구 평협과 별도로 선교운동, 지구 체육대회와 연도대회 등 지구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각 지구별로 차별화 된 다양한 평신도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다.³⁴¹⁾

340) 마산평협의 조직 강화 개편은 2009년에 완료되어 본 백서에는 논의되지 않았다.

341) 「가톨릭신문」 1999.4.5, 3면.

대구평협의 타율적 조직 개편

대구대교구는 1999년 8월 31일 교구 시노드를 마치면서 ‘사목평의회’(사목회)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평단협), ‘재무평의회’ 등을 골자로 하는 본당 기구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다.³⁴²⁾ 대구대교구는 교구 시노드의 안건을 수렴하여 교구장과 본당신부-사목협의회-구역·반 소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사목 라인과 별도로 평신도사도직 단체들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³⁴³⁾

이 개편안은 각 본당에 본당신부의 공식 자문기구인 ‘사목평의회’(의장: 본당신부, 부의장: 본당 총회장)를 두고 그 산하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구역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와 ‘청소년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제반 위원회와 함께 별도의 ‘재무평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지구단위의 주교대리구별로 ‘대리구 사목평의회’가 조직되어 대리구 내 본당 총회장들의 대표가 대리구 부의장이 되고 대리구 부의장 중의 한 사람이 교구장이 의장인 ‘교구 사목평의회’의 부의장을 맡게 하였다.³⁴⁴⁾

이 조직 개편에서 특히 관심을 끈 변화는 종전의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신 본당 사도직단체들과 학생회, 기타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본당 평협을 한 축으로 하고 교구가 인준한 평신도사도직 신심 단체와 직장, 직능, 동호회 등 단체들의 대표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구성되는 ‘사도직단체협의회’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평협 개편의 논리는 본당과 교구의 모든 구성원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본당신부와 교구장이므로 일반 평신도의 대표자도 당연히 본당신부와 교구장이라는 교회법과 교회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이 대구대교구의 본당과 교구의 ‘사목평의회’이다. 교구장인 이문희 대주교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본당 사목평의회를 구성하다보니 평협과 사도직협의회를 구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소공동체를 도입하여 본당이 소공동체 활동을 하니까 ‘소공동체들의 공동체가 본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평협은 어디에 자리하느냐?’하는 문제가 생겼다. 더욱이 평협 회장은 소공동체의 다른 신자와 구별될 수 없게 되어 평협은 평신도사도직 단체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독립해야 하고, 본당의 신자로서 본당신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본당의 사목평의회와 그 외의 본당 기구들인 것이다. 따라서 본당 평협이 설 자리가 없어졌고 본당은 사도직 단체협의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법 정신대로 가야 한다.”³⁴⁵⁾

이런 교구장의 방침에 따라 대구대교구에서 일반 평신도의 대표성이 없는 본당 평협은 ‘본당 사목평의회’의 하부 조직의 하나로 바뀌게 되었다. 본당 평협 대표들은 본당이 속한 대리구 평협 안에

342) 「가톨릭신문」 1999.9.12, 2면.

343) 이문희 대주교, 앞의 글.

344) 위의 주와 같음.

345) 위의 주와 같음.

서 연합하고 교구 인준 평신도 단체 대표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교구 평단협은 이들 본당, 대리구 평협과 교구 인준 단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로서 ‘교구사목평의회’의 하부 조직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구대교구의 조직개편은 사목 현장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그 중심은 대구평협이었다. 그 동안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여겨져 왔고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아왔던 평협을 평신도사도직 단체들만의 협의체로 하향화시킨 조직 개편에 대한 논란과 혼선은 컸다.

그러자 대구대교구는 2000년 11월 4일과 7일 교구 사목평의회와 사제총회를 잇따라 열어 교구 시노드 결정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본당 공동체 활성화와 쇄신을 위한 본당기구 등의 개편에 박차를 가하였다.³⁴⁶⁾ 그에 따라 대구평협의 공식 명칭은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약칭: ‘평단협’)로 확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주평협의 능동적 조직통합 개편

제주교구는 그 동안 본당 신부의 사목활동을 보좌하는 자문기구인 사목협의회와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협의체인 평협을 각각 별도로 두는 2원체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주교구처럼 본당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러한 2원체제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에 따라 제주평협은 1999년 10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 이시돌회관에서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세미나’와 총회를 열어 본당 평신도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³⁴⁷⁾ 제주평협은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총회에서 각 본당의 사목협의회(사목회)와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를 ‘사목평의회’(사목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새로운 사목회 회칙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사목협의 회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새 회칙은 다른 교구 평협에서 볼 수 없는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신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출한 평신도 대표를 본당 신부가 사목회장으로 임명하는 민주적 방식의 도입이었다. 본당 평신도 대표는 어디까지나 본당신부이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사목회장을 본당신부의 ‘대리인’으로 임명해왔던 관례를 깨고 본당신부의 평신도 대표성에 평신도의 공동참여를 회칙에 명문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교구에서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본당 사목회장들이 평협을 구성함으로써 평협은 명실상부하게 평신도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통합 개편으로 제주평협은 독특한 조직형태를 갖게 되었다. 즉, 조직통합 개편에 따

346) 「가톨릭신문」 2000.11.1, 2면.

347) 「가톨릭신문」 1999.11.7, 2면.

라 각 본당은 일원화된 ‘사목평의회’(사목회) 산하에 평신도단체협의회(평단협), 소공동체협의회, 제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제주평협은 제주교구의 이러한 조직구조를 가진 25개 본당 사목회와 25개 평신도단체(평단협)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평협의 비전회의와 회칙개정

서울평협은 2004년 3월 4일 회장단을 중심으로 비전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팀(팀장 최홍준 사무총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2004년 3월 11일 제1차 평협 비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향후 평협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먼저 평협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2004년 4월 3일 비전 회의 제1차 워크숍을 열어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을 모색하였다.³⁴⁸⁾ 이후 4월 17일~18일, 4월 23일, 5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총대리 염수정 주교, 담당사제 정월기 신부, 손병두 회장 등 회장단과 연구 발표자를 포함한 15~6명이 참석하여 평협이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이 회의에서 평협의 구조문제, 서울대교구 시노드(1999~2003) 후속 교구장 교서의 정신 구현, 평신도사도직 수행 방법과 장소, 사도직 단체 활동의 기준, 가톨릭 운동의 사례, 신자 단체에 관해 발표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비전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서울평협 회칙에 반영하기로 하고 서울평협의 구조와 목적, 사업 등에 관한 토론을 거쳐 회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회칙개정안은 2004년 5월 18일 서울평협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9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통과되어 6월 23일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서울평협의 새로운 회칙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서울평협 회칙은 2007년과 2008년 정기총회에서 두 번에 걸쳐 다시 개정되었지만 그 기본적인 골간은 2004년에 개정된 회칙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활동 개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평사위)가 1994년 3월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된 이후 10년만인 2004년 5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9차례의 준비 회의를 가졌다. 이 준비 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에 따라 평사위 조직과 운영 내용을 담은 평사위의 회칙이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348) 「평화신문」 2004.4.11

내용은 주교회회의에 보고되고 2005년 3월에 평사위는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위원장은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 총무는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민병덕 신부가 맡았다. 그리고 염 주교에 의해 위촉된 평사위 위원은 신부 2명(김영수 신부, 이준성 신부), 수녀 2명(김영희 수녀, 최혜영 수녀), 평신도 8명(김왕기, 오덕주, 이관진, 이윤자, 이종우, 최옥식, 최홍준, 한홍순)이다.

이와 같이 평사위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하여 주교회회의와 평협을 비롯한 평신도사도직 활동 단체들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평신도 활동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할하게 된다. 따라서 평사위는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은 기구로서 평협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II. 선교 분야

평협 제40년기가 시작되는 1998년은 한국경제가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할 만큼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기였지만 보편교회 차원에서는 2000년 대희년(the Year 2000 Jubilee)과 함께 제3천년기(the Third Millennium)맞이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때였다. 1999년 예수성탄 대축일 전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聖門) 개방으로 시작된 2000년 대희년 선포와 보편교회의 지향에 맞추어 평협은 제40년기를 새로운 선교시대를 열어나가는 복음화운동에 매진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간다.

대희년 준비와 진행

평협은 1998년 3월 31일에 2000년 대희년 준비를 위해 ‘사회교리실천본부’(본부장 강주희)와 ‘대희년준비위원회’(위원장 최홍준)를 신설하고, 두 기구를 통해 미진했던 사회교리 실천과 대희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신설된 사회교리실천본부와 대희년준비위원회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희년의 정신을 삶을 통해 사회 속에 전파하는 동시에 생활 속에서 실천토록 하는 핵심기구로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 류덕희 평협 회장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참가하는 상설 회의체를 구성, 수시로 당면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할 생각”임을 강조했다.³⁴⁹⁾

이와 함께 평협은 평신도들이 2000년 대희년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회교리 월별 실천덕목을 제정하여 「평화신문」에 매월 게재하는 방식으로 홍보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⁵⁰⁾

- 4월 :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합시다.
- 5월 : 평화의 가정을 이룩합시다.
- 6월 : 나라사랑과 민족화해에 힘을 모읍시다.
- 7월 : 내가 먼저 참된 이웃이 되어 줍시다.
- 8월 : 자연사랑, 하느님 사랑
- 9월 : 증거하는 삶으로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349) 「가톨릭신문」 1998.4.12, 3면.

350) 「평화신문」 1999.5.23, 1면.

- 10월 : 섬기고 사귀며 나눔으로써 사랑을 완성합시다.
 11월 : 성인들의 통공 - 거룩한 여행을 계속합시다.
 12월 : 매일의 노력을 그분께 바쳐 드리며 대희년을 맞이합시다.

평협은 1999년 4월 18~19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대구대교구 관할 경북 왜관 연화리 피정의집에서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의 묵주기도 1억단 바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성모성월 시작인 5월 4일부터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의 묵주기도 1억단 바치기 운동을 개시하고, 1억단 봉헌카드 30만 부를 제작하여 각 교구 평협에 배부하였다. 이 운동은 2000년 6월 25일 묵주기도 3억단 바치기 운동으로 바꾸어 2001년 1월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새로운 선교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평협은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1999년 8월 21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선교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21세기의 선교 방향에 대해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제는 단지 신자수를 늘리는 수량적 선교를 지양하고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이 구체적인 삶 안에서 복음을 실천으로 증거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풍요로워지는 질적인 선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또 본당에서의 선교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 대비한 선교와 해외선교, 농촌·환경 나아가 통일선교를 포함하는 선교영역의 확대와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 등 21세기에 요청되는 다양한 선교방향과 방법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³⁵¹⁾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

2000년 대희년과 새 천년기를 앞둔 1999년 10월 21일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에서 ‘서로 사랑하여라-사귄다·섬김·나눔’을 주제로 한 대희년맞이 평신도 대회가 평협의 주최와 서울평협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 15개 교구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3천 5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즉 사회교리 실천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평신도 선언문 발표, 1999년 5월 4일부터 시작된 묵주기도 1억단 봉헌(중간집계), 도·농 결연 본당 봉헌, 가톨릭대상 시상, 성체 거동(행렬)에 이어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와 참가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장엄미사 순서로

351) 「평화신문」 1999.8.29, 10면.

진행되었다. 미사 중에 교황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낭독되었다. 행사앞에 있었던 제16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에서 KBS 사랑의 리퀘스트팀과 박정수에게 사랑부문 대상이 수여되고 인천 가톨릭 환경연대에는 정의부문 대상이 주어졌다.

교구 평협의 대회년 행사

한국교회가 정한 2000년 ‘평신도들의 대회년’을 맞아 2000년 10월 26일 전국평신도대회를 전후 하여 교구별 대회년 행사가 열렸다. 춘천교구는 6월 25일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를 하였고, 대구대교구는 7월 25~27일 이틀간 ‘전국 청소년 축제’를 열었으며, 안동교구는 9월 24일에 ‘전국 생명 환경 신앙대회’를, 청주교구는 10월 14~15일 양일에 ‘전국 가정대회’를 개최하였다. 교구별 행사는 교구 평협이 주최 또는 주관하였다. 이밖에 광주대교구는 대회년 잔치를 벌였고, 수원교구는 ‘평신도들의 대회년 신앙대회’를 열었다.

광주대교구 순천지역 평협은 2000년 6월 25일 순천 팔마 실내체육관에서 대회년 잔치를 벌였다.³⁵²⁾ 제1부 2000년 대회년 경축 합동미사는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의 주례로 순천 지역 사제단 20여명과 신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되었고, 미사 중 참석자들은 ‘나부터 새롭게’, ‘참된 가정 이루기’, ‘좋은 이웃 되어 주기’, ‘함께 가요, 우리’ 등 대회년 ‘새 날 새 삶’ 운동의 4대 실천방안을 삶 속에서 구현할 것을 다짐하여 대회년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제2부 기념식에서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와 고아들의 복지시설인 ‘성신원’에 신자들이 봉헌한 성금을 전달하여 대회년의 기쁨을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었다. 제3부 한마음대회에서는 성 가롤로병원 수도자들로 구성된 7인조 사물놀이 팀의 공연과 성신원생들의 록 댄스 공연, 13개 본당 신자들의 민요·에어로빅·품바타령 등 솜씨자랑이 펼쳐졌다. 이어 순천지역 연합성가대 130여 명이 ‘은총의 대회년’을 장엄하게 노래함으로써 대회년을 맞은 기쁨과 인류의 미래를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수원평협은 2000년 10월 22일에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평신도들의 대회년 신앙대회’를 개최하였다. 수원교구 대회년위원회 주관으로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신앙대회는 제1부 식전행사, 제2부 기념식, 제3부 대회년 미사로 진행되었다.

제1부 식전행사로는 청년사도직 단체의 농악한마당과 가장행렬에 이어 여성연합회의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제2부에서는 선교체험 발표와 대화합의 한마당이 열렸다. 마지막 제3부는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 집전으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다.

352) 「가톨릭신문」 2000.7.9, 4면.

평신도들의 대회년 전국 평신도대회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대회년 전국 행사가 각 교구 평협 주관 또는 주최로 2000년 10월 26일부터 ‘새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그리스도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³⁵³⁾를 주제로 전국 평신도들의 참여로 열렸다. 이 대회의 모든 행사는 한국교회의 4백만 평신도들이 ‘새 천년기 새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설 것을 선언하는 선교 대회의 성격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이는 교회의 근본 사명인 선교를 활성화 하고 “만민 복음화”를 강조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한국교회의 신자 수를 인구 대비 18%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 교구장들의 사목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뒷받침하려는 뜻도 있다.³⁵⁴⁾

대회일정은 2000년 10월 26일에 각 교구 평협별로 주교좌 성당에서 ‘평신도들의 대회년’을 경축하는 개막미사 봉헌으로 시작되었다.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림동성당 순교자현양회 기념관에서 ‘올해의 평신도’로 정해진 ‘정하상 바오로 성인 심포지엄’이 열렸다. 최홍준 평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정하상 성인의 생애와 활동’(서종태, 한국교회사 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정하상 성인의 신앙과 사상’(한건 신부,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발표와 원재연(규장각연구원), 차기진(양업교회사연구소장) 두 학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10월 28일 오후에는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교회 운동·단체들의 선교대회가 열렸다. 이는 교회 운동·단체들의 친교와 일치를 강조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도움을 주는 비디오 시청과 단체별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2000년 10월 2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평신도 대회이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김옥균 주교를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교황대사 모란디니(Giovanni Battista Morandini) 대주교, 주교회의 의장 박정일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광주대교구 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등 고위 성직자와 전국 15개 교구 평신도 대표단 및 운동·단체 관계자 6천여 명이 참석하였다.³⁵⁵⁾

이날 행사는 기조강연, 선교체험 사례발표, 선교대상 및 가톨릭대상 시상식, 장엄미사의 순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선교를 주제로 한 대회년 행사답게 선교 기조강연, 선교 촌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새 천년기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이 공동으로 복음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장엄미사에서 참석한 평신도들은 ‘새 천년기 한국 평신도의 반성과 다짐’을 봉헌하고 개인 성화, 이웃 봉사, 복음

353)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전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 곧 자유와 해방, 화해와 사랑의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더욱 굳게 믿고 힘차게 선포하는 데 이 주제의 뜻이 있다.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 「평협의 소리」 2000.10.22)

354)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 「평협의 소리」 2000.10.22

355)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영배 민주당 고문,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하여 평신도들의 대회년을 축하했다. (「평화신문」 2000.11.5, 1면)

화를 위한 투신, 해외선교 지원, 인권 존중, 민족의 화해와 일치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³⁵⁶⁾

또 이날 선교대상 시상식에서는 개인부문에 전주교구 윤덕남(세노비아), 마산교구 임길숙(마틸다), 수원교구 이영숙(베로니카), 인천교구 김현식(요셉), 서울대교구 김선옥(젬마) 등 5명이 수상하였고, 본당 우수상은 제주교구 중문본당, 안동교구 풍기본당, 청주교구 미원본당, 부산교구 옥동본당, 대구대교구 지산본당, 원주교구 백운본당, 대전교구 괴정본당 등 7개 본당이 받았다.

그리고 선교체험 발표에는 전국 각 교구에서 추천된 선교활동가 5명이 나서 복음화를 향한 평신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발표자는 광주 세나투스 김영대 단장, 서울 망우동성당 배수한(테레사), 대구 수성동성당 방경홍(가브리엘), 서울 구로본동성당 김남식(안드레아), 수원 정운준(요한), 이은주(이레네), 장기호(루카), 이순자(모니카)로서 이들은 선교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여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새 선교 방법 모색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 각 교구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선교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춘천교구는 ‘천혜의 관광 휴양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앞둔 사목대책을 활발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도시 교구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야외로 빠져 나가는 신자들을 어떤 사목 프로그램으로 붙잡아 둘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는 데 반해 춘천교구는 사목적 차원에서 이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다.

안동평협도 2002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안동 남선면 평화마을에서 마련한 하계연수 및 임시총회에서 춘천교구와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즉,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도시인들이 주말을 이용해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 지역을 즐겨 찾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안동교구 내 본당과 공소를 도시 가정의 휴식 공간으로 개방기로 하였다.³⁵⁷⁾

교구 평협들의 복음화 운동

2000년 대회년 이후 교구 차원에서 청주교구의 ‘50실천운동’과 부산교구, 서울대교구, 마산교구

356) 「가톨릭신문」 2000.11.5, 1면.

357) 안동 평협은 우선 가은·화령·강구·영해·영양·북면 본당과 소속 공소의 가정을 개방, 도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휴가를 즐기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에서 신앙대회가 열렸다. 이것은 이들 교구가 2000년 대회년에 시작된 선교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청주평협은 2001년 6월 10일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을 맞아 교구 선교 1만 명 운동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에서 도보성지순례를 실시했다. 또한 청주교구 설정 50주년(2008년)을 앞두고 청주평협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를 주제로 선교에 온힘을 기울였다. 각 본당 평협 임원진에 대한 선교 교육을 실시하고,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실천방안과 시노드 ‘토론마당’ 운영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2008년까지 추진 중인 ‘50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쉬는 신자를 50%로 줄이고 새 세례자 수를 50% 끌어올리는 데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교구는 2003년 9월 28일 울산 평협 주최로 울산 동천실내체육관에서 신자 7,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교자 현양 울산지역 신앙대회를 개최했다.³⁵⁸⁾ 이날 신앙대회는 울산 신자들이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건설을 다짐하는 행사로 교구장 정명조 주교 주례의 미사에 이어 생활성가 가수와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교구는 2003년 10월 19일 선교신앙대회를 동성고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교회 근본 사명인 선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여규태 평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회를 선교신앙대회로 치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신앙으로 재무장할 때 비로소 힘차게 선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선교란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모두가 실천해야 할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월기 신부는 ‘선교의 장애와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선교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신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으며, 차동엽 신부는 ‘21세기 복음화 사명’ 특강에서 선교에도 마케팅 개념과 기법을 도입해야 하며 복음에 충실한 선교와 함께 신자들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³⁵⁹⁾ 각종 영상물 상영과 체험담 발표, 강의, 노래와 연극이 적절히 어우러진 이날 대회는 그 어느 행사보다도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평화방송TV가 제작한 ‘영상으로 보는 한국천주교회 선교 역사’와 ‘영상으로 보는 다양한 선교 사례’는 참가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2004년 11월 6일에는 마산평협이 마산 공설운동장 올림픽생활관에서 제1회 마산평신도사도직협의회 신앙대회를 열었다. 이 신앙대회는 2006년 교구 설정 40주년을 앞두고 그 기념사업으로 펼쳐지는 ‘신자배가’를 위한 선교전진대회였다. 마산평협의 ‘신자배가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With Jesus Christ)를 표어로 ‘3년 안에 교세를 2배로, 주일미사 참례자를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운동은 표어와 목표를 영문 약자로 표기한 ‘WJC-32X 운동’이라고도 한다. 마산교구 전체 본당 평협 위원, 단체 회장단, 레지오 마리에 평의회 단장 등 4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참

358) 「가톨릭신문」 2003.10.5, 2면.

359) 「평화신문」 2003.10.26, 7면.

가자들은 평신도들의 일치와 화합을 다짐하는 가운데 ‘신자배가운동’(WJC-32X)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과 △‘성서 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복음화율을 10%까지 높이기 위한 ‘새 신자 찾기 운동’에 먼저 나서며, △‘쉬는 교우 찾기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³⁶⁰⁾

‘복음화 2020운동’ 선교포럼

선교포럼은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2004년 교구 사목교서를 통해 전 교구민에게 2020년 인구대비 신자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복음화 2020운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서울평협은 2006년 4월부터 정기 강좌의 성격을 띤 선교포럼을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포럼도 개최했다. 선교포럼은 2008년까지 매년 수차례 개최되었으며, 2007년에는 선교대회를 개최, ‘복음화 2020운동’ 달성을 통해 선교 임무를 채신할 것도 다짐했다.

2006년 4월 8일에 열린 제1회 선교포럼에서 서울대교구 본당 선교 관계자들은 신앙에 뿌리를 둔 희생과 봉사, 남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인 동시에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다종교사회에서 가톨릭이 한국인의 종교로 인식되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모범적 신앙생활, △지역주민과 연대활동 강화, △전통양식의 성당 건축 등을 제안하는 한편 2006년의 선교 과제로 △평신도 각자의 선교 열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선교전략, △영세자 사후 관리, △신자 재교육, △사회 변화에 적극 대처 등을 꼽았다.

2006년 5월 20일에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우리는 본당의 아름다운 선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제2회 선교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강의가 끝난 후 9개조로 나뉘 본당 및 개인 차원에서의 선교사 역할을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³⁶¹⁾

또한 2006년 12월 1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를 주제로 개최된 젊은이 포럼에서 조규만 청소년담당 교구장 대리 주교는 ‘청년 복음화와 가톨릭 젊은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지닌 문제점으로 △개인주의 경향, △부모의 과잉보호, △치열한 경쟁과 세계화 시대, △상실된 전인교육, △이기주의적 인간관계 등을 꼽았다.

2007년에는 ‘교회 안의 선교 활성화’,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 2008년에는 ‘행복한 선교 리더십’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들 주제에서는 주로 새로운 선교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선교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특징이었다.

360) 「평화신문」 2004.11.14, 2면.

361) 「평화신문」 2006.5.26, 7면.

마산평협의 교구 ‘비전-1030운동’ 전인

마산평협은 2007년 1월 20~21일에 경남 부곡 일성콘도에서 2007년 교구장 사목지침 연수 및 정기총회를 갖고 교구 발전 중장기 계획인 ‘비전-1030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비전-1030운동’은 마산교구가 2010년까지 신자율 10%, 주일미사 참례율 30%를 달성하자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마산평협은 ‘비전-1030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에 착수하는 한편, 실천방안으로 △범교구적 신자의식 전환 캠페인 전개, △사회적 눈높이를 고려한 예비신자 교리반 운영, △주일미사 참례율을 높이기 위한 전례 및 쉬는 교우 방지대책 연구, △교회 이미지 쇄신 및 관리 시스템 개선, △교회의 사회참여 확대를 결의했다.

그리고 2008년 11월 8일에는 경남 마산시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마산교구 평신도대회를 열고 ‘비전-1030복음화 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다. 평협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고 평신도 소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열린 이 대회는 “축제·비전·사명” 세 가지를 주제로 하여 창원대 피닉스와 가톨릭문화선교단 ‘선교세상’의 ‘비전1030 콘서트’로 막을 올렸다.

대회 참석자들은 ‘평신도사도직 운동 실천다짐’을 통해 △평신도 소명의식으로 다시 태어난다. △교회발전에 봉사와 증거의 삶으로 적극 참여한다. △복음화율 10%와 주일미사 참례율 30%를 목표로 하는 ‘비전-1030복음화 운동’ 실천으로 교구 복음화에 앞장선다. △‘새로운 시작’으로 성경 읽고 쓰기 운동에 온전히 참여한다. △생활기도와 가정기도를 실천한다. △청소년복음화에 관심과 사랑으로 동참한다. △사제단과 협력함으로써 가톨릭교회 참모습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2007 선교대회 개최

평협은 2007년 10월 14일 서울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복음화 2020운동’ 달성을 위해 선교 임무를 쇄신할 것을 다짐하는 2007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를 주제로 한 이날 대회에는 손병두 평협 회장을 비롯하여 정기수(광주평협)·김승선(춘천평협)·김윤성(대전평협)·최종우(인천평협)·윤봉옥(원주평협)·서동호(전주평협)·송상순(제주평협)·박용기(마산평협) 회장 등 전국 교구 평협 회장단과 서울대교구 본당 선교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장관 이반 디아스(Ivan Dias) 추기경은 이 대회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한국교회가 복음화 사업에 더욱 매진하려 개최한 선교대회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교회가 평신도에 의해 출발했다는 데 긍지를 갖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

여줄 것”을 권고했다.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Emil Paul Tscherrig) 대주교는 기조 강연에서 “평신도의 특별한 선교 사명은 세속적 일에 관여하면서도 이를 하느님 뜻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별히 쉬는 신자와 청소년 복음화에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지난 10년 사이에 가톨릭 신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선교에 헌신해온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 2020년에는 가톨릭 신자가 10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평협은 이날 채택한 ‘한국 평신도들의 다짐’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인구의 20%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복음화 2020운동’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 깊이 뿌리내린 반생명적 죄의 구조를 타파하는 한편 온 겨레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백성들을 위한 선교 활동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적극 참여하며, 특히 북녘 동포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기로 결의하고 북녘 동포들이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주실 것을 하느님께 간청했다.

Ⅲ. 가정·생명·환경 분야

2000년 3월 주교회의의 ‘모자보건법 폐지 백만인 서명운동’에서 시작된 주교회의의 생명31운동과 2004년 3월 평신도 가정과 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아가운동’)가 평협 제40년기 가정·생명·환경 분야 활동의 핵심이다. 2005년 12월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법 통과에 따른 국회의원 등에 생명관심 촉구 서한 발송과 서울평협의 가정포럼과 세미나 개최, 2007년 평협의 평신도학교 생명·환경과정 개설 활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청주평협의 가정·생명운동

평협은 주교회의와 함께 1973년에 정부의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꾸준히 생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것은 모자보건법 제14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생명 문화의 심각한 현상인 낙태를 조장하는 반인륜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평협의 가정·생명운동은 전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구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평협 40년기 중인 2000년대에 생명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 가운데서 청주평협의 노력은 단연 돋보였다. 2000년 3월 주교회의의 ‘모자보건법 폐지 백만인 서명운동’은 청주교구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고, 이후에도 청주평협은 계속하여 생명운동을 펼쳤다. 2002년 5월 ‘제1회 생명의 밤’ 행사와 10월 ‘2002 가정대회’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제1회 생명의 밤’ 행사는 2002년 5월 26일 ‘생명의 날’ 전야제 격으로 2002년 5월 25일 오후 7시부터 청주 무심천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1천 2백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청주교구 보은본당 풍물패와 서울대교구 가정성화찬미팀의 ‘다 함께 생명의 노래를’ 공연으로 제1부 막을 올려 제2부 빛의 예식과 촛불행렬, 제3부 가톨릭 생명지킴이상 시상식과 폐회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2부 빛의 예식과 촛불행렬은 이 행사의 백미였다. 참석자들은 매일 계속되는 5,000여 명의 낙태의 죄를 속죄하고 이 시대 생명문화 건설을 위한 생명지킴이가 될 마음을 다짐하며 각자의 초에 불을 밝히고 한 시간 동안 무심천변 4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걸으며 간절하게 태아들을 위한 묵주의 기도를 바쳤다. 참석자들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생명지킴이로서 생명의 문화 건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자연환경 보존 등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였다.

청주평협이 2002년 10월 12일 오후 7시30분에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내 태아동산에서 펼친 ‘2002 가정대회’는 장엄한 생명운동이었다. 미사와 촛불점화를 시작으로 낙태아를 위한 묵주 기도, 촛불행렬, 가정 성시간, 성령과 함께 하는 가정치유의 밤에 이어 생명수호 운동 관련자 간담

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여규태 회장이 이날 미사에서 발표한 ‘2002 가정대회 선언문’은 △모자보건법 14조 낙태허용 조항의 폐지와 낙태촉진제 약품인 ‘노레보정(錠)’의 판매 금지, △출산·양육·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 △퇴폐 향락문화의 극복, △입시 위주 교육정책 시정과 인성계발 중심의 교육개혁, △남아 선호사상 시정, △노인의 사회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고 가정 성화와 생명·사랑의 문화 증진을 위해 겨자씨와 누룩이 될 것을 다짐했다.

평협의 주교회의 ‘생명31운동’ 적극 참여

주교회의의 ‘생명31운동’ 배경은 국회를 상대로 한 모자보건법 폐지 노력의 좌절이다. 주교회의는 2000년 3월부터 청주교구를 시작으로 전국 평협의 협조로 펼친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만 명의 서명부와 함께 모자보건법 폐지 청원서를 2000년 12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 청원서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토론절차도 없이 청원서 제출 2년이 다되는 2002년 11월 6일자 국회의장 명의로 기각통지문을 주교회의에 보내왔다. 기각 이유는 “여성의 선택권과 어쩔 수 없는 낙태의 필요성으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02년 12월 4일 이 공문을 접수한 주교회의 사무처는 12월 6일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에 이어 12월 9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 이에 대한 논의를 건의하였다. 그에 따라 2002년 12월 18일부터 주교회의 4개 전국위원회(가정사목,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매스컴, 정의평화)와 2개 소위원회(생명윤리연구회, 여성소위원회)가 합동으로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가졌다.

주교회의는 2003년 1월 대책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지난 30년간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해를 알리고 2003년 2월 5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생명 문화와 낙태-모자보건법 제14조에 관한 다각적 검토’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지금까지 해왔던 생명운동의 한계성을 느끼고 생명 문화를 바꾸어 가는 범국민운동의 새로운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러한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 ‘생명31운동’이다.³⁶²⁾

그리하여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지 만30년이 되는 전날인 2003년 2월 7일 명동성당에서 ‘생명 수호 미사’가 봉헌되고 ‘생명31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생명 수호 미사’를 주례한 김수환 추기경은 미사 강론 중에 ‘생명31운동’이 지향하여야 할 내용으로 “전쟁 없는 사회, 낙태 없는 사회, 사형 없는 사회, 생명조작 없는 사회”를 주창했다.

362) 여기서 ‘생명31’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30년간 무수한 어린 생명들이 낙태로 죽어간 과거의 반생명 문화를 종식하고 31년부터는 새로운 생명 문화 운동을 시작하는 해로 삼는다. 둘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운동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로 향하는 운동이다. 셋째, 한 달이 최대 31일이라는 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명운동을 전개한다. (<http://life31.cbck.or.kr>)

‘생명31운동’을 선포한 주교회의는 “생명31운동은 생명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돌아가는 운동”임을 천명하고, “하느님을 떠난 사회는 낙태·생명조작·살인·전쟁 등 죽음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죽음의 문화를 청산하고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켜가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서 생명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생명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주교회의는 신자들을 비롯해 국민 모두와 함께 이 땅의 생명 파수꾼이 되어 생명문화가 뿌리내리고 꽃피우며 열매 맺을 때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개최된 2003년 춘계 주교회의는 주교회의의 가정사목위원회 산하에 ‘생명31운동본부’를 설치하였다. 생명31운동본부는 주교회의가 주도하는 ‘생명31운동’을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구로서 새로운 생명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추진되는 모든 생명운동을 총괄하게 된다.

평협은 주교회의가 생명31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평협 관계자들은 생명31운동본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생명31운동본부 관계자 초청 워크숍을 열어 ‘생명31운동’의 방향과 정책 수립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2008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생명31운동본부는 주교회의의 생명윤리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다가 2009년 3월 19일에는 그 명칭도 주교회의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상관없이 평협은 주교회의의 생명운동에 참여하여 주교회의가 천명한 생명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아가운동’ 전개

평협은 2004년 3월 1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7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약칭 ‘아가운동’)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평신도들이 가정과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적극 나서기로 한다. 이 결의문에서 평신도 대표들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공동체인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도 건전해진다.”고 밝히고, △매일 가정기도 바치기, △매일 가족이 함께 성서 읽고 대화하기, △가정 성화를 위한 교회 사도직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결의했다.³⁶³⁾

한편, 서울평협은 2004년 7월 20일 서울 종로구청 회의실에서 정·관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 조인식을 가졌다. 이 운동은 ‘아가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전통적인 3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화합을 위한 혜택’을 줌으로써 건전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조인식에 이어 관계자들은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 1호 음식점인 종로구 체부동 토속촌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서울평협이 ‘아가운동’ 취지문에서 밝힌 바대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한

363) “아름다운 가정” 『서울평협』 2004 여름호, 75-76쪽.

건강가족운동을 벌여 나가기”³⁶⁴⁾ 위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평협은 ‘아가운동’의 확산을 위해 2004년 7월 21일 서울대교구청 앞마당에서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와 손병두 평협 회장 차량에 ‘아가운동’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를 가진 데 이어 7월 23일 스티커 30만 장을 전국 교구 평협 사무실과 서울대교구 전체 본당을 통해 신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어서 10월 9일 서울 신림동 삼성산 성지에서 ‘아가운동’ 실천을 위한 가족사랑 등반 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범국민 사진 공모전을 열었다.³⁶⁵⁾

평협은 2005년에도 ‘아가운동’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2월 19일 서울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개최된 평협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아가운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운동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나갈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평협은 이번 총회에서 ‘아가운동’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이웃종교와 시민단체 정부기관과 함께 소년소녀가장·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가정 결연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개인과 가족, 동아리, 직장 등이 결연 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평협은 이 밖에도 신자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장려운동’, ‘종교채널 외 TV 안보기 운동’, ‘기도하고 성서 읽고 대화하기 운동’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신자들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³⁶⁶⁾

국회의원 등에게 생명관심 촉구 서한 발송

평협은 2005년 12월 8일 가톨릭신자 국회의원 70명과 5개 정당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생명에 관한 가톨릭교회 입장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생명존중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발송된 것이다. 평협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와 사회주교위원회가 2005년 6월 4일에 발표한 “배아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아였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서신에 첨부하고 진리에 관한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꼭 같이 적용되는 만큼 교회 가르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동선 증진을 위한 활동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평협은 2008년 8월 14일에도 제18대 신자 국회의원 79명에게 생명윤리와 관련된 자료를 발송하

364) 위의 책, 37쪽.

365) ‘아가운동’의 일환으로 서울평협이 주최한 사랑·생명·가정 사진 공모전은 문화관광부의 후원 아래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가 주관했다.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 모두 참여할 수 있었던 이 공모전에는 인간의 삶과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과 생명,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366) 「평화신문」 2005.2.27

였다. 이때 발송한 자료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하여”(미국주교회의의 성명서), “생명의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제14회 생명의 날 답화문), “개악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주교회의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등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에 관한 천주교 입장을 담고 있다.³⁶⁷⁾

평협이 이 자료를 신자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까닭은 명백했다. 그것은 17대 국회에서 개정되어 2008년 12월 시행을 앞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때문이었다. 이 법률은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와 난자 채취 실비보상을 허용하는 등 인간의 생명존중과 존엄성을 거스르는 반생명적 악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교회는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부터 수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결국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자료는 그에 대한 유감과 하느님의 생명윤리를 거스른 법률 통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의 심각성을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있을 신자 국회의원들만이라도 다시 한 번 통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서울평협의 가정포럼과 세미나

서울평협은 2005년 12월 16일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서울평협 산하 가정·사회사목연구소(소장 최홍준) 개소를 기념하여 가정·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³⁶⁸⁾

한홍순 평협 회장은 ‘평신도사도직과 가정’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가정은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소명을 수행하는 터전이며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사도직 활동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가정은 신앙과 생활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자연적 산아조절법으로 유명한 호주의 빌링스 부부와 교회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복자품에 오른 콧트 로키 부부의 사례를 들어 가정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달해 교회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부부간 사랑, 부모·자녀간 사랑은 교회를 위한 크리스천 가정의 구원 사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교수)는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발제를 통해 “하느님 선물인 인간 생명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철저히 존중돼야 하며 과학기술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부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연구와 관련 “가톨릭교회는 인간 생명의 탄생을 수정이 이뤄지는 순간으로 본다.”며 수정란의 시기는 이미 인간 생명의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복제된 인간배아 역시 하나의 인격적 개체로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 신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367) 「평화신문」 2008.8.21

368) 「평화신문」 2005.12.25

발표한 회칙 「인간의 구원자」를 인용하여 인간의 재능과 창의력이 이룩해 놓은 업적이 때로는 인간 스스로를 지배하고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평협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교회의 대응으로 서울대교구가 생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가정포럼을 열었다.

제1회 가정포럼은 2006년 10월 2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가족간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여기서 이동숙(안젤라) 명지대 특수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가족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긍정적 가족경험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 경험은 자존감을 저하시켜 대인관계와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가족 간 건강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강연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부정적 대화 사례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부부 및 가족 간 대화를 주제로 나눔 시간을 가지는 등 실제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상호 관심을 교환하였다.³⁶⁹⁾

제2회 가정포럼은 2006년 11월 17일에 ‘서로 칭찬합시다.’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가정문제를 드러내어 의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위기의 가정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마련되었다. 강의를 맡은 최옥화(글로리아) MBTI 전문강사는 “칭찬은 상대방에게 가장 손쉽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며 “칭찬을 잘하려면 작고 사소한 것에서 상대의 장점을 찾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십계명처럼 실천하려면 내 몸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³⁷⁰⁾

제3회 가정포럼은 2007년 2월 2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개최되었다. ‘창조 안에 나타난 가정 생명’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된 이날 포럼은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본 자존감 회복과 가정화목’에 관해 장형란(레오)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담당 수녀와 이숙희(테레사) 행복한 가정운동협의회 회장이 강의를 하였다. 강사들은 강의에서 평신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정 구성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먼저 가정화목에 힘써나갈 것을 주문했다.³⁷¹⁾

제4회 가정포럼은 2007년 3월 19일에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창조 안에 나타난 가정 생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시간으로 장형란 수녀가 강의를 맡았다. 장 수녀는 “한 처음에 하느님이 나를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지 헤아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울평협은 2008년 3월 2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영성 심리

369) 「평화신문」 2006.11.3

370) 「평화신문」 2006.11.24

371) 「평화신문」 2007.3.8

상담'을 주제로 가정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교회의 상담 역할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개최되었다. '영성심리 상담과 교회'를 주제로 발표한 홍성남 신부는 "영성심리 상담의 첫 걸음은 상담사가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며 "자신을 먼저 해결해야 남을 돌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는 자신의 죄를 지나치게 성찰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며 "흠 많은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게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본당 내 상담소 운영 결과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 고병훈(아우구스티노) 대치4동 본당 부설 아름다운 가정상담소 소장은 "아름다운 가정상담소는 2004년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설립되어 지금까지 3500여 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소개하고 "주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본당 부설인 상담소는 11지구 부설로 승격시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정사목과 사회사목의 일환으로 각 지구별로 상담소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각 본당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³⁷²⁾

평신도학교 생명·환경과정 개설

평협은 2007년에 생명문화의 창달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생명존중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생명관련 분과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당 총회장, 사회사목분과장 및 위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포럼을 개최하고 평신도학교 생명·환경과정도 가톨릭회관에 개설하였다. 환경포럼은 2007년 6월 3일에 개최되었으며, 평신도학교 생명·환경과정은 2007년 9월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있었다.

환경포럼의 강의는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신부가 '생태적 삶을 사는 교회공동체'라는 주제로 하였다. 그리고 평신도 학교 생명·환경 과정에는 한면희 녹색대학교 교수의 '지구 환경 위기의 현실과 대안 찾기', 모범적인 귀농생활을 하고 있는 서종홍 시인의 '이 시대의 농부로 살아가기', 생태영성연구원 대표인 황종렬 박사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조대현 신부의 '생태 사도직이란 무엇인가?' 등의 강의를 있었다.

372) 「평화신문」 2008.4.4

IV. 정치 분야

평협 제40년기 정치 분야 활동은 거국적 운동이 주류를 이룬다. 선거에서 나타나는 망국적 동서 지역분열 고착화에 대한 동서화합기도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 대희년을 맞아 정의·평화를 위한 대 토론회 개최로 국민의식을 일깨우는 데 전력한다. 그리고 ‘국민화합운동연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정치관련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는데도 힘쓴다. 특히 2001~2003년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똑바로 운동’과 2004년 개신교 평 신도단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도 거국적 운동이었다.

동서화합을 위한 기도 운동

평협 제40년기가 시작되는 1998년을 맞아 평협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김대중 (토마스 모어) 대통령 당선자와 그와 경쟁했던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1998년 2월 14일 명동대성당에서 ‘나라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미사’와 축하식을 가졌다. 본당 총회장, 수도자, 여야 신자 국회의원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는 김수환 추기경과 주교단 및 사 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미사강론을 통해 모든 정치적, 지역적 갈등을 풀고 동서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국가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 힘쓰자고 호소하였다. 미사 후 열린 축하식에서 평협은 김 당선인에게 고통을 통한 영광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선물했다.³⁷³⁾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4개월도 되지 않은 199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신한국당만 지지하는 영남과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호남의 동서지역분열이 더욱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북분단에 이어 남남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동서지역분열 현상은 1998년 6월 13~14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마리아 빨리 한국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제2차 상임위원회의의 주요 안건이 되었다.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 총대리 최재용 신부, 복음화국장 김영옥 신부를 비롯하여 전국 15개 교구 평협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6·4 지방선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우려할 만한 지역분열 현상을

373) 「한국평협」 통권 36호, 1999, 61쪽.

중요시하고 동서화합을 위한 기도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협은 전국의 모든 평신도들에게 우리나라의 동서화합을 위한 기도로서 미사와 가정기도, 공동체 모임 후에 주모경을 남북 화해 지향과 함께 바칠 것을 요청하였다.³⁷⁴⁾

정의·평화 대토론회

평협은 2000년 대회년맞이 평신도대회 사전 행사로 정의·평화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³⁷⁵⁾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민주적 질서의 확립과 사회정치 환경에 대한 복음적 성찰의 필요성과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긍정적 사회운동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발표한 이동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과거 교회의 정의·평화 운동은 주로 현실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사회 환경이 변했고 사회운동의 대상도 변한 만큼 비판에 의한 부정적 사회운동이 아닌 긍정적 의미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개념의 교회 사회운동의 하나로 가칭 ‘가톨릭 구급대’인 ‘가톨릭 119’ 설치를 제안했다.

‘가정 내의 정의·평화와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2000년대에 접어든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인간생명에 대한 무시와 인격차별은 사회제도와 관행 혹은 가정공동체 속에 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정 속에서의 인간 생명과 인격의 존중은 2000년 대회년을 위한 모든 과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김필영 강남치과 원장은 ‘교회 내의 정의·평화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의·평화와 복음’에 관해 발표한 홍승권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신부는 자신·이웃·자연에 대한 사랑의 의무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의무가 올바르게 인식되고 실천될 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그리스도에 바탕을 둔 희생임을 역설했다.

정치관련 시민단체 활동 참여

평협은 ‘국민화합운동연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등 정치관련 시민단체 활동에

374) 「가톨릭신문」 1998.6.21, 1면.

375) 「평화신문」 1999.10.3, 3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평협이 단체 이름으로 공식 참여했다기보다는 평협 회장이 종교계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천주교회의 창구 역할을 한 것이었다.

‘국민화합운동연대’는 전국 120여 개의 시민·종교 단체 대표자들이 1999년 12월 21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지역감정 해소와 계층 간·세대 간 갈등 극복을 위해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국민화합운동연대는 이날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연·지연·혈연으로 뭉쳐 이익을 탐하는 전근대적 연고주의 문화에 찌들어 있다.”고 지적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 계층 간의 갈등, 성차별, 집단이기주의, 남북한 간의 반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국민화합운동연대는 △제15대 국회의원 지역감정 발언 안하기 서약운동,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온 국민서명운동,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제16대 총선후보자 지역감정 발언 안하기 서약운동, △공명선거 실현과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투어, △국민화합 토론회 등을 펼쳤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험)는 공명선거 정착과 정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되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2000.3),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원로 100인 성명(2002.12), △공선험 주최 정치개혁 공청회(2003.8) 등을 전개하였다.

공선험은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결성된 시민단체의 연대단체로 148개 시민단체들과 지방공선험들이 서로 연대하여 전국적인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올바른 지도자 선택을 위해 △깨끗한 선거정착을 위한 부정선거 감시,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와 정책 캠페인, △준법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선거법준수 서약식과 입후보자 의식개혁 촉구, △올바른 지도자 선택을 위한 입후보자의 정책·자질 검증, △선거문화 혁신을 위한 유권자의 의식개혁·유권자의 투표참여 촉구, △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평협은 공선험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 2000년 2월 15일 공선험과 함께 공명선거실천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국민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공명선거 캠페인

평협은 2000년 4·13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4월 6일 ‘생명·진리·사랑의 잣대로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평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진리·사랑의 가치기준에 따라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고 “유권자가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은 후보의 태도와 인격”이라며 “가톨릭 사회교리의 주요 원천의 하나인

자연법에 근거해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평협은 이와 함께 “최선의 후보자가 없다고 해서 참정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차선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최악의 결과를 막아야 한다.”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장에 나가자”고 호소했다.

평협은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이때의 공명선거 캠페인은 전국 각 교구 평협이 전개하고 있는 ‘똑바로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서 수원평협과 안동평협의 활동을 소개한다.

수원평협은 2002년 11월 17일 공명선거 포스터 360여 장을 만들어 교구 내 전 본당과 교회 운영 병원과 학교 수도회 등지에 발송했다. 그리고 11월 24일에는 별도로 ‘선거 시 신자 행동수칙’을 담은 전단지 10만 장을 찍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수원평협은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취지문에서 “올해의 대통령선거는 누가 행정부의 수장이 되느냐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세기로 나아가고 남북 및 주변 강대국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공명선거 운동을 교구민들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안에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³⁷⁶⁾

안동평협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이틀간 경북 예천군 진보면 농은수련원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그리스도인과 대통령 선거”라는 제하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교구민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선거를 제창하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는가에 따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오느냐 멀어지느냐가 달려 있다.”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는 방향과 가까운 정치를 펼 사람을 찾는 책임 있는 선거를 하자”고 당부했다.³⁷⁷⁾

도덕성 회복 운동(똑바로 운동)의 전개

평협은 2001년 2월 1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개최된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똑바로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2001년도 주교회의 총회에서 ‘똑바로 운동’ 안건이 통과되면 11월 평신도 주일을 계기로 전국 교구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으로 평협은 도덕성회복운동 기획단 회의 2회, 도덕성회복운동 기획추진위원회 회의 3회 개최 등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2001년 7월 7~8일 광주대교구 예수고난회 명상의집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와 함께 도덕성회복운동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광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종희 신부가 ‘도덕성회복’(제1주제)

376) 「평화신문」 2002.11.24

377) 「평화신문」 2002.12.8

에 관해 발표하고 광주평협 홍보분과위원장인 조종현 조선대 교수가 논평하였다. 그리고 이규정 신라대학교 교수의 ‘도덕성회복운동과 평신도사도직’(제2주제) 발표에 대한 논평은 마정웅 대구평협 회장이 하였다. 이날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도덕성회복’을 주제로 ① 도덕성의 기초, ② 도덕성의 상실, ③ 도덕성의 회복 순서로 특강을 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상실된 도덕성 회복은 곧 복음정신에 따르는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교회 특히 평신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10월 17일 추계 주교회의 총회는 평협이 도덕성 회복과 ‘함께 같이 한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똑바로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전체 한국교회가 추진하는 전국 운동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도덕성회복운동 표어와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였다.³⁷⁸⁾ 도덕성회복운동 표어 공모에만 총 178명 700편이 응모될 정도로 이 운동은 처음부터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³⁷⁹⁾

도덕성회복운동 표어 심사 경과보고와 당선작 선정 결과는 2001년 4월 28일 전주교구 천호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제1차 상임위원회를 거쳐 발표되었다. 이 회의는 도덕성회복운동 실천방안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한 자리였다.

평협은 2001년 9월 8일 서울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똑바로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발표된 선언문은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의 파당적인 정쟁과 지역적·집단적 이기주의, 빈부격차, 배금만능주의,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일그러진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평협은 ‘똑바로 운동’의 구체적 실천 지침을 정하였다. 그것은 △똑바른 생각과 행동, △나부터 시작하기, △이웃과 함께하기,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본당과 단체에서 구체적인 실천사항 정하기, △체험 나누기 등이다.

운동 첫 해인 2001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도덕성회복 운동 세미나와 ‘똑바로 운동’의 홍보를 위한 ‘똑바로’ 스티커 20만 장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9월 5일에 서울 명동 로얄호텔 2층에서 교회와 일반 언론사 10곳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가 열렸고, 9월 8일에 최홍준 사무총장이 KBS TV 인터뷰에서 ‘똑바로 운동’을 알렸으며, 9월 25일에는 최 사무총장과 김용수 기획분과위원장이 평화방송 TV 토론회에 출연하여 ‘똑바로 운동’의 내용을 홍보하였다. 선언문과 실천 지침이 각 교구 평협에 배포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

378)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2년도 사업계획서」, 24쪽.

379) 공모된 작품의 심사 결과는 당선작은 없고 “나부터 지킨 양심 온 사회 등불 된다.”(최임길)와 “내가 지킨 바른 양심 새 날 새 삶 앞당긴다.”(이은정) 2편이 가작으로 뽑혔다.

와 중간점검 및 모범사례의 발굴 등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평협은 2001년 10월 27~28일에 대전교구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대전교구 사목기획국장 박승룡 신부의 특강으로 '도덕성회복운동 '똑바로'의 그리스도적 의미'를 들었다. 박 신부는 도덕성회복운동의 '똑바로'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 정신의 구현이라고 하여 이 운동이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펼쳐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이 운동은 교구 평협으로 확산되어 나갔다.³⁸⁰⁾ 수원평협은 2001년 10월 21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교구장 최덕기 주교 주례로 봉헌된 추계연수회 파견 미사에서 '똑바로 운동' 실천 선서식을 갖고 최 주교 승용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평협은 2001년 10월 27일부터 이틀간 대구 남산동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선언문을 채택하여 △똑바른 신앙생활, △똑바른 말과 행동, △똑바른 공동체 생활, △사회질서 준수 등 4개 항의 실천을 다짐하였다. 이후에 다른 교구들도 속속 이 운동에 참여하여 제주평협은 11월 3일, 인천평협과 안동평협은 11월 18일에는 각기 '똑바로 운동' 선포식과 스티커 부착식을 가졌다.

서울평협은 2001년 11월 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똑바로 운동'의 의미를 알리는 '정의·평화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의·평화의 이름, 그 왜곡되고 있는 현실의 극복'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어상 서강대 교수, 윤혜정 살레시오 수녀회 수녀, 김광엽 한국CLC 상임위원, 윤학 평협 정의평화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와 평화의 참뜻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똑바로 운동'은 2002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최홍준 평협 사무총장은 2002년 3월 10일 수원교구 광주성당에서, 그리고 4월 14일에는 수원교구 금곡성당에서 '똑바로 운동' 강연을 하여 평협이 운동에 앞장 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4월 27~28일 청주교구 연수원에서 개최된 평협 제1차 상임위원회는 똑바로 운동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송일섭 신부의 '똑바로 운동'에 관한 특강에 이어 장봉훈 주교의 '하느님의 뜻'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2002년 11월 제35회 평신도주일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를 주제로 하는 강론 자료와 포스터를 각 4,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는 '똑바로 운동'의 정신을 신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고취시키기 위함이었다. 2003년 4월 26~27일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열린 2003년 평협 제1차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똑바로 운동과 복음화'로 하여 이 운동의 지속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6월 7~8일 대구대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개최된 제2차 상임위원회 역시 안건을 '매매춘 근절을 위한 전신자 서명운동 전개와 똑바로 운동 활성화'로 하여 '똑바로 운동'을 계속 활성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80) 「평화신문」 2001.11.3, 1면.

그러나 2004년 3월 이 운동을 주도했던 여규태 평협 회장의 임기만료로 그 열기는 식고 만다. 후임으로 평협 회장이 된 손병두 회장이 평협 운동을 가정성화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평협은 개신교 평신도단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평협 손병두 회장과 개신교의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김봉갑 회장은 2004년 10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³⁸¹⁾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국교육 실정을 무시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무책임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학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사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며 한국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⁸²⁾ 그리고 “정부 여당이 사학법 개정 반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면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인사위원회 구성 철회,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의 학교예산 심의 관여 철회, △사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사학의 교과과정 편성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가톨릭과 개신교 평신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안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두 단체는 앞으로 보조를 같이 해야 할 현안이 생길 경우 적극 협력기로 하는 등 에큐메니컬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81) 「동아일보」 2004.10.29, 7면.

382) 「평화신문」 2004.11.7

V. 경제·사회 분야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는 평협 제40년기 원년인 1998년에 IMF 구제금융 이후 금리가 폭등하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도산과 구조조정이 초래되었으며,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전국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평협은 ‘경제 살리기 특별기도회’를 시작으로 1998년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캠페인 전개 등에 적극 참여한다. 서울평협을 비롯한 교구 평협들도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중고품 재활용 센터 운용,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운동, 금모으기 운동, 실직자 정돈기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하는 한편, 도·농 협력과 생산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 우리농촌 살리기 지원에 적극 나선다. 평협의 경제 살리기 운동은 선언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

경제난 극복 운동의 전개

평협은 1998년 1월 20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경제 살리기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김수환 추기경과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된 미사 중에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구한말(1907년)에 서상돈(아우구스티노) 회장을 비롯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나라 살리기에 앞장섰던 것과 같이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데 평신도들이 나서 이 경제난국 극복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고 호소하고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다.³⁸³⁾ 신자들이 성당, 가정, 직장에서 해야 할 바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내용까지 포함시킨 생활 지침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었다.³⁸⁴⁾

첫째, 본당에서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각종 행사를 줄인다. △평일미사는 소성당을 이용한다. △수입성물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성물을 애용한다. △미사참례 시 자가용 이용을 삼간다. △단체회합 후 회식을 줄인다. △벼룩시장을 개설한다.

둘째, 가정에서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TV, 비디오, 전열기구 사용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는다.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외화절약을 생활화 한다. △물을 아껴 쓰고,

383) 「가톨릭신문」 1998.1.25, 1면.

384) 「한국평협」 통권36호, 1999, 105쪽.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외식을 줄이며 우리농산물을 먹는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자원재생에 협력한다. △외제품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품을 애용한다. △수입식품을 먹지 않는다. △“아나바다물”(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물려 쓰기)운동을 생활화 한다.

셋째, 일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휴식 시 컴퓨터 전원을 끈다. △고급식당, 호텔 등의 출입을 줄인다. △돌반지 등 금붙이 선물을 안 한다. △이면지를 활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급 스포츠(골프, 스키 등)를 절제한다. △자원 재활용에 앞장선다.

넷째, 학교에서 △외제학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점(외국업체)이용을 줄인다. △참고서, 동화책, 옷(교복 등)을 물려받아 쓰고 입는다. △몽당연필을 볼펜에 끼워 쓴다. △군것질을 줄인다.

평협은 1999년 2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00년 대희년 준비를 위한 마지막 셋째 해인 성부의 해에도 중점사업 목표의 하나로 경제위기 극복 운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실천 방향으로 본당별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물려 쓰는 이른바 ‘아나바다물’ 운동을 생활화하고 경제 살리기 운동을 지속하고 실직가정 돕기 국민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평협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임으로써 지상의 평화를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회교리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 위함이었다.

실직자 위한 사랑나누기운동

1998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평협은 가톨릭교회가 IMF사태로 늘어난 실직자 돕기에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평신도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³⁸⁵⁾ 이 결의에 따라 실직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실직자를 위한 사랑나누기 운동’이다.

이 운동은 2000년 대희년을 앞둔 시점에서 대희년의 의미를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실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평협과 각 교구 평협이 이 운동을 주관하되, 실질적인 실직자 돕기는 본당 차원에서 각 본당 사목회가 직접 주도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각 본당에서는 본당 사목회가 중심이 되어 후원회비 모금, 2차 현금, 기타 알뜰장터 개최 등을 통해 성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본당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실직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원되었다. 지원 대상자들은 본당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신자, 비신자 구분 없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실직자를 위한 사랑나누기 운동’은 이웃사랑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교가 이루어지

385) 「가톨릭신문」 1998.4.26, 1면.

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평협의 경제 살리기 운동단체 활동 참여

외환위기로 인한 IMF사태 이후에 평협은 자체적으로 경제난 극복운동을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단체에도 동참하였다. 그 첫 번째가 1998년 1월 2일에 열린 외채상환 금모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에 김수환 추기경과 류덕희 평협 회장이 각각 고문과 공동대표로 참여한 일이다. 이후에도 평협은 ‘민간사회안전망운동 범국민협의회’와 ‘실업극복국민운동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민간사회안전망운동 범국민협의회’는 IMF사태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등 17개 시민·사회·직능 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이기 위해 결성되어 1999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시민단체이다. 특히 이 운동은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실천적 민간주도 캠페인으로, IMF사태로 가족해체와 실직, 생활공동체의 파괴 등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민간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율구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류덕희 회장은 이 협의회의 운영위원을 맡았다.

‘실업극복국민운동협의회’는 ‘민간사회안전망운동 범국민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기업도산, 대량해고가 빈발하던 시기인 1998년 6월 23일에 설립되었다. 실업극복에 국민이 동참을 확대하자는 취지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주도의 최대 실업대책기구이다.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류덕희 회장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실직가정돕기범국민캠페인’ 공동본부장으로서 활동하였다. 실업극복국민운동협의회는 2008년에 이름을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바꾸었다.

평협이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이러한 경제 살리기 운동단체 활동에 참여한 것은 교회 안팎으로 의미가 컸다. 역사적으로, 국난에 처했을 때 목숨을 내걸고 구국투쟁을 벌인 안중근(토마스) 의사나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서상돈(아우구스티노) 회장이 보여준 것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오늘날에도 국가적 위기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구 평협들의 나눔 실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제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나눔 장터’가 대구대교구 각 지구 평협 주관으로 1998년 4월 12일(예수부활대축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나눔 장터’는 IMF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각 가정에 ‘아나바다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되살이 운동이었다.³⁸⁶⁾ 대구대교구에서는 이를 각 지구 평협이 주관해 고통분담과 사랑나눔 운동으로 확대 실시하여 부활절부터 6월까지 지구 내 지역별로 3~4개 본당이 연합해 ‘나눔 장터’를 열었다. 의류와 생필품 및 가전제품, 잡화, 농수산물 등 코너를 마련하여 물물교환과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구에 따라 먹거리 코너, 놀이코너, 환경관련 물품 코너 등을 운영했다. 또한 토요일 오전에는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미사가 행사장에서 봉헌되었다.

대구평협이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전개한 ‘새 생활 운동을 위한 되살이 나눔장터’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 되살이 나눔장터는 국가적 경제 난국 극복에 전 교구민이 동참하여 절제와 근검절약의 생활로 어려운 시기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아나바다운동’의 실천이었다. 더욱이 교구 108개 본당 중 68개 본당에서 3만 2천여 명이 여기에 참여하여 약 1억 262만 원의 수익금을 내어 그 전액이 사회복지기금과 장학기금으로 전달되었다. 대구평협의 되살이 나눔장터의 성과는 이처럼 불우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나눔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고 지역사회에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광주평협도 1998년 10월 31일~11월 1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경제 불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로 사랑의 절미운동, 실직자 돕기 1구좌 갖기, 사랑의 모금함 설치, 실직자녀를 위한 공부방 운영 등 각 본당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법들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의 줌도리 쌀모으기 운동’이 전 본당에 확산되도록 광주평협이 앞장서자는 결의문도 채택되었다.

도·농 한마당잔치 행사

평협은 1998년 10월 24일 서울 동성고 교정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공동체 나눔 한마당잔치’를 주최하였다. 이 행사의 주관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맡았다. 8개 교구 1만5천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대교구 강우일 주교,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바티스타 모란디니(Giovanni Battista Morandini) 대주교 및 ‘우리농촌 살리기 운

386) 「가톨릭신문」 1998.4.26, 15면.

동' 전국본부와 서울대교구 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도·농 협력 관련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한 미사로 시작된 이 행사는 도시와 농촌 공동체간의 서로 나눔과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4월 27~28일에 열린 전국 평협 상임위원회는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평신도대회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촌의 협력 강화를 위한 '도·농 한마당잔치' 행사를 10월 21일에 개최한다는 평신도대회 도·농본부가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도·농 한마당잔치 행사를 위해 각 교구 평협이 농산물과 수산물을 출품하기로 하였는데 그 품목은 △수원: 여주·이천 쌀, 안성 대맥, 농협 갈비; △부산: 멸치, 미역; △인천: 까나리, 강화 순무, 인삼; △춘천: 감자, 다시마; △청주: 잡곡, 용기, 사과; △전주: 대화미(쌀), 잡곡, 한우 5마리, 장수 통돼지 10마리, 들기름, 참기름, 김, 장수 사과, 배; △안동: 고추 마늘, 양파, 사과, 포도즙, 사과즙; △마산: 멸치젓, 멸치, 단감, 육쪽 마늘; △대구: 대구 능금; △원주: 원주 산채, 횡성 더덕, 영월 칠국수, 칠술, 평창 감자, 정선 냉찰옥수수 등이었다.

이렇게 계획된 두 번째 도·농 한마당잔치 행사는 장소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3일이 늦어진 1999년 10월 24일에 서울시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서초구청 앞마당은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행사 장소로 계속 이용되었다.

1999년 도·농 한마당잔치는 개최 당일(주일) 10시에 추수감사 미사로 시작되었다. 미사는 서울대교구 강우일 주교와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바티스타 모란디니 대주교를 비롯하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전국본부와 서울대교구 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도·농 협력 관련 사제단이 공동 집전으로 이루어졌다. 춘천교구를 제외한 14개 교구 평협이 참가한 이 행사는 전국 평협이 개최한 가장 큰 행사의 하나로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동체와 생산자 공동체의 유대강화와 도·농협력 강화라는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³⁸⁷⁾

2000년 이후에도 평협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의 생활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매년 도·농 한마당잔치를 주최하였다. 2000년 11월 5일 도·농 한마당잔치는 강우일 주교가 집전한 추수감사 국악미사로 시작되어 각 교구에서 직송된 농수축산물 판매마당, 먹거리 마당, 교구별 전통문화 놀이마당 및 마당극 '밥'이 공연되는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2001년 도·농 한마당잔치도 10월 28일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개최되어 우리농산물 뷔페 시식회 등이 열렸다.

한편, 안동평협은 도·농 교류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2002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안동 남선면 평화마을에서 마련한 하계연수 및 임시총회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농산물만 주고받는 단순한 도·농 교류에서 벗어나 도시민들이 직접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안동교구 내 본당과 공소를 도시

387) “1999년도 전국 평협 감사보고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업계획서(1998~2008)」, 18쪽.

가정의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평협의 2002년 10월 20일과 2003년 10월 26일 도·농 한마당잔치는 예년처럼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공동주최로 치러졌다. 그러나 2004년 도·농 한마당잔치는 공동주최 단체가 평협과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로 축소된 가운데 11월 7일 대전시 갑천 둔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추수감사미사에 이어 나눔 잔치, 기념공연 및 공동체대동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10월 30일에 다시 예년처럼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치러진 도·농 한마당잔치는 공동주최 단체로 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및 가톨릭농민회가 모두 참여하였다. 2006년 행사는 ‘가을걷이 추수감사미사와 도·농 한마당잔치’라는 이름으로 10월 29일에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열렸다. 2007년 10월 27일에도 같은 명칭으로 행사가 치러졌다.

경제·사회 문제 세미나

서울평협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공동으로 1998년 11월 27일 서울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실업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각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 및 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성공회 나눔의 집 원장 송경용 신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회가 지닌 지역배경이나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조직되는 ‘구역조직’들이 자기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보살피는 기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신부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 시대의 문명에 저항 없이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더욱 가난해지는 운동, 더욱 불편하게 살아가는 운동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이 세미나에서 구리성당 평화의 집, 삼각지 성당 성심관 쉼터, 정하상 바오로의 집, 서초동 성당, 나눔의 생활 공동체, 명동 평화의 집, 동대문 본당 IMF 특별위원회 등이 실업 극복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³⁸⁸⁾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많지 않았다. 그것은 2001년부터 ‘똑바로 운동’이 시작되면서 평협의 모든 역량이 거기에 결집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똑바로 운동’에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01년 9월 8일에 평협이 발표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서”라는 제목의 도덕성 회복 실천 선언문은 분명히 경제·사회 문제를 짚고 있다. 선언문은 한국이 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서 “지역적 집단적 이기주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는 가난한 서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 세계화의 물결을 탄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않아도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를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금만능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

388) 「가톨릭신문」 1998.12.6, 15면.

고 지적함으로써 경제도 분명히 “똑바로” 세워야 할 대상임을 밝혔다.

이후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한 차례의 경제관련 심포지엄과 사회포럼이 개최되었다. 2004년 7월 12일 평협 후원으로 명동성당 포스트홀에서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과 식량주권’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른 식량주권의 문제였다. 2007년 12월 27일 서울대교구 가톨릭회관에서 ‘민족들의 발전 40주년 기념’ 사회포럼에서는 ‘FTA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경쟁력평가원장 정진호 박사)와 ‘소득의 불균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조은상 박사)가 주제로 발표되고 그에 따른 토론이 이어졌다.

Ⅶ. 사회복지 분야

평협 제40년기 사회복지 활동은 전국 평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주로 교구 평협 차원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부산평협과 서울평협의 활동이 돋보였다.

부산평협의 독거자 돌보기 운동

부산평협은 2001년 한 해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독거자 돌보기 사랑의 운동을 중점 사업으로 전개했다.³⁸⁹⁾ 이 운동은 평협을 구심점으로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교구 내 의료 관련 단체들과 본당 조직 및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교구적인 복지운동이었다. 부산평협은 이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평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구 내 각 단체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본당별로는 사목회장을 운동본부장으로 하여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회복지분과, 레지오 마리아 등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본당 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부산평협은 교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구 차원의 ‘독거자를 위한 사랑의 날’ 위로잔치를 개최하고, 몇 개의 시범본당을 지정하여 이들의 다양한 모범 사례를 취합하여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평협은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가운데 활동의 폭을 넓혀나갔다. 2005년에는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사랑의 안경을 맞춰주는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부산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훈훈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³⁹⁰⁾

사랑의 안경 맞추기 운동은 부산평협이 2005년 여름부터 부산시 동구 수정동 다빈치 안경점(대표 임영호)과 손잡고 안경조차 맞춰 쓸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빛을 선사한 것이다. 이 운동으로 2005년 10월까지 90명이 사랑의 안경을 쓰고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부산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눈이 침침해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내는 60살 이상 홀몸노인들의 백내장 수술을 위한 특별후원회를 결성하여 1인당 30~40만원이 드는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2004년 9월부터 1년 동안 빛을 다시 찾은 노인은 190명에 달하였다.

389) 「평화신문」 2002.1.13

390) 「평화신문」 2005.10.30

서울평협의 주민맞춤형 복지활동 모색

서울평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2002년 6월 15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 본당 사회복지분과장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본당 사회복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맞춤형 복지활동’ 방안이 모색되었다. 강의를 맡은 김인숙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는 앞으로 가톨릭교회의 성격을 결정짓고 심지어는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본당 사회복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주민맞춤형 복지활동 방안을 제시했다.³⁹¹⁾

첫째, 공단지역이나 저소득층 지역 본당 등에서 본당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자와 비신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는 것이 좋다.

둘째, 사회복지 활동이 본당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 신자들의 합의와 참여를 폭넓게 이끌어내야 한다. 또 사목자의 의지가 본당 사회복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자들은 기회 있는 대로 사목자에게 사회복지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신자들에게 본당에서 하면 좋을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에 관한 실태를 묻고 파악한다.

넷째, 본당 내 다른 분과 특히 구역분과와의 협력적 관계 하에서 사회복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당 사회복지 활동의 관건은 봉사 인력을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섯째, 각 지구 차원 또는 여러 본당이 연합하여 함께 본당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 경우 본당 간 재정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본당 간 사회복지 활동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또 교구 단위의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지구 단위로 하면 수강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본당 단위에서는 하기 힘들지만 지역 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면 지구 단위에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91) 「평화신문」 2002.6.23

VII. 교육 분야

평협 제40년기는 1998년 평협 창립 30주년과 2000년 대희년이 있는 시기로 이를 준비하고 기념하는 전국 및 교구 차원에서 평협의 교육 분야 활동은 활발하였다. 평협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평협 제40년기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의 의의는 컸다. 평협 임원 교육으로서 서울평협의 사목회장과 회장단 대희년 특별연수와 대희년 이후 평협 상임위원회 특강, 세미나, 포럼, 서울평협의 비전회의 워크숍과 임원학교 등 풍성하였다. 일반 평신도를 위한 교육기회도 부산평협의 ‘교회발전과 평신도’ 주제 심포지엄, 서울평협의 노인지도자 연수, 여성지도자 교육, 하상신앙대학을 통해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서울평협이 2007년 회칙 개정과 교육 프로그램 통합 등 운영방법 개선은 평협 제50년기를 향한 서울평협의 교육활동에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평협 30주년 세미나

서울평협은 평협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평협 제40년기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1998년에 두 차례의 세미나를 열었다. 첫 번째 세미나는 7월 11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서울평협이 우리신학연구소에 의뢰한 “서울평협의 운영실태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의 중간 보고회였다.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는 11월 7일에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평협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주제로 한 이 세미나는 우리신학연구소가 7개월간에 걸쳐 조사 연구한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서울평협의 발자취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오늘의 평협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바람직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³⁹²⁾

조사연구보고서는 그 동안 평협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였다.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은 △사무국의 비(非)전문화, △다층적인 회의 구조, △분과위 활동의 비활성화, △회원들의 활동단체 중복, △임원 등 활동 주체 중심의 사업방향 결정, △평협과 평신도의 사명구현보다 친교와 명예에 관심 갖는 구성원 등이었다.

이들 문제점은 서울평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나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서울평협의 임직원과 업무가 대부분 평협과 겹친다는 점에서 그것은 곧 평협의 문제점이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교구 평협들도 서울평협과 거의 비슷한 구조에서 비슷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연구보고서에서

392) 「서울평협」 1998.12.31, 1면.

지적된 문제점은 평협 전체의 문제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조사연구보고서는 평협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평신도 및 평협의 사명을 제대로 구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평협 조직의 구조적 개편과 함께 활동방향을 재정립하는 정관개정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평협 운영실태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³⁹³⁾에 제시된 평협의 발전방향으로 △내적쇄신을 통한 자신의 역할제고, △평신도 자질향상, △독자적 선교전략 연구와 대안집단으로서 위상제고, △중앙 기구로서의 역할강화, △상향적 지도력에 기초한 평신도 대의기구로의 발전, △본당과 일반신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정보센터 기능수행 등이다. 그리고 발전의 3단계로 △장점강화와 단점보완, △대의기구로서의 성격강화, △소공동체 교회기초공동체 모델로의 발전을 들었다.

2000년 대희년맞이 연수

평협이 1998년도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 대희년 준비와 관련된 연수를 계속 실시한 데 이어 서울평협도 1998년 3월 14~15일 복자사랑 피정의 집에서 사목회장과 회장단을 위한 대희년 특별연수를 개최하였다. 1999년과 2000년에도 평협 상임위원회 연수는 대희년 특강으로 이어졌고, 각 분야별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열렸다.³⁹⁴⁾ 특히 2000년을 한 해 앞둔 1999년 하반기부터 매월 그와 같은 모임이 연이어졌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열린 대희년맞이 세미나만도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이나 열렸다. 7월 10일 ‘대희년은 민족화해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주제의 민족화해 토론회, 8월 21일 ‘한국천주교 선교운동의 현실과 전망, 21세기 선교의 방향’을 주제로 한 대희년맞이 선교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9월 18일 ‘정의평화 구현의 새로운 모색-인격 존중 정의로운 사회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의 대희년맞이 정의평화세미나가 그것이다. 그리고 10월 9일에는 서강대 이냐시오관 강당에서 ‘가톨릭 청소년사목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대희년맞이 청소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편 부산평협은 1998년 11월 7일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교회발전과 평신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교회 내외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200년 전 이미 공의회 정신에 부합하는 사도직 활동을 펼친 한국 초대교회 평신도들의 생활을 본받자는 취지로 열렸다. 부산교구 각 본당 회장, 평협 산하 각 심신단체장과 평협 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의 제1주제 발표자인 김남수 주교는 아시아지역 복음화에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393) 요약문은 「서울평협」 1998.12.31, 2면 참조.

394)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0년도 사업계획서」, 10쪽.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교황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아시아지역을 복음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중국 선교야말로 성직자보다 오히려 평신도가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평신도가 옛 본당회장이나 공소회장들처럼 깊이 있는 교리지식들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제2주제를 발표한 박상대 신부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달라진 평신도의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평신도는 더 이상 기도하고 돈 내고, 복종하는 도식의 ‘피지배층’이나 ‘하부층’이 아니다.”라며 “평신도는 현세적 일에 종사하면서 이를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림을 받은 신분”이라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새로운 평신도 위상의 변화를 역설하였다. 그는 또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평신도 활동의 기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제3주제 발표에 나선 이규정 신라대 교수는 북한 선교와 동포애의 발휘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신앙인들은 약자·빈자·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무관심해 온 것을 회개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되, 그에 앞서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⁹⁵⁾

상임위원회의 평신도사도직 연수

평협 상임위원회 특강 형식의 평신도사도직 연수는 제40년기에도 매년 3회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되었다. 특히 대희년과 관련하여 2000년 5월 상임위원회에서 박정일 주교가 ‘2000년 대희년 평신도의 새 출발’, 9월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명조 주교가 ‘2000년 대희년 평신도들의 과제’ 등을 강의했고, 11월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창렬 주교가 ‘한국가톨릭의 장점’에 대해 강의하는 등 주교들의 강의로 이어졌다.

2001년에는 상임위원회의 교육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교육은 4월 전주교구 천호피정의 집에서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인 김진소 전주 중앙성당 주임신부의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 강연과 이병호 주교의 특강이 있었다. 제2차 교육은 7월에 광주대교구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최창무 대주교가 ‘도덕성 회복’을 주제로 ① 도덕성의 기초, ② 도덕성의 상실, ③ 도덕성의 회복 순서로 특강을 하였다. 제3차 교육은 10월에 대전교구 정하상교육관에서 도덕성회복운동 ‘똑바로’의 그리스도적 의미에 관한 대전교구 사목기획국장 박승룡 신부 강의로 이루어졌다.

2002년 상임위원회 1차 교육은 송열섭 신부의 ‘똑바로 운동’에 관한 내용이었고, 제2차 교육은 장봉훈 주교의 ‘하느님의 뜻’, 김지석 주교의 ‘평신도와 선교’, 배채진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역할’로 이어졌다.

395) 「가톨릭신문」 1998.11.22, 11면

2003년에 제1차 상임위원회 연수는 보다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전례교육으로 김득수 회장의 ‘상장예식 소개 및 연도 노랫가락 배우기’와 신학교육으로 서울평협 이창훈 기획분과위원장의 ‘교회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성’ 강의가 있었다. 그리고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육으로 류승기 신부가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한계와 가능성’을, 박영조 안동평협 회장이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통해 본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역할’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이삼열 교수는 종교학으로 ‘21세기 종교 환경과 복음화’를 강의하였고, 인천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차동엽 신부는 우리의 현실문제의 하나인 ‘남북한 평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제2차 상임위원회 연수는 세미나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는 ‘교회 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성’으로 이창훈, 서울평협 기획분과위원장이 발표하였고, 두 번째 주제로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해 대구대교구 사목국장 류승기 신부가 발표를 해주었다. 제3차 상임위원회 연수에는 박영조, 안동평협 회장의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통해 본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역할’ 발표와 차동엽 신부의 ‘21세기 종교 환경과 복음화’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2004년 평협 상임위원회 연수에서는 ‘아가(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운동’의 맥락에서 5월에 유영봉 신부의 ‘한국가정의 위기’를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8월 특강은 이흥기 몬시뇰의 ‘성서를 읽읍시다.’였다. 제주교구에서 열린 11월 상임위원회의 특강은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제주교구 소개’에 이어 양영수 신부의 ‘가정사목’, ME, 마리아사업회의 ‘가정생활 체험사례’와 제주교구 가정상담실 변수은 수녀의 ‘제주교구 가정사목 사례’, 최홍준 평협 사무총장의 주교회의 2005 가정을 위한 공동사목교서 소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오혜정 수녀의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정현무 새터민의 교회 탈북인 체험발표, 북한구원운동 공동대표 김상철 변호사의 국내외 정세와 성서적 세계관,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강영옥 박사의 한국천주교 여성사목방향 정립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보고 등 가정·여성사목과 민족화해를 주제로 하였다.

2005년 5월 상임위원회 특강은 춘천교구 법원 홍기선 신부의 ‘가정과 교회 안의 혼인법’, 간성본당 서범석 신부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였다. 9월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주교구 김영수 신부의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정체성’, 대전교구 강석준 신부의 ‘PESS Program을 통한 전인교육’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로 다음세대살림연구소장 정준교 교수의 ‘평신도사도직의 기원과 사명’, 전원 신부의 ‘통계자료로 본 한국교회와 평신도’ 및 신현만 신부의 ‘평신도사도직 활성화와 사목방향’ 등 3개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상임위원회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복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톨릭대학 이동익 신부의 ‘생명과학과 가톨릭교회의 윤리’ 주제 특강에 이어 혼인, 낙태, 저출산 등의 분임토의가 있었다. 9월 상임위원회(부산) 특강은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문헌 ‘평신도 교육- 열두 가지 제안’을 주제로 하였다. 11월에는 평신도주일을 기념하여 ‘교회와 사회 간 대화’ 주제로 3일간 옴니버스 형식

의 사회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일(생명과 저출산)에 서울대 진교훈 교수의 ‘낙태와 저출산’ 문제 발제를 시작으로 제2일(가난과 빈부격차)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의 ‘한국사회의 주거빈곤 문제와 자조형 자립조합 주택의 가능성’과 제3일(함께 사는 사회)에 재단법인 제정구기념사업회 박재천 사무국장의 ‘함께하는 사회’에 관한 발제와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다.

2007년 5월 상임위원회에서는 심포지엄이 열려 고려대 조광 교수가 발표한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사도직’에 관해 고려대 노길명 교수, 전남대 김정희 교수, 전주교구 김영수 신부의 토론이 있었다. 8월 상임위원회에서는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평협 담당 민병덕 신부의 ‘평신도 교육과 활동’ 발제에 이어 서울대 이윤식 교수의 ‘평신도사도직 단체의 교육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은상 박사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앙단계별 평신도 양성 모형’, 경성대 오용석 교수의 ‘평신도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여성생활연구원장 정찬남 박사의 ‘신자 평생교육을 위한 제언’ 등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도 세미나가 개최되어 고려대 노길명 교수가 ‘한국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운동: 일제 강점기부터 이승만 정권까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전남대 윤선자 교수, 광주 가톨릭대 옥현진 신부 및 고려대 조광 교수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12월에는 ‘민족들의 발전 40주년 기념’ 사회포럼 개최로 경쟁력평가원장 정진호 박사의 ‘FTA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은상 박사의 ‘소득의 불균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발표되었다.

서울평협의 노인지도자 연수

한국사회가 점차 노령화사회로 접어드는데 따른 사목적 대안 모색을 위해 서울평협은 2002년 5월 1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각 본당 노인분과위원장과 연례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³⁹⁶⁾

서강대 신학연구소 박문수 박사는 ‘한국 천주교회의 미래와 노인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반해 부정적인 인식은 지난 10년 동안 늘어나 종교 인구의 성장이 정체된 상태”라면서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층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노인들이 한국교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로 △적극적인 자원 봉사 활동, △신앙을 깊이 할 수 있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면 시골 공소 등지에서 선교사로 봉사, △연례회 활동을 통한 간접 선교 등을 제안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노인사목 담당 최성균 신부는 ‘가톨릭교회와 노인복지 사목’ 발표에서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이며 우리 교

396) 「평화신문」 2002.5.19

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가톨릭교회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활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신부는 가톨릭의 노인복지 사목 방안으로 △교회의 유희시설을 활용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본당 인근의 홀몸노인 돌보기, △지구나 본당 차원에서 무의탁 노인을 위한 소양로원(그룹홈) 운영, △짧은 기간 노인들을 돌보는 단기보호센터 개설, △노인들의 다양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노인 능력은행 설치 등을 제시했다.

2004년 7월 3일 종로성당에서 개최된 노인지도자 연수에는 각 본당 노인분과위원장, 연례회장, 노인관계 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하여 노인사목을 좀 더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별 대표를 선임하는 한편 지구와 본당 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두 평협 회장은 인사 말에서 “노인 부양가족에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하는 등 노인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혀 평협 차원의 문제의식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수 진행을 맡은 서울대교구 노인사목 담당 최성균 신부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노인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교회 내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사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신부는 또 노인사목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노인사목 체계 정비와 함께 “각 분야 노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노인들을 좀 더 잘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가(在家) 보전 복지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6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본당 노인분과장과 분과위원, 노인 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인사도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노인지도자 연수회가 열렸다. 정찬남 한국여성생활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가톨릭교회는 먼저 노인을 복지 대상이 아닌 발달 단계로 이해하는 쪽으로 노인사목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바람직한 노인사목을 위한 전제로 △노인에게 호의적인 공간으로서 본당 △관할 지역 내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노인사목 범위 확대, △노인들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다각적 사목 프로그램 개발, △본당 노인사목분과 신설 및 예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한 모든 이들이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노인주일을 제정함으로써 노인사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평협의 여성지도자 교육

서울평협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

당(1일만 7층 강당)에서 여성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본당 사목회 여성임원 총구역장 구역반장 등 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지도자 교육은 사목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임원학교를 개설한 의의를 살려 여성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교회 가르침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³⁹⁷⁾

강의의 주제와 강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한홍순 평협 회장, 한국외국어대 교수), △여성의 존엄(강영옥 박사, 가톨릭대 강사), △환경(원이숙 박사, 서울평협 환경분과위원장), △생명윤리(이동익 신부, 가톨릭대 교수), △나눔(이기우 신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등으로 주로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서울평협의 비전회의 워크숍과 임원학교

서울평협은 2004년 3월 4일 제1차 평협 비전회의 결정에 따라 2004년 4월 3일 비전 회의 제1차 워크숍을 열어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³⁹⁸⁾ 염수정 주교와 정월기 지도신부 등이 함께 한 이 워크숍은 올바른 평협의 위상과 역할을 찾기 위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는 △이웃 종교에서의 평신도 위상과 역할(변진홍 교수),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과 평협(최홍준 평협 사무총장), △평협 역사에 비추어본 평협 역할(이창훈 신부), △세상 NGO와 평협(정찬남 교수), △평협(타교구 포함) 구조와 평협(유충근 통합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등 12개 주제였다.

서울평협은 비전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본당 사목회 총회장과 임원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기본소양을 높이기 위한 임원학교를 2005년 2월 21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 개설하였다.³⁹⁹⁾ 강사는 박준영 몬시뇰(서울대교구 법원 사법대리, 신당동성당 주임), 임병현 신부(가톨릭대학교 총장), 민병덕 신부(사목국장), 이동익 신부(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이었다.⁴⁰⁰⁾

제1기 임원학교는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평신도사도직을 앞장서 수행해야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소양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목위원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조직관리, △교구 사목정책과 방향, △평신도 지도자가 알아야 할 사회현상과 이슈, △미사성제와 전례 등으로 21세기를 향한 본당사목 비전 모색이었다.

제2기 임원학교는 2006년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8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평신도사도직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회론과 교

397) 「평화신문」 2005.10.9

398) 「평화신문」 2004.4.11

399) 「평화신문」 2005.3.6

400) 「평화신문」 2006.2.1

회법, 신학과 윤리 등 이론적 부분과 교회 안에서 필요한 전례와 사목 등 실무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 과정은 △친교의 교회, △교회법, △선교신학, △사회윤리신학, △생명윤리, △평신도사도직, △전례, △사목실무 등으로 짜였다.

서울평협의 하상신앙대학

서울평협은 신자뿐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한 지성인 강좌로 2004년 9월에 명동성당 코스트홀에 ‘하상신앙대학’을 개설하였다. 김수환 추기경과 각 교구장을 비롯한 주교, 신부, 평신도 학자, 언론인 등 명망 있는 가톨릭 인사들이 강사로 초빙된 강의를 일반인에게까지 개방하자 그 반응은 교외 안팎으로 가히 폭발적으로 컸다. 8월초 개설 공지가 나간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8월 말에 수강신청인원이 천 명을 훌쩍 넘겼다. 신청자는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있었으며, 불교와 개신교 신자 등 비가톨릭 신자 비율이 30%에 달하였다.⁴⁰¹⁾ 이것은 서울평협이 강좌를 개설하면서 강사들의 비중으로 보아 성과를 기대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나타난 성과는 예상했던 바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다.

제1기 하상신앙대학은 2004년 9월 7일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의는 정진석 대주교의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김수환 추기경의 ‘삶이란 무엇인가?’, 정하권 몬시뇰의 ‘교회와 사회’, 이창연 신부의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유홍식 주교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김진소 신부의 ‘신앙 선조들의 삶과 신앙’, 정의채 신부의 ‘21세기 가톨릭 지성인의 역할과 사명’, 차동엽 신부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종교 환경의 다원화’, 노길명 교수의 ‘가톨릭과 사회변화’ 등이었다.

제2기 하상신앙대학은 2006년 9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열렸다. ‘주교님과 평신도의 만남’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 제2기 하상신앙대학은 9월 11일 박정일 주교의 ‘인생의 근본문제’, 9월 18일 조광 고려대 문과대학장의 ‘순교자들의 신앙’, 9월 25일 두봉 주교의 ‘평신도와 성직자의 협력관계’, 10월 9일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가톨릭과 비판언론’, 10월 16일 권혁주 주교의 ‘은총생활과 의화교리’, 10월 23일 안명옥 주교의 ‘생명문화-생명 사랑을 위한 반성’, 10월 30일 이병호 주교의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11월 6일 이용훈 주교의 ‘평신도의 소명과 사회생활’ 순서로 진행되었다.⁴⁰²⁾

401) 「평화신문」 2004.9.5

402) 「평화신문」 2006.8.25

서울평협의 회칙개정과 교육 프로그램 변경

서울평협은 2007년 1월 2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07년도 활동지표를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신앙성숙을 위한 성인교육 강화, △가정사도직 활성화(청소년·청년·제3인생기 포함), △사회사도직 활성화, △생명문화 창달, △문화 복음화, △평신도사도직 연구·조사 활동, △선교활동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구 내 각 본당 가정분과와 연대 및 청소년·청년·제3인생기 사도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정사도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서울평협은 이런 맥락에서 회칙을 개정하였다. 새 회칙은 부부분과와 환경분과위원회를 각각 가정분과와 생명·환경분과위원회로 바꾸고, 가정·사회사목 연구소를 사회사도직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서울평협이 그 동안 신앙교육 강화를 위하여 개설하였던 하상신앙대학, 선교포럼, 여성지도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평신도학교’로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평협 제50년기를 향한 서울평협의 교육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평협과 서울평협의 평신도학교

평협 평신도학교는 평협 설립 40주년(2008년)을 앞두고 이 땅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교육과정은 1년 2학기로 △기본과정: 제2차 바티칸공의회 16개 문헌에 대한 교육, △특수과정: 선교·여성·청년·노인·환경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강좌와 포럼 형식의 교육, △여름학교 과정: 여름 방학 동안 교회 학교 시설에서의 일주일 정도 집중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설되었다.⁴⁰³⁾

서울평협도 2007년 1월 20일 개최한 제37회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종전에 실시해오던 하상신앙대학, 사회포럼, 여성지도자 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평신도학교로 재편하였다. 서울평협이 이와 같이 평신도학교로 교육 프로그램을 일원화 한 것은 신앙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평신도학교로의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교육 장소를 명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몇 개의 교육을 서울대교구 3개 지역으로 분산하고,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전국 어디서라도 볼 수 있게 한 점이다. 이 점은 기존 교육과 확연히 구별된다.⁴⁰⁴⁾

서울평협 교육의 ‘3개 지역 분산 개최’는 신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목 일선으

403) 「평화신문」 2001.1.1

404) 「평화신문」 2007.1.25

로 찾아가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신자들은 지금까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만 여겨온 각종 교육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교육 참여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 사도직 활동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중심 사목 정착이라는 교구 사목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은 획기적 전환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기회를 지방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특정 교육 장소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이처럼 첨단매체를 통해 신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인터넷 교육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교육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평신도학교 과정 가운데서 새로 추가된 현대 가톨릭교회 지침서라고 불리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전반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해주는 ‘공의회과정’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서울평협 한홍순 회장이 말한 바와 같이, “평신도가 정체성을 갖고 교회와 사회 복음화에 나서도록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교육”이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평신도학교는 공의회과정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다변화한 것이 특징”⁴⁰⁵⁾이라는 점이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405) 위의 주와 같음.

VIII. 문화·언론·출판 분야

평협 제40년기 문화·언론·출판 분야 활동은 2000년 대희년을 맞는데다가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에 따른 1, 2주기 추모 문화제 외에 평신도주일 기념 성가합창제, 우리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과 수상작 발표회 등 문화 부문에서 풍성하고 다양했다. 언론·출판 활동도 활발하여 한국평협의 「평협30년사」와 「수원교구 평협사」 발간, 한국평협, 서울평협 회보 발간과 부산평협 회보 창간과 더불어 서울, 광주 평협의 도서출판도 있었다. 한국평협과 교구 평협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이 시기에 이루어져 뒤늦기는 하였지만 디지털시대에 평협의 지평을 열었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공연

평협 제40년기의 첫 문화예술 활동은 강원도 동해시 평협(회장 안광호)의 ‘대희년맞이 음악제’이다. 1999년 12월 27일 오후 7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이 음악제는 원주교구 북평 본당과 천곡동 본당, 춘천교구 묵호본당, 군중교구 해군 동해본당 등이 2000년 대희년을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⁴⁰⁶⁾ 3부로 구성된 이날 음악제는 본당별 성가발표에 이어 ‘가족 성가 경연대회’, ‘4개 본당 연합성가 발표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해시 평협은 각 교구 및 본당간의 화합을 위해 1997년 봄부터 매년 ‘동해시 한마음 음악회’를 열어오던 것이 인연이 되어 이 음악회제까지 주관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주평협은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순교자성월을 맞아 2001년 9월 2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전주교구 가톨릭예술단(단장 문치상)을 초청하여 국악뮤지컬 ‘님이여 사랑이시여’ 공연을 마련하였다.⁴⁰⁷⁾ 이 작품은 원래 1997년 전주교구 설정 6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2000년 서울과 부산 공연을 거쳐 청주 공연을 갖게 된 것이다.⁴⁰⁸⁾ 이번 공연은 청주교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충주 동헌(충주시 성내동 관아공원)에 시복·시성을 추진 중인 신유박해 순교자 이부춘·석중 부자와 권아기련 3위의 현양비와 처형지 표지석의 기금 마련을 위하여 청주평협이 특별히 기획한 행사였다.

406) 「평화신문」 1999.12.19

407) 「평화신문」 2001.9.2

408) 이후에도 전주교구 가톨릭예술단의 국악뮤지컬 ‘님이여 사랑이시여’는 대구대교구의 교구설정 90주년 및 대구 평화방송 개국 5돌을 맞아 교구 순교자 23위의 시복시성을 위해 2001년 9월 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초청 공연되었고, 광주 평화방송도 신유박해 순교 200돌을 기념해 이 공연을 초청하여 2001년 9월 1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랐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추모 문화제

평협은 2006년 4월 6일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2005년 4월 2일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주기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제1부 개회식은 추모곡 합창과 추모사로 진행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회고하는 제2부는 보다 다양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기록영화 상영에 이어 이해인 수녀의 추모시 낭독과 수도자, 젊은이, 평신도, 성직자들의 교황에 대한 증언 발표도 있었다. 주한 폴란드 대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조국 폴란드’를,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제2의 모국 이탈리아’를 제목으로 교황의 애국심을 회고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생애 회고를 통해 그분의 성인다운 면모를 일깨웠고 한홍순 평협 회장은 ‘교황님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제3부는 교황님과 한국교회로서 교황을 위한 연도와 하느님의 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구를 통하여 은혜를 간청하는 기도로 끝났다.

평협은 2006년에 이어 2007년 4월 11일 서울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주기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추모 문화제는 1, 2부로 진행되었다. 제1부 추모식에서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Emil Paul Tscherrig) 대주교의 순서로 추모사가 낭독되었다. 그리고 제2부 3인무 “눈물”(임마콜라파), “돌아가신 교황님께 올리는 편지”(김아인 크리스티나, 계성여고 2학년), 노래(신상옥·나정신, 생활성가 가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 “침묵의 해안” 낭송(김희애, 탤런트), 자작시 낭송(신달자, 시인), “시성시복을 위한 기도”(한홍순 평협 회장), 가톨릭국악합창단 연주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졌다. 시와 음악과 춤 순서로 이어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2주기 추모 문화제는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형태로 진행되어 많은 참석자들이 마음 속 깊이 교황을 추모하였다.

한국평협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추모제를 두 해 연속 개최한 것은 그분의 높은 성덕과 생전에 한국교회에 특별했던 애정 때문이다. 특히, 그분의 한국교회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였다.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한국교회가 염원하던 순교자들을 성인품에 올려 세계에서 손꼽히는 많은 성인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였고 세계성체대회를 서울에서 열게 하였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수차에 걸쳐 한국교회를 언급하는 등 한국교회를 결코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평신도주일 기념 성가합창제

서울평협은 2005년부터 평신도주일을 기념하는 성가합창제를 개최해 왔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여라.’(시편 96,2)를 주제로 매년 평신도주일을 자축하며 친교와 일치를 위한 사랑 나눔 잔치로

마련되는 이 성가합창제에는 서울대교구 15개 지구에서 각 지구를 대표하는 본당 또는 연합 성가대가 출연해 평협의 우리성가 작곡 공모 당선곡과 함께 다양한 전례곡을 연주한다. 이 성가합창제는 2007년까지 3년간 차질 없이 개최되면서 참가하는 합창단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알찬 연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협 우리성가 작곡 공모

평협은 우리 정서에 맞는 아름답고 친근한 성가를 통해 전례를 토착화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제1회 우리성가를 공모하였다. 이 작곡 공모에는 총41점(28명)이 응모하여 김승용 세례자요한(가톨릭대 신학과 3년)이 작곡한 “성가정”을 비롯해 모두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⁴⁰⁹⁾

제1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 겸 수상작 발표회는 2007년 6월 2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염수정 주교는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성가정” 작곡자 김승용 세례자 요한에게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상금 100만 원)에 이의선 마리아(서울 청담동 본당), 장려상(50만 원)에 박수진 안젤라(인천교구 구월1동 본당)·김재원 이냐시오(대구대교구 국우 본당)·김승용 세례자 요한(2곡 응모 중 최우수상외 다른 1곡)·설세찬 대건 안드레아(서울 봉천8동 본당)·박현미 체칠리아(로마 유학)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평협은 2007년 이후에도 매년 우리성가 작곡 공모를 계속하고 있다.

「평협30년사」 등 발간

평협은 1997년도에 「평협3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과 12월에 편찬위원과 편집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발간작업에 착수했다.⁴¹⁰⁾ 평협은 이 30년사 편찬을 위해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999년도에 3차에 걸친 제작 편찬회의를 거친 끝에 1999년 12월 29일에 「평협30년사」를

409) 「평화신문」 2007.7.9

410) 「평협30년사」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류덕희, 위원 김기주, 최옥식, 변평섭, 김서곤, 이규정, 황재웅, 오영창, 정운주, 남기충, 김형렬, 김경환, 이명원, 양천진, 노연웅, 강주희, 최홍준, 이운자, 강수길이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강수길, 위원 강주희, 최홍준, 이운자, 김지유이다. 각 교구와 단체 집필위원은 서울 최홍준, 강수길, 대구 류시현, 최미화, 광주 서정권, 인천 강춘섭, 전주 김동주, 안동 박영조, 제주 김경환, 원주 엄증관, 춘천 이명원, 김춘배, 부산 김해길, 마산 윤영환, 청주 신성일, 대전 박종균, 군중 김용환, 성령쇄신봉사회 남현옥, 기타 단체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3천권 발행하여 2000년도에 이를 교회 각 기관과 교구 평협에 배부했다.

「평협30년사」는 류덕희 평협 회장이 발간사, 박정일 주교회의 의장의 축사, 모란디니 교황대사와 김옥균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장 주교의 격려사, 정월기 지도신부의 축사와 화보를 비롯하여 제1편 한국평협사, 제2편 교구 평협사, 제3편 전국단체사, 제4편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무려 1200쪽에 달하는 부피로 발간된 「평협30년사」는 부록 편에 역대 회장과 사무총장 및 간사의 회고, 평신도 선언문, 평협 연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평협은 1977년 6월 25일에 창간되어 발간되어오던 회보 「가톨릭 서울」의 제호를 1998년 1월부터 「서울평협」으로 바꾸었다. 부산평협은 1998년 3월에 첫 회지 「부산평협」을 창간하였다. 한편, 수원평협은 2003년 11월에 34년 역사를 정리한 「수원교구 평협사」를 792쪽 분량으로 펴냈다. 「수원교구 평협사」는 단순히 평협 역사 기록 차원에 그치지 않고 평신도 신원, 평신도 용어 유래와 의미, 한국천주교회 회장제도 등 평신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또 평협에서 실시한 각종 행사와 신앙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도 함께 실고 있어 수원교구뿐만 아니라 타 교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⁴¹¹⁾

서울평협은 2004년 여름에 「아름다운 가정」을 발간하였고, 전국평협은 그해 겨울에 「아름다운 세상」을 내었다. 이 책들은 제목만 보면 단행본 같지만 내용은 회보이다. 서울평협과 한국평협 회장을 겸임한 손병두 회장이 그 동안 추진해온 ‘아가운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같은 형태로 회보를 낸 것이다. 「아름다운 가정」에는 손병두 회장 인사말,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총대리 염수정 주교, 지도신부 정월기 신부 격려사에 이어 서울평협 상반기 화보, ‘아가운동’ 소개, 평협 소식 등이 실려 있다.

교구 평협의 도서출판

서울평협은 2005년 3월에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현대인을 향한 영혼의 울림」(가톨릭출판사)를 출판했다. 이 책은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었던 하상신앙대학 강의록을 한데 묶은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가톨릭교회 명사들의 강의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교회 안팎으로부터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였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책 제목이기도 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정진석 대주교)를 시작으로 ‘삶이란 무엇인가?’(김수환 추기경),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최창무 대주교), ‘과연 하느님은 계시는가?’(오창선 신부), ‘교회와 사회’(정하권 몬시뇰),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이창영 신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유홍식 주교), ‘신앙 선조들의 삶과 신앙’(김진소 신부),

411) 「평화신문」 2003.11.9

‘21세기 가톨릭 지성인의 역할과 사명’(정의채 신부), ‘문학과 인생’(김후란 시인),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전망’(차동엽 신부), ‘현대 종교문화의 흐름과 가톨릭교회’(노길명 교수) 등 모두 12강좌를 망라하고 있다. 서울평협은 2008년 11월에 「공의회학교」 전2권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2007년 3월에 개설된 평신도학교의 공의회 수업 전 과정의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한편 광주평협은 2006년 8월에 도서 「만 번을 죽어도 하느님을 믿겠습니다」를 발간했다.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교구 순교자들을 확인하고 순교지를 성지로 개발하려는 노력의 결과를 묶은 이 책은 광주평협이 2003년부터 매년 주최해온 ‘나주 무학당 성지개발’, ‘순교지 성지개발’, ‘교우촌 고찰’ 학술회의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평협 홈페이지 개설

평협은 2003년 9월 평협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lak.or.kr>)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는 △한국평협-소개, 임원, 주요사업, 기구 및 회칙, △교구 평협-서울평협 소개 및 주요사업, △도덕성 회복- 내 탓이오와 똑바로 운동에 대한 소개 및 자료, △게시판-평협을 비롯한 각 교구 평협 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선언문·호소문 평협지 등 5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으로 보는 평협 발자취가 함께 마련되어 있다. 평협의 홈페이지 개설은 「평화신문」에도 보도되었다.⁴¹²⁾

평협의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서울평협도 홈페이지(www.clas.or.kr)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의 구성은 △서울평협 소개, △임원 현황, △활동 소개, △게시판, △자료실 등 5개 메뉴로 되어 있다. 서울평협 홈페이지의 특징은 통합검색과 함께 동영상 갤러리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점이다. 서울평협은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평협이 주관하는 주요 교육을 녹화해 동영상 갤러리에 올림으로써 가능한 많은 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실은 평신도사도직과 관련한 다양한 문서와 사진 자료들이 실려 있다.

「한국평협」, 「아름다운 세상」, 「평협소식」 발간

평협은 전기에 출간해온 회보 「한국평협」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회씩 계속 출간하였다. 그 이후 회보 출간이 없다가 2004년에 서울평협 회보 「아름다운 가정」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412) 「평화신문」 2003.9.21

이라는 제호로 회보가 발행되었다. 여기에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 ‘격려말씀’, 손병두 회장 인사말, 2004 평협 활동, 평신도 주일 강론과 포스터, 각 교구 평협 활동, 단체소식, 교회소식, 전국 평협 2005년도 사업계획안, ‘아가운동’, 동정, 평협 인원 명단 등이 실렸다.

2006년 2월 28일부터는 한홍순 회장을 발행인으로 하여 격월간 「평협소식」 1호가 발간되었다. 구성은 한국평협과 교구 평협 소식, 그리고 전국사도직 단체 소식의 순서로 되어 있다. 2006년에는 1호(2월), 2호(4월), 3호(7월), 4호(9월), 5호(11월)가 발간되고, 2007년에 6~11호가 홀수 월에 발간되었다.

IX. 국제관계 분야

평협 제40년기 국제 분야 활동의 특징은 어느 때보다 많은 국제회의 참석이다. 그것은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교회와 평협을 알리는 기회가 그 만큼 많았음을 뜻한다. 특히 한홍순 평협 회장은 보편교회의 대표적 평신도로서 독보적 활동을 하였다. 그런 가운데 아시아 교회 지원과 지진피해 구호기금 전달 같은 선진 교회의 평협으로서의 역할에도 힘썼다.

잇단 국제회의 참석

1998년 8월에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을 단장으로 4명이 동아시아 평신도대회에 참가하였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윤갑구 민족화해특별위원장이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인평화회의의 총회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범종교회의에서 한국교회와 평협을 알렸다.

2000년 대희년에는 최홍준 평협 사무총장과 최영철 서울ME 대표가 로마에서 개최된 ‘대희년 세계가정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로마에서 개최된 ‘대희년 세계평신도대회’에는 여규태 평협 회장과 김형중 부회장, 한홍순 바티칸평신도평의회 위원 등이 참가하여 한국평협이 보편교회 평신도 단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확인시켰다.

2001년에는 한홍순 교수가 평협 대표로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에서 개최된 국제가톨릭교우협의회(UNUM OMNES: International Council of Catholic men)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였다. 한홍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울대교구 시노드와 평협이 펼치고 있는 ‘똑바로 운동’, ‘낙태반대 및 사형제도 폐지 운동’ 등 한국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함으로써 한국평협의 역동성을 세계 교회에 알렸다.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 반포 40돌 기념 국제회의 참석

2006년 1월 16일부터 6일간 태국 파타야 구속주회 피정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 반포 40돌 기념 국제회의’에 한홍순 평협 회장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최기산 주교와 총무 이기우 신부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 산하

인간발전사무국(OHD) 주최로 열린 이 회의에는 20여 개국 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4개조 분임토의 등을 통해 시대적 징표에 대한 각성과 종교간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졌다.

바티칸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레나토 마르티노(Renato Martino) 추기경은 기조연설에서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이 반포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 세계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그리스도교 사회사상의 기본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과 현장의 핵심 내용이 담긴 「간추린 사회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

특히, 이 회의 참석자들은 종교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관용에 토대를 둔 범 아시아적 차원의 종교 신학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시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종교적 다양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종교들과는 물론 민속신앙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하며 대화는 근본적으로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 시대의 징표로서 다른 학문 분야의 성과를 읽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 공감하였다.

한홍순 회장의 독보적 국제 활동

2006년 9월 21일부터 3일간 로마에서 열린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제22차 총회에 한홍순 평협 회장이 참석하였다. 특히 한홍순 평협 회장은 이 회의에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함으로써 보편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높은 위상을 확인하게 하였다.

‘본당의 재발견-쇄신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 지역 평신도평의회 위원들과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 교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대한 교회, 즉 일선 본당의 적절한 대응이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목의 중심은 본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한홍순 회장은 “교회 쇄신은 바로 본당 쇄신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석자 모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회의였다.”고 설명하고 본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후에도 한홍순 평협 회장은 2007년 3월에 로마에서 개최된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주최 제9차 국제청년포럼에 참석하였고, 2007년 9월에는 미국 코네티컷 주 뉴헤븐에서 열린 UNUM OMNES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열린 UNUM OMNES 운영위원회에는 세계의 13개 가톨릭 주요국의 평신도 대표 2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빈곤·환경 및 평화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주제 강의를 들었으며, 각국 평신도사도직 활동 보고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들이 가톨릭 사회교리를 가정과 직

장,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홍순 평협 회장은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참석자로서 실질적으로 아시아 교회들을 대표하였고 그 소명을 잘 수행하였다. 그는 이 회의에서 2006년 아시아 선교대회를 설명하고 2008년 설립 40주년을 맞는 한국평협의 다양한 활동과 서울대교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음화 2020 운동’을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교회와 아시아 교회에서의 한국교회의 위상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평협의 아시아 교회 기금지원

평협은 2005년에 한국교회 출신 외교관으로 방글라데시 주재 교황대사로 가 있는 장인남 대주교를 통해 방글라데시 교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지진피해 구호기금을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보냈다. 평협은 2007년에도 인도네시아 파당교구 교구장 시투모랑 주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X. 민족화해 분야

평협이 2000년 대희년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 1998년은 평협의 민족화해 분야에서도 중요한 해였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최창무 주교와 함께 평협 대표들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었으며, 청주평협과 대전평협이 대희년 준비와 교구설정 기념으로 북한동포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평협에는 민족화해특별위원회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협 제40년기 민족화해 분야 활동은 용두사미에 그친 아쉬움이 없지 않다.

평협 회장 등의 평양 방문

류덕희 평협 회장은 1998년 5월 한국 평신도 공식기구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종교인협의회 회장 겸 조선천주교인협회 회장 장재철(그 후 장재언)등과 만났다. 류 회장은 당시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김수환 추기경을 대리해서 북한을 사목(司牧)적으로 방문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최창무 주교와 함께 방북한 것이다. 이때의 북한 방문에는 이기현 신부, 오테순 신부, 조광 교수 등 민족화해위원회 위원들과 평협 인사로 류덕희 회장 외에 이윤자 문화분과위원장 등이 동행하였다.

1995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최창무 주교의 뉴욕에서 북한 신자들과의 만남에 이어 1998년 북한 방문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자리에 평협 대표 참석의 의의는 크다. 그것은 성직자 없는 북한 교회에 평신도 차원의 교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⁴¹³⁾ 류 회장은 방북 후에 그 동안 우리 교회가 감자·옥수수 보내기, 국수나누기, 한 주 한 끼 굶기 모금운동, 사랑의 옷 보내기 운동 등 북한 돕기 운동을 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이념보다 인간애로 한 핏줄을 나눈 한민족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할 일로 생각된 때문이라고 말했다.⁴¹⁴⁾

이후에도 평협은 교구와 평협 차원의 북한선교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단에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또한 북한선교의 가능성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평신도와 평협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413) 「평협30년사」, 268쪽.

414) 「서울평협」 1998.12.31, 3면.

북한 동포 돕기 운동

평협 제40년기 민족화해 분야 활동의 첫 발은 청주평협이 내디뎠다. 청주평협은 1998년 1월 18일 청주 가톨릭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남북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북한 돕기 및 통일기금조성을 위한 ‘3000운동’ 전개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결정하였다.

‘3000운동’은 청주교구 설정 40주년과 2000년 대희년을 맞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나눔을 통해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한 끼 단식, 담배나 커피 절제 등으로 하루 백 원 이상 절약하여 매월 3천 원 이상을 봉헌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으로 2000년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1억 4천만 원에 달하였다. 청주평협의 당초 계획은 모금된 성금을 통일부를 통해 초대 청주교구장 파 야고보 주교의 최초 사목지역이었던 평안북도 의주와 신의주 등에 지정기탁 할 예정이었다.⁴¹⁵⁾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알게 된 청주평협은 일단 모금액 중 5천만 원을 주교회의 민족화해 위원장 강우일 주교를 예방하여 북한 동포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 성금 전달은 1999년 10월 대희년 전국 가정대회 때 청주교구가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봉헌기로 약정한 데 따른 것이다.

청주평협에 이어 대전평협도 북한 교회와 북한동포 돕기 운동에 나섰다. 대전평협이 교구 설정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8년 4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북한동포를 위한 단식기도 일자에 맞추어 40끼 단식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대전평협은 40끼 단식을 통해 예수의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체험하고 교구설정 40주년의 의미를 살리면서 신자들 개개인이 자기희생으로 침묵하는 북한의 교회와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돕고, 이를 통해 신앙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모금방식은 신자들이 12월 말까지 40끼 단식운동으로 한 끼 당 천 원씩 모은 성금을 매월 마지막 주일에 교구 평협 온라인 구좌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평협 민족화해특별위원회 설립과 활동

평협의 민족화해특별위원회는 1998년 2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희년의 취지를 감안하여 활동목표 속에 민족화해와 북한 돕기를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활동 전담기구로서 신설되었다.⁴¹⁶⁾

평협 민족화해특위 설치 취지문은 “우리 민족 내 분열과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 해소하고 민족의 일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 기획하여 평신도 자신이 변화하고 사랑함으로써 민족화해 사업

415) 「가톨릭신문」 1998.1.25

416) 「평협30년사」, 260쪽.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민족화해특별위원회를 평협에 설치한다.”⁴¹⁷⁾고 설립 목적을 명시했다.

민족화해특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는 서울평협 민족화해특별위원장 윤갑구 바오로가 선임되고,⁴¹⁸⁾ 부위원장에 명길랑 요셉, 그리고 위원으로 전홍재 미카엘, 유호열 바오로, 조만형 치릴로, 여상기 요셉 등 4인이 위촉되었다.

평협의 민족화해특별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따라 상당히 폭넓은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① 남북화해, ② 전국 각 교구의 본당 내 소외계층과 갈등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대화와 화해를 시도하고, ③ 동서화합과 해외교포 및 교회 내외 민족화해 관련 제 단체와의 관계 개선, ④ 탈북자 및 불우 해외동포 돕기, 해외입양아 후원, 해외봉사자 양성 기타 민족화해 관련 홍보 발간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세미나 개최 등이다.

평협 민족화해특위는 1998년 11월 17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9년 7월 6일까지 아홉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평협의 대회년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1999년 7월 10일에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제1차 민족화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평협 민족화해특위의 민족화해토론회는 2004년까지 거의 매년 개최되었다.

특히, 평협 민족화해특위 주최 토론회 가운데 2004년 6월 14일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최된 제4차 민족화해토론회는 매우 큰 성황을 이루었다. 25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 김윤희 주교는 ‘우리 민족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남북 화해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강조했다. 제1주제로 ‘민족화해의 재정립’(발표: 김성락 서울평협 민화위 위원, 토론: 정달영, 이부영, 유호열), 제2주제로 ‘평신도 역할의 활성화’(발표: 조만형 서울평협 민화위 위원, 토론: 이광규, 성경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평협 민족화해특위 주최토론회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평협 민족화해특위가 민족화해분과위원회로 바뀌고 김현욱(돈보스코) 위원장이 책임을 맡으면서 민족화해 부문보다는 북한이탈 주민 돕기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등에 더 큰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997년부터 평협의 예산편성에 계상되기 시작한 민족화해 항목 예산은 2004년 이후에 독립적으로 책정되거나 집행되지 않고 사회교리 실천 항목 속에 포괄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⁴¹⁹⁾

417) 「평협30년사」, 266쪽.

418) 서울평협은 이미 1996년에 민족화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허기 자문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지만 일신상의 사정으로 육종권 부회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하다 윤갑구 위원장이 선임되었다.

419)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업계획서(1998~2008)」, 16-23쪽.



White Paper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평협 제50년기를 위한 반성과 제언

I. 반 성

II. 제 언

40th
CLAK

I. 반 성

평협은 1968년 창립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불린 평신도의 소명”⁴²⁰⁾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의 긴 세월 동안 활동에서 크고 작은 부족한 점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여기서 그런 점들을 성찰하고 반성함은 평협 반세기에 들어서는 제50년기에 이 땅에서 보다 더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나라가 추구될 수 있는 알찬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보편교회의 평신도 인식 변화에 따른 반성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평신도 신원 회복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한 자긍심이 무조건적인 성직주의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연결되어 문제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평신도가 없다면 교회도 없다. 평신도는 더 이상 기도하고, 돈 내고, 복종하는 보잘것없는 속된 신분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사명을 자신의 고유한 사명으로 알고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신분이다.”⁴²¹⁾에서 “평신도가 없다면 교회도 없다.”는 대목을 강조한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히에로니무스 성인의 “사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로 대변되는 ‘제도주의적 교회관의 성직주의’에 맞먹는 또 다른 ‘평신도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분명히 ‘제도주의적 교회관의 성직주의’는 극복되어야 하듯이 우리 교회에 ‘평신도주의’도 결코 안 될 말이다. “사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이나 “평신도가 없다면 교회도 없다.”는 말 그 자체는 모두 옳다. 문제는 그 말들을 누가 하느냐이다. 성직자들이 평신도 앞에서 “사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직주의’라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이 성직자들에 대해 “평신도가 없다면 교회도 없다.”는 주장을 편다면 그 또한 ‘평신도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은 평신도가 해야 되고 “평신도가 없다면 교회도 없다.”는 말은 교회법이나 성직자의 말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론에 기초한 1983년 교회법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호적이고도 대내외적인 대화와 협력 그리고 연대로써 협력

420) 「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

421) 「한국 가톨릭 대사전」 11, 8914쪽.

사목을 실천할 수 있고 그로써 친교로서의 교회를 건설하고 성사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다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협 결성 이후 평신도 지도자들은 성직자들 앞에서 “사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보다 “평신도가 없다면 교회도 없다.”는 주장을 펴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의식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한국교회가 평신도의 힘으로 일군 교회라는 자부심이 그러한 의식을 더욱 강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의식이 평협의 의사결정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교회내적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주교회의와의 관계에서 평협은 지난 40년간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

그 반성의 근거는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며,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는 표시이며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보증이다.”라고 말한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의 가르침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도의 데수자(D'Souza) 대주교가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원칙 즉 “주교 없이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남용함으로 평신도 고유의 책임을 빼앗지 말도록 권고했다는 사실이 주교회의에 반하는 평협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 그 역시 주교의 직접 협력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는 했지만 주교를 거스르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장전으로 공포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은 분명하게 “주교들과의 일치하는 그리스도교적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이다.”⁴²²⁾라고 규정하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도 “어떠한 은사라도 교회의 사목자들에 대한 순종과 그 보증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⁴²³⁾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내적 관계의 반성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는 평협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다. 작게는 서울 본당들의 제1회 ‘평신도사도직의 날’ 평신도 강론 거부에서부터 크게는 서울평협 활동정지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관계 속에서 전국 본당의 평협 결성은 매우 부진했다. 그 원인을 본당 신부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하지만 평협이 본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평협 제50년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과거와 같이 교회내적으로 걸끄러운 문제가 다시 재발하거나 거론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는 것은 평협의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22)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23항.

423) 「평신도 그리스도인」 24항.

1978년 1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평협 등 전국 단체의 교구 단위 환원과 전국 기구의 명칭과 운영방법 폐지안 제기로 교회내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일은 평협사(平協史)의 큰 상흔(傷痕)의 하나로 남아 있다. 평협 출범 후 만 10년이 지나 생긴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평신도의 시대’의 도래에 만족한 나머지 평협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연구를 소홀히 한 결과이기도 하다.

당시에 전국 단체 해체 안건은 해결을 통해 종식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주교회의 총회에서 보류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평협이 정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주교회의와 깊은 논의과정을 거쳤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후 만 10년이 지난 1998년에야 ‘평협 30주년 기념 평협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우리신학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는 부족하였다.

1974년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천주교 교구구조 통일 원칙 안’이 마련된 후 지적되었던 평협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교회내의 수많은 사도직 단체들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이 여전히 약하며 본당의 최소 단위 단체원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다. 그 때문에 본당이나 교구 모두 평협과 사목협의회를 혼동하고 평신도 단체들이 사목협의회에 흡수되어 평협이 없는 본당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적지 않은 본당 신부들은 본당의 평협이 압력단체 구실을 할 것을 염려하여 평협의 조직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교구 평협들은 대부분 본당 평협의 뒷받침 없이 교구마다 구성형태가 제각각이다.

이러다보니 평협의 정체성은 더욱 모호해지고 그 입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평협이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창립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평협이 한국교회에서 제자리를 차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평협은 1980년대 말부터 ‘평신도 제자리 찾기’라는 관점에서 상임위원회 때마다 개최지역 교구 평협의 활동 상황을 청취하고 친교의 시간을 갖는 등 이해와 협조의 장을 마련하였을 뿐이다. 이것이 평협과 주교회의 사이에 가로놓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기에 1978년 이래로 평협의 주교회의와 관계는 계속해서 불안정했다.

그런 불안정한 관계에서 평협이 주교회의에 낸 건의들이 순순히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1978년 평신도주일 헌금 관리 개선안, 1984년 11월 전국 사목회의에서 선포된 ‘평신도 의안’에 대한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 실천 건의, 1996년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 전개와 성직자와 수도자들도 함께 변하자는 제안, 1997년 평신도의 위상제고를 위해 각 교구에 ‘평신도국’ 설치와 평신도의 교구 의사결정 참여 건의 등이 주교회의에서 거부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그것은 교회구조의 원리로서 협의체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만이 강조된 나머지 교회 공동체의 교도권적 일치에 따른 교계의 원리가 고려되지 않은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의 주요 반성 대목은 해소되지 않은 교도권과 평협의 갈등이었다. 특히, 1980년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이귀철(1986~1988년 평협 사무총장)이 “이 기간 중 평협의 역사는 교회 내적으로 ‘교계와 평협 간의 갈등’과 교회 외적으로 ‘반독재 투쟁’의 두 가지

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⁴²⁴⁾라고 회고한 것처럼 교회내적 갈등은 심각했다.

1987년 3월에 개최된 춘계 주교회의가 평협의 전국 활동을 새 회칙 마련 때까지 중단시킨 까닭을 깊이 새기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주교회의가 평협의 전국 활동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고 ‘4년 기한 부 회칙’을 제시하자 평협은 수용을 거부하는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또한 그해 말 평협 회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민주쟁취국민운동 천주교공동위원회’ 발족과 평협 회의실에 대통령 선거감시단 운영 본부 설치로 교회내부에 찬반양론이 일 때를 생각해보자. 그때 주교회의가 교회의 선거 초연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평협은 ‘한국 천주교 평신도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주교단의 그간 행적을 비판하였다. 이때의 상황은 주교회의와 평협 간 이념적 투쟁을 방불케 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의 권고까지 거슬러 올라가 상기하지 않더라도,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23항과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76항에 비추어 많은 반성의 여지를 남겼다.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23항은 주교들과의 일치성을 말하고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76항은 인간 초월성의 표지이며 보루로서 교회의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는 고유성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교회의의 담화문은 이런 교회의 입장을 밝힌 점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평협의 당시 정치 활동도 “정치 생활의 책임을 부여 받은 평신도들의 지상 현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76장에 합치되는 “절박한 책임으로 여겨지는 인간적 가치와 복음적 가치를 증언하려는 충직하고도 사심 없는 헌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치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민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그 목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⁴²⁵⁾는 점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평협의 주교회의와의 불안정한 관계는 평협의 회칙이 그대로 반영하였다. 평협 회칙은 1987년의 불완전한 상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채 1988년 10월 주교회의 인준이 있는 뒤에 1994년과 2008년 두 번의 개정과 주교회의 인준을 거쳤지만 그것은 용어의 수정이었을 뿐 본질적인 내용의 수정은 없었다. 따라서 평협의 회칙은 상당한 기간을 불완전한 상태로 있어야만 했다. 거기에 비해 평협과 함께 전국 활동정지를 받았던 가톨릭농민회는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1994년에 주교회의의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이끌어내었고 1996년부터 매년 7월 셋째 주일이 한국천주교회 전례력 상 ‘농민주일’로 제정되게까지 하였다. 이것은 교도권과 평신도 간에 교계의 원리, 협의체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가 조화된 화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본보기로서 평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평협도 지난 40년 동안 주교회의와 뜻을 같이 하여 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데 앞장섰

424) 이귀철, “격동기의 평협”, 「평협30년사」, 1158쪽.

425) 「평신도 그리스도인」 42항.

던 일이 적지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였다. 평협의 첫 활동으로 전개한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운동은 주교회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3위 성인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결실을 맺었고, 주교회의의 ‘생명31운동’은 평협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정의구현사제단이 독단적인 문규현 신부 평양 파견 사건을 문제 삼은 주교회의에 맞섰을 때 평협은 1989년 8월 3일 평협은 평신도 호소문을 발표하여 주교회의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협 지도부의 결정은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소리가 들릴 만큼 매끄럽지 못하였다. 특히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 호소문 발표가 그랬다. 호소문은 정의구현사제단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교단의 유감 표명에 반대함으로써 교계제도에 상처를 입힌 점만을 강조하는 데 그쳐 평협의 인식이 온전히 현실구조에만 묶여있음을 보여주었다. 거기에 더하여 상임위원회의의 합의도 거치지 않은 회장단의 일방적인 호소문 발표 결정으로 평협 내부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까지 제기하게 만들었다. 사전에 깊은 연구와 통찰이 없이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도 있다. 1990년 8·15 광복절에 서울평협이 교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북한 신자들을 서울에 초청하려다 교구로부터 교도권 차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벽에 부딪쳐 평협의 대북 관련 활동을 침체시키는 결과를 유발시켰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반성해야 할 문제는 교계와 평협 간 갈등만은 아니었다. 평협 안에서의 내부적 단절도 문제였다. 김태원(1980~1990년 평협 사무국 간사)의 회고에 의하면, 전국 평협과 서울평협이 상호 연대성을 잃고 비슷한 일을 양쪽에서 따로 준비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것이다.⁴²⁶⁾

평협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의 총합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과 단결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회를 향해 화합과 단결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평협이 지난 40년의 적지 않은 기간에 걸쳐 교도권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부적 화합에도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당시에 평협의 존재의의에 큰 흠집을 남겼다.

오늘날 평협의 정체성이나 위상 문제와 연관성이 깊은 명칭변경⁴²⁷⁾ 문제도 평협과 주교회의의 갈등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주교회의는 이 문제를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깊은 연구와 토론과정을 거쳤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교회의는 일찍이 1974년 가을 정기총회의 ‘교구 구조 통일 원칙’에 평협의 명칭을 ‘사도직협의회’로 할 것인가 ‘사도직단체협의회’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바 있었다. 그리고 2004년 3월 춘계 정기총회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평사위)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의 본질과 기능 등을 분명히 하고, 성서와 제2차 바티칸공의회회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하여 평신도의 고유한 은사와 교회의 역할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

426) 김태원, “평신도들의 빛이었던 회장님들” 『평협30년사』, 1163쪽.

427) 주교회의는 2010년 10월 21일 공문을 통해 현재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결정했다고 알리고 회칙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사위는 2004년 11월에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2005년 8월 9일자로 주교회의에 평협의 정체성과 위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1차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평사위는 2005년 11월에도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평협은 이 문제를 내놓고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덮어둔 채 시간을 끌음으로 해서 주교회의가 즉흥적으로 평협의 위상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오해를 증폭시켰다. 평협은 명칭을 포함한 정체성과 교회 조직 안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그 동기는 바로 교구 평협들의 서로 다른 구조와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칭에서는 한국평협을 구성하는 교구 대표로서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평단협)가 섞여 있다. 교구에 따라서는 조직구조상 ‘평협’과 ‘평단협’이 모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평단협’은 교구 ‘평협’의 산하 단체로서 한국평협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수원교구, 마산교구, 제주교구 등이 그 경우이다. 대구대교구와 춘천교구에는 ‘평협’이 없고 ‘평단협’이 한국평협의 구성원이다. 대구평단협은 교구사목협의회의 수직적 산하 조직으로서 인준 단체들과 본당(대리구) 평협으로 구성되는 반면, 춘천평단협은 재무평의회, 사목평의회, 총구역협의회와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본당은 배제된다.

교구 평협의 구조와 명칭은 교구장의 독자적 사목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통일적일 수 없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평협은 교구마다 다른 사례를 놓고 어떤 조직구조가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교연구와 나름대로의 통일된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방안을 가지고 주교회의 평사위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까지처럼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고 훨씬 원활하고 무난한 교회내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에서 반성해야 할 점으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지적된 “보조성 개념의 임의적 해석”이나 “평신도의 성직자화 경향”⁴²⁸⁾이다. 그 동안 평협은 성직자와 너무 거리를 두고 평신도로서 마땅히 목소리를 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까지 성직자들에게 맡겨두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성찰의 예를 1990년대 후반기의 인천평협에서 볼 수 있다. 인천평협은 출범 후 18년이나 되었지만 모든 사업이나 활동은 수동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구이건 본당이건 거의가 피동적 뒷바라지나 하는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원인으로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과 개인주의적 사고를 들었다.⁴²⁹⁾ 인천평협의 거의 모든 사업이나 활동이 수동적이었던 사실은 1997년 4월 13일 발표된 ‘강화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⁴³⁰⁾을 비롯한 지역사회 관련 성명서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성

428) 「평신도 그리스도인」 23항.

429) “인천교구 평협”, 「평협30년사」, 634쪽.

명의 주도자는 교구장과 교구 사제단으로 평협은 거기에 따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1990년대 인천평협에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인천평협만이 이에 대한 공개적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평협이 있다면 인천평협가 같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모든 부분에서 1990년대의 인천평협처럼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나마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냉철히 반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반성하면서도 그것을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반성을 통해 앞으로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평협의 지나온 과정을 한국교회의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교회 내외적 환경 사이의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관계를 인지하여 앞으로 보다 성숙된 평신도사도직의 길을 열어 나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희망적이다. 교계제도의 평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평협의 교회내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주교회의를 비롯한 교계와 평협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분야별 활동에 대한 반성

평협이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의 평신도 의안 제안사항’의 실천이었다. 그런데 평협이 이 제안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신교와의 일치운동이다. ‘평신도 의안’⁴³¹⁾은 분명히 그리스도교의 일치가 신학적 대화나 신자들의 상호 협조로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선교사명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40년간 평협 활동으로서 타종교와 공동으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개신교와 접촉 기회는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평협이 개신교와 교회일치를 위한 신학적 대화나 교류를 펼쳤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실만 보인다. 즉, 1970년 아시아 개발회의와 관련하여 평협은 개신교와 신학적 전망 등을 토의하는 등 신·구 교회 평신도간 신학적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조성되었으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 더 이상 평협 차원에서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평협은 이 일을 성직자들이나 할 수 있는 활동 밖의 일로 여겨온 것은 아닌가를 반성해보아야 한다.

평협의 40년간의 활동 내용을 보면,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실질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활동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평협의 재정이 평신도주일 헌금에 의존하고 있

430) 성명서 원문은 위의 책, 624-626쪽에서 볼 수 있다.

431)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의 의안의 평신도 의안’ 67항.

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협이 초기부터 역점을 둔 선교 분야의 사업별 예산을 예로 들면, 선교활성화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낮고 해외선교지원비 혹은 각 교구 평협에 책자 보급 등 간접적인 선교에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높았다.

평협의 활동도 인력과 예산상의 한계로 불가피하기는 했지만 특정 분야에 치우친 경향이 많았다. 사회교리 실천의 경우에 국가적 현안에 대한 의견 표출은 많았으나 시민운동으로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패산 터널, 부안 핵 폐기장, 천성산 도롱뇽문제 등에는 침묵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사회교리 실천의 예산집행도 구호성금 지원, 혹은 민족화해 위주의 지원, 사회교리학교 심포지엄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도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평협의 사회복음화 운동으로서 정치 분야 활동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회장의 성향과 리더십에 좌우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된 면이 없지 않았다. 정치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과 공선협 등 시민사회단체에 평협 명의의 대외활동 참가 문제에서 그런 면이 비교적 뚜렷하였다. 1998년 평협은 ‘나라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미사’와 축하식을 가졌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행사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회를 떠나 있기는 했지만 세례를 받은 신자였고 적어도 나라를 위한 행사라면 똑같은 행사를 주최했어야 했다. 그것은 정치 활동에서 “인간적 가치와 복음적 가치를 증언하여야 할”⁴³²⁾ 평협 활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했거나 공평성과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평협의 회원 단체와의 연대활동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도 반성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대표적 경제·사회 활동단체인 가톨릭농민회(가농)의 대정부 활동 연대에서 그랬다. 1980년대 정치적 혼란과 민주화운동과 연계한 가농의 도·농 유대 강화와 농정문제 시정 노력은 줄기차게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평협은 가농의 쌀 수매가 인상요구에 동참한 외에 정작 가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대부분 침묵했다.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으로 가농에 대한 왜곡과 비방에 평협은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 1986년 외국 농축산물 수입과 농가채무의 압박으로 파산농가와 자살 농민이 속출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한·미 통상협상 타결로 수입이 개방된 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실천대회를 가농이 주최하여 당국의 폭압적 저지가 자행될 때도 평협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와 노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려할 만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평신도들은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책임”⁴³³⁾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평협의 주요 활동으로서 도·농 한마당잔치 행사를 빼놓을 수 없다. 1998년 가을부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공동체 나눔 한마당잔치’는 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시와 농촌 공동체간의 서로 나눔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평협의 주요 연중행사로 자

432) 「평신도 그리스도인」 42항.

433) 「평신도 그리스도인」 43항.

리 잡았다는 데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농 한마당잔치 행사의 연례화(年例化)는 해를 거듭하면서 소기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1998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도·농 한마당잔치 행사는 연례적으로 치러지고 내용도 다양해지는데도 2000년 이후 참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0년 감사보고서도 도·농 한마당잔치는 소비자·공동체·교구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강구를 요구할 정도였다.⁴³⁴⁾ 서울평협의 경우 농수축산물 교환권 2만 장을 제작하여 본당에 배부했지만 판매량은 55%에 불과한 1만 1천여 장에 그쳤다.⁴³⁵⁾ 그 이후에도 감사보고서는 도·농 한마당잔치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계속 촉구하였고, 특히 2004~2005년 보고서는 도·농 한마당잔치의 공동주최 성격을 살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사위주의 일회적 사업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농 교류 사업 모색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난 평협 40년간의 활동을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관찰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평협 초기부터 가톨릭농민회가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농촌의 당면한 문제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해 옴으로써 경제·사회 부문 활동을 거의 주도해 온 때문이다. 한국경제에서 농업 비중은 3%, 농업 인구는 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40년간의 평신도 활동이 농업문제에 치중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분명히 활동의 균형성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의 핵심은 평협 안에서 농민문제를 체계적이고 열성적으로 다루는 가톨릭농민회와 같이 한국사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 중심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활동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가톨릭 안에 도시 중심 활동단체로서 50년의 연륜을 가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CWM)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활동이 평협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평협 활동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협 회원 운동단체로서 천주교신자 기업 경영인들이 1979년에 ‘한국가톨릭경제인회’를 조직하여 서울, 대전, 인천, 대구, 부산, 청주, 마산, 광주 및 제주 9개 교구의 경제인회와 사도직활동을 위한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기록 상 지난 30년 동안 사회교리의 실천 활동으로 내세울 만한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의 일차적 원인은 도시빈민, 실업자 문제와 같은 도시 중심의 경제·사회 문제 자체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활동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제인들이 뜻을 모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평협 내부 조직에 가톨릭농민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도농협력분과위원회가 있지만 경제·사회 분야에는 그런 부서가 없어

434) “2000년도 전국 평협 감사보고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업계획서(1998~2)008」, 25쪽 참조.

435) “2000년도 사업보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업계획서」(1998~2008)」, 20쪽.

평협 차원에서 이 분야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지 못한 점도 한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가 활동을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 그것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의 중요성이 이러한 원인으로 덮여지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평협이 도시 문제를 외면해온 것을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데만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교황 바오로 6세가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반포 80주년을 기념하여 평신도위원회 및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로이(Maurice Roy) 추기경에게 보낸 교서 「팔십주년」(Octogesima Adveniens, 1971.5.14)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교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도시화 현상을 지적하고 도시화가 바로 교회의 위기를 낳고 있다고 하였다.⁴³⁶⁾ 인구의 도시 집중과 그에 따르는 거대한 도시의 형성은 시민들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교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⁴³⁷⁾ 선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 문제를 평협은 외면해왔던 것이다.

평협의 지난 40년간 사회복지 관련 활동 또한 미미하였다. 평협이 1982년부터 ‘가톨릭대상’을 제정하여 2007년(25회)까지 사랑부문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사회복지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가톨릭대상’ 이외에는 사회복지 관련 활동으로서 2007년까지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다. 사회복지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이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제외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복지 활동은 자선 사업과 관련이 있고, 자선 사업은 하느님 사랑을 위한 이웃 사랑의 행위로서 복음의 가장 큰 계명이며(마태 22, 37),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지(요한 13, 35)라는 점에서 자선과 복지 사업은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⁴³⁸⁾이기 때문이다.

교구 평협의 사회복지 활동도 독자성이 없이 교구의 사회복지 업무 보조 역할에 불과하였다. 서울평협은 교구방침에 따라 예산의 10%를 사회복지비로 책정하고 복지시설 안내 인쇄물 제작으로 연대망 구축에 일조했지만 모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서울평협은 교구 내 본당의 사회사목분과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통해 사회복지 활동의 관심을 높였으나 이 또한 지속성이 없었고 다른 교구 평협으로 확산되지도 못하였다.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는 거의 전적으로 평신도에게 속하는 임무이다.⁴³⁹⁾ 현세에서 그리스도화를 이루는 데 교육의 역할은 지대하다. 그러기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5개 장(章) 중 한 장(제5장 57~63항)을 평신도의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평협 교육 분야 활동은 특강이나 세미나 형식의 평협 임원들을 위한 내부 연수 교육과 평신도 심포지엄, 평신

436) 「팔십주년」 8~12항.

437) 이동익, 「인간, 교회의 길: 요한 바오로 2세의 사회교리」(서울: 성바오로수도회, 1998), 35쪽.

438)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8항.

439)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7항.

도 신양대학 강좌 등이었고, 평신도 심포지엄, 평신도 신양대학 강좌는 지역적으로 서울에 편중되었고 체계적으로 산만하였다. 평협의 교육을 통한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 임무 수행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말이다. 서울평협이 2007년에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 운영방법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그런대로 다행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평협 출범 4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은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이 또한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위한 교육의 수요에 대비한 공급체제를 갖추는데 민활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뒤따른다.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 임무와 함께 평신도사도직의 본질에 속하는 임무는 복음 선포(Kerygma)와 성화(Leiturgia)이다.⁴⁴⁰⁾ 현대 세계에서 이 임무의 수행에 대중 매체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대중 매체의 세계는 교회의 선교를 위한 새로운 전선”⁴⁴¹⁾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평협이 지난 40년간 이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는 자체 또는 외부의 신문, 잡지, 방송 등 대중 매체를 선교를 위해 얼마나 잘 활용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중 매체의 세계에서 일차적으로 기관·단체를 알리는 것은 그 기관·단체의 회지 또는 회보이다. 그러기에 회지 또는 회보는 그 기관·단체의 얼굴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평협은 대중 매체의 세계에 얼굴다운 얼굴을 제대로 내보이지를 못했다. 그 얼굴은 뒤늦게 잠깐 보이다 곧 없어져버리고 생판 다른 얼굴로 바뀌다가 또 오랫동안 나타내지를 앓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했던 면모를 하나하나 되돌아보자.

평협은 창립 후 무려 10년이나 지난 1977년 6월 25일에 계간지로 창간된 회보 「평협」은 가을 호의 발행도 못하다가 다음 해 1978년 1월 28일에야 발행된 제2호로 끝나고 말았다. 1994년 2월에 연간(年刊)으로 「한국평협」이 발행되었다. 그런데 발행 호수는 엉뚱하게 속간 31호라고 하였다. 왜 31호가 되었는지 설명도 없었다. 그런대로 2002년 제39호까지 발간되던 「한국평협」은 다시 발간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회보이면서도 호수를 명기함이 없이 단행본 같은 제호를 붙인 「아름다운 세상」이 서울평협 회보 「아름다운 가정」과 함께 발간되었다. 2006년 2월 28일부터는 격월간 「평협소식」 제1호가 발간되어 2006년 11월에 제5호까지 발행되고 2007년에는 6~11호가 홀수월에 발간되었다. 서울평협 회보도 「가톨릭 서울」, 「서울평협」, 「아름다운 가정」 등으로 발간되다가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한국평협과 서울평협의 회보는 회장에 따라 제호와 발간 시기가 제각각으로 전혀 일관성 없이 발간되어 기관지의 얼굴은 고사하고 매우 혼란스러움만을 가중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평협이 뚜렷한 정체성과 전통성이 없이 회장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현대 대중 매체의 세계의 총아로 떠오른 인터넷으로 평협과 교구 평협들의 면모를 실시간 시각적

440)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6항.

441) 「평신도 그리스도인」 44항.

으로 알리는 홈페이지 개설도 매우 뒤늦은 2003년에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해수가 지났음에도 평협이나 교구 평협 홈페이지 모두 선교를 위한 웹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 평협 홈페이지에서 최소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같은 중요한 문헌과 한국 평협 창립 이래 활동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선언문이나 평신도주일 강론 자료 같은 내용 검색이 가능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교구 평협이나 교회의 다른 홈페이지와의 직접 연결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아 선교 웹사이트로서의 기능성이 거의 없다. 더욱이 교구 평협의 홈페이지들은 대부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어린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인터넷의 활용이 일상 생활화되어 있는 디지털정보화시대이고 더욱이 한국은 IT 최선진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협의 홈페이지 수준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평협이 시대의 징표로서 마땅히 앞장서야 할 온라인 사이버 사도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평협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후속 사업이 제때에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협이 2007년부터 시작한 우리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과 수상작 발표회이다. 발표가 끝난 후 수상작에 대한 음반제작이나 전례 성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허가 신청 등의 후속 노력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러한 후속 노력이 뒤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좋은 우리성가 보급이라는 이 행사 개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참가자들의 노력이 사장되거나 빛을 잃게 되어 그들에게 실망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이 행사를 무엇 때문에 연례행사로 지속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예산낭비와 대회를 위한 대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평협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서 온 결과이다. 평협 초기부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신·구교가 함께 한국의 사회의 발전과 정의 평화를 위해 일함으로써 교회일치에 기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1970년 7월 ‘그리스도교 아시아개발회의’에 참가한 가톨릭과 개신교 대표들은 이 회의의 결의 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1971년에 류홍렬 당시 평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개발·평화 한국위원회’까지 결성하였지만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평협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었다는 데 있었다.

현재도 여러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평협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국제관계 분야에서 한홍순 전임 평협 회장이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고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함으로써 평협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평협은 오랫동안 한 회장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고 한 회장 이후에 대비한 새로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그 때문에 한홍순 회장이 평협을 떠난 후 그를 대신하여 평협의 위상을 계속 높여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평협 활동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민족화해 분야를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노력은

분단으로 갈라진 민족사회가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민족공동체 전체의 소명인 동시에 그 누구도 이에서 예외일 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분단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한국교회 역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민족화해를 위한 평협의 접근 노력은 평신도의 사도직 수행에 있어 예언자직을 실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민족화해를 위한 평협의 활동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성찰하는 준거의 틀로서 ‘평화의 신학’과 ‘일치의 신학’ 그리고 ‘나눔의 신학’으로 구성된 ‘민족화해의 신학’이 있다. 199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대북선교 노력을 주도해 온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이동호 아파스는 한반도 평화의 실천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9년 1월 1일 ‘세계평화의 날’에 발표한 담화문을 인용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대화의 거부는 곧 폭력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한 교황의 엄중한 경고를 상기시켰다.⁴⁴²⁾

이에 비추어 볼 때, 평협은 한반도의 평화건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남과 북의 정권과 민족공동체 모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의 길로 나가도록 부단히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었다. 그러나 평협이 이러한 인식과 노력을 스스로 구체화하고 교회 내외로 펼쳐나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못한 데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

그 단적인 예가 평협이 1989년 8월에 발표한 호소문이다. 앞서서도 지적되었거니와, 당시 정의구현사제단이 문규현 신부를 평양에 파견한데 대해 평협은 단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주교단의 유감표명에 반발한 사제단의 행위만을 중시하여 현실구조에 묶여있는 평협의 대북인식의 한계성을 드러내었다. 만약 평협이 이 사건을 ‘평화의 신학’과 ‘일치의 신학’ 구현이라는 전문적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면, 성명의 내용은 사제단의 행동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한 형태로 보고 보다 아량 있는 성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분단현실의 엄중함과 실정법 그리고 교계제도 상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평화와 일치의 길을 개척하려는 사제단의 순수한 의지와 희생을 내포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함께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서울평협의 북한 신자 초청이 교도권의 제약으로 막힌 이후 민족화해 사업이 침체된 이유도 상당 부분은 전문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이 역시 처음부터 통일 신학적 접근을 했더라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후 서울대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 설치와 함께 평협이 주도한 민족의 일치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 등은 ‘민족화해의 신학’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민족화해 신학’에 있어 ‘나눔의 신학’은 평화와 일치를 실체화하는 것이 나눔이라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동호 아파스가 강조했듯이 진정한 나눔을 통해 교회적 친교가 현실화하는 것이란 점에서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실제로 평협 활동으로서의 나눔은 대북

442) 이동호 아파스, “통일사목에 임하는 자세”, 한국천주교회 통일사목연구소 편, 「가톨릭교회와 민족복음화-통일사목의 진로와 전망」(서울: 일선기획, 1990), 43-45쪽.

인도적 지원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수나누기운동과 모금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협의 활동은 자발적이지 못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의 북한 돕기나 통일기금조성 운동, 수원교구의 통일성금저축운동 등에 해당 교구의 평협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는 한국교회의 속성상 평협이 독자적으로 이런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협이 1998년에 민족화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점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 평협은 하고자 하기만 했다면 다른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처럼 사회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갖춘 평신도사도직 단체 조직도 가능했을 것이다. 예컨대, 미주 한인교회의 신자들이 평양에 국수공장을 세우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한국교회에 이관하고자 했을 때, 평협이 교구 평협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는 대북지원 사도직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평협에서는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평협이 전개한 운동에 대한 반성

평협은 1983년 7월에 5년간의 침묵을 깨고 ‘신뢰회복운동’을 선언했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20년간의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이면에 물질만능주의 팽배,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의 현상, 부의 편중에 따른 계층 간의 위화감 내지 적대감의 야기, 상호 불신풍조의 만연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종교를 초월한 범국민적 ‘신뢰회복운동’ 선언은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신뢰회복운동’은 범교회적 운동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목상 한국천주교 주교단을 비롯하여 전국 사제들과 수도자들, 평신도가 ‘신뢰회복운동’ 조직 안에 일정한 직명을 가지고 대거 동참하였다.

그러나 거창한 내용의 선언과 범교회가 참여하는 규모성에 비해 활동은 왜소했다. 활동이라고 해야 기껏 운동 취지문 5만 장 전국 배포, 국민적 호응도 제고를 위한 두 차례의 설문지조사, 한 차례의 심포지엄 개최와 심포지엄 책자와 녹취록의 교구 배포에 머물렀다. 이렇게 된 데는 1984년 한국 선교 200주년 기념대회와 사업 등으로 인해 이 운동이 중단되었다가 1985년 3월에 재개된 데 따른 당초의 열기가 식은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곧이어 1986년 초에 전개된 대대적인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으로 인해 ‘신뢰회복운동’이 뒷전으로 밀리게 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에 대한 국민적 호응과 열기는 교회 내외적으로 참으로 대단했다. 신·구 교회 단체가 선도한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에 대한 국민적 호응과 열기는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것이 다시 국민적 호응과 열기를 배가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 운동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여기서 ‘신뢰회복운동’과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을 놓고 생각해 보면, ‘신뢰회복운동’ 같은 정신개조운동이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처럼 현실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운동에 비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국민의 정신개조에 무게를 둔 ‘신뢰회복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개신교 단체가 시작한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뢰회복운동’을 유야무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두 운동이 모두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정의를 위해 필요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운동이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교회 정신에 입각한 가치보다 인기 영합적 운동에 더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반성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평협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도덕성 회복’, ‘똑바로’, ‘내 탓이오’와 같은 국민적 운동들도 신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평협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반강요로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내 탓이오’라는 구호에 대해서도 교회의 일각에서는 거룩한 참회기도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 운동의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협의 운동이 회장의 관심 위주로 전개된 점도 향후 평협 제50년기의 방향 설정을 위해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1992년 ‘우리상품쓰기운동’이 외형적으로 성과가 컸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단체가 아닌 보편교회의 가르침을 구현해야 할 평협으로서 과연 적절한 운동이었는가를 반성 차원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첫째, 이 운동의 성격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상품쓰기운동’은 성격 상 국민들의 배타적 애국심을 자극하지 않고서는 결실을 보기 어려운 운동이다. 그러기에 이 운동은 다른 나라 상품을 배척하는 운동과 다름이 없다. 한국경제가 초기 개발연대를 훌쩍 넘어서 이미 개방과 국제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서울올림픽 이후 자유무역에 의한 세계후생의 극대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으며, 더욱이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민들에게 이 운동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한국 가톨릭이 정부보다 더 편협한 국수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성격상 저개발 국가들을 돕고 상품의 제값 주고 사기를 권장하는 공정무역(fair trade) 지원의 차원에서 전개되었어야 가톨릭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평협 초기인 1960~1970년대에 전개했거나 아니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1997~1998년에 전개되었더라면 보다 더 시의적절했을 것이다.

둘째, 이 운동의 발상과 동기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보편교회인 가톨릭교회의 운동으로서 우리 것만을 고집하는 느낌을 주는 ‘우리상품쓰기운동’이 평협이 주도하는 운동의 주제로서 과연 적

합했던가 하는 점이다. 이관진 회장은 ‘우리상품쓰기운동’ 제안의 직접적 동기를 그의 많은 일본 방문을 통해서 느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진 경쟁력이 바로 자신들의 상품을 자랑스럽게 선택하는데서 비롯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⁴⁴³⁾ 그는 이 운동이 교회의 가르침, 사회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평신도 운동의 기초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그가 회고했듯이 그 동기가 개인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을 보고 느낀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에서 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그러기에 이 운동이 사회교리의 기초를 뒷받침해 주는 후속 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한 단발적(單發的) 운동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므로 1990년대 초기에는 ‘우리상품쓰기운동’보다 그때 이미 국내외적으로 자리를 잡은 ‘내 탓이오 운동’에 보다 탄력을 실어 계속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상품쓰기운동’ 추진 후 2년이 지난 1994년 2월 26일에 ‘신뢰회복운동’을 도덕성 회복 운동으로 계속 전개하여 국민의 의식개혁을 선도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내 탓이오’ 스티커도 필요한 곳에 계속 공급하기로 하였지만 ‘내 탓이오 운동’의 열기는 이미 상당히 식어 있었다. 더욱이 이때의 ‘내 탓이오 운동’ 외에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과 ‘우리상품쓰기운동’도 함께 추진됨으로써 이전과 같은 ‘내 탓이오 운동’의 열기를 되살려내지도 못했다. 1996년 2월 평협 회장이 바뀐 이후에도 평협 활동은 전임 회장 체제에서 추진되어 온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과 ‘우리상품쓰기운동’, ‘도덕성회복운동’을 이어갔지만 활동의 중심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에 모아져 ‘우리상품쓰기운동’은 시들해졌다.

끝으로, 평협은 지난 40년간 한국 사회에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반드시 온힘을 쏟았어야 할 일에 침묵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부조리와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온 것은 토지소유 불형평이다. 한국의 빈부격차 문제는 결코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절대적 빈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으로 몰아가고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한국의 개발 년대 이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토지소유의 불형평이다.⁴⁴⁴⁾

땅은 오로지 하느님께 속한다(레위 25, 23). 땅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주신 유산으로 독점되거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레위 25, 24-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정은 극심한 토지소유 불형평으로 토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온 나라가 토지 투기장이 되다시피 하였다. 부유층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심지어 국가 고위 공직자들까지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꾼이었음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구 밀집지역의 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급등한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이 남발되면서 가난

443) 이관진 베드로, “부족함을 매워준 동료 평신도들이 없었다면...” 「평협30년사」, 1950쪽.

444) 우리나라 민유지의 65% 이상을 국민 3%가 소유함으로써 소득분배의 형평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0.33정도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85로 엄청난 불평형을 나타내었다.(오용석, “국제 소득 불균형 문제와 교회의 입장” 한국사목연구소 사목연구총서 4 「자본주의 사회와 가톨릭교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246쪽)

한 이들은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고, 도시 주거비용 급증으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평협은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가슴 뜨거운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느님께서 명한 토지정의에 입각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명한 토지정의 실현을 위한 어떤 운동도 전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성의 차원을 넘어 평협의 존재이유를 묻게 한다.

II. 제 언

여기에 내놓은 제언은 평협 제50년기에 진입하면서 지난 40년간 평협 의 존재성과 활동 전반에 걸친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한국교회 구성원으로서의 평신도의 위상을 높이는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평협이 거듭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제언은 어쩌면 평협 제50년기에 다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여건의 변화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대로 실천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협 반세기를 정리하게 될 마지막 10년인 제50년기에 이 제언을 실천하려는 노력만으로도 평협은 훨씬 하느님의 뜻에 가까이 가려는 한국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반여정을 걷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확신된다.

확고한 중심적 가치관 정립

한국평협의 지난 40년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교도권과의 갈등으로 인한 평협의 존재 위기였을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평협 활동의 중심적 가치관 정립이 미흡했던 때문이다. 평협의 활동은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선언문 발표나 평신도주일 강론 등을 통한 의지 표명 아니면 행사 또는 운동 형식으로 일관되었다. 마땅히 행동을 해야 할 때 선언문 발표 같은 의지 표명에 그치거나 아예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또한 활동방향 설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심적 가치관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평협이 흐트러짐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중심적 가치관으로 정립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교황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1)에서 제시된 “그리스도교적 인생관의 불가분의 일부분인 그리스도교적 사회교리”⁴⁴⁵⁾에 입각한 ‘정의(justice)’의 실현이다. 이 ‘정의’는 영적 신앙생활(영신생활)과 사회생활(세속생활)을 동시에 관통하는 가치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강조했듯이, “평신도의 실존에 두 가지 병립된 생활은 있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그 가치와 요구를 지닌 이른바 ‘영신’생활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생활과 노동, 사회적 관계, 정치, 문화생활 등 이른바 ‘세속’생활이 따로 있을 수 없다.”⁴⁴⁶⁾ 따라서 평신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사회교리에 입

445) 「어머니와 교사」 222항.

각한 ‘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곧 평신도 신앙생활 그 자체이다.

한국교회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 집합체인 평협이 이러한 ‘정의’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불변의 중심적 가치를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그것을 알면서도 정작 뚜렷한 인식이 없이 활동했다면, 그것은 그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협 활동의 중심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먼저 교회의 가르침인 사회교리에서 의미하는 정의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에 관한 교회 문헌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 문헌은 교황 바오로 6세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제2차 정기 총회 메시지 「세계 정의에 관하여: 세계 안의 정의」(Convenientes ex Universo: De Iustitia in Mundo, 1971.11.30)이다.

「세계 정의」로 약칭되는 이 문헌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정, 학교, 직장, 사회의 일상생활 안에서 복음적 누룩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의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정의를 위한 인간의 노력에 참 보람과 가치를 부여한다.”⁴⁴⁷⁾고 하였다. 이것은 정의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중심적 가치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또 교황은 신자들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을 통하여……현대 세계 안에서 정의를 수호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성취한다고 깨닫게 되었다.”⁴⁴⁸⁾는 말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인 구원의 성취는 바로 정의의 수호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가르쳤다.

베네딕도 수도회 메리 존 만자난 수녀(Sr. Mary John Manzanan, OSB)는 허만 헨드릭스(Herman Hendrickx)의 저서 「정의로운 성경」(The Bible on Justice, JMC Press, INC. 1978) 서문에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정기 총회 문헌 「세계 정의」를 한마디로 잘 요약하였다. 그 말은 “정의를 위하여 일하며 세계를 변형시키는 것이 오늘날 복음화 과업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⁴⁴⁹⁾는 것이다.

교황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4.11)는 정치적 정의를 강조한다. 이 회칙에 의하면, 정치적 정의는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며 “최고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⁴⁵⁰⁾ 그러므로 “정치공동체들은 동시에 균등하게 효과적으로 스스로 보호하고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할 의무가 있다.”⁴⁵¹⁾ 그것은 정의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 없이 지상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현대세계의 사목현장」도 이 점을 인정하여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⁴⁵²⁾라고 강조한다.

446) 「평신도 그리스도인」 59항.

447) 「세계 정의」 49항.

448) 「세계 정의」 50항.

449) H. 헨드릭스, 「성서와 사회정의」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7), 6쪽.

450) 「지상의 평화」 46항.

451) 「지상의 평화」 61항.

452)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78장.

「현대세계의 사목헌장」은 정의의 실현과 평화와의 관계를 하느님의 창조질서와 인류의 공동선의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보다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인류의 공동선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법칙에 지배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평화는 한 번도 영구히 얻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나 꾸준히 건설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위에 인간의 의지는 약하고 죄의 상처를 입었으므로 평화를 얻으려면 각 사람이 끊임없이 야욕을 억제하고 정당한 권력이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⁴⁵³⁾ 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확실히 찾을 수 있다. 바로 지상 교회의 평신도사도직이라는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력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동선에 입각한 정의감으로 이 땅에 평화가 건설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권력의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협의 정치 참여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 1980.11.30.)과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사랑은 결코 정의와 떼어 놓을 수 없다.”⁴⁵⁴⁾고 강조하고 “평신도들은 정치 활동 자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적 가치와 복음적 가치를 증언하여야 한다.”⁴⁵⁵⁾고 요구하였다. 또 그는 “인간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현세 질서에 그리스도 정신을 불어넣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평신도들은 정치 참여를 결코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⁴⁵⁶⁾고 분명히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정치 생활을 실현하는 자세와 방법은 오로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인 연대⁴⁵⁷⁾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12.30.)에서 평신도들의 정당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유보되어 있다.⁴⁵⁸⁾ 이것은 평협의 정치 분야 활동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황 요한 23세는 진정한 경제적 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명쾌히 밝혀준다. 즉, “만일 경제 체제의 구조, 기능, 환경 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조직적으로 사람의 책임감을 무디게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 각자의 인간적인 의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설사 그 경제체제를 통하여 생산된 부(富)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이러한 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에 의하여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 체제는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이다.”⁴⁵⁹⁾ 또한 요한 바오

453) 위의 주와 같음.

454) 「자비로우신 하느님」 12항, 「평신도 그리스도인」 42항.

455) 「평신도 그리스도인」 42항.

456) 위의 주와 같음.

457) 위의 주와 같음.

458) 「사회적 관심」 41항.

459) 「어머니와 교사」 83항.

로 2세는 “개발에 대한 참다운 관념은 자연 요소들의 이용, 자원의 재생 가능성 여부, 위험스러운 공업화의 후속 결과 등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으며, 이 세 가지 고찰은 개발의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 양심에 경종을 울린다.”⁴⁶⁰⁾고 하였다.

그러므로 평협의 활동은 이와 같이 경제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 끊임없이 맞서야 한다. 그 한 예로, 평협은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증폭시키는 토지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절대 빈곤의 구제에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조직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 이유는 앞의 반성에서 설명되었기에 여기서 재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사회적으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도덕적 법칙에 반한 개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조직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사람의 책임감을 무디게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간 개개인의 생명과 의도를 방해하는 체제에 단연코 저항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협이 경제·사회·생명·환경 분야에서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일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평협이 정의의 실현으로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일은 물론 정치와 경제·사회·생명·환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외의 다른 수없이 많은 여러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동선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⁴⁶¹⁾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정치와 경제에 대해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와 경제 분야에 불의와 부정이 현저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실천 역량의 강화

평협 활동의 중심적 가치로서 정의를 굳건히 정립하고 그에 반하는 체제에 대항하는 흔들림 없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회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것은 교황 바오로 6세가 1972년 1월 10일 외교사절단 접견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교회의 공헌은 교회 성원을 교육하는 활동에서 구체성을 띠기”⁴⁶²⁾ 때문이며, “평신도 교육의 근본 목적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 소명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더욱 굳은 의지를 갖추게 하는”⁴⁶³⁾ 데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교육은 평신도 단체와 조직의 사명이요 임무이다.

교황 요한 23세는 “그리스도교적 사회교리는 그리스도교적 인생관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⁴⁶⁴⁾하고 “평신도들은 이 교리를 알고 교리와 활동을 합치시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이해서

460) 「사회적 관심」 34항, 「평신도 그리스도인」 43항.

461) 「평신도 그리스도인」 42항.

462)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교회의 공헌」 14항.

463) 「평신도 그리스도인」 58항.

464) 「어머니와 교사」 222항.

키려는 열렬한 노력을 함으로써 크게 공헌해줄 것”⁴⁶⁵⁾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 교육에서 평신도사도직 단체나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지상적 질서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그리스도화를 특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한 교황은 “평신도사도직 단체들의 많은 회원들이 일상 경험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자신을 더욱 완전히 교육하고, 또한 청소년 사회 교육에 이바지 해주기”⁴⁶⁶⁾를 바랐다.

교황 바오로 6세도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그리스도적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개인적 내지 사회적 윤리의 원칙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⁴⁶⁷⁾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며, 교회는 정의를 위한 사회교리 “교육의 내용에 반드시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내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⁴⁶⁸⁾ 그러므로 사회교리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현세적 가치기준과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평협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완전히 인간답게 만들려는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대중 선전이나 정치적 기만의 희생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인간 사회를 진정한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⁴⁶⁹⁾

문제는 사회교리의 실천이다. 정의에 기반을 둔 사회교리의 실천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우리는 사도 바오로와 함께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느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일의 중심에 현존해야 한다고 주장”⁴⁷⁰⁾하고 “우리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을 표현하자는 호소”로 사회 교리의 실천을 요청하였다.

바티칸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마르티노(Renato Raffaele Martino) 추기경이 2008년 10월 30일 한국 방문 강연을 통해 “평신도는 사회교리 실천의 중심”⁴⁷¹⁾이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평협이 앞장 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회교리교육은 평협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든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연중 교육으로 끊임없고 다양하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정의 실현을 위한 교육이라면, 교황 바오로 6세의 가르침과 같이 “이 끊임없고 다양한 교육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의 넓은 의미에 관해서 보다 뚜렷한 의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정의의 요구를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결단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개발·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⁴⁷²⁾

정의를 위한 사회교리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실천에 있다. 그 실천 방법은 「세계 정의」 57항의 가

465) 「어머니와 교사」 225항.

466) 「어머니와 교사」 233항.

467) 「세계 정의」 49항.

468) 「세계 정의」 55항.

469) 「세계 정의」 52항.

470) 「세계 정의」 57항.

471) 「평화신문」 2008.11.9, 1면.

472)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교회의 공헌」 14항.

르침에 잘 나타나 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때와 장소의 환경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용감한 마음으로 사랑과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모든 관계자들과 더불어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불의를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특히 “불의에 대한 우리의 비난은 우리의 생활 체험에서 얻은 구체적 주장이고 지칠 줄 모르는 계속적 행동으로 표현되어야만 효과적”이라고 가르쳤다.

평협 50년기에 평협의 교육은 지난 40년에 실시된 것과 같은 산발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지침서가 필요하다. 교육지침서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은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 분명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협 제50년기 초기에 평협은 교계와 협력하여 한국교회의 평신도 성인(成人)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지침서가 조속히 만들어져 그에 따른 체계적 평신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오스트리아 가톨릭교회 그라츠(Gratz)교구의 교육편람을 참고로 하여 ‘평신도 성인교육편람’ 마련 작업을 하다 교회 당국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성인교육은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의 의도와 그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제대로 조화를 잘 이룰 때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교육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가능한 한 ‘평신도 성인교육편람’ 마련 작업을 완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협의 교구와 지구 차원의 선교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실천 역량의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구 평협 차원에서는 신자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가톨릭교리학교(가칭)를 열어 신자들의 교리에 관한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되, 교리에 관한 지식을 생활체험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구 평협 차원에서는 선교 리더십 과정 등 선교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강좌를 개설한다.

교구와 교구의 지구 평협 차원의 사회교리 실천 방법은 과거와 같은 구호성금 위주에서 벗어나 청년층, 여성, 단체장 중심의 사회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생활에 접목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당 및 지역공동체에서 강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교구의 지구차원에서 사회교리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당 평협 차원에서는 각 단체 구성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교리학교 프로그램 참가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크게 강조된 본당 모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당 공동체는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학습 장소⁴⁷³⁾로서 평신도들의 자율적인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신도 교육은 보다 높은 신학과 영성의 단계까지 끌어 올릴 필요도 있다.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

473) 안드레아스 슈니더(Andreas Schnider), “교회를 위한 생활망으로서의 마케팅”, 루드비히 캡퍼(Ludwig Kapfer) 외, 「교회와 마케팅」(Die Jesusmanager) (안양: 한국감마모델연구소, 1999), 41쪽.

신학⁴⁷⁴⁾과 ‘평신도 영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지적을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사명의식 안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평협이 평신도 교육을 강화하고 선교적 각성과 함께 영성적 각성의 계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질적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회일치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선교 분야의 활동으로서 평협이 전혀 접근을 못했던 교회일치운동을 50년기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평신도의 신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⁴⁷⁵⁾

차별화된 활동 방향의 모색

1984년 2월 25일에 개최된 전국 평협 제17차 정기총회에서 당시 평협 담당 정진석 주교는 각 교구 평협 대표들의 활동보고를 듣고 난 후의 강평을 통해 평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해주었다. 정진석 주교가 언급한 요지를 여기에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이 보고한 활동 내용은 성직자, 수도자의 활동인지 평신도의 활동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라면 신부나 수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평신도이다.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평신도인 만큼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얼마만큼 빛과 소금이 되었는지, 얼마만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지, 얼마만큼 사회를 밝게 비추고 짠 맛으로 사회가 썩지 않도록 했는지, 그런 활동보고를 듣고자 했는데, 막상 듣고 보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치른 행사, 그런 것뿐이다.”⁴⁷⁶⁾

이 말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언급한 “특별히 평신도들이 자주 피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유혹” 즉, “평신도들이 교회의 봉사와 임무에 지나치게 강렬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전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분야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과 “신앙과 생활의 부당한 분리, 곧 복음의 수용과 현세와 현시대의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활동과의 분리를 정당화하려는 것”을 지적했던 같은 맥락이다.

평협의 활동이 성직자, 수도자의 활동과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 동시에 빠졌다는 말이다. 평협이 교회 안에서 봉사와 임무에 매달리다 보면 사회생활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게 되어 자연히 사회적 책임에 무뎌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은 신앙생활과 별개라는 생각으로 전혀 교회활동과 연관시키지 못하다보니 결과적으로 평협의 활동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보이는 평협의 활동

474) 클레멘스 주교에 의하면, 1970년 라칭거 추기경이 “평신도 신학”이란 말은 용어상 모순이며 교회 운영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되어 일종의 희극으로 들린다고 말하였다 한다.

475)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는 2011년 사업으로 연구위원들의 신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476) 「평협30년사」, 185쪽.

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해야 하는 일과 차별화가 안 되어 당시 정 주교가 말한 것과 같은 비판을 면치 못한 것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의 사회 활동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평신도의 고유의 영역으로 성직자, 수도자의 활동과 차별화가 쉬운 부분이다. 정치 활동의 경우에 평신도들이 직접 정당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평협 활동을 통해 정당과 정부의 정의 실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감 등 선거직 공무원들이 공동선을 거스른 불의와 부정, 반생명적, 반인륜·도덕적 입법, 행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시민운동단체와 연합하여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들 임기 중에 활동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공동선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 즉각 기자회견 등 언론과의 공조를 통해 퇴진압력을 가하거나 임기 말에 재선 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보조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일로서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이들을 위한 정신적·물질적 도움을 주는 보충적·응급적 활동도 평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평신도들의 고유한 임무이다. 사회가 개개인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호적 결합과 의무를 강조하는 연대성의 원리에 충실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줌으로써 그리스도적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평신도의 진정한 복음화의 소명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평협의 활동은 문화적 소양을 고취하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문화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더욱 인간다워지고, 더욱 ‘참되며’, ‘존재’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바티칸 정의평화평의회가 펴낸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에 의하면, “복음에서 영감을 받는 사회 정치 문화를 육성하는 일은 평신도에게 특히 중요한 영역이어야 한다.”⁴⁷⁷⁾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협이 문화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참문화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신도들로 하여금 대중매체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되, “무엇보다도 인간이 선택한 무수한 내용들을 검토해야 할 것”⁴⁷⁸⁾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협의 문화 활동은 기획부터 프로그램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평협은 제50년기 주요 사업으로 문화와 예술 각 분야에 종사하는 신자들이 자율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77) 「간추린 사회교리」 555항.

478) 「간추린 사회교리」 560항.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평협상(平協像) 구축

평신도사도직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온다.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다.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중 특히 왕직은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에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직분이다. 왕이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 역할을 세상 속에 살며 복음을 사는 평신도들이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함으로써 ‘복음화 되어 복음화 하는 공동체’가 되며, 바로 이러한 까닭에, 교회는 모든 삶을 섬기는 종이 된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봉사 사명에 참여한다. 분명코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지상에서 이 나라의 싹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에 봉헌되는 것이다.⁴⁷⁹⁾

평신도사도직 활동 중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의 전통적인 활동이다. ‘복음화 되어 복음화 하는 공동체’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마음이 가난한 공동체를 이룬, 마음이 가난한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인간 삶의 현실 안에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가톨릭교회와 우리 사회 주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활동의 뿌리는 ‘복음화 되어 복음화 하는 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평협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평협상(平協像)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 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신명기 15, 11)라는 지엄한 말씀을 내리셨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의 가난을 함께 나누어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교회를 이루는 평신도들의 큰 소명의 하나이다. 교황 바오로 6세가 「팔십주년」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재화의 재분배에서 좀 더 완전한 정의의 구현”⁴⁸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인간의 권리들을 거스르는 체계적인 위협의 첫 번째 유형은 불의한 모습으로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는 물질적 재화의 분배 문제로 좁혀진다고 강조하였다.⁴⁸¹⁾

김수환 추기경은 “교회는 참으로 먼저 가난한 이들 속에 현존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가난하고 소

479) 「평신도 그리스도인」 36항.

480) 「팔십주년」 43항.

481) 이동익, 앞의 책, 49쪽.

외되고 병들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들 가운데 겨우 특수사목을 지원하는 사제나 수도자 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봉사로 교회 체면을 세우고 있습니다.”⁴⁸²⁾라고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평신도로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교회의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봉사조차 한 일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평신도사도직을 대표하는 평협으로서 반성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데 반드시 새겨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다. 평협 제50년기에 들어선 지금 늦었더라도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평협상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준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가난한 이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0.26에서 10년이 지난 2007년에 0.3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⁴⁸³⁾ 더욱더 나쁜 것은 고용구조의 악화로 실직자, 도시의 노숙자,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연로 가장 등 절대적 빈곤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청·장년대의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계절노동, 영세 자영업, 비정규직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안정된 미래를 담보 할 수 없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그들의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는 점이다.

이런 국내의 절대적 빈곤문제에 평협은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평협상을 뚜렷이 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평협상은 국내에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 한국 경제는 가난한 많은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도움을 청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가 해외의 절대 빈곤 문제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회의 가르침도 “평신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하느님 백성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⁴⁸⁴⁾고 권고한다. 이것은 경제문제에서 교회정신이 요구하는 바는 자유와 평등이며, 교회가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맞서 소외 없는 세계화와 연대의 세계화를 위해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⁴⁸⁵⁾

평협이 제43회(2010년)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습니다.”에서 밝혔듯이, “박해받고 자연재해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로서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평신도 선교사 파견과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평협 제50년기에는 강론자료에 인용된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故) 이태석 신부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이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마태 25, 40)”이라고 말씀하셨

482) 「1998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1997년 10월 30일 발표).

483)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2008.11.6)

484)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10항, 「평신도 그리스도인」 25항.

485) 오용석, “소외 없는 세계화, 연대의 세계화를 위한 조건과 실천”, 「사목」 제242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16-27쪽.

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오도록 평협은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태석 신부는 해외 파견 선교사의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 위 강론자료에서 표현했듯이 “혈벗고, 굶주리고, 다치고, 병에 걸리고, 희망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의술과 예술,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가” “톤즈 마을의 배고픈 아이들, 밤낮 사흘간 걸어서 찾아온 환자들, 수단인 조차 외면하는 한센병 환자를 선한 시선과 해맑은 미소로 바라보던” 그는 이제 톤즈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에게 사랑의 표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실천 운동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평협상은 실천을 요구한다. 그 실천은 선언문의 발표나 세미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태석 신부가 보여주었듯이 물질을 나누는 실질적 노력이다.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것을 지속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왜 이 일을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야고보 서간이 잘 설명해준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 2, 15-17)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눔의 노력은 수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러한 나눔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협의 지난 40년간 주요 활동 역시 어려운 농촌과 근로자들을 위한 노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활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의 지속성은 없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지속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레위기’ 25장에 제시된 희년과 안식년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레위기’ 본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안식년과 희년은 빈부격차를 최소화하자는 데 의도가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호의에 대한 깊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⁴⁸⁶⁾ 그러므로 이러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평협 운동으로 국내와 해외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희년과 안식년 기금을 조성한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은 ‘사회연대 소액대출은행’을 설립 운영하거나 신용협동조합에서 운용 관리한다면 그 효과의 지속적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486) H. 헨드릭스, 「성서와 사회정의」 정한교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1987), 31쪽.

‘사회연대 소액대출은행’과 같은 제도는 이미 조선시대에 시행되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낮은 금리의 소액대출은 무이자 방식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조선시대에 가난한 백성에게 이자 없이 곡식을 빌려주는 의창(義倉)제도는 얼마 못 가 재정이 바닥나 운영이 어려웠지만 무이자 대신 낮은 이자로 상환하게 한 사창(社倉)제도는 고리대 또는 장리(長利)를 줄이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현대에 빈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은행(Microcredit Bank)으로 방글라데시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Muhamad Yunus) 교수가 세운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이 있다. 이 은행은 2005년 유엔의 ‘소액대출의 해’(Microcredit Year),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 1997년 미국 워싱턴 139개국 ‘소액대출 정상회의’(Microcredit Summit) 등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유누스 교수는 1973년에 20여 달러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빈민들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경험을 바탕으로 1976년에 ‘그라민은행 프로젝트’ 실험을 하였다. 3년 동안 500여 가구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한 그는 1983년에 그라민은행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예금만으로 극빈자들에게 150달러 안팎의 소액을 신용으로만 빌려주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 소액대출운동은 큰 성공을 거두어 1993년부터 흑자전환에 이어 대출금 회수율도 99%에 육박하게 되고 2006년에 2185개의 지점과 1만 8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는 대출받은 6백만 명의 빈민 중 58%가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다. 성공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빈민들에게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라민폰, 전기 없는 농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라민삭티(에너지), 프랑스 다농(Danone)과 제휴로 어린이용 유제품을 생산하는 그라민 다농 등도 설립되었다. 유누스의 무담보 소액대출은행 실험은 이제 빈민구제라는 공공가치를 실현하면서 이윤을 창출하여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business enterprise)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소액대출운동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어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등 3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도 1999년에 ‘신나는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지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생겼을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는 유누스 교수가 다카에서 본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 빈민들 못지않게 사설금융의 살인적 고금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람들, 특히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고리대금인 사채를 이용하다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빚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것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제도권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과거에는 한국교회에 초기교회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공동체 정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로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신용은행으로 바뀌어 현재는 협동조합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난한

이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평협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교회 공동체 전통을 되살려 한국 금융제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규모 의,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연대은행을 각 교구 평협 안에 만들어 창업능력이 있으면서도 과거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기를 못하는 사람이나 당장 취업이 안 되어 고통을 받는 가난한 청년실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평협이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사회연대은행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대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가능한 대안은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1993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명례방협동조합’⁴⁸⁷⁾에 평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명례방협동조합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안금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생산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그들 삶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서울평협이 명례방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연대 소액 대출은행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를 각 교구 평협을 통해 전국 차원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 단계로서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와 명례방협동조합이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의 소액 대출은행의 실태와 운영방법 등을 신용협동조합 운동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평협이 전국적으로 사회연대은행의 기능을 갖는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전개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각 교구 평협을 통해 배포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각 교구 평협이 교육 자료를 활용한 신용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연대 공동체 증진 활동을 통한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나간다.

또 다른 하나는 평협의 ‘실업자취업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이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취업 희망자들(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신청을 받아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평협 단체 회원인 ‘가톨릭경제인회’에 속한 회원 기업에서부터 이 대책기구를 통한 채용을 실시한다. 이 방법은 실업자들의 취업기회를 넓혀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든 수시로 직원채용을 할 수 있어 고용에 따른 시간적 비용을 들이지 않게 되고 채용공고 등에 드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물론 해외 기업들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협동조합과 실업자취업대책기구의 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운동으로 이어나 갈 수도 있다. 그 성공사례가 1956년 극히 소규모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일자리 창출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Mondragon Corporacion Cooperativa: MCC)이다.⁴⁸⁸⁾

487) 소재지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412호이고 <http://cafe.daum.net/hope93>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88) 이에 관해서는 조은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사례」(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참조.

MCC는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Jose Maria Arizmendiarieta) 신부가 가톨릭 사회교리 원칙에 따라 평등, 연대, 노동의 존엄 및 참여를 기본가치로 하여 창립하였다. 먼저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Lagun Aro)로부터 출발하여 MCC를 결성, 경기침체 때 MCC의 연대책임을 통해 실업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운영형태는 조합을 그룹으로 조직화하고 그룹 경영본부를 두어 책임을 맡게 하였으며 그 주요 업무는 회원 조합의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조합그룹이 실업 중인 조합원을 수용하지 못하면 Lagun Aro가 책임을 지고 각 협동조합과 조합그룹의 실업 조합원을 재배치하는 한편 실업자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MCC는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공동선을 위한 민주적 제도와 경영수단에 의한 운영으로 조합원의 실업상태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순이익의 재투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평협이 성직자와 수도자의 활동과 차별화된 평신도 고유의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이다.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① 사목과 통합된 사회복지, ② 사회적 복음화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③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행려인, 의료, 상담 등 각 주제별 특징과 전문성을 결합한 사회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에 평협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성직자와 수도자의 활동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대망을 구축하고 교구 사회복지 업무 보조 역할에서 독창성을 찾는 일이다. 그 한 예로서, 전국 교구 평협을 통하여 많은 신자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 또는 협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 관련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을 인쇄물로 제작 배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활동 또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신자 또는 시민들에게는 자기에게 알맞은 활동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복지단체들에는 쉽게 봉사자나 협조자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어 쌍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각 교구 평협 소속 단체와 본당 평협의 예산 10%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하는 일이다. 이는 서울대교구 본당 예산의 10%를 사회복지 활동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 교구장의 사목교서에 따라 한두 해 많은 본당들이 참여하였으나 점차 이탈하는 본당이 많아진 사례의 원인 분석에 따른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책임지고 있는 본당들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은 사회복지 활동을 함으로써 매너리즘에 빠져 스스로 동력을 잃어버린 데 원인이 있었다. 평협은 본당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성이 없이 전국이나 해외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고 활동방법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당의 경우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하면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가난한 이들에게 ‘집지어주기 운동’과 신자들이 앞장서는 ‘값싼 전세주기 운동’의 전개이다. 이 운동은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의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이 개발도상국들의 영세민들을 위해 무료 집지어주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 해비타트’(Habitat Humanities International)운동이 있고, 국내에서는 충남 서산지역 건축자재 판매상과 영세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원봉사단체인 ‘서산 사랑의 집 나눔회’가 있다. 특히, ‘서산 사랑의 집 나눔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해 매년 한 채씩 집을 지어주고 있지만 회원이 23명에 불과하고 모든 경비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부담만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원 조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협은 ‘서산 사랑의 집 나눔회’를 돕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에게 ‘집지어주기 운동’을 각 교구 평협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자들이 앞장서 현재와 같은 전세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한 이들과 전세금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값싼 전세주기 운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운동은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신명기’를 통해 하느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토지를 버린 사람은 집과……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마르 10, 29-30)라는 가르침에 따르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고 국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 활동과 개신교와의 교회일치 차원에서 ‘국제 해비타트’운동에의 참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사목에 대한 평협의 실천 영역 구축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남북분단과 통일을 대비한 통일사목이라는 특수사목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분단 이후의 민족사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과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는 사목적 실천 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펼쳐 나가야만 한다. 평협의 임무 역시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교계제도상 평협의 임무는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교계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는 평신도사도직 특유의 역할을 모색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평협이 통일사목에 결코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통일사목은 단순히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통일의 영성이 풍부하게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차원에서 그리고 평협 차원에서도 통일 환경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분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통일신학을 발전시켜 통일에 대비한 사목적 대안 모색을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런 준비가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평협 차원에서 원만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민족복음화의 현실에 부응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통일사목의 대상을 보는 한국교회의 시각이 과거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 시야가 좁다는 점이다. 통일은 남과 북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복음적 시각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복음적 시각을 지니기 위해 그 시야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황 바오로 6세가 사도적 권고의 형태로 반포한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i Nuntiandi, 1975.12.7)는 가르치는 바가 크다. 교황은 “교회로서 복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다 넓은 지역에서 혹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逆轉)시키고 바로잡는데 있다.”⁴⁸⁹⁾고 보다 적극적인 선교를 강조하였다.

이를 북한 선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국교회는 교계제도적 차원에서 보이는 형태의 성과를 찾아 나가는 접근태도를 앞세우기보다 이에 앞서 분단현실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이에 맞물린 북한사회의 존재양식 변화모습을 복음의 힘으로 다가서고 또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사목을 향한 평협의 과제를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협은 평신도사도직의 차원에서 그 시야를 넓히는 가운데 통일사목을 준비하는 기본인식의 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신학의 구성 가운데 가장 기본을 이루는 평화의 신학 차원의 이해와 접근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평협은 민족사회의 하나됨과 이를 향한 민족화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복음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의 ‘평화’, 그 현실적 의미와 이에 객관적 인식을 도모하여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복음적 이해의 기초를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미 1990년대 후반에 평협의 공식 기구로 민족화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신학적 실천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평협 나름으로 통일신학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사목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접근 그리고 이에 필요한 통일영성의 함양을 위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평협 민족화해위원회 차원에서 한시 바빠 착수해야만 한다.

둘째, 평협은 교구와 본당 사목을 잇는 중추신경인 동시에 본당 사목의 현장을 대변해야 하는 기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협은 통일사목을 위한 사목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이미 남북관계의 진전과 반전이 거듭되고, 새터민들이 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사목은 이미 본당 사목의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평협은 통일사목을 위한 교구의 사목방침과 본당에서의 사목적 필요성을 연결하는 사목

489) 「현대의 복음선교」 19항.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와 함께 통일사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사목현장에서 모아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위한 교회 내의 접근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는 평신도사도직의 중요한 요소로 통일사목의 관점에서 제기될 “예언자적 사명”⁴⁹⁰⁾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교구 평협과 교구 민화위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통일신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제기되는 것이 또한 ‘나눔의 신학’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면, 평협 역시 민족화해적인 차원의 나눔 실천에 필요한 대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남북 관계 속에서 북한 사회와 소통을 이루는 유일한 방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협은 각 본당이나 교구 차원에서 북과의 소통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평협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북핵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6자회담의 틀이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평협은 바티칸과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과 일본, EU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평협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복음적 시야를 넓히고 역할의 폭을 넓이는 노력으로서 통일사목과 통일신학의 지식을 갖는 평신도 신학자의 양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평협의 조직 인프라 구축과 사무·연구 기능 확대

평협 제50년기 활동의 활성화는 전국 평협 조직 활성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전국 평협 조직 활성화는 먼저 한국평협을 중심으로 각 교구 평협과 평신도사도직단체들의 유기적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평협 조직구조의 특성상 네트워크 없이 바람직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협과 각 교구 평협 및 평신도사도직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잘 네트워크화 될 때 교회 안의 평신도 활동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교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협의 유기적 네트워크화에서 평협 사무국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평협의 조직은 형식적으로 각 교구 평협과 평신도사도직단체들과 연계체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활동의 네트워킹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의 네트워킹을 체계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인 사무국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⁴⁹¹⁾

490) 「평신도 그리스도인」 17항.

491) 현재 평협 사무국은 비상근 사무총장과 상근 임직원 3명(사무국장, 과장, 직원 각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이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평협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평협의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의 작성, 사업계획서와 예산에 따른 평협 사업의 수행과 결산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거기에 더하여 평협과 전국 모든 평신도사도직단체 활동을 기획단계에서부터 활동종료까지 모니터링 하여 취합하고 그것을 연보 형식으로 정확하게 기록 정리하여 보존하고 즉각적인 공개나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평협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 동안 평협 활동 기록이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은 평협 사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한다. 1997년 이후에는 그나마 계획서와 예산지출 등의 자료가 있어서 항목별로 평가가 가능하나 그 이전에는 그러한 자료마저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1997년 이후의 기록도 각 년도 중점사업들에 대한 활동지표는 지표로서 측정할 수 없는 비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또한 평협의 회보의 관리와 인터넷 홈페이지 수준이 낮은 것도 사무국의 업무능력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

사무국 기능과 함께 사회사도직연구소 기능의 정상화도 요구된다. 현재 사회사도직연구소가 있으나 소장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이 현직 교수 등으로 봉사차원에서 비상임으로 참여하여 책임감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상근 연구조원이 한 명도 없는 등 연구지원체제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평협 제50년기 활동을 위한 각종 기획과 새로운 활동영역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일차적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사무국과 사회사도직연구소의 기능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무국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평협 활동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내려면, 사회사도직연구소는 평협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조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연구소는 평협 활동의 분야별 기획안을 제안하고 사무국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 안배하여 평협 각 위원회에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평협 활동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사무국과 사회사도직연구소의 기능정상화는 전문 인력의 확충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협 재무구조상 단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먼저 평협 사무국과 사회사도직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평협의 핵심기구화 한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두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을 평협과 각 교구 평협 및 평신도사도직단체들이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분담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계제도의 인준을 받아 평협 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도록 한다.

사무국의 조직은 기획사무처로 개편하여 비상임 사무총장과 상임의 기획, 총무, 홍보 3개 국장과 간사를 둔다. 기획국은 각 교구 평협과 평신도사도직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총무

국은 평협의 예·결산과 자산관리 업무를 맡으며, 홍보국은 평협 활동의 기록·정리, 회보, 인터넷 홈페이지관리 등을 담당한다.

연구소의 조직은 비상임 연구소장과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 연구위원을 두며, 3~4명의 상임연구원을 확보하여 평협의 활동 지평을 넓혀 나간다. 연구소의 사무는 평협의 기획사무처가 담당한다. 이 연구소는 평협 제50년기에 완전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평신도사도직 활동에 관한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여 한국교회 평신도사도직 연구의 중심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언은 어쩌면 한국교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理想)의 나열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느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지 못할 이상이나 꿈은 없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기에 말이다. 이제 평협 반세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평협 발전을 위한 이상의 실현을 향해 나아갈 길을 찾는 우리에게 차동엽 신부는 다음과 같은 “동반여정의 길”을 알려준다. 차동엽 신부의 제언으로 이 글의 대미를 장식하려 한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흔히 말하는 ‘민주화’의 절대논리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교회는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인 시노드(synodus)의 길을 가야한다. 즉, 교회 지도층에 대한 존중(교계원리), 신자 참여권의 존중(협의체의 원리), 이 양자의 원활한 조화(보조성의 원리)가 어우러진 동반여정(synodus)의 길을 가야하는 것이다.”⁴⁹²⁾

492) “차동엽 신부의 새 시대 교회가 나아갈 길 3-뉴 리더십”, 『가톨릭신문』 2001.12.16

40th
CLAK

후 기

40th
CLAK

후 기

이 백서를 타고하면서 긴 한숨과 함께 저절로 나온 말이 “난산”이라는 한마디였다. 이 백서의 발간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1월 평협 상임위원회에서였다. 평협 40주년이 되는 2008년 중에 기념사업의 하나로 백서를 출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발의 후 꼬박 4년이 지나고 예정보다 3년이나 더 걸려 겨우 타고가 끝났다. 누가 보아도 난산치고 진통이 너무나 긴 난산이었다고 할 것이다.

처음 이 작업을 기획할 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이미 「평협20년사」와 「평협30년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30년간은 자료정리가 되어 있는 셈이니 이 두 책을 기초자료로 하면 1968~1997년 30년간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집필방향도 「평협30년사」 이후 10년간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마지막 10년간의 작업도 평협과 각 교구 평협의 매년 총회자료 중 전년도 사업실적 기록을 토대로 하여 교회 운동과 단체들의 활동상황을 대상으로 삼아 써 내려가면 큰 어려움은 없으려니 했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되다보니 장년기를 맞은 평협의 백서인 만큼 평신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싶어졌으리라 여겨진다. 그 의욕이 어떠했었는가는 처음에 구상되었던 백서의 목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1 서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친교의 교회상, 2 평신도의 교회생활참여-새로운 복음화 참여(2.1 교회의 내부생활 2.1-1 ‘친교의 교회론’에 입각한 평가=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했는가?=본당, 교구 차원에서, 2.1-2 운동단체), 2.2 교회 외부 생활(2.2-1 인간과 사회에 대한 봉사, 2.2-2 인권, 2.2-3 생명·환경, 2.2-4 민족화해, 2.2-5 가정생활, 2.2-6 정치생활, 2.2-7 경제·사회생활, 2.2-8 사회복지, 2.2-9 문화의 복음화, 2.2-10 국제협력), 3 참여의 주체(3.1 어린이, 3.2 소년, 3.3 청년, 3.4 장년, 3.5 노인 3.5-1 제3인생기, 3.5-2 제4인생기, 3.6 여성, 3.7 병자), 4 평신도 양성-교육, 5 결론: 반성과 미래비전 제시, 별책: 한국교회와 평신도사도직 세미나 1~4차 또는 5차 발제와 토론문”

이 구상 내용은 평협 상임위원회 2007년 제3차 회의에 보고되었고 공지되기도 하였다.⁴⁹³⁾ 그러나 이 구상내용대로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한홍순 평협 회장으로로부터 집필을 의뢰받은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들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구상내용이 ‘평협백서’라기보다는 ‘평신도백서’라고 해야 할 만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신학이나 종교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 필진으로는 집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구소 차원에서 ‘평협백서’의 내용이 다시 논의되었다. 첫 번째 논점은 왜 ‘평협40년사’가 아니고 ‘40주년 백서’이어야 하는 점이었다. 이점은 서언에 밝힌 바와 같다. 두 번째 논점은 내용과

493) 「평협소식」 11호, 2007.11.5, 2쪽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때 모아진 의견이 이 백서 내용의 기본 틀이 되었다. 세 번째 논점은 집필진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작업을 수행할 것인가였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백서가 출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통념대로라면 당연히 연구소 소장이어야 하지만 봉사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장이나 연구위원인지라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홍순 평협 회장이 직접 맡았다.

그리고 사회사도직연구소 소장을 포함하여 연구위원 위촉자⁴⁹⁴⁾ 중 연구소 회의에 참석하는 10여 명과 평협 회장으로 일단 집필진이 구성되었다. 집필진은 평협 40년간의 활동 분야별로 나누어 각자 활동의 내용, 반성과 제언 순으로 집필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때 정해진 집필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직함은 당시 기준)

1) 교회관계(최홍준 위원/평협 사무총장), 2) 선교(조은상 위원/한국능력개발연구원 연구위원), 3) 가정·생명·환경(이윤식 위원/서울대 공대 교수), 4) 정치(오병선 소장/서강대 법대 교수), 5) 경제·사회(오용석 위원/경성대 상대 교수), 6) 사회복지(박순석 위원/평협 기획위원장), 7) 교육, 8) 문화·언론·출판(정찬남 위원/국제문화대학원대 교수), 9) 국제협력(한홍순 평협 회장/한국외대 교수), 10) 민족화해(변진홍 위원/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평협 40주년 백서’ 출간은 정식으로 평협 2008년 사업계획의 하나로 서울 평협 정기총회(2008.1.19)와 한국평협 정기총회(2008.2.26)에 상정되었다. “한국평협 40주년을 맞아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백서를 발간하고 이에 걸맞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⁴⁹⁵⁾ 이렇게 백서의 출간은 평협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집필 작업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었다. 그야말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을 할 만한 준비를 전혀 못 갖추고 있었다. 연구 인프라는 고사하고 연구보조원 한 명도 없었다. 그러기에 집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차적인 자료수집부터 불가능하였다. 자기 고유의 직업과 직무 부담을 가진 채 봉사정신으로 참여한 비상임 연구위원들로서 백서의 집필 분담은 받았지만 모두 업무를 못 내었다. 집필회의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렸지만 나오는 위원들은 줄어만 갔다. 연구소 소장까지 연락두절이 될 정도였다. 한홍순 평협 회장의 독려도 역부족이었다. 정해진 기일에 제출된 원고는 한두 분야에 불과했다. 그러다 한홍순 회장마저 잦은 국제회의 참석과 2010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음으로 해서 집필책임자의 공백과 함께 결국 백서의 집필은 2010년 초까지 중단되고 말았다. 백서를 출간하겠다는 2008년 평협 40주년이 되는 해는 이미 두 해나 지나버린 것이다. 부연컨대, 이 백서의 평협50년기를 향한 제언에 왜 사무국 조직과 연계한 사회사도직연구소 활성화가 절실한지를 깊이 헤아려주기 바란다.

494) 위촉된 연구위원은 17명(‘한국 평협 수첩’ 2008~2009 등재 기준)이었다.

495) 「평협소식」 13호, 2008.3.5, 2쪽

2010년 최홍준 평협 회장 취임과 함께 필자가 사회사도직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백서 집필 노력이 재개되었다. 1차 작업은 그 동안 몇몇 위원의 노력으로 집필된 분야별 내용의 검토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집필이 전혀 안 된 분야가 여러 개이고 집필된 내용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다. 더욱이 분야별로 내용의 분량 차가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였다. 내용상 분량 차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분류 체제를 활동 중심에서 평협 출범부터 40년간을 10년 단위의 편년체제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매 10년기마다 각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평협 제50년기(2008~2018)를 위한 반성과 제언을 종합하는 한편, 부록으로 한국평협 연표(1968~2009), 평협 발표 선언문·성명서, 평신도주일 강론 자료, 평신도 의식조사 분석을 첨부하는 것으로 백서의 내용구성을 새로 짰다.

그리고 2차 작업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자료수집 불능에 따라 내용이 부실하거나 집필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 작업은 변진홍 위원 책임 하에 2개월 동안 대학원생 보조원을 임시로 고용하여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 검색을 통해 평협 활동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백서의 평협 활동 내용은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

사실, 변진홍 위원에 의해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백서 출간 가망성은 옅어만 갔다. 약속된 발간 기일이 너무 많이 지난 데다 빠진 분야에 대한 마땅한 집필자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한다는 데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억지로 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내용으로 오히려 교회와 평협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백서를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변진홍 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은 이런 생각들을 지우고 다시 한 번 백서 발간에 매진하게 하였다. 이 백서가 뒤늦게나마 햇빛을 볼 수 있게 된 일차적인 공로를 변진홍 위원의 몫으로 돌리면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변진홍 위원의 작업성과를 가지고 최종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0년간 평협에서 발간된 자료 중에서 그 동안 집필에 미처 활용되지 못했던 각종 회지들을 찾아 빠진 내용을 포함시키고 중복되거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첨삭 작업과 내용 보완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서 내용의 체계적인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크게는 제1편 평협 창립 배경이 추가된 것이다. 분야별 활동 설명에서 여기 저기 언급은 되지만 전체적인 배경 부분이 없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체계적인 배경 설명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매 10년기 활동 편에도 새 항목이 더해졌다. 그것은 지난 40년간 평협과 교계제도 간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들을 정리하여 매 10년기 편의 앞부분에 배치된 ‘교회내적 관계’이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었으나 최종 집필 계획에서 빠져 있었다. 평협과 교계제도와와의 관계는 평협의 조직과 향후 평협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결코 소홀히 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되살렸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의 작업으로 집필된 것이 서언 및 개관과 제6편 평협 제50년기를 위한 반성과 제언이다.

이렇게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사리 백서의 집필은 끝났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인다. 평협의 전국 활동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빠진 내용이 많이 있다. 교구평협들의 기록은 한국평협과

연관된 경우에만 다루어졌을 뿐이고, 평협 단체 회원들의 활동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모두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교구평협백서’와 ‘평협단체별백서’를 따로 내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백서는 결코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백서 발간의 발의에서부터 초기 집필 작업을 해 준 한홍순 전 평협 회장을 비롯하여 한 회장과 함께 사회사도직연구소 사업에 정성을 쏟은 최홍준 현 평협 회장의 역할이 컸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한홍순 회장은 주바티칸 대사로, 최홍준 회장은 평협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백서 집필에 끝까지 동참하지 못하였다. 한홍순 회장은 대사 직무를 맡은 후에도 백서의 마무리 글을 쓰고 싶어 했을 만큼 애착이 컸다. 두 분 회장이 끝까지 동참하였었다라면 보다 나은 백서가 되었을 것이다.

바쁜 시간을 내어 사회사도직연구소에 참여하고 쉽지 않은 백서 발간에 동참하여 글을 써준 집필진, 멋진 표지 디자인을 해준 김주훈 교수, 이들 모든 동료 연구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백서가 나오기까지 유영훈 평협 사무국장의 노고도 컸다. 바쁜 평협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도 필요한 연락업무와 교정 작업에 관계되는 일들을 도맡아 해주었고 백서의 부록과 참고문헌 정리를 맡아 고생하였다. 집필진을 대신하여 감사한다. 또한 해외에 머무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교정을 맡아 꼼꼼히 작업을 해준 김아영(아텔라) 선생에게도 감사한다. 혹시 이 백서에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끝으로 이 백서에 축사를 써주신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님, 지지부진한 백서의 집필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님, 백서작업이 중단될까 마음 조리시며 기회 있을 때마다 백서에 관한 발표를 하게 해주신 평협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님께 집필자들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결실이지만 그 동안 평협과 사회사도직연구소, 그리고 이 백서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전국의 모든 평협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오용석



참고문헌



40th
CLAK

참 고 문 헌

-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 「韓國天主教 平協三十年史」, 韓國天主教平信徒使徒職協議會, 1999.
- 「韓國天主教 平協二十年史」, 韓國天主教平信徒使徒職協議會, 1989.
- 강우일, “가정과 청소년”, 서울평협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분과 사목위원 연수 자료집」 (1986-1993년).
- 김영수, “평신도 사도직과 평협”,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내부논문, 2010.
- 노길명, 「가톨릭과 조선후기 사회변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0.
- 마백락, “국채보상운동과 서상돈”, 「교회와 역사」 제294~295호, 1999.
- 박상진, “1970년대 평협의 활동과 그 의미”, 「오태순 신부 은경축 기념 논문집: 韓國社會와 福音宣敎」, 도서출판 빅벨, 1994.
- 심홍보, 「한국천주교회 사회복지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안드레아스 쉬니더(Andreas Schnider), “교회를 위한 생활망으로서의 마케팅”, 루드비히 캡퍼(Ludwig Kapfer) 외, 「교회와 마케팅」(Die Jesusmanager), 한국감마모델연구소, 1999.
- 양한모, “신도신학서설”, 「가톨릭서울」, 1978.
- 오용석, “국제 소득 불균형 문제와 교회의 입장”. 한국사목연구소 사목연구총서 4 「자본주의 사회와 가톨릭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 오용석, “소외없는 세계화, 연대의 세계화를 위한 조건과 실천”, 「사목」 제242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 이관진, “사도직 활동에 유익한 회보되기를”, 「韓國平協」 통권 32호, 1995.
- 이관진, “순간을 잘 사는 信徒價”, 「韓國平協」, 통권 31호, 1994.
- 이동익, 「인간, 교회의 길: 요한 바오로 2세의 사회교리」, 성바오로수도회, 1998.
- 이동호, “통일사목에 임하는 자세”, 한국천주교회 통일사목연구소 편, 「가톨릭교회와 민족복음화-통일사목의 진로와 전망」, 일선기획, 1990.
- 이윤자, “남북해외 천주교인 세미나 참가기”, 「통일한국」, 1996년 3월호.
- 조 광, “한국 천주교회사”, 「한국천주교회 총람 1995~2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 조은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최석우, “안중근의 신앙과 민족운동”, 「교회와 역사」 제220호, 1993.
- 최석우, “일제하 한국천주교회의 독립운동-3·1운동을 중심으로”, 「교회와 역사」 제235호, 1994.
- 한홍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서울평협 「공의회 학교」 제2권, 가톨릭출판사, 2008.

H. 헨드릭스, 「성서와 사회정의」 정한교 옮김, 분도출판사, 1987.

교회문헌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1998.

「서울대교구 총람」, 서울대교구, 1984.

「통일사목자료집」,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통일사목연구소, 510쪽.

교황 바오로 6세 서한 「행동에의 부름」, 1971.

교황 바오로 6세의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 nuntiandi), 1975.

교황 바오로 6세의 교서 「팔십주년」(Octogesima adveniens), 1971.

교황 바오로 6세의 외교사절단 접견 연설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교회의 공헌」, 1972.

교황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61.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 「세계 정의」(De Iustitia In Mundo), 1971.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1965.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평신도의안」, 1984.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

Pius XII, Discourse to the New Cardinals, February 20, 1946: AAS 38, 1946.

Sanctus Hieronymus, Commentarius in Ecclesiasten, 10, 11: CCL 72, 338, PL 23, 1096.

평협 발간물

「가톨릭 서울」

「서울평협」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업계획서」

「平協」

「평협의 소리」

「평협회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업계획서」

「한국평협」

신문·잡지

가톨릭신문

동아일보

인사이드 한국천주교회

평화신문

인터넷 사이트

“Guiding Principles Of The Lay Apostolate”,

www.papalencyclicals.net/Pius12/P12LAYAP.HTM

“제 1차 세계 평신도 대회(1951년)” 순례자(2008.10.08)

<http://blog.daum.net/fhwmakfl/6844/7586260>

“Pope Benedict XVI emphasizes that the laity are co-responsible for the Church”,

(March 9, 2010)

www.zimbio.com/Pope+Benedict+XVI/articles/FSJQn-HxrPQ/Pope+Benedict+XVI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2008.11.6).



White Paper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부 록

1. 한국평협 연표(1968~2009)
2. 평협 발표 선언문 · 성명서
3. 평신도주일 강론 자료
4. 평신도 신앙실태조사 분석
5. 역대 한국평협 임원명단(1968~2009)

40th
CLAK



1. 한국평협 연표(1968~2009)

1968년

- 5. 31 주교회의 임시총회에서 <평신도전국연합회> 구성 준비안을 승인하고 그 총재 주교로 황민성 베드로 주교(대전교구장)를 선임
- 7. 23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한국평협)> 창립 총회
 - 장소 : 대전 대흥동 성당
 - 참석 : 12개 교구 중 11개 교구(원주교구 불참) 평신도대표와 8개 단체대표, 지도신부 6명 등 27명 참석
 - 초대 회장에 류홍렬 라우렌시오 (성균관대 대학원장) 선출, 초대 지도신부로 김남수 안젤로 신부(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사무국장) 선임
- 9. 8 <한국 병인순교자 시복 경축 중앙위원회> 결성
- 10. 14 '평신도사도직의 날' 제정 성명서 발표
- 10. 14~16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전국 평협 인준
- 12. 1 제1회 평신도사도직의 날
 - 황민성 총재주교 담화문 발표
 - 평신도 강론 참고자료와 홍보포스터(각 500부) 배포

1969년

- 1. 1 전국 평협과 서울평협 신년하례회 공동 주최(명동대성당 사제관 2층)
- 7. 19 제2차 정기총회
 - 장소 :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
 - 참석 : 10개교구 4개 전국 단체 총 37명 참석
 -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주교회의 건의사항을 밝힌 성명서 발표
- 11. 30 제2회 평신도사도직의 날, 황민성 베드로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1970년

7. 14~22 A. <사회개발평화합동위원회(Sodepax: Joint Committee for Society Development and Peace)> 회의 및 <동아시아 그리스도교회(EACC: East Asian Christian Conference)> 공동주최로 열린 <그리스도교 아시아 개발회의(Asian Christian Conference for Development)>에 대표 파견(주제: 아시아교회와 아시아 개발)
- 일본 도쿄 성심여대, 류홍렬(평협 회장), 박희섭(협동교육연구원장), 김화자(전교사)
- B. <아시아지역 가톨릭 평신도사도직 운동 회의>에 참석
8. 24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결성
8. 24~25 제3차 정기총회
- 장소: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
 - 참석: 7개교구, 3개 단체에서 25명 참석
 - 임원개선: 회장 류홍렬(유임)
9. 6 '주교단의 모자보건법안 반대 성명지시' 성명서 발표
11. 15 제3회 평신도 주일
- 황민성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평신도사도직의 날'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로 바뀌면서 명칭도 '평신도 주일'로 바뀜

1971년

2. 22 도쿄 <그리스도교 아시아 개발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의 가톨릭·개신교 대표 각 20명(총 40명)은 서울 YMCA 강당에서 <사회개발평화합동위원회 한국위원회(Sodepax Korea Committee)> 결성
7. 27 제4차 정기총회
- 장소: 대전 성모여자중고등학교
 - 참석: 8개 교구 평협(일부 사목회) 회장단, 5개 단체장 등 42명 참석
 -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제3차 총회 및 '교회 안에서의 대화'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김경환 신부의 보고 강연
8. 26 중앙 평의회회를 소집하여 순교복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에 대한 시성운동의 전개를 주교회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의
9. 16 절두산 광장에서 봉헌된 김대건 신부 순교 125주년 기념미사에서 서명운동이

시작되어 교회 기관들과 공동으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시성 촉진 운동 착수 이후 전국으로 확산

11. 14 제4회 평신도 주일, 황민성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1972년

7. 31~8. 1 제5차 정기총회
- 장소 : 부산 성 베네딕토회 수도원 명상의 집
 - 참석 : 7개 교구 대표, 5개 전국 단체에서 42명 참석(서울평협은 교구의 활동중지방침에 따라 불참)
 - 회칙을 개정(4장 26조) : 지방 평의원도 중앙상임위원 피선거권을 갖게 됨
 - 제2대 회장에 이창복 노베르토(서울대학교 농대교수) 수원평협 회장을 선출
 - 주교회의 건의사항 제출
11. 19 제5회 평신도 주일, 황민성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1973년

6. 5 평신도 지도자 간담회 개최
- 침체된 평신도사도직운동을 종합 분석하고 그 타개책을 강구
7. 28~30 제6차 정기총회 및 제1회 평신도 지도자(임원) 연수회
- 장소 : 왜관 피정의집
 - 참석 : 10개 교구 대표와 5개 전국단체에서 60여 명 참석
 - 주제 : '교회와 평신도운동의 진로'
 - 주제강의 : '공의회 문헌에 관하여' (김남수 안젤로 주교)
 - 강의 :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평신도의 사명' (황민성 베드로 주교)
'교회발전을 위한 평신도의 역할' (현석호 가톨릭 교리연구소 소장)
'평신도운동의 역사적 배경' (이태재 박사)
9. 23 평신도 교육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현석호,
 - 위원 : 유재국 신부, 서정열, 양한모, 김기철, 이원순, 이승우
10. 15~19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지학순 다니엘 주교(원주교구장)를 제2대 총재 주교로, 이종홍 그리산도 신부(CCK 사무총장)를 제2대 지도신부로 선임
11. 18 제6회 평신도 주일, 지학순 총재주교 메시지 발표

1974년

7. 평신도 교육교재 〈생활하는 신앙인〉 총 140여 쪽, 4,000부 출판(집필 : 이승우)
8. 30~9. 1 제7차 정기총회와 임원연수회
- 장소 : 왜관 피정의 집
 - 참석 : 10개 교구 대표, 4개 전국단체에서 40명 참석
 - 강의 : ‘사회참여의 신학적 의의’ (박상래 신부, 가톨릭대 신학부 교수)
‘평신도의 사회참여 방법’ (김달호, 경북대 문리대교수)
‘평협의 조직과 운영’ (이종홍 신부, CCK 사무총장)
 - 제3대 회장에 김기철(요셉, 서울대교구 금호동본당 총회장) 회장을 선출
 - 평신도사도직운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문서를 채택하여 주교회의에 제출
9. 제3대 지도신부에 김득권 굴리엘모 신부, 서울평협 지도신부가 한국평협 지도신부를 겸임하게 됨
11. 17 제7회 평신도 주일

1975년

2. 22 동선동 꾸르실료 회관으로 사무국 이전
2. 24~28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는 전주교구장 김재덕 아우구스티노 주교를 제3대 총재주교로 선임
9. 6 서울평협 활동재개, 제5차 정기총회 개최
9. 12~14 제8차 정기총회와 임원연수회
- 장소 : 서울 꾸르실료 회관
 - 참석 : 9개교구 대표와 5개 전국단체 대표 32명 참석
 - 주제 : ‘오늘의 평신도’
 - 주제강연 (김재덕 아우구스티노 주교)
 - 강의 : ‘평신도의 어제와 오늘’ (두봉 레나도 주교, 안동교구장)
‘성직자와 평신도’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평협의 조직’ (이종홍 신부)
‘오늘의 한국교회’ (문창준 회장,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초대회장)
 - 103위 순교복자 시성운동 추진을 결의
11. 1 시성·시복운동 자문위원회 구성
11. 16 제8회 평신도 주일

12. 9 시성·시복 발기 준비위원회 개최

1976년

- 3. 18 구속 사제와 고통받는 형제를 위한 ‘사순절 평신도기도문’을 작성, 전국 본당에 배포
- 6. 1 평신도 피정교재 「화해와 쇄신을 위한 크리스찬 생활」 출판 간행
(1977. 1월 재판, 1979. 5월 3판, 1984. 9월 4판 발행)
- 8. 2 한국평협 마크 제정(도안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김교만 교수)
- 8. 26 미리내 성지에서 순교자 현양대회 개최(수원교구와 공동 주최)
- 8. 30 한국평협, 출판사 등록(등록번호 : ㉠ 제5~60호)
- 9. 3~5 제9차 정기총회와 임원 연수회
 - 장소 : 마산 가톨릭문화원
 - 참석 : 10개 교구 대표, 7개 전국 단체 대표 등 45명 참석
 - 강사 : 장병화 요셉 주교(마산교구장), 범석규 신부(전주평협지도), 윤공희 빅토리오 대주교(광주대교구장),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김기철 회장
 - 회칙 일부 개정(부회장 정원, 홍보부·교육부 역할 분담)
 - 임기 2년 만료 임원 선거 : 한몽연 부회장 선임(부회장 증원에 관한 회칙 개정에 따라)
- 9. 16 시성시복 발기인 대회 개최 및 ‘한국천주교 시성시복 추진위원회’ 구성
- 10. ‘시성을 위한 기도’ 등 상본(30만 매)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
- 10. 30~31 제1회 크리스찬 생활 연수회 개최(서울 꾸르실료회관)
- 11. 14 제9회 평신도 주일, 한국평협 배지 제작(3,000개)
- 12. 13 명동 3·1절 기도회 사건과 관련, ‘평신도 여러분에게 고함’ 성명서 발표

1977년

- 6. 25 타블로이드판 6면의 계간지 회보 「平協」 창간
- 9. 3~4 제10차 정기총회와 임원연수회
 - 장소 : 전주 가톨릭센터
 - 참석 : 11개 교구 평협, 7개 단체 대표 46명 참석
 - 강사 : 이종홍 신부(한국평협 지도신부), 김수창 신부(서울평협 지도신부)
 - 결의문 채택

11. 13 제10회 평신도 주일

1978년

1. 6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신도 전국단체(한국평협,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꾸르실료협의회, 가톨릭대학생회) 해체 문제를 주교회의 상정 안건으로 심의
1. 15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
1. 28 회보 「평협」 제2호 발행(이후 발행 중단)
2. 5 임시총회 개최, 전국단체 해체 문제에 따른 주교회의에 제출할 건의문 채택
5. 15 묵상집 「말씀과 더불어」 출판(제논 에일 원저 / 차근호·최봉희 공역, 227쪽)
5. 25 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제4대 지도신부에 김수창 야고보 신부 임명
서울평협 지도신부가 한국평협 지도신부를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
6. 4~6 제11차 정기총회와 임원연수회
- 장소 : 수원교구 교육원
 - 참석 : 11개 교구 평협, 6개 전국 단체 대표, 지도신부 9명 등 50명 참석
 - 회칙개정
 - 주제 : ‘교회 쇄신’
 - 소주제 토론과 발표 : ‘교회쇄신과 교회 안의 평신도’ (대구평협)
 - ‘교회쇄신과 사회 안의 평신도’ (원주평협)
 - ‘교회쇄신과 특수분야에서 평신도사도직’ (가톨릭농민회)
 - ‘교회쇄신과 우리의 현실’ (박상래 신부)
 - ‘교회쇄신과 평신도사도직운동의 자율성’ (오경환 신부)
6. 7 일선장병 정신교육 실시
7. 8~9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연수회
-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 참석 : 지방 교구, 단체 대표, 서울 본당 대표 등 87명
 - 강사 : 오경환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부), 이한택 신부(서강대학교)
7. 22~23 수원교구 평신도 지도자 피정지도(수원 세류동 성당)
8. 23~27 제1회 신앙대학 강좌
- 장소 : 부평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기도의 집
 - 주제 : ‘인간의 회복-인간부재의 현실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 수강인원 : 120명

- 내용 : ‘국민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김수환 추기경)
 ‘복권되어야 할 인권’(지학순 주교)
 ‘「교의 현장」에서 본 평신도’ (김몽은 신부)
 ‘현대세계의 현대세계의 사목현장’(박상래 신부)
 ‘복음화와 인권참여’(이한택 신부)
 ‘그리스도교와 인권’(박도식 신부)

9. 30~10.1

전국 부녀 지도자 연수회

- 장소 : 서울 상지회관
- 참석 : 지방교구 여성대표, 가톨릭 농촌여성회 임원, 서울대교구 14개 본당신자 등 총 32명 참석
- 내용 : ‘행복한 가정운동’(박토마 주교)
 ‘성소와 가정’(김수창 신부)
 ‘사회복음화를 위한 부녀운동’(이 소피아 수녀)
 ‘도시여성과 농촌여성의 생활의식’(김준기 교수)
 ‘평신도사도직과 가정’(김기철 회장)

10. 3

제1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 학생 웅변대회

- 한국평협 주최, 서울대교구 후원
- 명동 가톨릭문화관, 각 교구 대표 30여 명 참가

10. 22

‘추곡수매가 인상건의서’를 정부와 관계 기관에 발송

11. 5

시성·시복 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및 시국에 관한 성명서 ‘주보발행 중지에 대한 건의서’ 채택

1979년

1. 20

화보집 「교황 3대」 간행

2. 24

회칙 개정(1982.2.23까지의 유효 회칙)

3. 8~11

제2회 신양대학 강좌 실시

-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 수강인원 : 104명
- 주제 : ‘교회와 쇄신’
- 내용 : ‘가톨릭의 세계적 전망’(김수환 추기경)
 ‘순교정신과 복음선교’(김재덕 주교)
 ‘교회의 사명과 쇄신’(지학순 주교)

- ‘새신과 교회의 현실참여’(두봉 주교)
-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정하권 신부)
- ‘복음의 증거생활’(변갑선 신부)
-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오경환 신부)
- ‘새신과 교회상’(이한택 신부)
- ‘새신과 교회 안의 문제점’(함세웅 신부)
- ‘새신과 교회의 매스컴’(최창섭 박사)

4. 15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해설」 출판(小林有方 원저 / 김기철 번역, 174쪽)

5. 26~27 제12차 정기총회와 임원 연수회

- 장소 : 왜관 피정의 집
- 참석 : 13개 교구 평협, 10개 단체 대표 57명 참석
- 주제 : ‘교회새신’
- 내용 : ‘교회새신과 교회 안의 평신도사도직’(임학권 대구평협 회장)
 ‘교회새신과 사회 안의 평신도사도직’(김인성 원주평협 회장)
 ‘교회새신과 특수분야에서의 평신도사도직’(최병욱 가톨릭농민회 회장)
 ‘교회새신과 우리 교회의 현실’(박상래 신부)
 ‘교회새신과 평신도사도직의 자율성’(오경환 신부)

6. 제5대 지도신부에 오태순 토마스 신부

8. 13~16 제3회 신앙대학 강좌

- 장소 : 대전 가톨릭문화회관
- 수강인원 : 60명
- 주제 : ‘교회사와 현대 세계의 복음선교’
- 내용 : ‘사회정의와 복음선교’(김수환 추기경)
 ‘현대의 복음선교’(김재덕 주교)
 ‘교회사’(이원순 교수)
 ‘가톨릭의 한국 근대화 운동’(류홍렬 박사)
 ‘순교의 현대적 의미’(최석우 신부)
 ‘복음선교와 가톨릭의 사회적 역할’(김승훈 신부)
 ‘도시·농촌의 복음선교’(이종창 신부)

8. 16 ‘안동 오원춘 사건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주교회의 제출

9. 10~17 인천교구 부평2동 본당 피정지도

9. 22~23 제주평협 임원 피정 강론 지원

10. 14 제2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 학생 웅변대회
 • 장소 : 명동 가톨릭문화관
10. 26~28 제4회 신앙대학 강좌
 •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 수강인원 : 108명
 • 주제 : '성서와 현대의 우리 - 성서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돕기 위함'
 • 내용 :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 구약 7강좌'(서인석 신부)
 '신앙중심 - 6강좌'(정양모 신부)
11. 7~8 인천교구 제물포 본당 피정지도
11. 18 제12회 평신도 주일

1980년

2. 29~3.2 제5회 신앙대학 강좌
 • 장소 : 반도유스호텔(서울 영동 소재)
 • 수강인원 : 115명
 • 내용 : '하느님 백성의 일치'(김수환 추기경)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박도식 신부)
 '그리스도와 우리들'(문동환 목사)
 '새로운 현실과 우리들의 일치'(김재덕 주교)
 '교회일치에 관한 교령'(유재국 신부)
8. 7~8 제13차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쾨벤뚜알 성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 참석 : 12개 교구, 6개 단체 총 51명
 • 강의 : '현실과 평신도사도직의 방향'(김재덕 주교)
 • 임원개선 : 김기철 회장(서울평협) 유임
 • 내용 : 주교회의 건의사항 채택
 ① 교회방송국 설립의 건
 ② 교회창설 200주년 행사에 교황 성하 참석 추진
 ③ 평신도 주일 헌금의 1/2은 교구에 1/2은 전국에 송금 건의
9. 2 김기철 회장의 체신부 장관취임으로 회장 직무대리에 최상선 부회장이 임명됨
10. 2~5 제6회 신앙대학 강좌
 • 장소 : 서울 상지회관

- 수강인원 : 72명
- 내용 : ‘희랍정교회의 전례’(나창규 희랍정교회 신부)
- ‘전례와 쇄신’(최윤환 신부)
- ‘성사론’(변갑선 신부)
- ‘교회의 현대적 질서’(김영환 신부)
- ‘크리스천 생활의 쇄신’(김영환 신부)
-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이한택 신부)
-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이한택 신부)
- 10. 12 제3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학생 웅변대회
- 장소 : 동성중고등학교 강당
- 11. 7~8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유성 대운장
- 참석 : 청주 제외 전 상임위원 참석 15명
- 11. 16 제13회 평신도 주일
- 강론자료 2,000부, 포스터 800매 발행

1981년

- 3. 20~22 제7회 신앙대학 강좌
- 장소 :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 수강인원 : 57명 외 평협 임원 일동
- 주제 : ‘이웃 전교의 방향과 문제’
- 내용 : ‘한국 천주교회의 문제점’(김수환 추기경)
- ‘이웃 전교의 방안과 문제’(오경환 신부)
- ‘현대의 복음선교’(유재국 신부)
- 4. 10 김재덕 총재주교의 공직 사퇴에 따라 한국평협 총재주교가 공석이 됨
- 6. 27~28 제14차 정기총회
- 장소 : 광주 명상의 집
- 참석 : 12개 교구, 7개 전국단체 총 45명 참석
- 내용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 시정시복운동 적극추진 (기독교운동과 순교자료 수집활동을 통하고 구체안의 작성을 수원평협에 위임), 교회기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사업 관련 주교회회의에 건의, 정기총회 소집시기를 1월로 하고, 회계연도를

-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하는 회칙 일부 개정
- 특강: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평신도상과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오테순 신부)
10. 9 제4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학생 웅변대회
- 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0. 30~11. 1 제8회 신앙대학 강좌
- 장소: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
 - 수강인원: 49명 외 평협 임원 일동
 - 주제: ‘한국인의 심성과 영성’
 - 내용 및 강사: 박홍 신부
 ‘크리스천 영성의 이해와 적용론’, ‘영성 식별의 이해와 적용론’,
 ‘의식 성찰을 통한 신앙체험의 성장론’, ‘영적 대화의 영적기도’,
 ‘기도와 사도직’, ‘성령의 능력과 신심의 자유로운 문제’,
 ‘한국인의 영적 풍토’, ‘유가적 인간 이해’(김승혜 수녀)
 ‘선교 2백 주년을 향한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양한모 소장)
11.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전국 단체 총재주교를 담당주교로 개칭하고 제4대
 한국평협 담당주교에 정진석 니콜라오 주교(청주교구장)를 선임
11. 15 제14회 평신도 주일

1982년

1. 6 제1차 상임위원회의(서울)
2. 13~14 제15차 정기총회
- 장소: 대전 가톨릭 농민회관
 - 임원개선: 회장 - 엄익채 요한(서울평협 부회장) 선출
 - 특강: ‘200주년을 향한 평신도의 역할’(오테순 신부)
 ‘평신도사도직활동의 방향’(양한모)
3. 30 임원 연수회
- 장소: 청주 가톨릭교육원
 - 강의: ‘200주년 사목회의의 방향과 전망’(정의채 신부)
 ‘평신도사도직 교령’(정진석 주교)
4. 16 제2차 상임위원회의
- 시국에 관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및 각 교구의 성명서, 교구장 강론 내용 등을 종합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할 것을 결의한 후 「답화문집」 간행

9. 3~4 2차 임원 연수회
- 장소 : 서울 장충동 분도회관
 - 참석 : 9개 교구 6개 단체 총 48명
 - 주제 : ‘하나되게 하소서’
 - 내용 : 특강 - 정진석 주교
‘평신도가 보는 평신도의 진로’(김기철 회장)
‘일치와 평협의 진로’(오태순 신부)
11. <가톨릭대상> 제도 시행 확정
(4월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을 주교회의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
11. 14 제15회 평신도 주일
12. 3~4 제1회 여성문제 심포지엄
- 장소 : 부산 오륜대 명상의 집
 - 참석 : 6개 교구 4개 여성단체 대표 38명과 임원 11명
 - 내용 : ‘혼인과 가정의 신성성’(이갑수 주교)
‘생명의 존엄성과 성윤리’(김창훈 신부)
‘평신도운동과 여성의 역할’(박숙자 자매)
‘가정의 행복과 여성의 사회참여’(최시동 신부)

1983년

1. 31 제1회 상임위원회의
- 장소 : 명동성당 사도회관
1. 31 제1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명동성당 사도회관
 - 수상자 : ▲사랑부문 : 김수련, 이풍순
3. 25~26 제16차 정기총회
- 장소 : 수원교구 교육원
 - 참석 : 13개 교구, 8개 단체 대표 44명, 본부임원 17명 등 총 64명
 - 강의 : ‘200주년과 시성·시복운동’(김남수 안젤로 주교, 수원교구장)
‘한국 초대 교회사’(변기영 신부)
‘200주년과 정신운동’(한순희 수녀, 성심수녀회)
 - 총회 강의내용을 「보다 좋은 씨앗으로」라는 단행본으로 출판

- ‘신뢰회복운동’의 전개를 제창
- 5. 15 회보「한국평협」지 제1호 간행
- 16절 8면, 2,000부 발행 / 전국 본당 단체 배포
- 5. 제6대 지도신부에 안상인 요셉 신부
- 6. 4 제2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유성 대온장
- 7. ‘신뢰회복운동에 즈음한 우리의 선언’ 선언문 채택
- 7. 25 제3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원주교구 교육원
- 8. 15 신뢰회복운동 취지문 5만 매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
- 9. 17 제4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원주교구 교육원
- 강의 :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의 증언과 태도’
‘원주교구와 평신도운동’(안승길 신부)
- 대화 :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와 한국교회의 토착화 문제와 도시와
농촌교회의 격차문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대화
- 11. 5 제5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광주 명상의 집
- 11. 13 제16회 평신도 주일, 정진석 담당주교 메시지 발표
- 11. 4~5 제2회 여성문제 심포지엄 개최
- 장소 : 광주 명상의 집
- 내용 : ‘사회 안에서 여성의 권리’(안승길 신부)
‘교회 안에서 여성의 본분’(변갑선 신부)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강동순 교수)
- 12. 2~6 아시아 평신도회의 참석
- 장소 : 홍콩
- 참석대표 : 정진석 주교, 안상인 신부, 엄익채 회장, 오수한 부회장,
홍현동 사무총장, 이기안 사회선교위원장, 백남식 섭외홍보위원,
이길재 농민회 사무국장
- 의제제안 : 신뢰회복운동의 전개, 가톨릭대상, 아시아지역 사무국의 설치
- 회의성과 :
1) 동북아시아 평신도회의를 1984년 5월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함

- 2) 한국의 평신도활동에 대한 소개
 3) 상호 정보 교환, 교류의 문호를 엮
 12. 20 화보집 「요한 바오로 2세」 간행

1984년

2. 12 제2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전주교구 가톨릭센터
 • 수상자 : ▲사랑부분 : 허순덕, ▲문화부분 : 김윤주
 제1회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전주교구청 회의실
 • 참석 : 상임위원 14명, 임원 9명, 감사 1명 총 23명
 2. 13 황민성 초대 총재 주교 별세
 2. 25 제17차 정기총회
 • 장소 : 청주교구 교육관
 • 참석 : 14개 교구 중 13개 교구 대표 30명, 15개 단체 중 12개 단체 대표 12명, 기타 등 62명
 • 임원개선 : 엄익채(서울평협 회장) 유임
 4. 1 결혼상담소 운영을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에 이관
 4. 7 제2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서울 유네스코회관 국제회의실
 • 참석 : 19명
 6. 9 제3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부산교구 가톨릭센터 32호
 • 참석 : 16명
 7. 2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준비회의(1차)
 7. 2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준비회의(2차)
 7. 9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준비회의(3차)
 7. 11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준비회의(4차)
 9. 1 임시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사도회관별관
 • 참석 : 총회원 60명 중 33명
 • 회칙개정안 심의 의결, 주교회의 건의문 제출

10. 31~11. 9 제1차 평신도사도직 주교연수회(BILAT: Bishops' Institute for Lay Apostolate)에 대표 파견(대만 창화)
11. 18 제17회 평신도 주일
 •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찬미예수’ 주제로 포스터, 강론자료 제작
11. 26~30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를 한국평협 제6대 담당 주교로 선임
12. 24 평신도주일 헌금 중 1/4만을 전국협의회에 3/4를 교구 협의회에 할당기로 함(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결정)

1985년

2. 23 제1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3. 23~24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 장소: 미리내 성지
 • 참석: 12개 교구대표 26명, 단체대표 6명, 본부임원 등 총 40명
 • 강의: ‘증거의 해와 우리의 자세’(양한모 크리스천 사상연구소 소장)
 ‘증거의 해’ 우리의 자세(김남수 주교)
3. 23 제3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수원교구 교육원
 • 수상자: ▲사랑부문 김근영, 이사행, 최판순
5. 16 신자 국회의원 초대모임
5. 18 제2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청주교구 교육관
8. 제7대 지도신부에 송광섭 베드로 신부
9. 21 제3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쾨벤투알 성 프란치스코회(서울 한남동)
 • 강의: ‘교회의 현대화’(한용희 교수)
9. 21 신뢰회복운동 심포지엄 개최
 • 장소: 서울 쾨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 발표: ‘인간회복의 의미’(진교훈 교수, 서울대학교)
 ‘인간회복과 사회정의’(한용희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 사회: 노길명 교수(고려대학교)

- 토론 : 양승규 교수(서울대학교), 안병영 교수(연세대학교),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위원)

11. 17 제18회 평신도 주일

- ‘믿게 살고 믿고 살자’ 주제 강론자료(3,000부)와 포스터(2,000부) 배포

11. 23~24 제4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제주교구)
- 강의 : ‘86년도 사목교서에 대하여’(허승조 신부, 제주교구 사목국장)

1986년

2. 15 제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수상자 : ▲사랑부문 : 최경락, 백인근, ▲정의평화부문 : 홍남순

2. 22~23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안동교구 문화회관
- 참석 : 교구대표 28명, 단체대표 5명, 총 33명
- 임원개선 : 제6대 회장에 한용희 암브로시오(숙명여자 대학교 교수) 선출

4. 10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에 관한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1차)

4. 12~13 제1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마산교구 창원 가톨릭사회교육관
- 참석 : 23명 중 17명 참석
- 강의 : ‘우리가 해야 할 여러 문제들’(유영봉 신부, 마산교구 사목국장)
‘공동체로서의 교회’(강영구 신부, 마산교구 교육국장)

4. 20 「KBS TV 시청료 납부 거부」스티커 제작 전국 신자에 배포, 20만장

4. 24~27 제1차 동북아시아 평신도대회 참가

- 장소 : 대만
- 참가자 : 국제협력위원회 한홍순 부위원장 참석

5. 10 「한국평협 20년사」 편찬사업 착수

- 출판분과위원회 : 위원장 허필수, 부위원장 한용환, 편찬위원 서상요, 조광

6. 7~8 제2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춘천교구 교육관
- 참석 : 10개교구, 4개 단체 15명 참석
- 강의 : ‘하느님 백성을 결합시키는 친교’(전세권 춘천교구 총대리신부)

8. 9 제3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
 - 참석 : 23명 중 17명 참석
 - ‘사회정의분과위원회’ 신설 결정
8. 7~10 제1차 공의회 문헌 연수회 개최
- 장소 :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
 - 참석 : 11개교구, 5개 단체에서 107명 참석
 - 내용 : ‘2차 바티칸공의회의 의미와 성격’(유재국 신부)
 -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제1장 교회의 신비)’(유홍식 신부)
 -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제2장 하느님의 백성)’(유홍식 신부)
 -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제7장 지상의 여정 교회의 종말적 성격과 천상교회와의 일치)’(심상태 신부)
 - ‘교회제도의 복음적 성격’(오경환 신부)
 -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제1부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인간)’(오경환 신부)
 -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제2부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유봉준 신부)
 -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제2부 제2장 문화발전의 촉진)’(김춘호 신부)
 -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유봉준 신부)
 -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한용희 회장)
8. 12 시국에 관한 성명서 ‘민주화 개헌의 선행조건’ 발표
9. 「평협회보」 간행
9. 6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에 대해 개신교와 공동으로 성명 발표
9. 19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의 구체적 운동 지침 발표
9. 15~25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제4차 총회 참석
- 참가자 : 국제협력 부위원장 한홍순 교수
10. 10 한국평협 제3대 김기철 회장 별세
10. 25~26 1986년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연수회 개최
- 장소 : 대전 유스호스텔
 - 참석 : 대전교구의 본당, 회장, 부회장, 단체장 등 100여 명
 - 내용 : ‘공의회의 의미와 성격’(김영교 신부), ‘평신도교령’(한용희 회장)
11. 사무국을 가톨릭회관 5층으로 이전
11. 16 제19회 평신도 주일
11. 30 <HOLY PLACES OF THE KOREAN MARTYRS> 출판(김창석 신부 번역/사진
성기숙 작가, 5천 부 간행)

- 12. 「평협회보」 간행
- 12. 13~14 제4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대전교구 가톨릭교육회관
 - 참석 : 23명 중 17명 참석

1987년

- 1. 「평협회보」 간행
- 1. 19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성명서 발표
- 1. 25 고문 근절 촉구 성명서 발표
- 2. 8 제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수상자 : ▲사랑부문 : 주정숙, ▲문화부문 : 마백락
- 2.14~15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대구 매일가든빌딩
 - 내용 : 회칙 개정
- 2. 16 사순절 절제운동 및 9일기도 캠페인 성명서 발표
- 3. 23~27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한국평협·가톨릭농민회·가톨릭학생회 등 3개 전국단체의 활동중지 결정을 내림
- 4. 25 광주에서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취소함
- 6. 3차 성명서 발표
- 11. 15 제20회 평신도 주일
- 11. 19 주교회의에서 한국평협의 '4년 기한부 회칙'을 마련
- 12. 5 상임위원회 개최
 - 장소 : 과천 성모영보 수녀원
 - '한국천주교 평신도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 12. 7 주교단의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담화문 및 '4년 기한부 회칙'에 대한 견해 발표

1988년

- 3. 21~24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사목주교위원회〉를 〈평신도주교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장에 지학순 주교를 선임
- 4. 5 제21차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참석 : 14개 교구회장단, 10개 단체에서 52명 참석
 - 임원개선 : 제7대 회장에 박정훈 요한(서울평협회장) 선출
- 5. 2~4 한국평협 임원, 각 교구 평협 회장, 전국 단체장 등 40명 산업시찰, 2일 부곡 온천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칙 심의
- 5. 28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함
- 7. 30~31 제2차 상임위원회
 - 장소 : 광주 까리따스수녀원 교육관
 - 강의 : '화해와 일치'(김홍언 신부)
- 9. 10~11 제3차 상임위원회
 - 장소 : 대전교구 솔피 피정의 집
 - 강의 : '한국교회와 평신도'(김영교 신부)
 - 5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성금 전달(90만원)
- 9. 14 2명의 소녀 가장에게 성금 전달(40만원)
- 10. 8 신뢰회복추진 7인 소위원회를 열고 신뢰회복운동 취지문과 계획안, 실천방법 등을 확정
- 10. 29~30 제4차 상임위원회
 - 장소 : 서울 혜화동 교리신학원
 - 강의 : '성서와 신뢰회복운동'(송광섭 신부, 평협지도)
 - '평신도와 신뢰회복운동'(류홍렬 박사, 초대 평협 회장)
 - 3개 분과(국제협력, 교육, 출판)위원장을 승인
- 11. 13 제21회 평신도 주일, 범교회적 신뢰회복운동이 시작됨

1989년

- 3. 11 제22회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중강의실
 - 참석 : 13개 평협, 9개 단체 총 35명 참석
 - 내용 : 회칙개정(제5조 3항 - 부회장)
- 4. 1 제6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임길순, 오연남, 정팔기
- 2. 18 제1차 상임위원회의

- 4. 15~16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평협회의실
 - 제2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마산교구 창원 가톨릭사회교육관
 - 강의 : '교회쇄신을 위해 신자가 지켜야할 몇 가지'(박정일 주교)
- 6. 「평협 20년사」 발간(3,000부)
- 6. 17
 - 제3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청주교구청 내 가톨릭회관
 - 강의 : '새교회법에 대하여'(정진석 주교, 청주교구장)
 - '평신도 그리스도인'(한홍순 교수)
- 8. 21~27
 - 제2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참석
 - 일본 나가사키, 오사카, 도쿄
- 11.11~12
 - 제4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 복자수도회 피정의 집
 -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참가보고 등
- 10. 4
 - 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참여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 2차 방한 미사 집전 - 행사의 기획, 집행 등)

1990년

- 2. 24
 - 제23회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참석 : 10개 교구대표 26명, 11개 단체대표 11명, 임원 7명 등 47명 참석
 - 안건 : 박정훈 회장 취임
- 3. 23
 - 제1회 「내 탓이오」 문예작품 공모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4. 7
 - 제7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수상자 : ▲사랑부분 : 김인식, 가톨릭 맹인선교회, 故유정충
- 4. 28~29
 - 제1차 상임위원회의(부산)
 - 장소 : 부산해운대 뉴비치호텔 회의실
 - 강의 :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가?'(최영철 신부, 부산평협 지도)
 - 내용 : 한국평협 분과위원회 중·개편,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문 작성 주교회의에 건의
- 6. 23~24
 - 제2차 상임위원회의(수원)

- 장소 : 수원교구 나그네의 집
- 강의 : '신뢰회복에 관하여'(유민구 신부, 수원 가톨릭대학 교수)
- 내용 : 신뢰회복 운동을 전담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등
- 8. 25~26 제3차 상임위원회의(인천)
 - 장소 : 인천교구청 꾸르실료회관
 - 강의 : '성서에 나타난 여성'(박찬용 신부, 인천교구 사목국장)
- 9. 24 「내 탓이오」 스티커 30만장 제작 배부, 김수환 추기경 손수 차량에 부착
- 11.10~11 제4차 상임위원회의(서울)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신뢰회복 세미나 개최
 - 내용 : 신뢰회복운동의 필요성 및 「내 탓이오」의 의의
 - 1강의 : 이종한 신부(프란치스코 관구장)
 - 2강의 : 장혁표(부산평협 회장)
 - 3강의 : 오덕주(여성연합회 회장)
- 11. 18 제23회 평신도 주일
- 12. 「내 탓이오」에 관한 문예작품 공모
- 12. 28 제2회 「내 탓이오」 문예작품 공모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991년

- 2. 23 제24회 한국평협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대성당 범우관 405호
 - 참석 : 9개교구 평협대표, 13개 단체대표, 평협임원 등 46명 참석
 - 내용 : 교황성하의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9일기도로 CCK에 건의
- 4. 6 제8회(90년도)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양복규, ▲문화부문 : 백병석·이경애 부부
- 4. 13~14 제1차 상임위원회의(대구)
 - 장소 : 대구대교구 여성교육관
 - 강의 : '일치안의 다양성'(이종홍 신부, 대구대교구 총대리)
- 4. 27 '내 탓이오' 운동 가두 캠페인 전개(서울 명동성당)
- 8. 31~9.1 제2차 상임위원회의(마산)

- 장소 : 창원 사회교육관
 - 강의 : '정치와 윤리'(구병진 신부)
 - 안건 : 91년도(9회) 가톨릭대상 후보 추천의 건 등
10. 19~20 제3차 상임위원회의(대전)
- 장소 : 유성 흥인호텔 회의실
 - 강의 : '교회안의 신비·친교·선교'(유홍식 신부, 대전평협 지도신부)

1992년

1. 5 「내 탓이오」 주제 문예작품 공모 수상작 모음집 발행
2. 15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참석 : 12개 교구대표, 6개 단체대표, 한국평협 임원 등 50명 참석
 - 내용 : 제9대 한국평협 이관진 베드로(서울평협 회장) 회장 선출
우리상품쓰기 운동 제창
2. 15 제9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김제원, 이석순, ▲문화부문 : 서광벽
4. 25~26 제1차 상임위원회의(청주)
- 장소 : 청주교구 가톨릭센터
 - 강의 : 교회의 내적 보편성
6. 20~21 제2차 상임위원회의(광주)
- 장소 : 광주대교구 가톨릭센터
 - 안건 : 낙태법안 폐지 운동 전개의 건 등
6. 21 낙태죄 폐지를 우려하는 성명서 발표
8. 3~7 일본 나가사키대교구 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 타바타 회장등 서울 방문
8. 24~28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 회의(The 3rd East Asian Laity Meeting)' 개최
-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 주제 :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공동주최
 -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대표 등 82명 참석
 - 회의내용 : 국제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여 국경을 초월한
크리스천 공동체의 일치적 참모습 성취에 기여한다는 요지

8. 29 제4대 전국 및 서울평협 회장 최재선(마르띠노) 별세
10. 31 제3차 상임위원회의(서울)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소강당
11. 15 제25회 평신도 주일
 • 포스터 배부 및 강론자료 배부
 • 주제 :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생명을 존중하고 우리상품을 우리가 씁시다.
 • 어린이를 위한 강론자료 마련 ‘평신도 어린이의 사명’
12. 31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평신도의 교회생활참여’ 보고서 발간(신국판 양장 240여 면)

1993년

2. 27 한국평협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소강당
 • 내용 : 우리상품 쓰기 운동 전개에 대한 결의문 발표
 ‘우리상품쓰기 특별위원회’ 구성
2. 27 제10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 수상자 : ▲사랑부문 : 서운범, ▲문화부문 : 한상호
4. 17~18 제1차 상임위원회의(제주)
 • 장소 : 제주교구 이시돌회관
6. 12~13 제2차 상임위원회의(전주)
 • 장소 : 전주교구 나바위 교육관
 • 종교방송 지방국 설립 허가방침에 대한 결의문 발표
9. 4~5 제3차 상임위원회의(원주)
 • 장소 : 원주교구 배론 성지
11. 14 제26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배부
 • 주제 : ‘새 복음화와 도덕성 회복’ - 참 신앙인으로 더 잘 살기 위하여
11. 15 평협 창립 제25주년 기념미사와 기념행사
 • 장소 :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로얄호텔
 • 참석 : 한국평협 회장단, 서울평협 임원진, 서울교구 총회장 부부 참석
 • 기념미사, 우리상품쓰기운동 우수지구 및 본당 시상식, 사랑의 만찬
12. 4 ‘우리상품쓰기 운동 문예작품’ 시상식

- 장소 : 명동성당 소성당
 - 총 121편 응모작 중 5편의 당선작과 5편의 가작 선정
12. 12 ‘우리 농촌 우리가 살립니다.’ 성명서 발표

1994년

2. 「한국평협」 속간31호 발행(신국판 124쪽)
2. 26 한국평협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 참석 : 14개교구 평협대표 42명, 6개 단체대표, 한국평협 임원 등 55명 참석
 - 안건 : 회칙 일부 개정, 임원 개선 - 이관진 회장 중임(제10대)
3. 8 춘계 주교회의에서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설립(위원장 김옥균 주교 임명)
7.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공동대표(평협회장 이관진)
7. 16 제1차 회장단회의
9. 4 제1차 상임위원회의(수원)
- 장소 :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
9. 4~9 ‘아시아 평신도회의(The First Asian Laity Meeting)’ 개최
-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국제회의장
 - 참가국 : 아시아 14개국 대표 참석
 - 주제 : ‘평신도의 사회 교리 실천’
 - 주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FABC)
 - 회의내용 : 아시아 상황에서 사회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분임토의, 각국의 교회 상황과 평신도의 사회교리 실천 사례 국별 보고
9. 17 제2차 회장단회의
10. 8~9 제2차 상임위원회의(안동)
- 장소 : 안동교구 안동문화회관
10. 25 “300만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호소문 발표
10. 29 제3차 회장단회의
11. 도덕성 회복을 내용으로 평신도 주일 호소문 발표
11. 12 제11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박순자, 故 장재훈, ▲문화부문 : 김영대

11. 13 제27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배부
주제 : ‘인류의 희망,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995년

2. 25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명동성당 교육관
• 참석 : 15개 교구대표와 24개 단체대표 69명 중 49명
- 광복 50주년(희년) 통일 기도 운동 전개 등
4. 22~23 제1차 상임위원회의(대구)
• 장소 : 대구대교구 교육관
6. 4 지방자치제 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담화문 발표. ‘6.27 지방자치 선거에 즈음한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
6. 13 명동성당 공권력 난입 시국미사 및 촛불시위 <1차>
6. 20 명동성당 공권력 난입 시국미사 및 촛불시위 <2차>
6. 27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6. 28 종교지도자 전방 방문 37명(평협 임원진)
6. 30 바티칸 평신도위원회 부위원장 파울 코르데스 주교와의 만남(로얄호텔)
7. 8~9 제2차 상임위원회의(수원)
•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 특강 : ‘평신도의 역할’(김남수 주교, 수원교구장)
8. 15 광복 50주년 분단 50년에 즈음한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되기를 염원하는 한국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문’ 발표
9. 16~17 제3차 상임위원회의(인천)
• 장소 : 인천교구 부천 샤미나드 피정의 집
• 안건 : 도덕성회복을 위한 표어 책받침 10만매 제작, 교육용으로 배부 건
9. 20 지도신부 교체 - 박기주 미카엘 신부 부임
9. 26 중국교회 방문단과 오찬
• 장소 : 남산 홍보석
10. 15 제1회 아시아 평신도회의 보고서 <평신도 사회교리 실천> 전국 및 세계 교회기관에 배포(300면, 3천 부)
11. 19 제28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배부
주제 :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2. 9 제12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이금순, ▲문화부문 : 배달순

1996년

2. 24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 참석 : 15개 교구평협과 24개 단체대표 69명 중 51명
 - 11대 회장 류덕희 모세((주)경동제약 회장, 서울평협회장) 선출, 상임고문으로 직전회장 이관진 추대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3. 8 박정훈(평협 7~8대 회장)고문 세계평화상 수상
(인간문화재 지정 및 평화의 순회대사 임명, 순금매달)
주관 : 미국법인 세계평화봉사단, 미국법인 세계평화상 시상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 사단법인 한국평화봉사단,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평화교육(협)
4. 20~21 제1차 상임위원회의(마산)
- 장소 : 마산교구 창원교육관
 - 특강 : ‘한국교회의 당면과제’(박정일 주교, 마산교구장)
 - 내용 : 대정부 건의안 채택
6. 2 ‘천주교 평신도 환경선언문’ 발표(서울교구에서 전국 추진)
6. 8~9 제2차 상임위원회의(부산)
- 장소 : 부산교구 명상의 집
7. 31~8. 4 제4차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참석(마카오)
- 참석 : 류덕희 회장, 김영복 국제협력분과위원장, 박기주 신부 등 8명
7. 5~8. 15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유해 순회기도(각 본당 및 수도원, 서울교구)
9. 15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잠실 체육관)
10. 26~27 제3차 상임위원회의(제주)
- 장소 : 제주교구 이시돌 피정의 집
 - 내용 : 한국평협 30년사 편찬위원회 구성
11. 17 제29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및 포스터 배포
주제 :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11. 17~28 ASIPA WORK SHOP 참석(필리핀 라스피나스)
김영복 국제협력분과위원장 등 한국대표 4명 참석
11. 20 한국천주교 「평협 30년사」 편찬위원회 발족
- 위원장 : 류덕희 평협회장
 - 위원 : 박찬도, 이흥균, 최홍준, 이충우, 이윤자
 - 편집위원장 : 강수길(문학박사)
12. 7 제13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 수상자 : ▲사랑부문 : 양마태, 최맹기, ▲문화부문 : 김환식

1997년

1. 25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금지 성명서 채택
2. 22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청주교구청 교육관
 - 참석 : 15개 평협 회장단, 25개 단체대표, 한국평협 임원 등 63명 참석
4. 23 서울대교구장 평협 사목방문(최초) 김수환 추기경 외 국장단 내방
6. 4 북한 종교지도자와 대화(북경에서 북한종교계 대표와 회의)
- 남북가톨릭신자 대표 북경 회동(남측-최창무 주교, 오창순, 장덕필 신부, 류덕희 회장, 이윤자 국장, 조광 교수, 북측-장재철 회장 외 3명)
6. 7-8 제2차 상임위원회(광주)
- 장소 : 나주 글라렛수도원
6. 8 푸르름 잔치(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장터) 공동개최 / 명동성당 구내
9. 7~8 제3차 상임위원회(원주)
- 장소 : 원주교구 배론성지
 - 특강 : '평협의 특성과 평신도의 자세'(김지석 주교, 원주교구장)
 - '순교자의 삶'(배은하 신부, 배론성지)
 - 내용 :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성명서) 채택, 발표
11. 8 도·농협력 전국장터 공동개최
- 장소 : 서울 동성고등학교 교정
11. 8 제1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요셉의원, ▲문화부문 : 김영걸,

▲특별상 : 故 정인성, 신준섭, 장만기(前 전주고교 1학년)

11. 9 제30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및 포스터 배포
주제 :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섭시다.'
11. 22~23 제4차 상임위원회(대전)
- 장소 : 대전 보혈선교수녀회 엠마우스 피정의 집
 - 참석 : 12개 교구평협대표, 단체장, 임원 등 59명 참석
 - 내용 :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성명서 채택
12. 1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 가두서명 및 결의문 발표

1998년

1. 2 외채상환 금모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 참가. 김수환 추기경, 평협 회장(고문 및 공동대표) 동참(임원합석)
1. 20 경제 살리기 특별기도회
- 김수환 추기경 외 사제단 미사 공동집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 발표
2. 14 '나라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미사'
김수환 추기경과 주교단 및 사제단 공동집전 미사 및 축하식
- 장소 : 명동대성당 / 1,200여 명 참석
2. 21 제31회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참석 : 15개 교구 평협 회장단, 25개 단체대표 및 한국평협 임원진 등 67명
 - 내용 : 12대 회장 류덕희 유임
4. 18~19 제1차 상임위원회(안동)
- 장소 : 안동교구 구담농은수련원
 - 참석 : 51명
5. 15 북한 사목방문
-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장 장재철 초청, 최창무 주교, 류덕희 회장 외 8명
6. 13~14 제2차 상임위원회(수원)
- 장소 : 수원교구 의왕시 마리아폴리센터
 - 참석 : 54명
7. 11 전국평협 30주년 평협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중간 보고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10. 10~11 제3차 상임위원회의
- 장소 : 인천교구 샤미나드 피정의 집
 - 참석 : 47명
10. 24 도농공동체 나눔잔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공동주최, 동성고등학교 교정
11. 7 전국평협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주제 : ‘평협의 발전방향 모색’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100여 명 참석
11. 7 제1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수상자 : ▲사랑부문 - 故이내원(사천소방서 구급계장)
 - ▲문화부문 - 심경석
11. 15 제31회 평신도주일
- ‘사랑의 마음으로 대희년을 준비합시다.’와 포스터‘함께가요, 우리’ 배부

1999년

2. 27 제32회 한국평협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참석 : 25개 단체대표와 임원진 등 71명
 - 안건 :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 기구표(안) 승인의 건
2. 27 「한국평협」제36호 발행, 한국평협 및 단체에 배포. 4천부
4. 사회교리 월별 실천덕목 제정 및 홍보(「평화신문」에 매월 게재)
- 4월 :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합시다.
 - 5월 : 평화의 가정을 이룩합시다.
 - 6월 : 나라사랑과 민족화해에 힘을 모읍시다.
 - 7월 : 내가 먼저 참된 이웃이 되어 줍시다.
 - 8월 : 자연사랑 하느님 사랑
 - 9월 : 증거하는 삶으로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 10월 : 섬기고 사귀며 나눔으로써 사랑을 완성합시다.
 - 11월 : 성인들의 통공과 거룩한 여행을 계속합시다.
 - 12월 : 매일의 노력을 그분께 바쳐드리며 대희년을 맞이 합시다.
4. 18~19 제1차 상임위원회(대구)

- 5. 4 • 장소 : 대구대교구 왜관 연화리 피정의집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의 묵주기도 1억단 바치기 운동 개시, 1억단 봉헌카드
30만부 제작 배부
- 5. 20~21 제15차 2000년 대희년 전국 대표자회의 참석
• 장소 : 안양 아론의 집
- 6. 5~6 제2차 상임위원회(서울) 및 임원 연수회
• 장소 : 서울대교구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 7. 1 「한국평협」지 특보 130,000부 제작, 배포
- 7. 10 대희년맞이 민족화해토론회
• 주제 : ‘대희년은 민족화해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
• 발표자 : 이기현 신부, 유호열, 명길량, 조광, 이광규
• 화해와 봉사자의 다짐 발표
- 8. 21 본당회장·단체장·평협 임원 연수 및 선교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주제1 : ‘한국천주교 선교운동의 현실과 전망’
• 주제2 : ‘21세기 선교의 방향’
- 8. 21 교구 시노드 개최 건의(본당 회장, 단체장, 평협 임원 연수후)
- 8. 25~26 제5차 동아시아 평신도대회 참가
• 장소 : 홍콩
• 주제 : ‘교회쇄신과 평신도양성’
• 참가자 : 최광석 국제협력분과장 외 4명
- 9. 4~5 제3차 상임위원회(춘천)
• 장소 : 춘천교구 강릉 주문진 호텔
- 9. 18 대희년맞이 정의평화 세미나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 주제 : ‘정의평화 구현의 새로운 모색-인격존중, 정의로운 사회의 시작입니다.’
- 10. 9 대희년맞이 청소년 심포지엄
• 장소 : 서강대 이냐시오 강당
• 주제1 : ‘가톨릭교회와 청소년’(박재황 교수)
• 주제2 : ‘가톨릭교회의 청소년 복음화’(한명수 선생)
• 주제3 : ‘가톨릭교리 교육의 현장 진단과 대안 모색’(이충근·염병섭 선생)
- 10. 21 대희년맞이 평신도 대회

- 장소 :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
- 주제 : ‘서로 사랑하여라 - 사귄·섬김·나눔’
- 15개 교구 3,500여명 참석
- 평신도 선언문 발표, 묵주기도 1억단 봉헌(중간집계), 도농 결연본당 봉헌, 가톨릭대상 시상, 성체거동(행렬)
- 장엄미사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및 참가 사제단 공동 집전, 미사 중 교황성하 및 대통령 메시지 낭독
- 10. 21 제16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 / 대회년 맞이 평신도대회 행사시 시상
 - 수상자 : ▲사랑부문 : KBS 사랑의 리퀘스트팀, 박경수
▲정의부문 : 인천 가톨릭 환경연대
- 10. 24 대회년맞이 평신도 대회 도·농 한마당 잔치 개최
 - 장소 : 서초구청 광장
 - 춘천교구 제외 14개 교구 참석
 - 추수감사미사 : 강우일 주교 외 참석사제 공동 집전, 모란디니 대주교 인사
- 11. 1 제32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부
 - 주제 : ‘사귄·섬김·나눔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 12. 25 가톨릭·개신교 합동 성탄음악회
 - 장소 :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12. 29 「평협 30년사」 발간(3,000부)

2000년

- 2. 15 공명선거실천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범국민 선언문」
공동발표(민간사회안전망운동 국민협의회)
- 2. 26 제33회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
 - 참석 : 15개 교구평협 회장단, 24개 전국단체 대표 등 68명 참석
 - 임원개선 : 제13대 회장에 여규태 요셉(서울평협 회장) 선출
- 4. 13 4·13 총선 관련 성명서 발표「생명·진리·사랑의 잣대로 투표합시다.」
- 5. 13~14 제1차 상임위원회(마산)
 - 장소 : 마산교구 가톨릭문화회관
 - 특강 : ‘2000년 대회년 평신도의 새출발’(박정일 주교)

5. 20 선교사례 발표 - 혜운성당, 명서성당
교회 운동·단체들의 만남
• 주제 : ‘하나되게 하소서’
• 강의 : 유홍식 신부
6. 25 목주기도 3억단 바치기 운동 전개(2001.1.5까지)
6. 8 전국·서울평협 회장단 회의(서울평협 회의실)
7. 31 서울관구 교구 평협회장 회의(서울평협 회의실)
9. 30~10.1 제2차 상임위원회(부산)
• 장소 : 부산교구 정하상바오로영성관
• 특강 : ‘2000년 대희년 평신도들의 과제’(정명조 주교, 부산교구장)
선교사례 발표(병영성당)
10. 27 「정하상 성인」심포지엄
• 장소 : 중림동성당 순교자현양회 기념관
• 발표 : ‘정하상 성인의 생애와 활동’(서종태, 한국교회사 연구소 책임연구원)
‘정하상 성인의 신앙과 사상’(한건 신부, 부산가톨릭대 교수)
• 토론 : 원재연(규장각연구원), 차기진(양업교회사연구소장)
• 사회 : 최홍준 사무총장
10. 28 교회 운동·단체들의 선교대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10. 29 제17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수상자 : ▲사랑부문 : 문서운, 장정순, ▲문화부문 : 박재광
10. 29 대희년 평신도 대회 본행사
• 장소 : 장충체육관, 6천여 명 참석
• 주제 : ‘새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 -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 선교대상 시상 : 서울 김선옥(화양동성당), 대전 괴정동성당,
인천 김현식(산곡동성당), 수원 이영숙(성남동성당), 원주 백운성당,
대구 지산성당, 부산 옥동성당, 청주 미원성당, 마산 임길숙(함안성당),
안동 풍기성당, 전주 윤덕남(서신동성당), 제주 중문성당
• 선교체험 발표 : 광주 세나투스 김영대 단장, 서울 망우동성당 배수한(테레사),
대구 수성동성당 방경홍(가브리엘), 서울 구로본동성당 김남식(안드레아),
수원 정운준(요한), 이은주(이레네), 장기호(루카), 이순자(모니카)
10. 14~15 「대희년 세계가정대회」 참가

- 장소 : 이탈리아 로마
- 참석자 : 최홍준(사무총장), 최영철(서울ME 대표) 외
- 11. 11~12 제3차 상임위원회(제주)
 - 장소 :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센터
 - 특강 : ‘한국가톨릭의 장점’(김창렬 주교)
- 신앙체험 발표(현임종/제주평협 1대 회장)
- 11. 25~30 「대회년 세계 평신도대회」참가
 - 장소 : 이탈리아 로마
 - 참석자 : 여규태 회장, 김형중 서울평협 부회장, 한홍순 서울평협 부회장
- 11. 30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북측 방문단장 <조선가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환영
- 11. 제33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포(각 3,600부)
 - 주제 :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2001년

- 1. 「한국평협」제37호 배포(4,500부)
- 2. 17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참석 : 13개 교구평협, 10개 단체 대표 등 49명 참석
- 4. 28~29 제1차 상임위원회(전주)
 - 전주교구 천호피정의집
 - 특강1 :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강연(김진소 신부,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 특강2 : 이병호 주교
- 7. 7~8 제2차 상임위원회(광주)
 - 장소 : 광주대교구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 도덕성회복운동 세미나 개최
- 제1주제 : ‘도덕성회복’(이종희 신부, 광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논평 : 조종현(광주평협 홍보분과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도덕성회복운동과 평신도사도직’(이규정, 신라대학교 교수)
논평 : 마정웅(대구평협 회장)
- 사회 : 한홍순(서울평협 부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특강 : 도덕성회복(최창무 대주교, 광주교구장)

10. 17 도덕성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
- 도덕성회복운동 표어·캐치프레이즈 공모
 - 「똑바로」스티커 제작·배포(200,000장)
 - KBS-TV 등 국내 언론 홍보
 - 실천지침과 선언문 제작·배포, 기자간담회
 - 각 교구별 선포식, 도덕성회복운동 세미나
10. 27~28 제3차 상임위원회(대전)
- 장소 : 대전교구 정하상 교육회관
 - 특강 : 도덕성회복운동 ‘똑바로’의 그리스도적 의미(곽승룡 신부, 대전교구 사목기획국장)
10. 28 도·농 한마당 잔치
-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11. 제34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부(4,000부),
주제 : ‘똑바로 운동에 다함께 나섭시다.’
12. 22 제18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수상자 : ▲사랑부문 : 정옥기, ▲문화부문 : 신치구

2002년

2. 17 올해의 평신도 정약중 아우구스티노·강완숙 골롬바 현양 순회 강연회
- 주제 :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순교자의 생애와 사상’
 - 장소 :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 성당)
2. 23 제35회 정기총회 개최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14대 여규태 회장(서울평협 회장) 연임
3. 10; 4. 14 똑바로 운동 강연
- 수원교구 광주성당, 금곡성당(최홍준 사무총장)
4. 27~28 제1차 상임위원회(청주)
- 장소 : 청주교구 연수원
 - 안건 : 똑바로 운동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 특강 : ‘똑바로 운동’(송일섭 신부) ‘하느님의 뜻’(장봉훈 주교)
5. 3~6. 3 연극 ‘정약중 project’ 평협 후원 / 극단 아리랑
6. 22~30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ACRP) 정기총회 참석

- 8. 31~9. 1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최홍준 사무총장 참석

제2차 상임위원회(원주)

 - 장소 : 원주교구 베론성지
 - 특강 : ‘평신도와 선교’(김지석 주교)
- 9. 9~16

가톨릭국제남성평의회(UNUM OMNES) 집행위원회의

 - 장소 : 케냐 나이로비
 - 주제 : ‘사회 속에서의 가정의 상황’- 가정을 변호(옹호)하는 입장의 UNUM OMNES
 - 한홍순 부회장 참석
- 10. 19

2002년 도·농 한마당 잔치

 -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 10. 19~20

제3차 상임위원회(수원)

 - 장소 : 수원교구 가톨릭 교육문화회관
 - 상임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역할’(배채진, 부산평협 기획부장)

토론 : ‘신학적 측면에서’(박영조, 안동평협 회장), ‘교회법적 측면에서’(조종현, 광주평협 회장), ‘현실적 측면에서’(김준, 수원평협 부회장),

총평 : 김춘호 신부
- 10. 26

대전평협 주최 도·농 한마당 잔치

 - 장소 : 갑천 고수부지
- 11. 16~20

제5차 민족화해 가톨릭 네트워크 모임

 - 장소 : 경기 수지 성모교육원
 - 주최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 여규태 회장, 최홍준 사무총장, 명길량, 김성락 서울평협 민족화해위원 참석
- 11.

제35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포(각 4,000부)

 - 주제 :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
- 12. 7

제19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로얄호텔 2층 에메랄드 룸
 - 수상자 : ▲사랑부문 : 조석호, ▲문화부문 : 김진용
- 12. 1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원로 100인 성명

- 공명선거실천협의회 주최
- 각 교구 평협 회장, 한국평협 사무총장 참여

2003년

1. 22~26 제4차 세계 가정대회
 - 장소 : 필리핀 마닐라
 - 최홍준 사무총장 참석
1. 27~31 국제 가족회의
 - 장소 : 필리핀 마닐라
 - 최홍준 사무총장 참석
2. 14 2003년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총회 및 제3회 종단 교역자 대화캠프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여규태 회장, 최홍준 사무총장 참석
2. 22 제36회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3. 21 반전·반핵 아시아 종교인평화선언 대회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여규태 회장 참석
4. 12 정의평화 세미나 주관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주제발표 : '남북한 평화는 가능한가'(이삼열 교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장)
 - 지정토론 : 김어상 교수(서강대학교), 김형태 변호사, 강태호 기자(한겨레신문)
4. 26~27 제1차 상임위원회(안동)
 - 장소 :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 안건 : 똑바로 운동과 복음화
 - 강의 : '상장예식' 소개 및 연도 노랫가락 배우기(김득수,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장)
6. 14 제4차 민족화해 토론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기조강연 : '우리민족 사랑으로 하나되어' - 김운희 주교
 - 1주제 발표 : '민족화해의 재정립'(김성락, 서울평협 민족화해위원),

- 토론 : 정달영(전 한국일보 주필), 이부영(국회의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 교수)
 2주제 발표 : ‘평신도 역할의 활성화’(조만형, 서울평협 민족화해위원),
 토론 : 이광규(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성경수(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
6. 7~8 제2차 상임위원회(대구)
 • 장소 : 대구대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
 • 안건 : 매매춘 근절을 위한 전신자 서명운동 전개, 똑바로 운동 활성화
 • 평협 세미나
 주제발표 1 : ‘교회 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창훈, 서울평협 기획분과위원장)
 주제발표 2 :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한계와 가능성’(류승기신부, 대구교구 사목국장)
8. 30~31 제3차 상임위원회(인천)
 • 장소 : 인천교구 가톨릭대학교 영성관
 • 안건 : 2003년 예산 항목간 변경 승인, 2004년 사업계획
 • 평협 세미나
 주제발표 :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ei)」를 통해 본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역할’(박영조, 안동평협 회장)
 • 특강 : ‘21세기 종교환경과 복음화’(차동엽 신부, 인천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10. 26 도·농 한마당 잔치
 •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11. 제36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배포(각 4,000부)
 • 주제 : ‘가정·생명·평화’
12. 3 제20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조현수, 차갑병, ▲문화부문 : 이규정

2004년

3. 13 제37회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참석 : 15개 평협, 11개 단체, 임원 등 70명
 • 14대 회장에 손병두 요한 보스코(서울평협 회장,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회장 선임
5. 22~23 제1차 상임위원회(마산)
 • 장소 : 마산교구 창원 성산사회복지관

- 특강 : ‘한국 가정의 위기’(유영봉 신부, 마산교구 총대리)
- 8. 17~23 FABC 제8차 정기총회
 - 장소 : 대전 가톨릭대학교 정하상 교육회관
 - 손병두 회장, 한홍순 부회장, 최홍준 사무총장, 백낙현 서평 부부분과장 참석
- 8. 28~29 제2차 상임위원회(부산)
 - 장소 : 부산교구 양산 정하상 영성관
 - 특강 : ‘성서를 읽읍시다.’(이흥기 몬시뇰)
- 10. 29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 장소 : 프레스센터
- 11. 7 도·농 한마당 잔치
 - 장소 : 대전 갑천둔치
- 11. 26~28 제3차 상임위원회(제주)
 -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센터
 - 특강1 : ‘제주교구 소개’(강우일 주교, 제주교구장)
 - 특강2 : ‘가정사목’(양영수 신부)
가정생활 체험사례 발표(ME, 마리아사업회)
 - 특강3 : ‘제주교구 가정사목 사례’(변수운 수녀, 제주교구 가정상담실),
▲주교회의의 2005 가정을 위한 공동사목교서 소개(최홍준 사무총장)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오혜정 수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교회 탈북인 체험발표(정현무)
▲국내외 정세와 성서적 세계관(김상철 변호사, 북한구원운동 공동대표)
▲한국천주교 여성사목방향 정립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보고(강영옥 박사,
주교회의 여성소위)
- 11. 제37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와 포스터 제작·배포(각 4,000부)
 - 주제 :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 12. 10 제1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공모전 시상식
 - 장소 : 우리은행 본점 지하1층 은행사박물관 앞 전시장
 - 전시기간 : 12. 10~18
- 12. 28 제21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서울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정숙희, 광주대교구 운전기사사도회
▲특별상 : 방수정, 송수남

2005년

2. 19 제38회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명동성당 소성당
 - 참석 : 14개 교구평협, 11개 단체대표 70여명
5. 27~29 제1차 상임위원회(춘천)
- 장소 : 춘천교구 고성 까리타스 피정의 집
 - 1강의 : ‘가정과 교회 안의 혼인법’(홍기선 신부, 춘천교구 법원)
 - 2강의 : 거룩한 독서(성독)(서범석 신부, 간성본당)
7. 11~17 <벨기에 소년합창단 내한> 공연
- 서울 : 명동성당, 여의도 KBS홀, 의정부 마두동성당, 수원 : 분당 요한성당,
 - 대구 : 계산동성당, 광주 : 염주동성당, 부산 : 부산KBS홀
8. 5 임시 상임위원회
- 장소 : 명동 로얄호텔
 - 안건 : 한국평협 회장 사임과 회장 직무대행 선임(손병두 회장 사임, 한홍순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
9. 3~4 제2차 상임위원회(대전)
- 대전교구 정하상 교육회관
 - 특강 :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의 정체성’(김영수 신부, 전주교구)
 - ‘PESS Program을 통한 전인교육’(강석준 신부, 대전교구)
10. 26 프랑스 교회 순례단과 함께한 친교모임
- 장소 : 명동성당 별관
10. 30 2005 가을걷이 도·농 한마당 잔치
-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11. 5 정의평화 심포지엄(사회교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11. 26~27 제3차 상임위원회(서울)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발제 1 : 평신도사도직의 기원과 사명(정준교 교수)
 - 발제 2 : 통계자료로 본 한국 교회와 평신도(전원 신부)
 - 발제 3 : 평신도사도직 활성화와 사목방향(신현만 신부)

11. 제38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부)
 • 주제 :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12. 9 제2회 평화독서감상문 대회 시상식
 • 응모기간 : 9.20~11.8, 수상자 184명
 • 평화방송·평화신문과 한국평협 공동 주최
12. 27 제22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수상자 : ▲사랑부문: 서초장애인치과 진료자원 봉사단

2006년

2. 18 제39차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참석 : 13개 교구평협, 3개 단체장, 임원 등 52명
 • 임원 개선 : 15대 회장에 한홍순 토마스(서울평협 회장, 한국외국어대 교수)
 회장 선임
4. 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주기 추모 문화제
 • 장소 : 명동성당 포스트홀
 • 1부 개회식 : 추모곡 합창, 추모사
 • 2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고 : 영상물-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기록영화, 추모시(이해인 수녀), 증언(수도자, 젊은이, 평신도, 성직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조국 폴란드(주한 폴란드 대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제2의 모국 이탈리아(주한 이탈리아 대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생애 회고(김수환 추기경), 주제발표 “교황님과 한국교회”(한홍순 평협 회장)
 • 3부 교황님과 한국교회 : 연도, 하느님의 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구를 통하여 은혜를 간청하는 기도
5. 3 제14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수녀협의회 총회 참석자와의 만남
 • 장소 : 서울 명동성당 별관
5. 7 한일 청소년교류 연주회
 • 장소 : 명동성당 포스트홀
 • 일본 아키다 성령고교 핸드벨팀 초청 공연
7. 1~2 제1차 상임위원회(서울)
 • 장소 : 서울교구 상지피정의 집

- 안건 : 2006년 평신도주간 행사, 2007년도 사업
- 특강 : ‘생명과학과 가톨릭교회의 윤리’(이동의 신부, 가톨릭대학교)
- 분임토의 : 혼인, 낙태, 저출산
- 9. 1~2 제2차 상임위원회(부산)
 - 장소 : 부산교구 은혜의 집
 - 안건 : 평신도주간 행사, 가톨릭대상 후보자 추천, 특별위원회 설치
 - 특강 :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문헌 ‘평신도 교육 - 열두가지 제안’
- 10. 19~22 제1회 아시아 선교대회 참석
 - 장소 : 태국 치앙마이
 - 한홍순 회장, 민병덕 신부, 김길성 선교분과장 등 8명 참석
- 10. 29 2006 가을걷이 추수감사미사와 도·농 한마당 잔치
 -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 11. 23~25 평신도주일 기념 사회포럼 ‘교회와 사회간 대화’
 - 제1일 주제 : ‘생명과 저출산’, 발제 : ‘낙태와 저출산’(진교훈 교수, 서울대학교)
 - 제2일 주제 : ‘가난과 빈부격차’, 발제 : ‘한국사회의 주거빈곤 문제와 자조형
자립조합 주택의 가능성’(류정순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제3일 주제 : ‘함께 사는 사회’, 발제 :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운동 사례와
앞날’(박재천 사무국장, 재단법인 제정구 기념사업회)
- 11. 25~26 제3차 상임위원회(서울)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 안건 : 2007년 사업계획
- 11월 제39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부)
 - 주제 : ‘생명의 복음을 실천합시다.’
- 12. 15 제3회 평화독서감상문대회 시상식
- 12. 18 제23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봉사단
▲문화부문 : 평화방송·평화신문 ‘성 김대건’ 드라마 제작팀

2007년

- 2. 10 제40회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4. 11

 - 참석 : 13개 교구 평협, 5개 단체장, 임원 등 52명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주기 추모 문화제
 - 장소 : 서울 명동성당 포스트홀
 - 1부 추모식 :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 개회인사, 추모사
 - 2부 문화제 : '시와 음악과 춤과' 무용, 편지낭독, 생활성가, 시낭송, 성악 합창등
- 4. 26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회의의 결정을 통해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에서 평신도 교육실태의 조사연구를 실시
- 5. 26~27

제1차 상임위원회(전주)

 - 장소 : 전주교구 교구청
 - 안건 : 평협 40년 준비위원회 구성, 한국천주교 교육실태 조사
 - 심포지엄
 - 발제 : '한국 천주교회와 평신도사도직'(조광 교수, 고려대학교)
 - 토론 : 고려대학교 노길명 교수, 전남대학교 김정희 교수, 전주교구 김영수 신부
- 6. 29

제1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 공모기간 : 2006. 12~2007. 4
 - 수상작 : ▲최우수상 : 성가정(김승용)
 - ▲우수상 : 나의사랑 나의기도(이의선)
 - ▲장려상 : 축복의 미사(김승용), 축복의 미사(김재원), 나의사랑 나의 기도(박수진), 성가정(박현미), 나의사랑 나의기도(설세찬)
- 8. 31~9. 1

제2차 상임위원회(원주)

 - 장소 : 원주교구 배론성지
 - 사회사도직연구소 세미나
 - 발제1 : '평신도 교육과 활동'(민병덕 신부, 평협 담당사제)
 - 발제2 : '평신도사도직 단체의 교육현황'(이윤식 교수, 서울대학교)
 - 발제3 :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앙단계별 평신도 양성모형(조은상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제4 : '평신도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오용석 교수, 경성대학교)
 - 발제5 : '신자 평생교육을 위한 제언'(정찬남 박사, 한국여성생활연구원장)
- 10. 28

2007 가을걷이 추수감사미사와 도·농 한마당 잔치

 -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 11. 2~3

제3차 상임위원회(광주)

- 장소 : 광주대교구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 안건 : 평협 40주년 행사 계획, 124위 순교자와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운동
- 세미나
발제 : ‘한국천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운동(일제 강점기부터 이승만 정권까지를 중심으로)’ (노길명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 전남대학교 윤선자 교수, 광주 가톨릭대학교 옥현진 신부, 고려대학교 조광 교수

11. 제40회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부)
• 주제 : ‘이 땅에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12. 27 사회포럼 ‘민족들의 발전 40주년 기념’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 1주제 : ‘FTA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정진호 박사, 경쟁력평가원장)
• 2주제 : ‘소득의 불균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은상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 27 제2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 수상자 : ▲사랑부문 : 전성민, 이덕림

2008년

2. 16 제41회 정기총회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참석 : 13개 교구 평협, 8개 단체장, 임원 등 49명
• 임원개선 : 17대 평협 회장에 서울평협 한홍순 회장 연임
2. 27 ‘시니스카’ 십자가전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평화화랑
• 주최 : 한국평협, 서울평협,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 전시기간 : 2. 27~3. 4
• 전시품목 수 : 43점
4. 1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3주기 추모제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내용 : 1부 추모제(추모사, 추모노래), 2부 기도회(강론 낭독, 묵주기도 등)
5. 24~25 제1차 상임위원회(수원)

-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 안건 : 평협 40주년 백서 발간, 40주년 기념행사 계획
- 심포지엄 :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사회사도직연구소)
 발제1 : 주보를 통해 본 평신도 교육실태(조은상)
 발제2 : 평신도사도직 단체의 교육실태(박순석)
 발제3 : 설문조사를 통해 본 평신도 교육실태(이상우)
 발제4 : 평신도 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육편람> 제안(변진홍)
 개별토의, 지정토론, 종합토론

6. 19

제2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 공모기간 : 2007. 12. 1~2008. 4. 30
- 수상자 : ▲최우수상 : 기도(임석수)
 ▲우수상 : 지존하신 몸과 마음(김은양), 주님의 사랑은(최윤희)
 ▲장려상 : 주님의 사랑은(김희선), 주님의 사랑은(이찬영),
 주님의 크신 사랑(허정아)

7. 11~12

제2차 상임위원회(인천)

- 장소 : 인천교구 인천가톨릭대학교
- 안건 : 각 교구와 단체 활동 나눔
- 강의 :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사도직 활동(차동엽 신부)

8. 4

신임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와의 만남

9. 6~7

제3차 상임위원회(대구)

- 장소 : 대구대교구 꾸르실료회관
- 안건 : 각 교구와 단체 활동 나눔
- 특강1 : 조환길 주교
- 특강2 : 바티칸공의회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전광진 신부)

10. 1

한국평협 창립 40주년 기념 표어 공모 시상식

- 장소 :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내 소회의실
- 공모기간 : 7. 1~8. 30
- 수상자 : ▲최우수상 : 이웃에 사랑을 누리며 하느님을(권성원)
 ▲우수상 : 이우일, 정광형
 ▲장려상 : 김명옥, 표삼도, 김경인, 김정혜, 김화진

10. 2

2008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 한마당 잔치

10. 28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참가자 초청 만찬

11. 제42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 주제 : ‘이웃에 사랑을, 누리에 하느님을’
11. 1 바티칸 정의평화평의회·이주사목평의회 의장 레나토 마르티노 추기경과의 만남
11. 28~29 제4차 상임위원회(서울)
 • 장소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
 • 안건 : 2008년도 사업평가, 2009년도 사업계획,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의 만남
 • 한국천주교 신자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회(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주최)
 발제1 : 정찬남 위원
 발제2 : 이상우 위원
 발제3 : 변진홍 위원
11. 29 사회포럼 ‘기업 경영과 사회적 책임’
 • 장소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
 • 사회 : 오용석 교수(경성대학교 상경대학)
 • 발제 : 노한균 교수(국민대학교 경영대학)
 • 토론 : 심현주 박사(서강대학교 강사), 이명규 기획실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중근 사무처장(바른사회시민회의), 조석 국장(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12. 4 제3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 장소 : 명동성당 소성당
 • 공모기간 : 7. 1~10. 31
 • 수상자 : ▲최우수상 : 주님 말씀하셨네(김미희)
 ▲우수상 : 소록도 천사(김종철), 주님이 말씀하시네(윤영기)
 ▲장려상 : 아가별(이경열), 마음(박혜현), 나 어둠 속을 헤맬 때(심옥례)
12. 5 제5회 평화 독서감상문 대회 시상식

2009년

1. 7 제2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 수상자 : ▲사랑부문 : 허상희, 최순자, ▲특별상 : 최민호
1. 12 다성음악 기악콘서트 ‘거룩함으로의 여행’ - 만백성의 성가 공연
 • 이탈리아 로마의 산타 루치아 델 곤팔로네 성당 성가대 오중창단
2. 21 제42회 정기총회

- 346 -

- 발표1 :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에 나타난 선조들의 신앙과 영성(유한영 신부, 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원회 총무)
- 발표2 : 언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천주가사(조원형 박사, 서울대 언어학과)
- 발표3 : 한국가톨릭 교회음악과 최양업 신부(양인용, 충남대 강사, 서울대음대 박사과정)

9. 11~12

제3차 상임위원회(제주)

- 장소 :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안건 : 각 교구와 단체 활동 나눔, 사제의 해
- ‘사제의 해, 평신도들의 지향’ 발표
- 특강1 : 강우일 주교
- 특강2 : 아시아 교회(한홍순 회장)

10. 14

최양업 신부 현양 음악회 ‘이 땅이 하느님을 노래하다.’

-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 박영희 교수 작곡 2작품 세계초연

10. 25

2009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 한마당 잔치

- 장소 : 서초구청 앞마당

11.

제43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포스터 배포(2,000매)

- 주제 :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11.20~21

제4차 상임위원회(서울)

- 장소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
- 안건 : 한국 평신도대회 개최, 2010년도 사업계획
- 특강 : 한국교회의 선교사명(염수정 주교)

11. 21

사회포럼 ‘노동과 기업경영’-회칙 ‘노동하는 인간’ 중심으로

- 장소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
- 발제 : 김어상 교수(전 서강대학교 교수)
- 토론 : 이명규 기획실장(한국 노동사회연구원), 황선자 연구위원(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중앙연구원), 임항 기자(국민일보 경제노동 전문)

11. 27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성당 소성당
- 공모기간 : 7. 1~10. 31
- 수상자 : ▲최우수상 : 주님 제 영혼에(김태엽)
▲우수상 : 나의 집 예수(조영희), 영원한 사제시여(최효근)

▲장려상 : 최양업 신부님(김종식), 저희에게 임하소서(김인용)
살리시는 하느님(배영자)

12. 30

제26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 장소 : 서울 명동성당 소성당
- 수상자 : ▲사랑부문 : 조순희·김복중 부부, 박양진
▲특별상 : 박병선



2. 평협 발표 선언문·성명서

전국 평협 창립 성명서

본 협의회는 1968년 5월 31일 주교회의의 결의에 따라 그 소임을 맡은 황베드로 주교님의 주재로 동년 7월 23일 각 교구 평신자 대표와 가톨릭 액션 단체 전국 대표가 대전교구 주교좌 성당 구내에 있는 강당에 모여 그 창립을 보게 되었으며, 총재인 황 주교님의 인준을 받아 동일자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각 교구 평신도 대표단 및 전국적인 모든 평신도 사도직 단체 대표단의 협의체로서

- 1) 한국 내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촉진하고 원조하여 점차로 완성시키며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 2) 모든 회원들에게 각 사도직 단체의 이념과 활동방법 및 경험의 지식을 알림으로써 서로 협조하게 하고,
- 3) 평신도 사도직 육성의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 전국 또는 각 교구의 모든 기구와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이 나라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 4) 이 나라의 성화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도덕·종교·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 5)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운동에 이바지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교회가 역사의 흐름과 현세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방향을 복음의 피안(彼岸)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사도직의 대부분은 우리 평신도의 소명입니다. 이 벅찬 과업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수련을 거듭하는 동시에 또한 단결과 체계적인 활동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요처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 평신자의 집약체로서 모든 신자와 함께 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평신자들은 빠짐없이 소속 본당과 교구의 사도직 단체에 적극 참여하여 본 협의회에 강한 추진력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는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전국적 사도직 단체와 각 교구 협의체를 그 회원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아직도 교구 협의체를 조직하지 못한 교구에서는 수시로 교구 대표를 선출하여 참석케 할

수 있으니 하루 속히 교구 협의체를 조직하여 본 협의회의 사도직 활동대열의 선두에 서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환으로 모든 지체와 함께 이 땅의 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본 협의회에 전국 주교회의와 각 교구장 및 모든 성직자, 단체의 지도와 협력을 바라는 동시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빕니다.

1968년 7월 23일

한국 가톨릭 평신도사도직 중앙 협의회

모자보건법안 반대 성명서

“전국 80만 가톨릭 평신도를 대표한 한국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 협의회는 제3차 정기총회에서 전원 일치된 결의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성안한 모자보건법안을 다음 이유로 단연 반대한다.

- 1) 인간생명의 존엄은 하느님의 법칙이며 그 법칙은 태아에서부터 적용된다.
- 2) 동 법안이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인공 임신 중절(人工妊娠中絶)이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의학과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 3) 동 법안이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사회 경제적 사유는 모(母)또는 부모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잉태된 자녀를 살해할 수 있게 한 반윤리적 규범이다.
- 4) 특히 경제적 사유로 태아를 죽일 수 있게 한 것은 자녀를 매매하는 것 이상의 악법이다.
- 5) 동 법안 제8조 5항의 윤리적 사유는 법률이 금지한 반윤리 행위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또 하나의 반윤리 행위를 합법화한 모순된 규정이다.
- 6) 일본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범하고 용이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과 성도덕 및 가정 평화의 파괴를 더욱 재촉할 것이 자명하다.
- 7) 동 법안이 인공 임신중절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륜과 인공유산을 장려하게 된다.
- 8) 성도덕의 문란은 현 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절실한 당면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법이 이를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케 해서는 안 된다.

1971년 10월 18일

미행·감시에 대한 성명서

1978년 11월 5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가톨릭 액션 단체에서 활동하는 신도들에 대한 미행·감시·연행·연금·구속 등의 사례를 종교탄압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 1) 가톨릭 농민회 및 가톨릭 노동청년회 정성현, 유남선, 박명근, 정인숙, 이충각 등에 대한 일방적인 재판을 시정하여 공정한 심판으로 무죄 석방하기를 바란다.
- 2) 전국 평협 감사 유진훈에 대한 미행 감시와 연금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이며, 그의 종교적 양심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3) 이 밖에도 교회 안팎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의 교회 활동을 범죄시 또는 용공시하거나 협박, 모략, 중상, 분열하는 행위가 없도록 촉구한다.

1978년 11월 5일

KBS시청료 거부와 인군에 대한 성명서

신도는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 신도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할 두 가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의 현세질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 1) 교회 신도이면서 국민인 한국 천주교 신도들은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 TV 시청료는 KBS가 광고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전제로 실시된 재원조달 방법이다. 이에,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KBS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밝혀 둔다.
- 2) 천주교회는 인권수호의 선봉이다. 따라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교황 바오로 6세의 1972년 연설). 오늘날 한국에서는 기본적 인권인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보도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가 국민이 알고, 보고, 듣고, 말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매체들, 특히 KBS는 그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은 보고, 들을 인간의 권리(사목헌장 26항)에 대한 모독이다.

이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이 보장될 때 한국의 민주화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를 위해 모든 보도매체의 기능 정상화를 촉구한다.

- 3) 천주교회는 정의를 선언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특히 신도들은 현실을 복음적으로 분석, 식별, 판단할 책무가 있고 현세질서 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복음화할 고유한 의무가 있다.

이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앞으로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면서 정의와 인권과 자유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 4) 한국 천주교 신도들은 우리의 고유한 사명인 현세질서의 복음화를 자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적 예언직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신앙의 눈으로 앞으로의 귀추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1986년 4월 10일

KBS시청료 거부운동 성명서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 1) 여러분의 단체이며 대변기관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지난 4월부터 KBS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2) 우리가 KBS 시청료의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는 KBS가 상업광고방송과 시청료 징수를 병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진실된 보도를 바라는 국민과 시청자의 소망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 3) KBS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주장을 묵살하고 최근에는 합동고지서라는 이름으로 KBS 시청료를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등 일반 요금과 함께 납부시키는 등 온갖 강압적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 고지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KBS 시청료를 제외하고 납부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 4) 그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과 일부 KBS 시청료 징수원이 시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우리 국민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 5) 우리 평협에서는 이미 고문 변호사를 선정하여 선량한 시청자가 당하는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부당한 일이 있을 때에는 평협 사무국으로

서류로써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6) 교형자매 여러분께서 일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시청료의 납부 거부는 불법이 아닐 뿐 아니라 체납 시청료의 5%만 가산하면 아무런 법적 문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다짐과 결의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마지막으로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듣고, 보고, 말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화에 직결된다는 것과, 현세 질서의 복음화에 헌신하는 우리 평신도의 고유한 임무임(평신도 교령 5항)을 인식하시어 용감하게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1986년 9월 18일

민주정의에 대한 성명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8월 9일 인천 부평 샤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상임위원회를 갖고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이 우리 국민에게 극심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여 기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온갖 현실문제들은 주로 정치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유린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정치 권력도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는 인간 기본권의 수호에 필요한 경우 정치 질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사목헌장 76항). 특히 현세질서의 쇄신은 평신도의 고유한 의무이다.(평신도 교령 7항). 우리 평신도는 현세질서를 복음화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반성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현실의 격동은 민주화 개헌에 직결되어 있다. 이 격동 속에서 여야 정당은 모두 국민의 소망을 따르고 대타협을 통해 개헌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때 사용하는 타협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흥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는 당리 당락에 앞서서 인간 존엄의 정신과 도덕적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 이에 오늘의 국가 현실에 대해 책임을 가장 크게 지고 있는 위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 1) 집권여당 스스로 지금 민주화를 외치고 있음은 현 체제가 비민주적 체제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개헌을 위해서는 먼저 이제까지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 2) 정치체제와 제도를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 정치체제와 제도가 있는 것이다. 즉 개헌도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개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 기본권으로서 헌법에도 명시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 개헌을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목전의 당리 당락에 따라 진실을 외면하면 계속 또 다른 모순들을 낳아,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됨을 우리는 유신체제의 종말을 통해 잘 알고 있다.
- 3) 따라서 적어도 독재적 유신체제 이래 오늘 날까지 민주화를 외치다가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 중의 일부를 용공분자로 모는 과오를 시행해야 한다.
- 4)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현행 언론기본법을 폐폐해야 한다.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제도 언론은 민주화 개헌에 앞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 5) 인간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위해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이 근절되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가장 존엄한 것이다. 따라서 양심수와 민주 인사에 대한 고문은 즉각 중지해야 하며, 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진상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사법기관에 제출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이것은 현 체제 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의 가장 흑심하고 수치스러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 사건에 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권양의 억울함을 규명하려는 교회 내외의 집회들을 제지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 체제의 도덕적 거점은 부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6) 오늘날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하고 감시당하고 있다. 한편, 농민들은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 있으며 많은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미 무역관계에서 종속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개헌과는 별도로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6개항의 문제들을 정권적 차원에서 덮어 두고 넘어가려 하는 한, 오늘 날 한국의 민주화 개헌을 추진하는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른바 국민의 소망과 명령을 빙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자 하는 바이다.

1만여 명 순교선열들의 후예인 오늘의 한국 천주교 230만 신도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현 시국의 귀추와 위정자들의 양심자세를 엄정하게 지켜보며 우리 스스로 진리에 따르는 삶을 굳건히 증거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1986년 8월 12일

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성명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서울대학교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하여 그 밖의 일련의 고문사건에 의로운 분노를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 1) 우리는 박종철 군의 애통한 죽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애도하며, 그의 유가족과 이웃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또한 박종철 군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이 땅에서 고문이 사라질 때까지 고문에 반대하는 우리의 행동을 분명히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
- 2) 우리는 “이 나라 국민들이 불의와 부정과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보고 분노를 느껴야 한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에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다짐한다.
- 3) 고문은 인간성에 대한 유린이며, 문화민족의 긍지를 여지없이 침해하는 행위이다.
고문은 고문 받는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문자 자신의 인격까지도 파탄시키는 일이다.
인간성에 대한 범죄인 고문이 자행되는 사회에서는 고귀한 인간가치의 성취가 불가능하다.
인류와 민족의 행복과 자유, 그리고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떠한 형태의 고문이라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 4) 박종철 군의 애통한 죽음을 비롯하여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행위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말단 수사관이 우연한 실책으로 이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박종철 군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고문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원인이 밝혀져야 하고, 고문을 종식시킬 수 있는 민족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이 땅에서 인간성이 존중되고 실추된 민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수사관의 인격을 파탄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박종철 군의 죽음을 비롯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일련의 고문사건들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진실한 회심(回心)이 불가능한 것이며, 고문자에 대해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응분의 처벌없이 고문행위의 근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종철 군의 사건을 비롯한 고문사건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 6) 우리는 박종철 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서 고문이 근절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전국 700여 본당의 220만 신도는 1월 25일 미사를 봉헌하여 특별히 기도할 것을 우선 결의한다.

1987년 1월 19일

민주화를 위한 두 번째 성명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인간성이 유린되고 인권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들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존심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임을 선언한다.

이에 본 협의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의 종식을 바라 고, 그 재발의 방지를 기원하는 뜻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1) 우리는 박종철 군의 고문살해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고문행위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비리들의 척결을 위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태의 발생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 사태 발생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되기를 촉구한다.

- 2) 우리는 이 일련의 사태들이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여와 무관심에서 발생하였음을 깊이 반성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랑의 정신을 거듭 인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정의의 실천을 거듭 다짐한다.

- 3) 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심과 투신을 다지며 고문과 감금과 혹사로 대표되는 오늘의 현상을 치유하고 나라의 민주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기도와 절제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기로 결의한다.

-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 동안 교회 내 모든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화살기도를 드린다.
- 이 기간 동안 매일 묵주의 기도를 드린다.
-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절제의 시기로 정하고 신도들 자신은 절제운동을 전개하며, 절제의 생활을 통해서 비추된 모든 것을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봉헌한다.
- 우리는 이 운동을 3월 4일 재의 수요일을 계기로 하여 사순절의 전체 기간 동안 더욱 고양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1987년 1월 19일

민주화를 위한 세 번째 성명서

오늘 우리 국민은 민주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5월 24일 여·야 영수회담의 결렬에 대해 심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는 현 정권이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과 시국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정권적 차원에 연연하는 데 있다고 보며, 이러한 현 정권의 자세가 장차 이 나라에 예기치 못할 파국을 초래하며, 현 정권은 물론 전 국민적인 불행이 닥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심사는 지극히 착잡하다.

특히 부산, 이리, 상주, 원주 등에서 성직자들에게 가한 당국의 폭력과 교회 탄압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태로서 현 정권이 말로만 민주화를 위한 개헌 논의 재개 등의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는 종전과 다른없는 폭력행위를 일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을 기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민주적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대해 교회 탄압의 중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적 희생과 불안을 강요하지 말고 이 나라 민주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4·13 조치의 즉각 철회, 민주화 개헌, 구속된 민주인사의 전원 석방, 언론자유 보장, 사면 복권 등 민주화 조치를 위해 일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는 6·26 평화 대행진을 지지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987년 6월 25일

민족의 십자가를 나눠 지고자 하는 한국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

“하느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셨으니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이 바다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무서워 아니하리라.”(시편 46,1-2)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재난이 엄청나고 항공기 사고로 인한 비극이 새롭기만 한 이 때, 시국문

제와 관련해 저희 천주교회 일각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교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7월 27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남북통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간담회를 끝내면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정의구현 사제단’이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소식을 충격과 함께 접했다고 전제하고 “정의구현 사제단이 한국 천주교회에서 공인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천주교 신부의 단체라는 점에서 주교단은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통일을 촉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수용하지 못할 행동이 앞섬으로 인해 많은 국민에게 우려와 불안을 준 것은 마땅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주교단은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자가 행동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과도히 분출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하루 속히 보다 거시적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8월 3일 서울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한국 천주교회의 최고 협의기구인 주교회의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1. 주교회의의 발표가 있는 후인 7월 31일 ‘정의구현사제단’은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총회를 열어 문규현 신부의 북한 파견을 추진하는 등 주교회의의 방향 제시에 거부 의사를 표출시킴으로써 교회의 근본 질서인 교계 제도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왔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사랑과 나눔과 일치와 성사인 성체성사를 전례의 중심으로 믿고 따르는 가톨릭교회는 머리에 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지체로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는 2천년 동안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어 왔으며, 교황과 일치하고 있는 주교들에게 교도권이 주어진 것으로 배워 왔습니다. 따라서 주교의 협조자인 사제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에게 순명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민주화를 위해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 받아 온 정의구현 사제단의 이번 언행은 우리 신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제들이 주교에게 순명하지 않는 가운데서 평신도들이 사제에게 순명할 것을 어떻게 바라겠는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양심에 따라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면서 교회내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의구현의 자세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직자는 교회의 공인이므로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면서 교회 내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4. 7월 27일 판문각에서 행한 문규현 신부의 연설은 실로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파장은 건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북에서 이와같은 모습을 보인 문신부의 행적을 단순히 통일을 열망하는 순수한 뜻으로 새겨들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부모와 형제를 갈라 놓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통일은 요원한 것이며, 따라서 분단을 지속시키는 모든 장애는 제거돼야 한다”고 밝힌 정의구현 사제단의 주장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기에, 통일과 선교를 가로막는 난관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점도 덧붙여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원리를 선언하는 것은 성직자들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동에 옮기는 일은 평신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6. 참다운 통일은 정의와 평화가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조건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며 통일이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보장된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신부 세분이 구속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실정법을 거스렸다고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조사도 가능하리라고 보며, 또한 주교회의의 담화가 있기가 무섭게 구속한 것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8. 정부는 1988년 7.7 선언 이후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갖가지 불상사가 야기된 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정부로서 솔선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삼갈 것은 삼가는 가운데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 우리 천주교 평신도들은 교회 내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10. 우리 평신도들은 세속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누룩과도 같은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부름을 받은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민족의 십자가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민족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함께 하며 정의와 평화, 보다 인간다운 사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 평신도의 본연의 임무임을 절감하면서 특별히 성직자, 수도자들의 영성적인 지원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11. 끝으로 250만 신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금 200년 한국교회 역사상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신도들에 의해 창설된 교회의 구성원들이며 그 어떤 불의에

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죽기까지 한 순교선열들의 자랑스런 후예답게 의연한 자세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뜻 안에서 흠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박힌 티끌만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를 아파하며 참회를 통한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는 10월로 다가온 제44차 서울 성체대회를 합당하게 준비하면서 주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하십시다.

1989년 8월 3일

우리농촌우리가 살립시다.

쌀 개방 관련 성명서

오늘 우리 농촌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고가 반만년을 경작해온 우리의 논과 밭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존폐의 위협 앞에 직면한 오늘, 우리는 전국 천주교 신도들의 염원을 담아 우리들의 다짐을 밝히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정부 당국은 『쌀 개방 불가피』로 태도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이래 7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대 정권은 무엇을 했으며 현정부는 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무사안일로 일관해 온 정부 당국은 오늘의 국면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경제 발전을 위해 온갖 희생을 치렀고 오늘 쌀 수입 개방으로 말미암아 더욱 급속한 붕괴의 위협을 맞게 되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 경제가 살아야만 나라가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2년 전부터 『우리 상품 우리가 쓰고 우리 농산물 우리가 먹자』는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게 밀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잡아나간다면 우리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상품과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애용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입니다. 모든 산업체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우리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공산품과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먼저 현재의 농정 전반을 개혁,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농촌은 나의 고향이고 나의 친척이요 이웃들입니다.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은 또한 나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곧 연대의식이며 우리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또 더불어 사는 길이고 함께 살아남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 값이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농촌이 지극한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고통과 위기를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하나로 모읍시다. 하느님께서서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1993년 12월 12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 회복 캠페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호소문

이 땅의 하느님 백성과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최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인륜적 패륜 범죄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생명경시의 죽음의 문화현상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침묵으로 방관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부(副)의 축적을 통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황금만능의 배금사상에 빠져 인성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가치관이 뒤바뀌는 가운데 최소한의 도덕규범마저 실종되었으며, 그것에 따른 엄

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대구에서 상임위원회를 갖고 전국 15개 교구 평협 회장단과 단체장, 임원들의 뜻을 모아, 94년 11월에 이어 다시 한번 3백만 가톨릭 형제 자매와 국민 모든 분들에게 도덕성 회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태 속에서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은 신자들부터 과연 영세 때 약속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팎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어두운 사회 병리 현상을 개탄하면서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는 개인과 단체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천주교 평협이 거듭 호소하고 나선 것은 일반적인 도덕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뛰어올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바탕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흔히들 양심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판단은 법을 이루지 않습니다(<진리의 광채> 60 참조). 양심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어떤 자주적이고 유일한 원칙이 아닙니다.

상당한 지식층에 있는 아들이 비뚤어진 양심의 판단을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양심이 분명 잘못된 것일 때에는 그 존엄성이 손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손상된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는 처지가 나 자신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닮하기 전에, 우물 안을 흙탕물로 바꿔 놓은 미꾸라지를 닮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과 나의 책임은 없는지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참되고 선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회개하는 양심이 되라고 스승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은-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로마 12,2)

형제 자매 여러분!

불멸의 진리를 바탕으로 착하게 사는 공동체.

그분의 사랑을 이웃 안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도덕성 회복은 바로 나 자신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95년 4월 23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공명선거 캠페인〉

6·27 지방자치 선거에 즈음한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

국민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는 27일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이 땅에 폴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실로 중대한 국가적 행사이며 주민자치(住民自治)의 역량을 보여주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권이 주민(住民)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각자가 엄격한 감시자가 되어서 공명선거의 파수꾼 역할을 다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자(選舉權者) 누구나 빠짐없이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껏 살면서 불의(不義)를 배격하고 하느님의 법(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문화를 가꾸는 사람을 뽑읍시다.

근면, 검소, 절약하고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성실한 사람을 뽑읍시다.

선거에 돈 안 쓰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뽑읍시다.

진실한 사람, 약속을 제 때에 지키는 사람을 뽑읍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역적인 연고나 학연(學緣),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진리(眞理)와 정의(正義)에 기준을 두고 사랑의 원칙에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성령(聖靈)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겨레, 우리나라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요한 3.21)

1995년 6월 4일 성령강림 대축일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견해

우리는 근간 대만의 핵폐기물을 북한이 반입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은 현재 북한의 핵폐기물을 저장할 기술적인 능력이 의문시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도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만과 북한 당국은 핵폐기물 처리 협정을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 당국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의 저지를 위해 만반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한국천주교평신도들은 이의 저지를 위해 국민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997년 1월 25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백만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해 10월 25일 “3백만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는 10월 8일 안동에서 열린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회장단이 위임받아 발표한 것이다.

1.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1994년 11월 13일의 제27회 평신도의 날을 앞두고 3백만 가톨릭 평신도들과 전 국민에게 땅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을 제자리에 바로 놓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자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2. 우리는 오늘날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사태들을 지켜 보면서 충격과 분노, 좌절과 실망 속에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 잇따른 존속살해와 집단살인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의 엄청난 비리와 사회기강 해이 현상에 대해 모두들 크게 걱정하고 있던 중에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비극으로써, 미리 손을 썼더라면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3. 이번 성수대교 사건은 단순한 한강 다리 하나가 무너져 내린 사건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여지없이 추락하고 만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이 한강 물 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량의 안전 점검과 사고예방 소홀 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하는 그릇된 풍조야말로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고 공동선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통했습니다. 탈법과 불법, 그리고 정통성을 상실한 공권력 등으로 해서 가치관이 뒤바뀐 현상 속에 물질만능과 졸속공사 따위가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4. 그러나 지금은 지난날의 어두운 면만을 파헤치며 지난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책임의 일단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과연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다해 왔는지, 자신의 삶을 검히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처신을 해 왔는지, 내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는 내가 해야 할 몫을 다하고 피할 것은 피했는지 스스로 살펴볼 일입니다.

세속에 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짚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혁해 나가야 하는 소명을 우리는 받았습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진실을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5.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면서 회개와 속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를 분별없이 따르기보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가려 옳은 것은 끝까지 추진하고 그른 것은 단연코 배격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숨 바쳐 신앙을 증명한 순교선열들의 정신을 이어 받는 길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 만연된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이 당의 복음화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6. 하느님께서는 가정이 다른 모든 인간 공동생활의 표지요 모형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의 갖가지 비극적인 현상은 가정이 창조주께서 뜻하신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조 질서를 역행함으로써 죽음의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죽음의 문화를 사랑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노인공정에 이르기까지 가정공동체의 모든 일이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 가정을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가꿔 나가야겠습니다.

7. 끝으로 가톨릭 신도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시급한 것은 윤리와 도덕을 제 자리에 올려놓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선을 추구한다면 공동선이 아닌 것을 지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덕주의에 머물지 않고 참으로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사랑과 희망의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진리에 바탕을 두고 윤리와 도덕을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8.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신앙인들이 먼저 진리이신 하느님을 증거 하는 삶을 매 순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94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기(千年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는 우리에게 각자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정당한 방법과 새로운 열정으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올 연말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천년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떠합니까?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아랑곳없이 민주질서를 통한 과정도 무시한 채 오직 집권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실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상대편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고, 혈투성명과 논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쟁’은 있어도 ‘정치’가 없는 오늘의 세태입니다. 정치는 무엇보다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8월 세계정치학회 서울대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더불어 사는 방

식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행태를 볼 때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정치가 있는 것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더불어 사는 정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촉구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리당략만을 쫓을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도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관권개입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촉구합니다.

신문·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과 언론인들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보도로써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민족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행사입니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 또는 눈앞의 이익에 이끌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또한 우리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천주교 신자(형제·자매)들에게 호소합니다.

가을날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봄에 씨뿌리고 여름날 땀흘려야 하는 것과 같이 의로운 정치, 더불어 사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로나 상식밖의 말과 행위로써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기도속에서, 이 시대와 겨레의 미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헤아려보고, 그 뜻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울삼아 우리 각자가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올바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1997년 9월 7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

2000년 대희년을 앞둔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평신도의 ‘제자리 찾기’에 나선 우리는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본분을 찾음은 물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다짐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극심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음은
위정자와 기업인, 근로자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잘못된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제자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만이
그동안 이룩해 온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지름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350만 신자들이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실천 사항

1. 우리는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과소비를 억제한다.
1. 물자를 아껴 쓰고 저축에 힘쓴다.
1. 외제물품을 쓰지 않고 우리 기업 우리가 키워나간다.
1. 해외 관광 여행을 자제하며 적은 액수라도 외화를 저축한다.
1. 우리 농산물, 우리가 먹는다.
1. 자가용 운행을 절제하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1.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데 앞장선다.

1997년 11월 23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

온 국민을 좌절과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하의 경제난 극복여부는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최근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IMF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의를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경제난 극복에 눈물겨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난국을 이겨내는 데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난국을 가볍게 인식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영원히 외채의 짐을 벗지 못한 채 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한 고통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안겨주는 치욕의 역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치욕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 위기를 극복하려는 각자의 실천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07년에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회장을 비롯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나라 살리기에 앞장섰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나서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 경제난국 극복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빛 없는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끄럽지 않은 선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경제위기가 발생한 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을 설정하고, 본당과 가정, 일터와 학교에서 각자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

첫째 : 본당에서는

-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각종 행사를 줄인다.
- 평일미사는 소성당을 이용한다.
- 수입성물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성물을 애용한다.
- 미사참례시 자가용 이용을 삼가한다.
- 단체회합후 회식을 줄인다.
- 베품시장을 개설한다.

둘째 : 가정에서는

- 금 모으기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 TV 시청을 줄이고 한 집에 한 등 이상 소등한다.
-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외화절약을 생활화 한다.
- 물을 아껴쓰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외식을 줄이며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
-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자원재생에 협력한다.
- 외제품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품을 애용한다.
- 수입식품을 먹지 않는다.
- “아나바다물”(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물려쓰기)운동을 생활화한다.
- 한가정 IMF 통장 하나 갖기에 앞장선다.

셋째 : 일터에서는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 휴식시 컴퓨터 전원을 끈다.
- 고급식당, 호텔등의 출입을 줄인다.
- 돌반지등 금붙이 선물을 안한다.
- 경조사 비용을 줄인다.
- 이면지를 활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고급 스포츠(골프, 스키 등)를 절제한다.
- 자원 재활용에 앞장선다.
-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에 앞장선다.

넷째 : 학교에서는

- 외제학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패스트푸드점(외국업체) 이용을 줄인다.
- 참고서, 동화책, 옷(교복등) 등을 물려받아 쓰고 입는다.
- 몽당연필을 볼펜에 끼워 쓴다.
- 군것질을 줄인다.

1998년 1월 20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

- 광복 50주년, 분단 50년에 즈음하여 -

이 땅의 우리 겨레는 자비로우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보호아래 1945년의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해 민족해방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교회도 나뉘어져서 한쪽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분단의 비극은 동족상잔의 치절한 전쟁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했으며 분단으로 인해 겨레의 고통은 한(恨)이 되어 반 백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도록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과 독재와 불의와 비리로 이어진 고속성장의 한계는 삼풍 참사로 드러나고 말았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 반세기를 맞이한 올해를 흔히들 희년(禧年)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희년은 50년마다 맞이하는 ‘해방의 해’를 의미하고, 노예가 된 유태인은 희년이 되면 해방(레위 25,10)되었습니다. 희년의 가장 의미심장한 귀결 중 하나는 곤궁에 처한 모든 주민들이 모두 자유스럽게 풀려나게 되는 전체 해방입니다. 그런 만큼 광복 50주년인 올해 우리 겨레도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해방뿐 아니라, 이웃과 우리 내면의 갈등까지도 해소하는 참된 의미의 해방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맞아 희년의 기쁨을 합당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살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속죄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에 앞서 불목한 이웃을 찾아가서 화해해야 한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마태 5, 23-24 참조)대로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수치스런 부분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광주’문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그 책임자들은 겨레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토대가 될 때 그 엄청난 상처도 아물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 교회는 통일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반쪽만의 교회가 전체의 교회인 양 자처하면서 살아온 무관심’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일치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 자신이 진정 일치를 제대로 살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물질과 향락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상이 복음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스스로 복음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변화를 일으켜야”(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1994년도 사목교서)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신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까닭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통일을 앞당기지도 못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야 합니다. 길ियो, 진리요, 참 생명이신 그분의 존재를 북녘 동포들에게도 알리는 새로운 선포가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말씀의 씨앗’은 떨어졌으나 땅이 척박해서(마태 13,1-9; 마르 4,1-9; 루가 8,4-8) 그 씨앗이 자라지 않고 있는 그곳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인간 존중은 사회구조 자체의 본질요소이며 기본적인 판단기준”(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39항)이기 때문입니다.

인권과 도덕성의 문제는 남녘의 우리 모두에게도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 권리가 값진 것이며 남의 권리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서 부족합니다. 각종 대형 사고가 붓물 터지듯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이에 팽배해 온 이기심과 부정부패 탓입니다. 1년에 150만명 씩 태아의 생명을 앗아 버리는 반인륜적인 살인행위가 오늘날 그토록 엄청난 살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의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역감정 하나 극복하지 못한 채 어찌 통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강생의 신비는 인간이 만든 분단의 악(惡)을 걷어내고 그분과 일치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과의 화해를 넘어서 하느님과의 화해를 통해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겨레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번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레가 아직 광야를 헤메고 있다면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겨레의 앞날을 밝히는 빛이 돼야 할 것입니다.

광복 50주년과 분단 50년을 맞이한 오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진정 이 땅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먼저 남과 북의 위정자들은 이제까지 정권유지 차원에서 다루어 온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정자들은 통일을 권력유지와 인기관리를 위한 도구로 더 이상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 열강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이 바로 주변 열강들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는 만큼, 열강들은 한민족의 통일에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50년 전 이 땅의 분단이 외세에 의해 저질러졌듯이 이 민족의 진정한 광복을 또다시 외세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바로 능동적 주체

로서 통일을 앞당기는데 투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호소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 공동체에서나 또는 본당이나 사도직 단체 회합이 있을 때마다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한번씩 바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아버지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차별없이 모든 이를 사랑하면서 그 분의 뜻을 따라 복음을 살 때, 민족의 화해와 이 땅의 복음화는 이뤄질 것입니다.

“오, 자비의 어머니시여, 우리는 이제 당신의 사랑 가득한 마음에 이 땅의 온 겨레와 교회를 맡기 나이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4.5.6 명동 대성당에서)

1995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부의 날 선포문

- 가정은 사회의 기초입니다.
 - 서울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초에 가정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렇듯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가정은 혼인한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 혼인제도는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마련하신 신성한 것이며, 성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관계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이혼을 막아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따라서 혼인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매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함으로써 일생동안 지쳐 나가야 할 서약임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 우리는 모든 가정이 성가정을 본받아 하나되어 행복한 혼인생활과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이를 바

탕으로 건전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 ME 대회를 기하여 5월 마지막 주일을 “서울대교구 부부의 날”로 선포하고, 앞으로 관련기관과 단체의 행정 절차를 밟아 연례적인기념일로 정착 되기를 희망합니다.

1996년 5월 24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천주교 평신도 환경 선언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와 산성비로 인한 피해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삼림의 훼손과 생물 종들의 멸종 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물의 오염으로 인류의 보금자리이자 하나 뿐인 지구는 이제 인간의 맹목적인 탐욕과 오만을 꾸짖기라도 하듯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중에 농약이나 공해물질에 찌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온 지구 환경의 파괴는 지금 이 시간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처럼 환경파괴가 계속 된다면 하나 뿐인 지구는 지금까지 포용하고 있던 모든 생명을 거부할 것입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는 도덕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생명존중의 결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연 환경은 이기적 욕심과 무모한 경제개발로 인해 희생되어 왔습니다. 발전과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환경 파괴는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근본적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맡겨주신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어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계획을 거슬러 이를 무참히 파괴해 버렸고 지금도 그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훼손된 자연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신 본래 상태로 회복해야할 엄숙한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은 이들의 공감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인간과 자연이 본래 형성하고 있던 조화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비하고 환경보호 의식은 교회 전반에 충분히 확산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평신도들은 하늘과 땅 물 등 자연을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천운동을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똑같이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과 질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지금 나부터 환경보호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가정과 직장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생활안에서 실천한다.
1. 우리는 환경문제가 공동의 책임임을 명심하고 가족, 친지는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1. 우리는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기업의 사업이나 정부 정책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수정하도록 촉구하는 일에도 앞장선다.

1996년 6월 2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기(千年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는 우리에게 각자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정당한 방법과 새로운 열정으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올 연말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천년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떠합니까?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아랑곳없이 민주질서를 통한 과정도 무시한 채 오직 집권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실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고, 헐뜯기 성명과 논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쟁’은 있어도 ‘정치’가 없는 오늘의 세태입니다. 정치는 무엇보다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8월 세계정치학회 서울대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더불어 사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행태를 볼 때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정치가 있는 것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더불어 사는 정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촉구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리당략만을 쫓을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도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관권개입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촉구합니다.

신문·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과 언론인들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보도로써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민족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행사입니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 또는 눈앞의 이익에 이끌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또한 우리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천주교 신자(형제·자매)들에게 호소합니다.

가을날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봄에 씨뿌리고 여름날 땀흘려야 하는 것과 같이 의로운 정치, 더불어 사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상식밖의 말과 행위로써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기도속에서, 이 시대와 겨레의 미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헤아려보고, 그 뜻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울삼아 우리 각자가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올바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1997년 9월 7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

온 국민을 좌절과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하의 경제난 극복여부는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최근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IMF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의를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등 경제난 극복에 눈물겨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난국을 이겨내는 데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난국을 가볍게 인식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영원히 외채의 짐을 벗지 못한채 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한 고통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안겨주는 치욕의 역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치욕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 위기를 극복하려는 각자의 실천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07년에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회장을 비롯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나라 살리기에 앞장 섰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나서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 경제난국 극복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빛 없는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끄럽지 않은 선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경제위기가 발생한 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을 설정하고, 본당과 가정, 일터와 학교에서 각자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

첫째 : 본당에서는

-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각종 행사를 줄인다.
- 평일미사는 소성당을 이용한다.
- 수입성물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성물을 애용한다.
- 미사참례시 자가용을 이용을 삼가한다.
- 단체회합후 회식을 줄인다.
- 베품시장을 개설한다.

둘째 : 가정에서는

- 금 모으기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 TV, 비디오, 전열기구 사용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는다.
-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외화절약을 생활화 한다.
- 물을 아껴쓰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외식을 줄이며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
-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자원재생에 협력한다.
- 외제품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품을 애용한다.
- 수입식품을 먹지 않는다.
- “아나바다물”(아껴쓰고, 바꿔쓰고, 나눠쓰고, 다시쓰고, 물려쓰기)운동을 생활화한다.

셋째 : 일터에서는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 휴식시 컴퓨터 전원을 끈다.
- 고급식당, 호텔 등의 출입을 줄인다.
- 돌반지 등 금붙이 선물을 안한다.
- 이면지를 활용하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
- 고급 스포츠(골프, 스키 등)를 절제한다.
- 자원 재활용에 앞장선다.

넷째 : 학교에서는

- 외제학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패스푸드점(외국업체)이용을 줄인다.
- 참고서, 동화책, 옷(교복등) 등을 물려받아 쓰고 입는다.
- 몽당연필을 볼펜에 끼워 쓴다.
- 군것질을 줄인다.

1998년 1월 20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 평 신 도 선 언

새로운 천년기의 문턱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어 창립된 자랑스런 전통을 지닌 교회이다. 창립 이후 거의 100년간 피어린 박해를 받았지만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오늘의 한국 천주 교회를 있게 한 밑거름이 됐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제 20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고, 여전히 활력에 넘쳐 있다. 380만 명을 넘는 신자와 해마다 100명 이상 탄생하는 사제들, 레지오 마리아·ME·꾸르실료·성령 쇄신운동·마리아 사업회 등 다양한 신심 사도직 단체들의 활동, 그리고 최근 들어 새롭게 일고 있는 선교에 대한 열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천주교회가 보여주는 활력은 세계 여러 다른 나라 교회들의 찬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양적 성장의 이면에 내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주일 미사 참여자의 감소와 냉담신자 증가,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교회 대형화와 그에 따른 신자들의 익명화, 성직자의 권위주의, 교구·지역간의 높은 벽, 열심에 못 미치는 영성의 빈곤 등이다. 사회적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 빈부 격차, 생명 경시 풍조와 환경 파괴, 이혼과 청소년 탈선, 높아가는 분단의 벽, 온갖 사회 불의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2000년 대희년과 새로운 천년기를 맞고 있다.

대희년으로 시작되는 새 천년기는 우리 교회가 희년의 정신으로 쇄신되어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94년에 발표한 교서 <제삼천년기>에서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하며,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줄 것을 전 세계 교회에 권고했다. 한 천년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기를 맞는 2000년은 ‘시간의 시작이요 마침이자 중심’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육화로 땅에서 시작된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성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널리 선포하고 경축하는 해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신 구원의 신비가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주님 은총의 해’임을 고백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빼앗긴 이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주님의 은총의 해’를 알리신다. 그분께서는 이 해를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선포하신다.”(『제삼천년기』 11항).

대희년과 새 천년을 앞두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 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그리스도 친히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고 실현하신 ‘은총의 해’를 새롭게 선포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수행해야 할 몫이지만, 특별히 하느님 백성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우리 평신도들의 과제이다.

한국 평신도들이 오늘 대희년 맞이 평신도 대회를 거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희년의 정신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탄생 2000주년의 대희년을 합당하게 경축하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실현하신 ‘은총의 해’를 오늘의 교회와 사회 안에서 거듭 새롭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다.

사실 대희년맞이 평신도 대회는 결코 일회적인 경축 행사나 통과 의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신 희년, 곧 참다운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리이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자유인으로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는 자리이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 세상에 참다운 자유와 해방, 용서와 화해,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한 대희년맞이 평신도 대회를 계기로,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깊이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희년과 새 천년기에 요청되는 평신도 사도직의 올바른 방향을 이 선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선언은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오늘의 사회와 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우

리 자신의 현실을 평신도의 눈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비추어 오늘의 현실을 반성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요청되는 바람직한 평신도 사도직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사목회의 의안, 그 중에서도 평신도 의안을 이 선언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이 의안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천주교회 사상 처음으로 하느님 백성 전체인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민족 복음화를 목표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분석, 진단하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복음화 대책을 제시한 매우 값지고 의미 깊은 문헌이다.

200주년을 기점으로 선교 3세기에 들어서 있는 한국 천주교회는 이제 대희년과 새 천년기를 맞아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할 새 복음화의 과업을 수행할 사명을 안고 있다.

2000년 대희년으로 시작되는 새 천년기는 지난 천년 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기가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보 통신 분야의 혁명적인 발전은 이미 정보 사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물 공학과 생명 공학 분야의 발전은 복제 인간의 출현을 현실화하고 있다. 지구화는 이 세계를 상호의존적인 거대한 단일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종교적 가치들은 세속화되고, 진리는 상대화되고 있다. 이제 이 세계는 사회적·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할 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반생명적이고 반문명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평신도들은 현대 세계의 이러한 추세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신 ‘생명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 천년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새 복음화의 과업이다.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

지난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아 소집된 전국 사목회의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느님 백성 전체, 즉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참여해 교회와 사회의 현실을 복음의 빛으로 분석·진단하고 선교 3세기에 요청되는 민족복음화의 과제와 실천 방법을 모색했다.

이 사목회의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교회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워진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고 밖으로는 온 겨레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유감없이 전하여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소집됐다. 사목회의는 특히 온 교회와 더불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사목회의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유념했다.

1. 이미 알려진 신앙의 원리 원칙에 충실하면서 구체 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와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한국 교회의 참된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목적 회의가 되도록 노력한다.
2. 사목회의는 보편 교회 안에 자리하면서 한국 민족의 고유한 문화 유산을 계시의 빛으로 조명, 수용하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토착화의 가능성을 탐구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땅의 민족 문화창달과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3. 200년 교회사를 회고하면서 온고지신의 지혜를 터득하고 민족 복음화라는 목표를 위하여 현상을 분석,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인 선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주교회의의 결의를 거쳐 소집된 200주년 사목회의는 1981년 초 준비 모임에서 시작해 1984년 11월 폐회식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진행됐다. 모두 12개 분과로 나뉘어 의안 담당자와 전문 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했고, 각 교구와 수도 단체, 평신도 단체들의 검토를 거쳐 다시 전문위원들과 해당 전국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수정안과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성직자·수도자·평신도·전례·신심운동·지역사목·교리교육·가정사목·특수사목(I·II) 교회운영·선교·사회라는 모두 12개 주제로 구성된 사목회의의 의안은 성직자·수도자·평신도 의 대표들이 이 땅의 하느님 백성 모두를 대신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은 뜻있는 결실이었다. 사목회의의 의안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참다운 민족 복음화를 지향하는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담고 있었다. 당시 사목회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정일 주교는 “이 땅의 복음화 3세기를 향한 좌표 설정이 본 사 목회의의 목표였다.”고 밝히고, “사목회의의 폐막은 새로운 출발이 돼야 하며 한국 교회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로 그 첫발을 내디뎌야 할 것”이라며 의안들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기를 희망했다.

평신도 의안

사목회의의 의안의 제 3권인 평신도 의안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의 신원과 평신도 사도직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면서 이 땅에서 요청되는 바람직한 평신도 상을 정립코자 하였다.(2항)

의안은 먼저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본연의 위치를 인정받고 활동할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풍요로웠고 세계를 향해 발전했던 반면에, 평신도가 교회의 본질적 요인에서 탈락되어 부수적인 것같이 취급되었을 때는 교회가 외형상 아무리 화려하게 나타났다 해도 조만간 쇠퇴의 길을 걸어야 할 수명을 자체 내에 배태하였다.”(4항)고 지적하면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 안에서 평신도 본연의 위치를

제시하고자 했다.

의안은 공의회 문헌에 따라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 성원은 그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같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는 다 같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평신도는 성직자나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하느님 백성의 일원”(8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신도의 삼중 사명

의안은 평신도 신원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입각하여 평신도들도 각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평신도의 사제직(일반 사제직)은 “성직자의 직무 사제직과는 그 정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나,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각각 독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한다.”(14항) 평신도는 무엇보다도 “성사들의 배령과 기도와 감사와 성스러운 생활의 증거와 자아 포기와 행동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로써”이 사제직을 수행하며, 이 사제직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서든지 성스러운 예배자로서 세상 자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15항)

평신도들은 또 복음의 힘이 가정과 사회에서 그들의 일상 생활 중에 드러나게 하는 실천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예언직을 수행한다. 평신도 예언직의 독특성은 특히 “복음의 선포, 즉 생활의 증거와 말로써 평신도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일반 상황 중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16항) 있다.

그뿐 아니라 평신도들은 “자아포기와 성스러운 생활로써 죄의 지배를 이기고, 그리스도께 봉사하여 겸손과 인내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 왕께로 인도함으로써 왕직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7항)

평신도 사도직

교회 창립의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왕국을 온 땅에 확장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든 활동을 통틀어 ‘사도직’이라고 한다. 따라서 세례와 견진을 통해 그리스도 신자가 된 모든 이들은,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할 것 없이, 각자의 신분과 조 건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한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고 있지만, 특별히 평신도에게는 또한 평신도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것은 곧 ‘세속적 성격’이다. 사실 세속에 살고 있는 평신도들은 그 속에서부터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며 특히 믿음과 바램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31항)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세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의도를 따라 실현되고 성장되며 세상 만사가 창조주와 구세주께 대한 찬미가 되도록 현세의 모든 것을 비추고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에게 부과된 사명이다.”(의안 24항)

이렇게 볼 때 평신도는 이중의 사도직을 수행한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성직자를 도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협력하는 일과 세속 안에서 실생활의 증거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이다.

이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평신도는 성직자로부터 “교회의 영적인 부,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의 도움을 풍성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31항) 평신도는 또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와 교사로서 제정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32항)

이와 함께 목자는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지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향상시켜야 하며 평신도의 현명한 의견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자와 평신도간의 건설적 대화와 친교가 요청된다. 신자와 목자가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만인 앞에 또 모든 시대에 땅 극변까지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34-35항)

이제 우리 평신도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이러한 정신에 따라 지난 삶을 반성하고, 대희년을 계기로 새로이 거듭나 새 천년기의 새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사도직을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먼저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자 한다.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이후의 환경변화와 우리의 반성

환경변화

올해로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가 끝난지 만 15 년 이 지났다. 지난 15년 동안 교회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선교·사목 환경은 지난 시기와 다른 불연속적 측면을 지니는 요소들이 적지 않았다. 다음의 것들은 지난 시기의 변화를 가리키는 주요 지표들이다.

도시화와 그에 따른 현상들

지난 15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80년대의 연장선에서 도시화가 심화되었다. 신자 인구가 계속해서 도시로 집중되었고, 농어촌교회의 공동화도 더욱 심화되었다. 가톨릭 신자들의 도시집중현상

은 한국사회의 도시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1995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가톨릭 신자 중 도시 신자 비율이 86%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1995년의 전국 인구 중 도시 인구비율 74.4%를 크게 앞지른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급속한 도시화는 본당이 양적으로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전국 본당의 평균 신자수가 3천 명을 넘어섰고, 대도시는 5천 명, 서울은 6천 명에 이르렀으며, 7천 명을 넘는 본당만도 전체의 4분의 1인 50 개소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약화되었고, 공동체의식도 크게 결핍되었다. 본당의 대형화는 사제와 신도들간의 심리적 거리를 낳았고, 신앙의 모범을 찾기 어렵게 되었음은 물론 교회 구성원간의 일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호소하고 있다.

본당과 교구가 비대해지면서 교회행정도 관료화되었다. 사목 대신 관리가 자리잡았고 성직자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강화되었다. 이제 가톨릭 교회의 급속한 양적 성장이 정체되면서, 과거 성장 신화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동안 소홀했던 질적 성숙을 위해 내적 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도 점차 커지고 있다.

도시화와 함께 중산층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97년 경제위기를 통하여 중산층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가톨릭은 여전히 한국 종교 가운데 가장 중산층이 두터운 종교이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 스스로 객관적 계급 지위 면에서 70% 이상이 중산층 이상이고,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면에서도 총인구에 비해 훨씬 높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중산층화는 교회의 자원 동원능력을 높여 급속한 성장에 걸 맞는 대규모의 사업들을 가능케 하였으나, 신앙 공동체를 이익집단화하고 세속화시켰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설 자리를 점차 빼앗고 있다는 비판도 받게 되었다. 중산층 중심의 사목이 될수록 신도들은 자신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소공동체 운동과 신자 재교육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개된 것이 소공동체 운동이다. ‘2000년대 복음화’를 기치로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각 교구에서 소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말씀’과 ‘공동체적 삶’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소공동체는 본당의 대형화와 그에 따른 신자들간의 친교 부재라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소공동체 운동은 이제 지난 시간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신자 재교육은 소공동체 운동과 함께 현재 등장하는 질적 성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냉담율의 증가와 주일 미사 참여율의 감소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돼 현재 한국교회는 교적을 둔 신자의 30%가 냉담자로 분류되고 있고 또 주일 미사 참여율도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예 상되는 사회 변동의 영향을 염두에 둘 때 이같은 부정적인 징후는 계속될 조짐이다. 따라서 신자 재교육은 예방적 차원과 기존에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치료하는 차원에서 핵심 과제가 된다.

여성화와 여성의 참여요구 확대

교회내의 여성신자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전체 가톨릭 신자에 대한 여성신자의 비율이 1970년에 56.5%, 1980년에 57.8%, 1998년에는 59.2%로 점차 높아졌다. 이는 통계 수치일 뿐 도시 지역일수록 활동 신자와 수계 신자들 가운데 여성신자의 비율은 80% 이상이라는 것이 일선 사목자들의 의견이다. 여성 신자들은 남성 신자들과 비교할 때 미사·고해성사·기도회 등 공식적인 의례에 대한 참여, 교회 단체나 구역·반 모임 등, 지역 교회의 다른 일상적인 종교적 기능 수행 참여 면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사목 위원의 비율, 여성신자들에 대한 신앙 상담 등 여성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는 크게 미흡하다. 여성의 교회 직무 참여는 여전히 일반사회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교회 유지의 기본 기능과 선교의 최선봉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회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위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성체 분배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본당 사목협의회장, 교구 단체의 장 및 임원도 거의 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구역장이나 반장직은 여성이 담당한다. 중요한 직책이나 제대에서 가까운 직책에 여성 참여는 현저하게 적은 반면, 힘들고 권한이 없는 자리는 여성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 교회내 여성의 지위 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미미한 형편이다.

신자 증가의 정체와 고령화

1990년대 들어 국내의 다른 종교들은 근소한 감소 또는 정체 현상을 보인데 반해 한국 천주교회는 근소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신자들의 결속력 약화와 소속감의 상실로 내부의 붕괴현상도 이에 못지 않게 빨리 진행되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8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다행히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 교회적으로 선교 열기가 뜨거워졌다. “잃은 양 찾기”, “새 양 찾기”, 가두 선교, 방문 선교 등 전 교회적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지난 몇 년동안 고조되어 왔고, 그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내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탈자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새로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놓을 것인가는 중요 한사목 과제로 제기된다.

1990년대 전반기 4년간의 연평균 신자증가율은 5.3%로, 1980년대 7.7%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

다. 전체 신자 수에 대한 연평균 영세자수도 1980년대 8.1%에서 1990년대에는 5.7%로 떨어졌다. 더욱이 영세자중 청소년층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총인구와 가톨릭 인구 전체를 비교해볼 때, 가톨릭 신자의 경우 청년층은 크게 준 반면 장년층과 노인층은 크게 늘었다. 2000년대 초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 단계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가톨릭 신자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교회의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 차원의 준비와 사목상의 대비가 절실히 요청된다.

다원중첩적인 신앙 구조와 토착화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한국의 종교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원중첩적인 신앙구조를 가지고 있다. 천주교 신자들은 여전히 개신교인 보다는 다소 높게, 불교인 보다는 다소 적게, 유교와 불교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지난 15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자기 신앙에 대한 충실성과 실생활에서 자신의 신앙을 강조하는 정도는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내부붕괴와 이탈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사회 참여의 감소와 사회적 위신의 하락

교회의 대 사회적 역할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 한 노력에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웠다. 1980년대 말에 교회가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의 갈등양 상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이후 진보진영은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교회 전반은 보수화되어 교회의 사회적 실천이 8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후퇴하였다.

긍정적인 것은 통일과 관련하여 주교회의가 1992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통일 후에 반드시 필요한 통일 기금 을 교구별로 마련하되, 교구 예산의 3% 정도를 매년 비 축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또한 통일을 위한 범국민 운동과 독자적인 대사회적 행동을 수행해나간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인도적이고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고, 여러 측면에서 침묵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새로운 천년대의 과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형식적 민주화에 따라 시민영역의 팽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나, 시민 사회의 주요 구성 부문인 가톨릭 교회의 역할은 종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미흡하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민주화와 개혁조치가 형식적이고 철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교회는 국가와의 비판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해 왔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적 권위는 계속 약화되고 있다.

사회참여는 교회의 사회적 위신을 높이는 중요한 몫 을 하였고, 성인 입교자 증가의 배경이 되었

다. 지난 30년간의 성인 영세자 추세를 분석해 보면, 사회 참여는 교회 성장의 전인차였다. 사회참여를 열심히하지 않았던 교구보다 열심히 했던 교구에서 성인영세자가 더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아도 성인 영세자는 사회참여가 절정을 이루었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걸쳐서 크게 증가했다가 그 후에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참여는 교회 안에서 공개적인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크게 기여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 교리의 관심 영역에 대해 교회가 보여온 무관심이다. 여전히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지원없이 일부 사제와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사회 복지 영역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수도회나 선교회가 맡고 있고, 교구의 차원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본당 예산의 10%를 사용하자는 결의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자들도 전통적인 교리와 사회 교리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어, 한국 천주교회는 이러한 이해와 태도를 개선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회의 미디어 활용

그 동안 교회의 미디어 활용은 현저하게 확산되었다. 라디오 방송에 이어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 영역인 인터넷을 이용하는 법인 설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미디어 활용은 낮은 제작비와 제작 담당자들의 전문능력 부족, 선교 대상에 대한 인식 부족, 구태의연한 미디어 이해 등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정보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의 축적이 미흡하다. 정보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 정보생산은 정보 사회에의 적응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에 대한 교회 전반의 인식부족과 투자의 미흡은 선교에 유용하고,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성의 탄생을 지연시키고 있다. 앞으로 한국 천주교회는 토착화와 한국 사회 안에서 높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학문과 교회내 다양한 연구사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교간 대화와 협력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개신교와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키워왔다. 종교다원주의 사회인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협의회 수준의 활동에 그쳤을 뿐, 종교간의 진지한 대화와 갈라진 형제들간의 일치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한국의 소수 종파들만이 대화에 열심일 뿐 기존의 대종교인 가톨릭, 개신교, 불교는 소극적이다. 대화의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도 통일, 환경, 사회 문제에 대한 도덕적 접근 노력에는 활발한 협력을 해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협력 사업을 넘어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창조질서의 보전과 생명수호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괄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지난 시간 동안 창조질서의 보전과 생명 수호를 위해 보인 우리의 노력이다. 전지구적으로 확장된 지구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도 급속하게 전 파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간의 땅과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생명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교회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다. 성개방 풍조와 윤리 도덕적 가치에 대한 경시는 결국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와 교회의 역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위기에 빠졌고, 급기야는 금융·외환위기가 돌출되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국제 금융 기구의 긴급구제금융을 받는 사태에 이르렀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한반도에 몰아닥친 구제금융사태로 국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의 실업자군과 변동리 계층이 발생하였다. 교회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 해왔으나, 근원적인 해결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제역할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21세기는 초문화적 교류와 접촉이 커져 자기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정체성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문화에 대한 관심도 이전 시대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스페이스로 대변되는 정보사회는 교회가 이에 걸맞는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학적으로도 급격한 문화의 산업화(industrialization of culture)에 걸맞는 문화신학·토착화신학, 창조질서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환경신학,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생명 옹호신학(pro-life theology), 이웃의 범위를 지구 전체로 확대하여 걸맞는 영성을 발전시키는 지구신학, 지구적 영성의 고양, 여성운동의 발전에 대응하는 여성신 학, 전세계의 유일 지배세력으로 성장한 초국적기업의 행태와 빈부격차 확대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성찰하는 경제신학 등 수많은 성찰의 주제들이 새로운 신학적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반성: 200주년 사목회의 이후의 신자생활 반성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의 평신도 의안에서는 전례생활과 개인생활(55~56항), 극복해야 할 개인주의적 신앙생활(57항), 사회생활의 성화(59항),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63항), 그리스도교의 갈라진 교회(87항), 평신도와 성직자·수도자의 관계(68~73항), 개인적 사도직·조직적 사도직의 반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면 이후 1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소극적 전례참여와 세상과의 일치노력 부족

평신도 의안은 신자들이 전례 특히 미사 성제의 교회적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공동체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 신심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려고 하면서도 세상과의 일치는 게을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56~57항).

부끄럽지만 지난 시간동안 이러한 반성에 대한 실천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다. 여전히 많은 신자들은 형식적·습관적으로 전례에 참여하고 있고, 개인 신심의 행위로 전례를 이해하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신자들간의 불일치와 실제 생활에서 보이는 신자답지 않은 모습에서 드러난다. 또한 세상과의 일치 노력도 우리의 대사회적 관심의 소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모습만으로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평신도 의안은 신자들이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다”(57항)고 반성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우리 생활에서 달라진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교회의 증산증화와 이로 말미암은 신자집단의 지위집단화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주의·이기주의가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달라진 것은 적은 반면, 문제는 확대된 것이다.

편협한 선교관

평신도 의안은 평신도의 고유 임무를 대인 선교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리도교적인 사회질서를 건설하는 데까지 지평을 확장하였다. 아울러 평신도들은 사회 구원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파악하거나 반대로 영적인 사도직보다 사회적 사도직이 더 우선한다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평신도의안 61~62항)

그런데 우리 생활을 반성해보면 여전히 이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구원은 여전히 개인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80년대 후반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철저한 정교 분리론과 성숙 이원론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교회의 대사회적 관심이 신도들 스스로에 의해 차단되고, 사회적 사도직을 위한 자발적 신도 단체들이 많은 신자들의 무관심으로 그 활력이 줄어드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정체성의 결여에서 나오는 그릇된 관용

우리 교회는 타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 것도 배척하지 않고(평신도의안 63항), 민간 신앙도 적절히 선도된다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평신도의안 68항). 그런

데 우리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종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배우려는 자세 없이 타종교의 장점에만 끌려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의 종교 전통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태도가 진정한 관용일 수는 결코 없다. 대화의 상대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신앙을 복음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민간 신앙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톨릭 신앙의 기복화(祈福化) 현상이 더 많이 목격되고 있다. 이미 뿌리 없이 전통에 무분별하게 타협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노력만이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스도교의 재일치 노력 부족

갈라진 교회에 대한 노력 역시 충분했다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교의 일치는 신학적 대화나 신자들의 상호 협조로 이루어야 하는 것(평신도 의안 67항)이나, 갈라진 형제들의 우리에게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우리의 무관심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인 사안에 관하여 갈라진 형제들과 협력하는 일은 꾸준히 해왔으나, 구체적인 대화 노력이나 신학적인 교류는 제 한된 일부 그것도 사제들이 주도하고 있을 뿐 신자들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신원간의 불일치 증가

교회 안의 세 신원들간의 관계는 마치 하느님이 삼 위를 가지셨지만 대화와 사귀를 통하여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듯, 진정한 대화와 사귀를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의 일치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한다(평신도의의안 68~73항). 그러나 지난 시간 이런 대화와 사귀를 통한 일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더 심화되기도 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진정한 대화와 사귀를 통한 일치가 무엇인지를 모색하여 이를 교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지시킨 바 있다. 진정한 대화와 사귀는 각자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 서로의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서로에게 요구하는 모습만을 적잖이 보여왔으며, 그 현상은 지금도 엄존하고 있다.

가정 사도직의 소홀

평신도 사도직의 한 축이 개인 사도직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정 사도직은 일차적인 것이다. 가정을 복음선교 공동체, 하느님과 대화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평신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평신도 의안 80~89항). 그런데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신자 가정에서조차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아왔다. 날로 늘어가는 생명경시풍조와 이 과정에서

서 나타나는 낙태, 안락사 등의 수용은 신자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이혼은 비종교인에 비하여 적었으나, 과거에 비하면 이혼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가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넓은 의미의 가족인 이웃들에 대한 관심도 소홀한 형편이다.

조직적 사도직의 결여

평신도 사도직의 또 하나의 축이 조직적 사도직이다. 현세 질서의 복음화는 조직화된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신도들의 조직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평신도의안 90~95항). 이것이 이른바 조직적 사도직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들의 자발적인 단체들은 교회 당국의 위임을 받은 것이든 아니든 전체 신자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사회 성화를 위한 조직적 사도직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훨씬 더 줄어든다. 대체로 이들 사도직 단체들은 재정난과 교회의 간섭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들의 비협조와 무관심, 심지어는 반대하는 태도가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200주년 이후 우리가 살아온 모습은 부끄럽게도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의 반성을 조금도 넘어서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지난 시대의 사목적 난제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도전들을 제기해 오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들 제자리를 찾아야 할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 제 더 큰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그리고 평신도 영성에 굳건하게 뿌리를 두면서 내적 쇄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200주년 기념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제안 사항의 실천과 평가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는 “신앙의 원리 원칙에 충실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목표와 방법을 검토하여 한국교회의 참된 성숙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의안의 목적)을 첫번째 목표로 삼았고, 나온 결과도 “한국 천주교회가 내놓은 공식 의안”이었다. 전 교회 구성원이 일치 협력하여 교회의 현실을 성찰하고, 이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교회상을 건설하기 위한 시도였다.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이후 우리는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의안의 내용들을 수용하면서도 변화된 환경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과제들을 더 보완하여 한국교회 쇄신의 현장으로 삼았어야 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세계 교회가 쇄신되는 기회를 마련하고 쇄신의 잣대가 되었듯이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는 우리 교회가 민족의 교회로 나아가고 아시아 교회의 구심점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명실상부한 길잡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했다.

이 의안에서 제시된 실천사항들은 이후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실제 성과로 나타난 긍정적인 측

면들과 아울러 미흡했던 과제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사목회의 이후의 긍정적인 성과

의안의 제안사항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제안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회 직무에 평신도의 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주교회의 차원에 서 평신도위원회를 둔 것이나 일부 교구에 평신도 사목국을 신설한 것, 평신도들이 성찬봉사자로서 성체 분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교구마다 반구역장 학교나 신앙학교, 성서학교 개설, 교리신학원 운영 등을 통해 평신도 재교육이나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어느 정도 노력해 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평신도들의 신원 의식이 높아진 것이다. 물론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평협을 비롯하여 교구 평협은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3년간 평신도 제자리 찾기에서 평신도 대회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 동안의 평협운동사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천년대에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목회의 이후의 불충분한 성과

그러나 도농간에 나눔 실천(도농간 격차의 해소),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회의 문호 개방, 의료시설을 포함한 교회시설의 지역 사회 개방, 본당 사목협의회에 여성의 적극적 참여, 본당·교구 및 전국 차원에서 평신도의 교회 주요 결정에 완전한 참여, 평신도 선교사 양성, 조직적 사도직의 고무를 위한 지도신부 협의회 조직, 외국에서 도입된 사도직 단체나 신심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의 한국화, 평신도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각종 인력 개발을 위한 인적 및 물적 투자 확대 등의 요구는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

긍정적인 성과들도 적지 않았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들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후 평신도 사도직과 교회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의안에서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던 다음의 계획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게 되기를 희망한다.

계승해야 할 과제와 권고

평신도 의안은 평신도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문연구기관의 설치에 교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개별 평신도들이나 평신도 단체의 자발적인 연구기관만이 있을 뿐이다. 평신도 사도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치를 거듭 제안하며, 주교회의 평신도위원회도 전담 실무자가 배치되어 합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사도직 단체들도 적극 육성해 주기를 기대한다.

평협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이지만, 자격이 있는 평신도들을 교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평신도 의안 105, 106항). 특히 평신도의 전문지식이 긴요한 분야에 있어서 평신도가 중요한 지위를 맡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본당, 교구, 전국 차원에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 들간의 종적 및 횡적인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중앙 조직의 재정비를 포함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평협은 지난해 평협 진단 세미나에서 교회법적으로 모호한 평협의 성격이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교구사목 협의회(평의회)도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인 통일을 우리 교회의 최대 사목의 과제로 삼게 되기를 희망한다.

평신도 의안이 우리 교회에 가졌던 의미들을 상기하면서, 또한 지난 시간 동안 평신도들 이 본연의 책임 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대희년을 앞두고 자 신의 삶을 겸허히 반성해 보기를 촉구한다.

삼천년기의 문턱을 넘어, 새로운 천년 대로

교황교서 『삼천년기』의 권고에 따른 우리의 반성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과 우리의 가르침을 혼합하거나, 날로 거세지는 세속주의와 타협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특히나 종교가 한국 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유독 강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신자들은 타종교 가운데 유교적 성향을 가장 많이, 그 다음으로 불교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일상적인 신앙 실천 가운데서 신자들이 혼합적인 신앙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보다는, 종교적 스승이나 마음의 종교로 믿는 경향이 강하고, 일상 안 에서 여러 종교의 사고방식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성향을 보인다. 또한 사이비 신심에 쉽게 기울거나, 다른 신흥종교에 쉽게 이끌리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복주의와 반지성주의에 기울어 참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세속주의도 심각하다. 우리 생활에서 물질적인 성공이 지상의 가치가 된지 오래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여가 생활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도 약 화되었다.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거룩함에 대한 관심 대신 세속주의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이데올로기들의 혼합에 불과한 것이 되었고, 급기야는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도 상대화되어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세속주의를 거슬러 하느님의 우선성과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 더욱 열성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새로운 천년대의 문턱에서 서둘러야 할 일은 지난 시대에 우리가 타종교인들, 동시대의 비그리스도인들과 일치하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그들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다. 세계 교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교회사에서 경험한 것처럼 비그리스도인들을 노예화하여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갈라진 형제들과 반목하며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전쟁을 치르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선교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선교할 정도의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복음이 최선의 진리라는 사실을 생활에서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확신의 바탕 위에 타인의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갈라진 형제들과의 재일치를 위한 기도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희년은 재산을 잃고 인격적 자유마저 상실한 가정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평등성을 회복하는 해이다. 다른 한편으로, 희년은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이스라엘인 노예들이 다시 한 번 자신들과 평등하게 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해이다.(제삼천년기, 13항) 희년의 본 뜻에 비추어보면, 교회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이고, 하느님에 가까운 것이다.

이 세계는 각종 불평등으로 갈리어 있고,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인류의 일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교회에 정의와 평화에 대한 투신을 촉구하고 있다. 대희년을 계기로 선진국들의 후진국에 대한 외채탕감이나 『지상의 평화』에서부터 강조해온 후진국에 대한 조건없는 원조는 하느님이 우리 시대에 제기하는 정의의 요청이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 이데올로기, 국가의 이익,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이유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지난 시대보다 갈등이 훨씬 더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평화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는 수없이 다양한 아레오파고스가 형성되고 있다(제삼천년기, 57항). 우리는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소통양식과 이의 영향을 받는 존재 양식의 출현과 지구적인 통일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문화 현상들도 목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급격한 변동기에 청 소년들은 주류 문화를 거슬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문화는 반종교적이고, 반전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질문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분을 찾기를 계속”(제삼천년기, 58항)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우리의 다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진리를 멀리하고 세속과 손쉽게 타협하며 살아왔던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돌아서고 자(metanoia) 한다. 우리는 손쉽게 거짓의 유혹에 넘어 가고, 불의한 타협의 요구에 쉽게 무릎을 꿇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웃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웃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신자라고는 하지만 신자답지 않은 생활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개인 생활에서도 현세적 복리만을 추구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기에,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좁게는 이웃, 넓게는 인류를 위한 관심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날로 가정이 중요해지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교회의 경우 미래의 성장은 상당 부분 가정의 복음화에 좌우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자녀들의 신앙교육, 아직 입교하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매우 절실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요구들이 커지고 있음에도 가정에서 신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보다는 출세를 더 강조하며, 비신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은 신자 가정조차도 가정폭력, 생명경시, 애정없는 부부, 사랑없는 부모와 자식관계 등으로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자 가정은 이 세상의 다른 가정들보다 앞서 부부간의 섬김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 가정은 신앙으로 일치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갈수록 확산되는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의 문화를 가꾸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집안 교회’인 가정이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도록 가정성화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더욱 관심과 열정을 쏟고자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출발한 이 사랑을 사회로 연결하여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로 사랑하여라’는 사랑의 새 계명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족주의를 벗어나 모든 이를 나의 가족으로 품는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각 신원이 모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협은 1996년 11월부터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는 정신으로 교회 쇄신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신원이 각자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 보고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 운동이 성직자, 수도자들 모두에게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진정한 제자리 찾기는 ‘우리 가 교회’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저마다의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협력함으로써 구체화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평협은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의 시기를 넘어 질적 성숙의 시기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내적 쇄신

과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여러 차례 주교회회의에 건의를 통해 평협은 평신도가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에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평신도 대표와 수도회 장상들이 주교회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거나, 교구 사목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평신도들의 의견을 사목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당 사목협의회도 단순히 자문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협은 이를 위해 단순히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자체 진단(1998.5~10)으로부터 시작해 교회전체가 쇠신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얻게 된 것이 평신도 스스로가 제자리를 찾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 줄 때만이 쇠신이 촉진된다는 결론이었다. 평협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 동안 쇠신에 장애가 되어 온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성직자들의 권위주의와 행정관료화되는 모습이였다. 평협은 교회 안의 모든 권위는 봉사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직자를 포함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권위를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목자는 관리자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사목자가 되어야 하고, 수도자 역시 이름 그대로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제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봉사와 섬기는 자세로 사회적 위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교회 안의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나 개인에서 출발하여 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적 쇠신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다른 이들의 권리도 합당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새로운 관심으로 성서를 읽고 세례를 새로이 인식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증거의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사회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최대의 사명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이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 반세기 동안 반목과 질시, 대결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여전히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향과 친지를 잃고 반세기 이상 떨어져 살던 세대들이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음에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가족 상봉이나 인적 교류는 정치논리에 밀려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보다 이데올로기를,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부와 안락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보다 분단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남한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분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역간에 놓인 높은 감정

의 벽 역시 분단만큼이나 오래 지속되어 왔다. 또한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도 계속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분열과 갈등을 초월하여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형제와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갈수록 이 세계가 소수민족과 소수언어, 소수문화들에 대해 배려하는마음이 줄어드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소득분배의 격차로 인하여 형성된 차별적인 문화도 우리에게 추문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경제적으로 특권을 가진 이들이 사회의 다른 권위들도 독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지구상의 지배적인 소수국가들이 다수국가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이들의 문화를 업신여기는 현상도 우리 시대의 커다란 추문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는 강자의 문화만이 득세하고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과 약자의 문화는 배격당하고 있는 까닭이다.

“문화는 인간의 이성적 내지 사회적 성격에서 직접 기인되는 것이므로 자체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자유와 함께 고유의 원리를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요 구한다. 따라서 문화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며, 공동선 의 한계 내에서 개인의 권리와 개별 단체나 일반 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 일종의 불가침의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사목헌장, 59항). 이를 위해 우리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요청에 따라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조건 등의 차별없이, 인격 존엄성에 부합하는 문화에 대한 만인의 권리가, 경제면에서나 정치면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세계 어디서나 인정되고 실현되게 하는 기본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항구히 노력”(사목헌장 60항)하고자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우리는 지구적 차원을 포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시아는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의 모태였으며, 인류와 우주의 의미와 운명에 대해 알고 싶어한 아시아 민족들의 오랜 추구의 결과로서 생겨난 위대한 종교들의 신전”(아시아 주교회의 의제 개 요, 2항)이자, “종교의 다원성은 아시아에서 계속되어 온 역사적 현실”이며, “가끔 종교간의 긴장과 전쟁도 있었지만, 아시아는 폭넓은 종교적 관용과 평화로운 공존을 유지”(의제개요, 3항)해온 대륙이다. 또한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은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실용적 경제 정책을 통한 발전 도상에 있다.… 그 밖의 나라들은 발전영역에서 운이 따르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일부로 남아 있다.”(의제개요, 5항).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의 악순환 과 내란, 국가간의 긴장과 전쟁으로 일부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아시아 주교회의 특별 총회 메시지, 6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 대륙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받고 있는 아시아 민족들 가운데 이미 현존하고 있으므로”(아시아 주교회의 특별총회 메시지, 7항), 이러한 요청들에 적극 응답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스승의 모범을 따라 모든 복음화 활동에서 ‘인간 해방과 증진’에 투신하고 있다. “이 복음화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아직도 비인간적인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의 현실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빈곤은 아시아의 현실 가운데 하나이다.”(의제개요, 33항). 이 빈곤의 극복이야말로 아시아 대륙과 아시아 다른 지역교회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이다. 또한 종교간의 대화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종교들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혼합주의나 절충주의에 빠지거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상대화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이다(의제개요, 33항).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천년대의 모습은 교회의 희년 선포의 정신과는 다르게 극심한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20 : 80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냉전의 해체와 이로 말미암은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화는 이 세계의 주변화된 민족들과 국가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가난 한 나라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불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의한 세계에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가난한 나라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이 임무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자활을 도우며,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주변화된 민족과 나라들을 돕는 정의평화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 임무가 하느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충실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인류의 공동 운명체성이 강조되는 하나의 행성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개별국가 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운명이 되어가 고 있다. 지구 생태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환경 오염의 문제는 모든 인류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게 공동선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욕구를 줄이고, 현실적으로 소비의 수 준을 조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제 창조 질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임무(창세 1, 28)를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 임 무를 다하기 위해 새로운 천 년대에도 창조 질서의 보전 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호소와 기도

우리는 평신도 대회를 계기로, 대희년의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천년대 새 복음화

의 사도로 나서기로 결심하고, 이 땅의 모든 평신도들과 함께 새로운 천년대로 나아가기로 결의하면서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한다.

먼저 우리는 성직자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우리는 교회의 쇄신이 성직자의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28)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요한 15,15)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성직자들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으로써 참된 목자로 거듭 나누어야 할 것이다.

수도자들에게도 호소한다. 수도자들은 본연의 신원 과 창립자의 카리스마로 돌아가 교회의 영적 활력소가 돼주어야 할 것이다. 수도자들은 봉헌생활의 기본 가치 인 가난·정결·순명·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다른 신원과 다른 면모들을 더 많이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고,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게 내적 쇄신과 기도 생활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자들은 우리 평신도들의 영성생활의 지침이 되고, 교회에는 영적 보화를 풍요롭게 하는 복된 신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선의의 모든 이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의와 평화의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과 자유가 충만한 세상을 꿈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됨을 선포하고,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선의의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참 희망 안으로 초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하느님 나라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영적 여정에서 “성령의 힘으로 육화되신 말씀을 잉태하셨고 그 후에는 당신의 전생애가 성령의 내적 활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성령의 소리 에 따라 순종한 여인”이신 마리아를 “고요하고 사려깊은 여인, 아브라함처럼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며’(로마 4, 18 참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던 희망의 여인으로 서 명상하고 그 모범”을 따르고자 한다(제삼천년기, 48항).

또한 우리는 『제삼천년기』에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인류 역사 전체의 열쇠 와 중심과 목적이 스승이신 주님 안에 있으며, 교회는 이 모든 변천 속에도 불변의 것을 간직하고 있고, 그 불변의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제삼천년기, 59항). 아울러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겸손되이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모성적 전구에 의탁”한다(제삼천년 기, 59항).

1999년 10월 21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4·13 총선관련 성명서〉

생명·진리·사랑의 잣대로 투표합시다

1. 모든 가톨릭 시민은 그들 사회에 존재하는 불의의 구조를 찾아내어 항거할 수 있게 하는 분별력 있는 ‘사회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정치활동이 강화되는 시기, 특히 요즘과 같은 총선거 기간에 한층 더 요청됩니다. 가톨릭사회교리의 일반 원칙과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는 ‘양심성찰’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⁴⁹⁶⁾ 따라서 이번 4·13 총선거에 임하는 우리 유권자들은 ‘진리의 광채’⁴⁹⁷⁾가 제시하는 ‘양심’⁴⁹⁸⁾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는 2000년 대희년(大禧年)에 맞이한 올해의 사순(四旬) 시기를 시작하면서 한국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는 제하의 총선 관련 담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진리·사랑’의 가치기준에 따라 투표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2. 이번 사순시기는 회개와 은총, 탁월한 자비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고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⁴⁹⁹⁾ 무엇보다 오는 13일로 다가 온 총선거를 제대로 치름으로써 우리 민족이 한 단계 높은 성숙한 민주역량을 보이는 가운데 회개와 은총의 특별한 시기를 합당하게 살고, 이로써 하느님과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새 천년 첫 선거’라는 의미와 관계없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하고 불법이 난무하며 비리가 횡행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깨끗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시해서 선거혁명을 이룩해 내겠다던 당초의 의지는 온데 간데 없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석이라도 더 많이 당선시키고 보자는 ‘승리욕’만 보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유권자의 올바른 의식과 판단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3. 유권자가 투표할 때 알아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각 후보자의 태도와 인격입니다.

496) 잉글랜드 웨일즈 가톨릭 주교회의 성명서 ‘공동선과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1996.10) 41항 참조

497) 교회 윤리의 기초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들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진리의 광채’(1993)

498) ‘진리의 광채’ 57항-61항 참조.

49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000년 사순시기 담화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1,4항 참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을 알아보고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이 투표하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일할 최고의 일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 발표하는 문제들만이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까지 유권자를 대신해서 판단할 최적임자라고 확신할 때 그에게 투표할 것을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⁵⁰⁰⁾

혼탁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다행스런 일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가 후보자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세 번이나 문제 정치인 명단을 발표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병역과 납세실적을 상세히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과 기록까지 유권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주요 원천의 하나인 자연법에 근거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간 백 수십만 명의 태아가 불법으로 생명을 잃는 등 ‘죽음의 문화’가 번져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느 피조물보다도 존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사람, 태아에서부터 장애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존중하고, 자신 뿐 아니라 남의 인군, 특히 가난하고 소외 받는 이들, 북한 동포의 인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국정에 임하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5.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일이며, 재물에 현혹되지 않고 정직한 정치인인지도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후보를 선택하고,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후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후보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후보자가 바른 정치인입니다. 이 당, 저 당을 수시로 넘나들며 지조 없이 처신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함부로 말을 바꾸는 정치인을 경계하면서,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6. 지역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다시 동서로 갈라져 불복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역감정에 호소하거나 지역사업 공약을 남발하기보다 국제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민족의 미래를 조망하는 폭넓은 안목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 자신이 지역감정을 배격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가지면서 객관적 진리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500) 잉글랜드 웨일즈 가톨릭 주교회의 성명서 ‘공동선과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1996.10) 63항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 진리와 양심에 바탕을 둔 올바른 의식에는 정의로운 행동이 따라야 하고, 우리 모두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최선의 후보자가 없다고 해서 참정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차선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최악의 결과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8. 가톨릭 사회교리는 실천해도 그만, 실천하지 않아도 그만인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신자들에게 이 교리를 따르도록 격려하는 까닭은 죄와 그 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우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⁵⁰¹⁾ 선거가 이웃을 갈라놓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생명과 승리의 부활 대축일을 열흘 앞두고 실시되는 4·13 총선거가 참으로 국가적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짐, 몸가짐으로 투표장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의 계명을 영원히 살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침묵한다면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말을 한다면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잘못을 고쳐준다면 사랑으로 고쳐주십시오.

용서한다면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 속에 늘 사랑의 뿌리를 간직하십시오.

그 뿌리에서는 선한 행동만 나올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권고’ 끝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자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투표장으로 나가십시오.”

2000년 4월 6일, 사순 제4주간 목요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501) 잉글랜드 웨일즈 가톨릭 주교회의 성명서 ‘공동선과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1996.10) 42항 참조

새천년 한국 평신도의 반성과 다짐

1. 2000년 대희년을 맞아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씨앗으로 이 땅에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해 온 선교사들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한국교회는 신자 수 4백만 명을 헤아릴 만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른 한쪽인 북녘에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영웅적인 신자들이 적지 않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민족과 아시아의 복음화를 수행하도록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하느님의 새로운 은총임을 확신합니다.
3. 새 천년, 우리의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민족과 함께 나누며 살지 못했음을 깊이 뉘우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일치를 실천하기 보다는 미움과 분열의 빌미를 키웠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기 보다는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사회에 봉사하기보다 교회 자체의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진정한 천교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4. 이 밖에도 우리는 각자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하겠습니다.
5. 이제 우리는 선교야말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봉사라는 투철한 의지를 가다듬으며 「새 날 새 삶 운동」 정신으로 새천년 민족의 복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은 그리스도의 새천년기 증인”이 되어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 새로운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 우리는 먼저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을 열심히 하여 자신을 성화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족이 함께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 우리는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적극 투신하여 적어도 한 해에 한 사람 이상 입교시키겠습니다.

- 우리는 해외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수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소외 당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해 자신이 받는 재능을 값있게 쓰겠습니다.
 -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민족이 하나되는 날까지 북한 동포들과의 나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벽과 골을 메우는 일에 적극 나섬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 특별히 오늘 우리는 30년 전 선배 평신도들이 ‘103위 한국 순교복자 시성 운동’과 ‘신유박해 순교자 시복운동’을 시작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시금 마음을 모아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을 기도운동을 제창합니다.
7. 우리는 오늘, 대희년 평신도대회를 계기로 새천년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이 대회를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복되신 성모님께 맡겨 드립니다.

2000년 10월 29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덕성회복 실천 선언문〉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의와 평화가 넘실거리고 사랑이 꽃피는 사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새 천년기와 21세기의 원년을 지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정책은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고 정치인들의 파당적인 정쟁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적 집단적 이기주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는 가난한 서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을 탄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않아도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를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금만능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낙태와 살인, 자살 같은 반생명적 현상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은 국토를 황폐화시켜 마실 물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양심과 도덕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 일그러진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바로잡아야 할 소명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똑바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여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자는 의식 계몽운동이자 생활 실천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는 제힘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존중받으며, 약한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찾아주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는’ 결연한 자세로 “똑바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땅의 4백만 평신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나아가 뜻을 함께 하는 선의의 모든 국민도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모아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도록 ‘똑바로 운동’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에 임하는 우리의 다짐을 밝힙니다.

- 우리는 생각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도 나만큼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동선을 앞세우면서 생각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 우리는 말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바르고 진실한 말, 책임있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즐겨 하고 잘못된 사랑으로 지적하면서도, 비난이나 험담은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행동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행동,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2001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실천지침〉

똑바로 운동은 이렇게 합시다

- 똑바로 운동은 생각(마음)을 똑바로 하는 데서 시작해 행동을 똑바로 하는 데로 이어집니다.
- 똑바로 운동은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나부터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 똑바로 운동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정의의 실현과 공동선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 똑바로 운동은 크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기, 서로 칭찬해주기,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하기, 지하철 등에서 차례 지키기, 휴지나 담배꽂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과 같은 평범한 것부터 마음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합니다.)
- 똑바로 운동의 실천 사항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스스로 실천사항을 정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똑바로 운동은 일회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활화하는 운동입니다.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정해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검합니다. 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가정이나 모임 등에서는 실천사항을 구성원간에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친교와 협동심을 다질 수 있고 서로에게 자극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관이나 단체에서 똑바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체 행사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하나씩 정해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똑바로 운동의 체험은 서로 계속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단체 차원에서 서로 체험을 나누고 격려해 주십시오.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체험 사례[수기] 발굴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이 실천지침은 각 개인이나 단체에서 “똑바로” 운동을 실천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호소문〉

평화의 일꾼이 됩시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수많은 고귀한 인명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을 깊이 애도하며 이 분들이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내며 부상을 당한 수많은 분들도 하루 속히 아픈 상처를 딛고 쾌유하기를 빕니다. 아울러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물론 모든 시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전쟁의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전쟁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 태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에서 흐르고 있는 긴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조짐들이 현실화한다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보다 몇 백배 몇 천배나 더 끔찍한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 성하께서는 전쟁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전 인류가족에게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기도할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주교님들도 성명서를 통해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선의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온 누리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참 평화가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평화의 일꾼으로서 앞장설 것을 결연히 선언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마태 5,9)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평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투신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똑바로 운동’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간절히 청하며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땅의 420만 모든 신자들에게도 아래와 같은 지향으로 함께 기도를 바치면서 평화를 위해 일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칩시다.
-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가족이 함께 가정과 세계평화를 위해 묵주기도 5단을 바칩시다.

- 평화를 위한 지향으로 하루 한 번 이상씩 선행이나 희생을 합시다.

2003년 2월 22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안 된다.’고 소리 높여 외쳐온 인류 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라크는 지금 포탄의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국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워 이번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지탄받아 마땅한 ‘추악한 전쟁’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모든 전쟁에는 ‘악의 군주’가 있게 마련이고, 이번 전쟁 또한 그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며 숨져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이 더 희생돼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이번 전쟁으로 계속될 폭력의 여파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거치면서 더욱 증폭된다는 사실을 전쟁의 역하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전 소식에 모든 일정을 중지한 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교황님과 뜻을 같이해 평화를 위한 기도의 대열에 함께 하면서 이 비극적 전쟁의 즉각 종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신자들에게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쳐주실 것을 당부하며, 젊은 세대를 포함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반전화 평화의 대열에 함께 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전쟁 당사자국들은 폭력의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인 이번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국제사회는 이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합니다.
- 특히 무차별 포격이나 교전으로 무고한 시민과 어린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정한

수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 전쟁의 여파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잇따르지 않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적절히 개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간절히 청하며 모든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매 미사 때나 모임 때에, 또는 순례지에서 이런 지향으로 공동 묵주기도를 바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03년 3월 22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화와 인권, 생명의 문화를 건설합시다〉

북한 핵 실험 사태에 따른 ‘한국천주교 평협’의 호소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신명 30, 19)

1.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즈음하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밝힌 담화의 취지에 공감하며 겨레의 앞날을 심각히 우려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 우리 국토의 비핵화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고, 북한이 이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불행한 일입니다. 핵 무장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북녘 동포에게 재앙을 불러올 따름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남녘 동포와 온 인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희생자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것에 투자할 자원으로 북한 동포들이 더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3. 더욱이 이미 남북이 함께 선언한 바 있는 이 땅의 비핵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일은 우리 겨

레가 화해와 일치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기본이 되는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과 북의 모든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자신의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신 국민들에게 다른 민족들을 향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권위들은 무거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2006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진리 안의 평화’ 13항).

4.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민족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북한동포를 지원해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존엄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참된 인도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30항). 우리의 이러한 지원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에 전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북한 동포 모두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권과 종교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 이 땅의 평화는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과 연대해서 노력할 때 그 성과는 더욱 더 크고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동포와 북녘의 신자들이 평화와 인권, 생명문화 건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세계 각국 그리스도인들과 이웃종교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6. 우리 민족을 특별히 돌봐주시는 성모님께 언제 어디서든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모님의 전구로 인류가 이 근본적인 선인 평화를 더욱 존중하고 이 세상에 평화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함으로써 더욱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2006년 평화의 날 담화 16항).

2006년 10월 14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제1회 평신도의 날 메시지

- 전국평협 황민성 총재주교 -

1968.12.1

천주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넓고 힘있는 단체를 이룩하는 천주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각자는 누구나 다 천주께로부터 오는 신성한 사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세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견진성사를 받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굳 세워진 각 신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밀접히 결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세성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직의 열인 애덕으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늘 “루멘 젠시움” 현장 안에서 성계급(聖階級)보다는 ‘천주님의 백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천주님의 백성 전체가 성계급이 있기 전에 사제적입니다. 즉 교회 전체가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적이고 예언적인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첫 번인 것은 그리스도의 신자 혹은 제자가 되는 성격입니다.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시초에 있어 평신자들의 참으로 눈부시고 자발적인 활동은 이제 말한 ‘천주님의 백성’의 신비가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성계급과 동일시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교회론이 성하게 되자, 평신자의 본래의 자세와 활동이 흐려진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다시 한 번 작용하셨고, 공의회 이후의 교회는 평신자의 빛나는 활동을 되찾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 모든 사태를 고려한다면, 초대 교회보다 더 깊고 넓은 평신자 활동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평신자의 활동범위가 넓어졌을 뿐더러 평신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평신자들은 이제 그들의 활동분야나 방법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신자의 수가 대단히 미약함에도 사방에서 윤리나 정신면에서 너무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갖가지 몹쓸 영향에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씩씩한 길로 이끄는데 평신자의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평신자의 빛나는 활약 없이는 교회가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한다거나 더구나 각 분야에 있어 활동적일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평신자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지금 힘차게 건설되고 있는 이 사회를 그리스도화하며, 그리스도의 사제적 백성의 일원인 우리 각자는 이 사회의 구조나 문화 안에 복음의 씨가 작용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외교인 하나라도 더 많이 그리스도께로 회두시키고 형제적 인류를 만들어 모든 인류를 단합시켜 진정한 평화를 수립하는 과업은 교황을 위시해서 모든 주교와 신부들과 전체 평신자, 즉 사제적 백성에게 오늘날 성신께서 지시하시는 급선무이며 친애하는 우리 평신자 각자가 가슴깊이 명심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업의 실현없이 구령하겠는 생각은 한낱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업은 바로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교회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산 몸의 지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의 활동을 위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어 있을 것이고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살리거나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살아 있는 몸의 지체들은 언제나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몸은 벌써 병들었거나 죽음을 재촉하는 몸입니다.

사제적 백성인 교회 안에서 질서를 놓는 것은 바로 성계급입니다. 따라서 신부를 무시하는 평신자 활동은 있을 수 없고, 주교를 무시한 신부들의 활동도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교황을 무시한 교회 활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좁은 뜻에서 말하는 사제는 평신자들의 두목이며 사제와 평신자가 합일하는 데 더 훌륭한 평신자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각 지체는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핏줄이 필요하듯이 평신자 활동에는 그리스도의 성총을 주는 성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사는 바로 평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총을 얻는 방법을 세우신 성사를 집행하는 사제들입니다.

사제는 ‘천주님의 백성’ 혹은 ‘사제적 백성’의 성사로 되어 있으며, 말과 행동과 성사를 통해 평신자들의 살아있는 표본이며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우리 신자들은 평신자 활동 안에서 유기적인 면과 성사적인 면을 특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제들은 평신자 중에서 선발되며 평신자들을 위해 있는 분들입니다. 천주님의 백성은 사제와 산 입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신 천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배령하기 위해 모이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 흠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평신자 단체 각 멤버는 그 지도신부와 강한 유대를 갖고 활동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며,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양화가 있을진저!”하시는 바울로 사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울리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1회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평신도 사도직의 날입니다. 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에 저와 같은 평신도가 이 강론대에 나서게 된 일을 영광으로 여기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주교님과 본당 신부님께 평신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전국 주교회의에서 한국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협의회 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마다 구세주 대림절 첫 주일을 한국 평신도사도직의 날로 정하여 주심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건의 사항도 인준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한국 가톨릭 평신도사도직 중앙협의회 사목국을 서울 CCK 빌딩 안에 두는 일.

둘째, 교구별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를 조직하는 일.

셋째,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출판하는 일.

넷째, 한국 교회의 간행물인 신문, 잡지, 성서 등을 보급하는 일

다섯째, 필요에 따라 평신도 대표가 성직자 회의에 참석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평신도들에게 맡겨졌으니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의 세계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로 대립되어, 자칫하면 온 세계의 인류를 파멸의 구렁으로 몰아 넣을 무시무시한 수소탄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위기를 없이 하고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5억의 인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1962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세계 각국의 추기경 및 주교님들을 모아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열고(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비롯하여 열여섯 가지의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미사 때에 모국어를 쓰게 되는 등으로 새로운 점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교회 안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주교님이나 본당 신부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세로의 피라밋 형식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로워진 오늘의 교회에 있어서는 주교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본당 신부님과 평신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움직이는 가로의 평면적 조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년 10월에는 103개국의 평신도 대표 3천여명이 로마에 모여 제3차 세계 평신도 대회를 열고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주의 철폐안’을 비롯한 8종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23일 대전에서 전국 평신도사도직 중앙협의회가 결성되고 이 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오늘이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정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평신도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창설자인 이 베드로(승훈)가 그 아버지를 따라 서울을 떠나 북경으로 가던 그 날과 맞먹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1784년에 세워진 이래, 103년 동안에 걸쳐 모직 박해를 거듭 받게 되었는데 그 동안 목자없이 오로지 평신도들의 힘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발전시켜 온 시기가 60년간이나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장하고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지난 번 24위 시복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서양의 모든 교우들은 모름지기 한국의 훌륭한 거룩한 순교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들의 용기가 북돋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온 세계에 자랑할 훌륭한 교회의 역사와 103위의 순교복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자 가운데 11위가 성직자이고 92위가 평신도이며 평신도 가운데 남성이 45위이고 여성이 47위입니다. 이토록 우리 복자 가운데에는 여성이 많다는게 또한 자랑입니다. 이 복자들은 혹독한 박해를 달게 받으면서 전교에 힘쓰고 온갖 정성을 모아 교회를 살리고 성직자를 모셔드리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복자 정 바오로 하상 같은 이는 쟁쟁한 양반집의 귀여운 자제로서 여교우들이 시집을 올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귀중한 은비녀, 은가락지를 모아가지고 우정 하인 행세를 하면서 북경에 아홉번이나 다녀오며, 편지를 멀리 로마 교황께 보내어 우리나라에 독립된 교구를 두게 하고 프랑스 성직자들을 모셔들이며 스스로 성직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을 배우다가 1839년 추석날에 45세의 총각으로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써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한편, 프랑스 성직자들은 그리운 부모 형제들을 생이별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호랑이 굴과 같았던 우리나라에 들어와 50년 동안 방갓을 쓰고 상제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낫설은 이 땅에 퍼다가 거룩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오늘날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큰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숭한 유명 무명의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씨가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평신도들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국 주교회의에서 인준하여 주신 몇 가지의 일을 실천하고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평신도의 것이라고 하신 교황 성하의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 평신도들은 각각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펴며 자발적으로 힘쓰는 한편 서로 단결을 굳게 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들은 누구나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성직자와 미신자와의 사이에 다리 노릇을 하여야 하며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평신도 사도직의 날에 즈음하여 교우 여러분들이 모두 사도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할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거두는 연보는 평신도 사도직의 참고 자료를 출판하기 위한 기금 등으로 쓸 작정이오니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를 바랍니다.

제2회 평신도의 날 메시지

- 전국평협 황민성 총재주교 -

1969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사도직의 온 넓이를 살려 모든 조물계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작업을 추진해 놓았다. 신앙면에서 볼 때 조물계는 그리스도없이 존속할 수도 없지만 충성할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문화생활이나 사회 또는 경제 생활은 신자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자신을 성화하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한 터전이기도 하다.

구별은 분리가 아니다.

물론 영신계는 육신계와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천 생활 안에 이 두가지를 대립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기구나 예전이나 성사는 성스러운 것으로 보고 우리의 직업은 속사(俗事)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도직과 그 활동, 화합, 반성 따위는 영신적인 것이고 우리 직업이나 기업 또는 기술분야는 속적(俗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인즉 기구나 예전도 우리의 생활에서 떠나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바치고 있는 미사와 성체 봉헌도 인간활동의 집결이며 그의 성화가 아니겠는가? 또 미사에서 우리는 하느니르미 사명을 받고 우리의 일터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사도직 활동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개개인을 그들의 사회 경제 조건 안에서 접촉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의 사도직 활동분야는 현세 생활의 모든 문제와 사회적 여건으로 엮어지는 오늘날의 풍토가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영신적인 것은 한정된 오늘날의 사회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사회는 우리가 깨닫든

깨달지 못하든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께로 가야하는 것이다.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진 분이라도 복음의 근본 정신인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지킬 의무를 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날이 갈수록 비극적인 긴장이 계속되는 것이다. 특히 어려운 때 사회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한 것이다.

오늘날, 가장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책임과 각자를 구체적으로 알아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파하는 애덕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며 동시에 진지하고 거룩한 것이다. 더구나 사회생활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졌던가, 그 책임이 요구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구실은 인격을 존중하고 이모저모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힘드는 과업을 동반하다.

지금까지 말한 정의와 사랑과 인격존중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중추적 구실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서는 현세 생활과 직장생활 안에서 사람들의 정의와 애덕과 상호존중으로 서로 대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친히 술선수범 하셨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같은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현대에 알려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직이다.

신앙생활의 이러한 복음적인 요구는 사회 모든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기실, 복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직업생활은 가장 진정한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교회는 앞으로 기술이나 직장생활에서 모범적이고 끝까지 효과적으로 또 영웅적으로 산 분들을 성인 품에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바티칸 공의회가 말하는 사도직

복음에 충실히 산 이 생활은 자체로서 하나의 훌륭한 사도직 이행인 것이다. 이런 생활은 <평신도 사도직>과 <현 세대의 교회> 문헌에 잘 순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공동으로 특히 그룹활동을 통해 영위되어야 전적으로 사도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일정한 반성과 공동작전을 펴가며 영위되어야 복음이 말하는 영신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고 수범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사도들을 모아 놓고 사명도 주셨다. 사회, 경제, 정치적 모든 면에서 사람의 책임이 커지면 그만큼 신자들의 책임도 커지고 무거워진다. 정부나 기타 사회 책임자들도 이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사람은 천주께서 원하시는 인격의 참된 발전회칙 개발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회칙 <백성들의 발전>에서 많이 역설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현세생활 안에서 채워야 하는 영신적 요구이기 때문에 현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 그와 접촉하지 않는 한 이러한 영신 생활은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영신 생활의 필요성

현세 생활 안에서 성덕과 사도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세의 모든 문제를 신자답게 다루어야 한

는 것뿐 아니라 성장하는 사회를 이끌기 위해 계획하고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는 변혁하는 현재 안에 벌써 내포되어 있다. 내일을 바라보는 것은 책임있는 사람의 의무이며 더구나 신자의 본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사람을 그의 영신면과 육체면, 시간성과 영원성을 다 같이 고려에 넣고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나 사회적 입장에서 많은 혼란과 마찰이 생겨나고 있다. 개발 도상에 있는 국가들로서는 경제문제도 크겠지만 정치와 윤리적 혼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양심과 단결은 모든 발전의 터전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인즉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저지될 뿐 아니라 퇴보하고 기술의 발달이 경제면에 가져올 변화는 사람과 그의 자유 또는 존엄성에 많은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다. 기술은 놀랄 만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인간이 이롭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이 인간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이 좀 더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형되는 사회가 그리스도교로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소위 말하는 속세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끼는 가운데 반성하고 예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평신도의 성덕의 새 형태와 아울러 새로운 평신도 신학이 생겨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세상을 그의 인간적인 목표와 영신적인 목표 하에 바라보고 모든 것을 조화있게 이끄는 새 사도직은 반드시 있어야 겠다. “영신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의 구별이 있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단 하나 밖에 없는 계획안에서는 연결되어 있으며 하느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다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 땅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시는 새 창조를 이룩하시기를 원하신다.”(평신도 사도직 교령 5)

이렇게 사회·경제·기술 생활을 인격 향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도시나 그 형태를 구상하는 것, 생활과 일의 조건, 오락과 문화생활 등은 평신도 사도직의 문제들이기도 하다.

제3회 평신도의 날 메시지

— 전국평협 황민성 총재주교 —

1970.11.15

평신자란 말마디는 교회가 인정하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니라는 소극적인 뜻으로 풀이되어 왔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부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그 나름대로 독특한 의의와 직책을 갖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으로서 이 신비체 안에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부서와 책임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없어서는 아니되는 천주님의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평신자 하나하나를 “자신의 역량과 재주와 특은과 교회 안에서의 직책을 살려”(선교 교령 28), 복음전파에 협조해야 한다. 더구나 평신자들은 흔히 말하는 속세 안에서 그들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공동체의 즐거움과 쓰라림을 같이 나누며 정치·경제·생산·문화생활 속으로 깊숙히 파고 들어가 연대적 의무와 책임을 갖고 인간생활의 전반을 그 밑바닥부터 정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실생활 안에 구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특전이며, 따라서 평신자는 교회의 포교전선의 제 일선에서 활약하는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이기도 하다. 군인이 싸움을 회피한다면 승리는 있을 수 없다. “평신도들의 능동적인 현실참여 없이는 복음이 한 민족의 과업이나 생활정신을 깊이 파고 들어가 토착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선교교령 21)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인으로서 복음을 온 세상 구석구석에 퍼는 평신자의 이런 활동은 다양각색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본당 안에서도 신자들의 생활은 가지각색이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서로 협조해 가며 본당의 전교활동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각 평신자는 이렇게 본당에서부터 가장 고귀하고 불가결한 신자의 구실을 이행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 미신자들을 접촉하면서 말과 생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감회시켜 교회로 이끌어야겠다. 개중에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초본당 또는 초교구적으로 평신도 사도직 조직이나 계획을 위해 일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사도직 형태는 온 세상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는 평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적인 굳은 의의를 표시하는 것이라야 한다. 무엇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각 평신자가 자신의 주위환경과 처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깊이 반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자는 누구나 다 천주님 백성의 멤버인 동시에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신앙과 애덕에 찬 봉사를 책임 한계 내에서 양심껏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사명과 그리스도적 소명을 지닌 평신자는 각기 그 지위에 상응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장되어, 사고(思考)의 조화와 통일된 생활 안에서 지상생활의 발전과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어 주기 위한 전교사업에 다같이 협력한다. 개발(開發)이나 계발(啓發)을 위한 노력과 복음전파를 위한 노력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지 대립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화생활이 필요로 하는 물질의 발전은 윤리 수준의 향상을 가져와야 함에도 윤리적 타락을 초래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태를 우리 평신자들은 특히 주시해야 한다. 물질과 개개인의 불안한 생활이 인류를 위해서 깊은 의의와 영구한 가치를 지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평신자들이 좀더 고상한 종교적 목표를 지향하고 살아야 한다. 반면, 복음의 전파는 그리스도의 빛과 은총을 이 세상에 가져오면서 마음과 관습의 개혁을 이룩하고 따라서 좀 더 힘있고 양심적이며 희망에 부푼 앞찬 발전을 이

룩한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사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고 그리스도의 이 과업은 교회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이상 교회의 신자, 즉 천주님의 백성은 욕정과 악에 사로잡힌 모든 이를 해방시켜 형제애와 평화와 좀더 빛나는 세상을 수립하는 길로 전진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발전과 복음화를 놓고 양자 택일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 평신자들은 발전을 위한 봉사와 사람들의 구속사업을 정신과 생활 속에서 좋은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시켜 개발하면서 전교하고, 전교하면서 개발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3회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평신도 사도직의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제가 강론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우리 주교님과 본당 신부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구세주 대림 첫 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치러왔으나 그 날이 바로 우리 교회력의 설날이므로 전국 주교회의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는 그리스도왕 축일의 전 주일인 오늘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박해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의 해마다 동지사를 따라 이승훈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서울을 떠나 멀리 북경으로 가던 바로 그 때쯤에 맞먹는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한 교우들이 모아 주는 정성어린 여비를 받아 가지고 이맘때에 서울을 떠나 죽을 고비를 몇번이나 겪으면서 북경에 거듭 다녀옴으로써 세계 전교 사상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신기하게도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이후 100여년 동안에 걸쳐 박해를 받으면서도 꺾덕없이 교회를 지켜오고 멀리 로마 교황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어 독립된 교구를 설정하게 하고 불란서 성직자들을 불러들여 이 나라를 근대화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혹독한 박해를 무릅쓰고 조물주이신 하느님만을 믿음으로써 온갖 미신을 물리치고 서로 교우라고 불리, 이 때의 엄격한 봉건적 계급제도와 축첩제도를 무너뜨리게 하며, 오로지 한글로 교회 서적들을 만들어 국문 전용운동을 일으키고 외국인 성직자들을 불러들여 어리석은 쇠

국주의의 문화를 개방시키는 일을 일으키며, 서양의 진보된 문화를 받아들여 생활의 개선을 꾀하고 신학생들을 외국에 보내어 서양의 문물제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곧 우리나라를 합리화·민주화·산업화하려는 근대화 운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신교(信敎)의 자유가 전혀 없었던 그 시절에 있어서도 이 나라를 근대화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며 이를 위해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신교(信敎)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오늘의 우리 교우들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62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우리 교회도 크게 새로워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미사 때에 우리말로 된 기도문을 사제와 함께 외우고 성가도 모두 함께부르며 성당 운영의 일도 평신도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 교회는 성직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종래의 피라밋식 체제를 벗어나 성직자를 한 가운데 모시고 평신도들과 성직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움직이는 평면식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평신자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스스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 좋은 표양을 보이는 한편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성직자에게 안내함으로써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신도들은 죄악에 사무친 세속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직자와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말아야 하며, 어지러운 세속 안에 있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전국 평신도사도직 중앙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결하여 전국 주교회의의 인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교구별, 본당별로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모두 결성하여 교세, 교무금, 교회 출판물의 보급의 내가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둘째는 평신도사도직의 날에 연보를 두 번 거두어 그 일부를 교구협의회 및 중앙협의회에 보냄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셋째는 오는 71년 새해의 설날이 네 번째로 맞는 세계 평화의 날이므로 교황 성하께서 정해주신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이다’라는 주제에 따라 이에 알맞는 행사를 교구별, 본당별로 일으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넷째는 교회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섯째는 도시 교회의 연수입의 1%를 가난한 농어촌 교회에 보내도록 권장하는 일입니다.

그 여섯째는 지난 7월 1일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공포하신 <모자보건법> 제장 반대 성명서를 지지하는 평신도중앙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9월 6일자 <가톨릭시보>에 이미 발

표되었습니다.

그 일곱째는 우리 순교자의 자료, 유물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출판하는 일입니다.

그 여덟째는 주한 교황 대사의 요청에 따라 각급 평신도 단체의 활동상황을 그분에게 보고하 여 교황청에 보내도록 협력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평신도들이 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여러분의 협력없이 이룩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들은 누구나 교세, 교무금, 교회 출판물 보급의 배가운동에 앞장을 서 주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가야 할 동안에 하느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재물을 마치 술한 우리 순교자들이 가장 귀중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일에 바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고, 보다 많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시라. “남을 사랑함은 삶의 길이고, 나를 사랑함은 죽음의 길이다.”라는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평신도 모두가 남을 돕는 일에 몸과 마음과 재물로 바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굳게 단결하여 공산주의의 홍계를 쳐이기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거두는 연보는 평신도 사도직운동을 일으키는 기금으로 쓰기로 하였으니,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를 바랍니다.

요망: 이 강론 참고자료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오니, 이 글 가운데서 몇가지만 추려서 말씀하시고 특히 강론하시는 본당의 필요 사항을 말씀하시어 교우들의 동감을 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회 평신도의 날 메시지

- 전국평협 황민성 총재주교 -

1971.11.14

평신도 주일은 평신자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평신자 각 단체, 특히 평신자 협의회 등의 조직을 촉구하고 그 운영이 활기를 띠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평신자들을 통해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현존할 수 있으며 교회의 정신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활력없이 이 사회가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사회는 점점 부패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서 평신자 여러분 각자의 각성을 촉구하며 분발해 주실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제 평신자들이 전세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나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평신자들의 사회참여는 교회 당국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 어떠한 것이라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성문화한 양심 즉 성경을 토대로 가난한 아들에게 봉사한다는 모토 아래 이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장 큰 정의의 실현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재력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각 나라 특히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를 돕는 일, 국제적 연락을 개선해서 생산물을 교환하고 이득과 통화제도를 감시하는 일들에 평신자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힘의 강제로써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용한 타협과 대화를 통해 진취시켜야 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생산의 새 조직이 발견되어 국경을 넘는 경제권이 형성되고 각 국의 공동선을 위해 어떤 국가의 정치세력의 압력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 비오 11세께서 <레룸 노바룸> 회칙 40주년 기념 때 지적하신 경제의 집중적 세력 남용도 배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봉사하고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려면 물욕과 권세욕에서 해방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초인간적인 애덕으로 무장되고 신앙과 기도생활의 철저를 기하지 않고 더구나 이웃을 교회로 이끌지 않으면서 평신자운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은 다음 현사회를 정화하는데 미력이나마 바쳐야 하겠습니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사회의 전반 체제의 균합과 공동선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각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진정하고 완벽한 선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정의를 지키고 공동선을 책임지고 개척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정치계에는 권력투쟁과 금품거래,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특권의식 등이 엿보입니다. 이런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평신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신앙의 성실성을 드러내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평신자들에게 특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문화가 발전할수록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일이 많게 됩니다. 우리 평신자들은 <어머니와 교사>를 다시 한번 읽고서 평신자운동을 하는데 있어 공동책임을 지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다짐합시다.

제4회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로 맞이하는 평신도사도직의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제가 강론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우리 주교님과 본당 신부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오늘은 저 박해시대에 있어서, 우리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의 해마다 동지사를 따라 이승훈을 비롯한 많은 우리 순교자들이 서울을 떠나 멀리 북경으로 가던 바로 그때 쯤에 맞먹는 날입니다.

당시 우리 조상들은 교우들이 푼푼이 모아주는 정성어린 여비를 받아 가지고 이맘때에 서울을 떠나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북경에 거듭 다녀옴으로써, 세계 전교사상의 기적이라고 말 할 수 있듯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이후 100여 년 동안에 걸쳐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꺾덕없이 교회를 지켜오고,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강한 신앙의 불길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멀리 로마 교황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어 독립된 교구들 설정하게 하고 프랑스 성직자들을 불러들여 미신을 타파하는 일, 봉건계급제도를 무너뜨리는 일, 서양문물을 통한 생활개선 등 우리나라를 민주화·산업화시키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었던 그 시절에도 교회창립과 나라를 위하는 일에 귀중한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농촌 할것없이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만연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신의 감정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 마구 흔들리고 있는 매우 걱정스러운 매우 걱정스러운 사회입니다.

박해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을 칼로써 짓밟았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는 칼보다도 더 무서운 부도덕과 불의, 부정, 부패가 우리들 각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 신앙을 좁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자신 속에, 그리고 이웃과 사회 속에 평화와 정의의 빛을 밝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빛

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와 이웃과 사회가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빛이 아니요 어둠으로 화하고 소금이 곰팡이로 전락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된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전국 중앙평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교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 교회내 대화를 더욱 원만히 하기 위하여 교구별·본당별 평신도 협의회를 빠짐없이 결성하되 그 명칭을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통일하고 성직자들이 솔선지도하여 교회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일
2. 한국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순교 125주년을 맞은 복자 김대건 신부의 시성 운동과 교회 창설기의 거룩한 순교자들의 시복운동을 일으켜 늦어도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이 되는 1984년 안에 달성토록 하는 일
3. 교회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도덕윤리의 타락을 없이하고 공산주의를 배제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는 일
4. 교회는 특히 노동자·여성·학생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후원하는 일
5. 교회는 각 교구 및 각 본당 예산에 구빈사업을 위한 항목을 넣도록 하는 일
6. 교회는 운동장이나 강당 등의 부설물 들을 국민대중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협력하는 일
7. 가톨릭교회는 타교파와 손을 잡고 사회·개발·평화 운동 및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는 일.
8. 교회는 매스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의 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평신도들이 솔선수범하여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여러분들의 강한 협력 없이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없이 교세확장과 할 것 없이 교세확장과 교무금 배가운동 및 교회출판물 보급에 앞장서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따라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묵인 사람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재물을 바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으로 굳게 단결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평화가 충만하게 깃드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순교 조상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성인을 한 분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주교회의에서 우리의 건의가 인준되어 시성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게 될 때 교우 여러분께서는 열성적으로 시성운동을 전개해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부터라도 열심히 기구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거두는 헌금은 평신도사도직운동을 일으키는 기금으로 쓰기로 하였사오니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제5회 평신도의 날 메시지

- 전국평협 황민성 총재주교 -

1972.11.19

오늘날 평신도사도직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것이며, 더구나 우리같이 미약한 입장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으며 방법도 없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 돕는 것보다는 나 자신 살고 앞을 가리기에 급급해야 하고, 진정한 우정보다는 서로 이해관계에 얽히고 남을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많은 선의의 사람들에게 반성의 기회가 될뿐더러 허세를 버리고 참된 인간의 모습을 되찾아 종교적이며 영신적인 가치에 더욱 더 정신을 쓰게 하고 있다. <옥토제시마 앳베니엔스> 교령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며 길잡이 구실을 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그들이 품고 있는 반항의식 때문에 좌절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좀 더 우정있고 평화스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에서 어른들과 진실한 대화를 가지며 협조하고 싶어한다.

오늘날의 국내외 정세, 가정환경, 사회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그들에게 힘과 필요한 광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진실과 사랑의 안정 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이는 진심으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있다.

좀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계층의 사회문화집단에 알맞는 사목의 연구와 산만하고 구습에 젖은 방법을 하루 바빠 시정해서 협동적이며 참신하고 과감한 평신자들의 전교방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평신자들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 성직자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왜냐하면 평신자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군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의회나 시노드가 열릴 때마다 평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사도직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평신자들이 교회의 이런 요구에 응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교육이며, 교육을 통해 평신자들이 복음이 말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자유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평신자들을 교육하고 감회하는 일은 바로 성직자들의 가장 큰 임무이기도 하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각자가 좀더 깊은 신앙심을 갖고 교회의 일원으로 각 본당에서 거행되는 전례에 적극 참여하며 그리스도 신비체 확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신도 협의회는 각 본당, 각 교구에 거의 조직되어 있고 주교회의 밑에는 중앙 협의회까지 생겨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어디까지나 교황청의 지시로 주교, 신부들이 만든 것이지 평신자들의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향식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어찌되었든 평신도협의회는 교회 안에서 중차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귀중한 구실을 하게 되어 있는 것만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교황님과 각국 주교회의가 기대하는 것은 사회 각 처에 산재하는 평신자들이 보고 듣는 것을 종합해서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모든 문제에 대해 적절하고 명철한 의견을 교회 당국에 피력하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이 사회·경제·문화생활 안에서 급격하고도 깊은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 많은 사람의 심정에 적절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평신자 지도자들은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의문과 요청에 응답하면서 성직자들과 협의하고 돕기 위해 본당 단위, 교구 단위의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겠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바람을 일으키시는” 성신의 작용을 하나도 묵과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 온 신앙에 입각해서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직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 충실성을 지키기 위해 공부도 해야 하지만, 같이 모여서 반성도 하고 결의도 하고 건의도 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 민족의 온갖 생활형태 속에 비장한 각오를 갖고 뛰어들어 각 생활 환경에 맞추어 사도직을 수행하고 전통적 신앙안에서 성직자, 평신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빛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이다.

그동안 평신자들은 빛나는 순교자들의 전통을 이어 받아 그래도 무엇인가 하려고 애쓴 데 대해 참으로 깊이 감사 드리는 바이다. 특히 꾸르실리스파들이 많이 탄생하면서부터 평신도사도직은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 든든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모방〉(韓國毛紡) 사건 때 JOC 회원들의 눈부신 활약이라든가 레지오 마리아의 묵묵하고 꾸준한 활동, 기타 여러 단체들이 그들의 목표 설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깨달으려 애쓰고 있는 점 등 한국의 평신자운동의 희망에 부푼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우리 평신도 사도직의 경험은 아직 마숙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의가 심장하고 성직자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평신자 여러분은 이제 성신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민활하게 사태 진전에 발맞추어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기구하며 가능하다면 희생도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평신도사도직 진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가호가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제5회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1968년, 우리나라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12월 1일 구세주 대림 첫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정하신 주신 지 다섯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사도직의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론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주교님과 본당 신부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대세에 밀린 한민족(韓民族)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 본 결과로는 한 핏줄을 두 개로 갈라놓은 일 뿐이었습니다. 적십자를 통한 대화의 길을 트고자 온갖 애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엄령이 실시되고 개헌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설새없이 발전하여 가는 세파 속에서 우리 가톨릭은 신심생활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사랑의 눈길을 돌려 세파를 응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북 대화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기도하는 성당의 종소리는 온 국민의 귀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성경과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밖으로 받들고 나와서 현실적인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 들려오는 교구 중심, 본당 중심이란 말도 가톨릭은 물론 우리 가톨릭이 담겨있는 온 국민과 같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삶의 활력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조직화하여 사도직 수행의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의 날이 정하여진 지 만4년이 흘렀습니다.

교세 및 교무금 배가운동이란 구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한 개의 단체의 이름이 생긴데 지나지 않거나 구태여 이러한 것을 조직하여 뭉개느냐고 무관심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사실의 하나는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도록 결성한 사실의 실천을 잊어버린 점입니다. 이것도 신심생활의 일부에는 틀림없이 실천

이 따르지 못하는 겉치레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톨릭이 이것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회의를 거듭하여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신도사도직 활동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1784~1887년에 이르는 103년 중 60년이라는 긴 세월은 오직 평신도의 손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 세파를 타고 꾸준한 발전을 계속하려면 이 세상 어느 모서리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에서만 자랄 수 있는 식물은 햇빛이 강하게 쏘이면 죽어 버립니다. 그러나 자연계에 있어서는 햇빛에 강한 식물과 그들을 좋아하는 식물이 잘 어울려서 금수강산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의 활동은 우리 가톨릭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이미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톨릭 박해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선구자들께서는 평신도 사도직이란 말이 없었겠지만 몸을 바쳐 사도직의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신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선구자들께서 남기고 가신 평신도 사도직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는 듯합니다.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이란 자칫하면 실수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구에서는 협의회가 창설되면서 성직자들이 솔선하여 평신도 활동에 따른 교육부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당연한 순서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옛이야기가 아닌 자연계의 현대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몇 년 전 설악산 오색 약수터에서 어느 젊은 부인이 어린 곰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길이 잘 들어서 강아지처럼 항시 부인을 따라 다니면서 나무에서 열매도 따고 부엌에서 불 때는 것도 제법 잘 도와오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를 남겼습니다. 그 중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날 부인이 푸른 옥수수를 따서 겨드랑이에 끼고 들어와서 찌고 있었는데 얼마 후 곰도 옥수수를 부인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옥수수 발엘 가보니 옥수수가 전부 땅에 떨어져 있더라 합니다. 알고 보니 어린 곰은 주인이 옥수수를 딴 것처럼 한 개를 따서는 앞 겨드랑이에 끼고 또 다음 것을 따느라고 허버적 거리는 동안 먼저 짓은 땅에 떨어뜨리고 다음 것을 새로 끼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밭의 옥수수를 모조리 따지만 앞 겨드랑이에 남은 것은 나중에 딴 한 개의 옥수수 뿐이었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따서 겨드랑이에 끼는 방법은 알았으나 앞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다리 사이에 끼었던 옥수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주인한테 귀여움을 사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써서 일을 하였지만 결과는 주인의 옥수수 밭을 망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리는 없으나 그러나, 신문교우를 반가이 맞이할 줄은 알고 있으면서 냉담교우를 저버리는 일은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따라서 사도직의 활동은 교회 밖에 있어서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사제님들은 우리의 영신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와 계시는 손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 계시는 신부님이 내일이나 모레 다른 본당으로 옮겨가시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부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집은 주인이 직접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지켜 주시고 우리들의 영신생활을 도와주시는 신부님이라고 늙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젊은 신부님을 모시고 늙은 신부님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평신도가 하여야 할 중요한 신심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생활 면에서 볼 때 생각은 간절하지만 현실적인 살림에 쪼들리는 나머지 자신의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는 사랑의 성전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흥내만 내는 것이라면 미련한 곰도 할 줄 알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본당만을 사랑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젊은 남녀들이 더욱 잘 할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가톨릭의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도시교회와 비교적 가난한 위치에 있는 농촌교회와의 상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당 유지가 사도직의 전부라면 내일을 향한 사회성화사업은 요원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아야 한다는 성경말씀이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활동으로서 실천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교회의에서 인준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하면 별지와 같으며 지난 총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이 되는 1984년 안에 순교복자 김대건 신부의 시성운동과 교회 창설기의 거룩한 순교자들의 시복운동을 달성토록 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시성운동 촉진 준비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킨다.
- 2) 7·4 남북 공동성명의 중대성에 비추어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앙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복음화의 사전태세를 갖춘다.
- 3) 평신도 사도직중앙협의회의 강화책으로 평신도의 날 둘째 연보 반액을 중앙 협의회에 납부토록 한다.

오늘 두 번째 거두는 헌금은 평신도 사도직운동을 일으키는 기금으로 쓰기로 하였사오니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각 본당의 요망사항:

1. 사무국을 CCK안에 설치
2.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빠짐없이 결성하여 성직자들이 솔선 지도한다.
3. 교회 출판물의 보급운동과 사도직에 대한 자료를 출판하여 보급시킨다.

4. 교세 및 교무금의 배가운동
5. 평신도의 강론을 월 1회로하고 평신도의날 두 번째 헌금을 협의회 기금으로 한다.
6. 타 교파와 손을 잡고 신용 및 협동조합 운동을 추진
7. 도시교회 연수입의 1%를 농촌교회에 보내도록
8. 교구 및 본당예산에 구빈사업비를 넣고 교회 부설건물을 일반에게 개방
9. 복자 김대건 신부님의 시성운동과 교회 창설기 순교자의 시복운동 및 동란 중 순교자 목격자 답을 주교 책임 하에 수집하여 순교자의 유물을 수집하여 보관토록
10. 교구별 본당별로 사목위원회를 둔다.
11. 필요시에 따라 평신도 대표의 성직자회의 참석
12. 교회는 사회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특히 노동자와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13.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이다”라는 제하의 적절한 행사
14. 모자보건법 제정 반대 성명지지
15. 교황대사께 활동상황 보고하는데 대한 협력
16. 매스컴 협의체 구성 및 <경향잡지>에 평신도 사도의 란을 만든다.

제6회 평신도의 날 메시지

- 전국평협 지학순 총재주교 -

1973.11.18

평신도의 날이 제정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일이다. 그 이유는 교회를 지금까지 너무 성직자 위주로만 생각해서 누구든지 ‘교회’하면 성직자들의 집단이 교회이고, 신자들은 그저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평신도는 교회활동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잘못된 이미지를 고쳐 각 평신도가 교회 안에 중요한 일원이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따져 볼 때에 성직자만도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만도 교회가 아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서로 조화있게 융합된 것이 교회이다. 또한 동시에 수도자들도 혹은 성직자로서 혹은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 일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성직자는 평신도보다 신분상으로 더 높다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직분상으로 서로 다르다고 할 뿐

이다. 즉 몸의 지체가 서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각각 다른 직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직자와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동등한 인간적 입장에서 서로 직분상으로 원만하게 협조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원만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물론 성직자는 교회 내에서 모든 활동의 중심 ‘고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 지배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봉사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직자나 평신도가 서로서로 자기의 입장과 상대방 입장을 잘 이해하여 차질을 가져오지 말도록 해야 하겠다. 만일 어느 한편이 월권행위를 하여 상대방을 침범할 때에는 원만한 협가 이루어질 수 없고 동시에 교회가 원만하게 발전 할 수 없을 것이다.

평신도의 날을 정한 기본 목적은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극도로 다극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회의 절대적인 요구이다. 그렇다면 교회활동의 ‘고리’를 쥐고있는 주모자 주동자가 되어야 할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의 교회활동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최대한 뒷바침을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은 권리를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직자들의 부족한 일손을 평신도의 활동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평신도들은 그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안에 뒤떨어지고 침체된 교회의 모습을 새로이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불신과 미움이 판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서로 믿고 협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회에 부각시켜 잘못된 사회를 바로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사회의 교회에 대한 절실한 요구와 신자로서의 자기 의무를 각성하여 미온적으로 피동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성있는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교황 성하께서 이번에 성년을 선포하시고 교회에 호소하신 간절한 소망인 회개와 화해의 행위이기도 하다. 소극적·피동적 신앙생활의 자세는 하느님의 은총은 다 받아도 은혜를 갚아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암체적인 태도이다.

또한 평신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잘못된 편견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 즉 “우리 본당만” 혹은 “우리 교회만”하는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좁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전체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기가 아는 몇몇 성직자나 위하고, 자기 성당이나 남의 성당보다 더 잘 꾸미면 훌륭한 평신도 활동을 다한 줄로 생각하는 유치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평신도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된 평신도 활동이란, 넓게는 온 인류 혹은 한 민족, 한 국가, 좁게는 자기가 처해있는 현 사회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노력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마침내는 저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행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자세라야 한다. 참 신앙생활이란 전 인류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부여 넣은 것이지, 자기의 행복이나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넓고 숭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특히 성직자·수도자들은 독선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자기만이 가장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는 줄로 착각을 한다. 가장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즉 죄인과 천민과도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것이 가톨릭인의 참된 사도직이다.

오늘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각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로만 말고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될 일을 모색하자.

제8회 평신도의 날 담화문

- 전국 평협 김재덕 총재주교 / 전국평협 김기철 회장 -

1975.11.16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겨레의 손으로 직접 복음의 씨앗을 가져왔다는 그 점을 비롯해서 장기간 혹독한 박해로 무수한 순교자를 내었고, 그 거룩한 피로써 밑거름이 된 교회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금년 평신도 사도직 전국 협의회 제8차 총회에서는 이러한 자랑스런 조상님들의 순교정신으로 되돌아가 이 나라의 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결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평신도의 재교육이 앞서야 되겠고, 또한 복자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103위 복자들의 시성운동과, 그 밖의 많은 순교자들이 아직 복자 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분들의 시복운동도 아울러 전개할 것을 실천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자 재교육을 위한 각종 세미나, 연수회, 피정, 그리고 교육용 소책자의 발간 등에 주력코자 하는 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비롯해서 시성시복운동을 위해 역시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 평신도의 날 헌금은 신자 재교육과 시성운동을 위해 사용할까 하오니,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의 정신을 천만 분의 일이라도 체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성 어린 헌금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로께서 하신 헌금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림으로써 이 담화문을 닫으려 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분수대로만 희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사까지도 했습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 가진 것에서 얼마를 바치든지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II 고린토 8:2, 3, 12참조)

제9회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1976.11.14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평신도들에게 큰 관심을 표하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평신도 고유의 역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우리들 평신도의 위치는 높이 들어올림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무거운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작년 평신도의 날에 우리는 “다함께 시성시복운동에 참여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 전국 협의회(전국 평협)는 시성시복운동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교회 사학자와 교회법 학자 및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성시복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국의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시성시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뜨거운 열망은 금년도 주교회의에도 반영되어 13명의 주교님과 3명의 주교대리 연명(連名)으로 복자들의 시성 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시성 촉진 책임 주교님을 선임해 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시성시복운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기적을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하나는 우리의 삶을 순교자적인 자세로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 성업이 현세 질서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사명이 현세 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며, 신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인 평신도는 그리스도교적 양심의 지배를 받아”(평신도 사도직 교령 5) 예언직을 수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언직을 수행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직자와 수도자 및 평신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이 우리 조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교회 간행물 보급과 평신도 재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천주교의 기관지인 <경향잡지>의 구독자가 약 20% 증가했고, 하나뿐인 신문 <카톨릭시보>가 약 30% 보급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을 위한 피정 교재 <화해와 새신을 위한 크리스찬 생활>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바로 가능성을 보여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유감인 점은 평신도 사도직 운동에 대한 관심입니다. 작년 평신도의 날에 간곡히 말씀드린 평신도 주일 현금 실적이 부끄럽게도 1,855,147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문제부터 어떠한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몇 해 전의 주교회의의 결정대로, 오늘 걷는 현금은 한번을 걷든 두 번을 걷든 간에 이를 모두 모아 그 3분의 1은 본당의 평신도 운동에, 3분의 1은 교구 평협의 사업에, 나머지 3분의 1은 전국 평협의 기금으로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일들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에 덧붙여 금년부터 시행해 보고자 하는, 아니 꼭 실천해야 할 일을 두 가지만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들은 금년도 전국 평협 총회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거론된 것들이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더욱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교회와 농촌 교회간의 형제애를 높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상적인 교회 건설을 열망합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눠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기쁘고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사도행전 2:42-47).

또한 이 땅의 초대 신자들도 그렇게 살며 하느님을 증거 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크리스찬 공동체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진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교구이며 예수님의 본당인 교회가 비록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교구를 설정하고 단위 본당을 구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카톨릭 신자가 한 형제라는 공동체 의식은 더욱 고양(高揚)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간의 격차 문제는 크리스찬 공동체 형성에 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간의 자매결연 관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로서는 종래에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도시교회의 농촌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앞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보면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의타심을 기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는 형제애를 발휘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크리스찬의 참사랑을 보여 주어 하느님을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가 서로 기도해주고 찾아주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아가서는 넉넉한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 교회서적을 보내주어 도서실을 만들게 해 준다거나, 농촌 교회가 도시 교회에 결만 번지르르하지 않은 질이 좋은 농작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오늘의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한낱 이상에만 불과할까요?

둘째, 성직자를 더욱 존경하고 도와, 활기찬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교회 존립 이유에 대하여 강조한 바에 의하면,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설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교회가 활동하고 봉사할 곳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직자와 평신도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이 세상을 대처해 나갈 것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일치된 모습은 교회가 구현해야 할 참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위치가 부각되면서부터 교회 내부의 운영과 관리 또는 재정문제 등에서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려는 불미스러운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르침에 따라 해소시켜야 하며,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의 그것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자신이 향유하는 지식과 능력과 자격에 따라 교회의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교회가 그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를 통해서 솔직하고 대담하고 지혜롭게 의견을 밝힐 것이며, 그러나 성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성직자들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을 결(缺)하지 말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거룩한 목자들이 스승과 통치자로서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그리스도교적 순종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사목자들이 기꺼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 바치기를 잊지 말 것입니다(히브리 13:17). 거룩한 목자들은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니고 있는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그들을 믿고 교회에 봉사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며, 행동의 자유와 여유를 그들에게 남겨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평신도들의 창의와 요청과 소

망을 자부적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할 것입니다.”(교회헌장 37)

이렇게 될 때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모든 활동과 봉사는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을 조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 되게 할 것입니다.

금년도 평신도의 날인 오늘 이렇게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본당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평신도의 축일인 오늘, 우리의 고유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원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발전과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에 진리와 성령의 감도 하심을 기도 드리며 이 강론을 마칩니다.

제10회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1977.11.13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10차 평신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신도의 날을 설정하고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면 강론과 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의 날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지냄으로써 평신도 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맞아 더욱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를 반성, 자각하고 일상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생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교회헌장>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보면 우리 평신도의 지위와 의무와 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들 자신이 이를 공부하고 자각하여 참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司祭職), 예언자직(豫言者職), 왕직(王職)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평신도들은 복음의 전파와 인간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현실 속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완성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인간 구원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는 사도직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 안에 살면서 세속 일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의 특징이며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평신도야말로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불타야 하며, 누룩의 역할을 다하

여 세속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평신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의 일치에서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성체성사로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가 되고, 견진 성사로 그리스도 성령의 힘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강해졌으며, 주님으로부터 사도직 수행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헌장 4장 33항에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의 구원 사명 자체의 한 부분이며, 주께서 친히 성세와 견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도직에 부르는 것이다.” “모든 신도들에게 관계되는 이런 사도직 외에도 평신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성직자의 사도직을 돕기 위하여 불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37항을 보면 “평신도들은 자신이 향유하는 지식과 능력과 자각에 따라 교회의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가 있다”. “목자들은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그들을 믿고, 교회에 봉사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며 행동의 자유와 여유를 그들에게 남겨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헌장 4장 33, 37항 두 항만 보더라도 우리의 의무와 권리가 현세에서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열성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음전파와 성화의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증언과 초자연적 정신의 선행은 사람들을 신앙과 하느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인 사도직 수행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마태오 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성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직은 생활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참된 사도직은 말로써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고 믿는 신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신자를 더욱 굳세고, 열심하고, 참되게 생활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 분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속 안에서의 복음의 생활화, 즉 증거가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이 세상이 그리스도교적으로 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 안에 사는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하도다”라고 하신 사도 바울로의 말씀이 우리 평신도들 마음속에 메아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힘을 얻고 활동으로 사랑을 생생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곧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는 오늘 평신도의 날을 맞아, 앞에서 말씀한 우리들의 의무와 권리를 재인식하면서 평신도인 우리들의 자각과 반성, 그리고 능동적인 사도직 수행에 더욱 분발하자는 말씀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의무와 봉사보다는 권리와 주장만을 앞세우는 태도를 지양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우선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협력한다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에서 일치로, 불화에서 화목으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평신도는 모든 일을 인간의 능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전능에 의탁하여 기도와 신앙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8년도 평협 운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 시성 시복을 위한 기도운동
2. 평신도 재교육 운동-먼저 배우자- 그리고 가르치자
3. 신자 배가운동
4. 냉담자 회두운동
5. 교회 간행물 보급 운동 -카톨릭 시보-경향잡지-카톨릭 소년
6. 조직의 확대와 재정비
7. 가정 성화운동
8. 대사회 선교운동의 구체화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목표는 하등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평신도들이 일상 수행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을 올바른 구심점을 찾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참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속 안에 깊게 파고 들어가 빛과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평신도 고유의 사명인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을 훌륭하게 성취해야만 되겠습니다.

* 지금 이 순간부터 평협활동에 참여하는 단적인 예는 오늘 바치는 헌금이 바로 평협 활동에 참

여하는 것이고 사도직 운동에 기여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11회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1978.11.19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 한번째 돌을 맞는 평신도의 날입니다. 평신도의 날이란 114만 우리 한국 카톨릭 평신도들이 평신도로서 앞으로 하느님 사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날입니다. 또 지난 날 계획하여 추진해왔던 주님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재평가하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반성하고 자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한 마디로 말해서 평신도들이 사제들과 더불어 카톨릭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사실상 공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사업을 함께 있어 평신도들의 의무와 책임이 사제들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세계 7억의 카톨릭 평신도들이 한 일은 팔목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카톨릭은 최초부터 평신도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이지만, 지나간 10여 년 간 우리 평신도들이 한 일도 눈부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자 배가운동, 가정 성화운동, 재교육이나 정예교육, 국가적 차원에서의 당면문제들에 대한 연수회 개최, 교회 간행물 보급 등은 후일 역사에 의해 그 공이 높이 평가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103위 우리 복자들의 시성 시복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순교선열들이 복자로 선포된 이후 58년, 거국적 운동으로 전개한 이래 십여 년, 근년에 들어와서는 해마다 연례행사로 이 시성 시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웬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평신도들의 무성의로 혹은 신부님들의 방관으로 기도조차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들의 순교선열들에게 큰 죄를 지었고 이 순간도 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후손들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자각하고 분발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평협은 시성 시복운동을 평신도들의 제일 큰 당면 과제로 정하고 새해에도 우선 114만 카톨릭 가족들이 혼신의 정성을 모아 기도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선열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선교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갈 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1)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선 선조들의 신앙을 현양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찾으시오, 얻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오,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실 것입니다.”

2천년 전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어제든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한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1784년 3월24일 우리 천주교가 베드로 이승훈 첫 교우의 손으로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천주교에는 1785년부터 크고 작은 박해가 중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01년 신유년 박해와 1839년 기해년 박해, 그리고 1846년 병오년 박해, 끝으로 천주학쟁이의 씨를 말리겠다고 칼을 뽑아들었던 1866년 병인년 대원군의 박해는 참혹했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천주교인들이 치명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분들은 신앙을 증거하고 천주 만대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얻어 주기 위해 칼 아래 한 방울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광으로 믿고 칼을 받으려 형장으로 나갔습니다.

복녀 김 골롬바, 김 아네스 일행이 성가를 부르며 잔치 집에 나가는 듯한 그 기개는 참으로 장했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니, 천주교인으로 죽어 가렵니다.”라고 외치며 목에 칼을 받고 쓰러진 복자 김 안토니오라든지 103위 복자 중에 최연소자인 13세 소년 유대철 베드로를 보십시오. 천주교 배반을 강요하던 악한 관장에게 “그러문요! 이것쯤으로 천주교를 배반할 줄로 나리는 아십니까? 천만예요!” “요까짓 형벌은 쌀 한 알을 한말에 비기는 것과 같은 것이예요”하지 않았습니까?

천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는 그리스도 정신의 대강령입니다. 이 강령은 2천년을 일사불란하게 내려 왔기에 그 분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얻어 주기 위해 이와 같이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분들은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자기 재산, 자기 건강, 자기 가족, 자기 명예, 자기 지위도 버렸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초개같이 버리신 사랑의 영웅들이십니다.

“제 목숨을 바쳐가며 남을 사랑한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칭찬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의 대강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습니다.

2)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그 많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제일 아깝고 귀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그분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을 참고 이겨낸 사람들의 본보기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예언자들을 생각하십시오.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어 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선조이신 사랑의 영웅들을 현양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갚을 시기가 왔습니다. 1801년 신유년 박해 때 정상급의 실학과 학자들인 이 베드로 승훈, 이단원 공사가, 권 암브로시오 철신, 윤 바오로 지충, 권 야고보 상연, 최 창현, 강 골롬바 완숙, 주 야고보 문모 신부, 주 신부 대신 죽어간 최 마티아 인길 등등 300여 명이 우리 천주교를 위해, 종교 자유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그 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이제 우리는 시성 시복운동과 사회의 정의 평화를 위한 선교로 갚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114만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사랑의 영원한 채무자로 불명예스러운 굴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1925년 7월 5일에 시복된 79위 복자들은 못난 우리 후손들을 둔 탓으로 반세가 흐르도록 아직도 성인 성녀의 영광스런 대열에 못 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언제 갚으려나 하고 매일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1968년 10월 6일에 시복된 24위 복자들도 “언제 우리에게 시성식을 해 주겠느냐? 언제 복된 한민족의 얼을 세계 만방에 전하겠느냐? 그리하여 천주님의 영광을 언제 현양해 주겠느냐?”라고 이 순간 애절하게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이 선열들의 애절한 호소가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의 채무를 갚지 않으시렵니까? “빛은 땅 속에 가서도 갚아야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순교자들에게 진 빛을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채무를 당장 청산하라고 호령하고 계십니다.

3) 형제여! 자매여! 시성시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총동원합시다. “당신들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합하여 청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단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오 복음 18장 19-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3년 전 우리 79위 순교자들이 복자로 선포되었을 때는 이 복자들을 성인 성녀로 추대하기 위한 기도 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었습니다. 본당에서나 공소에서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나약한 유부녀들, 심지어 겨우 말을 배워 가는 어린 것들까지도 “복자 노렌조와 베드로와 안드레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고 두 손 모아 정성껏 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사실상 중단돼 왔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꺼져간 그 기도의 횃불에 무한한 사랑의 기름을 부어 다시 높이 밝혀야만 하겠습니다.

구하면 되고 아니 구하면 안 되는 것은 철칙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하여 우리의 103위 복

자들이 왜 아직도 성인 성녀가 못되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순교 선열들의 시성 시복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시성 시복을 위해 기구하는 요령은 103위 복자 중에 어느 한 분만의 시성 시복을 목적하지 말고 103위 공동으로 우리의 영신 사정이나 육신 사정이나 특히 불치의 병고 등에 기적을 청해야 합니다.

103위 공동으로 기도하여 그 결과 기적 한가지만 생겨도 103위의 복자가 다 같이 성인대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루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제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하고 줄라대곤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재판관은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이 과부가 하도 나를 성가시게 구니, 그 여자의 원대로 판결해 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나를 자꾸 찾아와서 내가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으시오.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뽑으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실 것 같습니까”하고 반문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근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인 암에 걸린 교우가 지성껏 9년 동안 어느 복자에게 기도를 계속한 결과 완쾌됐습니다. 그 복자가 시성을 받을 때 그 교우는 로마에 가서 기적의 산 증인으로 영광스런 그 시성식에 참석하였습니다.

“3년 반을 두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열렬히 기구하자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에는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8-14절까지를 보십시오! 르비딤에서 아말렉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부술 때에 35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팔이 아파 내리면 적군 아말렉이 역습을 거듭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후렛, 두 사람은 모세의 팔을 받쳐주어 내려오지 않게 하고 계속 기도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아말렉 적군을 파죽지세로 쳐 이기게 했고 승리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보여 준 이 모세의 실례는 실로 우리 가슴을 서늘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뿔 받침해 줍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시성 시복을 청하는 기구를 간절히 올립시다.

“모든 성인들의 덕행으로 찬미 받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당신은 일찍이 당신 교회

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103위 우리 순교자들을 복자로 선포하여 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복자들의 공로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환난 중에서 더욱 보호하시고 <특히 이 환자 (아무) 우리가 소망하는 특은>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빨리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우리 복자들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제12회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1979.11.18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12회를 맞는 우리 평신도의 날입니다. 항상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기쁨에 찬 생활을 하시는 교형 자매 여러분께 경하 드리며, 또한 보람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생활 하심을 찬양하여 마지않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만이 우리들 평신도의 날인 양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통하여 1년 365일 전부가 평신도의 날이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말씀 드리는 일이지만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참된 크리스찬 생활을 하였는가 반성하고, 또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회 한복판에서 살면서 그를 증거 하였는가 자기 성찰 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현대교회의 새로운 과제와 쇄신, 적응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진로를 설정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르침을 명심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평신도의 중요한 과제요, 사명이요, 임무일 것입니다. 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제시하고 사관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를 재발견하여 평신도의 충성과 사명을 긍정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확실히 복음은 행동적인 평신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나 깊이 침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신도의 신분과 그 위치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敎義憲章)> 제4장을 평신도의 장으로 따로 이 설정하여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과 역할을 신학적 차원에서 강조 확정하였으며, 더욱이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敎令)으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생활지침과 규범을 확립하여 우리들 평신도들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교형 자매 여러분!

평신도는 축성된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진정 평신도는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를 공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촉구하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연수회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고 <교령해설(敎令解說)> 등의 책자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들 평신도는 공의회에 따라 세계 한복판에서 우선 신앙과 생활을 일치 조화시켜 세상의 소금, 빛이 됨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복음적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혼란된 문제들이 일어나고 중대한 오류가 만연되어 윤리와 질서, 더욱 인간사회 자체까지도 근본적으로 뒤엎어 버려진 현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공동선(共同善)이 추구되어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참된 복지의 향상이 지향되는 세상을 실현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세계관에 사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빼놓고 누가 하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세상을 건설하는 일, 즉 이 세상의 질서를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은 우리 평신도의 손에 맡겨진 가장 귀중한 사도직으로서 누구도 이 사도직 의무를 포기할 수도 무관심하게 둘 수도 없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더욱 일상생활로 증거 하는 복음전교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지난 전교주일에 “복음전교는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바로잡는데 있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종래 우리 카톨릭 신도들은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안으로 숨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떤 일에도 주재님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겸양의 덕이라고 그릇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느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만드는 정열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 간에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복음전교, 즉 사도직을 실천하여 결실을 맺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난 10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김수환 추기경기 쟁탈 전국 카톨릭 중 고등학교 웅변대회에 나온 나이 어린 연사들의 참되고 애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짖음은 우리 평신도들의 심금을 울

려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 중학생 중에는 다음과 같은 폐부를 찌르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의롭게 사랑으로 진리에 살라고 호령하는 어른들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순진한 우리 학생들만 들볶습니까?” 하는 말이나, 또한 “이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인간이 파리만치도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 어둠과 가난과 불쌍하게 천대를 받고 억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120만 카톨릭 신자는 어디가 무엇을 하고 숨어있기에 이 꼴을 보고만 있습니까?” 부르짖음에는 모두 숙연히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복음의 원점에서 성찰하며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평신도들이 참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동으로 증거하고 전파하였다면 과연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바로잡히고 참 복음적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불의와 부정에 야합하거나 이를 두둔하고 감싸주는 따위의 행실이나 생각에서 벗어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화해의 일체를 이루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백성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는 곧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교회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사권의 일치를 이루어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형성하여 인간의 존엄성은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야겠기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꾸준히 열성적으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정의 없이 사랑 없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선교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불행하다”고 하신 사도 바울로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넘쳐흐르도록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로부터의 권고 요청에 바탕 하여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고 하느님 백성의 공동책임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13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1980.11.16

수많은 순교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지 어언 200년이

됩니다.

이번 우리는 제13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 위에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숨겨진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도록 기도 드립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발단한 거대한 선포는 순례하는 지상의 교회에 쇄신과 변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느님 백성의 전체, 특별히 신품과 수도 신분에 속하지 아니한 평신도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천명하면서 평신도가 세상의 소금과 누룩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넓게는 하느님의 나라, 좁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계 한가운데서 가장 잘 현존시키는 주역들입니다.

우리 겨레 스스로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진 교회사상 유례가 없는 한국 천주교가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보전되어 왔다는 긍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784년 이승훈 선생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1886년 한.불수호조약으로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기까지 100여 년의 박해 속에서도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60여 년간을 성직자 없이 신도들의 힘만으로 전수되어 오면서 1만여 명의 순교자를 넘만큼 평신도들은 위대하고도 찬란한 신앙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앞두고 우리 한국의 백 삼십만 신도는 자랑스런 선열들의 얼을 되찾아 이 나라 이 겨레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온 세계는 오늘날도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 현실에서 숨겨진 진리들을 발굴해 내고 재력과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인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만들려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시키는 데에 그 중요한 구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특히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의 두 영역 안에서 스스로 사도직을 열심히 수행하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은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이 세계에 진정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며,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화 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인류의 기쁨과 희망을 제시하고 슬픔과 번뇌를 없애는 길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제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15년이 흘렀고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발족된 지도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둡고 답답한 여건 속에서도 평신도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헌신적 노력과 협력으로 근년에 와서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평신도란 단지 미사에만 참여하고 자기 구명만을 위한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보잘것없는 신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폭발적인 평신도들의 재교육으로 인한 의식 계발, 각 액선단체를 통한 능동적인 봉사활동, 자발적 자율적인 재정의 자립성 등 정말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명을 다 하려면 수많은 장애와 시간을 극복하고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현장의 제4장에서 말한 하느님 백성 안에서의 평신도의 위치,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결론지어 지는 평신도의 사도직이라는 제목은 2000년 카톨릭 교회사에 혁명적인 개혁을 가져다 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적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성령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먼저 생활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직 실천의 터전과 그 양식은 원하는 곳으로 부는 성령의 입김에 따라서 각양각색이고 결코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평신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감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례(영세)받은 모든 평신도는 사도직을 수행할 권리와 실천의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 직업, 교양, 환경이 어떠한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사도가 되고 선교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깊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며, 협력자이고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분이 선택한 자녀이며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그 세속 안에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의 세력의 침범 속에서 타락하고 무력해진 세속에 생동하는 진리와 기쁨, 사랑과 평화, 그리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실현되도록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평신도들의 활동 없이는 교회의 현존과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계적 질서 속에서 순명하는 자세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고 간에 근본의 바탕은 그리스도적 사랑 속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겸손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평신도, 자기 능력대로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나 또 그 자신을 위해서나 아무데도 쓸모 없는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느님으로부터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맡겨진 온전한 사도직의 원천은 성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므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대로 평신도 사도직의 풍요한 결실은 분명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일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

다면 어떻게 해야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사도직을 참으로 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냅니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실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구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곧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업에서 목적 삼은 뜻과 그 동기를 가져다가 우리를 사도직의 행동과 뜻과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던 것을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참고 견디셨음과 같은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과 사랑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개인이 수행해야 할 사도직
- 특수환경 속에서의 사도직
- 조직적 공동체 안에서의 사도직

등에서 각기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사회 안에 용감히 뛰어들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도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모든 관계자들이 평신도 재교육, 도시 농촌간의 유대 강화, 시성·시복운동 강화, 평협 조직 강화 등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자부하는 하지만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교회와 신도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1981년도에도 80년도 사업을 계승하고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교회 창설 200주년을 더욱 뜻 있게 하기 위하여 전신도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뭉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에 항상 같이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 이름으로 계획되는 어떠한 사업이고 간에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이 매년 바쳐 주시는 정성어린 헌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낌없는 협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분발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바치는 여러분의 헌금이 이 나라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많은 협력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나라 카톨릭 성교회의 무한한 번성과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성공과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내리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제14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1981.11.15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81년 제14회 평신도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그 것은 금년이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 대광장에서 전국 각 교구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모여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이번 여의도 신앙대회는 우리에게 커다란 감명을 안겨 주었습니다. 참가 인원이 80만 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한국 종교집회사상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정연한 질서, 경건한 분위기, 민족의 빛이 되기를 다짐한 대회 내용 등이 이 집회를 지켜본 국민에게 또한 커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기념하고, 또 머지않아 1984년에 맞이할 교회 창설 200주년을 내다보면서 특히 우리 평신도로서는 가슴에 벅차 오르는 감격을 느끼게됩니다. 한국 천주교 200년의 역사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외국 선교사의 전교가 없이 국내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중국 북경에 찾아가 천주교 교리를 배워와서 평신도만으로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열들은 그 뒤 모진 박해를 당해 무려 1만여 명의 순교자를 내면서도 굽히지 않고 전교에 나섰습니다. 성직자들의 입국을 주선하고, 교황청에 교구설정을 요청하면서 교회 발전에 몸바쳐 일해 왔습니다. 그 순교선열들이 피로써 심은 신앙의 열매가 이번 여의도 신앙대회장에 지극히 성대히 과시되었음을 우리는 감격 속에 확인한 것입니다. 오랜 수난의 역사를 겪은 때문인지 지난 날엔 한국 천주교가 일반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르침이 전해진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점차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0년대엔 천주교가 우리 국가 사회 안에서 신뢰받는 양심의 지표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 이번 150주년 신앙대회를 계기로 천주교회의 위용은 이 사회에서 한결 더 돋보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이와 같은 발전적 단계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전보다 더 큰 사명을 지웁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경제적 물량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면에서는 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불의와 폭력과 억압과 어두움이 만연해 있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 평신도 각자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평신도는 직접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하는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정점인 교황청에서는 적어도 1891년의 〈노동현장〉 반포 이래 여러 차례 회칙과 교서들을 통해 신자들이 사회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지침들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가르

침들 안에는 최선의 인류 구제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사회 실천 원리들과 더 근본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닌 우리는 이 사회를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있는 땅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이 시대 이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실뿐 아니라 시대의 징후와 의미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과 땅의 창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루가 12:56)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대감각이 긴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적 여건 위에서 볼 때 강대국들의 끝없는 군비 경쟁 속에 불안과 공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계속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세계 여건 안에서 개발도상국 정권들은 부패와 강권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큰 재앙입니다.

이러한 시대 현실 속에서 세상을 변혁하는 누룩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태만이요 죄입니다. 세상 골목골목에 교회의 십자가가 날로 늘어나고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갖은 흉악사건, 대규모의 부정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며 양심표현의 자유마저 여의롭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본성 및 공동선을 지향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비신자 대중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 옛날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습관적이요 관념적이요 위선에 찬 신자들이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으로써 져야 하고 사랑은 믿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사랑, 십자가 이런 근원적이고 미분화된 신앙원리 자체만 가지고서는 오늘의 복잡다단하고 치열한 세상현실에 실제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어떠한 보편적 진리도 그것이 세상에 실현되는 과정은 하나의 비근한 구체적 사례를 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하며 말씀하신 그 수많은 사례들도 다 그런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빈번히 말하는 “사랑”도 성서에서는 “벗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우리의 형제요 벗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남을 위해, 벗을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각기 반성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실천의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거행한 150주년 신앙대회가 성대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성대함이 자기 만족적인 교세 과시로 끝나는 의미여서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순교선열들에 대한 회고적 찬양에 도취하여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망각해서는 정말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대회를 밖에서 지켜본 뜻있는 국민들의 눈, 특히 이상에 차있는 젊은 세대의 관심과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시대적 양심의 구심점과 민족의 희망을 갈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번의 신앙대회가 제시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유물론과 폐쇄주의에 갇혀 있는 북녘 동포들을 자유와 개방의 체제 속에 포용하여 평화 안에 일치케 할 수 있기 위해선, 우리가 취해야 할 쇄신의 원리를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신앙대회에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요 벗인 이웃 모두와 직접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민족의 역사적 장래에 어려움이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과 진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로마서 5:3-4).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1981년 제14회 평신도의 날에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세상의 누룩이 되고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되새김으로써 이 날을 뜻깊게 해야겠습니다.

제15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회 “평신도의 날”입니다.

오늘 교회는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교회력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연중시기 마지막 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정해서, 성직자가 아닌 신자들에게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과된 임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찾아야 할 좌표)

내후년에 선교 20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감격에 부푼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형제 자매들에게 선교 200주년을 가장 뜻깊게 기념하는 대열에서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한마음 한 뜻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하느님께 받은 모든 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나누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작년에 기념하고, 선교 200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준비가 분명해지는 이번 “평신도의 날”은, 일치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서 있는 우리의 좌표를 분명히 찾아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에 대한 금지)

우리 교회의 200년 역사를 돌이켜보고, 우리는 세계에 유래 없이 평신도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한없는 긍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이 나라를 멸망의 구렁으로 끌고 들어간 통치자들과는 달리, 이 땅의 선구자들은 용감하게 실학사상을 도입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스스로 받아들였고, 스스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에 주저치를 앓았습니다.

서기 1784년을 기점으로 한 한국 천주교회를 권위 있는 교회사 학자 중에 세 단계로 나눈 분이 있습니다. 즉 이 땅의 선구적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인류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이끌어간 소위 가성직자 시대인 50년간이 첫 단계이고, 그 다음은 1831년부터 1942년까지 111년간이, 순한 순교자를 배출하면서도, 빠리 외방선교회를 중심으로 외국 선교회들의 피어린 노력으로 한국교회를 발전시킨 단계이고, 3단계가 우리나라 성직자 중에서 주교가 탄생한 1943년부터 우리 성직자들의 활동기가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시대구분입니다. 이러한 교회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선교 100주년 때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혹독한 박해 속에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과, 앞으로 100년 후에 맞게될 선교 300주년에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교와 신앙의 뿌리)

현대인에게 순교의 의미가 곧 바로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박해시대에 순교로서 믿음을 증거한 신앙의 선조들에게 가해진 박해의 정도가 현대에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상상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마태오 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 하여라” 하신 분부를 충실하게 신앙으로 지켜,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들은 비록 목숨을 빼앗겼으나 우리 교회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일치)

박해를 받은 신앙의 선조들의 고난은, 지금 발전을 거듭하면서 쇄신을 기하고 있는 신앙의 후예인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맞이한 제15회 “평신도의 날” 기념 포스타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은 작년 10월 18일의 신앙 대회 때 여의도 상공에 발현된 십자가상을 보십시오.

순교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옮겨질 때, 새남터 상공이 분명하다고 많은 목격자들

이 증언하는 거대하고 찬란한 십자가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십자가의 발현을 우리 교회는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 징조일지도 모른다고 풀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지도 모를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후 우리교회와 이 나라는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신자수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훨씬 웃 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받는 고통이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여의도 상공의 십자가상을 기억하면서 굳게 믿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유의 사도직)

우리 교회의 선교 200주년 기념 사업은 네 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운동을 전개하고, 둘째 각종 기념회의를 열며, 셋째 교황님을 초청하는 전국 대회를 갖고, 넷째 역사에 남을 기념 사업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운동의 전개에 있어서는 순교정신을 양양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신앙운동을 전개하며, 순교복자들의 시성운동을 결들여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깊이 새기는 신심운동이 바탕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직자가 담당할 수 없는 모든 분야의 일이, 바로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신도 교유의 사도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활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된 동참이 충실한 평신도 교유의 사도직이며, 이를 통해서 2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면한 지표)

이 때에 즈음해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선교 200주년을 앞두고 정신운동에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당면한 지표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신뢰회복 운동의 전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듯이 이 나라의 풍토는, 어른이나 어린이를 막론하고 불신사조가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점차 국제사회에서 눈길을 끌게 되고 있는 마당에 이 땅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불신사조를 크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고자 사회의 뜻있는 일각에서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지않은 호소가 있지만, 그 호소자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의 풍토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 모두가 전 민족에 앞장서서 이 운동에 헷부를 들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믿음으로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치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150만 천주교도가 나서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이 운동이 당장에 실효를 견을 수는 없더라도, 복음을 행동으로 전파하는 충직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과 긍지를 무기로 우리가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공감과 동참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가톨릭 대상”의 시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의 영신적, 현세적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사업은 정의·진리·평화의 구현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고,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모든 활동을 해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적 기능의 재 인식과 복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랑의 실천, 정의의 구현 그리고 인류 문화의 창달을 위해 양심적으로 이바지한 교회 내외의 특출한 사람을 뽑아 “가톨릭 대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좋은 포상을 하여 왔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제정한 “가톨릭 대상”은 가톨릭 교회가 제정한 것이라는 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말이나 입으로만의 구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조용한 “구원의 행위”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육화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우리 교회 평신도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결코 용이하고 순탄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150만 형제 자매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참여는 결코 용이하고 순탄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150만 형제 자매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참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운영·재정·기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것을 우리 손으로 바치는 정성이 이 운동에 직결되게 오늘의 2차 헌금에 봉헌해 주시도록 호소합니다.

(각 본당의 경우)

.....

(끝맺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15회 “평신도의 날”을 맞아 우리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다 굳은 신앙 속에 다시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선교 200주년에는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이 땅은 물론 세계 만방에 주님의 이름을 현양합니다.

제16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가 16번째로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연중 마지막 주일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여 평신도 사도직의 신성한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천주교회는 명년인 1984년, 103위 성인의 탄생이라는 벅찬 감격을 안고 2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200주년을 보다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해서 과거 200년의 교회생활을 회고하고 반성하면서 현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교회의 당면 과제인 교회의 토착화와 민족복음화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원대하고도 의욕에 찬 목표를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의 초안에 제시하고 있다.

평신도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신도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가 현세적 질서 안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 신뢰회복운동의 전개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동으로 가치관의 혼선을 크게 빚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바로 근대화의 척도가 된다는 사고방식 아래 경제 제일주의가 추진되어 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위주의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결국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금전만능 사상을 유발했고 협동의 가치관과 서로 믿고 신뢰하는 풍토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파괴된 사회,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삭막하고 살벌한가를 모두가 실감하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 믿고 아껴주는 사회, 정이 흐르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뼈저리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이미 작년부터 신뢰회복운동의 전개를 당면과제로 내걸고 지난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을 기해 신뢰회복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의 연발 속에 최근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불신이 극한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죽인 스승, 형님의 아들인 친조카를 죽인 삼촌,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독살한 악처, 아버지의 소관 돈 300만원을 강탈하기 위해 복면을 하고 아버지를 찔러 죽인 아들 사건 등이 기억에 생생한 가운데, 장영자 사건·명성사건·영동개발사건으로 이어진 사태 - 나아가 KAL기 사건·“버마” 암살 폭발사건 등 미증유의 비극이 지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도 이 끔찍스러운 일들이 모두 밖의 이야기, 남의 경우, 주변의 불상사이거나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이 전율의 공포는 드디어 우리집 문턱과 내 앞뒤까지 그 검은 그림자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회의 근본 병리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풍토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진실하고 생생한 신앙의 빛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의 평신도가 비록 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민족 구원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바로 오늘 각자 자기생활의 현장에서 자기 이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신뢰회복운동에 선구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별이는 이 신뢰회복운동이 전 인류에게 퍼져 나가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바 복음이 충만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2. 103위 성인의 탄생과 평신도

한국 평신도들에게 무한한 영광이 안겨진 큰 은혜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황청이 지난 9월 27일 한국 천주교 103위 복자의 시성을 공식발표 했으며, 그 중 93위가 우리와 같은 평신도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103위 성인 탄생은 우리 교회만의 경사가 아니라 온 겨레의 크나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평협”이 지난 68년에 결성되자, 71년부터 시성촉진 서명운동이 전개됐으며 75년에 교회의 관심사로 등장하여 그해 “평신도의 날” 강론에서 진지하게 호소되었습니다. 이듬해인 76년에 춘계 주교회의 총회가 주교들 연명으로 시성청원서를 성청에 제출하였던 이 역사적인 기록 등은 우리 평신도들에게 안겨진 새삼스러운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온 세계의 추앙을 받을 103위 성인을 추대하게 된 한국 천주교회는 교회사의 중요한 장을 장식하는 중대차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내적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새로운 사명의 부과이기도 합니다.

더욱 오늘 제16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특히 우리 평신도들이 무거운 책무와 함께 느껴지는 벅찬 감회는 새로이 탄생할 103위 성인 중 93위의 성인이 우리와 같은 평신도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분들의 후예라는 긍지를 일본 일초도 잊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선열들의 장엄한 의지와 숨결이 오늘 우리 평신도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평신도도 열심히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께 대해, 그리고 험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억눌린 이웃에 대해, 희생적 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 사회로부터 종교는 많으나 종교인은 없다는 가혹한 힐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4,000만명이나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사회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 평신도의 당면한 과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말로만의 구원이 아니고 조용한 실천입니다.

그 옛날 순교 선열들과 같이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의 죄악을 정복하는데 순교자적 삶이 아니고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래 우리교회에 새 교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우리들 양떼를 이끌어 줄 목자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과로에 지친 그 목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펴 가야할 우리 평신도들이 방관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평신도의 날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평신도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뢰회복운동의 활성있는 전개를 위해서, 작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가톨릭 대상”이 영광스러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또 아직도 복자 위에 오르지 못한 순교 선열들의 시복운동의 전개를 위해서 오늘의 “2차 현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 정성을 다해 바치는 “평신도 주일 현금”은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평신도 고유의 사도직” 수행을 위해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질 것입니다. 아멘.

제17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1. 주님께 감사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17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해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우리 교회는 “평신도 주일”로 정하여 교회력에서의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과 그 신성한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교회 200주년을 기념하고 103위 시성식의 영광까지를 안은 가운데 맞는 오늘의 “평신도 주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감격과 은혜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비롯된 민족 복음화를 향한 300년대의 도약대에 서게 된 것을 모두 함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구원의 성년과 은혜

회고컨대 지난 5월 3일부터 7일 오전까지 역사적인 사목방문을 하셔서 교회사상 유래없는 현지

에서의 103위 시성식을 거행하셨고, 민족복음화의 거대한 전진인 한국교회 사목회의 개막을 친히 주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도구로서의 우리 신자 하나하나를 복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신운동의 전개를 촉진시키셨으며, 우리의 잔치인 갖가지 기념행사를 축복 속에 성대히 베풀 수 있게 해주신 교황성하께서는 작년 3월 25일, 성모영보 대축일에 성베드로 대성전의 성문(聖門)을 여시어 ‘구원의 성년’을 선포하시고 특히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이달 25일, (다음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성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연장된 ‘구원의 성년’은 교황님의 교서 말씀대로, ‘구원의 해가 교회 전체 생활에 특별한 인상을 남김으로써 크리스찬들이 영세할 때부터 전해받은 구원의 온갖 부(富)를 매일의 생활속에서 발견하도록 해야’하는 우리의 금년 한해는 참으로 은혜로웠고 거룩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로운 한 해를 감격과 축복속에 보내온 우리의 현실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과 혼탁 속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외적인 국내외 사정이 여러모로 어려운데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국민 네 명중 한 명 꼴이라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크리스찬다운 복음적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불안과 혼탁의 또 하나의 큰 요인이란 점을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세계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반목과 적대, 혼탁과 오염 속에서 헤매고 있음은 한 개인에서 가정,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삶의 목표를 오직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소유와 번영에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조와 가치관은 명색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자들의 의식과 생활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앎을 수 없습니다.

4. 가난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마디로 복음적인 생활은 ‘가난한 마음’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바로 사랑의 온상이자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사랑의 요소인 겸손, 온유, 인내, 자비, 관용 등의 덕목은 “가난한 마음”에 마주치면 그 파사로움이 녹아버리고 흡수되어서 사랑의 밑거름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언제나 여유와 여백을 지니고 물욕이나 권력, 명예욕 등의 사슬에 매어있지 않음으로써 항상 자유로운 인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진복팔단 제 1절에서 「하늘나라는 ‘가난한 마음’의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혼탁과 불안에 잠긴 오늘을 사는 평신도들은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을 그 영성의 바탕으로 삼고 그 구세사적 소명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5. 교황님께서 지적하신 영성적 성장

이 점에 대하여, 교황님께서도 지난 5월 6일의 전국 사목회의 개회식 강론에서 한국교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거룩한 선조들은 역시 진복팔단을 진심으로 믿고 또 살았습니다. 오직 큰 사랑과 복음적영성으로 유지된 이 산 증거만이 참혹한 박해 하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자랄 수 있었던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또 「오늘에 이르러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하느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고 있다」고 하시고는 가정·직장에서·사회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적인 성숙과 영성적 깊이에 있어서도 성장케 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6. 보다 활발한 활동과 평신도의 미래상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영향과 급변하는 사회변동의 추세에 따라, 평신도들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 그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온 점들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신도 사도직 교령이 말하는 “보다 활발하고 보다 광범한 활동”을 다짐하는 굳은 결의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한낱 교회의 손님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백성이요, 교회 신비체의 한 지체로서 세상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왕직을 수행해야 할 수도직에의 소명을 받은 자들임을 명심할 것입니다.

미래의 평신도는 사회의 다원화와 조직화 추세에 맞추어 전문화된 자신들의 생활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 한국교회 3세기의 도약대에 서서

우리 한국교회 제3세기의 도약대에 서서 우리 교회 200년대를 마무리 짓는 시대적 징표와 우리의 과제를 되새겨 봅니다.

전국적 일치의 해인 1984년 ………. 어느덧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해에 제시되었던 과제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반성합시다.

첫째, 인간 생명에 대해 경외와 사랑의 실천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둘째,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지체안에서, 주인의식을 망각하고, 친교의 공동체 형성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셋째, 헌신적 사회봉사와 예언자적 사명을 통해 사랑과 평화, 진리와 정의를 펴라하신 분부를 올 바로 실천했는가.

넷째, 이 땅의 완전한 복음화를 통해 민족과 문화에 기여해야 할 신앙의 토착화를 위해 평신도들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제17회 “평신도의 날”을 맞아 내적으로 깊이 쇄신하며,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멘.

제18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오늘은 18번째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입니다. 평신도의 날이 제정된 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을 재인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로서 평신도는 오직 맹목적인 순종만하면 천당에 가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 중의 절대적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신앙적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헌장」 4장에서 평신도의 본분과 역할을 명시하였고 「평신도 사도직 교령」에서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고린도1서 12,12-31) 이라고 표현되었고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며 신자는 기초(에페소 1,19-22)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각각 그 기능이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이는 것은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가 놓여지고 그 위에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건물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바와 같이 기초가 잘못 놓이면 그 건물은 곧 허물어집니다. 교회도 우리 신자들이 그 사명과 책임에 충실하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교회에서 신자는 경시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말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교회헌장 2장)하느님의 백성

이라는 뜻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회는 성직자만의 교회도 수도자만의 교회도 아니며 성직자·수도자·평신도가 다 함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므로써 그 본래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안의 각 구성원의 임무와 책임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성직자의 임무와 책임이 있고 수도자는 수도자로서의 임무와 책임이 있으며 신자는 신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역할이 다른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책임과 임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는 가정 안에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살고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육화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책임과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가정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사랑과 일치와 사도가 되고 각각 자기의 현실적 활동분야에서 정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만일 신자의 가정에 사랑이 없고 신자의 사회활동에 정의가 없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을 저 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능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회 안에서 복음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사업에의 참여입니다. 구원사업은 성직자와 수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부과된 사명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구체적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의 은총과 능력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존질서의 복음화를 신자의 특수한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복음화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화는 단순한 전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부정이 있을 때 이것을 정의롭게 만들고 경제에 불균형이 있을 때 이것을 균등하게 해야하며 사회문화가 비인간화될 때 이것을 인간화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평신도가 특별히 인권과 정의의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목현장 76항에는 인권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와 관련될 때 정치질서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은 이 세양에서 부정과 불의와 맞서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 인정의 진리,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현장」에 의하면 평신도사도직은 예언직, 사제직, 왕직의 세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도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선포할 책임이 있고 하느님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며 더 나아가 봉사와 희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직, 사도직, 왕직은 과거에는 성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미사참여만 하는 신자여서는 안됩니다.

오늘의 신자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의존하는 소극성을 탈피하고 자기의 능력과 은총에 따라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신자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해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교회의 주인이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신비체로써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들의 참여나 활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신자의 사도직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란 봉사입니다. 봉사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자들의 봉로나 활동에서 외형이 돋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과 말과 실천을 통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치입니다. 일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요한 17,20-23)

따라서 아무리 교회와 사회에서 봉사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분열과 불일치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치 안에서 봉사와 희생,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에게 부과된 가장 큰 소명입니다.

우리 신자가 참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에는 박해와 수난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특히 정의와 인권분야에서 헌신할 때는 더욱 큰 수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언자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인류구원의 보편적 성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오 25,31-4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신자들만을 구원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들이 먼저 빛이 되어 자기를 불태우고 소금이 되어 자기를 녹여버려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절대다수인 신자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저할 때 과연 누가 빛을 던지며 짠맛을 내겠습니까.

소수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빛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없으며 그분들만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평신도들의 힘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직자없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신자들이 그 책임과 임무를 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 신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교회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성직자의 증가율이 신자의 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총에 따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귀결입니다. 모든 것을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우리 민족사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역사의 주체로서 이 나라에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나라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땅에 육화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토착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려는데에도 우리 신자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선교 300주년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앞으로 우리의 민족과 함께 울고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주변의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이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랑과 정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같이 웃을 때 이 나라의 복음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은 교회나 역사의 객체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교회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자기의 은총에 따라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열 아홉째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특별히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 주일인 11월 셋째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정한 것은 평신도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유한 은혜와 직무를 부여받았으며, 하느님 백성으로서 모두가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까지는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사도직의 독특한 존재의미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가끔 필요에 따라 성사를 보며 적당한 헌

금이나 교무금만 납부하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주일만 지키는 신자로서 만족하였으며 신앙과 생활이 이원화하여 기계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교회의 모든 일은 성직자에게 일임하고 신자는 다만 순종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였사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교회의 사목활동에 있어서 성직자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평신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65년까지 개최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헌장 제4장에서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과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였고(37항), 나아가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현세질서의 복음화에 대한 평신도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교령 5항)

이제 오늘의 우리 평신도들은 성사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고 세속 안에서 각자의 분수대로 자기의 교회적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성무에 전념하고 수도자가 진복팔단의 정신으로 산다면, 평신도는 세속에 살고, 세속 일에 종사하면서 가정과 사회를 성화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평신도를 통해서 당신의 왕국을 확장코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성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오 5,16)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현세질서의 복음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세질서란, 가정을 비롯하여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분야를 모두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개혁하는 것이 바로 복음화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신도들은 먼저 현세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나라는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미 이 지상에서 현세적으로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헌장 35항은 이 세상의 암흑과 악신을 거슬러 싸워야 한다고 사회정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정치체계의 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평신도 교령 14항)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평신도들은 단순히 하느님에게 소망을 비는 기복신앙에서 탈피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총과 재능과 지식에 따라 분수에 맞는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직자를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하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직자와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스스로의 의견을 솔직하고 대담하고 지혜롭게 밝힐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교회헌장 37항) 우리에게는 본당 사목이나 교구 사목에 참여할 의무도 있고 때로는 성무에 참여하고(교회헌장 35항), 교회재산을 관리할 사명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우리 조상들의 죽음과 피로써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의 평신도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공동생활을 본받아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과제는 교회의 토착화에 있습니다. 외적인 발전보다는 내적인 발전 즉 육화된 교회의 모습이 시급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평신도로서 깊은 영성을 쌓아올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요한 13-35), 특히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외형적으로 훌륭한 건물도 좋지만, 사랑과 희생과 봉사가 없는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는 약 220만의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각 교구마다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 전체의 평신도를 답변하기 위해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평협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문제, 노동자·농민·청소년·노인·여성문제, 평신도 교육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평협의 재정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의 단체이며 대표 기구인 평협은 예산 부족으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신도의 사명과 위치는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확립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들이 모두 이 나라 천주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자각해서 우리들의 이름으로 보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이제 선교 제3세기를 향하여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된 교회의 모습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의 일을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의존하는 타성을 버리고 서로가 협력하여 어른다운 신앙과 교회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 교회가 쇠신되고, 밖으로 사회정의를 구현되고 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열 아홉째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절감하고 우리의 일

들을 수행해 나가는 의지를 다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슬기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제20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1968년 한국교회에서 평신도의 날이 제정된 이래 오늘로서 우리는 스무번 째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건대 한국 천주교회에서 평신도의 날을 정하게 된 것은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골로사이 1,18)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인 신도들이 모여서 이룩된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몸이 머리와 지체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때 머리없이 지체들만 모여도 몸은 아니며, 머리만 있고 지체가 없어도 몸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의 건축물(에페소 2:20)에 비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은 모퉁이 돌과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구성되었는데 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바로 우리들 신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은총을 받고 있으며, 이 은총에 따라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평신도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성사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65년까지 개최된(20세기의 성신강림으로 불리우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모두 포함되며 서로가 공동체로서 상호 협력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도 그들에게 주어진 은총대로 구원사업에 참여하고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교회헌장 33)

그러나 공의회가 폐막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는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평신도들은 스스로 교회 안에서의 자기 고유 임무를 포기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성직자, 수도자에게만 의존함으로써 스스로의 사명과 임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을 과소 평가하여 평신도들이 그들의 재능과 분수와 은총에 따라 세상을 복음화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길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발전을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평신도 사도직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교회헌장 33항) 그리스도께서는 평신도를 통해서 당신의 증거와 봉사를 계속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평신도 사도직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자발적 활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예언직·왕직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직을 수행해야 하며, 자기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사제직에 참여하며 모든 이의 봉사자인 그리스도를 닮아 봉사하고 희생하는 왕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평신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현세 질서의 복음화(평신도 교령 5)였습니다.

평신도들은 세속에 살고 세속일에 종사하면서 세상과 사회를 복음화하는 고유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는 가정·문화·경제·정치 등 세상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현세질서를 쇄신하고 사회 생활을 신앙의 빛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특히 정의의 구현은 평신도들의 특별한 소명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이 세상의 암흑과 악신을 거슬러 싸워야 하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평신도 교령 14).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성직자, 수도자와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력이라는 말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밝혀야 하며 솔직하고 대담하고 지혜롭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교회헌장 37). 언제나 성직자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순명하면서 사목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우리의 봉사와 희생은 언제나 겸손하고 정의로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때때로 영웅주의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언제나 선의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평신도 교령 14) 갈라진 그리스도인이나 비 그리스도인과의 협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내년이면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전국평협)가 발족한 지 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평신도 활동이 이제 성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에 대한 소극적·수동적 참여에서 탈피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적극 능동적으로 우리 고유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충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사도직 활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협은 이러한 평신도들의 활동과 소명의식을 공동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오늘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특별 현금이 있습니다. 이 현금은 바로 우리들의 협의체인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보내져서 교회 발전과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 평신도들의 협의체인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현금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교형 자매 여러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평신도로서 보다 많은 참여와 협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21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교형 자매 여러분!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 주일 앞둔 오늘은 예년과 같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우리나라 교회에서 평신도 주일이 제정된 것의 1968년이고 보면 오늘이 바로 스물한번 째 평신도의 날이자, 만 20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우리들 각자가 살아온 세상을 반성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겠습니다.

방금 독서와 복음에서 들은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어려운 때” 이 나라의 하느님 백성인 우리 자신은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다니엘 12,3)로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이 나라,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제물로 나 자신을 바침으로써(히브리 10,12)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스승 예수의 재림을 합당하게 준비하는(마르코 13,24-32)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는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을 눈여겨 볼 때 우리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무엇보다 진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간에 믿음이 없습니다. 책임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말을 해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이가 적습니다. ‘거짓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개탄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거짓 때문에 한국 사회가 떠내려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사회일수록 ‘가짜’가 많은 사회입니다.

홍수처럼 범람하는 각종 광고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선전하는 ‘바겐세일’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큰 일입니다. 가장 손쉬운 식품인 두부와 콩나물과 쌀마저도 공해식품이고 유해식품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믿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 인간과 인간을 묶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토대로 해야만 그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은 운전기사를 믿기 때문이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그 은행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 바탕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의 반대입니다.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진리의 근원이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을 되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다 선해지고 보다 발전하는데 필요한 덕목으로서도 믿음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믿고 사는 풍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현상과 정치 공동체가 공동선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한 데서 야기된 불신풍조도 능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모두 남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오”하고 남의 가슴만 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살며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 버리고 방조하거나 그 잘못에 동참할 허물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돌아서기가 바쁘게 고향을 따지고 누구의 허물을 들추면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은 없는지요?

믿을 수 없는 인간과 믿고 살 수 없는 세상 - 이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일이고 또 ‘인간의 길’을 역행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길’은 교회가 걸어야 하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그리스도 친히 걸으신 길이고, 변함없이 강생과 구속의 신비 속을 거쳐가는 길이 곧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의 길’을 바로 가게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이러한 신뢰회복운동에 우리 천주교 신

자들이 앞장서려고 합니다.

이미 1980년대 초에 전국평협(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 제창한 바 있는 신뢰회복운동을 오늘 평신도의 날 제정 스무돌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내년 10월에 열리는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성체성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대회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몸 운동’을 범 교회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 때, 우리가 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신 뜻에 따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때 ‘신뢰회복운동’은 ‘한마음 한몸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신운동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뢰회복운동의 주체는 신자인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되찾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믿는 것을 몸소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 믿고서는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굳게 의지하고 기도 속에 실천함으로써 나 자신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믿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과 윤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전개하는 신뢰회복운동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 해 나갈 때, 참으로 복음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사는 신뢰회복운동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서부터’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2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 신뢰와 평화 -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루가 21, 17-19)

방금 들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묵상)

오늘 스물두 번째 “평신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얼마만큼 신자다운 생활을 해 왔

는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 죽음을 죽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가 곧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묻고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정녕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얼마만큼 받았으며 과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을 죽기로 작정하고 있는지, 똑바로 살펴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구세주께서 당하신 박해 안에서 당하는 것 뿐이며 그 어떤 혹독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신 그 죽음 안에서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와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생명을 얻는” 고통이고 또 동시에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달 서울에서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가졌습니다. 행사 자체는 참으로 장엄하고 거룩하며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웃의 외교인에서 부터 외국의 고위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입을 모아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대회를 치르는 동안 성직자, 수도자들과 함께 우리 평신도들이 이바지한 바도 매우 큼니다. 행사 준비에 직접 온몸을 투신해서 봉사한 신자들은 물론이고 기도와 희생, 헌혈, 헌미, 헌금, 입양, 결연 등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참여해 주신 전국 모든 교구와 전세계에 두루 퍼져있는 해외 동포 신자 여러분들의 공헌도 매우 큰 것입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성체대회를 무사히 끝낸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제 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는 끝났다고 할지라도 대회 주제인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심을 우리의 생활로써 드러내 보이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겠습니까. 대회 자체는 끝났지만 성체대회 이전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성찬의 삶을 살아야 할 과제와 사명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체대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 3세기를 살고있는 오늘의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책무야 말로 막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천주교회는 편신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창설의 주역들은 물론이고 수 많은 순교자들, 특히 103위 성인들 중 대다수가 평신도라는 사실은 평신도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이끌어 왔고 교회역사 발전에 큰 몫을 해 왔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자랑스런 신앙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의 우리 평신도들은 이제야 말로 우리 자신의 영성을 더욱 깊이 있게 하는 가운데, 날로 각박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이 땅에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250만이다. 270만이다, 하는 우리 공동체는 양적으로 매우 성장한 반면 질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써, 지난번 세계 성체대회 여의도 장엄미사중 성찬의 전례 때 성찬의 신비에 동참하기 보다는 떠들면서 구경꾼 같은 몸짓을 한 신자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200주년 때는 거의 보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체대회 기념 심포지움(“한국교회의 성체성사”)에서 밝혀진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 조사보고’에 따르면 주일미사를 위해 집에서부터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소수(17.6%)에 지나지 않고, 미사의 독서와 복음 내용에 대해 미사 전에 미리 읽고 묵상하는 사람도 소수(1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절대 다수(93.2%)가 영성체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성체를 위해서 공심재를 반드시 지키는 신자는 절반이 채 안됩니다. 또 대죄가 있는 경우 고백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는 신자도 6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밖에 더 말씀 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신앙생활에 쇄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필요하고 책을 읽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진리를 터득하고, 그럼으로써 감사와 회심과 일치와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나눔의 성사인 성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는 삶입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해 오늘, 즉 제 21회 평신도의 날을 기해서 ‘신뢰회복 운동’을 크게 벌여 나가기로 선언하고 다짐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신뢰회복 운동 1년을 돌아보고 미진한 구석이 있으면 채워 나가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난 한해동안은 성체성년을 살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벌인 ‘한마음 한몸 운동’에 치중하느라고 본격적인 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하기가 벅찼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교회의에서도 성체대회 때까지는 한마음 한몸 운동 차원에서 신뢰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체대회 이후에도 성찬의 삶을 살기 위한 한마음 한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몸 운동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신 뜻에 따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때 신뢰회복 운동은 한마음 한몸 운동을 벌이는데 전제가 될 수 있는 정신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데서 나눔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음 한몸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도 신뢰회복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뢰회복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신앙과 사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되살아나서 교회와 사회에까지 번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러기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에서부터 우리 하느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사이에 이르기까지 서로 믿고 사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뢰회복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영성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평신도들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서로가 힘을 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성체대회 기간 중 엠마우스 성시간 강론에서 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그 때 한국의 모든 평신도들에게 호소한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제 성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로 성체의 현존에서 우리는 사제직의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교황님은 또 여의도 장엄미사에서 “제단 둘레에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와 감사를 드릴 때, 온 교회가 그 머리요, 그 구원자이며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이라고 하시면서 “참 평화의 도구가 되자”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뢰회복으로 참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제23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은 스물세번째 맞이한 평신도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고 각 본당마다 되도록 평신도가 미사 중 강론을 맡아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과 그 신성한 사명을 일깨우는 동시에 우리들 자신이 사도직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또 그러한 뜻으로 특별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신도의 날은 20세기를 마감하는 1990년대의 첫해이며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를 지내고 난 바로 다음해로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성찬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점도 되돌아 보게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현세질서의 복음정신을 깃들이게 해서 이 질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선포와 현세질서의 성화(聖化) 이 두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직자

와 수도자와 우리 신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있는 힘을 다해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도직 수행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직자가 해야 할 성무(聖務)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신도들이 해야 할 신도 사도직의 직분이 구분된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목자들이나 일반 신도들이나 다 같이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마땅하지만, 성직자는 세속에 살지 않는 까닭에, 세속에 사는 신도들이 보다 분명하게 세속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계서는 지난달 10월 16일 한국 주교단의 교황청 정기방문 때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의 내용을 설명하시며 “세속적 임무와 노력은 …… 평신도들의 영역”(43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 오히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적 지혜의 빛을 받아 교권이 가르치는 바를 깊이 염두에 새겨 두고 그 고유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겠다”(43항)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도들은 사목자를 도와드리기만 하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신도 사도직이라고 하는 고유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일미사 때 본당에서 신자가 성체분배를 한 다든지 하는 것은 손이 모자라는 사목자를 도운다는 뜻이 강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신도 사도직의 핵심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들은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주어진 일을 행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도 사도직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한 방도로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980년대에 ‘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금년 가을 들어서는 이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 탓이오’ 구호를 내세워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매우 큰 반향(反響)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서’ 출발한 신뢰회복 운동이 가정과 본당, 사회로 번져 나가서 이와 같은 신뢰가 북녘 땅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 온 겨레가 염원하는 민족의 재결합, 즉 평화통일의 길도 앞당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 탓이오’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면 어쩌나 싶어서 이를 기피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스티커를 떼뚱하게 붙이고서 규칙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한 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내외 정세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잘 대처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남북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작은 공동체부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노력을 확실히 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

저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과 허물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겸허한 자세가 앞서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믿는 이들부터 저마다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하고 고해성사(告解聖事)를 받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주님의 포도밭을 풍성하게 일구는 데에 큰 몫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고 한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강론 말씀을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1데살 5,5: 6)

감사합니다.

제24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생명의 문화’를 가꿈시다.

“그 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마르 13,27)

오늘 전례에서 우리는 세상 마지막에 관한 것과 사람의 아들이 뽑힌 사람들을 모으러 오시리라는 내용의 하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전례력의 마지막을 한 주간 앞에 둔 오늘, 이 땅의 교회 모든 하느님 백성이 다 함께 스물 네번째 평신도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눌러 이기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복음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기쁜종말’에 대비하면서 충실히 ‘그날’을 준비하고 꾸준히 기다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계절로 봐서도 지금은 11월 한중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 싹의 첫여름, 태양의 계절이 다 지나가고 만상홍엽의 단풍놀이 철마저 뒤로한 이 계절을 엄동설한의 모진 추위를 앞두고 인

생의 황혼기를 연상하게 까지 되는 이 달 11월은 또한 온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개인적인 죽음과 성서에서 가르치는 세상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자신있게 그날, 그때를 맞이할 수 있겠는지요?

짧게는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느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인지요?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느님의 열이 담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자연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생겨난 그 분의 선물이며 인류의 공동유산이요, 공동소유입니다. 밥 한 그릇이 상 위에 놓이기 위해서는 흙과 공기와 물과 바람, 태양, 별, 달, 벌레, 농민... 이렇게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협동활동을 해야하고, 그래서 이룩해 놓은 결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몸 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생겨났고, 생겨난 것 중 그 분 없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요한 1,3)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으로 좋았다”(창세 1,4)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이 공해로 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해 주는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게 마련인데, 3만6천여 개에 이르는 전국의 하천 중 대부분이 상류에서부터 더럽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파괴, 환경공해는 이기적인 탐욕과 어리석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창조질서가 깨어지는 환경파괴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 봐야 할 오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인간환경의 보전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환경을 위한 도덕조건의 보전이 시급한 처지입니다. 특히 인간환경, 인간생활의 기본 구조인 가정에서 생명권이 얼마만큼 보호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하느님의 창조질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죽여버리는 일이 계속 자행될 때 우리가 과연 “인간의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생존권이야 말로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1년에 15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낙태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의 생명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5천명에 이르는 생명이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나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 각자, 자신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낙태를 하면서도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태아의 생명권을 외면한 채 자연보호 운동을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낙태의 정당성을 찾는 감각으로 인권운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 생명이, 그것도 아무런 저항의 수단도 갖지 못한, 무방비 상태의

생명이 친부모에게 의해서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디오 ‘침묵의 절규’와 ‘이성의 소멸’은 수태 후 12주 쯤의 태아와 5개월된 태아의 낙태수술 장면을 초음파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아는 수술기구에 잡히지 않으려고 자궁 속에서 이리저리 필사적으로 요동을 칩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태아는 수술기구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져 나옵니다. 손도, 발도, 1센티 또는 2센티 크기로 잘려져서 나오고 부서진 머리의 잔해도 검붉은 피와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차마 바로 보지 못할 살해의 장면입니다. 살인하는 현장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근 어느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연수회에서 본당회장, 단체장 여러분이 교구장님, 지도신부님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비디오를 지켜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회장님은 분임토의 시간에 과거 젊었을 때 부인과 상의해서 낙태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오늘 비디오를 본 충격 때문에 자신이 죽는 날까지 평생토록 속죄를 해도 다 못할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별반 죄의식도 없이 낙태를 시킨 것이 이토록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 회장님은 뒤늦게나마 깨닫고 속죄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의식도 가지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고해성사까지 받았던 그 일이, 오늘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할컬 줄은 미처 몰랐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은 가톨릭 교회에 입교, 영세하면서 낙태가 살인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쫓아서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봉사하는 직종을 택해 취직하는 결단을 내리기 까지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활하는 한 낙태수술을 집도할 것이고, 수술을 하면 살인죄를 범하게 될 것이니, 산부인과 의사생활을 그만 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끝내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 “신앙인”이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창세 9,5-6) 인간의 피가 그 분께 부르짖으면(창세 4,10) 그 분은 그 이유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출애 20,13)고 하셨습니다. 교황청은 1974년 11월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여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인 동시에 인간이 가꾸야 할 책임임을 강조하였습니다.(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5항) 자연의 질서를 어기면 자연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징벌이 있습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34항) 교회는 한결같이 인간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면서 모든 성장과정에서와 똑같이 출발에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살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사업 자체를 거스리는 것이며, 또한 태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낙태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5월 회칙 “노동현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세계 주교들에게 보낸 교황 친서에게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세기 전에 자신의 기본권을 억압당한 것은 노동자 계급이었고, 이에 교회가 노동자의 신성한

인권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과감히 옹호한 바와 같이, 오늘날 다른 한쪽의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억압 당할 때 교회는 변함없이 과감하게 말 못하는 이들의 대변자가 돼야 할 의무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교황님은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복음”을 맡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인간화를 위한 본질적 조건인 “생명의 문화”를 보다 더 폭 넓게, 근본적으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신앙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여러분!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일찍부터 인공 유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자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오면서 인공유산의 합법화하려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1972년 11월 “인공유산과 피임에 관한 성명”과 1988년 5월 “인공유산과 불임수술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고 지난달 10월에 있었던 1991년 추계 주교회의는 오늘 12월 8일 “인권의 날”을 기해 “인간존중의 새 문화 창조”를 위한 주교단 사목교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또한 1975년 5월 주교회의 산하에 “행복한 가정 운동”을 발족시키고 각 교구마다 행복한 가정 운동 위원회를 통해 부부들에게 임신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은 신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전국에 있는 가톨릭 병원들이나 교구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에는 도움을 청하는 부부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족계획 방법과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임신을 했거나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나 미혼 여성들에게 안전한 출산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미혼모의 집과 입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 교회의 노력이 좀 더 널리 보급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일깨우고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하는 고유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 말씀의 청지기로서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문화”를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제24회 평신도의 날을 지내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신뢰회복 운동과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한 표어인 “내 탓이오” 정신에 비추어 보면서 “생명존중, 환경보전”에 더욱 더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2차 헌금은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하느님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복음 말씀 한 구절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마르 13,32)

제25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상품을 우리가 씁시다.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이 뚜렷이 나타날 그날,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날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주님의 날’이 오기를 빌어야 할지, 아니면 두려워 해야 할 지를 깊이 묵상하게 해 줍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 33주일이자 평신도의 날입니다. 1968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발족한 때로부터 스물 다섯 번째가 되는 날이며, 한국 교회는 1970년부터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 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정해서 이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오늘을 평신도의 날로 지내고 있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의회는 1965년 11월 18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발표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사도직의 중요한 임무에 불리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평신도들이 사도직에 불리움을 받고, 이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사도직을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간의 일치를 크게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왔을 때나 성당 밖에서나 한결 같이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성당에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몸을 모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지금 이 모습은 지극히 평화롭고 거룩해 보입니다. 또한 실제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 우리들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일터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자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신자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깊이 새겨봐야 할 일입니다. 밖에서 식사를 할 때 남이 볼까 부끄러워서 몰래 성호를 긋거나, 속으로 성호를 외우거나, 그나마도 생략해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내 탓이오’ 스티커를 달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물론 우리들 평신도 중에는 성당 밖에서도 당당하게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인임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해야 할 곳은 여기, 성당 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각자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삶으로써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 때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천재지변 등 커다란 재앙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겪게 되는 재난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야 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 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루가 21,12)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직과 예언직과 사제직을 수행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복음을 실천하고 증거해야 할 일로서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생명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 중 가장 존귀한 것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법의 정신이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7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신생아의 2배가 넘는 150만 명 이상의 태아들이 인공 유산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정부는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천주교회는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백만명 이상이 여기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정녕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복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나 자신의 편안한 생활만을 위해서 태아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악을 범해야 할 것입니까? 자녀나 일가 친척, 젊은 부부들이 낙태를 하려고 할 때 이를 묵인 또는 조장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평신도의 날을 지내면서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루가 21,18-19)하신 그 분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지금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문제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창조주 친히 설정하신 한계, “그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하시는 금령에 상징적으로 표현돼 있는 한계(창세 2,16-1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34항 참조)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지키자고 하는 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금단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였고, 이를 어긴 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 여기서 ‘에텐’은 ‘올타리’란 뜻으로 인간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을 비롯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 교회, 사회, 국가가 바로 올타리를 의미합니다. 이 올타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윤리와 질서와 규범을 마구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한계를 벗어나서 말하고 행동할 때 인간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하고, 올타리를 파괴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개인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인류의 원조 아담이 하느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과 같이, 오늘의 우리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파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슈퍼마켓이나 시장엘 가 보십시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에서부터 각종 농산물과 옷가지, 살림 도구에 이르기까지 외국 제품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외국 상품이 이처럼 범람하고 있는 것은,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웬 참견이냐”고 항변한다면, 이야말로 자기만 알고 남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극단의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외제를 즐겨 사용할 때 우리 상품 제조업자들이 넘어지고, 우리 노동자들이 어렵게 됩니다. 내가 먹는 외국산 농산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조업자가 더 잘 만들고 모든 분야에서 외국상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긴밀한 상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외면할 때 그 나라 상품을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 상품을 그 나라 국민이 사 주지 않는다면 누가 사주겠습니까?

교형 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우선 우리 천주교 신자들부터라도 우리 상품, 우리 농산물 쓰기에 앞장 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소하는 바입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고,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상품 역시 우리가 사랑하고 즐겨 사용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 또한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편안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파괴되고 맙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자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올타리를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된다”(사회적 관심 34)과 한 교회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제1독서에서처럼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검불처럼 타버

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게 될 것”(말라 3, 19)입니다.

물질과 권세와 쾌락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으로 이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현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신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참 평화와 참 생명을 얻기 위해 순간적인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날 죄인으로 판결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현세에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루가 21,19) 아멘.

제26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새 복음화와 도덕성 회복 - 참 신앙인으로 더 잘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스물여섯번째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창립 스물다섯 돌을 지내는 은경축(銀慶祝)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서 우리는 오늘 매우 뜻깊은 날을 자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평신도는 매일 매일 이 세상 한가운데에 복음을 살도록 불리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선교사로 불리어졌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하신 그분 말씀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고린1. 9,16)이라고 한 사도 바울로의 열정(熱情)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닿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새로운 복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회칙〈교회의 선교 사명〉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과 일부 새로 태어난 교회들 중에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렸거나 때로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서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복음화 또는 재복음화(再福音化)가 요청된다고 지적하고 “선교의 결의를 새롭게 할 것”(평신도 그리스도인 34)을 당부하십니다.

새로운 복음화란 성령의 새로운 열정에 힘입어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리는 새로운 선포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 분의 사업과 복음을 알리되 스승으로서

보다는 증거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모든 일의 근본에는 형제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책임자가 될 사람도 그러한 직책에 앞서 한 형제이며, 스승이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마태 23,8)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겸손과 애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지능 면에서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감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해, 특히 보잘 것 없는 이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그러한 재능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마태 25,29)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길을 걷고 고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충실하냐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각자 나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인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저 돌려 드려야 합니다. 처음 받은 만큼만 돌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불려서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세속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평신도의 활동무대는 당연히 세속이기 마련입니다. 세속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0월 반포한 자신의 열번째 회칙 〈진리의 광채〉에서 “사회 경제적인 불의와 정치적 부패가 판을 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철저한 쇄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윤리적 쇄신을 통해서만이 정의와 연대, 정직과 개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고 역설하십니다. 교황님은 살인자 집단학살, 낙태, 안락사와 자살, 지체절단, 육체적 정신적 고문, 굴욕스러운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 우리 현실에서도 깊이 헤아려 봐야 할 문제입니다. 30여 년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오랜 세월을 걸쳐 누적돼 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이를 바로잡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통문화의 쇠퇴와 환경의 파괴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특히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점을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대학 교수 한 분이 대학사회의 위기를 고발한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교정에서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저씨 왜 그러세요”하는가 하면 잔디밭에서 두시간 이상 큰 소리로 떠들고 술타령을 하다가 타이르는 교수에게 “교수면 다냐”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학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들을 바로잡아 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럴 엄두도 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의 환경오염을 힐난하면서 자기 자신은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복도에까지 침을 뱉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환경을 더럽히고 폭력을 일삼는가 하면 차선 위반, 불법 끼어 들기 등 난폭 운전을 태연하게 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닌지 성찰해 볼 문제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제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 직분을 다한다면 적어도 인재(人災) 즉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우리는 대체로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 본성을 엿볼 수 있어서 서글픈 심정입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일수록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터인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남의 몫까지 차지하면서 염치없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돼야 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00명에 일곱 사람은 가톨릭 신자인데 그 7%만이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됐더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지, 돌아 볼 일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긴요한 것은 도덕적 타락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불이익이 아닌 존경을 받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장상(長上)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정직한 심성의 회복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뒤진 것은 몇 해 안에 따라 잡을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뒤떨어진 것은 몇 십년이 가도바로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한시 바빠 바른 길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회심(悔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 천주교 평신도들이 앞장서야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어딘가 달라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특히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바르게 살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길입니다. 환경을 보전(保全)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상품 우리가 쓰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먹는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이 시대의 평신도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1994년은 유엔이 정한 ‘국제 가정의 해’인 동시에 우리 가톨릭 교회도 한해동안 전세

계적으로 가정이 곧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항상 새로운 사랑이 꽃피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파괴된 가정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각 본당 평협 또는 사목회 대표와 교구 단위 단체 대표들로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결정하고, 군종교구를 포함한 전국 15개 교구 평협과 전국 규모 단체 대표들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조직해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평협은 순교자들의 시성, 시복운동을 비롯해서 도시와 농촌 교회간의 자매결연 운동, 신자재교육과 봉사자 양성을 위한 신앙대학 운영, 그리고 신뢰회복운동 차원에서 ‘내 탓이오’와 ‘우리 상품 쓰기’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제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 교구 평협에서 벌여 온 일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미사중 전국 각 본당에서 실시하는 특별헌금은 이와같은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좋은 뜻으로 하느님 사업에 동참하는 이에게는 그 분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끝 부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 강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1데살 5, 5~6) 아멘.

제27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인류의 희망,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27회 평신도의 날입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주일 앞두고 오늘 평신도의 날을 지내는 것은 적어도 한번은 모든 평신도들이 다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 나가자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성자를 인간 세계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세우신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 대리자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

든 하느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삶으로써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도록 마련하신 것입니다. 세속에 살면서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이 곧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성취하는 자리가 되고 그 수단이 됩니다. 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인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매사를 관리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를 찾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교회 헌장 31) 그러기에 복음에 나오는 소금과 빛과 누룩의 표상들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평신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15) 생활의 증거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평신도들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보편적인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사건,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살인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연습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복살인이다, 공직자 비리다, 뭐다 하면서 별스러운 범행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달 21일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이르러서는 무어라고 분노를 터뜨려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날 때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각계 인사들은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개탄하고 질책하지만 그 누구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모두들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망각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 책임지는 이가 없고, 책임질 줄 모르는 세태가 돼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 천주교 평신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누룩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에 사는 우리 평신도들이야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마태오 20,7)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마르코 16,15)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요한 15,16)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파견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17) 세례로써 불리움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이웃의 궁핍에 대해 주의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배려와 연대감, 서로간의 나눔을 실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떼어 낼 래야 떼어 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바로 잡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실의에 빠져 있거나 그 원인을 규명하고 누구의 탓인지를 가려내는 데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 돼 가고 있다면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100명 중에 7-8명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들 만이라도 진정으로 이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느님을 합당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이 과연 이렇게까지 황폐해졌겠는지, 생각해볼 일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가 살 때 세상은 변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기 앞서 내가 먼저 변화하도록 노력할 때 세상은 조금씩 달라져 보이고, 실제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이미 1980년대부터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해왔고 오늘 평신도의 날을 계기로 이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상품 우리가 쓰고 우리 농촌을 우리가 살리는 운동에도 평협이 앞장 서 나가면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제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전국의 모든 신도들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한국 평협은 지난 9월, 경기도 의왕시 아론의 집 등에서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 위원회와 공동으로 첫 번째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개최하고 평신도의 교회 사명 참여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연결시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요컨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 신앙과 생활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억압 받는 이들을 위해 일하며 젊은이들과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이들, 아동과 노동자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불리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평신도들에게 “보다 참된 인간 발전을 가져오는 단순한 생활을 해나가면서 아시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펼쳐 일어나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

두가 각자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당 안에서만 열심히 신자라는 자부심을 갖는 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노인을 공경하며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각자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학교와 직장 사회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현실이 비록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은 곧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참으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 계시는 인격적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쁜 소식’이며 기쁨의 전달자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과 사랑의 표지요 원천으로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 현존하게 되는 것입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7)

오늘 평신도의 날 2차 헌금은 우리 본당과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그리고 전국평협이 조직적인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펴 나가는 데에 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 한 구절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마르 13,30,31) 아멘.

제28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은 스물 여덟 번 째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 전례력상 막바지에 이른 오늘을 평신도의 날로 정해서 이를 기념하는 것은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추구’(교회헌장 31항)하도록 불림을 받은 우리 평신도들이 올 한해동안 과연 얼마만큼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생활로써 이를 증거해 왔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신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반면 냉담자는 날로 늘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현재의 통계를 보면, 천주교 신자가 333만 8천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7.51%에 이르지만 행방불명자와 냉담자를 합해서 교회와 떨어진 사람이 24.6%나 됩니다. 교적에 있는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통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가 썰렁할 정도로 어린이와 청소년층 다수가 성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다리입니다.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온갖 유혹과 내면의 갈등, 그리고 현대문명이 가져온 폐쇄와 고립의 문화로부터 이웃을 필요로 하고 대화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문화를 가꾸는 젊은이가 되도록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꿈꾸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평신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본당과 단체, 어디서든지 청소년의 눈으로 청소년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젊은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특별한 방법으로 젊은이들 안에서 그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5년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보낸 사도적 서한’)

사도 성 요한은 그 첫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악마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I요한 2,13이하)

“젊은이들의 감수성은 정의와 비폭력과 평화의 가치 인식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세상의 불안과 기만, 고뇌와 공포에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의 처지에 따르는 여러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46항)

젊은이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대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청소년들에게 보낸 메시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증언해야 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때마침 우리 교회에서는 몇 해 전부터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천년대를 앞두고 펼쳐나가는 이 운동은 각 본당이 ‘소공동체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안’을 근거로 한 가정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가운데 각자 삶터를 복음의 장(場)으로 삼아서 소공동체를 이뤄나가자는 운동입니다.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지혜의 은총-노인들, 여성과 남성, 이 모두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가정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평신도의 의무가 시작되는 최초의 장소’입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40항) 그러기에 가정 공동체가 튼튼해야 가족들이 본당생활과 사회생활도 제대로 신자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하느님 백성 중 절대 대수인 우리 평신도들이 잘 살아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평신도가 많아야 훌륭한 성직자, 덕성 높은 수도자가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부정과 불의, 탐욕과 퇴폐가 갖은 방법으로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의 말씀, 곧 복음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태 22,37-40)고 하신 그 분의 계명을 실천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해 드릴 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매순간 형제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 자신을 내어주면 줄수록 자신들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87 주교시노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와 세계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과 소명’-평신도 참석자 끼아라 루빅)

예수께서 일러주신 ‘새 계명’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15,12)

항구함을 지니고 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서로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초대 교회에서처럼 성령께서 깃들어 계심으로써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 중에 잘못 가고 있는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동체 안의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다면 그 형제를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세상의 여러 그룹과 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의 일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단체나 운동들을 자기 단체처럼 사랑하고, 다른 본당과 다른 교구, 다른 나라까지도 내 본당, 우리 교구, 우리 조국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원의와 노력이 따라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로 가는 길에도 지역간의 감정과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요한 13,35) 하신 그분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표지(標識)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언제나 웃음을 머금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형제 자매들과 쉬고있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쁘게,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똑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작금 각종 대형사고에 이어서 고위 공직에 있던 인사들의 비리와 부정 부패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혼돈의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처량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양심이 마비된 그런 말과 행위는 끝없는 탐욕과 애착의 소산이며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은 가치관이 빚은 결과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요한 3,21)고 하신 그 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대의 징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을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깊이 헤아려 봐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자신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하고 행동해 왔는지를 돌아 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통적 미풍양속을 되살리고 도덕적인 품성을 되찾자고 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의 도덕성 회복 실천운동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 서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도덕성 회복운동 실천 표어' 참조)

각자 삶의 터전에서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루카 21,13)

아멘

〈도덕성 회복 운동 실천 표어〉

* 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르게 사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잠언 28,18).

개 인	공 동 체
-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 화내기 보다 사랑하겠습니다. - 말보다 실천하겠습니다. - 바른말 고운말을 쓰겠습니다. - 분수에 맞게 생활하겠습니다. - 집안일을 돕겠습니다. -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겠습니다. - 퇴폐, 폭력 비디오를 보지 않겠습니다. - 우리 농산물을 먹겠습니다. - 우리 상품을 쓰겠습니다. - 매일 책을 읽겠습니다.	- 어른을 바로 모십니다. - 먼저 인사합니다. - 자리를 양보합니다. - 줄서기와 차례를 지킵니다. -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십니다. - 부정,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친지 기념일을 축하해 주십니다. - 직장을 내 집처럼 가꾸십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에 앞장섭니다. - 물품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씁니다.
*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에페 4,29). *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기가 꺾인다(잠언 15,13).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제29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9회 평신도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3천 년대를 준비하는 마지막 5년의 첫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신”(갈라 4,4-5) ‘주님의 은총의 해’가 시작된 지 2천년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대희년 길잡이 1,21). “제3천년대의 문턱에 들어서시는 역사의 이 위대하고도 극적인 순간에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

의 사명에 있어서 능동적이고도 역사적이며 책임있는 역할을 맡게 한(평신도 그리스도인 3) 교회의 가르침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주님의 은총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교회 안에서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국제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자살율이 세계 2위인 우리의 현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문이 막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까요. 제도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청소년 자살율 1위의 망국병 국가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29회 평신도의 날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살피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과연 지금 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천년대 주교특별위원회는 구세주 강생 2천년 대희년을 맞이하며 펴낸 ‘대희년 길잡이’를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만을 내세운 산업화가 빚어낸 사회의 황폐화와 환경오염, 약육강식으로 인한 부의 편중과 계층간의 갈등”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균형없는 도시화는 엄청난 도시빈민을 양산했는가 하면 거둬드는 농정의 실패는 농어민의 몰락과 이향을 부채질 했으며 가정파괴와 가족의 와해’ 역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합적 위기현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향락 제일주의는 도덕성의 상실로 이어졌으며 이는 약자에 대한 소외는 물론 급기야 생명경시’로까지 발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국제적 망신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는 또 어떻습니까.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도시 난민들의 절망과 울부짖음, 부정한 권력과 불의가 낳은 불신과 불화’ 등등 주교님들의 지적대로 지금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의 집을 잃어가는 실랑민이 되어가는 것 같아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대희년 길잡이 1,25)

어디 그 뿐입니까. 격변의 20세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복과 분단을 함께 맞은 이래 우리 민족은 6.25동란이라는 민족적인 비극을 겪어야 했으며 무려 반세기 동안 동족 상잔, 이산 가족의 아픔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강들의 이해다툼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문제를 자율적 입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구세주 강생 2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우리 평신도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바로 평신도인 우리가 평신도답게 살지 못한 데도 기인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사회의 총체적 위기가 우리 평신도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점은 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 91년에 반포한 회칙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평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시킨 회칙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현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안에서 평신도의 투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성사에서 흘러나오는 동일한 존엄성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는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교회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한발은 교회에 또 한발은 사회에 딛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듣고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한 사람의 교회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사명에 참여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평신도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이며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평신도는 바로 우리 교회 평신도의 모습이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전통이자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가 아주 독특한 신앙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신앙과 생활의 이원화 현상입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안주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주의 폭이 깊다 보니 우리들만의 공동체로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살아왔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이지만 교회밖 사람들과는 전혀 남인 듯 살아온 신앙과 생활의 이원적 구조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현실은 복음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 교회의 신자 증가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신자 증가의 하락세는 도시와 농어촌 구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떠올리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3천년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새 복음화의 신기원을 마련할 것인가(대희년 길잡이 2,24) 연구해야 하는 한국교회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의 부족에도 기인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중심으로 그 동안 무수하게 발표된 교회의 다양한 가르침과 우리 평신도들은 거의 무관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정신으로 무장되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2천년대 복음화를 준비하는 도정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최근 수년간 2천년대 복음화를 준비하는 주역으로서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청소년 문제를 비롯, 환경과 농촌문제,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육과 활동 등 새로운 복음화를 추구하는 여정에 앞장 서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눈앞으로 다가올 2천년대를 생각하면 우리의 이 같은 선택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적 위기와 우리교회가 담당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감안한다면 우리 한국 평신도들의 위상과 역할은 참으로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문에 2천년 대희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지향하는 새로운 복음화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결

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3천년기의 문을 여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평신도들의 선택은 하나여야 합니다. 앞서 지적 대로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죽음이 필요했던 시기에 생명을 내 놓았고 투신이 필요한 시기에 망설임없이 자신을 투신했던 우리 평신도들에게 있어 오늘의 시대는 증거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삶은 다름아닌 변화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감에 넘치나 자만하지 않는 평신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평신도, 우리 교회는 그런 평신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신도가 진정 변화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저절로 풀려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평신도들은 그 동안 전개해 온 수많은 운동들이 사회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찌면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운동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땅으로 대표되는 창조계 전체와 사람이 본래 하느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류문명의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과 공동체를 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말 그대로 ‘사랑의 문명’을 이루어간다면 인류에게는 과거에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의 참된 세계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대희년 길잡이 1).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자유를 찾아주는 ‘해방’과 함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이라는 희년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대희년 길잡이 1,15) 이 땅에 구현하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23세께서 즐겨 말씀하신 대로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드는 ‘동네 샘’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거듭날 때 거기서 인간의 열망에 대한 응답이 나올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27). 그 곳에선 우리의 죄없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어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0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력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시기인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 주일이 제정된 후 서른 번째로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폐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8년, 한국 주교회의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해마다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2년 후인 1970년부터 연중 마지막 주일(그리스도왕 대축일) 바로 전 주일로 옮겨 지내게 되었습니다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신도들은 해마다 평신도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 왔습니다. 오늘 서른 번째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는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리를 굳게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2천년 대희년을 불과 2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보편 교회는 대희년을 직접 준비하는 첫 번째 해인 올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성자의 해로 지내고 있으며, 곧 다가올 98년을 특별히 성령의 활동을 깊이 체험하는 해로 지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를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히브 13,8)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가운데 2천년 대희년의 준비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희년을 참으로 뜻있게 맞이하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희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이 요청되는지를 먼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희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곧 ‘원상회복’(原狀回復)입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 하신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때 우리는 희년이 가져다주는 참다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루가 4, 18-19 참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희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에 기초한 기쁨, 회개의 기쁨입니다”(제3천년기 32항).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자기 자녀들의 죄과를 더욱 철저하게 의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신앙의 가치에 영감을 받은 삶을 세상에 증언하기는커녕, 참으로 반증거와 추문의 행태를 보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빠져들어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역사의 모든 시대를 그 자녀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제3천년

기 33항)는 것입니다.

따라서 3백50만 우리 평신도들은 희년이 가져다주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걸어왔던 지난 삶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본연의 자리를 새롭게 확인하고 잃었던 그 자리를 되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희년의 기쁨은 성령의 선물로서,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미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일선에 서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지체로서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들의 자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평신도만이 지니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이 고유한 특징을 “세속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속은 그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평신도들은 세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며 특히 믿음과 바람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교회헌장 31항)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 본연의 자리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습니까. ‘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의 현주소는 우리가 본연의 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본당들이 사명과 나눔과 섬김의 복음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또한 교회 자체인 우리 자신들의 삶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의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윤리와 도덕관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제1의 신조처럼 사회 전체에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공동체 정신은 아랑곳없이 권력욕과 명예욕과 물질욕이 최상의 가치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나머지 참으로 사람다운 삶, 인간미 넘치는 사회는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사회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급기야는 거꾸로 뒤바꾸고 있는, 참으로 ‘혼돈의 세계’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세속을 하느님의 뜻대로 비추고 관리함으로써 성화시켜나갈 우리 평신도들이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이미 지난 9월 6일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라는 성명을 통해 “지

난날의 낡은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어 온 상황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더욱 가중시킬 정도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치인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3백50만 평신도를 비롯한 국민 각자가 제자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실망할 때는 아닙니다.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쇠신하여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그릇된 가치 질서를 바로잡고 병든 사회를 새롭게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시대의 낡은 정치행태도 바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서른 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평신도 주일을 계기로 회년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회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천년의 대희년을 참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잃었던 우리 본연의 자리를 다시 찾아 그 자리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하신 그 본연의 상태를 되찾으려는 실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나아가 회년의 기쁨을 구체화하는 사랑과 나눔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전체에 가득 차 흘러 넘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평협은 3백50만 평신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고 뜻을 합쳐 나갈 것입니다. 평협은 이 운동을 우선 회개의 정신으로 겸허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그 본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리 자신을 비롯해 우리가 처한 이 사회가 제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본연의 자리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협은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리 찾기가 한낱 구호로 그치지 않고 참으로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 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백50만 평신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뼈저린 각성과 쇠신 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을 참다운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이 제자리 찾기 운동은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가슴 벅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천년 대희년의 직접 준비 단계의 첫 번째 해인 성자의 해를 마감하면서 두 번째 해인 성령의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은 이 땅의 평신도 사도직을 촉진하고

모든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발족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뜻 깊은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대희년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이 3백50만 평신도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밑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난 1968년 평신도 주일을 제정하면서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기로 한 것은 한국 천주교회 창설 주역의 한 사람인 이승훈(베드로)이 1783년 동지사(冬至使) 일행을 따라 북경으로 들어가던 때와 맞먹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순수한 일념으로 이국 땅을 찾아 들어가 마침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은 우리에게 큰 자극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피흘려 하느님을 증거한 순교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거듭나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만사를 당신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11월 16일

제31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사랑의 마음으로 대희년을 준비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른 한 번째 평신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태어난 지 서른 돌이 되는 해여서, 평신도 주일을 지내는 우리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중앙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복음화와 평신도 사도직의 능동적인 수행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던 30년 전의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직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더불어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평협도 교회의 대희년 준비와 발맞추어 지난해 평신도 주일을 기해 희년의 정신을 우리 평신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고자 ‘제자리 찾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이 ‘제자리 찾기’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반성하면서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2000년 대희년을 참으로 뜻있게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 교회는 2000년 대희년을 직접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인 1999년을 ‘성부의 해’로 정해, 모든 “신앙인들이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의 전망 안에서,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망 안에서 사물을 보게 하려는 것”(제삼천년기 49항)이 그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만사를 바라보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특별히 “이 해에는 사랑의 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제삼천년기 50항)고 밝히십니다.

우리는 보편 교회와 교황 성하의 이같은 뜻을 따라 이번 평신도 주일을 계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바라보며 2000년 대희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야말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자 또한 구세주 친히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써, 삶과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실상 우리 인간과 세상을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하느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기심과 가식과 편견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계기로, 다가오는 성부의 해를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에서 벗어나 악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을 지향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고해성사가 바로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측면과 관련된다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삼천년기 50항 참조) 따라서 성부의 해를 앞두고 우리 모두 화해와 참회의 성사인 고해성사를 통해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합니다. 나아가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가정과 이웃에서 화해와 용서의 모범을 보입니다.

참다운 회개의 표시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 일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 사랑에 메말라 방황하는 이, 가정의 파탄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선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주위를 조금만 관심있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도처에서 사랑의 손길을 바라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가가 형제적 나눔을 실천합시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가진 것을 서로 조금씩 나눈다면,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또한 하느님께 바치는 더없이 값진 찬미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70만 우리 평신도들의 삶이 이렇게 펼쳐질 때에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주교님들은 지난 10월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2000년 대희년 맞이 운동으로 ‘새날 새삶’ 운동을 제창하셨습니다. ‘새날 새삶’ 운동이란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거둬나 사랑의 눈으로 만사(萬事)를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만사를 대하자는 운동입니다. 주교님들이 앞장서 펼치시는 ‘새날 새삶 운동’에 정성과 열정을 다해 동참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바라보며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자는 우리의 결의를 굳힙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증거합시다. 그러할 때에 2000년 대희년은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쁨의 해로, 주님 은총의 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1998년 11월 15일

제32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사귄다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32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지난 1968년 평신도 주일이 제정된 이후 우리 평신도들은 해마다 이 날을 특히 평신도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날로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세주 탄생 2000년의 대희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희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저 놀라운 ‘은총의 해’(루가 4, 19)를 상기시키면서 희년의 정신으로 거듭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희년 경축을 합당하게 준비하라는 교황 성하의 가르침에 따라 이미 3년 전부터 희년의 정신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쇄신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96년), ‘이제 제 자리를 찾아 나섭시다’(97년), ‘사랑의 마음으로 대희년을 준비합시다’(98년)라는 평신도 주일 강론 주제들은 모두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대희년 맞이 평신도 대회”를 지낸 바 있습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 평신도 대회는 대희년을 앞두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우리 평신도들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평신도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삶을 교회 공동체와 민족 사회 앞에서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사귄다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거듭나 대희년과 새 천년기에 새 복음화의 사도로 나설 것을 결연히 선언했습니다.

이런 마음과 결의를 모아 우리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계기로 ‘사귄다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2000년 대희년을 참으로 합당하게 경축했으면 합니다. 이 사귄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야 할 ‘하느님 나라’의 전형(典型)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건설에 매진할 때, 그것은 또한 구세주 탄생 2000 주년을 맞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귄다 섬김과 나눔이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지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만 친교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봉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접을 받고자 했고, 때로는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다고 하지만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기보다는 보답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기조차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런 행태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두고 주님께서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요한 15, 15)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 12)는 것입니다.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은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잘못된 모습을 청산합시다. 사심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가꾸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을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속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세속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평신도들의 고유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준다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루가 6, 32-33)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과도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한 없이 자비로우신 분, 사랑 자체이신 분임을 알리도록 합시다. 또 이런 증거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시켜 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선교이며, 새 천년기에 요청되는 새 복음화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40일 후면 우리는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의 대희년을 맞이하게 됩니

다. 대희년이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 벅찬 은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읍시다. 참다운 사귄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도록 합시다. 부족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 드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새날 새삶’을 열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 하기를 빕니다.

1999년 11월 14일

제33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 33주일인 동시에, 새 천년기에 맞이하는 첫 번째 평신도주일입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서른 세 번째로 지내는 오늘 평신도주일 성서 말씀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11월의 늦가을은 그 자체로 우리의 스승이며, 위령성월도 후반기로 접어든 이즈음, 우리 중의 누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우리에게 묵상거리로 충분히 주고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문 앞에 이르렀고, 그와 함께 사람의 아들도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이 표현에는 심판과 구원과 심판자가 결합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대목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지니고 있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마르 13,31)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은 천지보다 영원하며 사람의 아들의 심판에서 기준이 됩니다.

복음서는 계속해서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13,32)면서 항상 깨어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 신자에게 종말론적 기다림은 매일 매일의 활동과 일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갖 사물과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더욱더 합당한 요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항상 깨어 생활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루가 12,49)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도직의 핵심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불은 우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번져갑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라고 하셨습니다. 불이 정복하고 휩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듯이 사도직의 힘은 서로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현존’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서 번져갑니다.

우리 사이에 이러한 서로간의 사랑이 있고, 다른 이들이 이러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 때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현존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때까지 참으로 우리는 형제와 함께 머무르고, 함께 느끼며, 하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룩하면서 선교의 열정으로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는 지난 달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희년 평신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29일 장엄미사 중에는 ‘새 천년 한국 평신도의 반성과 다짐’을 통해 그 동안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새 복음화의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모든 평신도가 이를 실천함으로써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더 잘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 우리는 먼저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을 열심히 하여 자신을 성화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족이 함께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 우리는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적극 투신하여 적어도 한 해에 한 사람 이상 입교시키겠습니다.
- 우리는 해외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수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해 자신이 받은 재능을 값있게 쓰겠습니다.
-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민족이 하나되는 날까지 북한 동포들과의 나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벽과 골을 메우는 일

에 적극 나섬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날 평신도대회에서 30년 전 선배 평신도들이 ‘103위 한국 순교복자 시성운동’을 전개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시금 마음을 모아 첫 번째 전국적인 박해인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기도운동에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0년 11월 19일

제34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형제 자매 여러분,

연중 제33주일인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가 정한 제34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1968년 주교회의의 가을 정기총회에서 평신도의 날을 지내기로 한 이후 해마다 연중 마지막 주일(그리스도왕 대축일) 바로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 안에서 현세 사물을 비추며 관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 받은 우리 평신도들이 시대에 요청되는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시대에 요청되는 평신도 사도직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운동 실천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운동은 오늘의 사회에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양심과 도덕이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어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여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자는 의식 계몽 운동이자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시작한 똑바로 운동은 주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이제 전국 각 교구와 본당으로 일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이 단지 연례행사 치레로 하는 일회적인 구호성 운동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응하기 위한 ‘시대의 요청’이자 우리 ‘그리스도인 양심의 호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똑바로 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것을 결연히 다짐하는 날로 지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똑바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들은 독서와 복음 말씀은 똑바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1독서의 말씀처럼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제2독서의 말씀처럼 게으름을 부리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일해서 제힘으로 벌어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시류에 영합하여 잇속을 차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올곧고 떳떳하고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똑바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 잇속도 차리지 못한 채 바보처럼 산다는 편잔을 받을 수도 있고, 혼자 올바른 척, 정직한 척 하지 말라는 조소나 질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이런 유혹이 머리를 쳐들고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느님 두려워할 줄 알고 말없이 제힘으로 성실히 일해서 벌어먹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때에는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승리의 태양이 비취와 우리의 병을 고쳐” 똑바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평신도 주일을 맞아 똑바로 운동에 결연히 나서려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새삼 위안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에 힘차게 나섭시다. 나부터 그리고 우리 함께 생각을 똑바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 전체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로 변화시켜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01년 11월 18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35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서른 다섯 번째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제자로서 가정과 일터에서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마태 20,3-4)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포도원은 온 세상, 곧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똑바로 바꾸어 나가야 할 세상입니다.(‘평신도그리스도인’ 1항 참조)

1. 평신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증거를 통해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는 사명을 지닌 우리 평신도는 성세성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에 속하고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린 사람들”(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31)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 동안 꾸준히 강조해오신 ‘새로운 복음화’는 바로 “나부터 복음화되어야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열심하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복음화는 이미 복음화 된 지역이나 사람을 다시 복음화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으로 복음화에 투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사도직 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복음화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 전개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지난해 가을부터 벌이고 있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 역시 증거를 통한 새 복음화 노력의 하나입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은 인간화 운동이며 인간성 회복운동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해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자는 것이 똑바로 운동입니다.

‘똑바로’라는 말은 ‘바르다’, ‘곧다’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바른’, ‘의로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뒤바뀌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내리면서 부정과 부패가 실타래처럼 이어

지고 있는 현실은 그리스도 신자인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똑바로 서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심을 똑바로 가져야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진실을 담아 똑바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똑바로 하고, 정치와 경제생활도 똑바로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달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성당에 와서 자리를 잡을 때도 똑바로 자리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신 분이 먼저 앞자리에서 가운데부터 앉으신다면 뒤에 오시는 분을 배려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똑바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취지에는 찬동하면서도 정작 ‘똑바로’ 스티커를 붙이는 데는 조심스러워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한 마디로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우리는 성인(聖人)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므로 잘못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들도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지만, 잘못하는 그 순간 즉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서 완덕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3. 성덕으로 나아가야 할 평신도

교황님께서는 2000년 대희년의 막을 내리면서 발표한 교서 〈새천년기〉에서 성덕의 중요성을 다스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교회는 현시대와 새로운 영성의 요구에 부응한 성인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서는 “예비신자에게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하고 묻는 것은 ‘성화되기를 바라십니까?’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제31항 참조)

교서는 또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친교의 영성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고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은 평신도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교황님은 지난해 2001년 10월 21일 처음으로 한 쌍의 부부를 동시에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순교하지 않은 부부 복자의 탄생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전반 로마에서 살았던 루이지와 마리아 벨트라메 콰트로키(Luigi e Maria Beltrame Quattrocchi)가 그들인데, 그들은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깨닫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려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교회생활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면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자녀들 중 셋이 하느님께 자신들을 봉헌했고, 네 번째 자녀인 딸이 태어나려 할 즈음, 의사들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우니 낙태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들 부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를 낳고자 했습니다. 이 딸은 그 후 언제나 부모님 곁에 머물러, 양친이 세상

을 떠날 때까지 보살펴드렸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성인들의 증거로부터 영감을 받으면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았던 이 부부는 성덕에 이르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 평신도 주일을 지내면서 듣는 하느님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준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남편에게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 칭찬 받고, 모험을 피하고 거짓 안전을 취한 쓸모 없는 종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뿐만 아니라, 쫓겨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2독서에서는 ‘빛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자”(I 데살 5,6)고 당부합니다.

오늘 들은 성서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살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깨어있음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과 사회에서, 또한 본당과 교회운동 단체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포도밭을 가꾸는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똑바로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끝으로 오늘 2차 헌금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위해 쓰인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우리 본당의 현황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본당 현황 소개)

감사합니다.

제36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가정·생명·평화

- 참된 가정은 평화를 건설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

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 2003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교우,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고자 하시는 당신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혜롭게 알아보면서 우리 각자가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생활하면서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도자, 성직자들과는 달리 우리 교우들은 세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교회와 사회에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 청소년, 사회 환경, 국가와 국제질서들입니다(평신도교령 9).

2. 올해 평신도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는 가정에 관한 일입니다. 가정은 바로 사회의 첫째가는 핵심 세포가 되어야 할 사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며, 바로 교회의 가정 성소가 될 때에 가정은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평신도교령 1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공동체」 65항에서 “미래의 복음화는 가정교회에 있다.”고 하시면서 가정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2003년 1월 제4차 세계가정대회 주제). 교황님은 또 ‘가정과 매체’(2004년도 홍보주일 주제 참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3.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지나쳐버릴 수 없는 것이 매체들입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우리 가정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가족간의 대화를 단절해버리기도 합니다. 각종 매체들이 혼전동거와 불륜, 성매매, 이혼 등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미화하고 조장하면서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연상케 할 만큼 그릇된 성문화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행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낙태와 더불어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가로막는 현상입니다.

4. 가정은 세상을 탓하고, 세상은 가정을 탓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가정교회’인 가정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념하며 봉사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은 선물로 주기 위해서 받은 선물이며,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독특한 사건이 ‘출산’입니다. 부부들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모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을 준 열매인 자녀가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선물이지만 결국 자신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제4차 세계가정대회 교황청 자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정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한 가정을 마련하셨고, 그분이 강생하셨을 때 한 가정에서 생활하셨으며, 공생황을 시작하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을 때는 한 가정을 위한 잔치 때였습니다.

5.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와 전국 단위 교회운동·사도직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001년 가을부터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2003년 가을부터는 마리아사업회인 포콜라레운동과 함께 ‘성매매 뿌리 뽑기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똑바로운동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사회로 확산시키면서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6.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인들에게 한 당부를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에페 5, 24-25)

가정의 행복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서 꽃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영혼을 나누기까지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처지와 환경에서 만났고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위해서는 매체를 잘못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속절없이 매체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혼인성사 때의 약속대로 자녀에 대한 종교교육을 철저히 챙겨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신자 자녀들의 유아세례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하느님을 뒷전에 밀어내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노인과 여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7. 최근 재위 25주년을 지내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달에 끝난 ‘묵주기도의 해’를 통해 세계

평화와 가정성화(家庭聖化)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비록 '묵주기도의 해'는 끝났으나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 또한 계속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지향 역시 가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대량살상 무기보다도 더 큰 힘으로 폭력과 전쟁을 막아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폭력과 전쟁은 그 마음을 고치는 일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안에서만 회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마르코 13,24)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가리켜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 가정생활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마태 5,9)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부터 모두 그렇게 투신할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가정에서부터 생명과 사랑을 배우면서 똑바로 살아간다면 평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참된 가정은 평화를 건설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2003년 11월 16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37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1. 서른일곱 번째 평신도주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가 정한 서른일곱 번째 평신도주일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평신도 모두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다 함께 감사하며 스스로 경축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를 통해서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신도들이 사도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발족시킨 것이 36년 전인 1968년의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도좌(使徒座)를 중심으로 하면서 보편교회와 일치하는 가운데, 지역교회 목자들이신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때부터 해마다 평신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2. 세상 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

오늘 평신도주일을 맞이해서 평신도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하며,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또는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직(使徒職)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 왕국을 펼치도록 교회에 맡겨진 사도적(使徒的)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다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이미 사도직에 불림을 받았으며, 우리 평신도들은 ‘주님의 포도원’인 각자 삶의 일터에서 사도직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세상 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은 220년 전 평신도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앞장서서 교회 창설의 주역이 됐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며 이 땅에 신앙을 지키고 키워온 자랑스런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정신을 되살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반그리스도교적 문화, 죽음의 문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종교다원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순교정신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3. 단체사도직과 평협

“평협이 무엇하는 단체인가?”라고 물어 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평협은 한 마디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협의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군중교구를 포함한 열여섯 개 교구 가운데 신설 의정부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 평협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교구 평협과 전국 단위 여러 사도직 단체가 모여 전국 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입니다. 이를 줄여서 ‘전국평협’이라고 부릅니다.

전국평협에서는 분기별로 각 교구 평협 대표와 전국 단위의 사도직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수행해온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평가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며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교 안에서 교회의 사도직을 수행할 수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단체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는 다양하며, 교회가 개인적

이 아닌 공동체로서 불렸기 때문에 단체 사도직은 교회의 근본정신에도 부합됩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발족 이후 3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단체사도직을 수행해 오면서 103위 성인들의 시성운동과 신뢰회복을 위한 내탓이오 운동 전개, 가톨릭대상 제정과 시상,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운동, 우리 상품 쓰기와 평신도제자리 찾기 운동, 그리고 공명선거 캠페인도 적극 벌여왔습니다.

4.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4년 3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단 구성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구현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이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4천명 이상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서 평협은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기도를 바치고, 성서를 읽고 복음을 실천하며, 가정성화를 위해서 사도직 단체들과 협력하는 한편 생명문화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아울러 다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느님 백성들의 참된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가정은 더욱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는 학교”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목헌장’ 52).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하고, 어린 아이들과 병자들, 노인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매일 서로 봉사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운데 가정이 사랑의 학교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해질 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 또한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입니다.

5. 평협 활동의 활성화

이제 우리 평협은 사회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주교 신자 수는 전체 인구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자 증가율은 더디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 쉬는 신자는 늘어나고 청년 신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현상을 분석, 연구하여 적절한 사목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실업자 문제와 환경문제, 생명보호와 남북문제, 안보문제, 사립학교 관련 법개정문제 등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해서 가톨릭 신앙인의 입장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대응하고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복음화문제 등에 대해서도 평협이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일에는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위한 봉헌금까지 교회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봉헌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이 헌금은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쓰이고, 나머지 일정한 몫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로 보내 전국평협 활동의 기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평신도주일 헌금 금액은 너무나 적어서 평협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평신도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다는 뜻으로 봉헌에 임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교구평협과 전국평협이 앞장서서 해주는 일에 나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들으신 복음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루가 21,17-19)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14일

제38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서른여덟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어머니이신 교회의 배려 속에 평신도가 주일 강론대에 올라와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드리게 된 점, 하느님과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에 가장 뚜렷하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우리나라에서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연간 임신중절수술, 다시 말해서 낙태하는 여성이 엄청나

게 많고, 전체 낙태수술 여성 가운데 미혼여성이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낙태한 경험이 있고, 낙태하는 이유가 ‘자녀를 원치 않아서’나 ‘터울 조절을 위해서’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나라가 ‘낙태 왕국’이라는 불명예와 저출산 문제까지 안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매우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생명에 관한 기본권이 짓밟히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교회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개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오직 이 방향에서만 당신은 정의, 개발, 참된 자유,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5항).

3. 이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볼 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배아복제연구’는 생명을 그르치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는 인간 생명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생명을 저해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 배아는 존엄한 인간 생명의 시작이므로 결코 실험실의 연구 조작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배아는 생명이고, 우리는 모두 배아였습니다. 난치병 치료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배아복제 실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생명인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할 것이 아니라, 태줄에서 추출하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난치병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가톨릭교회는 이 방향에서 연구를 지원하며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생명은 언제나 선한 것이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생명은 살아있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신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 즉 살아있는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과 창조주를 결합시켜주는 긴밀한 유대에 바탕을 둔, 고결한 품위를 부여받았으며,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생명의 복음’ 34항 참조). 그런데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은 반생명적인 생각과 행동이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에 24.2명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노인층의 자살이 심각합니다. 그런가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결코 인위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되는 가장 존엄한 것입니다. 또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극형으로써 목숨을 앗아버리기보다는 회개와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정신이고 훨씬 더 인도적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5. 형제자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찮게 여겨 무시하는 데에서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생명 자체보다는 생명에 봉사해야 할 이차적 가치들을 더 중요시하고, 그래서 가치관이 전도되고 죽이는 문화, 죽음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우리 평신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지키는 이로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소임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 줍시다. 인간 생명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연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훼손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임을 깨우쳐 줍시다. 눈에 보이지 않고 별것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생명뿐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것에 경외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가르쳐 줍시다.

6.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생명의 파수꾼 직분을 수행하는 데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시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 역시 존엄한 인간 생명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죽을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므로 사형으로 목숨을 빼앗기보다는 회개하고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죽음을 선택하려는 이들에게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보다는 삶이 아름답다고 말해줍니다. 아니, 우리가 나서서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 줍시다. 아무리 힘들고 실망스러워도 삶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7. 오늘 평신도들의 큰 축제날인 서른여덟 번째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서로 축하합니다.

끝으로, 오늘 두 번째 봉헌하는 헌금은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위해 쓰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형제자매 모든 분께서 기꺼이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13일

제39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생명의 복음을 실천합시다.

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서른아홉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주일에 평신도가 강론대에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한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따른 파장으로 온 나라가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국가이익이라는 명분아래 생명의 존엄성이 침몰하고 일방적인 여론이 조성되어 모두가 터무니없이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소리 높여 외치며 결연히 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학과 생명과학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생명인 인간배아에 대한 실험이나 조작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비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런 연구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 불행한 사태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해왔습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보다 임상적으로도 효능을 발휘하고 있고,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뿐더러 안정성도 월등한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지난해 사태 이후 이 연구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⁵⁰²⁾

502) 서울대교구는 이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돕기 위해 100억원의 ‘생명의 신비’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4.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생명의 문화를 거슬러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팽배해있습니다. 지난날 극심한 빈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틈엔가 경제적인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며 우리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소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황금만능, 물질 중심의 생활태도에 빠져들게 된 데에는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허물이 큼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과 낙태 건수는 세계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낮은 출산율은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으로, 일본 1.29명, 영국 1.79명에 비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9년 이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95년이면 우리나라에는 인구가 사라질 것이라고들 합니다.

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 생명의 탄생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또한 가정만이 인간 생명이 탄생하는 합당한 장소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인간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의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나도록 배려하는 전통과 풍습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조상전래의 이 미풍양속을 오늘에 더 발전시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6.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과 부부들은 혼인성사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의 모든 상황 안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귀중한 생명을 잘 키워가는 가정을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쾌락주의와 상대주의로 가득 찬 현대문명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가정, 아낌없이 자신을 바쳐 사회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가정이 필요하다”⁵⁰³⁾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와 부모를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동시에 참된 의미에서 사랑과 생명의 선교사로 만들어줍니다.”⁵⁰⁴⁾ 이 사명은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주고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며, 밖으로는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징표가 되도록 불린 것을 의미합니다.

503) 베네딕토16세 교황, 2006년 10월 8일 성 베드로광장 삼중기도 강론 중에서

504) 요한 바오로2세 교황 권고 ‘가정공동체’ 54항 참조

8. 다시 한번 우리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깊이 인식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에페 4,1)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특히 각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직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마음, 온 힘, 온 영혼을 다해 생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면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할 때 세상과 세상 사람들도 변화할 것입니다.

9. 형제자매 여러분,

낙태를 예방하는 데에 힘쓰면서 미혼모를 도와주고 입양을 장려하는 일에 적극 나섭시다. 출산을 장려하고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일에도 온 가족이 관심을 쏟읍시다. 가난한 노인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병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역시 우리 평신도들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사명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게 되었을 때만 완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10. 끝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서른아홉 번째 평신도 주일을 지내면서 봉헌하는 오늘 미사 두 번째 헌금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위해 쓰입니다.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19일

제40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이 땅에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1.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은 우리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더욱 잘 깨닫고 더욱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날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오늘은 평신도가 강론을 맡아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리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1968년 제정된 이래 마흔 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저는 지난 세월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인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뉘우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실행할 것을 새로이 다짐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을 잃고 진리와 생명을 거스르는 ‘죄의 구조’에 빠져 있는 데는 우리 신앙인들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기에 말입니다.

2. 우리 교회를 세운 평신도 신앙 선조들은 이 땅에 복음의 정신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 16-19)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들은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진리의 협력자”(3 요한, 8)가 되어 온 겨레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3. 이처럼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땅의 우리 평신도들은 무엇보다 자신과 교회와 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평신도 교령, 13항)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제 구실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교회는 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4. 이제 우리와 우리 이웃이 모두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5.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온갖 악의 세력에게 위협 받아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우리 신자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가정문화를 창조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칠 힘이요 우리 교회와 사회의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6. 모든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 받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의 근본 임무

입니다.

인권 중에 최우선적이며 근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입니다.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생명권의 주체입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8항)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들은 특히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만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단호히 배격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가 확립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학 연구 종사자들과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작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생명을 언제나 깊이 존중하도록”(베네딕토 16세 11월 일반 기도 지향) 교황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7. 인간답게 사는 데에 종교의 자유는 없어서는 안 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어느 정권, 어느 사회, 어느 체제와 환경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면서 북녘 동포들을 걱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녘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자라나도록”(베네딕토 16세 11월 선교 지향) 교황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8. 얼마 후에 우리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두 번째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에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우리 평신도들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촉진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여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자라나게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9.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진작시키며 복음 선교를 위해 기도와 활동으로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2007년 11월 18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41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이웃에 사랑을, 누리에 하느님을!
- 가정은 사랑의 학교, 신앙의 터전입니다. -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 25, 2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한 주간 앞두고 마흔한 번째 평신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오늘 복음의 한 구절, 격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심판의 엄정함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가없이 후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자 능력에 따라 다섯 탈렌트와 두 탈렌트, 그리고 한 탈렌트를 맡겼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탈렌트를 맡았던 종은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며 내놓았고, 두 탈렌트를 맡은 종은 두 탈렌트를 더 벌어서 내놓았으나 한 탈렌트를 맡았던 종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한 탈렌트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도로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그를 꾸짖고는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고 다른 종에게 이른 다음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받은 소명과 해야 할 사명

오늘 복음에서 종들이 해야 할 몫은 저마다 능력에 따라 맡겨진 ‘탈렌트’를 가지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에 맡는 일을 맡기십니다. 세례와 견진성사로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 48)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성사 생활을 충실히 하며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활을 통해 이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수행해야 할

사도직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토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바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습니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제2항).

그러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이 사명을 다해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지상 여정을 끝낼 때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서 셈해야 할 과제입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 40주년

많은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웠고, 목숨까지 바쳐 가며 신앙을 지킨 신앙 선조들의 후예답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사도직을 개인적으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한 주간 앞둔 연중 제33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내는 것은 바로 우리 교우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에 가입해서 주님께 받은 자신의 ‘탈렌트’를 불리기 위해서이며, 이는 곧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그 사도직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조직을 갖추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지 3년 뒤 1968년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전국의 각 교구에서도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세워져 평신도 사도직을 촉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신부님들과 수녀님, 수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성 25주년,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

내년 2009년 5월 6일은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 회장을 비롯한 103위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시성 25주년 은경축입니다.

1984년 이날,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한강 건너 새남터와 절두산, 당고개 순교터가 바라보이는 여의도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모시고 ‘103위 순교복자 시성’을 선포하던 이 땅의 하느님 백성들! 그 함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중에는 103위 성인 성녀들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시성의 참 뜻을 깨달아 복음화에 앞장 서온 분들이 참으로 많고, 이제 그 성과 또한 500만 신자를 넘어서서 인구 대비 20%의 복음화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을 다시 한 번 불태웠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 왔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집’을 바위와 같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성공이나 경력이나 돈 같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일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의 세계 금융 위기는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인지, 사회 질서의 근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2008년 10월 5일 제 12차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미사 강론 참조). 우리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집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분들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백색의 순교를 살자!

오늘 우리에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순교할 것을 강요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색의 순교’입니다. 그것은 곧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로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집을 하느님의 말씀 위에 짓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곧 신앙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복음화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탈렌트’를 불리는 것이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온 누리에 하느님의 사랑이 퍼져 나가고 마침내 참된 평화가 깃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16일

제42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1. 찬미예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중 마지막 전 주일을 우리 교회는 평신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전국 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평신도의 날’을 지내며 활동하기 시작한 1968년부터 마흔 두 번째 ‘평신도주일’입니다. 해마다 평신도주일은 그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온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더 철저하게 성찰하며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귀중한 은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올해는 특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사제의 해’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의 103위 순교자들의 시성 25주년을 경축하고 있는 만큼 오늘 평신도주일을 더욱 뜻있게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매우 충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이룬 가운데 “이 땅에 빛을” 비추어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며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테르툴리아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3. 25년 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친히 한국을 찾아오시어 시성식을 집전하신 그 날의 감동을 되새기게 해주는 감사의 노래 “사은 찬미가(테 데움)”의 일화가 있습니다. 103위 성인 가운데 한 분인 마르티노 루카 위앵 민(閔)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서 1866년 병인박해 때 충청도 보령 갈매곶에서 30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위앵 신부의 순교 소식을 전해들은 프랑스 고향 마을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품이 들어있는 장롱 문을 열고, 두 팔은 열 십(十)자로 포개 다 음, 무릎을 꿇고 ‘테 데움’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거룩하시도다. 주 하느님!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 아버지를 높이 기리며 받드나이다...”

4. 아들 신부가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을 극력 반대했으면서도, 순교했다는 그 한 마디 소식에 그저 하느님을 찬미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어머니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제의 해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사제들과 사제들의 부모님들에게, 특히 어머니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분들을 위해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이분들의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이 분들을 위해 기도드려

야 할 것입니다.

5.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발적인 교리 연구를 거쳐 1784년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영세 입교한 후 서울에서 동료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임을 가짐으로써 마침내 평신도들로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자 없이 출발한 신자 공동체는 잠시 동안 두 분의 중국인 신부를 모실 수 있었을 뿐, 1836년 모방 신부의 입국으로 시작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평신도들만의 공동체로서 신앙을 가꾸며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6. 주문모 신부 입국 초기에는 신부를 피신시키기 위해 신도들이 대신 붙잡혀 매 맞아 죽기까지 했으며, 교우들의 핍박을 덜어주기 위해 목자들이 스스로 관가를 찾아 자수하고 순교한 일도 있었습니다. 신자 공동체는 성사의 은총을 받으려는 열망으로 주교, 신부들을 영입해 들이기 위해 북경 삼천리 길을 걸어서 오가면서 교황님께, 또는 북경 주교님에게 눈물겨운 호소로써 다가갔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영입해온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하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 땅의 신자 공동체는 시련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했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7. 신앙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생활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례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로 새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교회를 성장시키며 세상을 변화시켜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공동 책임을 지며 서로 보완하여 교회와 세상을 복음화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8. 특히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 현장은 평신도 고유의 영역이고 우리는 이러한 생활 현장, 곧 이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개선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아모 5, 24 참조)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들 평신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과 사랑의 표지요 원천으로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 현존하게 됩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7항)

9.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는 과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의 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다 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은 따로 떼어 놓아도 된다고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와 여가 생활, 에너지 소비, 자원 재활용, 등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검소한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한 마디로 우리 생활 방식은 과연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며 복음적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 우리 자신이 복음화 되어 세상을 복음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구원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 선열들이 목숨까지 내 놓으며 걸어간 길도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말씀처럼 “하늘과 땅은 사라질 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느님의 말씀”(마르 13,31 참조)을 따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12.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말씀 한 구절을 말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온 세상에 불을 놓을 것입니다.”(서한 368 참조)

감사합니다.

제43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습니다.

1. 찬미예수님!

전례력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 마흔세 번째 평신도주일을 맞이하며 교우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 수도자분들과 더불어 하느님 백성을 이룩해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할 수 있게 해 주

신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평신도주일이 제정되고, 이날 평신도가 제단에 올라와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데에는 1968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발족되고, 그 해 주교회의가 이를 결정해 주면서 부터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2. 조금 전에 들은 독서와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탄이 비록 갖은 술수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2베드 3,9)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루카 21,9).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루카 21,18).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3.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라는 주제로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교황청 평신도평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교회가 아시아의 백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라는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평신도들이 복음화의 일선에서 교회의 목자와 일치해서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웃에 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함을 참석자 모두가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20개국 대표와 30여개 교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한 이번 평신도대회에서 또 한 가지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비해서 인구대비 10.1%의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세계 인구 65억 중 3분의 2가 넘는 40억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가톨릭 신자는 불과 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필리핀을 제외하면 고작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제가 1명뿐이고 총 신자 수가 90여 명이며, 우

즈베키스탄은 총 신자 수가 3천여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와 얼굴 모습이 비슷한 몽골은 700여 명 신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밖에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도 소수 종교로서 박해받고,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로서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평신도 선교사 파견과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올가을 국내 영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작품 ‘울지 마 톤즈’는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숨진 한 수도 사제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이 한국인 사제가 자청해서 간 남수단은 내란을 겪으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다치고, 병에 걸리고, 희망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의술과 예술,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톤즈 마을의 배고픈 아이들, 밤낮 사흘간 걸어서 찾아온 환자들, 수단인조차 외면하는 한센병 환자를 바라보는 선한 시선과 해맑은 미소가 장면마다 배어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이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마태 25,4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한 이 수도 사제는 올해 1월 14일 대장암으로 선종했고, 4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가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어떤 자세로 복음화에 나서야 하는지를 세상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6.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달 전교주일 담화에서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선교사명 의식은 선교 사제와 봉헌생활자, 평신도 선교사들이 교회 친교를 촉진하고자 노력할 때 길러진다”면서 ‘친교의 교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돌아볼 때 18세기말 오직 한분뿐인 사제를 살리기 위해서 평신도 회장이 대신 붙잡혀 죽어간 을묘년 주문모 신부 실포사건(失捕事件)과 6년 후 신유박해 때 교우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 중국인 사제가 관가에 자수해서 순교까지 한 사례는 목자와 양떼 사이의 아름다운 친교의 전통을 말해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모두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써 친교의 교회상을 바로 세워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과 교황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교회 내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위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이미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마르 16,15)할 사명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직입니다.

이제 새 천년이 시작되고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음을 거듭 거듭 일깨워주면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8. 이번 아시아 평신도대회 폐막미사 끝에 진행된 선교 파견예식에서 참석자들은 하얀 묵주와 함께 목에 거는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회에 참석한 300여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 아니 온 아시아 평신도들이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의 시선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바치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수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매 순간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수난에 합쳐드리면서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는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이웃에 전함으로써 이 땅과 온 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멘.

4. 평신도 신앙실태조사 분석

1. 조사의 의의

평협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사업계획중의 하나로 평신도의 신앙생활에 관한 실태를 조사연구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신자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평협 창립 40주년을 성장기를 완성하고 성숙기를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실태파악은 현실파악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좌표들을 설정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조사는 입교경로와 입교동기파악을 시작으로 하여 신앙생활기간, 고해성사, 기도생활, 성경읽기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교무금이나 헌금수준, 나아가 천주교 신자로서 얼마만큼의 의식을 갖고 생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선교 방법이나 이웃돕기활동, 소공동체 활동의 참여여부, 본당의 단체활동 참여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견해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것은 “평신도는 생활현장의 교회다.”와 “평신도의 모습”에 관한 신자들의 생각과 그 실태를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동시에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현대인들의 수용태세와 의식에 대하여 진단을 해보는 기회로써 향후 평신도 교육의 길잡이가 될 자료적 가치도 예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사는 궁극적으로 한국천주교회의 평신도교육에서 평신도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심오한 진리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목자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사기획

2.1 표본조사

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표본조사방법을 택하였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보다 차원 높고 수준이 높은 조사가 가능하지 않아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으나 그런 대로 실용성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하도록 노력하였다. 모든 조사결과는 S.P.S.S 15Version으로 최신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설문지 조사결과의 전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입력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입력 후 재점검 확인 절차를 실행하였다. 통계 조사결과의 분석은 도수분석을 통하여 빈도수 확인을 위한 단순결과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평협의 신앙생활과 신자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는 이러한 기초분석 이외에도 인구통계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3차원적인 분석기법으로 상호 교호작용이나 상호 연관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2.2 조사계획

조사는 교구와 관구별로 설문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전국적인 결과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본당 조사결과의 집계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결과발표는 하지 않고 오직, 교구, 관구, 전국의 차원에서만 공개하는 원칙을 정하였다.

표본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2006년도 교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1> 지역별 신자분포 (2006년도 기준)

관 구	인원 수	군중제외 인원 수	구성비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대상 본당 수
서 울	2,963,298명	—	63%	2,100명	21
대 구	1,165,625명	—	25%	800명	8
광 주	552,876명	—	12%	400명	4
군 종	89,715명	—	—	—	—
합 계	4,768,242명	4,678,242	100%	3,300명	33개

표본에 관구내에 소속된 모든 교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교구에서 최소한 한 본당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조정하였는 바, 그 결과 35개의 본당이 선정되었다.

교구내 본당의 선정에서 지역구가 있으면 그것도 고려하였다. 서울대교구를 예로 들면 지역구 내에서 대, 중, 소규모의 본당규모가 고려되었다.

그리고 각 본당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명의 신자를 조사대상으로 표본크기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특성들이 반영되는 것을 피하였다.

본당이나 교구차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없지는 않지만 각 본당에서 일률적으로 100명을 뽑음으로써 증대한 편중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치를 준비하였다.

그것은 남·여 성별에 따른 신자분포도와 연령대에 따른 신자분포도, 그리고 열성 신자와 쉬는 신자의 구성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 중에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대 관구의 남·여 성비를 전국 비율에 맞추어 여 6 : 남 4로 한 것이다.

<표 2> 관구별 성별분포별 신자 수 (2006년)

구 분	여	남
서울관구	59%	41%
대구관구	59.3%	40.7%
광주관구	60%	40%

* 전국 남녀 비율은 여 6 : 남 4

그리고 이를 연령별 분포로 세분하여 관구별로 정리한 것이 <표 3>과 <표 4>이다.

<표 3> 여성 연령별 관구별 분포(백분비율)

관구 \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서울관구	15%	21%	26%	18%	10%	10%
대구관구	15%	21%	26%	18%	10%	10%
광주관구	16%	20%	25%	17%	10%	12%

<표 4> 남성 연령별 관구별 분포(백분비율)

관구 \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서울관구	19%	20%	23%	18%	13%	7%
대구관구	21%	20%	24%	18%	10%	7%
광주관구	23%	20%	22%	18%	10%	7%

2006년도 교세자료를 가지고 조사된 결과를 연령별 분포로 비교하여 보면 작업 지침서에 표시된 내용에 나타난 결과의 전체적 흐름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표본설계와 함께 선정된 본당에 조사설문지와 함께 배부된 지침서를 통하여 열심히 신자와 쉬는 신자의 비율은 3:1 이나 2:1 로 본당실정에 맞게 설문지가 배부되도록 단단히 부탁하기로 하였다. 설문지는 교중미사 후나 단체활동 모임에서 배부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구역장이나 반장의 책임 하에 구역과 반에서 성과 연령과 다른 특성에 맞게 골고루 배부되도록 신신당부하여 표본설계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표본설계에 따라 3대 관구별 및 각 교구별 조사 대상 신자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 5> 관·교구별 조사대상 본당 수 및 연령층별 신자 수

관구명	교구명	조사 본당 수	본당별 조사 부수	성별	본당별 연령대별 인원수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서울	서울	9	100	남	7	8	9	8	5	3	40명
				여	8	12	15	12	7	6	60명
	대전	2	100	남	9	9	9	6	4	3	40명
				여	11	13	14	9	6	7	60명
	인천	3	100	남	8	8	10	7	4	3	40명
				여	10	12	16	10	6	6	60명
	수원	4	100	남	8	8	10	7	4	3	40명
				여	10	13	16	9	6	6	60명
	춘천	1	100	남	8	8	9	7	5	3	40명
				여	9	11	14	10	8	8	60명
	원주	2	100	남	8	8	9	7	5	3	40명
				여	9	12	16	11	6	6	60명
	의정부	1	100	남	6	9	11	7	4	3	40명
				여	7	14	17	9	7	6	60명
대구	대구	3	100	남	8	8	10	7	4	3	40명
				여	9	13	15	11	6	6	60명
	부산	2	100	남	9	8	9	8	4	2	40명
				여	10	12	16	12	5	5	60명
	청주	1	100	남	8	8	11	6	5	2	40명
				여	10	13	14	9	6	8	60명
	마산	1	100	남	8	8	10	8	4	2	40명
				여	10	12	17	10	5	6	60명
	안동	1	100	남	6	8	10	7	5	4	40명
				여	9	11	14	9	8	9	60명
광주	광주	3	100	남	9	7	9	7	5	3	40명
				여	10	12	15	10	6	7	60명
	전주	1	100	남	9	9	8	7	4	3	40명
				남	10	13	14	9	6	8	60명
	제주	1	100	여	9	8	10	7	4	2	40명
합계				남	11	14	15	9	5	6	60명

2.3 조사표 설문지 작성경과와 조사내용 개요

조사표인 설문지 작성은 전체 조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대로 작성된 설문지만이 본래의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제 상황을 반영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통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위원들은 수차례 걸쳐 회의를 하면서 설문지 초안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하고 축조심의하였다. 연구위원들의 전체 회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힘들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전문위원끼리 회의와 작업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작업의 속도 효율을 제고할 수 있었다.

본당 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 내용은 거의 매년 유사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또한 피정이나 특강으로 이루어지고 본당의 주임 신부의 관심도에 따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신자들도 신자들의 열성도에 따라서 재교육을 받는 내용과 기회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은 종합하여 하나의 모집단을 가상적으로나마 조성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설문지 조사내용은 다음 아홉 가지 항목으로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신자들의 입교경로와 입교동기, 세례받기 전의 소속종교 그리고 가족 중의 신자분포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미사참여와 고해성사횟수를, 그리고 혼인성사여부를 알아본다. 더불어 기도 횟수와 가족기도 횟수를 조사하고 나아가 성경읽기에 대한 습관을 조사한다.

셋째, 교무금과 봉헌금에 대한 태도와 견해를 밝혀본다.

넷째, 신자의식과 선교의무에 대하여 물어보고, 선교참여방법과 이웃돕기에 대하여 조사하고, 다섯째, 소공동체와 단체활동 참여도 그리고, 나아가 “평신도는 생활현장의 교회”라는 내용에 대한 느낌과 평신도 모습에 대하여 알아본다.

여섯째, 평신도 지도자상과 단체활동에 대한 느낌 분석, 그리고 쇄신대상과 본당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하여 조사한다.

일곱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의견조사로서 피임법, 낙태, 안락사, 인공수정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시도한다.

여덟째, 신자교육에 관련된 교리지식 획득방법, 교육기회, 교육받지 못하는 이유, 교육성과에 대한 만족도, 재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한다.

아홉째, 성별, 연령별, 세례경과별, 혼인관계별, 직업별, 학력별에 관한 여섯 개 내용으로 천주교 신자에 관한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4 실사와 통계분석

많은 토론과 연구 결과로 설문지가 완료되고 조사 대상인 본당이 선정되어 2007년 11월 중순부터 설문지를 해당 본당에 우송하기 시작하여 실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본당에는 조사 협조를 의뢰하는 공문과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준비 지침 내용이 전달되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조사대상 본당에 연락하여 조사담당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실제조사 진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직접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방에 있는 본당들은 평협 사무실의 전담 요원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독려, 확인 작업을 감당하였다. 가까운 인천교구에서는 평협 회장이 직접 찾아오시어 설명을 듣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 본당과는 거리뿐만 아니라 친근감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어 선정한 본당을 뒤늦게 교체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고, 아무리 설문조사 문항이 잘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 조사 작업 과정이 준비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재삼 느끼게 하였다.

2007년 12월 초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실사는 일부 본당에서 협동적 작업이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어 2008년 1월 중순이 되어서 간신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회수된 조사 설문지는 1차적으로 통계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해도 무방한지를 감안하여 입력 작업을 실시하였다. 입력 작업 시에 중요한 사항은 잘못 입력에 따른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1차, 2차에 걸친 확인 작업을 거쳐 입력 작업을 완료했다. 입력된 자료는 설문분석 전문통계 패키지인 SPSS+13.0프로그램에 의하여 집계 분석 작업이 실시되었다.

통계분석은 우선적으로 통상적인 빈도수 분석을 전제로 실시하였다. 결과는 교구 차원으로 1차 집계하고 다음 단계로 관구 합계로 집계하여 관구 간에 어떠한 차이라도 나타나면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 대구, 광주 3개 관구의 합계를 구하여 전국 차원의 전체 결과를 파악하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35개 본당에서 100매씩 실시하였으나 유효 표본 크기가 대체적으로 3,100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교회 내에서 실시한 어떤 성격의 설문조사도 이만한 크기로 확보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단계로는 인구통계 특성을 고려하여, 1. 성별, 2. 연령별, 3. 세례 후 경과연한, 4. 혼인관계, 5. 직업별, 6. 학력별 로 교육 실태에 관한 6개 문항을 심층 분석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평신도들의 느낌을 파악한 후에 이것이 평신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구 통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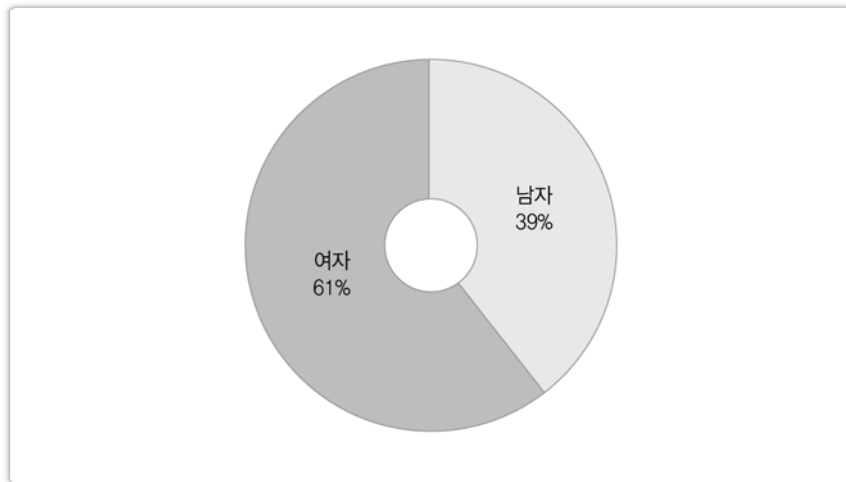
통계적으로 성별이나, 연령별로 비교하는데 따른 필요한 표본크기는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통계적 처리를 위한 유효한 표본크기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3. 조사결과

3.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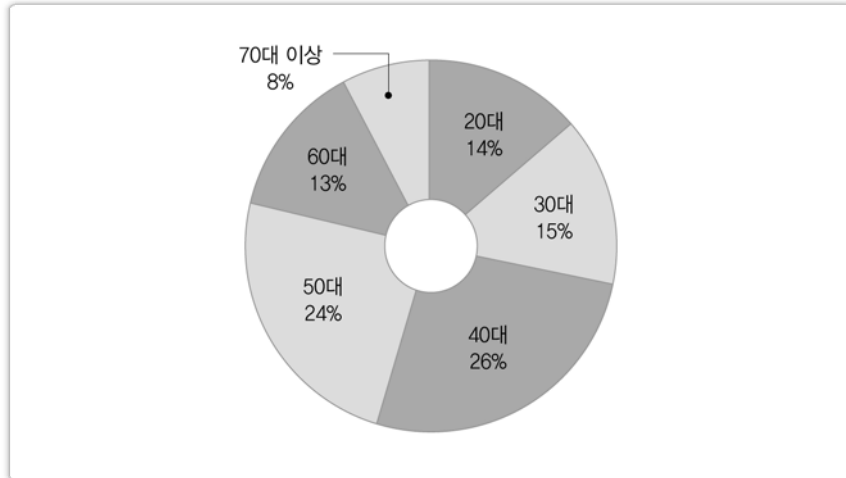
전체 유효한 응답 표본 수는 3,066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남성 39.7%, 여성 60%로 판명되어 본래의 조사 준비 기획 단계에서 파악하고 각 본당으로 발송한 작업 지침서에 언급된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본 조사의 유효성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결과의 유효성을 입증해주는 아주 좋은 증거라 할 수 있겠다. 국가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숫자상으로 조금 많은데 천주교회의 신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0%정도 많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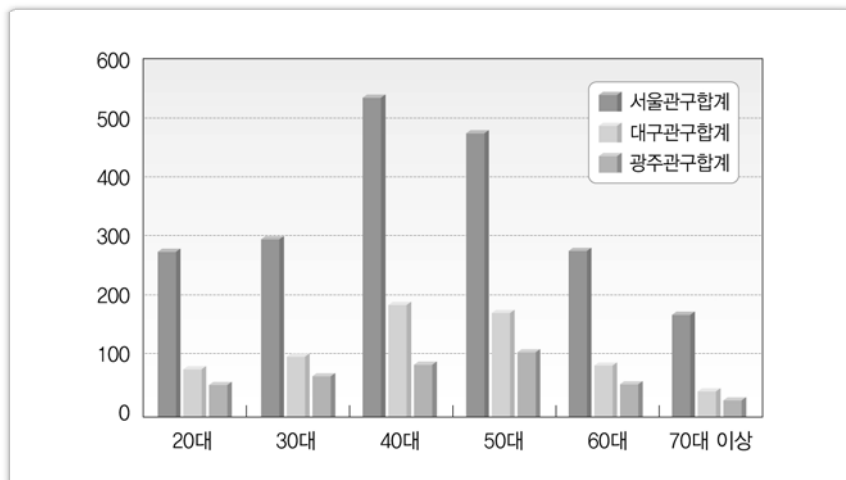
3.2 연령

〈그림 2-1〉 연령



차이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20대나 30대의 젊은 층에서는 원래 시도했던 비중을 못 채우고 2~3%정도 덜 조사가 되고 중년층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실제조사 지인 현장에서 젊은 층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것을 감안하면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젊은 층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실제 상황을 참작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정도의 차이는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겠다. 전국적으로 관구별로 대체로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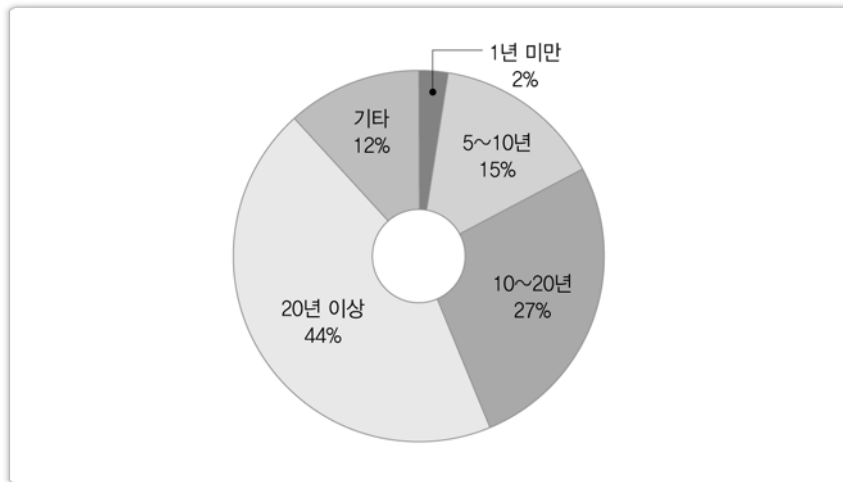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별 연령



3.3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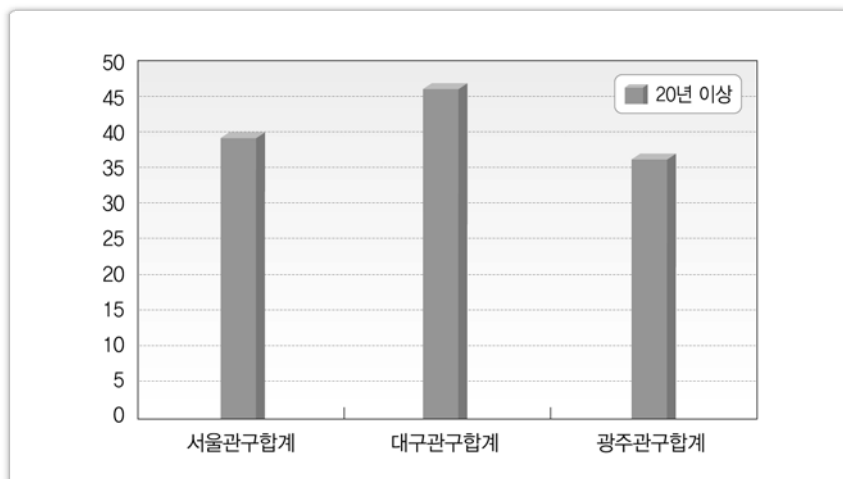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세례 받은 후 1년 미만인 신자는 전국적으로 3% 이내로 조사되었다.

〈그림 3-1〉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



그런데도 조사 준비 과정에서 고려한 것이 실현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년 이상 된 신자는 서울 관구나 대구 관구는 45%내외 수준인데 광주 교구만이 3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지역별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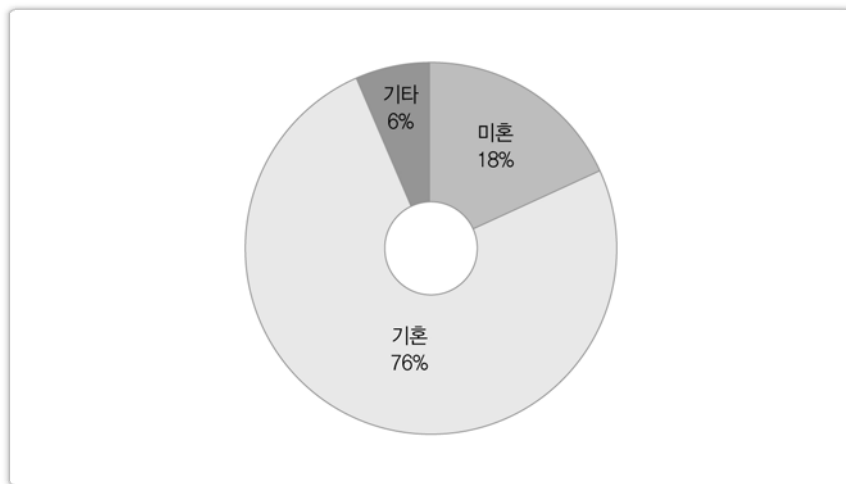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85%수준의 신자는 세례 받은 지 5년이 지났으니 배운 바 있는 교리 지식도 다 잊어버릴 시기에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무엇이든 검토하고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3.4. 혼인 관계

천주교 전체 신자 중 3/4에 해당되는 신자가 기혼자이고 20%이내가 미혼자이다.

〈그림 4-1〉 혼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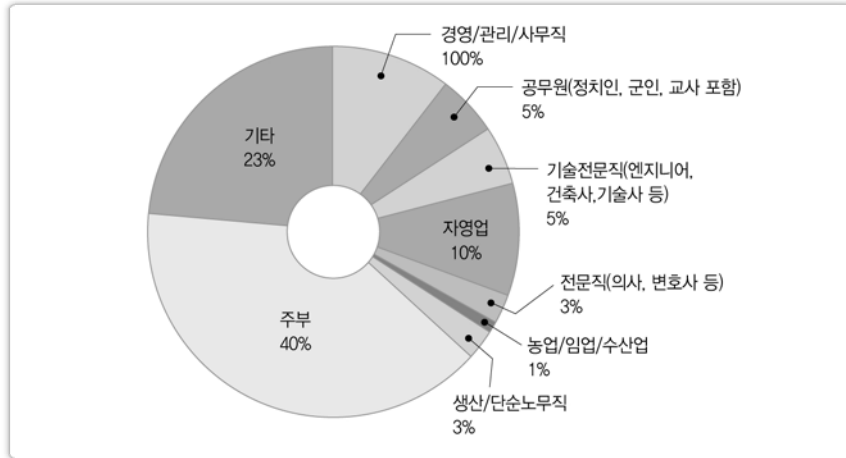


조사결과 광주관구가 상대적으로 타 관구보다 사별자 비중이 약간 높은 편이다. 따라서 3/4의 기혼자 중에는 외짝 교우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20%정도 더 많은 현상 중에는 어느 정도 외짝 교우의 몫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국적으로 1%정도는 이혼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3.5 직업 분포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경영, 관리 사무직이 10%정도, 공무원이 5%, 기술전문직이 5%정도,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이 3%나 되는데 이들의 특성을 보았을 때 약 25%, 즉 1/4의 신자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농업, 임업, 수산업과 같이 농어촌 지역은 전국적으로 1%내외인 것을 보면 도시 지역에서 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5-1〉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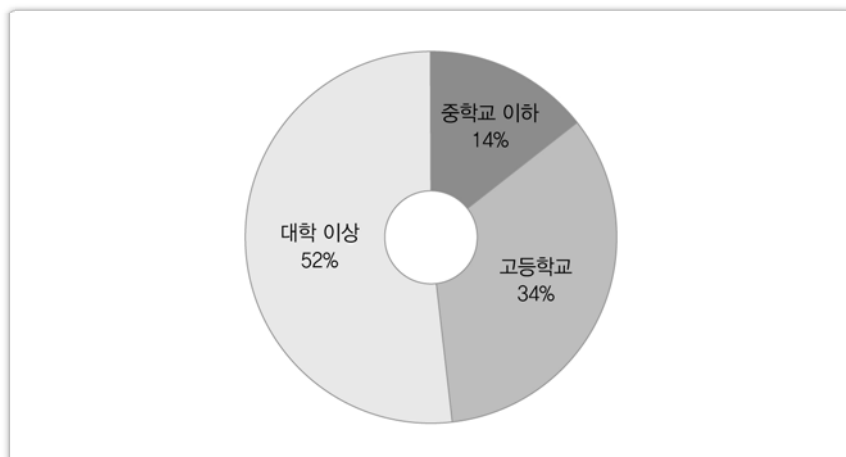


자영업 종사자도 거의 10% 수준이라 경영, 관리 사무직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생산노무직이 2.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난 것을 보아도 천주교 신자들은 중장년층 주부가 40%나 되니 여성의 비중이 60%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5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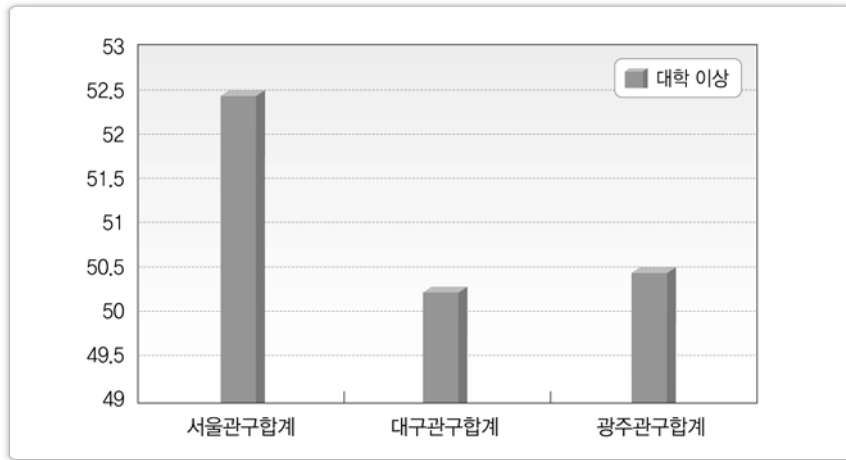
천주교 신자는 반 수 이상이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 비교해 보아야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겠지만, 조사 대상자 중 반 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학력



대구 관구도 50%를 넘었고 서울이 52.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림 5-3〉 지역별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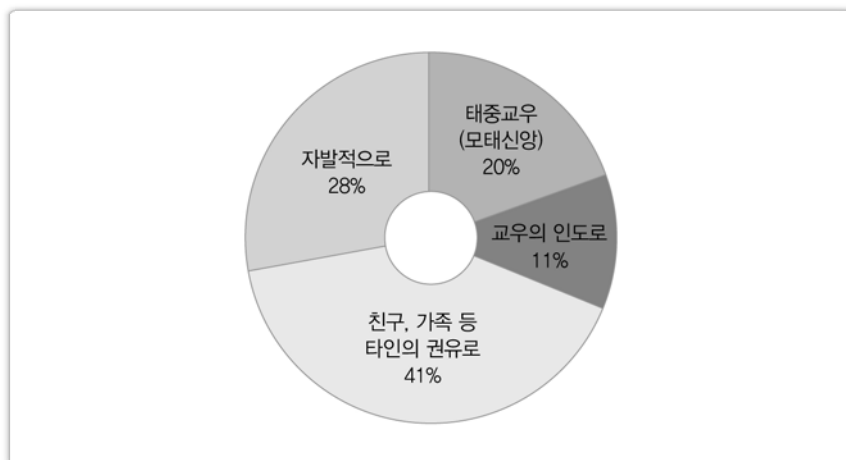


물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자들 간의 친교성도 높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확률이 크다고 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거의 85%나 되고 중학교 이하는 14%정도이다.

3.6 천주교 입교 계기

세례성사를 통해 신자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응답결과이다.

〈그림 6-1〉 천주교 입교 계기



이 조사에서 천주교에 입교하게 된 계기로 ‘친구, 가족 등 타인의 권유로’ 41%, ‘자발적으로’ 28%,

‘태증 교우(모태신앙)’ 20%, ‘교우의 인도로’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지역별 천주교 입교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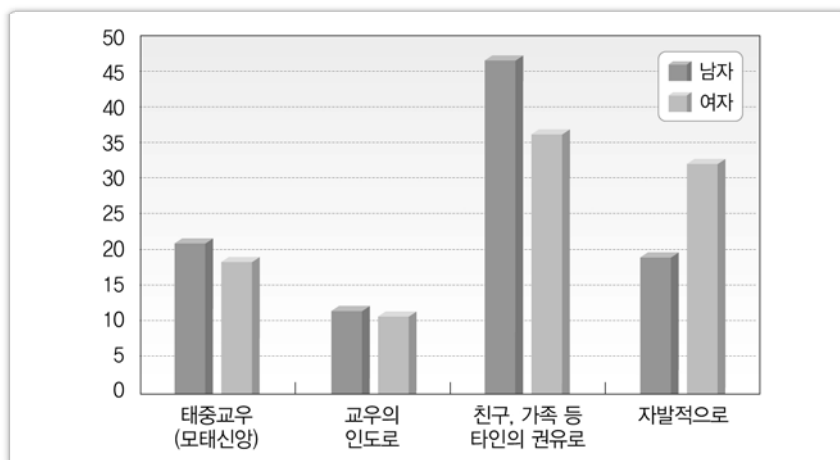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태증교우	18.8	31.0	18.9	27.6	18.2	21.2	29.5	20.0	17.3	19.6	13.2	21.5	8.9	20.4
교우의 인도로	10.4	6.0	11.0	7.3	10.3	20.2	5.3	9.8	12.0	4.3	23.5	15.1	14.0	22.3
타인의 권유로	45.2	36.0	43.9	37.1	39.4	38.3	38.9	40.0	36.0	53.3	45.6	26.9	41.5	36.9
자발적으로	25.7	27.0	26.2	28.0	32.1	20.2	26.3	30.2	34.7	22.8	17.6	36.6	35.6	20.4

세례성사를 통해 신자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계기로 전국의 응답자들은 모두 ‘타인의 권유로’의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선교활동이 입교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와 지역별 응답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긴 하나, 2순위 응답 결과에서는 춘천, 원주, 의정부 교구에서 ‘태증교우’라는 응답을 하여 전체 응답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 조사를 통해 신자들이 비신자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선교활동을 위해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목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정리·연구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신자들의 선교활동에 좋은 본보기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는 선교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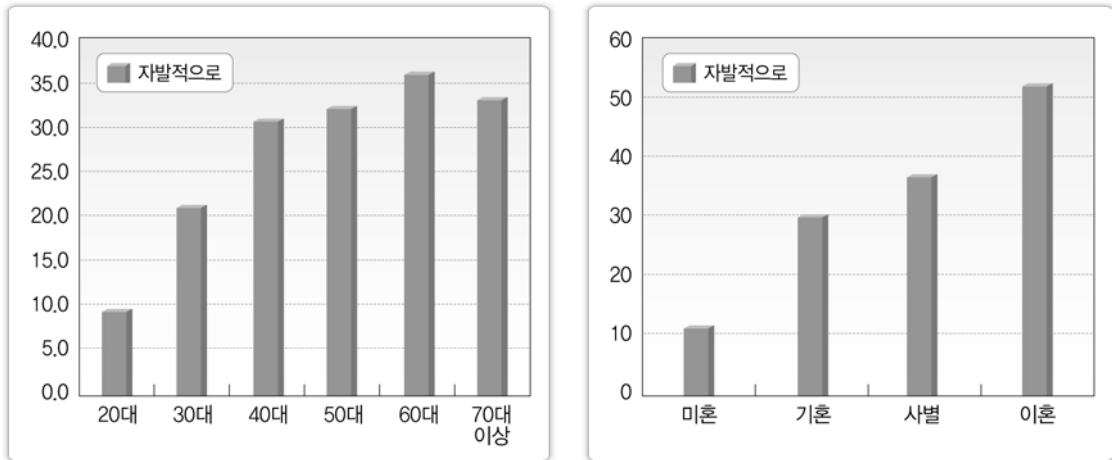
2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8개 교구에서 ‘자발적으로’를 입교 계기로 응답하였고, 전체 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교회에 찾아와 신자가 되는 비율이 평균 27%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을 비롯한 3개 교구가 ‘태증교우’, 마산을 비롯한 2개 교구가 ‘교우의 인도로’를 두 번째 입교 계기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6-2〉 성별 천주교 입교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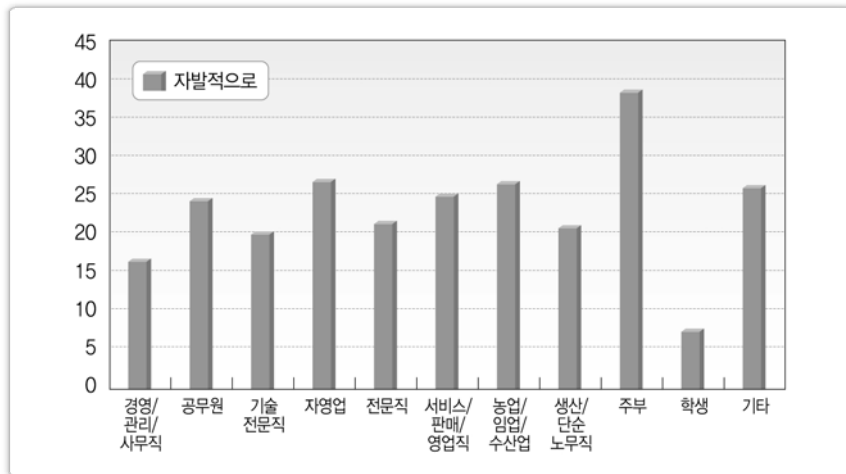


성별로 천주교에 입교한 계기를 살펴보면 여자 응답자 보다 남자 응답자가 ‘친구, 가족 등 타인의 권유’로 입교한 비율이 더 높았고, ‘자발적으로’ 입교한 응답자 중에서는 남자보다 여자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6-3〉 연령별·혼인관계별 천주교 입교 계기



〈그림 6-4〉 직업별 천주교 입교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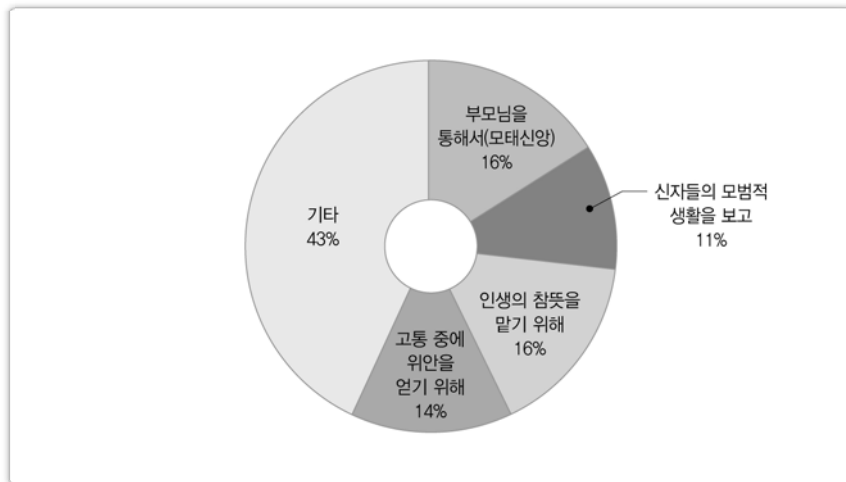


‘자발적으로’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다는 응답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발적인 입교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60대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혼인관계별 특성을 살펴보면 미혼자 보다는 기혼자의 비율이 높고, 이혼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주부’가 자발적으로 천주교에 입교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3.7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7-1〉 직업별 천주교 입교 계기



위 그림에서 기타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의 자선활동을 보고(7.4%), 교회의 사회정의 활동을 보고(6.4%), 성직자를 보고(7.7%), 수도자를 보고(6.4%), 교회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녀서(2.5%), 종교서적을 통해서(3.0%), 교회의 전례 분위기 때문에(9.4%)로 나타났다.

응답 문항이 다양하여 앞선 그림을 통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응답을, 아래의 그림에서는 10% 미만의 응답을 얻는 문항을 정리한 것이다.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43%의 응답자가 ‘기타’에 응답하여 조사에서 제시한 항목들과는 별개로 각자의 동기에 의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5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인 결과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부모님을 통한 모태신앙’과 ‘인생의 참뜻을 알기 위해’의 항목에 각 16%, ‘인생의 참뜻을 알기 위해’의 항목에 14%, ‘신자들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고’에 11%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항목을 비롯하여 교회의 활동과 외부의 권유보다 응답자의 심리적 동기에 의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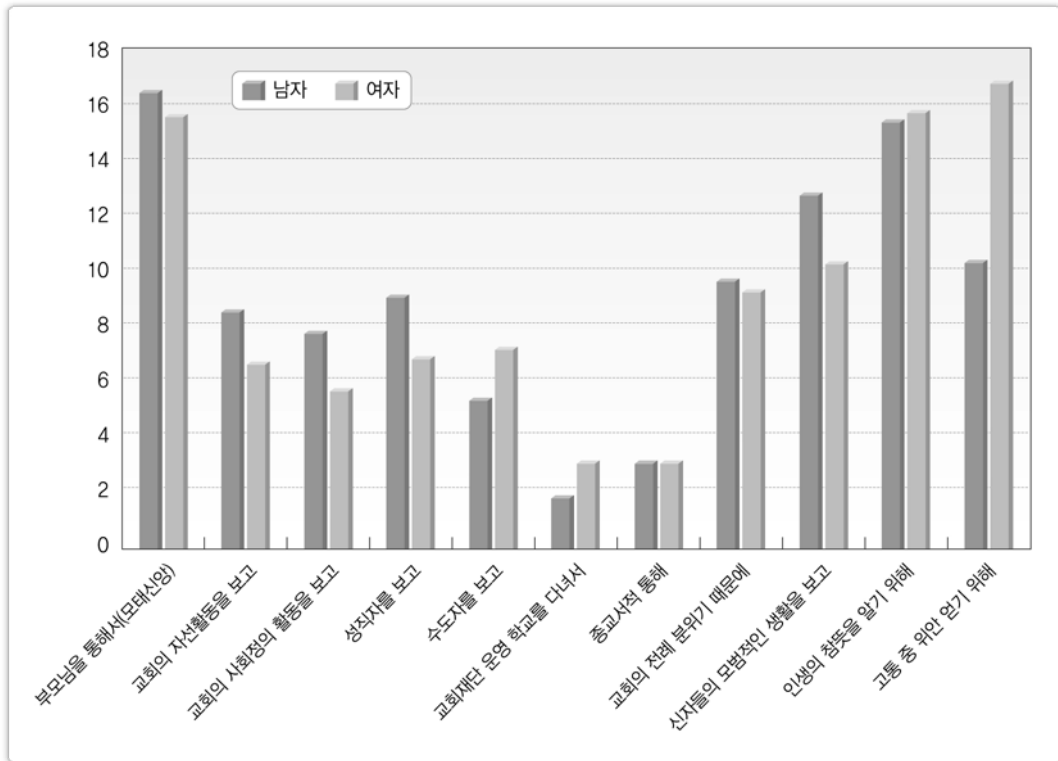
〈표 2〉 교구별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모태신앙	35.1	44.4	32.9	42.2	32.2	29.9	35.4	31.9	28.0	29.3	27.4	26.1	21.2	32.0
교회의 자선활동	13.3	17.2	15.9	12.7	14.6	20.1	9.4	12.2	21.0	20.7	21.0	18.5	17.7	18.0
교회의 사회정의 활동	10.5	11.1	15.9	11.6	15.2	15.8	10.4	8.4	18.2	14.1	14.5	14.1	14.2	24.0
성직자를 보고	17.4	11.1	18.3	13.5	18.9	16.3	10.4	12.9	14.0	16.3	9.7	14.1	13.7	19.0
수도자를 보고	10.7	7.1	9.1	10.5	16.7	15.2	12.5	15.6	11.9	10.9	14.5	17.4	15.9	20.0
교회재단 운영 학교를 다녀서	5.6	3.0	4.3	5.5	4.6	2.7	4.2	6.8	5.6	1.1	8.1	5.4	6.2	6.0
종교서적 통해	5.1	6.1	5.5	5.8	4.3	7.1	7.3	6.1	9.8	6.5	4.8	9.8	8.4	8.0
교회 전례 분위기 때문	20.4	20.2	22.0	20.7	20.1	12.5	28.1	14.1	22.4	25.0	9.7	15.2	19.5	17.0
신자들의 모범적인 생활	22.7	26.3	23.2	17.1	25.1	20.7	17.7	26.6	21.7	22.8	25.8	20.7	25.2	21.0
인생의 참뜻을 알기 위해	30.2	28.3	31.1	25.5	30.3	30.4	28.1	33.8	39.9	39.1	33.9	37.0	42.9	27.0
고통 중 위안 얻기 위해	33.1	23.2	26.2	28.0	31.6	16.8	35.4	29.7	23.1	27.2	27.4	26.1	31.4	27.0

천주교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의정부, 제주 교구에서는 ‘모태신앙’이다 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주,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교구에서는 ‘인생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의정부 교구는 ‘고통 중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모태신앙’이다 라는 응답과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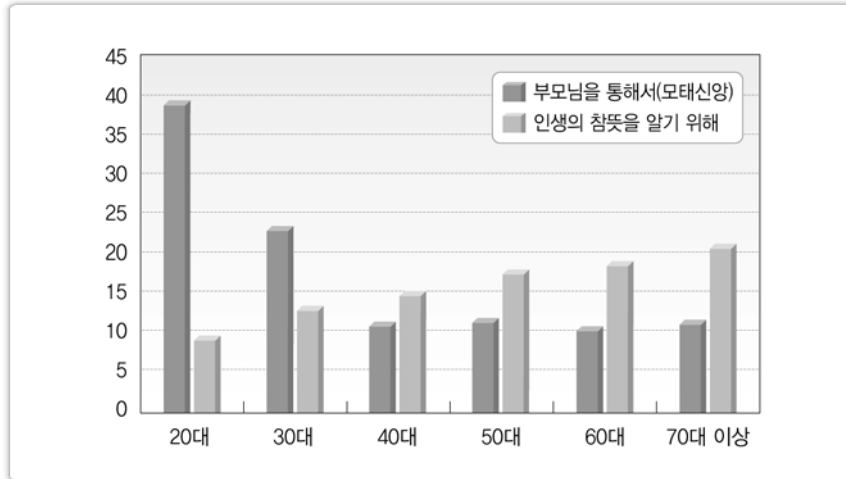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원주,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교구에서 ‘모태신앙’을, 춘천, 대전, 제주 교구에서 ‘인생의 참뜻을 알기 위해’를 서울, 인천, 수원, 광주, 제주 교구에서 ‘고통 중 위안을 얻기 위해’가 두 번째로 높은 답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이었다.

〈그림 7-2〉 연령별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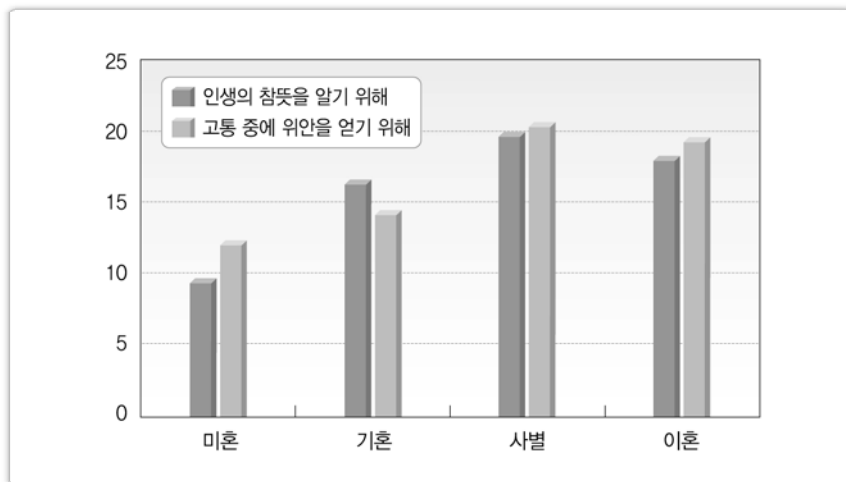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한 성별의 특성에서 남성은 모태신앙의 경우를 예외로 두더라도 교회의 활동과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심리적인 면에서 천주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3〉 연령별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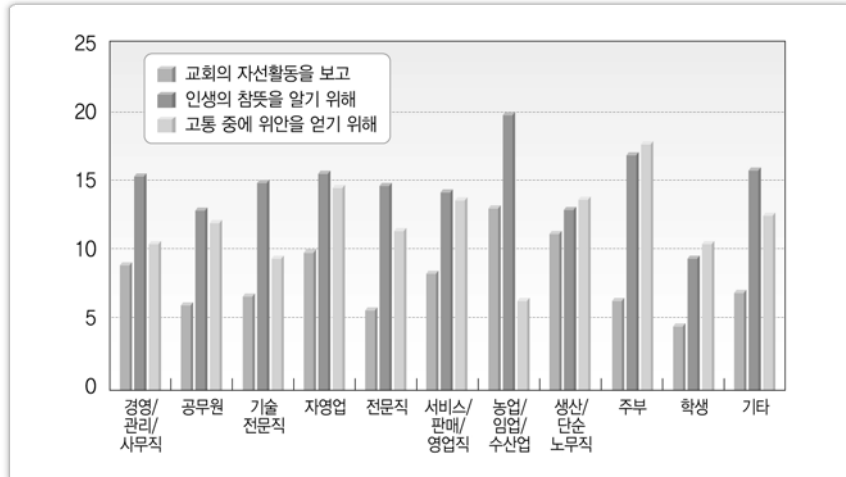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부모님을 통한 모태신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4〉 혼인관계별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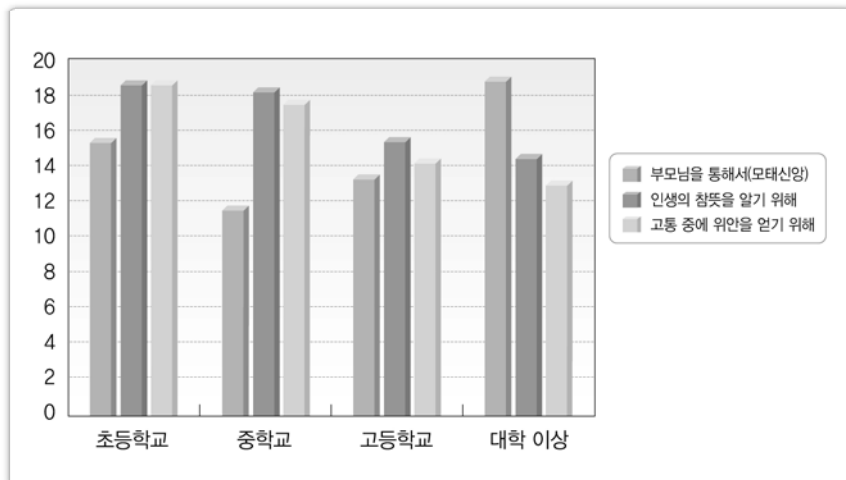
혼인관계별로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미혼, 사별, 이혼의 형태에서 고통중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고, 기혼의 경우 인생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림 7-5〉 직업별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직업별로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교회의 활동을 통한 것보다 개인의 심리적인 동기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특히 농업·임업·수산업의 경우 ‘인생의 참뜻을 알기 위해’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7-6〉 학력별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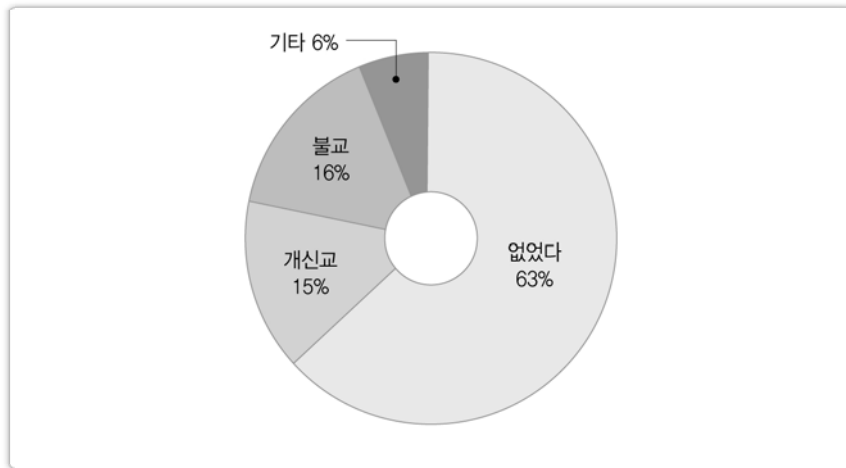


학력별로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부모님을 통한 모태신앙’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앞선 결과에 비추어 보자면 모태신앙이라고 응답한 경우 20대와 30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학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8 세례전(입교전) 종교

천주교 신자로 세례 받기 전 종교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8-1〉 세례전(입교전)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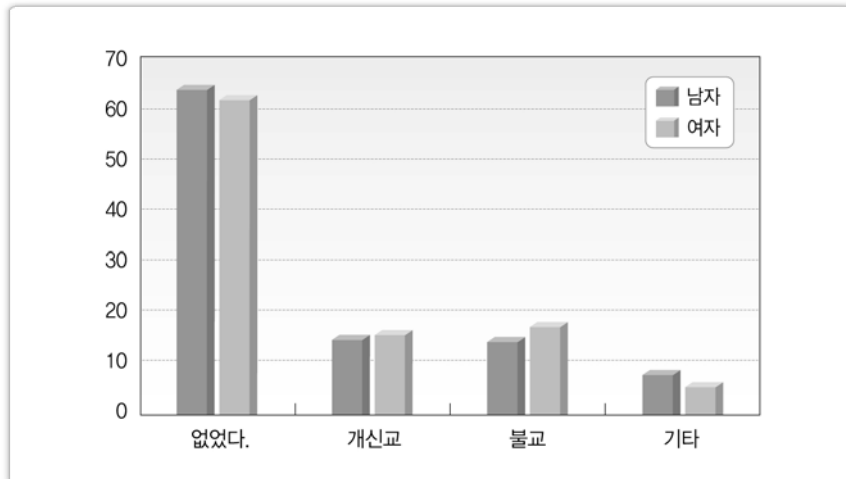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63%가 천주교 세례 전에 종교가 없었다 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고, ‘불교’ 16%, ‘개신교’ 15%, ‘기타’ 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교구별 세례 전 종교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없었다.	65.3	71.4	62.	66.9	62.7	56.9	74.2	61.6	61.8	59.8	77.3	57.8	56.2	57.1
개신교	15.0	9.9	20.9	13.8	17.2	17.7	17.2	7.8	9.0	18.5	12.1	18.9	16.7	11.2
불교	14.3	14.3	8.9	10.5	15.3	18.2	8.6	24.3	23.6	18.5	9.1	14.4	16.3	24.5
유교	2.7	2.2	3.2	4.0	2.9	3.9	0.0	3.1	2.8	1.1	0.0	2.2	4.3	2.0
원불교	0.5	0.0	0.6	0.0	0.0	0.6	0.0	0.4	0.0	0.0	0.0	0.0	1.3	1.0
천도교	0.2	1.1	0.6	0.0	0.0	0.6	0.0	1.2	0.0	0.0	0.0	1.1	0.4	1.0
기타	2.0	1.1	3.8	4.7	1.9	2.2	0.0	1.6	2.8	2.2	1.5	5.6	4.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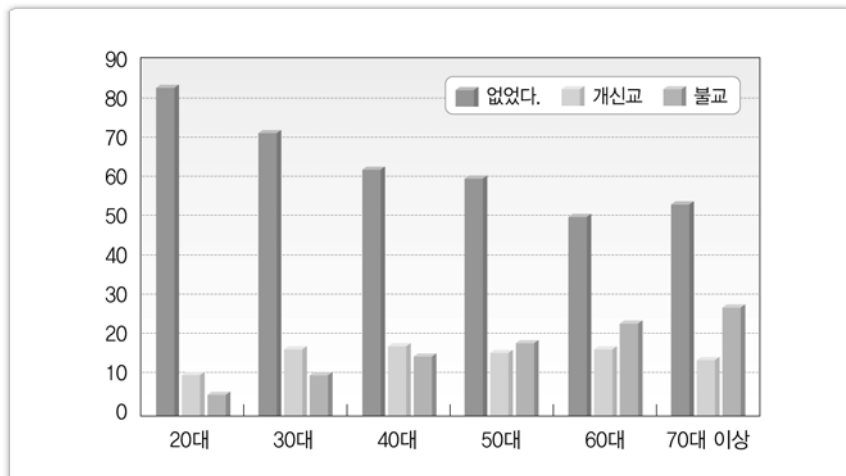
천주교 입교 전 가졌던 종교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교구에서 이전에 종교가 없었다 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앞선 질문의 결과와 연관하여 해석한다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모태신앙’ 이라는 응답자가 높았던 것으로 보아 어린 시절의 신앙을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신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 중 처음으로 종교를 가지고자 했을 때 여러 종교 중 천주교를 선택했던 신자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림 8-2〉 성별 세례전(입교전)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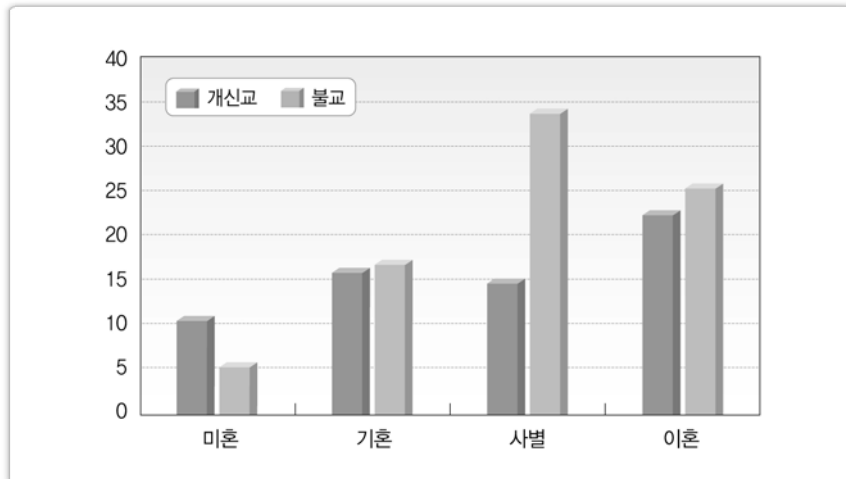
성별로 세례 전 종교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없었다.’를 비롯하여 모든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입교 전 종교가 ‘없었다.’는 항목에 남성이 조금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반해 입교 전 다른 종교를 가진 적이 있었다는 응답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모든 항목에서 약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8-3〉 연령별 세례전(입교전)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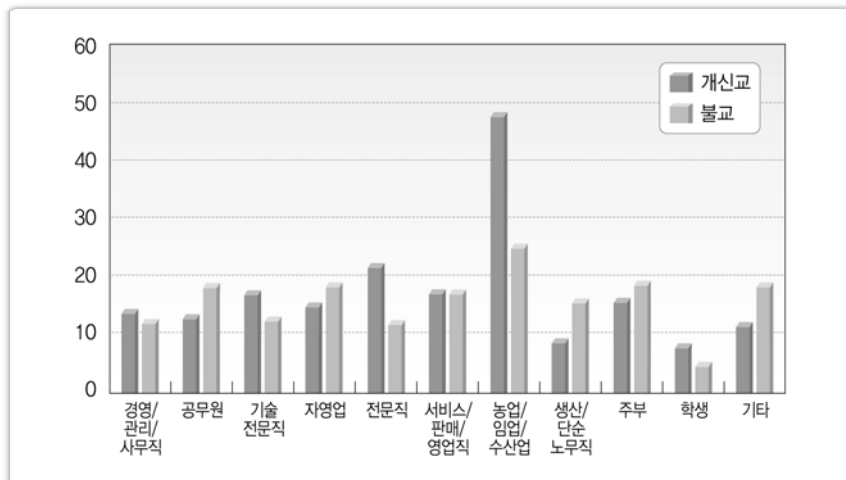
연령별 세례 전 종교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종교가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0~40대에서는 개신교가, 50~70대 이상에서는 불교를 세례 전 종교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8-4〉 혼인관계별 세례전(입교전) 종교



혼인 관계별 세례 전 종교의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사별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응답률이 높았던 ‘개신교’와 ‘불교’ 중 여타의 혼인 관계를 가진 응답자에 비해 세례 전 ‘불교’를 종교로 가졌던 응답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8-5〉 직업별 세례전(입교전)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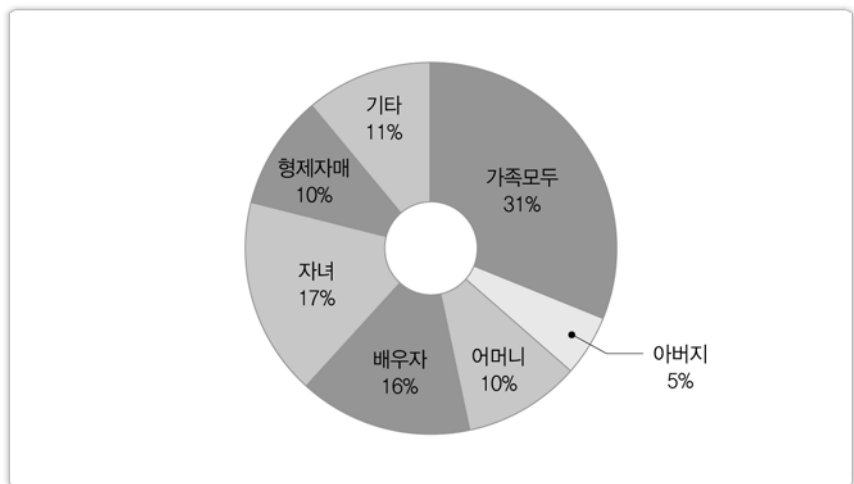


세례 전 종교 중 ‘개신교’와 ‘불교’를 가졌던 응답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생산·단순 노무직, 주부, 기타의 경우 ‘불교’의 비율이 ‘개신교’에 비해 높았고, 여타의 직업군의 응답비율은 ‘개신교’가 더 높았다.

3.9 가족 중에 신자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신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9-1〉 가족 중 신자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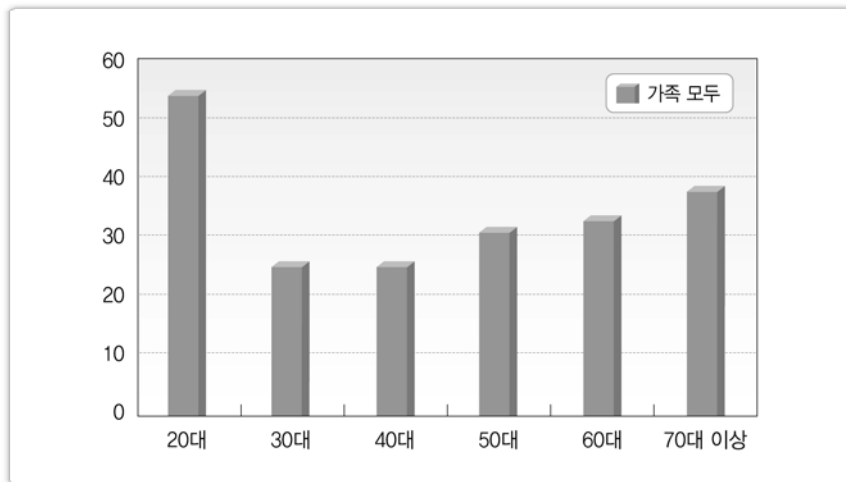
가족 중 신자인 사람은 ‘가족 모두’가 31%, ‘자녀’ 17%, ‘배우자’ 16%,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각 10%, 아버지 5%, 기타가 11%로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가족 중 일부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비율이 70%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교구 별 가족 중 신자인 사람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가족 모두	52.4	46.9	55.7	63.1	57.6	62.6	48.9	46.8	50.7	44.9	51.5	43.9	49.3	55.1
아버지	11.9	18.4	8.2	7.4	7.7	5.6	12.8	6.4	6.2	5.6	6.1	9.8	4.5	10.2
어머니	19.8	27.6	12.7	14.9	13.9	10.1	22.3	22.0	16.4	21.3	12.1	22.0	15.7	15.3
배우자	26.4	31.6	37.3	18.8	24.1	20.1	27.7	27.2	32.2	37.1	24.2	24.4	20.6	28.6
자녀	29.4	34.7	35.4	22.3	26.3	19.6	33.0	29.6	28.1	38.2	34.8	26.8	28.3	27.6
형제자매	16.3	24.5	9.5	11.3	16.7	14.0	21.3	19.6	17.1	15.7	18.2	19.5	26.9	16.3
조부모	2.4	1.0	1.9	2.5	3.1	2.8	5.3	4.4	2.1	2.2	3.0	1.2	2.2	1.0
시아버지	3.6	6.1	5.1	2.1	3.1	1.7	2.1	4.0	3.4	4.5	4.5	2.4	2.7	4.1
시어머니	8.2	10.2	8.2	5.0	6.5	5.0	8.5	9.6	4.1	9.0	7.6	4.9	5.4	6.1
장인	2.2	4.1	3.2	3.2	2.2	1.7	1.1	1.2	2.7	3.4	0.0	4.9	5.4	6.1
장모	3.6	5.1	5.1	2.8	3.4	2.2	2.1	1.2	2.7	3.4	0.0	4.9	0.4	3.1

가족 구성원 중 천주교 신자는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교구에서 ‘가족 모두’ 천주교 신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전, 원주, 부산, 제주 교구에서 ‘배우자’를 서울, 춘천, 인천, 수원, 의정부, 대구, 청주, 마산, 안동, 광주 교구에서 ‘자녀’가 응답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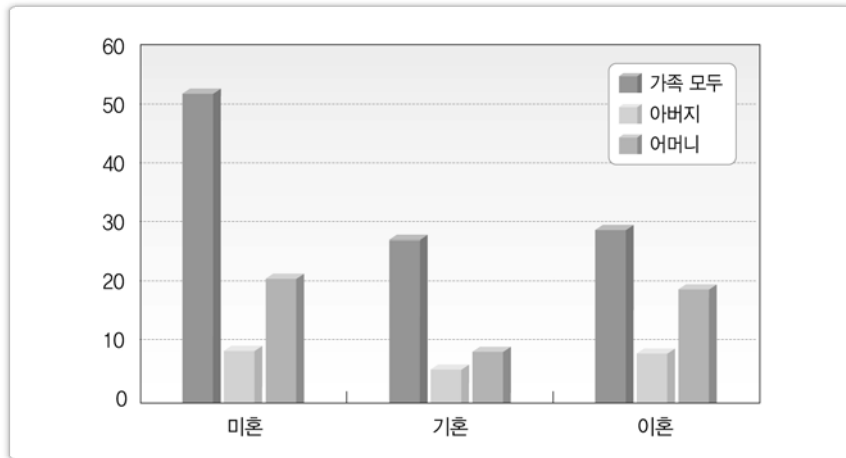
〈그림 9-2〉 연령별 가족 중 신자인 사람



연령별로 ‘가족 모두’가 신자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가족이 모두 신자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20대가 ‘모태 신앙’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을 참고하여 분석하자면 20대 또는 30대 응답자들은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그들의 생애 전반에서 가족 문화로 종교 생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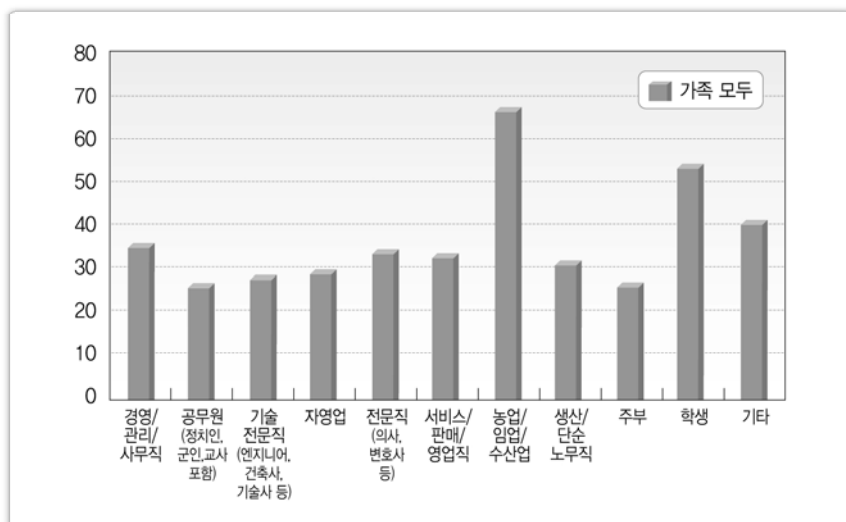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 모두가 신자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의 특성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구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일부 구성원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가족 구성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9-3〉 혼인관계별 가족 중 신자



혼인관계별로 가족 중 ‘가족 모두’, ‘아버지’, ‘어머니’의 응답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혼인 관계에서 ‘가족 모두’에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신자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9-4〉 직업별 가족 중 신자



‘가족 모두’가 신자인 응답자들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농업·임업·수산업’, ‘학생’, ‘기타’의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반면에 ‘주부’의 경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3.10 미사 참여 빈도

미사 참여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0-1〉 미사참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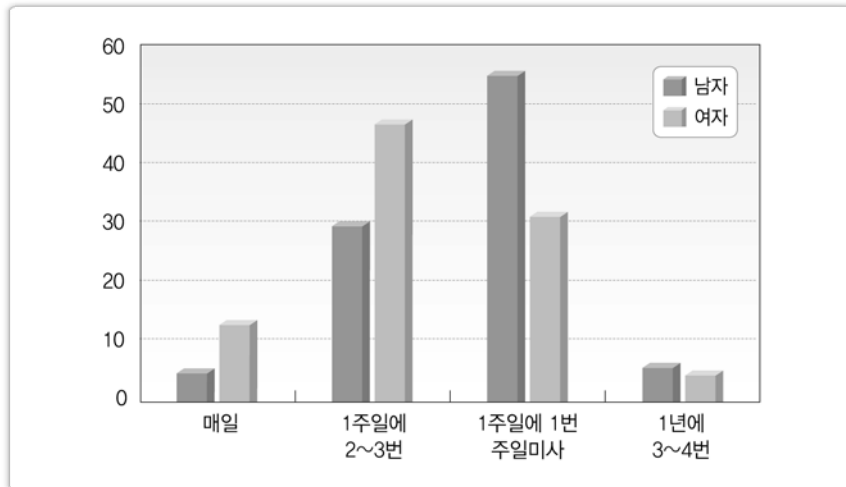
미사 참여 빈도를 묻는 질문에 ‘1주일에 1번 주일미사’ 41%, ‘1주일에 2~3번’ 40%, ‘매일’ 10%, ‘기타’ 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에는 ‘1달에 1~2번’, ‘1년에 3~4번’ 등이다.

〈표 5〉 교구 별 미사참여 빈도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매일	10.7	11.2	8.6	13.8	10.1	10.2	11.5	13.3	9.3	6.7	16.7	5.3	6.4	7.8
1주일에 2~3번	30.1	38.8	46.0	35.0	44.3	49.2	30.2	44.9	38.7	44.4	66.7	50.0	45.8	50.5
1주일에 1번 주일미사	47.3	29.6	33.1	42.4	35.5	36.4	54.2	36.5	44.7	40.0	15.2	39.4	42.4	37.9
1달에 2~3번	5.8	9.2	4.9	5.3	4.9	2.7	3.1	2.7	5.3	4.4	1.5	5.3	4.2	0.0
1년에 3~4번	6.1	11.2	7.4	3.5	5.2	1.6	1.0	2.7	2.0	4.4	0.0	0.0	1.3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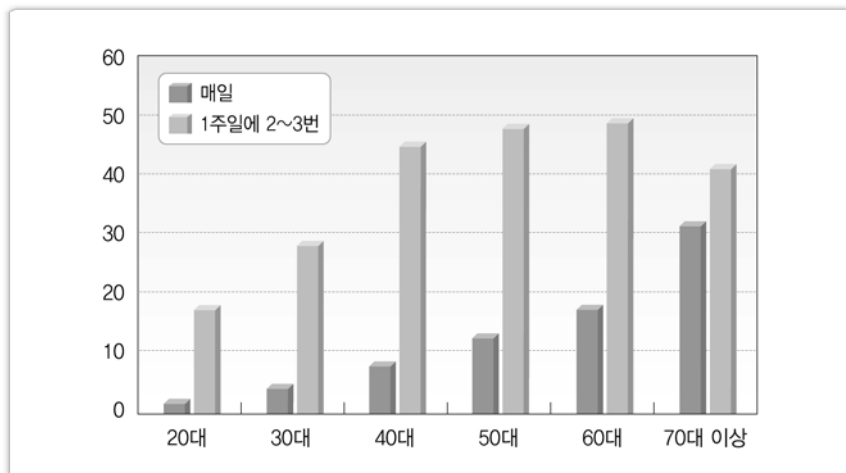
미사에 참여하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 춘천, 대전, 수원, 원주, 대구,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교구에서 ‘1주일에 2~3번 미사에 참례하고 있다.’, 서울, 인천, 의정부, 부산 교구에서는 ‘1주일에 1번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교구에서 순위를 달리하고 있으나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항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마산교구에서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이에 1주일에 2회 이상 미사에 참여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3.4%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2〉 성별 미사참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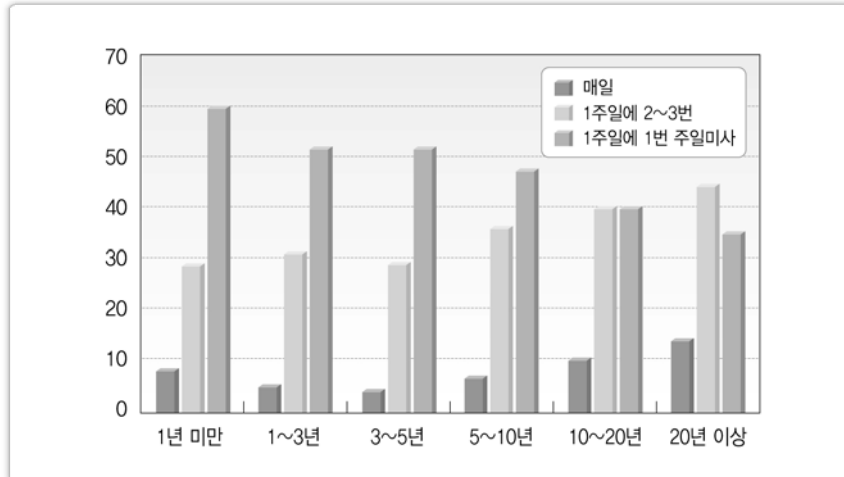
미사 참여 빈도의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매일’, ‘1주일에 2~3번’미사를 드리는 응답자가 남성보다 많았고, 남성의 경우 ‘1주일에 1번 주일미사’와 ‘1년에 3~4번’ 미사를 드리는 응답자가 여성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 결과만을 본다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미사참례 횟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3〉 연령별 미사참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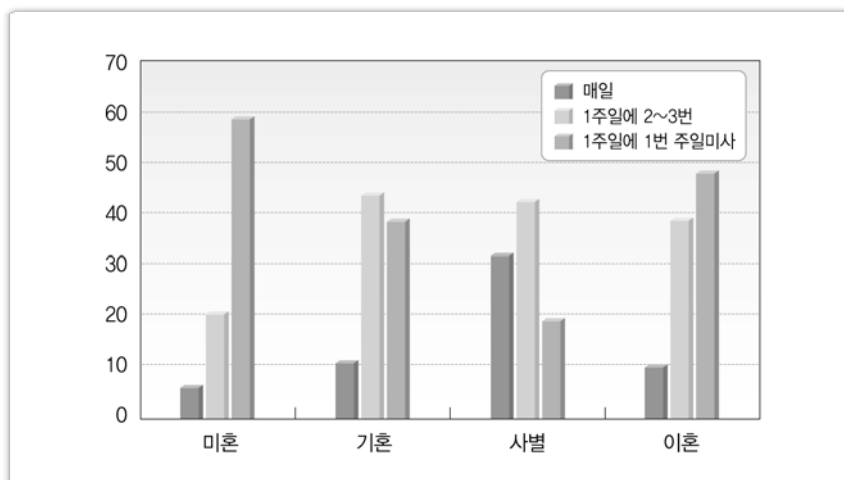
미사를 드리는 비율에서 ‘매일’ 미사를 드리는 비율과 ‘1주일에 2~3번’ 미사를 드리는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 7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4〉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별 미사참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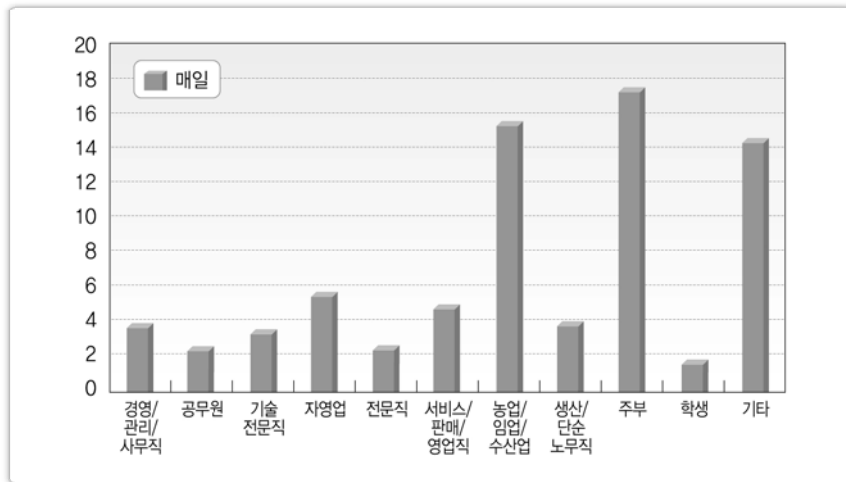
세례를 받은 후 경과기간별 미사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1년 미만’에서 ‘5~10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주일에 1번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줄어드는데 반해 동시에 ‘1주일에 2~3번’ 미사를 드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매일’ 미사를 드리는 빈도는 ‘1년 미만’에서 ‘5~10년 미만’ 기간 동안 빈도가 오히려 줄어들다가 ‘10~20년’이 경과한 뒤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1주일에 2~3번’ 또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10-5〉 혼인관계별 미사참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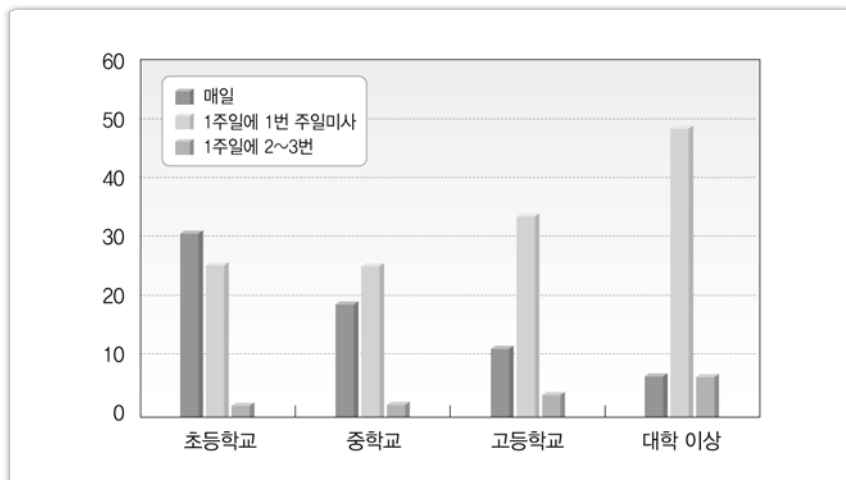
혼인관계별 미사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미혼’자의 경우 ‘1주일에 1번 주일미사’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매일’, ‘1주일에 2~3번’ 참여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별’자의 경우 ‘매일’ 과 ‘1주일에 2~3번’ 미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여타의 혼인관계에 비해 가장 높았고, 반면에 ‘1주일에 1번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혼’ 자의 경우 ‘1주일에 1번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10-6〉 직업별 미사참여 빈도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임업·수산업’, ‘주부’, ‘기타’ 응답자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10-7〉 학력별 미사참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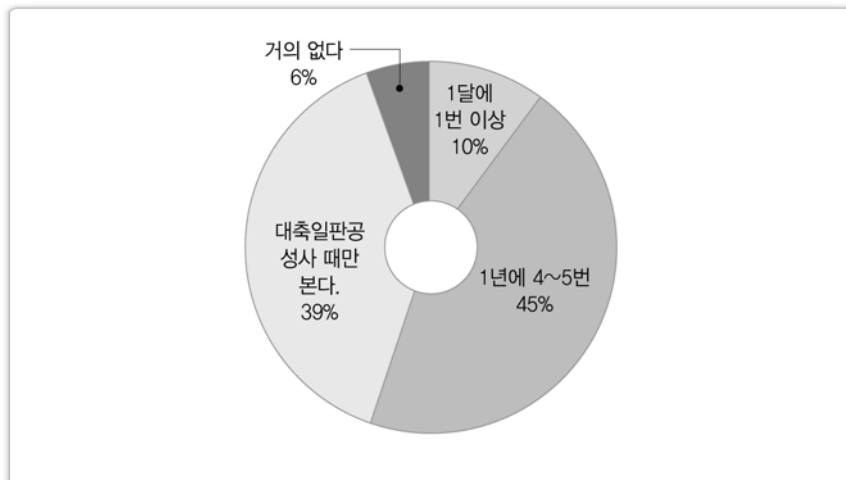


학업별로 미사참여 빈도를 ‘매일’, ‘1주일에 1번 주일미사’, ‘1년에 3~4번’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매일’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1년에 3~4번’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1년에 1번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비율의 응답자가 전 학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학이상’의 학력의 응답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1주일에 1번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3.11 고해성사 빈도

고해성사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1-1〉 고해성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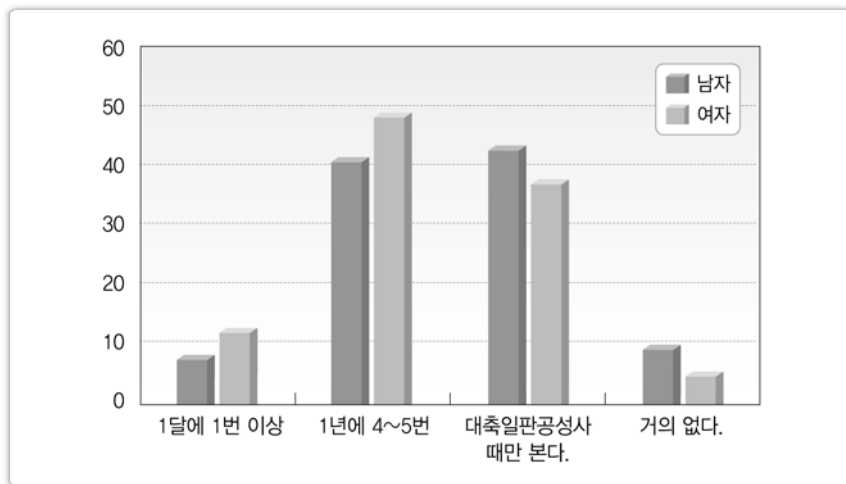
‘고해성사’ 빈도를 묻는 질문에 ‘1년에 4~5번’ 45%, ‘대축일 판공미사만 본다.’ 39%, ‘1달에 1번 이상’ 10%, ‘거의 없다.’ 6%로 나타나 1년에 적어도 1번 이상 고해성사를 드리고 있다는 비율이 94%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6〉 교구 별 고해성사 빈도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1달에 1번 이상	8.4	12.0	8.5	9.0	14.3	14.7	4.2	12.6	7.4	13.0	20.9	8.6	6.8	8.7
1년에 4~5번	36.9	59.0	48.8	36.7	52.0	53.9	54.2	50.0	55.0	55.4	52.2	44.1	50.2	43.7
대축일 판공성사만	47.9	19.0	31.7	48.4	32.2	29.8	33.3	32.8	32.2	23.9	25.4	43.0	35.7	44.7
거의 없다.	6.8	10.0	11.0	5.9	1.5	1.6	8.3	4.6	5.4	7.6	1.5	4.3	7.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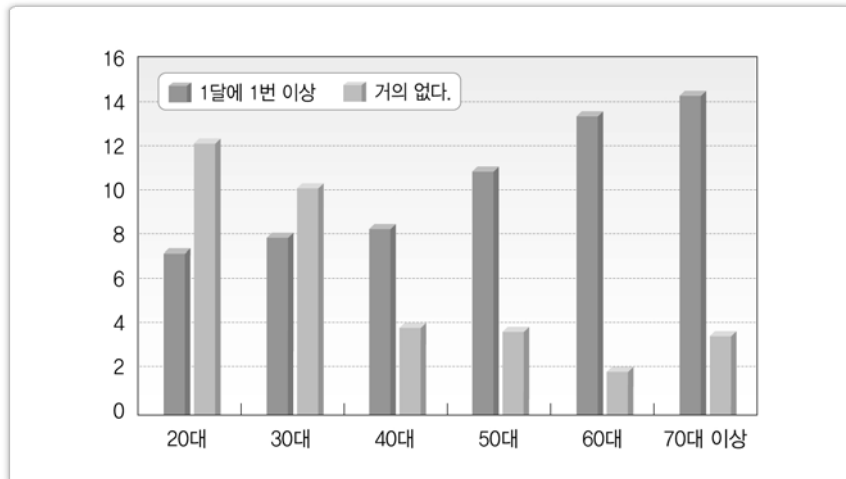
고해성사 빈도를 묻는 질문에 모든 교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인 문항이 모두 약 50%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서울과 춘천을 제외한 교구에서 ‘1년에 4~5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축일 판공성사만 본다.’가 다음 순위를, 서울과 제주 교구는 ‘대축일 판공성사만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년에 4~5번’ 판공성사를 한다는 응답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1-2〉 성별 고해성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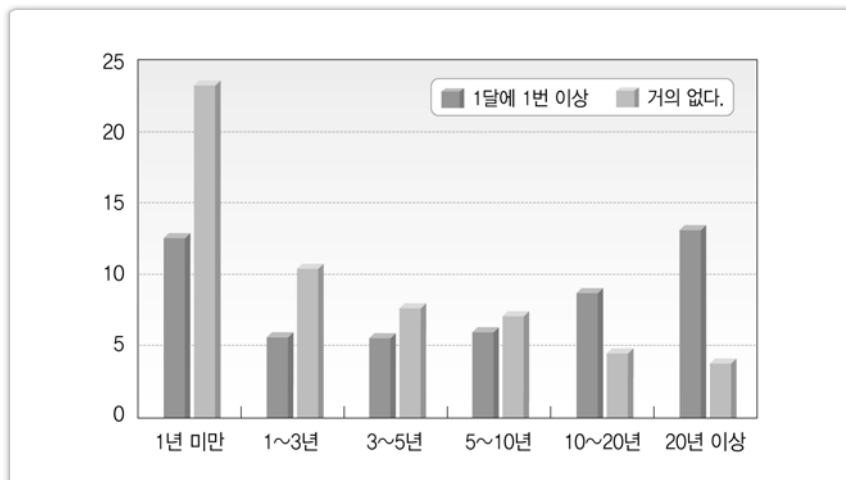
고해성사 빈도의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1달에 1번 이상’, ‘1년에 4~5번’ 고해성사를 보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대축일 판공성사 때만 본다.’와 ‘거의 없다.’에 대한 응답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아 여성에 비해 남성이 고해성사를 보는 응답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림 11-3〉 연령별 고해성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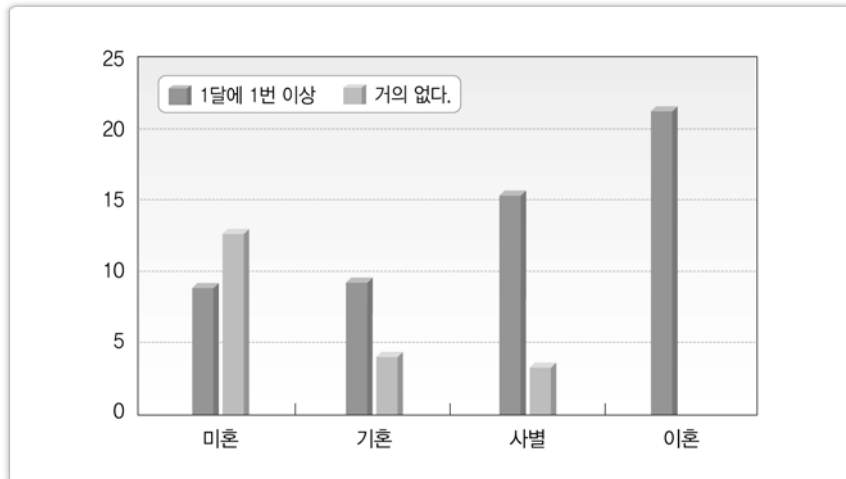
연령별로 고해성사의 빈도를 ‘1달에 1번 이상’과 ‘거의 없다.’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보면 응답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1달에 1번 이상’ 고해성사를 보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거의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11-4〉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별 고해성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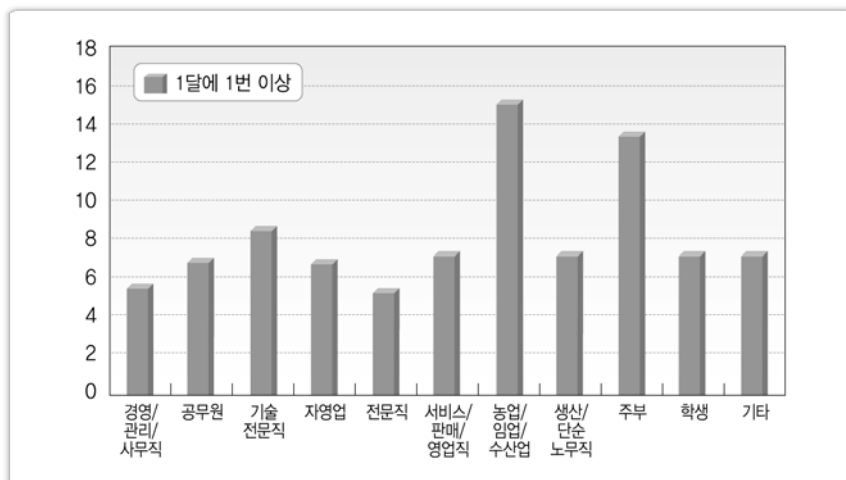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 별 고해성사 빈도를 ‘1달에 1번 이상’과 ‘거의 없다.’로 비교해보면 다른 기간에 비해 세례 받은 후 ‘1년 미만’ 응답자들은 ‘1달에 1번 이상’ 보다 ‘거의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두 항목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20년 미만’ 응답자들은 ‘거의 없다’는 응답률에 비해 ‘1달에 1번 이상’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두 항목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11-5〉 혼인관계별 고해성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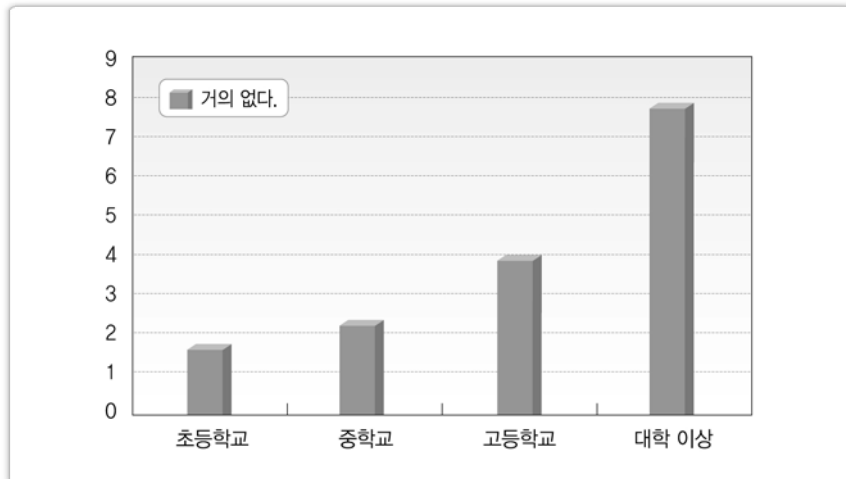
혼인관계별 고해성사 빈도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거의 없다.’는 응답률이 ‘1달에 1번 이상’이라는 응답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기혼’과 ‘사별’의 경우 ‘1달에 1번 이상’이 ‘거의 없다.’의 응답률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혼’의 경우 ‘거의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6〉 직업별 고해성사 빈도



‘1달에 1번 이상’ 고해성사를 하는 응답자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농업·임업·수산업’과 ‘주부’인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문직’ 종사자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그림 11-7〉 학력별 고해성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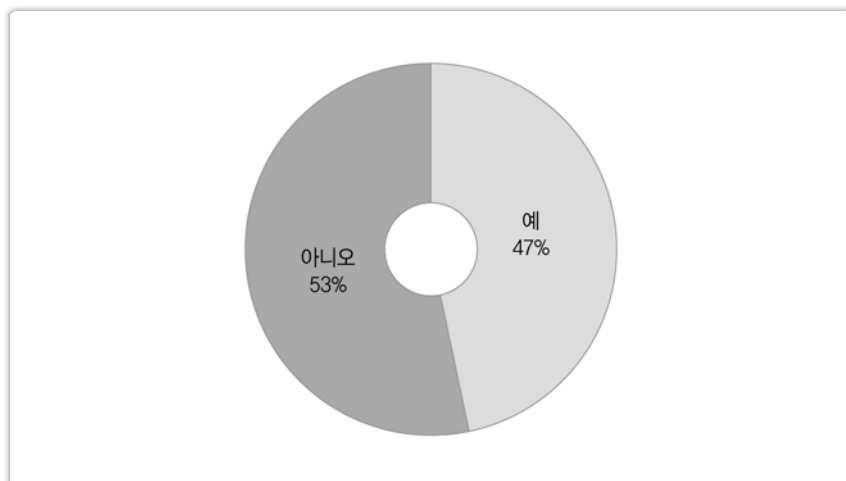


고해성사 빈도에서 ‘거의 없다.’는 응답자에 대한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응답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12 교회에서 혼인 성사

교회에서 혼인성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2-1〉 교회에서 혼인성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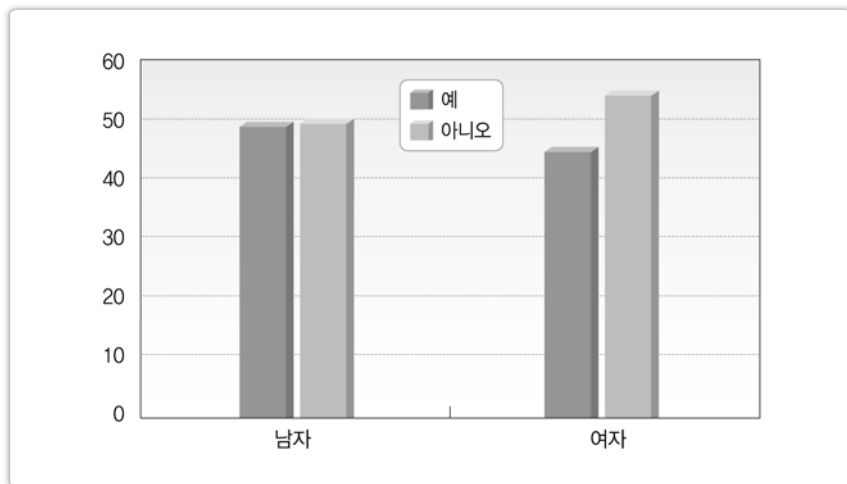
교회에서 혼인성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혼인성사를 하지 않음’ 53%, ‘혼인성사를 함’ 47%로 나타났다. 혼인성사를 한 응답자의 경우 교회에서 ‘혼인 성사’를 한 경우와 ‘관면 혼인 성사’를 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 교회에서 혼인성사 여부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혼인성사 함	49.2	51.5	50.9	53.6	48.8	50.0	41.5	39.8	40.0	49.5	59.1	46.2	32.9	42.6
혼인성사 안함	50.8	48.5	49.1	46.4	51.2	50.0	58.5	60.2	60.0	50.5	40.9	53.8	67.1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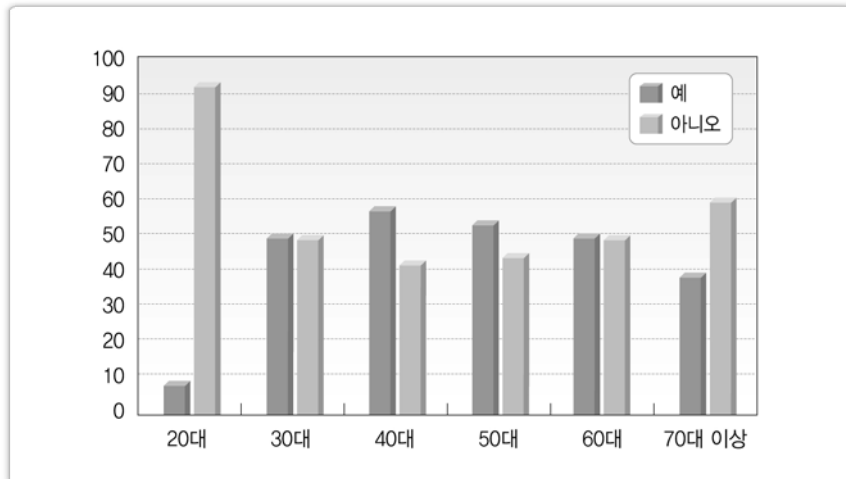
교회에서 혼인성사를 했는지에 대한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학 교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마산 교구에서 ‘혼인성사를 했다.’라고 답했고, 서울,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안동, 광주, 제주에서는 ‘혼인성사를 안했다.’라고 답했다. 거의 대부분의 교구에서 혼인 성사의 유무에 비슷한 비율로 답변했으나, 대구, 부산, 광주에서는 혼인성사를 안 한 비율이 혼인성사를 한 비율보다 10%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2〉 성별 교회에서 혼인성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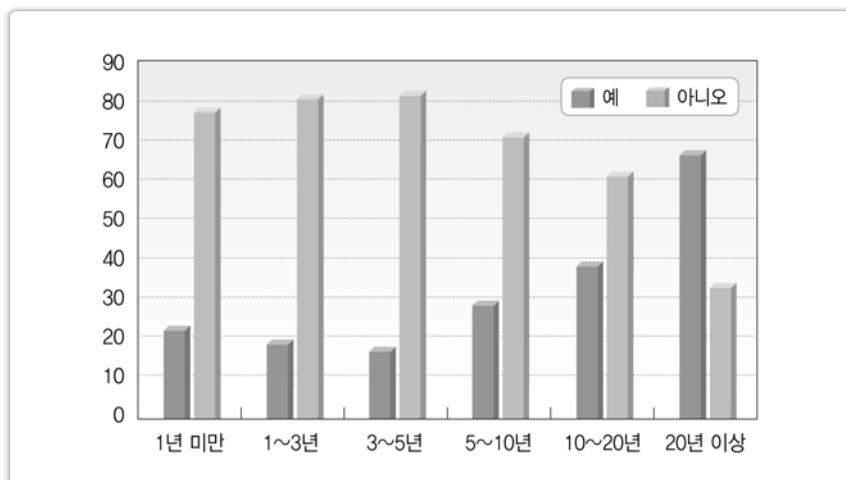
‘남자’ 응답자들은 혼인성사 여부에서 동일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여성 응답자들은 ‘혼인 성사를 안 함’에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림 12-3〉 연령별 교회에서 혼인성사 여부



연령별 혼인성사 여부를 살펴보면 20대 응답자의 경우 ‘혼인성사를 안 함’의 응답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그 내용은 실제로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자가 많아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혼인 성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약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0대 이후 연령 대에서는 ‘혼인성사를 함’의 비율이 ‘혼인성사를 안 함’의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70대 이상의 연령에서만 ‘혼인성사를 안 함’의 비율이 ‘혼인성사를 함’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4〉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교회에서 혼인성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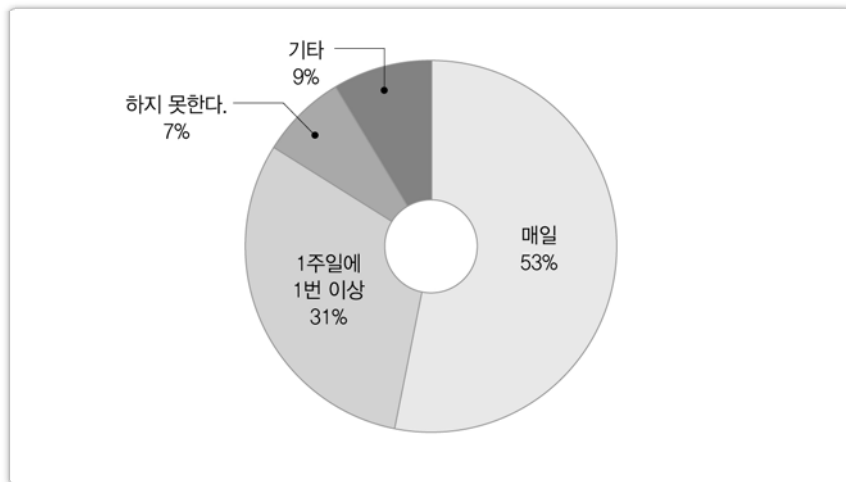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교회에서 혼인성사 여부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응답자들에서 ‘혼인성사를 함’의 비율이 ‘혼인성사를 안 함’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연령별 분석에서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연령 대에서는 ‘혼인성사를 안 함’이 ‘혼인성사를 함’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혼인 성사를 함’의 항목이 ‘1년 미만’에서 ‘3~5년’ 사이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이 후 기간동안 응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

A. 나의기도 빈도

기도의 빈도를 묻는 질문 중 ‘나의기도’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3A-1〉 나의기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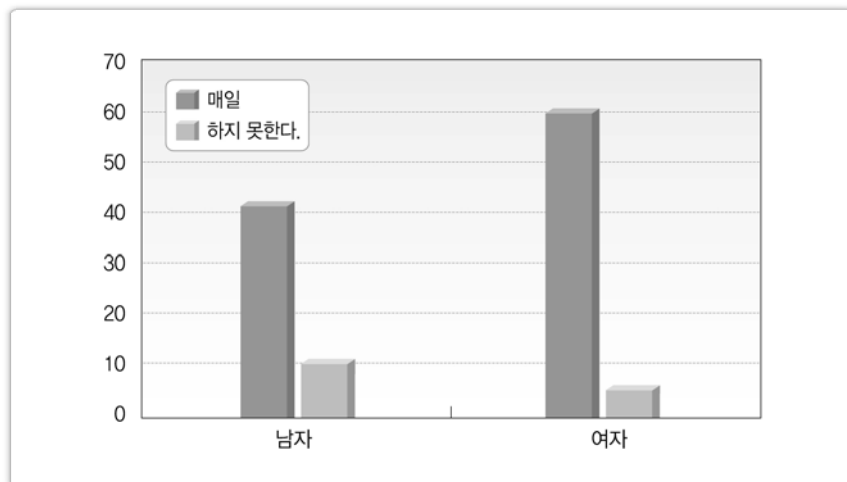
‘나의기도’를 묻는 질문에 ‘매일’ 53%, ‘1주일에 1번 이상’ 31%, ‘기타’ 9%, ‘하지 못한다.’ 7%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1개월에 1번 이상’, ‘1년에 3~4번’ 등이다.

〈표 8A〉 나의기도 빈도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매일	49.9	56.0	52.7	52.4	59.1	57.5	55.8	56.7	49.3	40.2	70.1	53.2	53.2	50.5
1주일에 1번 이상	33.0	25.0	30.9	27.4	27.6	29.0	30.5	31.6	30.3	32.6	25.4	36.2	29.4	35.9
1개월에 1번 이상	5.1	4.0	1.8	3.8	5.2	4.7	7.4	5.7	8.0	4.3	0.0	4.3	5.2	1.0
1년에 3~4번	4.0	2.0	5.5	4.9	4.2	2.1	4.2	3.0	2.0	12.0	3.0	3.2	3.9	1.9
하지 못한다.	8.0	13.0	9.1	11.5	3.9	6.7	2.1	3.0	10.7	10.9	1.5	3.2	8.2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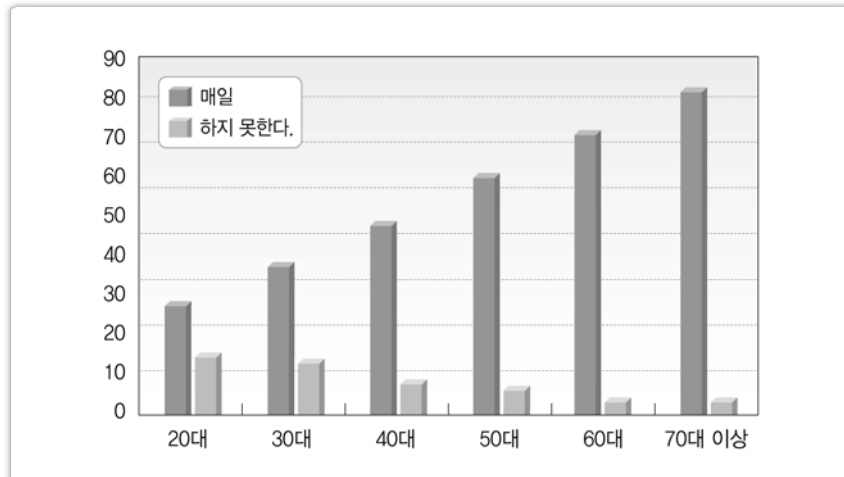
‘나의기도’의 빈도를 묻는 질문의 교구별 특성에 모든 교구에서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특히 마산교구의 경우 70.1%의 응답자가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응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모든 교구에서 ‘1주일에 1번 이상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응답이 2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 교구에서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 기도하고 있다는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A-2〉 성별 나의기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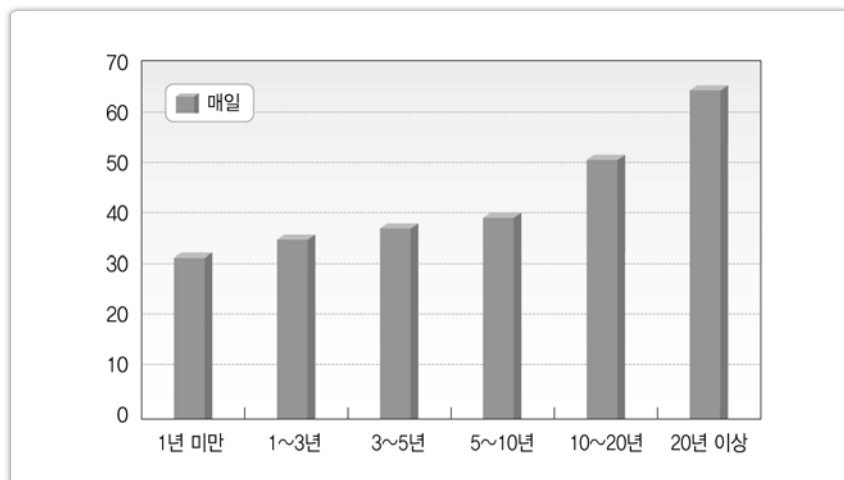
나의기도 빈도 결과의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매일’ 기도하는 응답자가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에 비해 많았고, ‘여자’의 경우에도 ‘매일’ 기도하는 응답자가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에 비해 많았다. 그런데, ‘여자’는 ‘매일’ 기도하는 비율이 ‘하지 못한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그림 13A-3〉 연령별 나의기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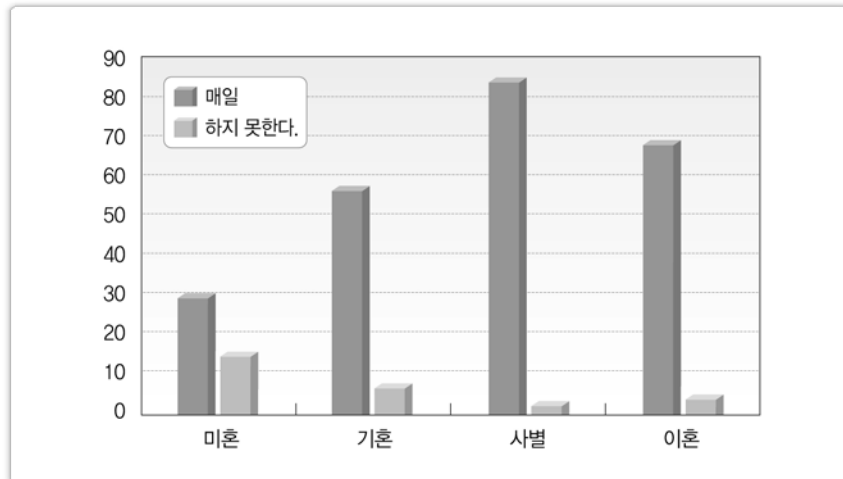
나의기도 빈도의 연령별 특성을 ‘매일’ 기도하는 응답자와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매일’ 기도하는 비율이 ‘하지 못한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왔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률이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줄어들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기도한다는 응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A-4〉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나의기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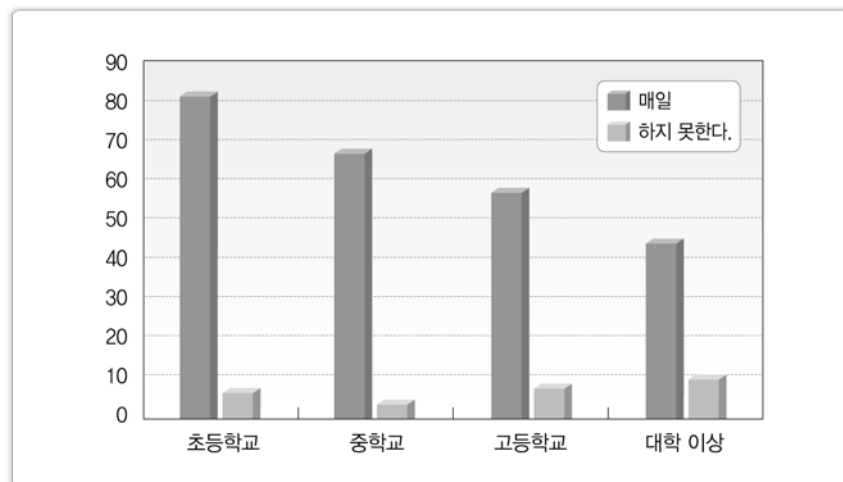
‘나의기도’ 빈도에 ‘매일’이라고 응답한 신자들을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로 비교해보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0~20년이 지난 후부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13A-5〉 혼인관계별 나의기도 빈도



혼인관계별로 ‘나의기도’ 빈도를 ‘매일’과 ‘하지 못한다.’로 비교해보면 모든 응답자가 ‘매일’ 보다 ‘하지 못한다.’에 더 많이 응답했다. ‘미혼’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타의 혼인관계에서 ‘매일’ 기도하는 비율이 ‘하지 못한다.’는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별’과 ‘이혼’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A-6〉 학력별 나의기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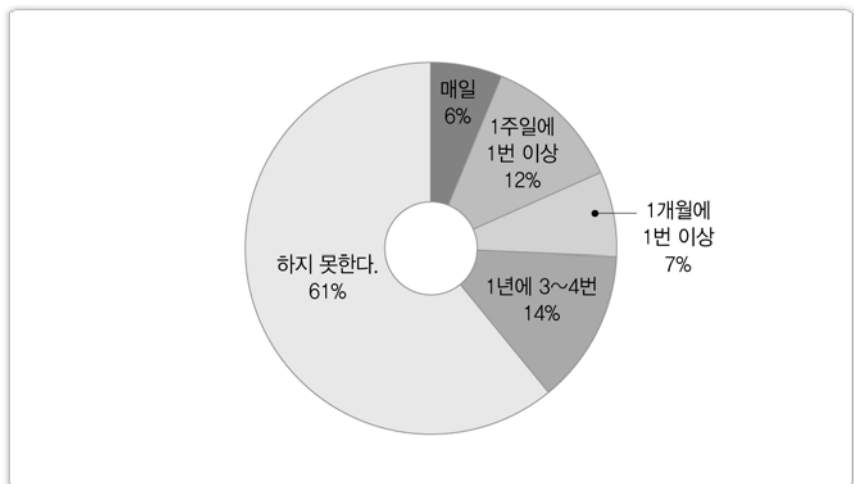


학력별 나의기도 빈도를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들이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보다 더 많이 했다. 주목할 점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률이 감소하는데 반해 ‘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B. 가족기도 빈도

기도의 빈도를 묻는 질문 중 ‘가족기도’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3B-1〉 가족기도 빈도



‘가족기도’를 묻는 질문에 ‘하지 못한다.’ 61%, ‘1년에 3~4번’ 14%, ‘1주일에 1번 이상’ 12%, ‘1개월에 1번 이상’ 7%, ‘매일’ 6%로 나타났다. ‘가족기도’를 하는 경우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이상 기도하고 있는 응답자가 18%로 나타났다.

〈표 13B〉 가족기도 빈도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매일	5.7	4.0	8.7	6.9	6.8	12.3	4.2	5.7	6.0	4.3	6.2	3.3	4.7	6.0
1주일에 1번 이상	11.6	11.1	14.9	11.1	11.4	20.3	4.2	10.7	8.0	7.6	15.4	17.6	11.6	18.0
1개월에 1번 이상	7.7	3.0	8.7	6.9	9.0	7.5	12.6	5.0	7.3	7.6	7.7	8.8	3.9	10.0
1년에 3~4번	12.6	13.1	11.8	16.7	13.6	13.9	21.1	12.6	12.7	12.0	12.3	15.4	12.9	12.0
하지 못한다.	62.4	68.7	55.9	58.3	59.3	46.0	57.9	66.0	66.0	68.5	58.5	54.9	66.8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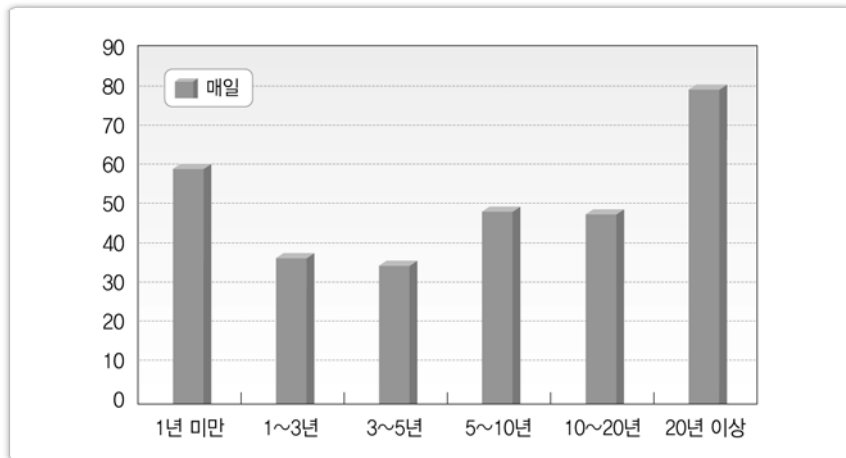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빈도를 묻는 질문의 교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교구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평균 60%정도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 기도 빈도에 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문항은 대전, 원주, 마산, 안동, 제주에

서 ‘1주일에 1번 이상’, 서울, 춘천, 인천, 수원,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광주에서 ‘1년에 3~4번’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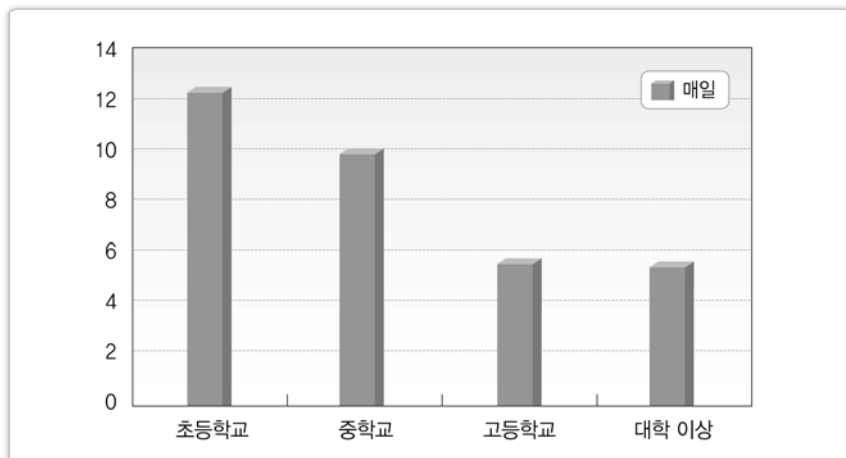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생활화가 되어 있으나 가족이 함께 드리는 빈도는 개인이 드리는 기도 에 비해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함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림 13B-2〉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가족기도 빈도



‘매일’ 가족기도를 하는 응답자의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빈도를 살펴보면 세례받은 지 ‘20년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인 경우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3년’ 과 ‘3~5년’이 경과한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B-3〉 학력별 가족기도 빈도



학력별로 ‘매일’ 기도하는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비슷한 비율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14 성경읽기 빈도

성경읽기의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4-1〉 성경읽기 빈도



‘성경읽기’의 빈도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읽는다.’ 48%, ‘일주일에 2~3회 읽는다.’ 22%, ‘전혀 읽지 않는다.’ 17%, ‘매일 읽는다.’ 1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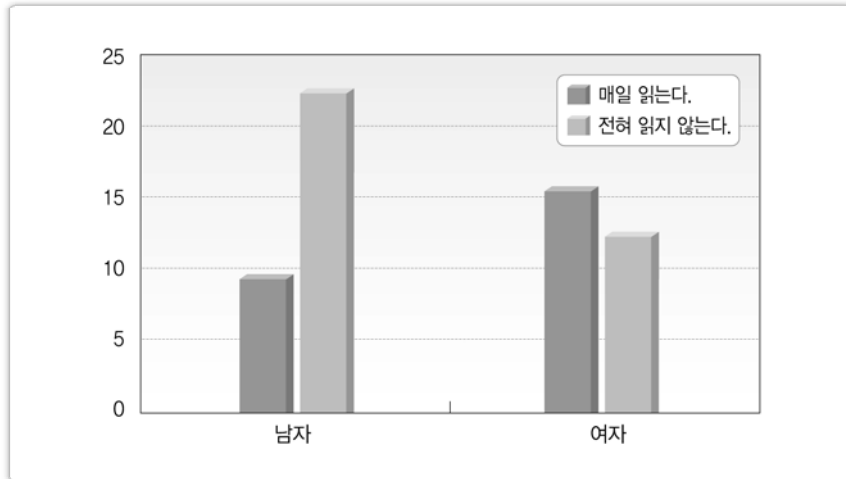
〈표 9〉 성경읽기 빈도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매일	12.2	11.0	12.8	16.5	11.8	17.8	10.4	13.2	15.9	6.5	16.4	17.0	15.8	8.8
일주일에 2~3회	17.9	23.0	29.3	17.2	20.8	24.6	18.8	23.4	25.2	21.5	34.3	28.7	20.5	27.5
가끔 생각날 때마다	49.8	47.0	39.0	45.3	52.6	48.2	46.9	51.7	43.7	48.4	46.3	44.7	53.4	44.1
전혀 읽지 않는다	20.1	19.0	18.9	21.1	14.8	9.4	24.0	11.7	15.2	23.7	3.0	9.6	10.3	19.6

성경읽기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교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교구에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읽고 있다는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게 나타나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춘천,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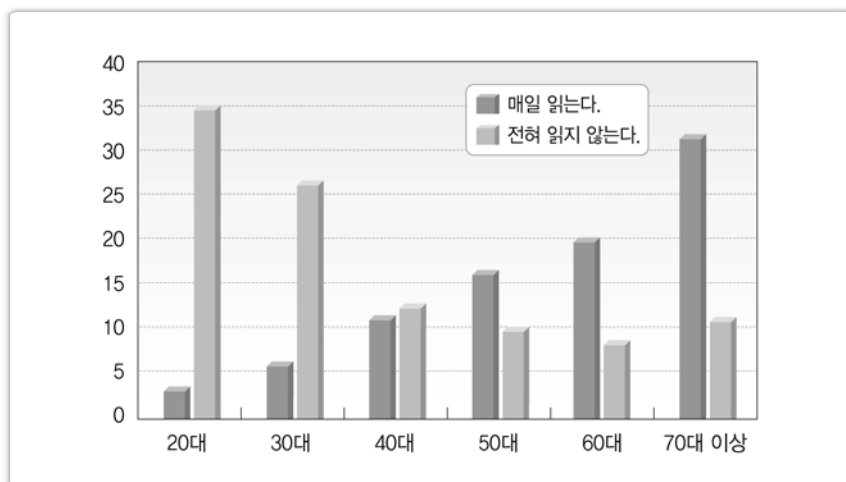
수원, 원주, 부산, 마산, 안동, 광주, 제주 교구에서 ‘일주일에 2~3회’ 성경을 읽고 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교구에서는 ‘전혀 읽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2〉 성별 성경읽기 빈도



‘성경 읽기’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일 읽는다.’와 ‘전혀 읽지 않는다.’는 항목으로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을 ‘매일 읽는다.’는 응답보다 많이 했고, 반면에 ‘여자’는 ‘매일 읽는다.’는 응답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이 하여 ‘성경 읽기’ 빈도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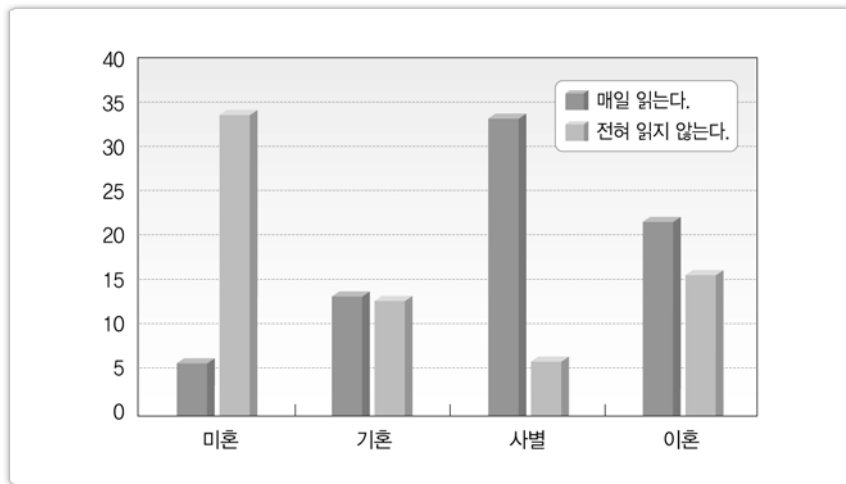
〈그림 14-3〉 연령별 성경읽기 빈도



‘성경 읽기’ 빈도에서 ‘매일 읽는다.’와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일 읽는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으나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어 그 감소의 경향성이 완전히 비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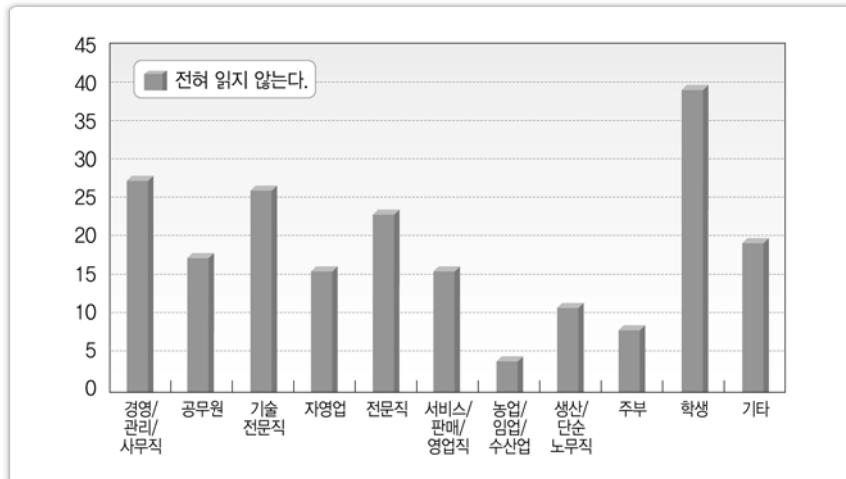
20대와 30대는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고, 그 차이도 매우 컸고, 40대 역시 ‘전혀 읽지 않는다.’에 더 많은 응답을 했으나 응답률의 차이는 더 적었다. 반면에 50대, 60대, 70대는 ‘매일 읽는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그림 14-4〉 혼인관계별 성경읽기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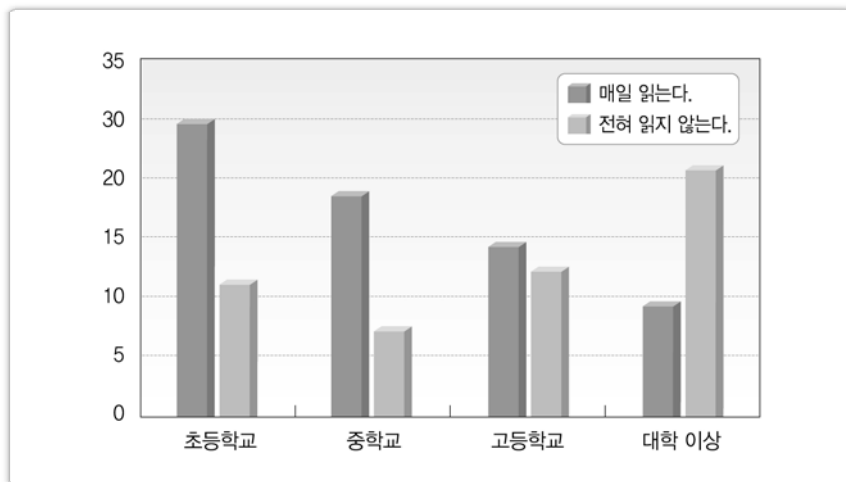
혼인관계별 성경읽기 빈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전혀 읽지 않는다.’를 ‘매일 읽는다.’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여타의 혼인관계에서는 ‘매일 읽는다.’를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사별’의 경우 ‘매일 읽는다.’는 비율이 ‘전혀 읽지 않는다.’는 비율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5〉 직업별 성경읽기 빈도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응답자의 특성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농업·임업·수산업’, ‘주부’, ‘생산·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낮은 직업군에 속하였다.

〈그림 14-6〉 학력별 성경읽기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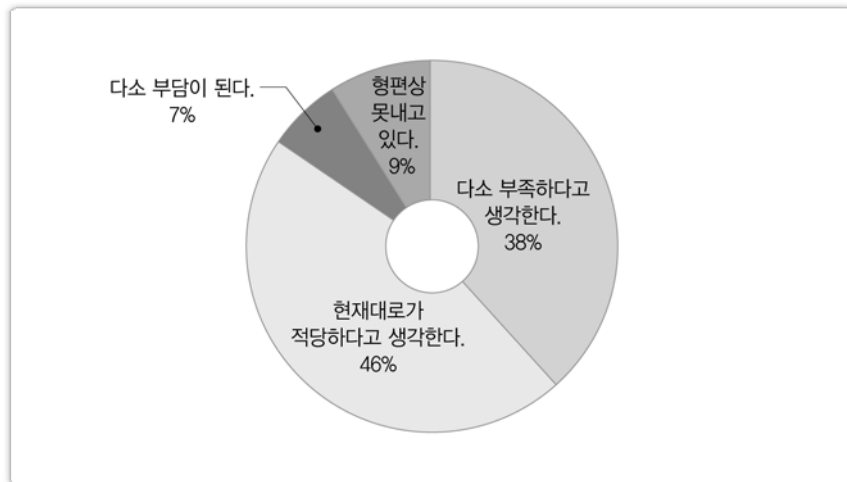


학력별 성경읽기 빈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매일 읽는다.’는 응답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이 하였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두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작아지는데,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오히려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5 교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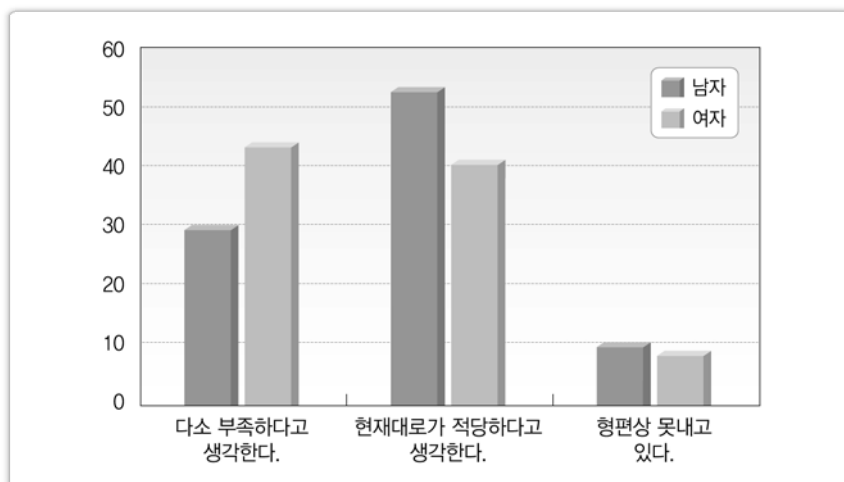
교무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5-1〉 교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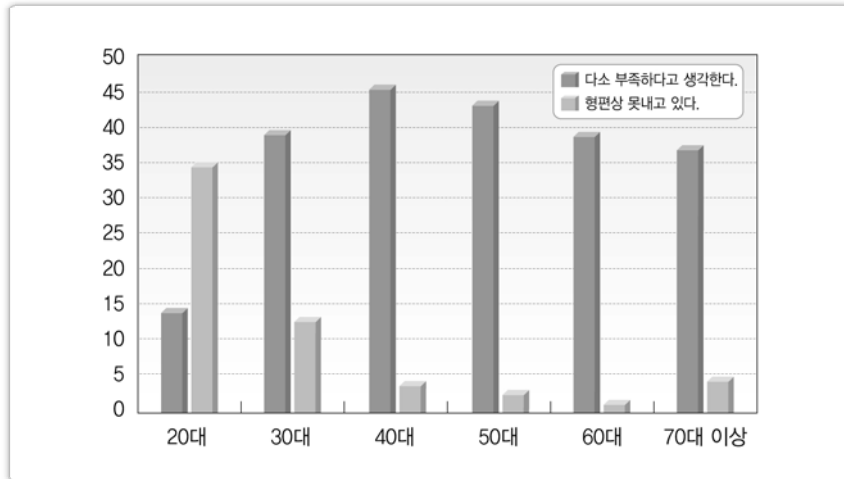
교무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대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46%,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8%,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0%, ‘형편상 못 내고 있다.’ 9%, ‘다소 부담이 된다.’ 7%로 나타났다.

〈그림 15-2〉 성별 교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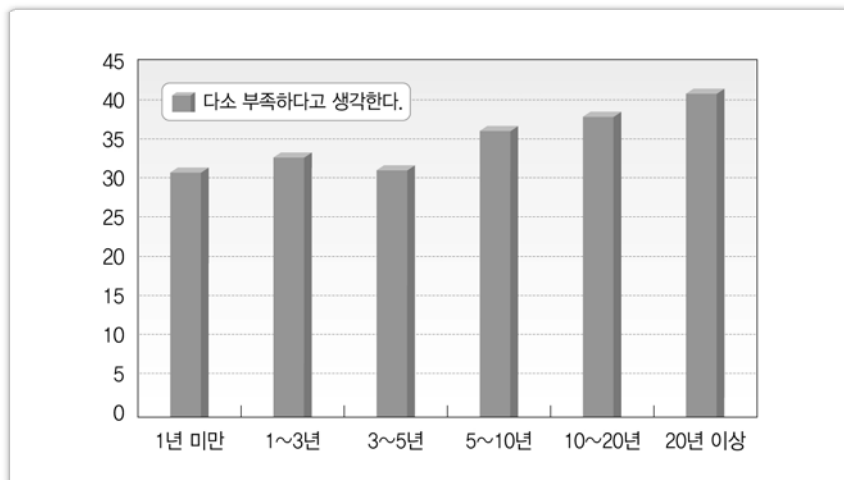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여자보다 남자가 ‘현재대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형편상 교무금을 못 내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그림 15-3〉 연령별 교무금



현재 내고 있는 교무금에 대해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형편상’ 교무금을 못 내고 있는 연령대는 20대, 3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고,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의 경우 교무금을 못내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4〉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별 교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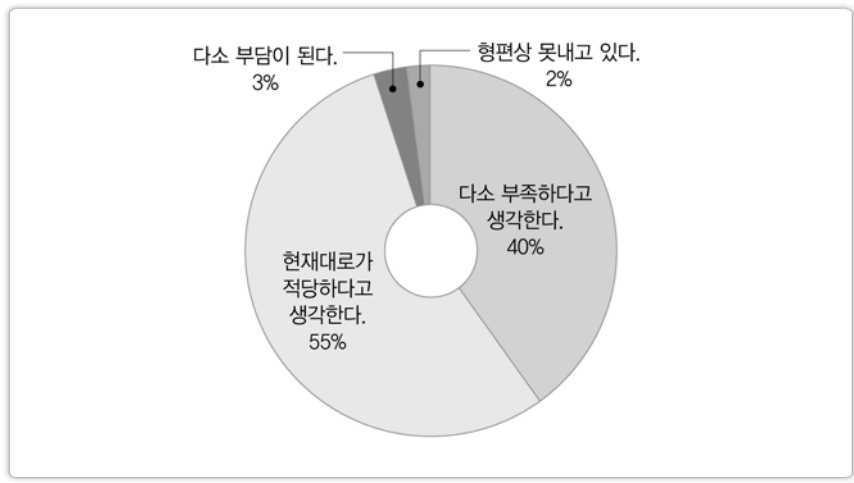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로 교무금에 대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자의 응답률은 증가하고 있고, 20년 이상이 경과한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16 주일헌금

현재 내고 있는 주일헌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6-1〉 주일헌금



주일헌금에 대해 ‘현재대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55%,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40%, ‘다소 부담이 된다.’ 3%, ‘형편상 못 내고 있다.’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선 교무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과 유사한 응답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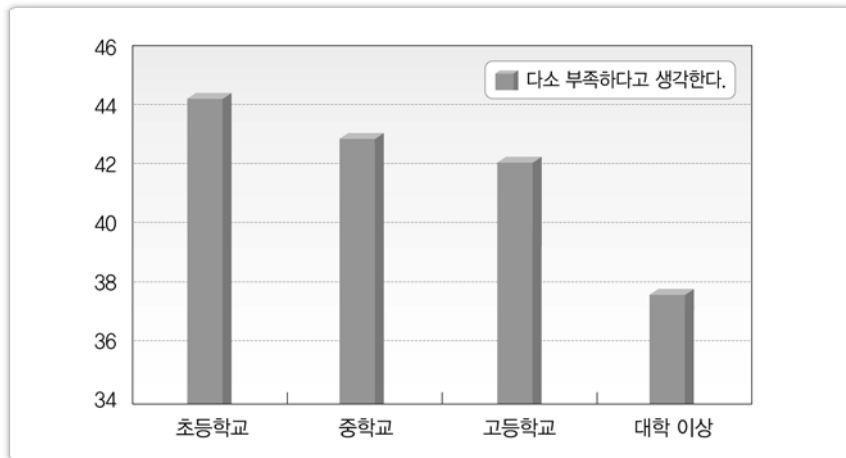
〈표 10〉 주일헌금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부족하다 생각	36.8	52.6	32.7	49.7	43.0	38.3	39.6	34.5	27.8	38.0	40.3	40.4	46.8	50.5
현재 적당함	57.9	44.3	63.6	47.6	53.0	51.3	55.2	60.6	66.9	56.5	58.2	56.4	46.0	48.5
다소 부담됨	3.1	1.0	3.0	1.4	2.4	6.7	3.1	2.3	2.0	2.2	1.5	2.1	3.0	1.0
못 내고 있음	2.2	2.1	0.6	1.4	1.5	3.6	2.1	2.7	3.3	3.3	0.0	1.1	4.3	0.0

현재 내고 있는 주일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춘천, 인천, 광주, 제주 교구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를 서울, 대전,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교구는 ‘현재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 문

항에서 적당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다소 부담되거나 형편상 못 내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2〉 학력별 주일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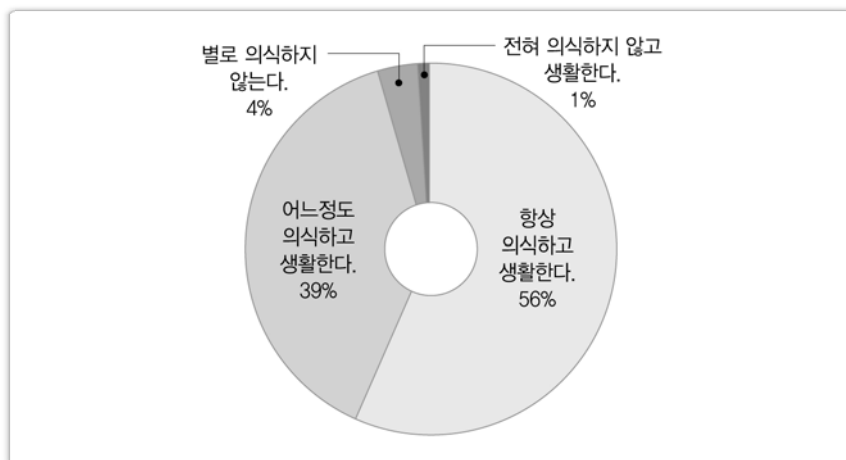


주일헌금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의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3.17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

천주교 신자로서의 의식을 생활화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7-1〉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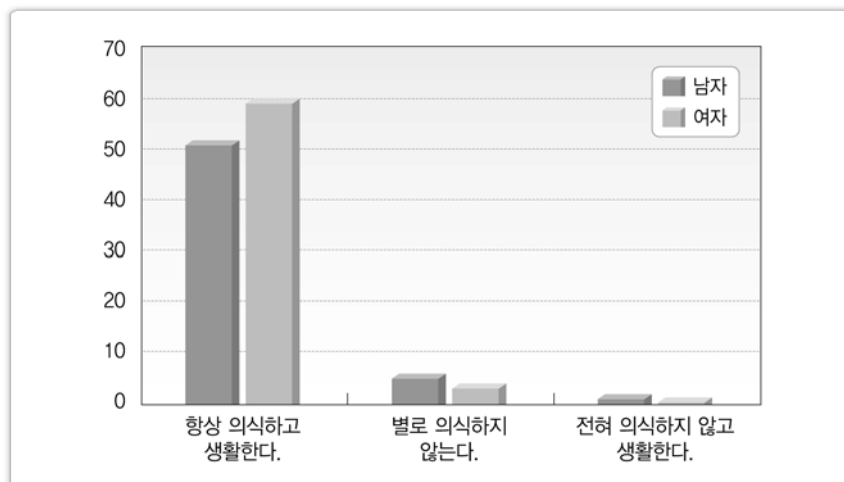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를 묻는 질문에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 56%, ‘어느 정도 의식하고 생활한다.’ 39%,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4%,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한다.’ 1%로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주교 신자로서 이를 의식하고 생활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률의 85%로 나타났다.

〈표 11〉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항상 의식	53.2	58.6	62.4	58.9	58.3	58.5	54.2	59.8	47.0	41.9	72.1	67.7	57.6	54.4
어느정도 의식	42.3	37.4	34.5	34.8	37.2	35.8	42.7	34.6	47.0	46.2	25.0	30.1	39.8	39.8
별로 의식안함	3.3	4.0	3.0	4.9	4.2	3.6	3.1	4.9	4.6	9.7	2.9	1.1	1.7	5.8
전혀 의식안함	1.2	0.0	0.0	1.4	0.3	2.1	0.0	0.8	1.3	2.2	0.0	1.1	0.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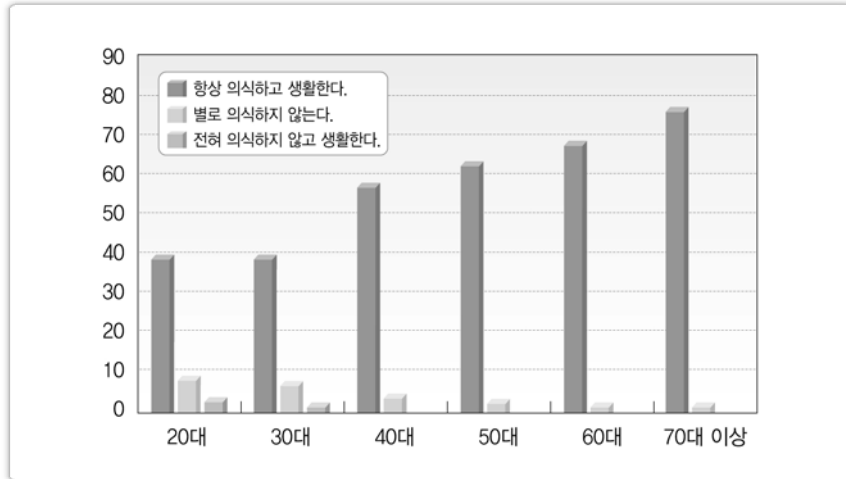
천주교 신자임을 인식하고 생활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교구에서 ‘항상 의식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마산의 경우 72.1%의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로서 이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여 전 교구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전 교구에서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를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천주교 신자로서 의식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이 청주를 제외하고 전 교구에서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2〉 성별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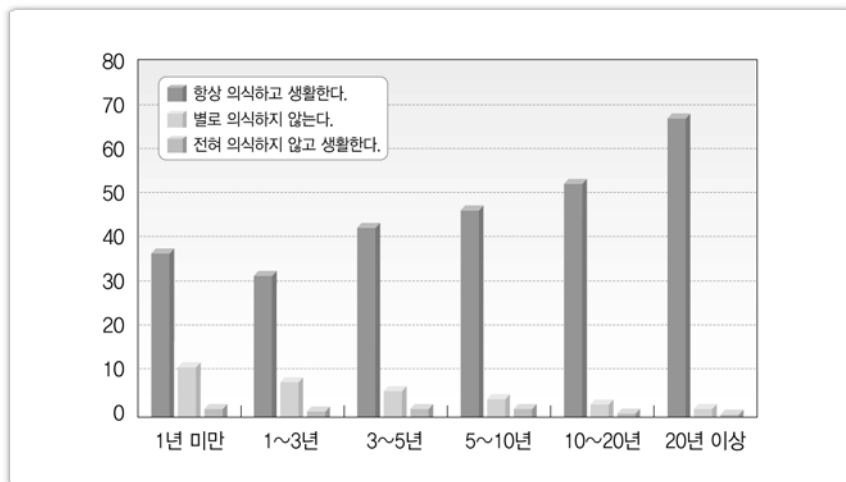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는 묻는 질문에 대한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천주교 신자임을 의식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자의 경우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3〉 연령별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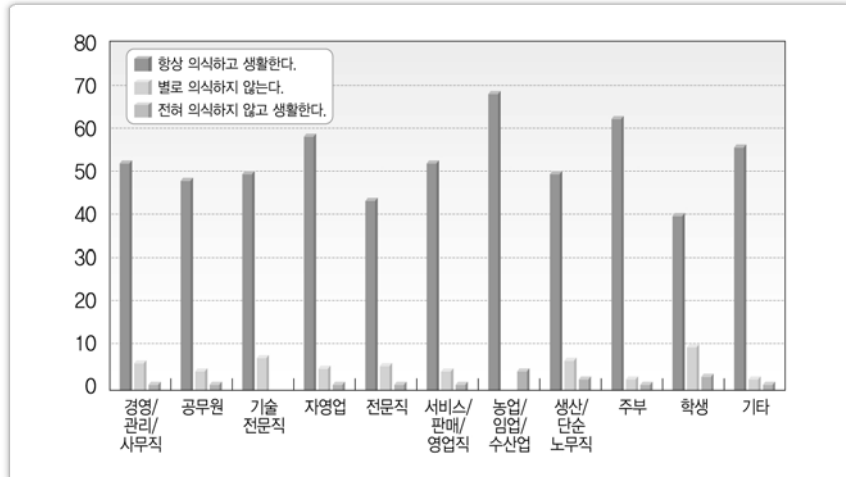
연령별로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를 묻는 질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림 17-4〉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별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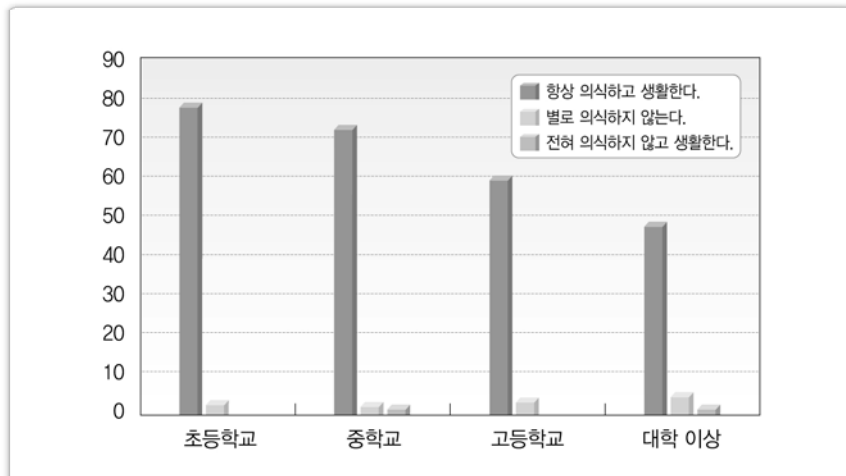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로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를 살펴보면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5〉 직업별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



직업별로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와 ‘주부’, ‘자영업’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학생’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17-6〉 학력별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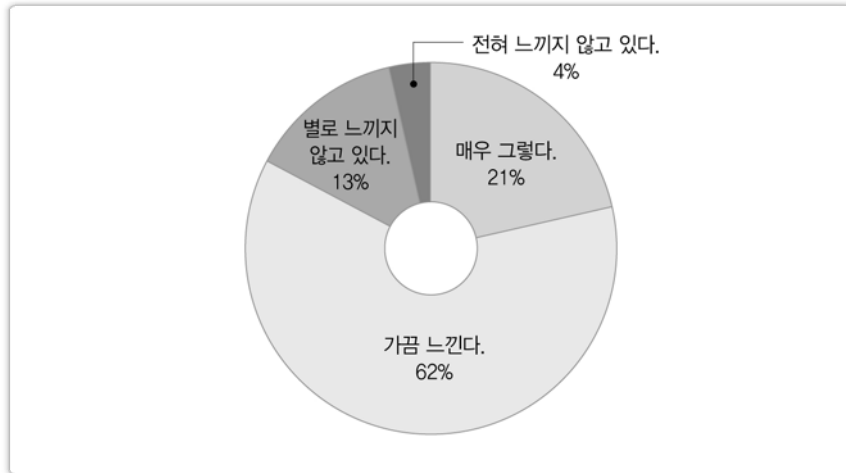


학력별 천주교 신자의식의 생활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3.18 선교의 의무

신자로서 선교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8-1〉 선교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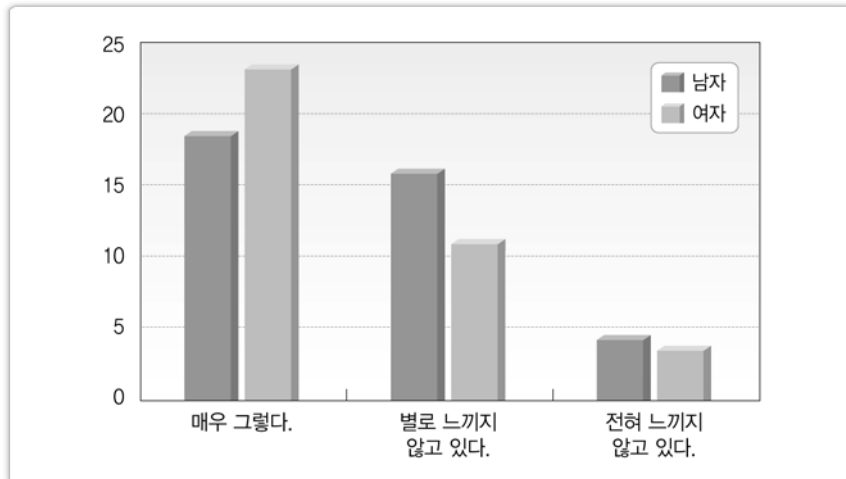
선교의 의무를 묻는 질문에 ‘가끔 느낀다.’ 62%, ‘매우 그렇다.’ 21%,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13%,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 4%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83%의 응답자가 선교의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표 12〉 선교의 의무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매우 그렇다.	21.0	22.2	22.1	24.9	21.3	25.5	15.6	14.8	18.0	9.9	36.8	21.3	24.9	26.2
가끔 느낀다.	60.3	58.6	59.5	53.3	62.5	61.5	63.5	70.3	66.0	69.2	57.4	67.0	61.6	59.2
별로 느끼지 않음	15.0	16.2	14.7	15.4	13.4	6.3	17.7	12.5	12.0	13.2	5.9	10.6	12.2	12.6
전혀 느끼지 않음	3.8	3.0	3.7	6.3	2.7	6.8	3.1	2.3	4.0	7.7	0.0	1.1	1.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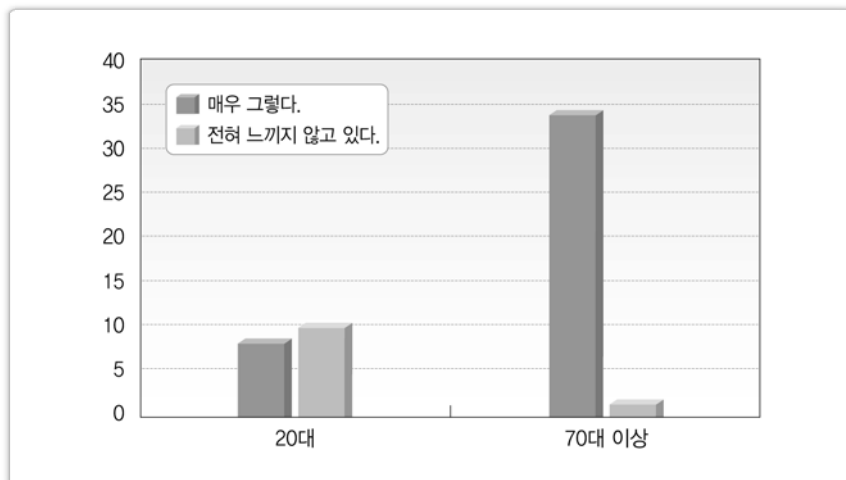
천주교 신자로서 선교의 의무를 느끼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교구에서 ‘가끔 느낀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으며, 청주를 제외한 전 교구에서 ‘매우 그렇다.’를 두 번째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청주의 경우 ‘별로 느끼지 않음’을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특이할 점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신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선교의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8-2〉 성별 선교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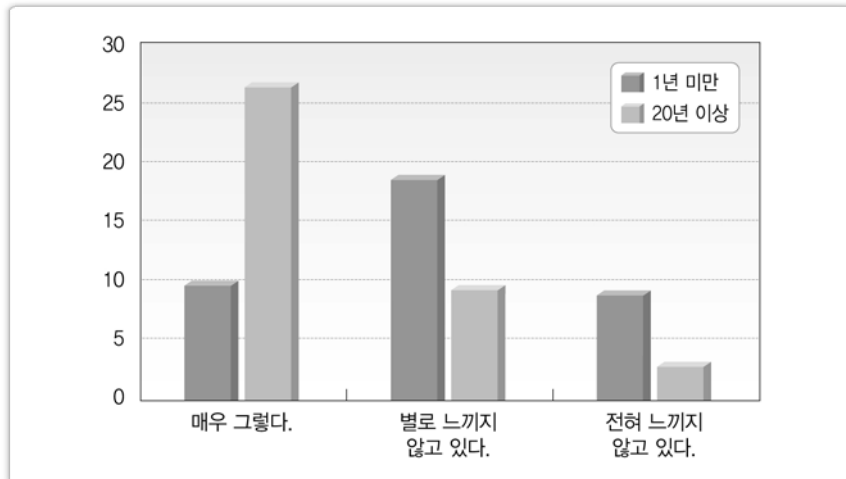
선교의 의무에 대한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에 남자보다 여자의 응답이 더 높았고,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와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응답에 여자보다 남자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8-3〉 연령별 선교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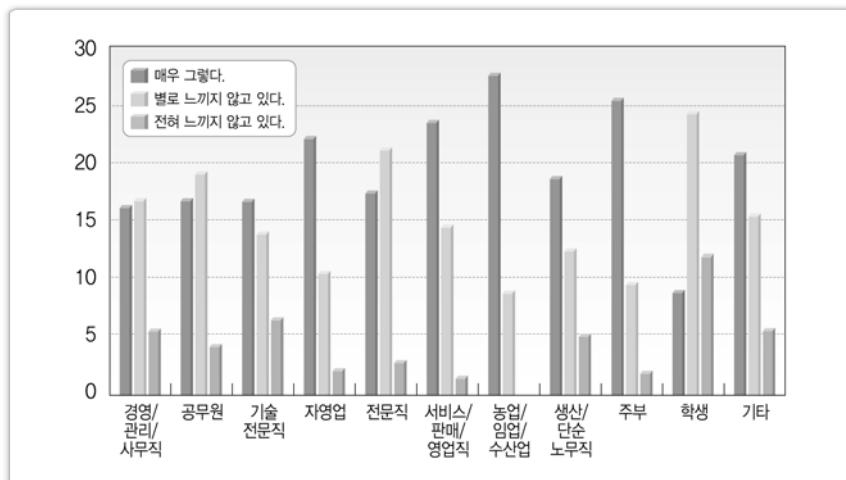
연령별 선교의 의무를 ‘매우 그렇다.’와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의 항목으로 비교해보면 20대에 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보다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가 근소한 차이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 나 70대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응답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 며 응답률의 차이도 매우 컸다.

〈그림 18-4〉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별 선교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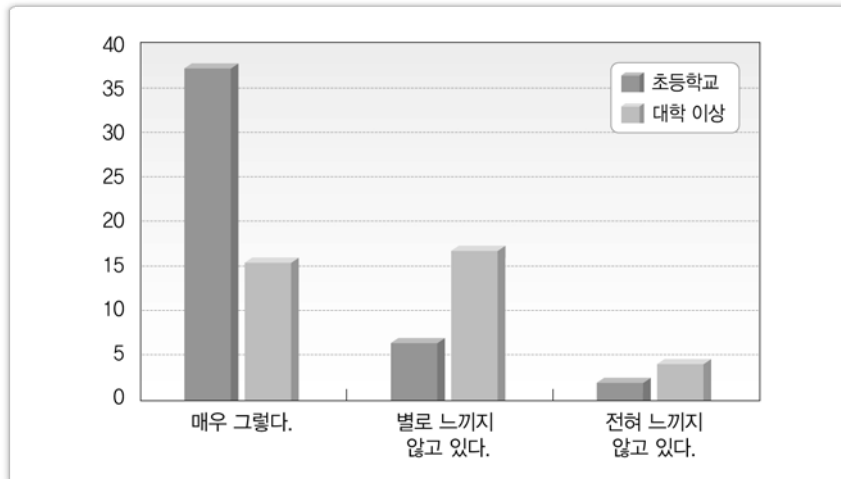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 중 ‘1년 미만’과 ‘20년 이상’ 응답자의 선교의 의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1년 미만’ 응답자들은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에 ‘20년 이상’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는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대조적이다.

〈그림 18-5〉 직업별 선교의 의무



선교의 의무에 대하여 직업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매우 그렇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는데 반해, ‘경영·관리·사무직’, ‘공무원’, ‘전문직’, ‘학생’의 직업군에서는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의 경우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다른 직업군에서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8-6〉 학력별 선교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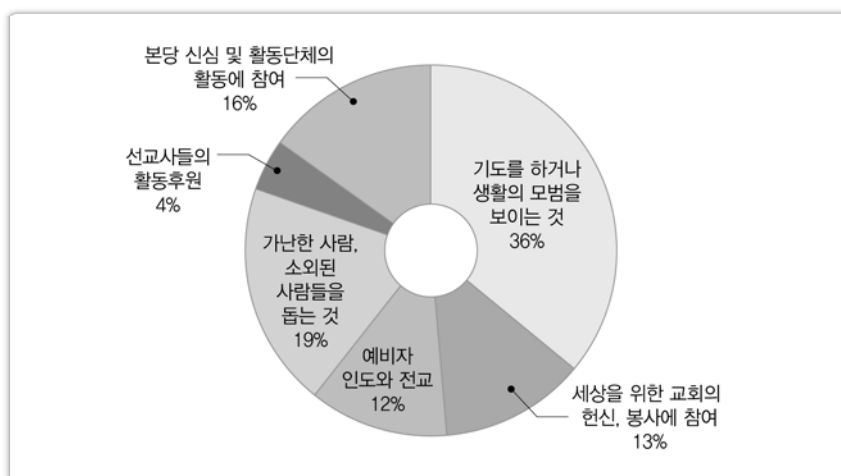


학력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 학력과 ‘대학이상’ 학력자들의 응답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 이상’ 학력에 비해 ‘초등학교’ 학력자들이 선교의 의무에 ‘매우 그렇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대학 이상’의 학력자들은 ‘초등학교’ 학력의 응답자에 비해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와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응답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19 선교참여 방법

선교참여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9-1〉 선교참여 방법



선교 참여 방법에 대해 ‘기도를 하거나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것’ 36%,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돕는 것’ 19%, ‘본당 신심 및 활동 단체의 활동에 참여’ 16%, ‘세상을 위한 교회의 헌신, 봉사에 참여’ 13%, ‘예비자 인도와 전교’ 12%, ‘선교사 등을 후원’ 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선교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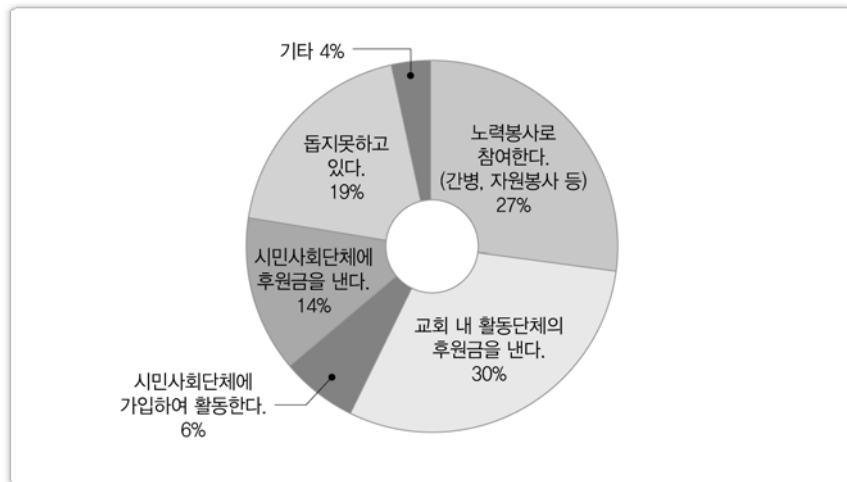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기도 또는 생활의 모범보이는 것	76.3	72.4	71.7	79.3	76.7	69.6	81.3	76.7	77.5	80.6	72.2	60.7	67.6	68.6
세상위한 교회의 헌신봉사에 참여	23.4	26.4	27.5	22.0	31.7	30.4	20.0	26.5	24.0	20.8	40.7	29.8	28.5	19.8
예비자 인도와 전교	24.3	11.5	28.3	23.6	22.3	25.9	16.3	26.0	20.9	13.9	29.6	32.1	28.5	44.2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돕는 것	40.8	49.4	36.2	37.8	36.6	41.1	28.8	40.8	43.4	44.4	38.9	46.4	38.2	46.5
선교사들의 활동 후원	10.4	8.0	8.0	8.5	8.7	5.1	7.5	7.6	10.9	11.1	3.7	7.1	8.2	9.3
본당 신심 및 활동 단체에 참여	26.1	21.8	34.1	32.1	35.5	36.7	21.3	40.8	32.6	27.8	33.3	33.3	34.8	40.7

중복 응답을 허용한 결과로 선교 참여 방법에 대한 교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교구에서 ‘기도 또는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돕는 것’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앞선 전체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와 동일한 순서를 보이는 것이다.

3.20 이웃돕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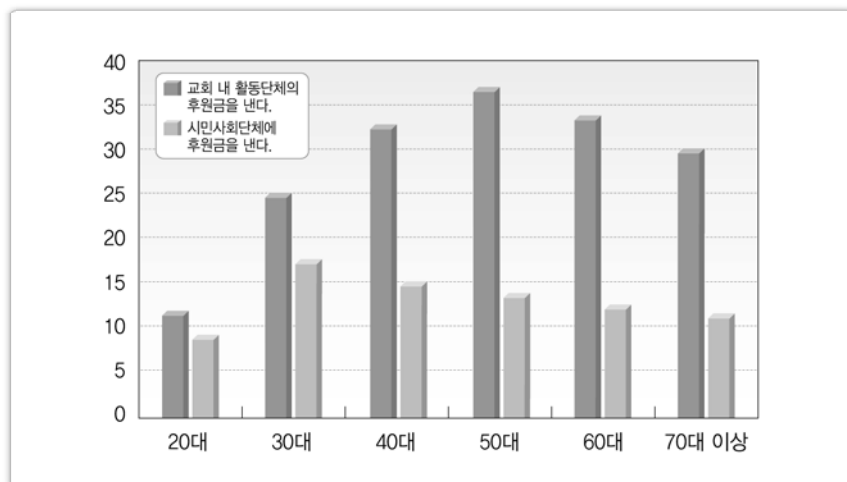
이웃돕기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0-1〉 이웃돕기 방법



이웃돕기 방법에 대한 질문에 ‘교회 내 활동 단체의 후원금을 낸다.’ 30%, ‘노력봉사로 참여한다.’ 27%, ‘돕지 못하고 있다.’ 19%, ‘시민사회단체에 후원금을 낸다.’ 14%, ‘기타’ 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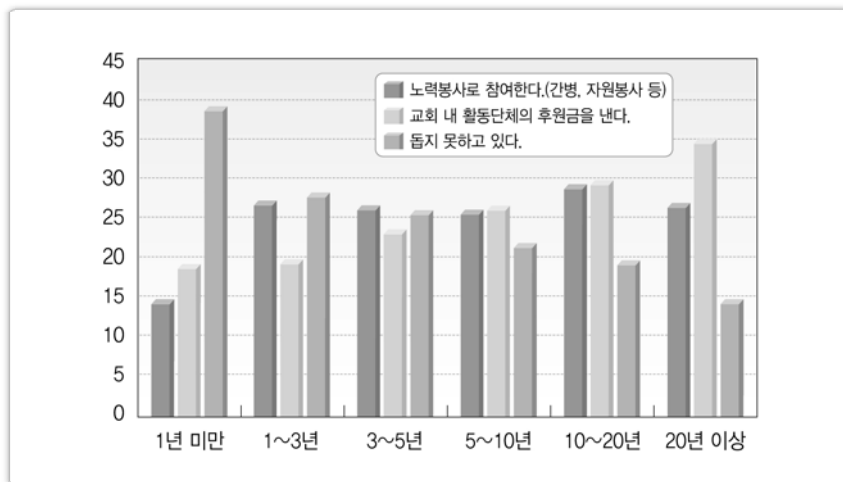
〈그림 20-2〉 연령별 이웃돕기 방법



이웃돕기 방법 중 ‘교회 내 활동 단체의 후원금을 낸다.’와 ‘시민사회단체에 후원금을 낸다.’는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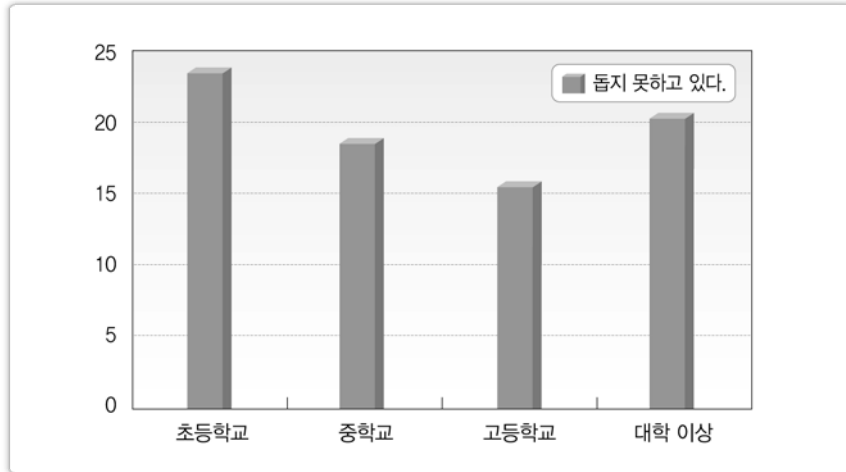
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교회 내 활동 단체의 후원금을 낸다.’는 응답이 ‘시민사회 단체에 후원금을 낸다.’는 응답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교회 내 활동 단체의 후원금을 낸다.’는 응답률이 ‘시민사회단체에 후원금을 낸다.’는 응답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다른 연령 대에 비해 응답률의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후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0-3〉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별 이웃돕기 방법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이웃돕기 방법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경우 ‘돕지 못하고 있다.’, ‘교회 내 활동 단체의 후원금을 낸다.’, ‘노력봉사로 참여한다.’ 순으로 나타났고, ‘1~3년’은 ‘돕지 못한다.’, ‘노력봉사로 참여한다.’, ‘교회 내 활동단체의 후원금을 낸다.’순으로, ‘3~5년’은 ‘노력봉사로 참여한다.’, ‘돕지 못하고 있다.’, ‘교회 내 활동단체의 후원금을 낸다.’ 순으로, ‘5~10년’은 ‘교회 내 활동단체의 후원금을 낸다.’, ‘노력봉사로 참여한다.’, ‘돕지 못하고 있다.’ 순으로, ‘10~20년’은 ‘교회 내 활동단체의 후원금을 낸다.’, ‘노력봉사로 참여한다.’, ‘돕지 못하고 있다.’순으로, ‘20년 이상’은 ‘교회 내 활동 단체의 후원금을 낸다.’, ‘노력봉사로 참여한다.’, ‘돕지 못하고 있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세례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이 후에는 노력봉사보다 활동 단체의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4〉 학력별 이웃돕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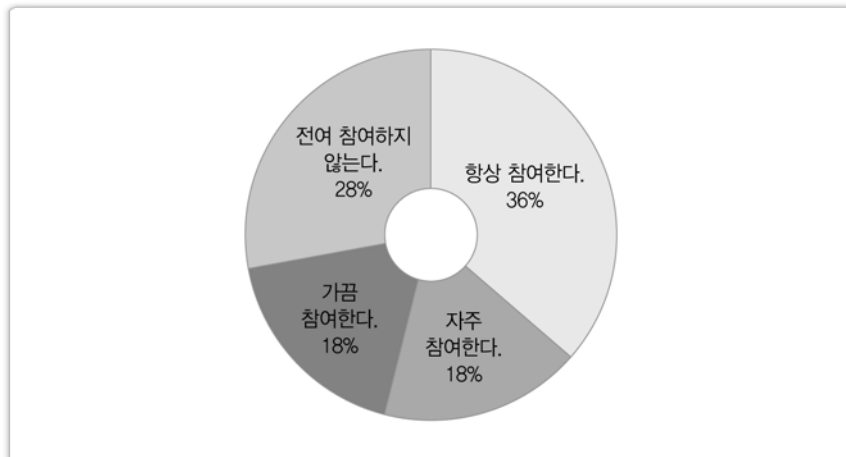


이웃돕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의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다가 ‘대학 이상’의 경우 다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3.21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아래와 같다.

〈그림 21-1〉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에 대해 ‘항상 참여한다.’ 36%,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8%, ‘자주 참여한다.’와 ‘가끔 참여한다.’가 각각 18%를 차지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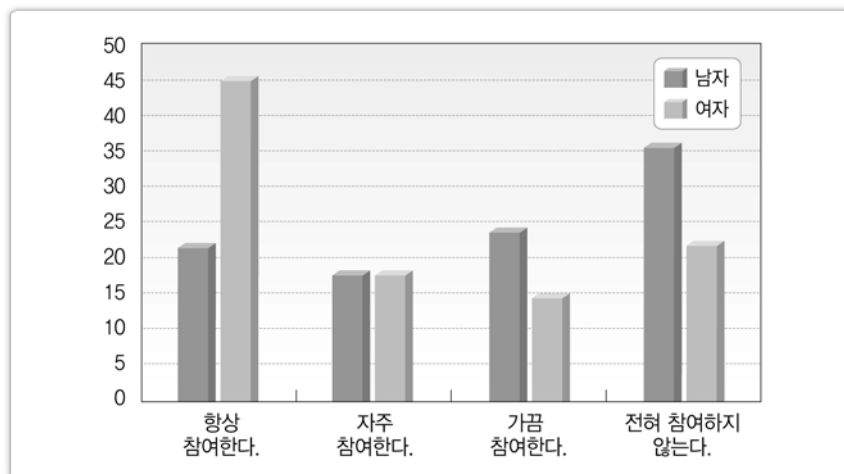
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률에 82%로 나타났다.

〈표 14〉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항상 참여	39.2	30.0	32.1	32.6	44.1	34.2	28.7	28.7	37.3	29.0	85.1	28.7	31.4	32.0
자주 참여	16.6	22.0	21.0	21.4	24.0	16.1	24.5	17.2	13.3	12.9	13.4	18.1	11.4	12.6
가끔 참여	16.2	14.0	19.1	20.4	14.3	23.3	20.2	18.0	16.7	22.6	1.5	27.7	22.0	25.2
전혀 참여않음	28.0	34.0	27.8	25.6	17.6	26.4	26.6	36.0	32.7	35.5	0.0	25.5	35.2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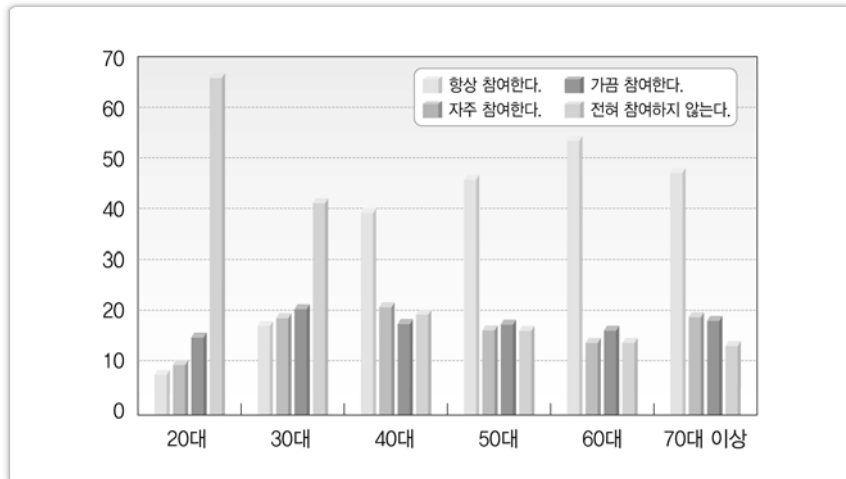
구역의 반모임이나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부산, 마산, 안동, 제주 교구에서 ‘항상 참여하고 있다.’를 춘천, 대구, 청주, 광주의 경우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울, 대전, 인천, 원주, 의정부, 부산, 제주 교구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를 춘천, 대구, 청주, 광주 교구에서 ‘항상 참여하고 있다.’를 수원, 마산 교구에서 ‘자주 참여하고 있다.’를 안동 교구에서 ‘가끔 참여하고 있다.’를 서울, 대전, 인천, 원주, 의정부, 부산, 제주 교구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를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이 문항에 관해서는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기보다 교구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2〉 성별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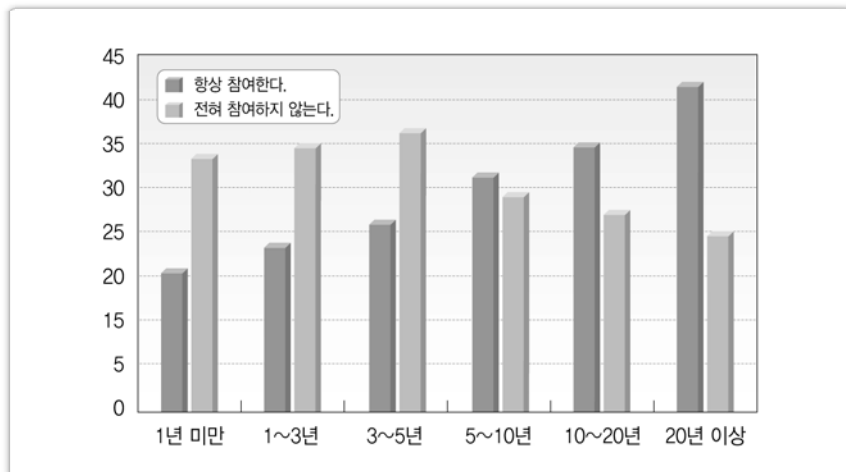
구역이나 소공동체 활동에 대한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항상 참여하고 있다.’에 더 많이 응답하였고, 이외의 항목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남자보다 여자가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연령별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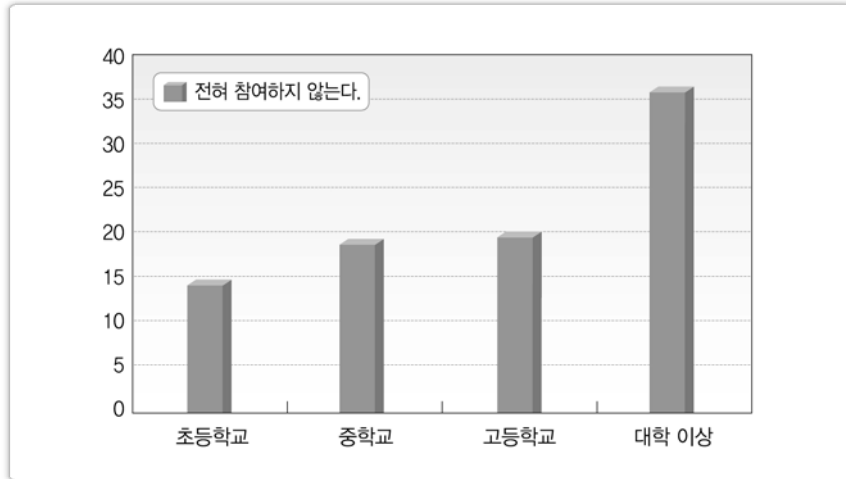
연령별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고, 40대 이후에는 ‘항상 참여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해서 장년층 이후에서 교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4〉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의 특성을 ‘항상 참여한다.’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의 항목으로 비교하면 ‘1년 미만’에서 ‘3~5년’ 사이의 응답자들 중 ‘항상 참여한다.’는 응답에 비해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에 ‘5~10년’ 이상 응답자들은 ‘항상 참여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21-5〉 학력별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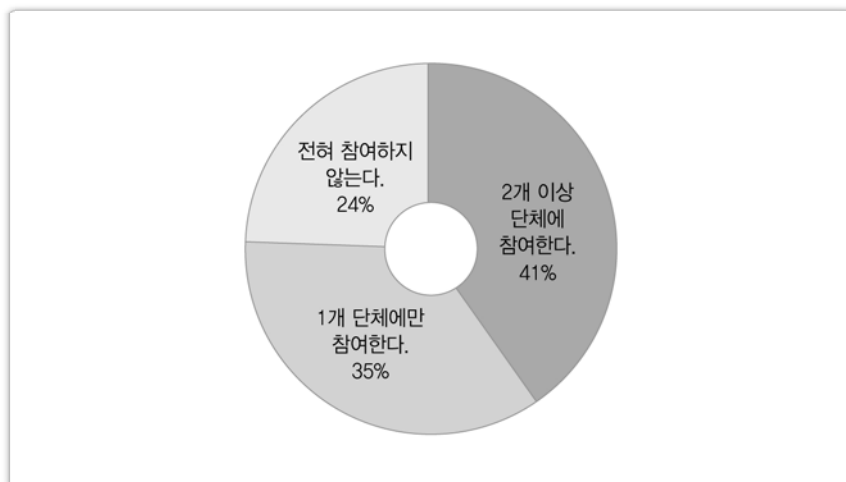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의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22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2-1〉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에 ‘2개 이상 단체에 참여한다.’ 41%, ‘1개 단체에만 참여한다.’ 35%, ‘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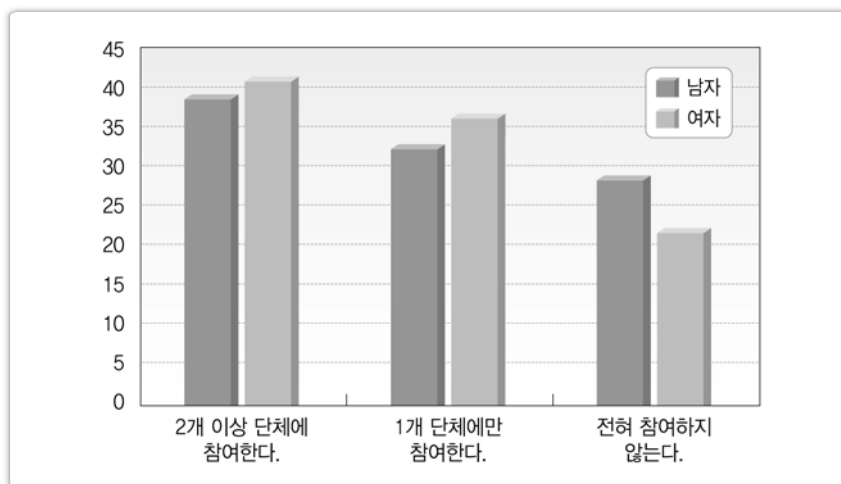
참여하지 않는다.’ 24% 순으로 나타났고, 교회 내 단체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은 전체 응답률의 76%로 나타났다.

〈표 15〉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2개 이상 참여	31.5	33.3	44.5	43.2	38.4	46.6	26.6	53.8	37.1	25.8	70.1	45.7	44.1	65.0
1개 단체만 참여	35.3	25.3	36.6	31.4	35.1	32.5	55.3	33.5	41.7	33.3	26.9	40.4	43.3	19.4
전혀 참석 없음	33.1	41.4	18.9	25.4	26.5	20.9	18.1	12.7	21.2	40.9	3.0	13.8	12.6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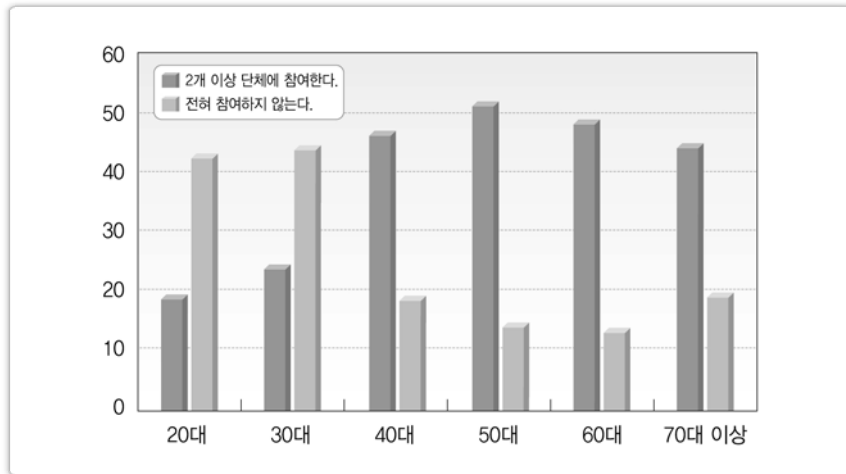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질문의 교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전, 인천, 수원, 원주, 대구, 마산, 안동, 광주, 제주 교구에서 ‘2개 이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마산 교구의 경우 70.1%의 응답자들이 2개 이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울, 의정부, 부산 교구에서 ‘1개 단체만 참여하고 있다.’를 춘천, 청주 교구에서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항목별로 고른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2〉 성별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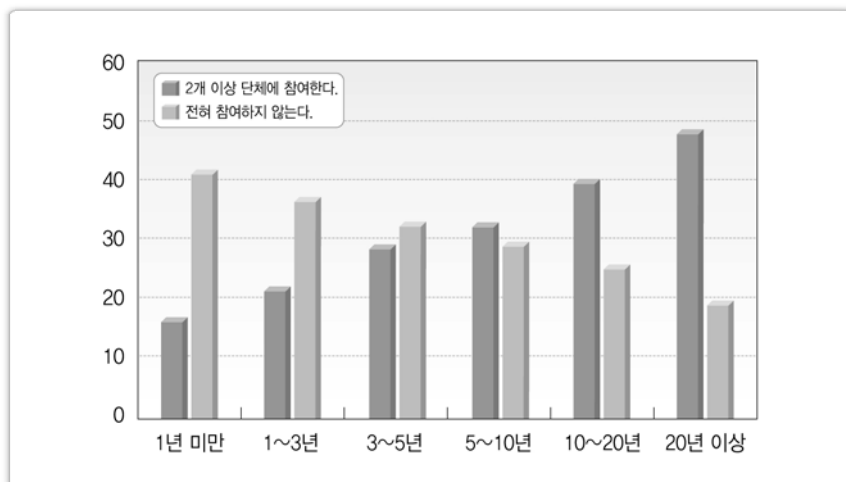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성별 특성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더 높는데 반해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2-3〉 연령별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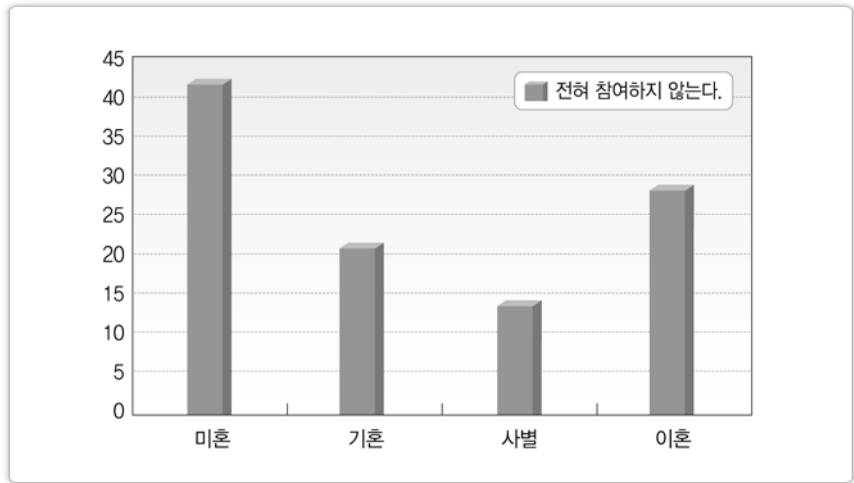
‘2개 이상 단체에 참여한다.’는 응답과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비교하여 연령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40대 이후에서는 반대의 특성이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응답간의 비율의 차이가 전 연령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2-4〉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별 교회내 단체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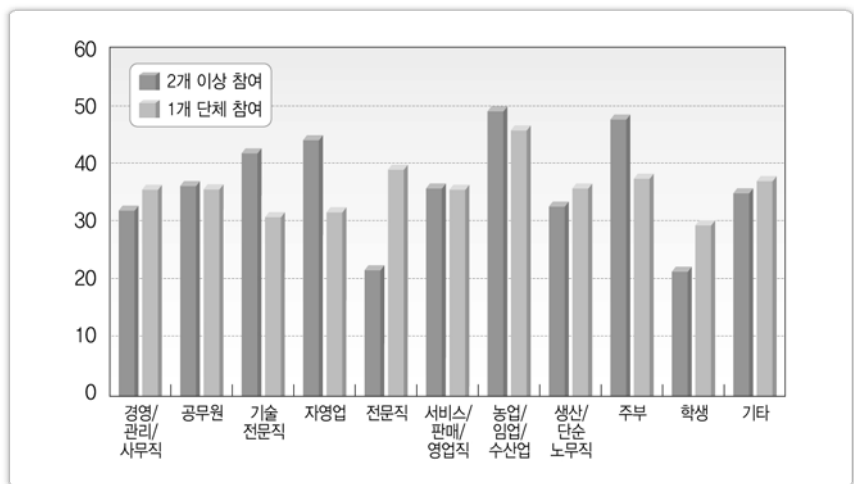
단체 참여에 대하여 ‘2개 이상 단체에 참여한다.’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의 항목을 비교하여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특성을 살펴보면 ‘1년 미만’에서 ‘3년~5년’ 사이 응답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5~10년’에서 ‘20년 이상’ 사이 응답자들은 ‘2개 이상 단체에 참여한다.’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림 22-5〉 혼인관계별 교회 내 단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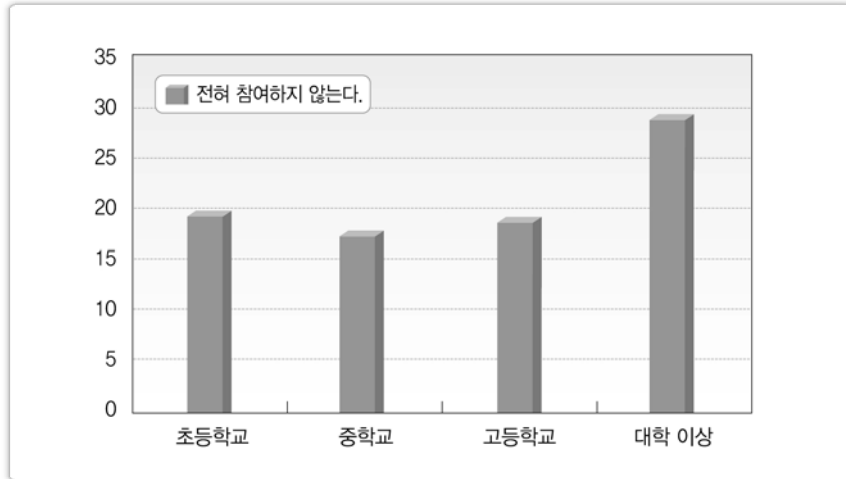
단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혼인관계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별’의 경우 다른 형태의 혼인관계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22-6〉 직업별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



교회 내 단체 활동에 ‘2개 이상 참여’ 와 ‘1개 이상 참여’ 응답의 특성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경영·관리·사무직’, ‘전문직’, ‘생산·단순노무직’, ‘학생’, ‘기타’의 직업군은 ‘1개 단체 참여’에 ‘공무원’, ‘기술전문직’, ‘자영업’, ‘서비스·판매·영업직’, ‘농업·임업·수산업’, ‘주부’의 직업군은 ‘2개 이상 단체 참여’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2-7〉 학력별 교회 내 단체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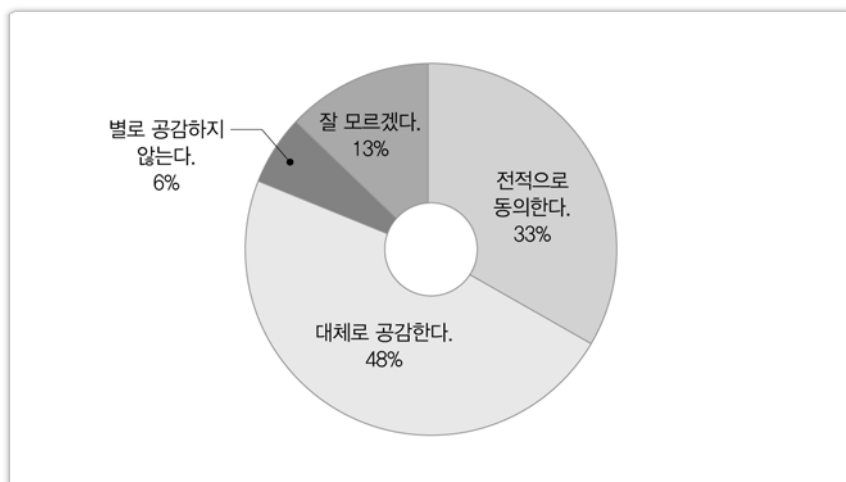


교회 내 단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다른 학력의 응답자들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23 “나 자신이 교회다.” (평신도 슬로건에 대한 생각)

‘나 자신이 교회다.’라는 평신도 슬로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3-1〉 “나 자신이 교회다.”



‘나 자신이 교회다.’라는 평신도 슬로건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 48%, ‘전적으로 동의한다.’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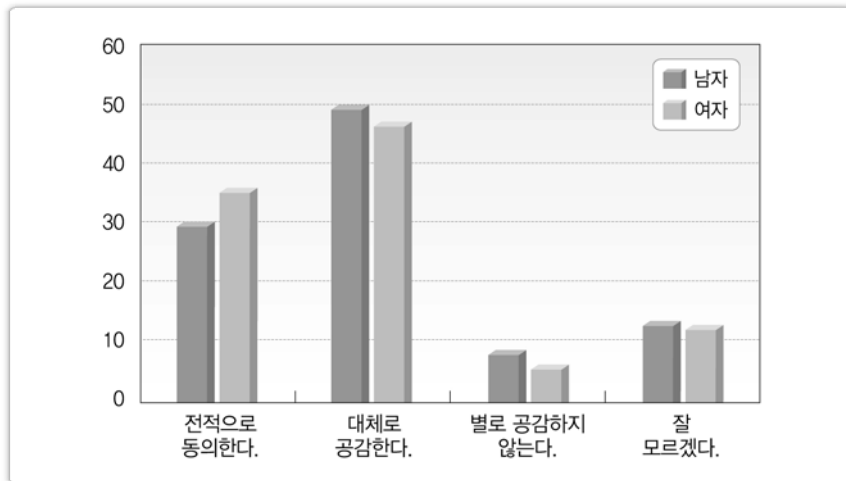
‘잘 모르겠다.’ 1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6%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 중 이 슬로건에 대해 동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81%로 나타났다.

〈표 16〉 평신도 슬로건에 대한 생각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전적으로 동의	29.5	29.3	35.6	39.5	30.9	35.6	28.7	35.1	28.5	23.6	56.7	40.9	35.9	36.6
대체로 동감	48.6	49.5	47.9	40.9	48.6	48.7	51.1	45.8	51.7	53.9	38.8	52.7	48.1	47.5
별로 공감안함	6.6	5.1	6.1	7.7	6.7	1.6	9.6	4.6	5.3	7.9	1.5	2.2	5.9	5.9
잘 모르겠음	15.4	16.2	10.4	11.9	13.8	14.1	10.6	14.5	14.6	14.6	3.0	4.3	10.1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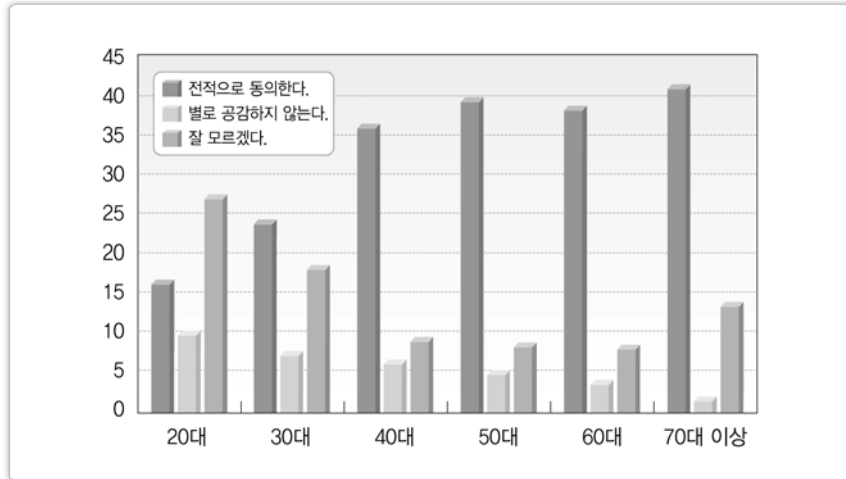
‘나 자신이 교회다.’라고 하는 평신도 슬로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교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 교구에서 ‘대체로 동감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평신도 슬로건인 ‘나 자신이 교회다.’에 동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2〉 성별 “나 자신이 교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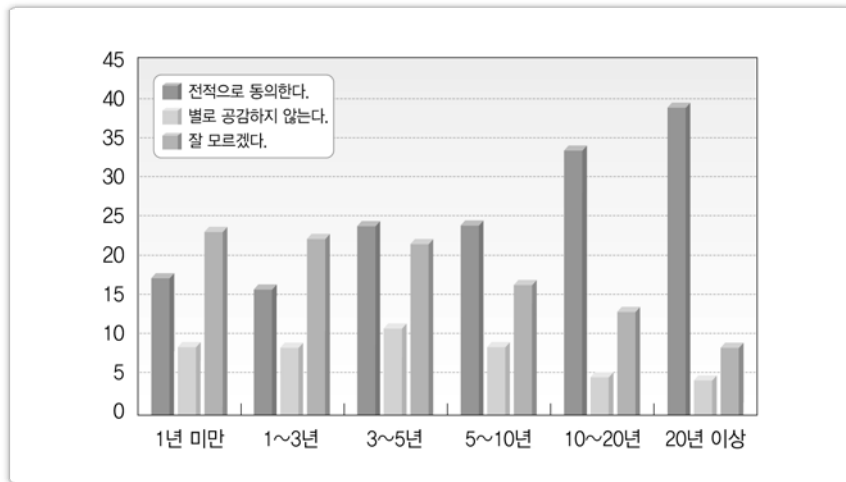
‘나 자신이 교회다.’라는 평신도 슬로건에 대한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에 남자보다 여자의 응답률이 더 높았고,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에 여자보다 남자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23-3〉 연령별 “나 자신이 교회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타의 연령대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20대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23-4〉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나 자신이 교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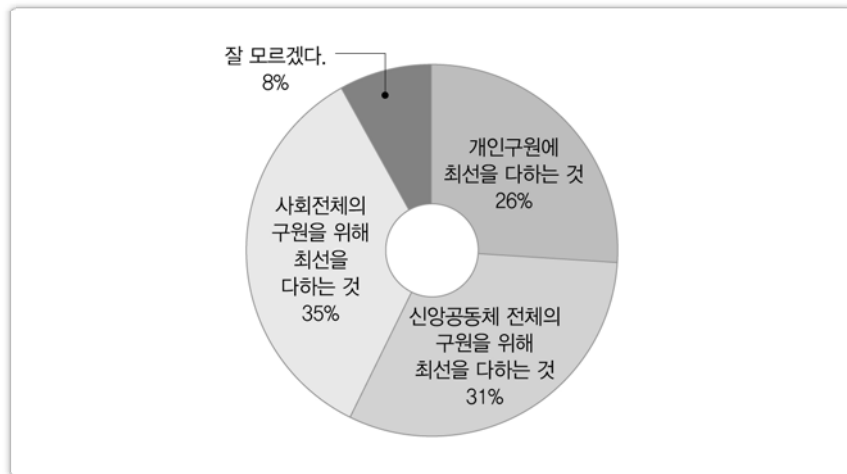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평신도 슬로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1년 미만’과 ‘1~3년’은 ‘잘 모르겠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이 후 기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그런데 ‘10~20년’ 이상이 경과한 이 후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항목에 월등히 높은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평신도의 모습

이 시대에 평신도의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4-1〉 평신도의 모습



평신도의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사회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35%, ‘신앙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31%, ‘개인의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 26%, 잘 모르겠다. ‘8%’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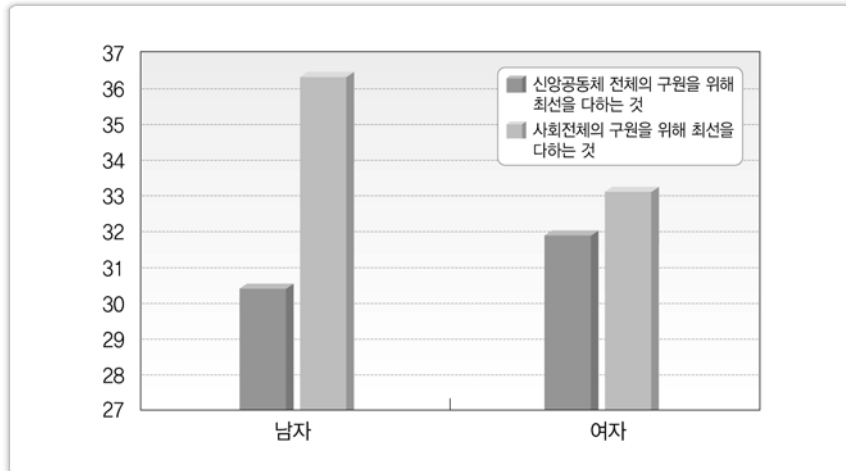
〈표 17〉 평신도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개인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	29.8	26.5	30.9	17.2	28.0	23.3	26.1	24.0	26.2	29.7	19.4	15.4	26.6	23.8
신앙공동체 구원위해	27.7	25.5	29.0	37.0	34.0	32.8	29.3	33.9	31.5	25.3	41.9	38.5	32.6	33.7
사회 전체의 구원 위해	32.5	41.8	32.1	37.0	31.8	38.6	39.1	31.5	38.9	31.9	32.3	44.0	32.6	34.7
잘 모르겠다.	10.1	6.1	8.0	8.8	6.3	5.3	5.4	10.6	3.4	13.2	6.5	2.2	8.2	7.9

평신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천, 수원, 대구, 광주 교구에서 ‘신앙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원주, 의정부, 부산, 청주, 안동, 광주, 제주 교구에서 ‘사회 전체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서울, 춘천, 대전, 청주 교구에서 ‘개인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를 원주, 의정부, 마산, 안동,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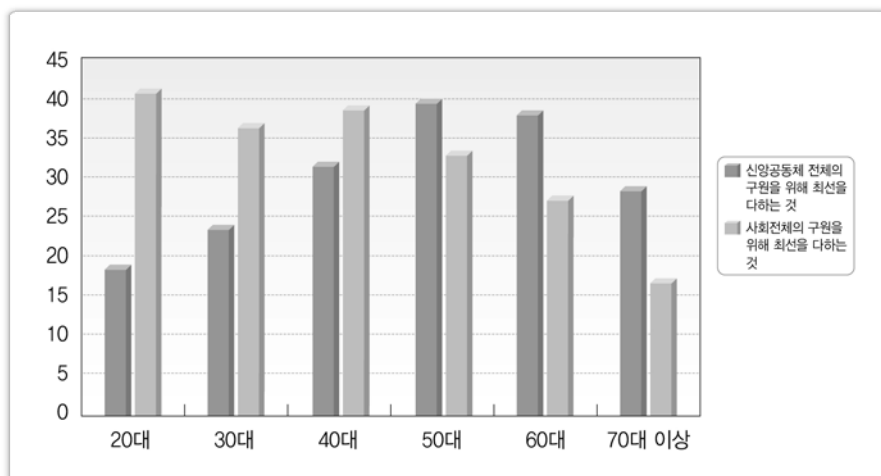
주 교구에서 ‘신앙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를 수원, 대구, 마산 교구에서 ‘사회 전체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에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교회 내의 신자들이나 사회 전체 구성원과 같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24-2〉 성별 평신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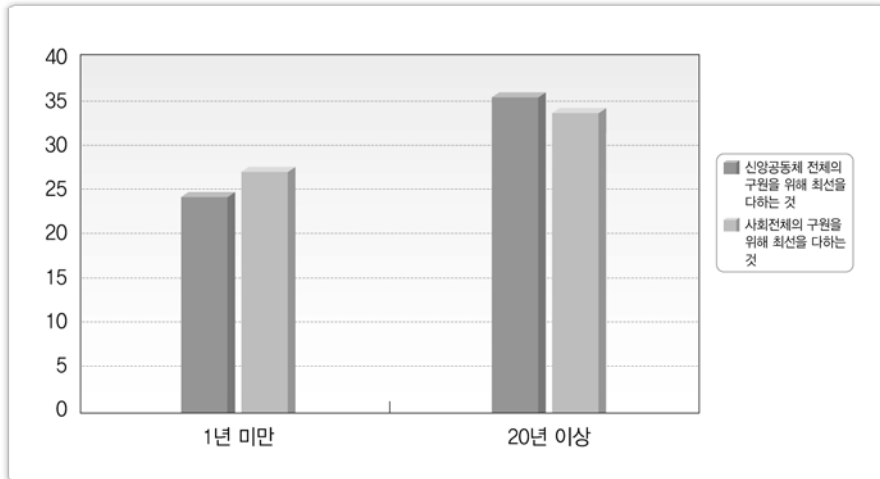
응답 중 ‘신앙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사회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비교하여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신앙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사회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평신도의 모습으로 더 많은 응답을 하였고, 여자는 반대의 응답을 하여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3〉 연령별 평신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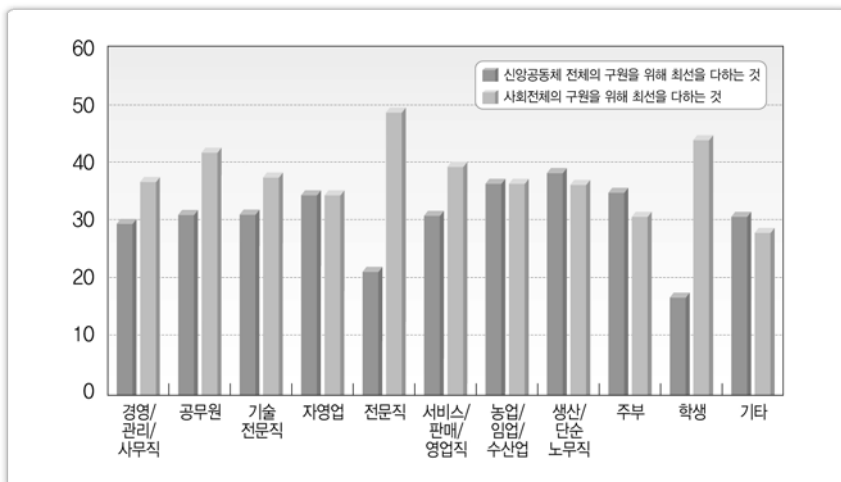
같은 기준으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응답자들은 ‘사회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많은 응답을 했고, 50대 이 후의 장년층에서는 반대로 ‘신앙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많은 응답을 하여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4-4〉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평신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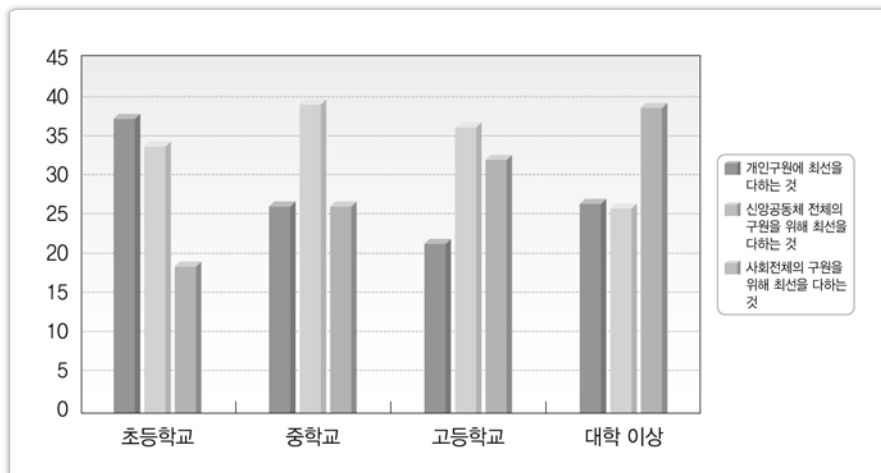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 중 ‘1년 미만’의 응답자와 ‘20년 이상의 응답자의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응답자는 ‘사회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많은 응답을 했고, ‘20년 이상’의 응답자는 ‘신앙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많은 응답을 했다. 두 집단의 응답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 24-5〉 직업별 평신도의 모습



직업별로는 ‘자영업’, ‘농업·임업·수산업’, ‘생산·단순노무직’, ‘주부’, ‘기타’ 직업군에서 ‘신앙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높은 응답률을, ‘경영·관리·사무직’, ‘공무원’, ‘기술 전문직’, ‘전문직’, ‘서비스·판매·영업직’, ‘학생’ 직업군에서 ‘사회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전문직’과 ‘학생’의 경우 ‘신앙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사회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평신도의 모습으로 꼽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6〉 학력별 평신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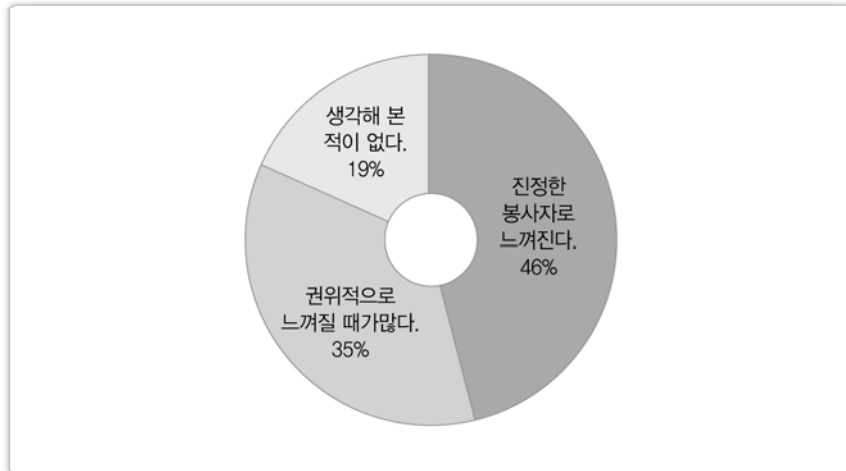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개인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신앙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사회전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해 학력별로 평신도의 모습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3.25 평신도 지도자상

본당의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5-1〉 평신도 지도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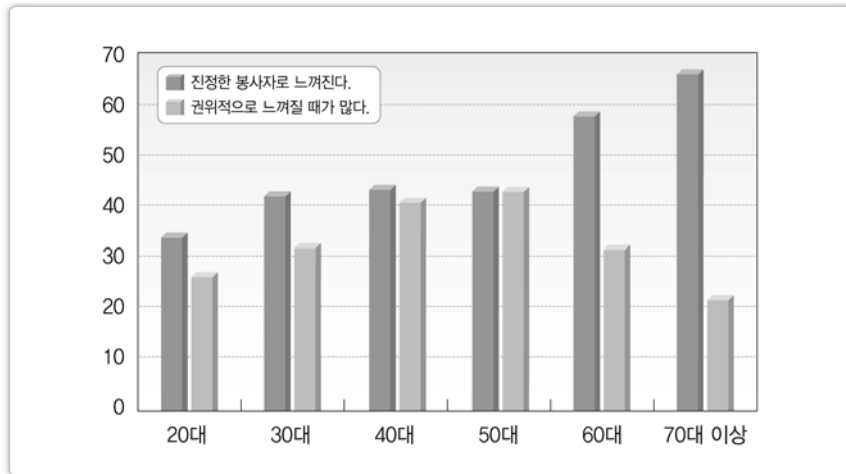
응답자 본당의 평신도 지도자에 대해 ‘진정한 봉사자로 느껴진다.’ 46%,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3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평신도 지도자상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진정한 봉사자로 느낌	44.2	63.6	49.7	48.9	42.6	50.8	37.0	49.4	44.4	38.5	52.4	62.2	41.9	31.7
권위적으로 느껴짐	33.1	22.2	26.7	35.6	41.1	34.2	42.4	35.2	41.7	39.6	33.3	25.6	38.1	50.5
생각해본 적 없음	22.7	14.1	23.6	15.5	16.3	15.0	20.7	15.3	13.9	22.0	14.3	12.2	19.9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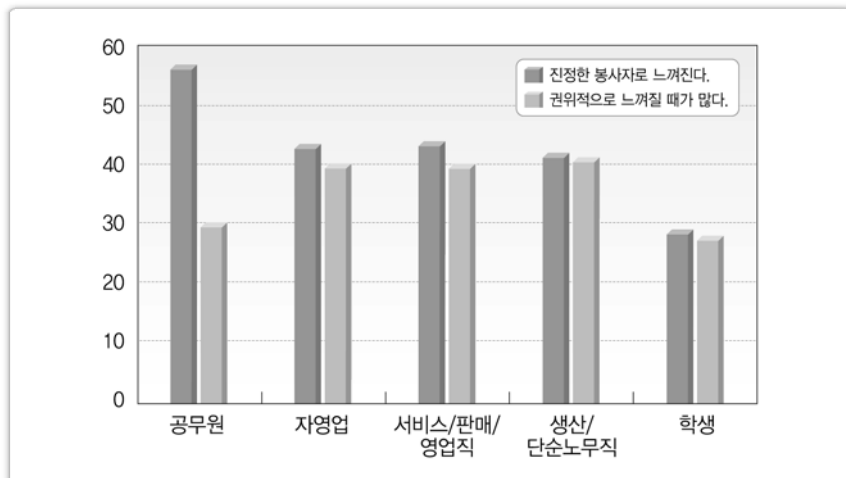
현재 본당의 평신도 대표 또는 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대구, 부산, 마산, 안동, 광주 교구에서 ‘진정한 봉사자로 느끼고 있다.’를 의정부, 청주, 제주에서 ‘권위적으로 느껴진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그림 25-2〉 연령별 평신도 지도자상



본당의 평신도 지도자에 대해 ‘진정한 봉사자로 느껴진다.’와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의 응답을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진정한 봉사자로 느껴진다.’가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런데 50대의 경우 두 항목에 대해 거의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3〉 직업별 평신도 지도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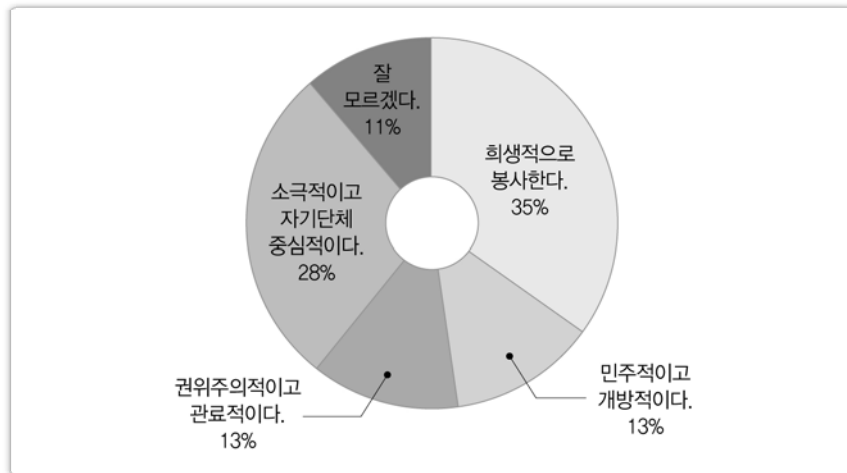


같은 항목을 비교하여 직업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에서 평신도 지도자에 대해 ‘진정한 봉사자로 느껴진다.’에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학생’ 집단에서는 ‘권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에 더 많이 응답하였다.

3.26 평신도 단체상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본당 내 평신도 단체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6-1〉 평신도 단체상



본당 내 평신도 단체들에 대해 ‘희생적으로 봉사한다.’ 35%, ‘소극적이고 자기단체 중심적이다.’ 28%,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다.’와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다.’가 각각 13%, ‘잘 모르겠다.’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평신도 단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48%, 부정적인 답변이 41%로 나타나 이들 단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팽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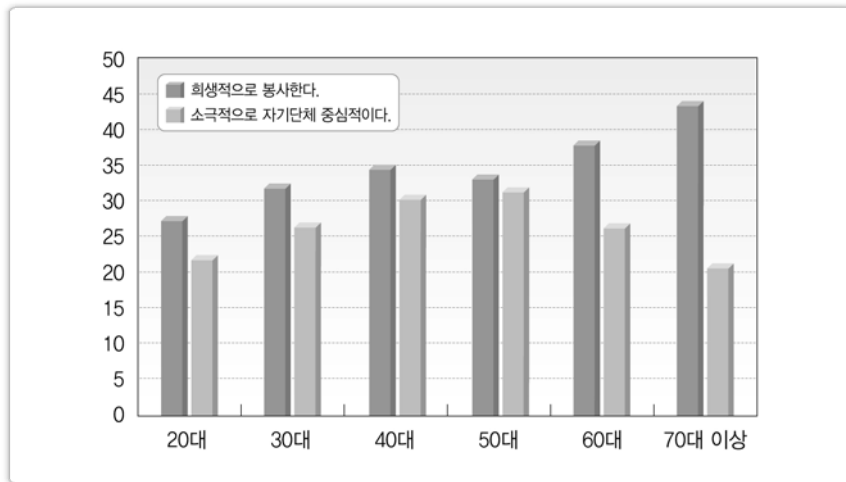
〈표 18〉 평신도 단체상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희생적으로 봉사	51.8	64.6	61.8	55.4	51.5	53.9	54.3	53.8	53.3	50.5	65.6	53.2	56.4	44.6
민주적이고 개방적	21.1	19.2	21.8	16.8	16.2	25.1	10.6	22.7	15.3	18.3	15.6	30.9	25.6	13.9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	19.9	15.2	9.1	20.7	23.8	14.7	26.6	23.8	25.3	20.4	20.3	13.8	17.1	32.7
소극적이고 자기단체중심적	42.1	28.3	36.4	50.2	49.4	48.7	40.4	41.2	40.7	41.9	48.4	52.1	39.7	44.6
잘 모르겠음	19.8	13.1	20.0	16.5	15.9	17.3	12.8	18.1	14.0	23.7	9.4	10.6	19.2	22.8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교구별 본당 내 평신도 단체들에 대한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교구에서 ‘희생적으로 봉사’의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을 그 다음으로 순으로 ‘소극적이고 자기단체 중심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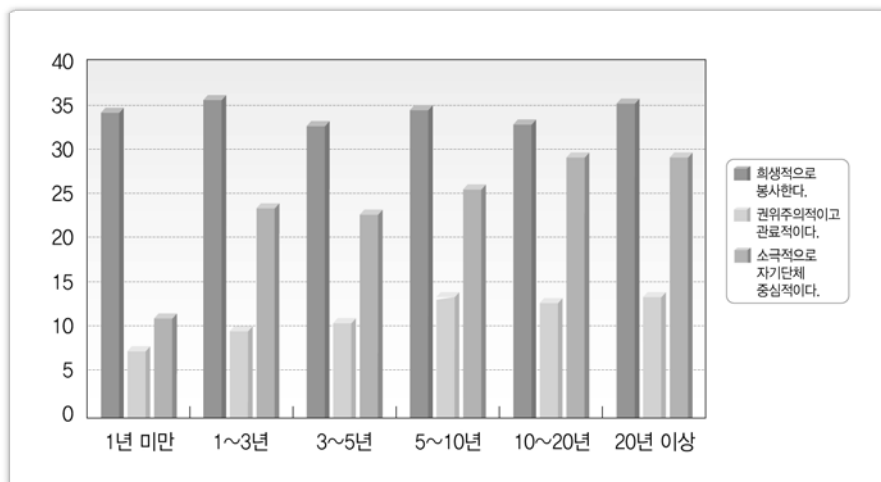
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이 두 응답에 대해 거의 유사한 비율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전’과 ‘광주’ 교구에서는 다른 교구와 다르게 비해 ‘희생적이고 봉사’의 항목에 좀 더 높은 응답을 하였다.

〈그림 26-2〉 연령별 평신도 단체상



평신도 단체에 대한 대조적인 응답을 한 집단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평신도 지도자에 대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던 50대에서는 이 문항에 대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6-3〉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평신도 단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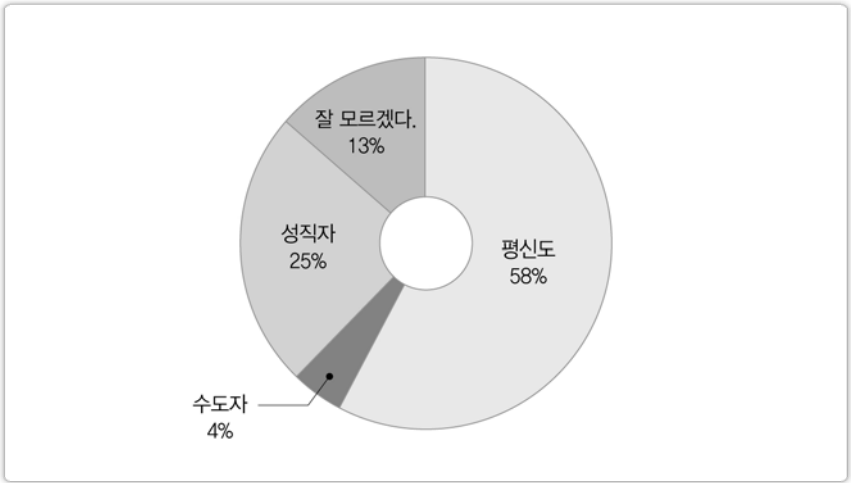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로 평신도 단체에 대한 생각에서 특히 ‘소극적이고 자기단체 중심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연령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평신도 단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3.27 새신을 위한 변화의 주체

앞선 문항에 비해 좀 더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한국교회의 새신을 위해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7-1〉 교회 공동체 새신 주체



한국교회의 새신을 위해 변해야 할 사람으로 ‘평신도’ 58%, ‘성직자’ 25%, ‘잘 모르겠다.’ 13%, ‘수도자’ 4%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타의 문항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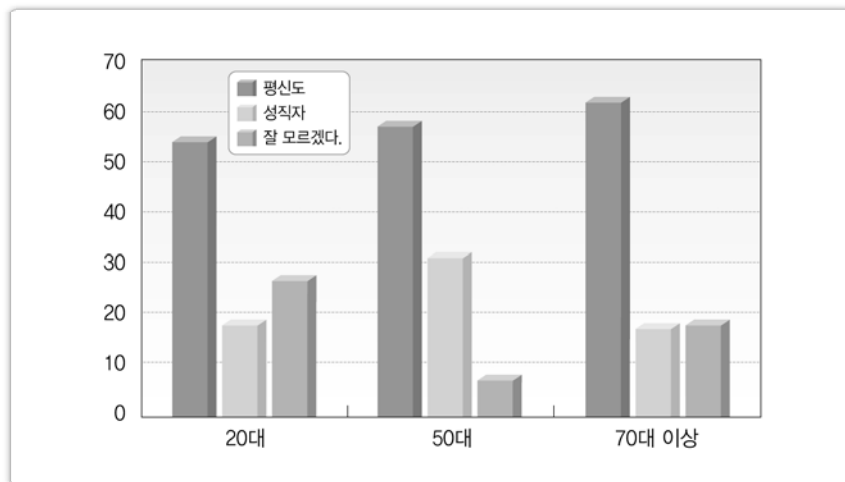
〈표 19〉 교회 공동체 새신 주체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평신도	60.7	65.3	54.8	60.7	58.9	52.2	47.2	55.0	54.5	49.4	63.8	59.1	60.1	45.4
수도자	4.1	2.0	8.3	2.2	4.7	3.9	1.1	8.0	5.5	2.3	3.4	4.3	3.9	2.1
성직자	20.8	19.4	22.9	25.0	23.7	30.9	33.7	25.5	23.4	32.2	25.9	24.7	25.9	34.0
잘 모르겠음	14.4	13.3	14.0	12.1	12.7	12.9	18.0	11.6	16.6	16.1	6.9	11.8	10.1	18.6

교회 공동체의 쇄신을 위하여 누가 먼저 변화·쇄신해야 할 것인가의 교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 교구에서 ‘평신도’가 쇄신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성직자’가 쇄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수도자가 쇄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0% 미만을 차지하여 매우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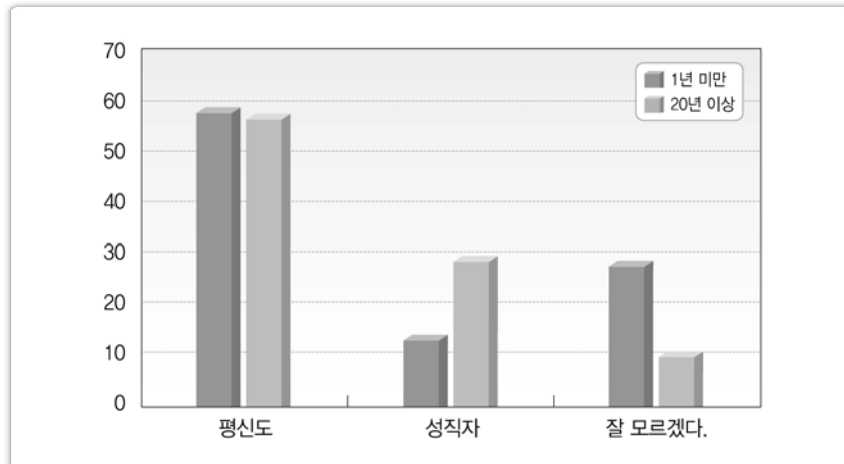
‘원주’, ‘의정부’, ‘청주’, ‘제주’ 교구는 응답의 순위는 다르지 않으나 다른 교구에 비해 ‘성직자’의 쇄신에 더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림 27-2〉 연령별 누가 먼저 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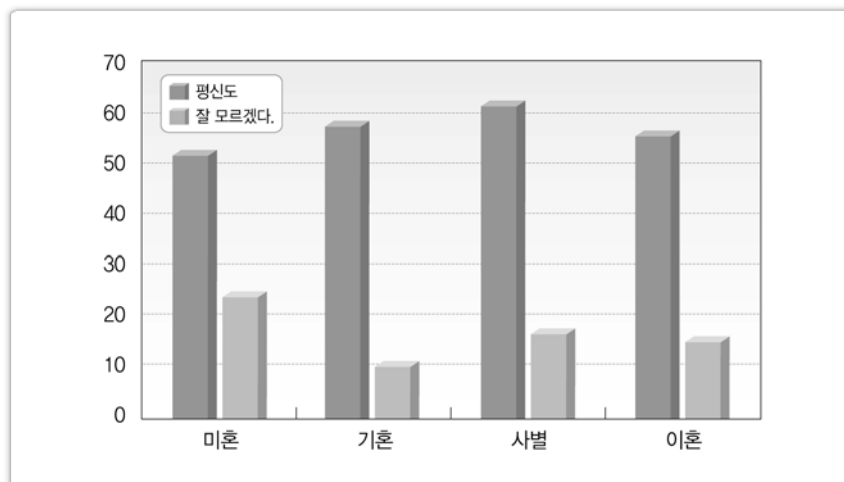
연령별로 ‘20대’는 ‘평신도’, ‘잘 모르겠다.’, ‘성직자’순으로 ‘50대’는 ‘평신도’, ‘성직자’, ‘잘 모르겠다.’ 순으로 ‘70대 이상’은 ‘평신도’, ‘성직자’, ‘잘 모르겠다.’가 각각 같은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가장 낮은 비율로 응답한 50대에서는 한국교회의 쇄신과 이를 위한 변화의 주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3〉 세례받은 후 경과기간별 누가 먼저 쇠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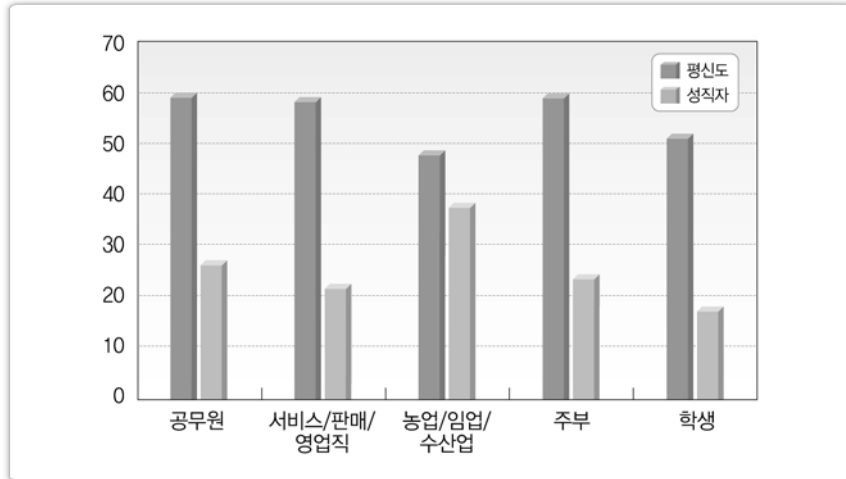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의 응답자들은 ‘20년 이상’ 응답자들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20년 이상’ 응답자들은 ‘성직자’의 쇠신을 ‘1년 미만’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7-4〉 혼인관계별 누가 먼저 쇠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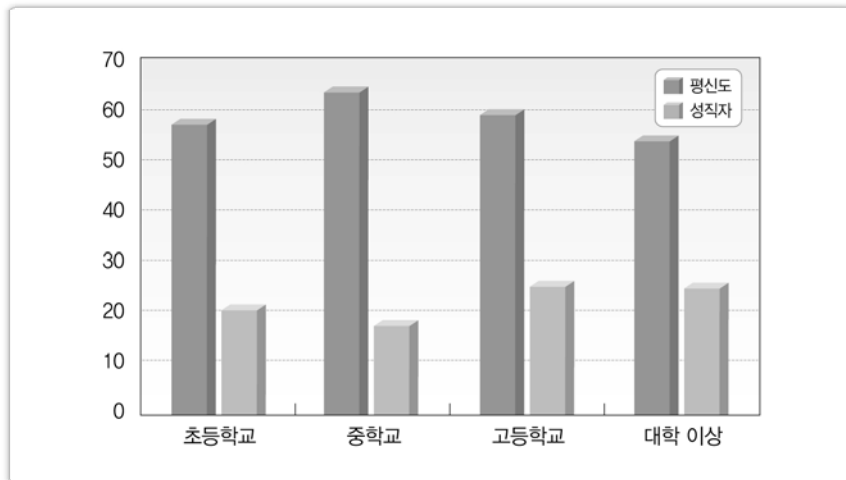
혼인관계별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미혼’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혼’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그림 27-5〉 직업별 누가 먼저 췌신?



직업별로 응답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임업·수산업’ 집단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췌신에 대한 응답률의 차이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적은 편이다.

〈그림 27-6〉 학력별 누가 먼저 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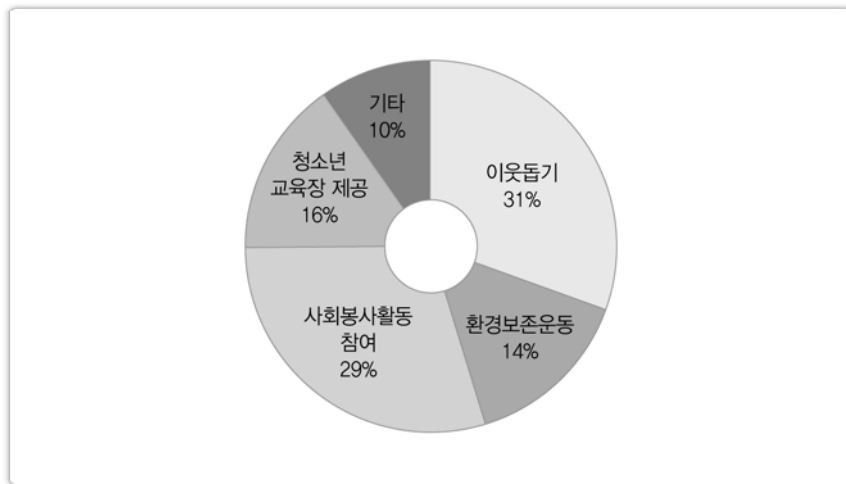


학력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다른 학력에 비해 ‘성직자’의 췌신에 더 많은 응답을 했다.

3.28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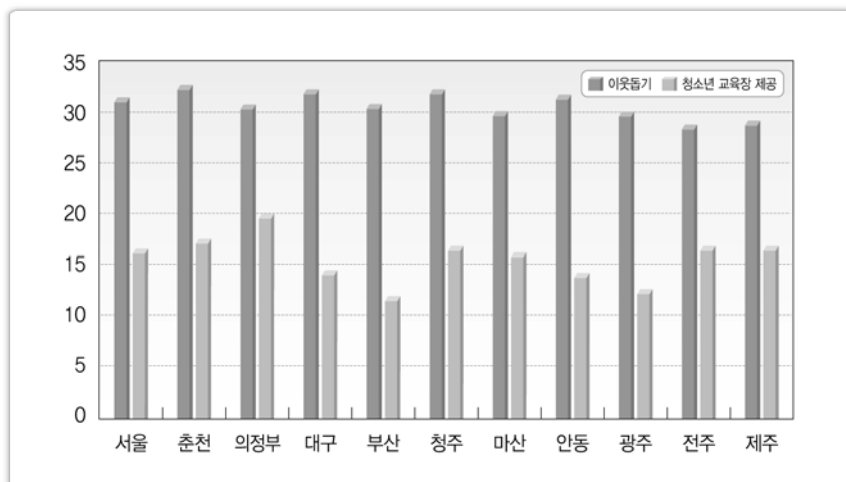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본당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8-1〉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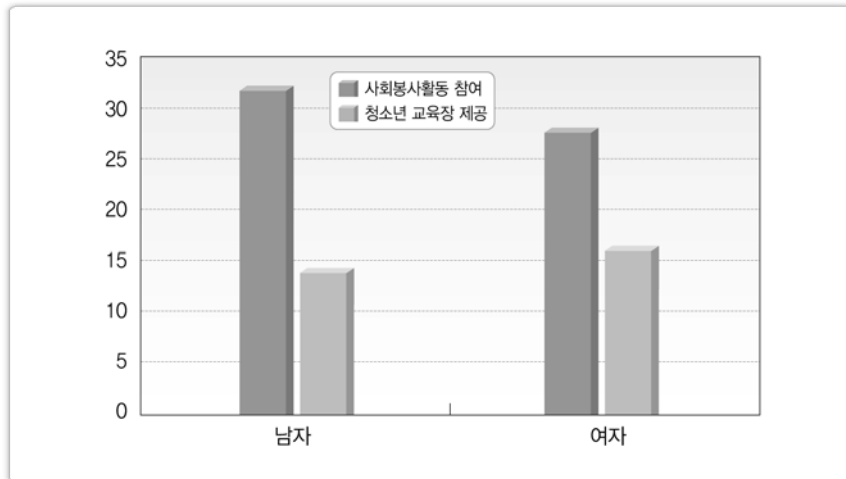
본당이 지역사회 안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이웃돕기’ 31%, ‘사회봉사활동 참여’ 29%, ‘청소년 교육장 제공’ 16%, ‘환경보존운동’ 14%,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8-2〉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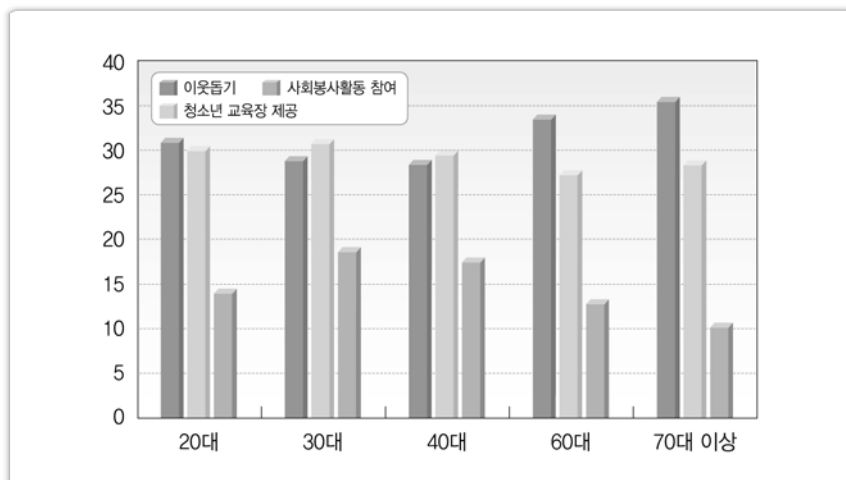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 중 ‘이웃돕기’와 실제로 ‘청소년 교육장 제공’하는 응답을 교구별로 비교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의정부’ 교구에서 ‘청소년 교육장 제공’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산’ 교구에서 ‘이웃돕기’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8-3〉 성별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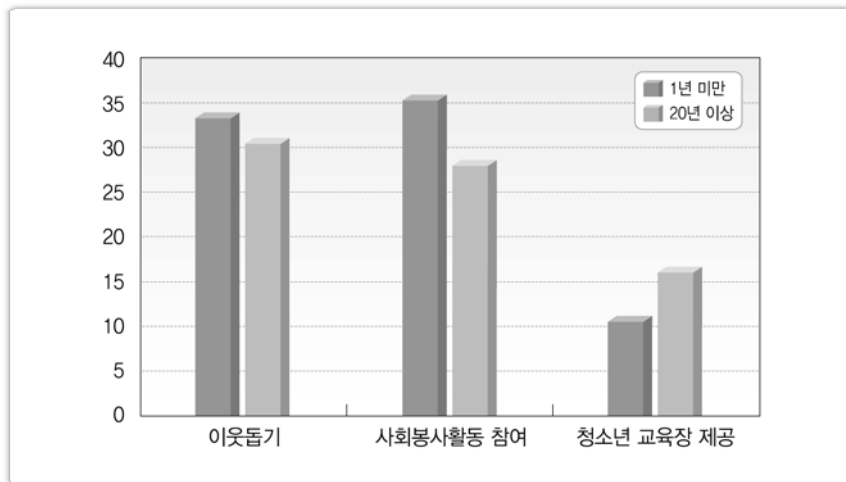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본당에서 ‘청소년 교육장 제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비교하여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8-4〉 연령별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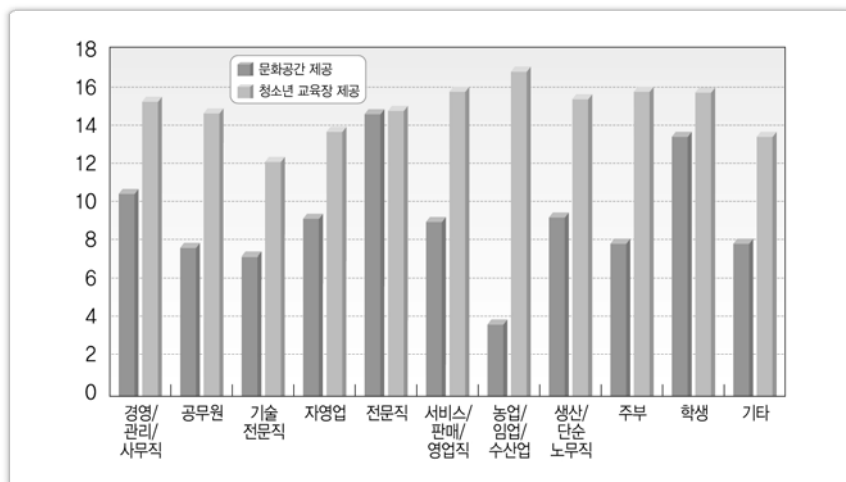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청소년 교육장 제공’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30대와 40대의 경우 여타의 연령대에서 ‘이웃돕기’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과 대조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더 많은 응답을 했다. 그리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웃돕기’를 다른 항목에 비해 더욱 중요한 본당의 지역사회 활동으로 꼽았다.

〈그림 28-5〉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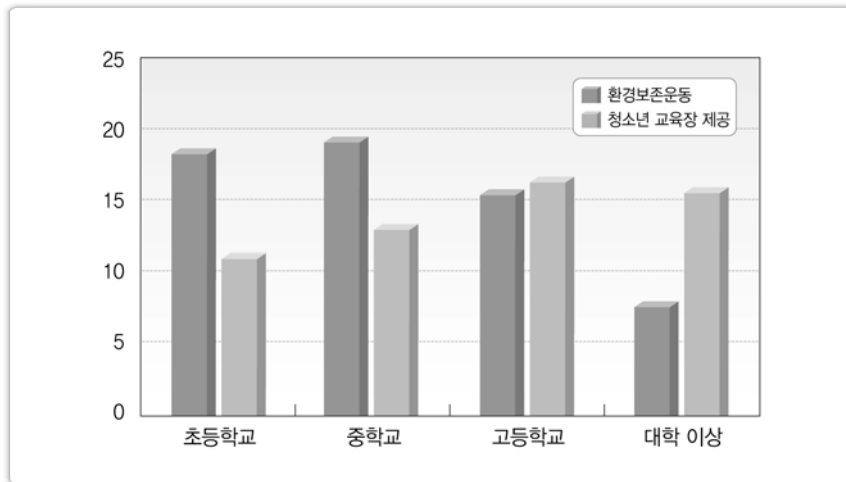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특성을 ‘1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비교해보면 ‘청소년 교육장 제공’에 ‘1년 미만’의 응답자가 ‘20년 이상’의 응답자보다 더 많은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6〉 직업별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문화공간 제공’ 보다 ‘청소년 교육장 제공’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이지만, ‘전문직’의 경우 두 항목에 동일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림 28-7〉 학력별 본당의 지역사회 역할



학력별로 ‘환경운동보존’과 ‘청소년 교육장 제공’에 대한 응답의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의 응답자는 ‘환경보존운동’을 ‘청소년 교육장 제공’보다 본당에서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응답자들은 ‘환경보존운동’보다 ‘청소년 교육장 제공’을 보다 본당에서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낮은 학력의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3.29 피임정책

교회에서 인공피임을 금지하고 자연피임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피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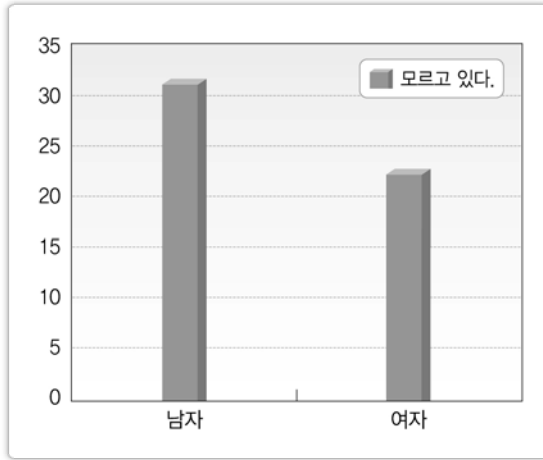
교회의 피임정책을 ‘알고 있다.’ 74%, ‘모르고 있다.’ 26%로 나타났다.

〈표 20〉 피임정책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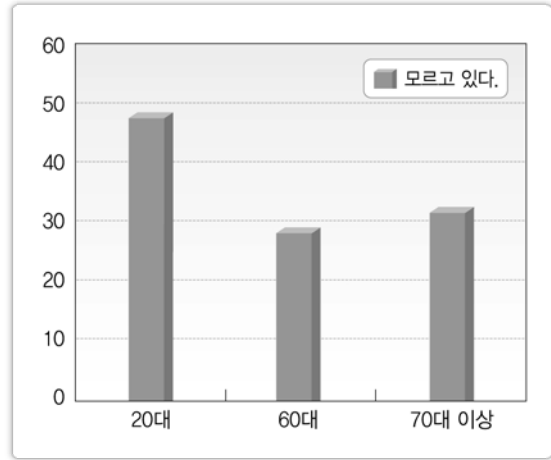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안다.	72.2	77.0	75.3	78.7	73.1	78.9	66.0	74.5	72.0	70.7	84.8	79.3	72.8	67.3
잘 모른다.	27.8	23.0	24.7	21.3	26.9	21.1	34.0	25.5	28.0	29.3	15.2	20.7	27.2	32.7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피임정책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교구에서 ‘안다.’라는 응답이 ‘모른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9-2A〉 성별 피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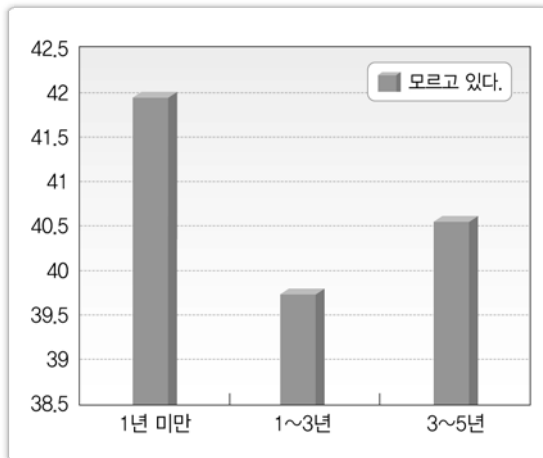


〈그림 29-2B〉 연령별 피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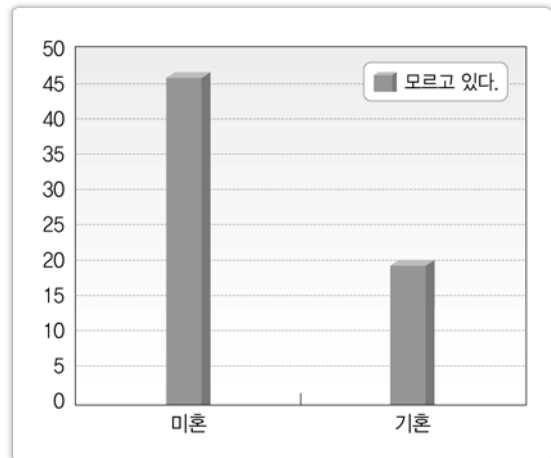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피임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70대’와 같은 높은 연령층보다 피임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3〉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피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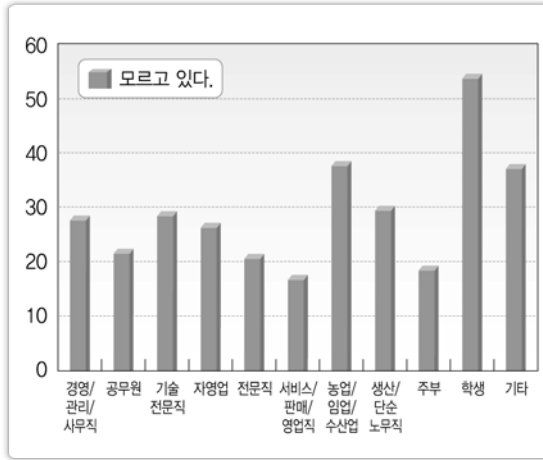
〈그림 29-4〉 혼인관계별 피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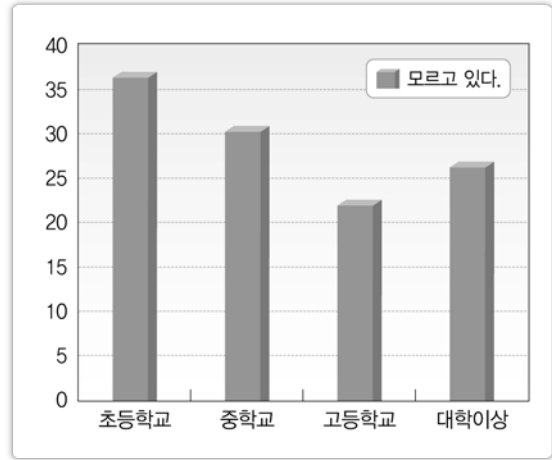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피임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를 세례 받은 후 ‘1년 미만~3~5년’ 사이 경과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3년’ 사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하고 있다.

혼인관계별로 살펴보면 ‘미혼’ 응답자가, ‘기혼’ 응답자에 비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그림 29-5〉 직업별 피임정책



〈그림 29-6〉 학력별 피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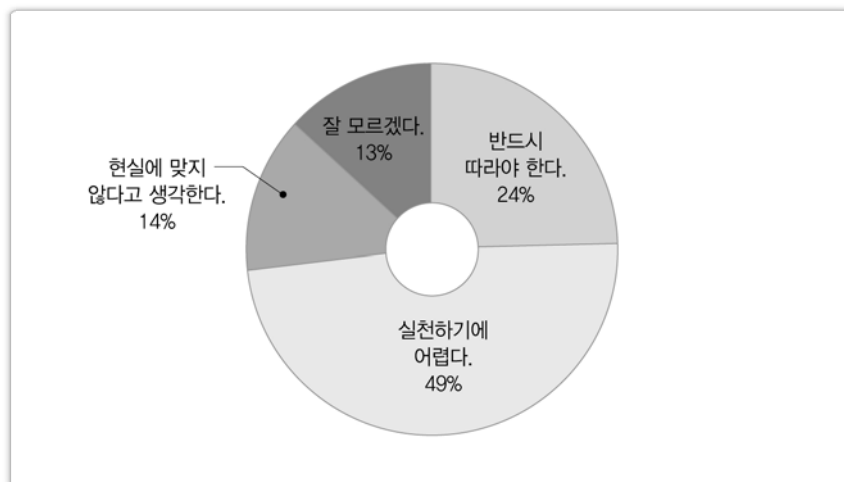


직업별로 살펴보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학생’과 ‘농업·임업·수산업’, ‘기타’순으로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피임법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피임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알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많이 했고, ‘고등학교’ 학력의 응답자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가장 적게 했다.

3.30 자연피임법 권장에 대한 반응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연피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0-1〉 자연피임법 권장에 대한 반응



교회의 자연피임법 권장에 대해 ‘실천하기가 어렵다.’ 49%, ‘반드시 따라야 한다.’ 24%,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14%, ‘잘 모르겠다.’ 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 현실에 맞지 않고,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자연피임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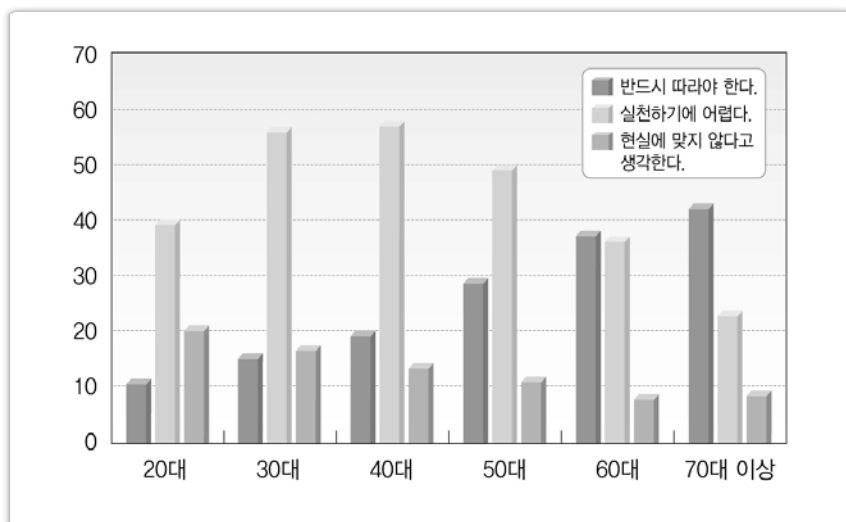
〈표 21〉 교구별 자연피임법 권장에 대한 반응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반드시 따라야	22.4	20.2	24.1	23.5	25.7	29.3	12.6	26.5	18.1	21.5	38.5	40.2	26.4	30.4
실천하기 어려움	49.4	47.5	53.7	51.6	46.4	39.9	49.5	45.5	52.3	47.3	47.7	42.4	50.6	48.0
현실에 맞지 않음	14.0	17.2	9.3	10.7	14.2	14.4	24.2	16.0	12.8	21.5	13.8	7.6	10.4	6.9
잘 모르겠음	14.3	15.2	13.3	14.2	13.6	16.5	13.7	12.1	16.8	9.7	0.0	9.8	12.6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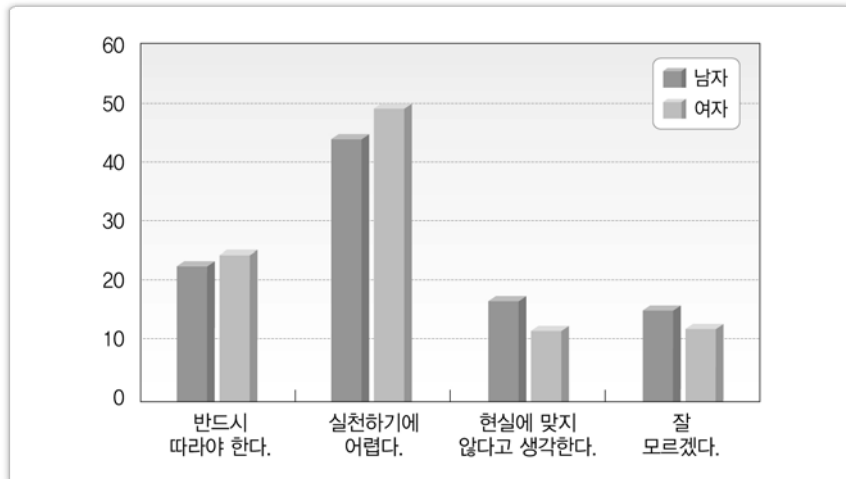
앞선 질문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피임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연피임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 교구에서 ‘실천하기 어려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의정부를 제외한 전 교구에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가 의정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음’에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결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피임정책을 알고는 있으나 따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2〉 성별 자연피임법 권장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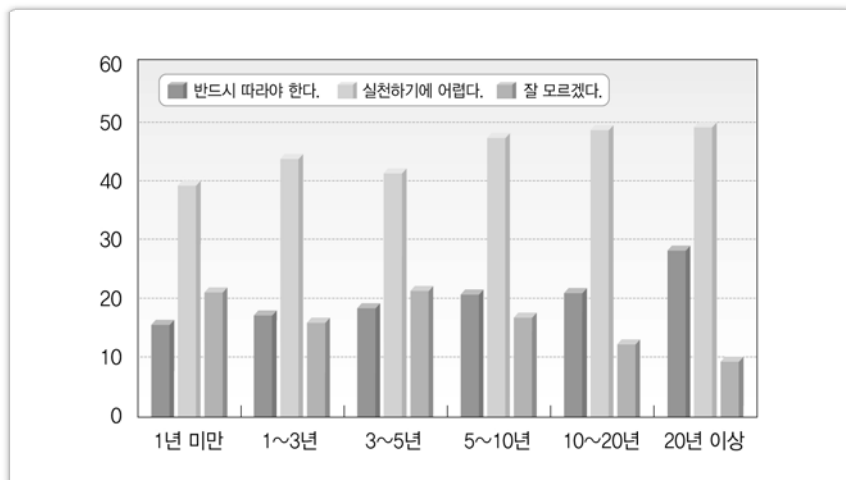
〈그림 30-3〉 연령별 자연피임법 권장 반응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연피임법 권장에 대한 반응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실천하기가 어렵다.’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항목에 대해 남자에 비해 더 많은 응답을 했고, 남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항목에 더 많은 응답을 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40대’ 사이 응답자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응답을 가장 높은 비율로 했고, ‘50대~60대’ 사이의 응답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높은 비율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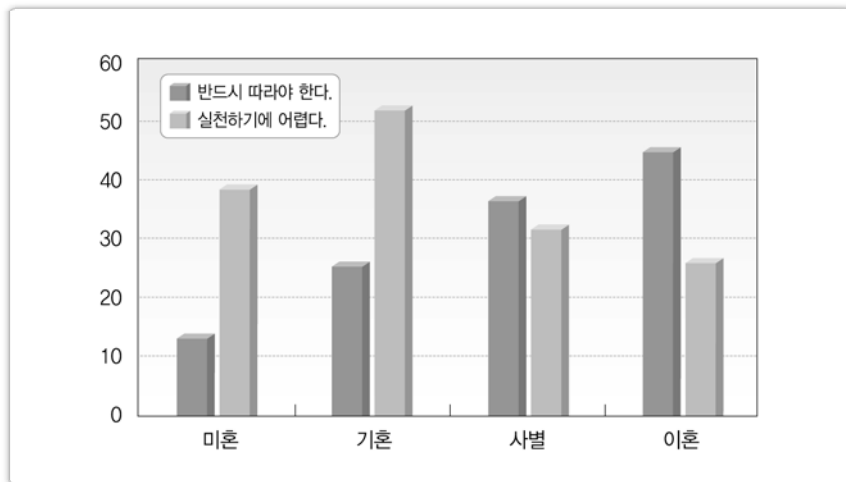
〈그림 30-4〉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자연피임법 권장에 대한 반응



세례 받은 후 경과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 기간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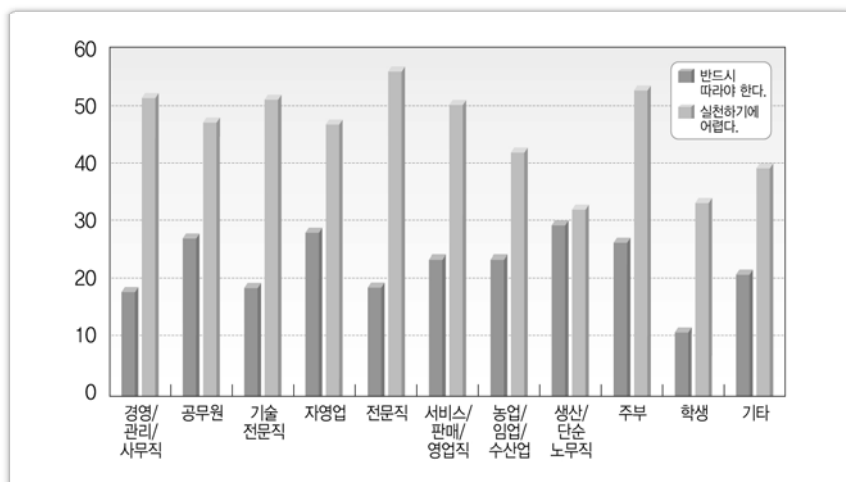
있다. '1년 미만'과 '3~5년' 응답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례 받은 후 경과 기간이 5년 이하의 응답자들은 앞서 자연피임법의 인지여부 항목에서도 나타났듯이 '1년 미만'과 '3~5년'이 유사하게 '1~3년'과는 다른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0-5〉 혼인관계별 자연피임법 권장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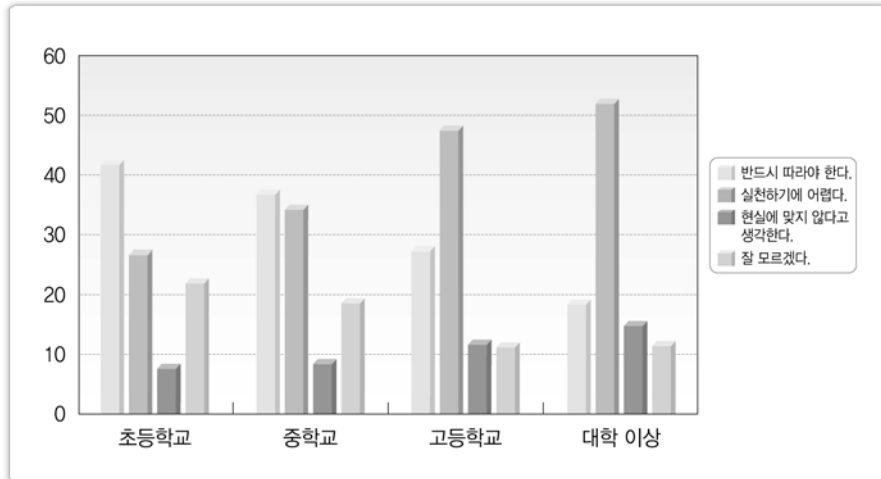
혼인관계별로 살펴보면 '미혼'과 '기혼'에서 '실천하기에 어렵다.'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사별'과 '이혼'의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가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30-6〉 직업별 자연 피임법 권장에 대한 반응



직업별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와 ‘실천하기에 어렵다.’는 항목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경영·관리·사무직’, ‘전문직’, ‘주부’, ‘학생’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응답에 비해 ‘실천하기에 어렵다.’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7〉 학력별 자연피임법 권장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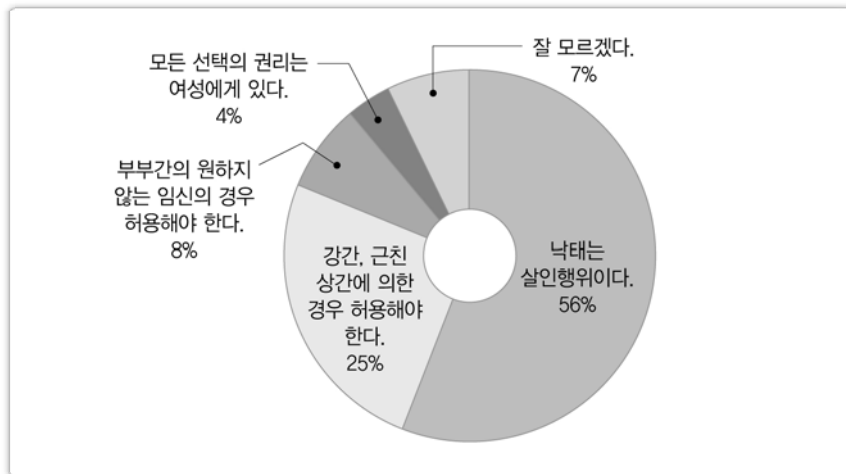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고, ‘고등학교’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실천하기에 어렵다.’는 응답을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 경과에서 학력별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1 낙태

낙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1-1〉 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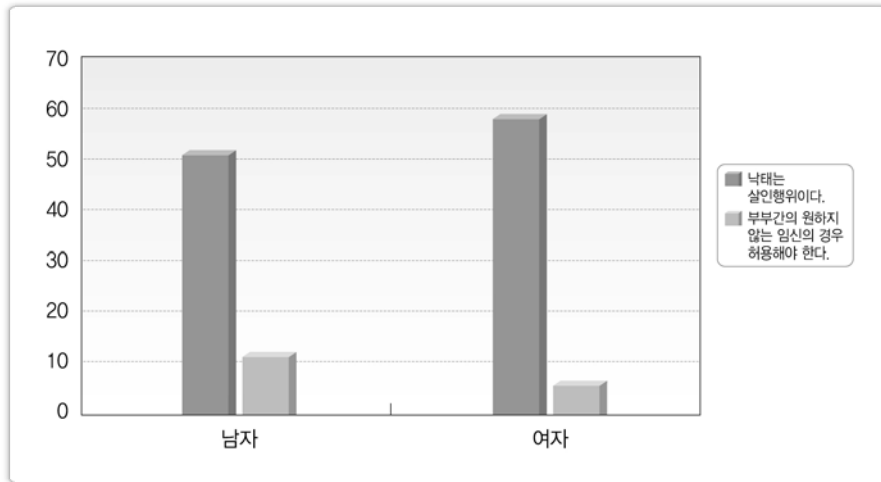
낙태에 대해 ‘낙태는 살인행위이다.’ 56%,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 25%, ‘부부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 8%, ‘잘 모르겠다.’ 7%, ‘모든 선택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 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교구별 낙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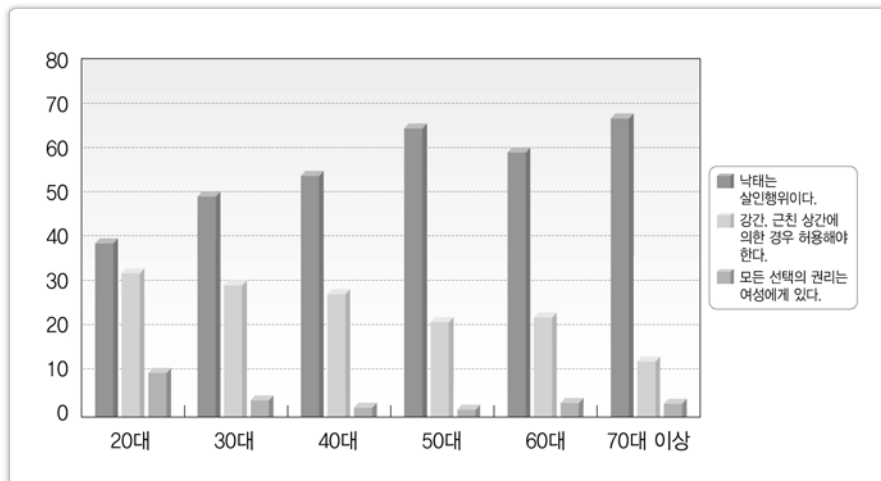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낙태는 살인행위	49.5	51.0	59.1	60.1	57.9	59.0	46.0	59.4	53.7	50.5	72.1	71.7	61.7	58.8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 허용	27.8	24.5	22.1	22.5	28.0	21.3	29.9	23.4	32.7	34.1	16.4	12.0	17.2	25.8
부부간 원치않는 임신도 허용	9.8	11.2	6.5	7.7	5.6	3.2	10.3	6.6	6.1	6.6	8.2	7.6	9.3	6.2
모든 선택의 권리는 여성에게	4.4	3.1	5.2	3.7	2.2	5.9	3.4	3.5	3.4	4.4	1.6	3.3	4.4	4.1
잘 모르겠다.	8.5	10.2	7.1	5.9	6.2	10.6	10.3	7.0	4.1	4.4	1.6	5.4	7.5	5.2

낙태에 대한 신자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 교구에서 ‘낙태는 살인행위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마산과 안동교구의 경우 다른 교구보다 많은 70% 이상의 응답자가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응답하고 있어 특이할만한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2〉 성별 낙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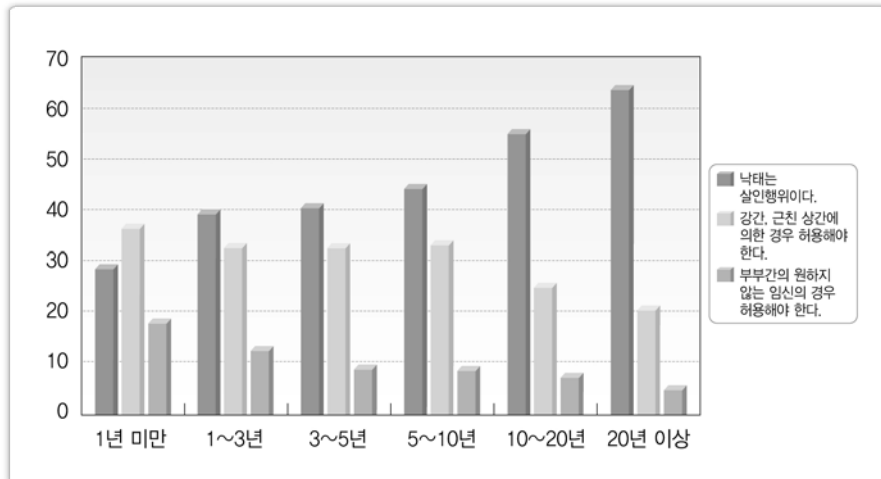
〈그림 31-3〉 연령별 낙태 생각



낙태에 대하여 ‘낙태는 살인행위이다.’와 ‘부부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항목의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는 ‘부부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항목을 여자의 응답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하고 있고, 여자는 ‘낙태는 살인행위이다.’라는 응답을 남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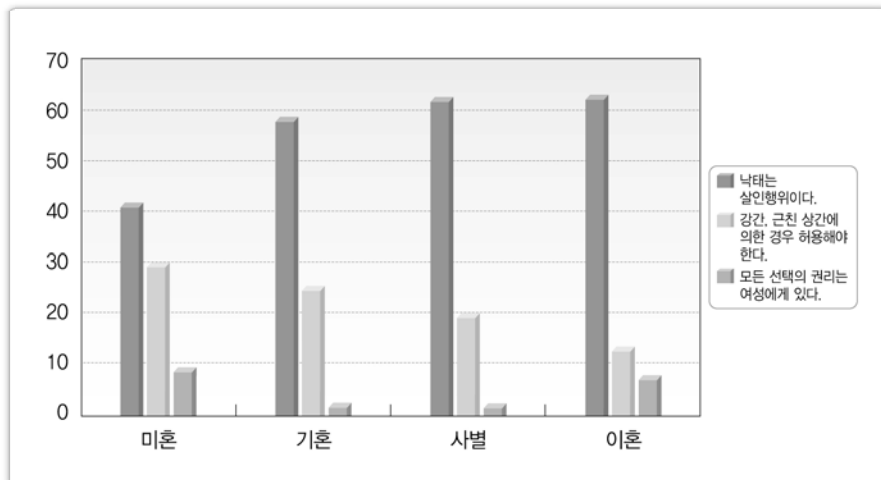
연령별로 낙태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낙태는 살인행위이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나 응답 비율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태는 살인행위’라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아지으나 60대가 응답의 경향성에서 다소 예외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선택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는 응답을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하고 있다.

〈그림 31-4〉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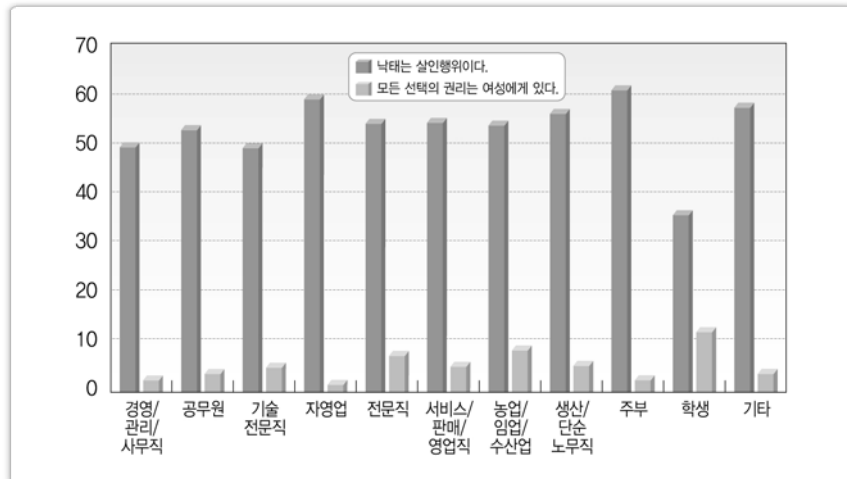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에서만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전체 응답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낙태는 살인행위’를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그림 31-5〉 혼인관계별 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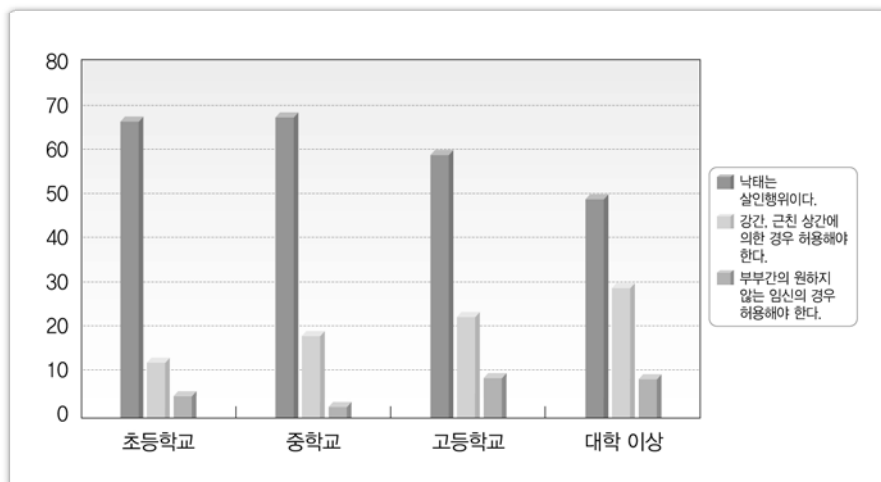
혼인관계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와 ‘모든 선택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는 항목에서 다른 혼인관계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목 간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혼’에서 ‘모든 선택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6〉 직업별 낙태



직업별로 ‘기술전문직’, ‘전문직’, ‘농업·임업·수산업’, ‘학생’ 등이 ‘낙태는 살인행위이다.’라는 응답에 비해 ‘모든 선택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는 문항에 여타의 직업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그림 31-7〉 학력별 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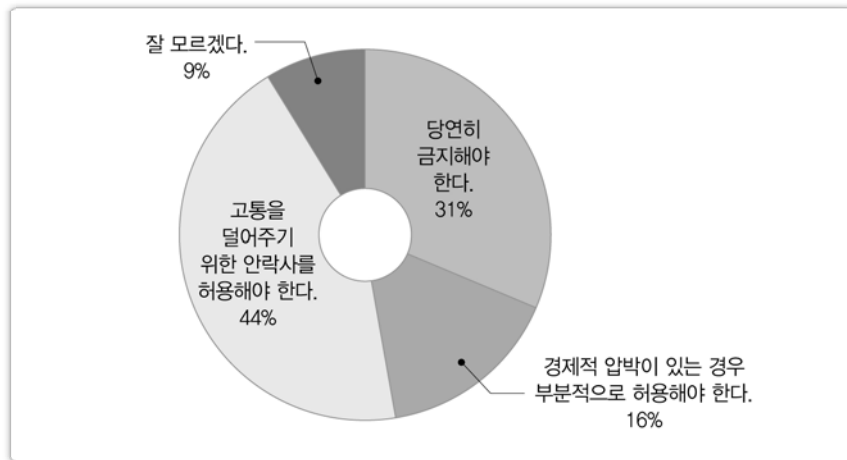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에 ‘중학교’ 학력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3.32 안락사 금지

교회의 안락사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2-1〉 안락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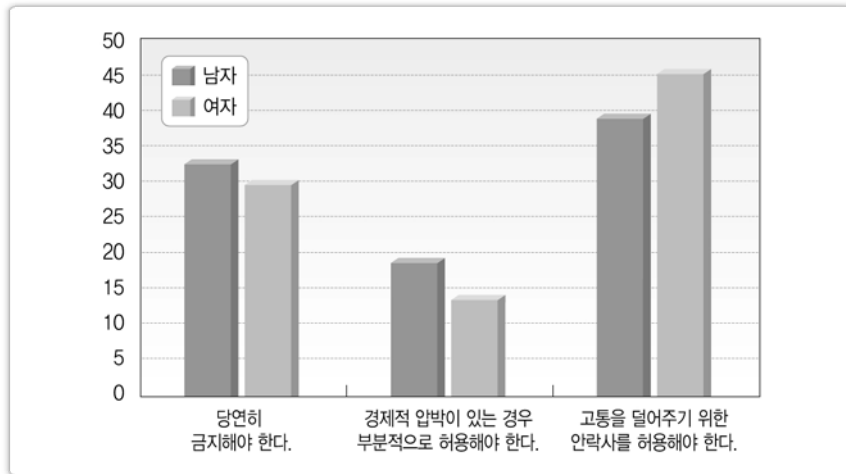
교회의 안락사 금지에 대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44%,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31%, ‘경제적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16%, ‘잘 모르겠다.’ 9% 순으로 나타났다. 60%의 응답자가 안락사의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표 23〉 교구별 안락사 금지에 대한 반응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당연히 금지해야	29.1	27.1	33.5	38.8	30.2	40.1	18.3	30.0	35.1	27.2	38.3	39.4	28.0	38.0
경제적 압박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	15.8	12.5	17.7	11.2	15.1	15.5	15.1	18.6	12.8	18.5	23.3	24.5	19.8	11.0
고통 덜어주기 위해 허용	47.7	45.8	39.2	41.0	44.3	34.8	58.1	42.7	45.3	44.6	36.7	30.9	40.1	39.0
잘 모르겠다.	7.5	14.6	9.5	9.0	10.4	9.6	8.6	8.7	6.8	9.8	1.7	5.3	12.1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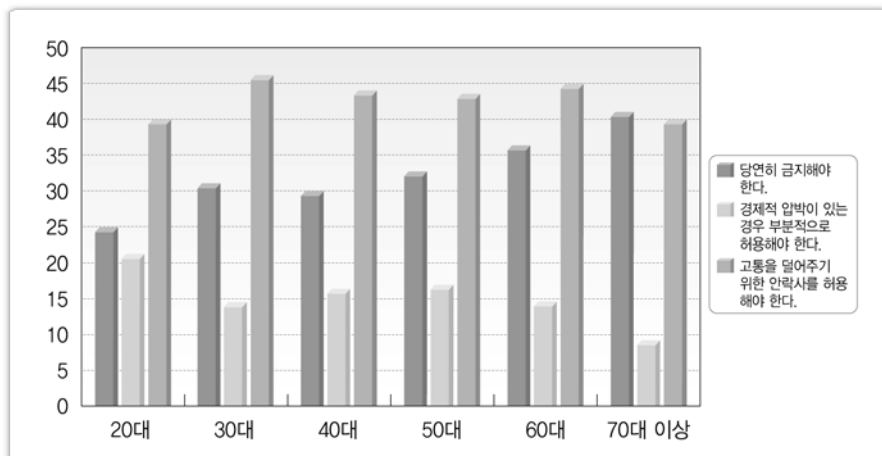
안락사 금지에 관한 신자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원주, 마산, 안동 교구에서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를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광주, 제주 교구에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허용해야 한다.’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이 문항에서는 위의 두 문항의 응답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1,2순위를 차지하였는데 안락사에 대한 신자들의 생각이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 성별 안락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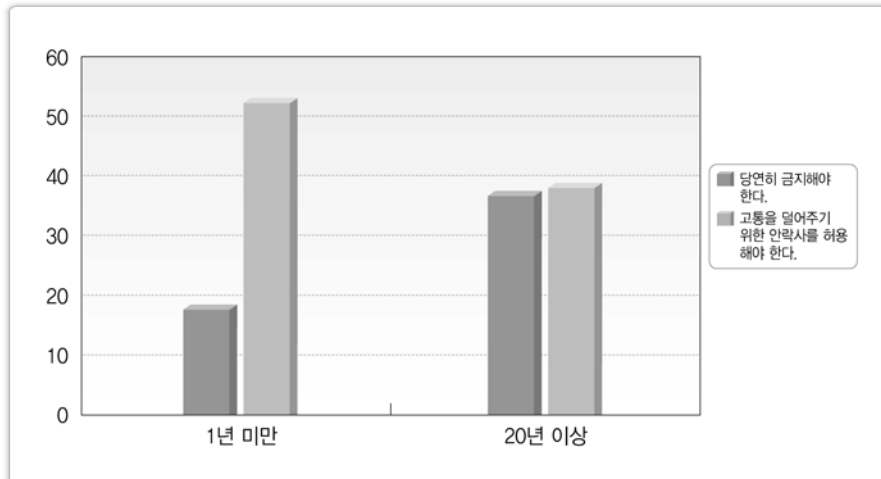
교회의 안락사 금지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와 ‘경제적 압박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항목에 여자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여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남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자는 경제적인 부분, 여자는 심리적인 부분을 이유로 들어 성별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3〉 연령별 안락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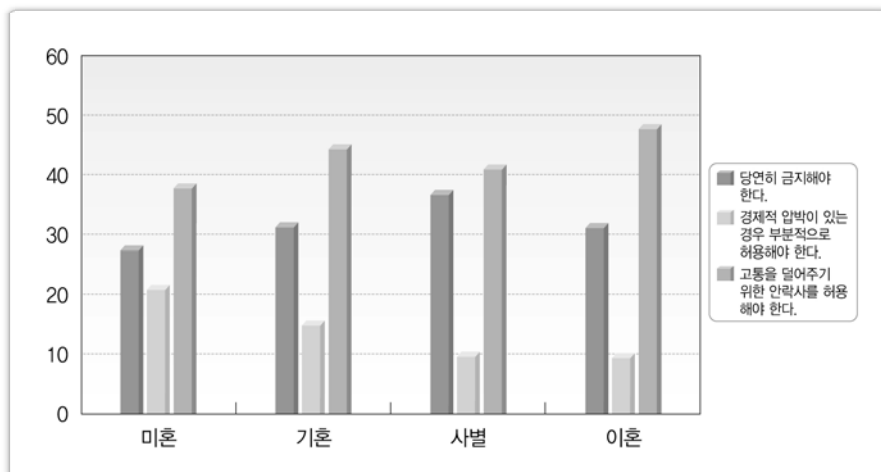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경제적 압박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다. 70대 이상에서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그림 32-4〉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안락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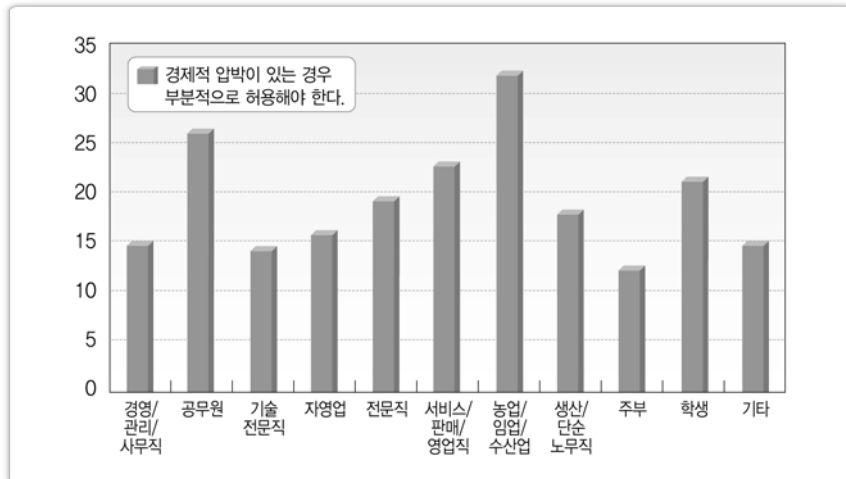
세례 받은 후 경과기간별 특성을 '1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1년 미만'에서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항목에 월등히 높은 응답을 했고, '20년 이상'은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는 항목에 비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를 근소한 차이로 높게 응답하고 있다.

〈그림 32-5〉 혼인관계별 안락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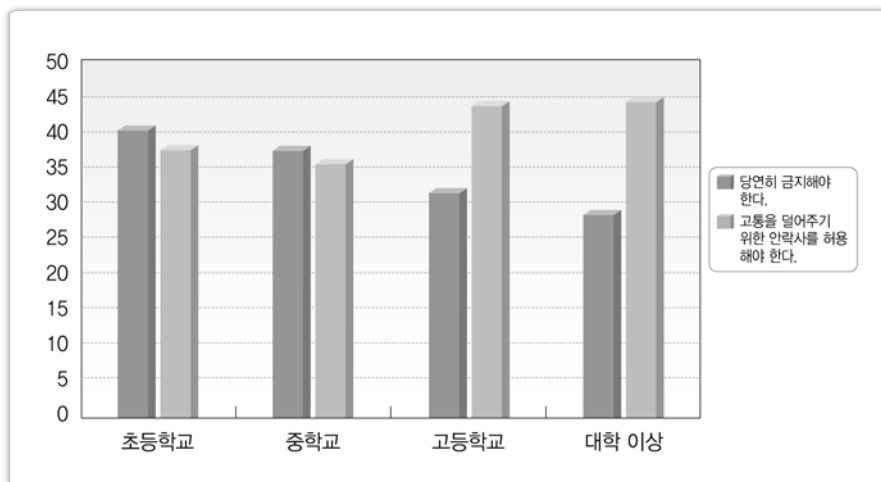
혼인관계별로 안락사 금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경제적 압박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응답했고, '이혼'의 경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그림 32-6〉 직업별 안락사 금지



‘경제적 압박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응답자들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공무원’, ‘서비스·판매·영업직’, ‘농업·임업·수산업’, ‘학생’ 직업군이 여타의 직업군 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그림 32-7〉 학력별 안락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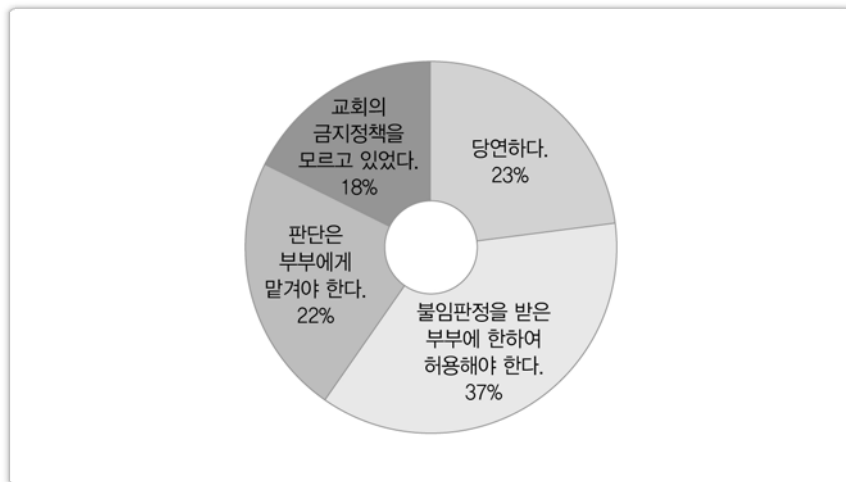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를 ‘고등학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에 더 많은 응답을 하여 학력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3.33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불임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하고 있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교회가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3-1〉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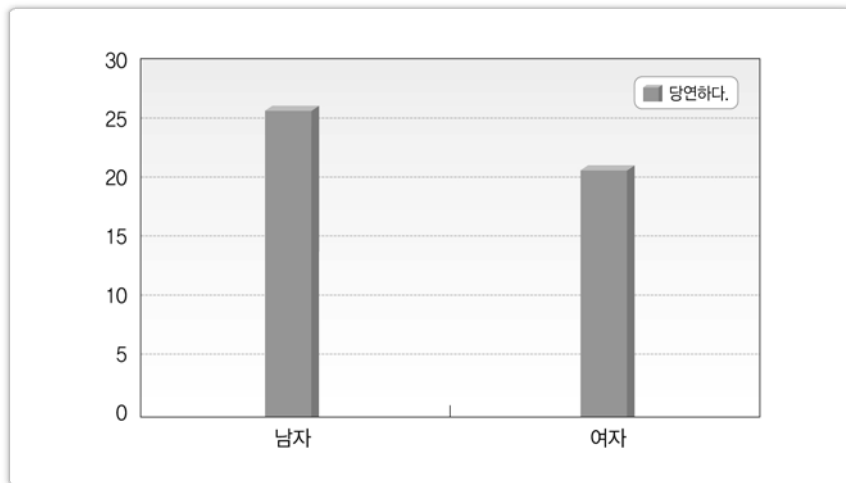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를 교회가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금하는 것에 대해서 ‘불임판정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허용해야 한다.’ 37%, ‘임신과 출산은 부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하다.’ 23%, ‘판단은 부부에게 맡겨야 한다.’ 22%, ‘교회의 금지정책을 모르고 있다.’ 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교구별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금지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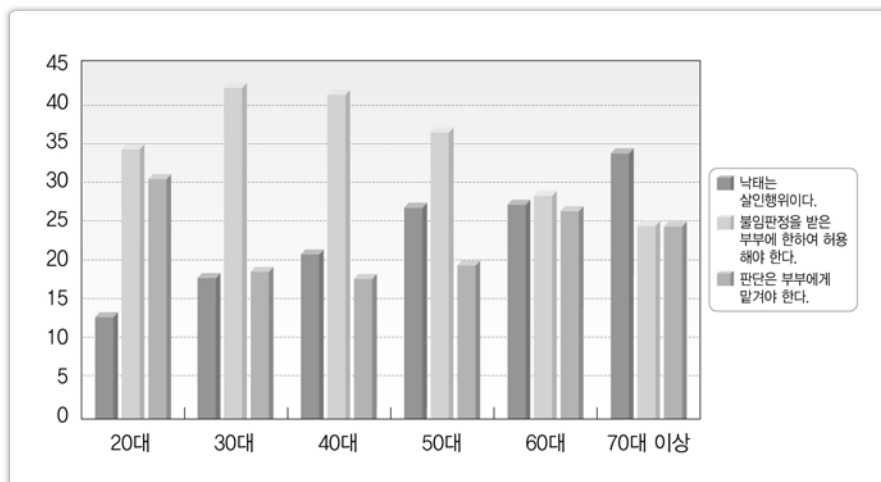
(%)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제주
당연하다	21.1	16.5	17.8	23.7	22.4	28.2	20.2	22.9	25.2	15.4	26.2	28.6	25.6	36.5
불임판정 부부에 한하여 허용	38.0	38.1	36.9	39.1	35.3	36.7	48.3	37.9	35.4	33.0	45.9	35.2	31.2	32.3
판단은 부부에게 맡겨야	23.1	22.7	17.8	20.1	24.3	23.4	13.5	21.7	19.0	26.4	11.5	20.9	28.6	15.6
교회의 금지정책을 모르고 있음	17.8	22.7	27.4	17.2	18.0	11.7	18.0	17.4	20.4	25.3	16.4	15.4	14.5	15.6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에 대한 신자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모든 교구에서 ‘불임판정 부부에 한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의견으로 인천, 원주, 의정부, 대구, 부산, 마산, 안동, 제주 교구에서 ‘임신과 출산은 부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서울, 춘천, 수원, 청주, 광주 교구에서 ‘판단은 부부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전 교구에서는 ‘교회의 금지 정책을 모르고 있다.’라는 응답이 차지하였다. 신자들의 생활에 대한 다른 항목의 질문보다 이 항목의 경우 신자들의 의견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2〉 성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그림 33-3〉 연령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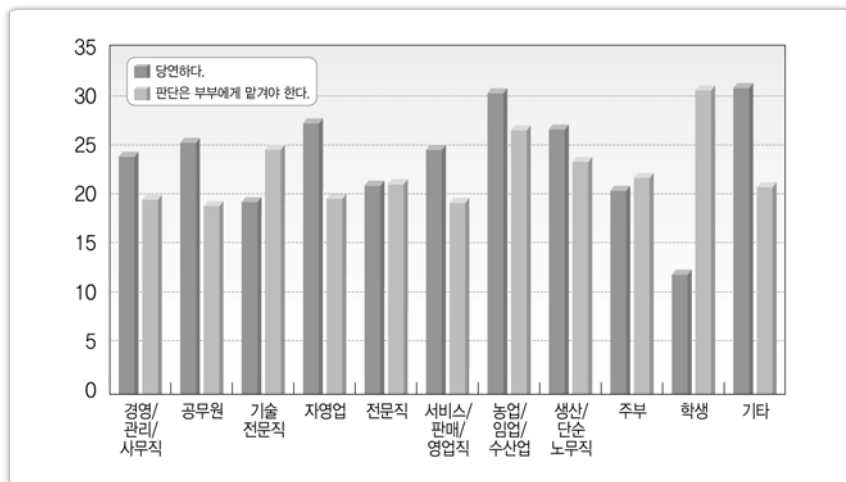


‘임신과 출산은 부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하다.’ 즉 교회에서의 비윤리적 행

위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항목에 ‘여자’에 비해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여타의 질문 문항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교회의 정책에 더 찬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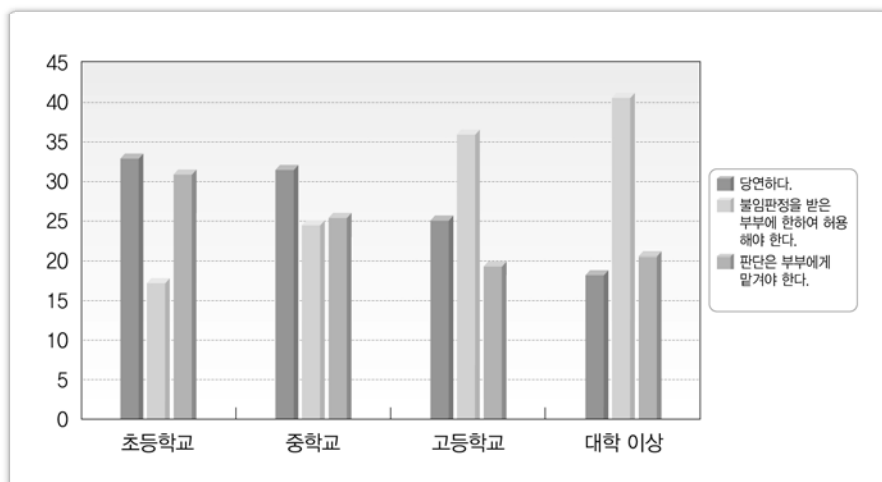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불임판정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당사자로서 직·간접 경험에서 나온 응답 결과로 보인다.

〈그림 33-4〉 직업별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 결과와 다르게 ‘기술전문직’, ‘주부’, ‘학생’은 ‘판단은 부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5〉 학력별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불임판정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로 응답한 것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응답자들은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부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하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다른 문항에 비해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



5. 역대 한국평협 임원명단(1968~2009)

● 한국평협 역대 총재·담당주교·위원장

초대(총재주교)	황민성(黃旻性·베드로)	1968.7~1973.10	대전교구장, 1984.2.13 선종
2대(총재주교)	지학순(池學淳·다니엘)	1973.10~1975.3	원주교구장, 1993.3.12 선종
3대(총재주교)	김재덕(金在德·아우구스티노)	1975.3~1981.4	전주교구장, 1988.6.5 선종
4대(담당주교)	정진석(鄭鎭奭·니콜라오)	1981.11~1984.11	청주교구장
5대(담당주교)	김남수(金南洙·안젤로)	1984.11~1988.3	수원교구장, 2002.6.1 선종
6대(평신도 주교위 위원장)	지학순(池學淳·다니엘)	1988.3~	원주교구장, 1993.3.12 선종

● 한국평협 역대 지도신부

- 초대~2대는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 3대부터 회장 교구평협 지도신부가 겸임

초대	김남수 (안젤로)	1968.7~1973.10
2대	이종홍 (그리산도)	1973.10~1974.9
3대	김득권 (굴리엘모)	1974.9~1978.5
4대	김수창 (야고보)	1978.5~1979.6
5대	오태순 (토마스)	1979.6~1983.5
6대	안상인 (요셉)	1983.5~1985.8
7대	송광섭 (베드로)	1985.8~1990.1
8대	김인성 (요안비안네)	1990.8~1995.9
9대	박기주 (미카엘)	1995.9~1999.10

10대	정월기 (프란치스코)	1999.10~2005.10
11대	민병덕 (비오)	2005.10~

● 한국평협 역대 회장

초대	류홍렬	1968.7~1972.2
2대	이창복	1972.8~1974.8
3대	김기철	1974.8~1980.9
4대	최상선	1980.9~1982.2
5대	엄익채	1982.2~1986.2
6대	한용희	1986.2~1988.1
7대	박정훈	1988.2~1990.1
8대	박정훈	1990.1~1992.1
9대	이관진	1992.2~1994.2
10대	이관진	1994.2~1996.2
11대	류덕희	1996.2~1998.2
12대	류덕희	1998.2~2000.2
13대	여규태	2000.2~2002.2
14대	여규태	2002.2~2004.2
15대	손병두	2004.2~2005.8
16대	한홍순	2006.1~2008.1
17대	한홍순	2008.1~2010.1
18대	최홍준	2010.1~현재

● 한국평협 역대 임원

- 팔호 안은 소속 교구 및 전국 단체
- 각 부·차장 및 분과위원은 서울평협 임원이 겸임

1968년~1969년

회 장 : 류홍렬(서울)
부 회 장 : 이태재(대구), 김양순(여성연)
감 사 : 김남동(광주·레지오), 이원교(저널리스트)

1970년~1971년

회 장 : 류홍렬(서울)
부 회 장 : 이태재(대구), 김인자(서울·여성연)
감 사 : 이원교(저널리스트), 박주웅(광주)
사무국장 : 제희우(서울)

1972년~1973년

회 장 : 이창복(수원)
부 회 장 : 김성수(대전), 김인자(서울·여성연)
감 사 : 이원교(저널리스트), 박주웅(광주)
사무국장 : 이창복(JOC)

1974년~1975년

회 장 : 김기철(서울)
부 회 장 : 조성호(전주), 곽영자(대전)
감 사 : 박희섭(서울), 김태수(마산)
상임위원 : 서정열(서울), 황기석(대구), 남규일(부산), 정인숙(JOC)
사무국장 : ① 이승화(서울), ② 이승우(서울)

1976년~1977년

회 장 : 김기철(서울)
부 회 장 : 한몽연(서울), 조성호(전주), 곽영자(대전)
상임위원 : 한병은(서울), 정인숙(서울), 김용배(수원), 임학권(대구), 이우근(원주),
남규일(부산), 이상근(광주), 최병욱(대전), 김성수(대전), 이종국(청주)
감 사 : 박희섭(서울), 김태수(마산)

사무국장 : 차근호(서울)
총무부장 : 하승백, 차장 : 홍현동
재정부장 : 김성진, 차장 : 남규백
조직부장 : 박상진, 차장 : 유호빈, 정인숙
교육부장 : 이동일, 차장 : 이기안
홍보부장 : 제희우, 차장 : 이견일
부녀부장 : 오수안, 차장 : 고희원, 김경란

1978년

회 장 : 김기철(서울)
부 회 장 : 한몽연(서울), 조성호(전주)
감 사 : 박희섭(서울)
상임위원 : 한병은(서울), 정인숙(서울), 임학권(대구), 이우근(원주), 남규일(부산),
주채환(광주), 최병욱(대전), 김성수(대전), 이종국(청주), 김용배(수원)
사무국장 : 유근성
총무부장 : 하승백, 차장 : 홍현동
재정부장 : 김성진, 차장 : 원종우
조직부장 : 박상진, 차장 : 유호빈, 정인숙
교육부장 : 이동일, 차장 : 이기안, 이규만
홍보부장 : 김한수, 차장 : 성 염, 장외소
섭외부장 : 남규백, 차장 : 조동래
부녀부장 : 오수안, 차장 : 김경란, 고희원

1979년~1981년

회 장 : 김기철(서울)
부 회 장 : 조성호(전주), 임학권(대구), 유계완(여성연)
감 사 : 김인성(원주), 유진훈(대전)
사무총장 : 하승백
상임위원 : 박남훈(광주), 김용연(원주), 황백규(수원), 이종국(청주), 김성수(대전),
권종근(부산), 김무중(안동), 박재석(마산), 김봉순(JOC), 최병욱(농민회),
한병은(빈첸시오회), 정일천(의사회), 김용희(학생회), 임봉재(농민회),

정옥동(서울·레지오), 이순재(광주·레지오)

총무부장 : 홍현동, 차장 : 김태원

재정부장 : 김성진, 차장 : 원종우

교육부장 : 이동일, 차장 : 이기안, 윤응격, 이종남

홍보부장 : 김한수, 차장 : 성 엽

조직부장 : 박상진, 차장 : 유호빈, 이성오, 김순일

섭외부장 : 남규백, 차장 : 조동래, 오용길

부녀부장 : 김정란, 차장 : 고희원, 김옥주

1982년~1983년

회 장 : 엄익채(서울)

부 회 장 : 김한수(서울), 권순기(대구), 서용진(광주), 이춘열(레지오), 오수안(군중후원회)

감 사 : 노병건(인천), 한상갑(전주)

사무총장 : 홍현동

상임위원 : 하승백(서울), 김인근(수원), 유진훈(대전), 강완기(대전), 이종국(청주),

강준모(부산), 감도천(마산), 김 호(춘천), 박화용(원주), 김대영(안동),

여종환(제주), 김 현(저널리스트), 서경원(농민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장 : 이준영, 위원 : 원종우, 이남형, 김태술

선교분과 위원장 : 유정목, 위원 : 이선주, 이종남, 이성오, 정덕희

사회선도분과 위원장 : 이기안, 위원 : 송영기, 정하일, 정갑도, 정길택, 이상열

청소년분과 위원장 : 정대식, 위원 : 유영문, 서영호, 박재명

섭외홍보분과 위원장 : 조국진, 위원 : 김해진, 김영걸, 백남식, 이종운

여성분과 위원장 : 김정란, 위원 : 김옥주, 손영옥

간 사 : 김태원

서 기 : 임혜경

1984년~1985년

회 장 : 엄익채(서울)

부 회 장 : 하승백(서울), 이태재(대구), 이상근(광주), 김 현(저널리스트), 박순기(여성연)

감 사 : 김현수(청주), 강준모(부산)

사무총장 : 1984년 이준영(서울), 1985년 이귀철(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 : 류호석, 부위원장 : 송명식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정연철, 부위원장 : 윤태경
출판위원회 위원장 : 허필수, 부위원장 : 한용환
행사위원회 위원장 : 황학주, 부위원장 : 김인배, 위원 : 김오득, 한홍렬, 김규상, 유구영, 박기성
사회정의위원회 위원장 : 김말룡
간 사 : 김태원
서 기 : 임혜경

1986년~1987년

회 장 : 한용희(서울)
부 회 장 : 황백규(수원), 최 일(인천), 홍일부(마산), 김 현(저널리스트), 박애주(여성연)
감 사 : 이재복(안동), 김인협(전주)
사무총장 : 이귀철(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 : 류호석, 부위원장 : 송명식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정연철, 부위원장 : 윤태경
출판위원회 위원장 : 허필수, 부위원장 : 한용환
행사위원회 위원장 : 황학주, 부위원장 : 김인배, 위원 : 김오득, 안홍렬, 김규상, 유구영, 박기성
사회정의위원회 위원장 : 김말룡, 부위원장 : 양승규,
위원 : 장문영, 조 광, 구중서, 이길재, 김지현, 하경철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임진창, 부위원장 : 한홍순
간 사 : 김태원
서 기 : 서덕희, 김은경

1988년~1989년

회 장 : 박정훈(서울)
부 회 장 : 황기석(대구), 정태일(광주), 우건석(수원), 남중화(서울·레지오),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 김인성(원주), 김근태(인천)
상임위원 : 박정훈(서울), 윤주원(춘천), 정순택(대전), 김근태(인천), 우건석(수원), 김인성(원주),
황기석(대구), 장혁표(부산), 최동식(청주), 심병직(마산), 조기선(안동), 정태일(광주),
안득수(전주), 김창유(제주), 이소우(간호협회), 김성진(꾸르실료), 김종성·허숙영(JOC),
김상덕(농민회), 나종천(맹인선교회), 박용일 신부(성령봉사회), 이관진(실업인회),

박애주(여성연합회), 안용팔(의사협회), 정달영(언론인회), 남중화(서울·레지오),
김영대(광주·레지오), 이금중·황정원(M.E.), 최 일(빈첸시오회), 최시동 신부(MBW)
사무국장 : 강주희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 한홍순
교육분과 위원장 : 최홍준
출판분과 위원장 : 허필수, 부위원장 : 한용환
간 사 : 김태원
서 기 : 서덕희, 김은경

1990년~1991년

회 장 : 박정훈(서울)
부 회 장 : 문형만(광주), 이관진(서울), 임학권(대구), 우건석(수원), 오덕주(여성 연합회),
남중화(서울 세나투스)
감 사 : 김근태(인천), 김인성(원주)

1992년~1993년

회 장 : 이관진(서울)
부 회 장 : 한홍순(서울), 김상덕(광주), 임학권(대구), 조태로(수원),
조궁양(레지오 마리에 서울 세나투스), 신남숙(여성 연합회)
감 사 : 김청유(제주), 신현대(인천)
사무국장 : 류덕희

1993년 상임위원회(4.17-18)에서의 임원개선

부회장 : 정정순(여성연합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오용길
기획분과위원장 : 정구영
사회정의분과위원장 : 김진석

1994년~1995년

회 장 : 이관진(10대 평협회장으로 재선임)

감 사 : 박선흥(제주), 김건일(인천)
임 원 : 전원 유임됨

1996년~1997년

회 장 : 류덕희(서울)
부 회 장 : 김영진(광주), 손인호(대구), 유양수(꾸르실료), 강형일(서울 세나투스),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 김건일(인천), 박선흥(제주)
사무총장 : 박찬도
자문위원 : 한홍순(서울), 손춘수(마산), 장혁표(부산), 황의옥(전주), 오만진(대전), 신치구, 허 기,
김형중
기획분과위원장 : 이홍균
교육분과위원장 : 조천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김영복
홍보분과위원장 : 이충우
문화분과위원장 : 최홍준
청소년분과위원장 : 서만교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양정조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이진록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류정묵

1998년

회 장 : 류덕희(서울)
부 회 장 : 김기주(광주), 최옥식(대구), 유양수(꾸르실료), 강형일(서울 세나투스),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 안병희(부산), 황재웅(수원)
사무총장 : 강주희
상임위원 : 장덕진(실업인회), 박애주(여성연합회), 유양수(꾸르실료), 강형일(레지오 마리아(서울)),
강수길·오미호(ME), 김기주(광주), 이병철(대전), 김서곤(마산), 박인환(수원),
오영창(안동), 정운주(원주), 남기충(인천), 김형열(전주), 김경환(제주), 이기천(춘천),
양천진(청주), 유재열(군중)
사회교리실천본부장 : 강주희

대희년준비위원장 : 최홍준
복음화특별위원장 : 김형중
민족화해특별위원장 : 윤갑구
기획분과위원장 : 최홍준
교육분과위원장 : 김길성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최광석
홍보분과위원장 : 이윤자
문화분과위원장 : 강수길
청소년분과위원장 : 서만규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이흥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윤 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류정묵

1999년

회 장 : 류덕희(서울)
부 회 장 : 김기주(광주), 최옥식(대구), 유양수(꾸르실료), 강형일(레지오마리에 서울),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 안병희(부산), 황재웅(수원)
사무총장 : 강주희(서울)
상임위원 : 변평섭(대전), 김서곤(마산), 이규정(부산), 황재웅(수원), 오영창(안동), 정운주(원주),
권돈구(인천), 김형열(전주), 김경환(제주), 이명원(춘천), 양천진(청주), 노연웅(군중),
여규태(실업인회), 김금숙(여성연합회), 이광호(꾸르실료), 강형일(레지오 마리에, 서울),
강수길·오미호(ME)
사회교리실천본부 본부장 : 강주희
기획분과위원장 겸 대희년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홍준
복음화특별위원회위원장 : 김형중
민족화해특별위원회위원장 : 윤갑구
교육분과위원장 : 김길성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최광석
문화분과위원장 : 강수길
홍보분과위원장 : 이윤자
청소년분과위원장 : 서만규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윤 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류정묵

2000년

회 장 : 류덕희(서울)

부 회 장 : 김기주(광주), 최옥식(대구), 유양수(꾸르실료), 강형일(레지오마리아에 서울),
박애주(여성연합회)

감 사 : 이규정(부산), 황재웅(수원)

사무총장 겸 사회교리실천본부 본부장 : 강주희

상임위원 : 여규태(서울), 마정웅(대구), 변평섭(대전), 김 철(마산), 이규정(부산), 황재웅(수원),
오영창(안동), 김정하(원주), 권돈구(인천), 위상양(전주), 김경환(제주), 경한석(청주),
노연웅(군중), 여규태(실업인회), 김금숙(여성연합회), 이광호(꾸르실료),
강형일(레지오 마리아·서울), 강수길·오미호(ME)

기획분과위원장 겸 대희년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홍준

복음화특별위원회위원장 : 김형중

민족화해특별위원회위원장 : 윤갑구

교육분과위원장 : 김길성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최광석

문화분과위원장 : 강수길

홍보분과위원장 : 이윤자

청소년분과위원장 : 서만규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윤 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류정묵

2001년

회 장 : 여규태(서울)

부 회 장 : 김기수(서울), 마정웅(대구), 김기주(광주), 권돈구(인천), 황재웅(수원),
류길성(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김영대(한국 중개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광주),
최창주(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감 사 : 경한석(청주), 오영창(안동)

사무총장 : 최홍준

상임위원 : 이명원(춘천), 위상양(전주), 이규정(부산), 변평섭(대전), 김정하(원주), 김 철(마산),
김정환(제주), 노연웅(군중), 박광순(한국 가톨릭 실업인회),
김금숙(한국 가톨릭 여성연합회), 최창주(꾸르실로 한국 협의회),
류길성(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조 덕·이명순(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복음특별화위원장 : 김영대

사회교리실천본부장 : 마정웅

기획분과위원장 : 김용수

교육분과위원장 : 정동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 김영걸

문화분과위원장 : 이원복

청소년분과위원장 : 조한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윤 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류정목

2002년

회 장 : 여규태(서울)

부 회 장 : 김기수(서울), 마정웅(대구), 조종현(광주), 송성복(춘천), 위상양(전주), 이종길(부산),
오희철(대전), 양철화(수원), 엄증관(원주), 김철(마산), 박영조(안동), 김항원(제주),
김중환(군중), 류길성(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김영대(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광주), 홍화순(꾸르실로 한국 협의회), 오덕주(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감 사 : 경한석(청주), 권돈구(인천)

상임위원 : 박광순(한국 가톨릭 경제인회), 오덕주(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홍화순(꾸르실로 한국 협의회), 류길성(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조 덕·이명순(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칼로이 아단, 엄선자(마리아사업회),
김대균(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사무총장 : 최홍준

복음화특별위원장 : 김영대

사회교리실천본부장 : 마정웅

민족화해특별위원장 : 이명원
기획분과위원장 : 김용수
교육분과위원장 : 정동규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 김영걸
문화분과위원장 : 이원복
청소년분과위원장 : 조한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이흥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윤 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류정묵

2003년

회 장 : 여규태(서울)
부 회 장 : 김기수(서울), 마정웅(대구), 조종현(광주), 송성복(춘천), 위상양(전주), 이정우(부산),
오희철(대전), 양철화(수원), 엄증관(원주), 김 철(마산), 박영조(안동), 김항원(제주),
김종환(군중), 류길성(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김영대(한국 중개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광주), 홍화순(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오덕주(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감 사 : 경한석(청주), 권돈구(인천)
사무총장 : 최홍준
상임위원 : 칼로이 아단, 엄선자(마리아사업회), 김대군(한국 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박광순(한국 가톨릭 경제인회), 오덕주(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홍화순(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류길성(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조 덕·이명순(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민족화해특별위원장 : 이명원
복음화특별위원장 : 황재웅
사회교리실천본부장 : 오영창
기획분과위원장 : 김용수
교육분과위원장 : 정동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 김영걸
문화분과위원장 : 이종상
청소년분과위원장 : 박철용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이홍균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윤 학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류정묵

2004년

회 장 : 손병두(서울)

부 회 장 : 한홍순(서울), 이용기(대구), 조종현(광주), 안병철(수원), 오덕주(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홍화순(한국꾸르실료협의회), 장무웅, 김정희(한국ME)

감 사 : 서동호(전주), 박용기(마산)

사무총장 : 최홍준

상임위원 : 김승선(춘천), 이정우(부산), 김명중(대전), 변광수(청주), 김용식(인천), 원규희(원주),
박영조(안동), 송상순(제주), 김종환(군중), 팽종섭(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
전재옥(광주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박기탁(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장무웅, 김정희(한국ME), 홍화순(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오덕주(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김대군(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한국 가톨릭경제인회, 칼로이 아단,
엄선자(마리아사업회)

기획분과위원장 : 정준섭

재정분과위원장 : 김철중

복음화분과위원장 : 배한동

교육분과위원장 : 조천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이윤식

홍보분과위원장 : 김진복

문화분과위원장 : 김천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 이동훈

노년분과위원장 : 김일현

청소년분과위원장 : 박철용

여성분과위원장 : 남인숙

사회사목분과위원장 : 조성갑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김기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 김현욱

2005년

회 장 : 손병두(서울)

부 회 장 : 한홍순(서울), 이용기(대구), 조종현(광주), 안병철(수원), 오덕주(여성연합회),
홍화순(꾸르실료), 장무웅·김정희(한국 ME대표)

감 사 : 서동호(전주), 박용기(마산)

사무총장 : 최홍준

상임위원 : 김승선(춘천), 이정우(부산), 김명중(대전), 변광수(청주), 김용식(인천), 원규희(원주),
박영조(안동), 송상순(제주), 김종환(군중), 팽종섭(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전재옥(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광주)),
박기탁(레지오 마리아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장무웅·김정희(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홍화순(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오덕주(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김대군(한국 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공석)한국 가톨릭 경제인회, 칼로이 아단(마리아사업회(남)), 엄선자(마리아사업회(여))

기획분과위원장 : 정준섭

재정분과위원장 : 김철중

복음화분과위원장 : 배한동

교육분과위원장 : 조천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이윤식

홍보분과위원장 : 김진복

문화분과위원장 : 김천수

가정사목위원장 : 이동훈

노년분과위원장 : 김일현

청소년분과위원장 : 박철용

여성분과위원장 : 남인숙

사회사목분과위원장 : 조성갑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김기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 김현욱

2006년

회 장 : 한홍순(서울)

부 회 장 : 이용기(대구), 조종현(광주), 안병철(수원), 오덕주(여성연합회), 홍화순(꾸르실료),
장무웅, 김정희(한국 ME)
감 사 : 서동호(전주), 박용기(마산)
사무총장 : 최홍준
상임위원 : 서울 한홍순(서울), 김승선(춘천), 김명중(대전), 고흥철(인천), 원규희(원주),
이정우(부산), 변광수(청주), 강희용(안동), 정기수(광주), 송상순(제주),
칼로이 아단(마리아사업회(남)), 엄선자(마리아사업회(여)),
김대군(한국 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박광순(한국 가톨릭 경제인회),
오덕주(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심재기(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팽종섭(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박기탁(레지오 마리아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장무웅·김정희(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기획분과위원장 : 정준섭
재정분과위원장 : 김철중
복음화분과위원장 : 배한동
교육분과위원장 : 조천제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이윤식
홍보분과위원장 : 김진복
문화분과위원장 : 김천수
가정사목위원장 : 이동훈
노년분과위원장 : 김일현
청소년분과위원장 : 박철용
여성분과위원장 : 남인숙
사회사목분과위원장 : 조성갑
정의평화분과위원장 :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김기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 김현욱

2007년

회 장 : 한홍순(서울)
부 회 장 : 오덕주(여성연합회), 이용기(대구), 정기수(광주), 김 홍(한국가톨릭언론인회),
정은화(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감 사 : 박용기(마산), 서동호(전주)

사무총장 : 최홍준

상임위원 : 김승선(춘천), 김명중(대전), 최중우(인천), 안병철(수원), 윤봉옥(원주), 이정우(부산),
정영근(청주), 박용기(마산), 강희용(안동), 서동호(전주), 송상순(제주),
엄선자(마리아사업회(여)), 오태순(한국 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심재기(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전재옥(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광주)),
팽종섭(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박기탁(레지오 마리아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이윤식·조윤숙(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기획분과 : 박순석

기획분과위원장 : 박경수

재정분과위원장 : 김철중

선교분과위원장 : 김길성

교육분과위원장 : 권길중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 유연채

문화분과위원장 : 조남진

노년분과위원장 : 최종계

가정분과위원장 : 오현희

청소년분과위원장 : 천인옥

여성분과위원장 : 박문자

사회복지위원장 : 조화영

정의평화위원장 :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이광호

환경분과위원장 : 한상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 유호열

2008년

회 장 : 한홍순(서울)

부 회 장 : 오덕주(여성연합회), 이용기(대구), 정기수(광주), 김 홍(한국가톨릭언론인회),
정은화(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감 사 : 박용기(마산), 서동호(전주)

사무총장 : 최홍준(서울)

상임위원 : 김승선(춘천), 김윤성(대전), 최중우(인천), 정태경(수원), 윤봉옥(원주), 이해도(대구),

이정우(부산), 정영근(청주), 김대환(안동), 송상순(제주), 김관진(군중),
심재기(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이해도(레지오 마리에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엄선자(마리아사업회(여)), 팽중섭(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오태순(한국 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권경수(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이윤식·조윤숙(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기획분과위원장 : 박순석
재정분과위원장 : 김철중
선교분과위원장 : 김길성
교육분과위원장 : 권길중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 유연채
문화분과위원장 : 조남진
노년분과위원장 : 최종계
가정분과위원장 : 오현희
청소년분과위원장 : 천인옥
여성분과위원장 : 박문자
사회복지위원장 : 조화영
정의평화위원장 : 김어상
도농협력분과위원장 : 이광호
환경분과위원장 : 한상준
민족화해분과위원장 : 유호열

2009년

회 장 : 한홍순(서울)
부 회 장 : 이해도(대구), 정기수(광주), 권경수(여성연합회), 김지영(한국가톨릭언론인회),
이윤식(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감 사 : 강신근(마산), 최종우(인천)
사무총장 : 강용대(서울)
상임위원 : 김춘배(춘천), 김윤성(대전), 정태경(수원), 이병두(원주), 이해도(대구), 장춘길(부산),
정업택(청주), 김대환(안동), 강상근(전주), 송상순(제주), 황의돈(군중),
문원주(마리아사업회(여)), 이광미(한국 가톨릭 미술가협회),
최철수(한국 가톨릭 경제인회), 홍화순(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전재옥(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광주), 팽종섭(무염시대 세나투스(서울)),
이해도(레지오 마리아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이윤식·조운숙(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김명관(한국 지속적인 성체 조배봉사자 협의회),
임경수(한국 가톨릭 교수협의회)

기획위원장 : 박순석

선교위원장 : 김길성

교육위원장 : 권길중

문화위원장 : 임영숙

홍보위원장 : 유연채

노년위원장 : 최종계

가정위원장 : 오현희

사회적관심위원장 : 김어상

여성위원장 : 박문자

청소년위원장 : 천인옥

도농생명환경위원장 : 박상조

민족화해위원장 : 유호열

국제협력위원장 : 이정희